




한국일본연구단체 제11회 국제학술대회 (한국일본학회 창립 50주년 제104회)

「한국일본학회 창립 50주년과 일본연구의 좌표:
공생과 연대를 향해」



- 일시 : 2022년 8월 26일(금) 09:00~18:00
- 장소 : 동국대학교 (대면 및 ZOOM을 통한 온라인 실시간 학술대회)
- 주최 : 한국일본학회·한일언어학회·한국일본문학회·한일정경사회학회·한국일본역사문화학회·한국일어교육학회·한국일본교육학회·한국일본어통번역학회·가천대아시아문화연구소·경희대학교글로벌류큐오키나와연구소·고려대학교글로벌일본연구원·동국대학교일본학연구소·동의대학교동아시아연구소·서울대학교일본연구소·부산대학교일본연구소·숙명여자대학교인문학연구소·인천대학교일본문화연구소·중앙대학교일본연구소·한림대학교일본학연구소·한양대학교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 주관 : 한국일본학회·동국대학교·한림대일본학연구소HK+사업단
- 후원 : 일본국제교류기금  · 한국연구재단  · 公益財団法人 東芝国際交流財団 · 사단법인 한일협회 

한국일본연구단체

Japanese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일 정

- ◎ 온라인 접속 및 점검 09:00~09:30
- ◎ [제1부] 일반 학술발표 및 분과별 학술심포지엄 09:30~12:00
- ◎ 점심시간 12:00~13:00
- ◎ [제2부] 개회식 및 국제학술심포지엄 13:00~17:30

개회식 및 국제학술심포지엄			
1	13:00~13:20	개회사 및 축사	<p>정 병 호 (한국일본연구단체 대표, 한국일본학회 회장)</p> <p>윤 재 석 (한국일어일문학회 회장)</p> <p>加 藤 剛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소장)</p> <p>大森圭介 (東芝国際交流財団)</p>
	13:20~14:30	기조강연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일본학회 50년과 일본연구〉</p> <p>김 환 기 (한국일본학회50주년기념위원회위원장)</p> <p>大橋毅彦 (昭和文学会 前代表幹事)</p> <p>이 진 한 (한국사연구회회장)</p>
2	14:30~17:30	기획발표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 일본연구의 좌표: 공생과 연대를 향해〉</p> <p>松田利彦 (国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教授)</p> <p>佐藤嘉幸 (筑波大学教授)</p> <p>김 영 근 (고려대학교 교수)</p> <p>金 成 玟 (北海道大学教授)</p> <p>이주리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p>

- ◎ 연구윤리교육 및 정기총회 17:30~18:00

학술 발표장 안내

발표장	분야	장소
제 1 발표장	개회식 및 학회창립 50주년기념식, 국제학술심포지엄	혜화관 고순청 세미나실 (온라인 병행)
제 2 발표장	한일언어학회 패널	온라인
제 3 발표장	한국일본문학회, 경희대글로벌류큐오키나와연구소 기획발표	온라인
제 4 발표장	한일정경사회학회, 한양대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기획발표	혜화관 324 (온라인 병행)
제 5 발표장	한국일본역사문화학회, 고려대학교글로벌일본연구원 기획발표	혜화관 337 (온라인 병행)
제 6 발표장	일본어교육분과 심포지엄	온라인
제 7 발표장	한국일본교육학회 (제141차 하계학술발표회)	온라인
제 8 발표장	일본어통번역분과 심포지엄	온라인
제 9 발표장	고려대학교글로벌일본연구원 패널	혜화관 339
제 10 발표장	일본문학분과	혜화관 304
제 11 발표장	동국대일본학연구소	혜화관 328
제 12 발표장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패널	온라인
제 13 발표장	일본어학·일본어교육분과 일반발표	혜화관 315 (온라인 병행)
제 14 발표장	일본학분과 일반발표1	온라인
제 15 발표장	일본학분과 일반발표2	온라인

* 온라인 접속 각 발표장 URL 및 프로시딩은 학회홈페이지(www.kaja.or.kr) 공지 참고

* 휴게실 혜화관 342

학술대회 프로그램

개회식 및 국제학술심포지엄

제 1 발표장 개회식 및 국제학술심포지엄

개회식			
사회: 임태균(성결대)			
1	13:00~ 13:20	개회사	정병호 (한국일본연구단체 대표·한국일본학회 회장)
2		축사	윤재석 (한국일어일문학회 회장)
3			加藤剛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소장)
4			大森圭介 (東芝国際交流財団)

국제학술심포지엄: <한국일본학회 창립 50주년과 일본연구의 좌표: 공생과 연대를 향해>

순서	시 간	발 표 자	주 제	토론자
----	-----	-------	-----	-----

기초강연 <한국일본학회 50년과 일본연구>

사회: 임태균(성결대)

1	13:20~ 14:30	김환기 (한국일본학회50주년 기념위원회위원장)	<한국일본학회> 50년과 디지로그(digilog) 시대의 일본연구
2		大橋毅彦 (昭和文学会 前代表幹事)	<共生>と<連帯>の可能性に向けての小田実からの問いかけ
3		이진한 (한국사연구회회장)	한국인의 이해와 새로운 한일관계의 모색

기획발표 <한국 일본연구의 좌표: 공생과 연대를 향해>

사회: 이지형(숙명여대)

1	14:30~ 17:30	松田利彦 (国際日本文化研究 センター)	二つの震災、二つのマイノリティ -阪神淡路大震災と東日本大震災における 外国籍マイノリティ-	이한정 (상명대)
2		佐藤嘉幸 (筑波大)	福島第一原発事故への責任=応答可能性と グローバルな連帯	신하경 (숙명여대)
3		김영근 (고려대)	東アジアにおける安全と和解学を模索する -災難・安全アジェンダの日韓協力を中心に-	오가타 요시히로 (후쿠오카대)
4		金成玟 (北海道大)	日韓の文化的融合と相互作用 -J-POPとK-POPのカテゴリー化を中心に-	김효진 (서울대)
5		이주리에 (이화여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통역과 교육 -음성인식 활용을 중심으로-	최소영 (한국외대)

한국일본연구단체 기획 및 분과별 학술심포지엄

제2 발표장 한일언어학회 패널

주관: 한일언어학회

좌장: 이경철(동국대)

순서	시 간	발 표 자	주 제	토론자
사회: 권영성(청주대)				
1	10:00~ 10:30	맹요 (동국대대학원)	마광운경 진섭운의 자음형에 대하여	하소정 (삼육대)
2	10:30~ 11:00	유예진 (삼육대)	Stata를 활용한 ‘~といつか’의 문법화(文法化) 분석	한정연 (서울대)
3	11:00~ 11:30	최연주 (경상대)	작문 태스크에 나타나는 일본어 학습자의 조건표현 사용 양상 분석	고쿠쇼카즈미 (동국대)
4	11:30~ 12:00	진위신 (동국대대학원) 이경철 (동국대)	前舌母音假説과 咽頭音化假説에 대하여	이상이 (인천대)

점심시간 (12:00~13:00)

개회식 및 국제학술심포지엄 (13:00~17:30)

연구윤리교육 및 정기총회 (17:30~18:00)

제3 발표장 한국일본문화학회·경희대글로벌류큐오키나와연구소

주관: 한국일본문화학회, 경희대글로벌류큐오키나와연구소

좌장: 손지연(경희대)

순서	시 간	발 표 자	주 제	토론자
주제: 전후 내셔널리즘과 일본이라는 타자				
사회: 金景彩(慶應義塾大)				
1	10:00~ 12:00	佐藤泉 (青山学院大)	越境する日本語 -植民二世・森崎和江の思想-	종합토론: 임경화 (중앙대) 심정명 (조선대)
2		手島崇裕 (경희대)	植民地台湾と南島研究	
3		김동현 (경희대)	재건 내셔널리즘과 지역의 상상력 -『국가재건최고회의보』를 중심으로-	

점심시간 (12:00~13:00)

개회식 및 국제학술심포지엄 (13:00~17:30)

연구윤리교육 및 정기총회 (17:30~18:00)

제 4 발표장 한일정경사회학회, 한양대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기획발표

주관: 한일정경사회학회, 한양대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장소: 혜화관324

좌장: 배준호(한신대)

순서	시 간	발 표 자	주 제	토론자
기획세션: 한일간 공생을 위한 현황과 과제			사회: 오현석(서울신학대)	
1	10:00~ 10:30	전영수 (한양대)	일본을 통해 본 지역재생의 성공조건 -ABS모델의 제안-	고선규 (와세다대)
2	10:30~ 11:00	河村和徳 (東北大)	人口減少地域の地方創生 -東日本大震災被災地の教訓-	이진원 (서울시립대)
3	11:00~ 11:30	곽진오 (동북아역사재단)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내각과 한일관계 -일본의 독도정책을 중심으로-	김지영 (한양대)
4	11:30~ 12:00	이기태 (통일연구원)	일본의 기후안보와 태평양 도서국	윤석정 (국립외교원)

점심시간 (12:00~13:00)

개회식 및 국제학술심포지엄 (13:00~17:30)

연구윤리교육 및 정기총회 (17:30~18:00)

제 5 발표장 한국일본역사문화학회, 고려대학교글로벌일본연구원 기획발표

주관: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동아시아비교문화연구회

장소: 혜화관337

좌장: 이기원(강원대)

순서	시 간	발 표 자	주 제	토론자
주제: 동아시아적 공생과 연대의 좌표			사회: 허지은(서강대)	
1	9:30~ 10:00	박정임 (강원대)	사할린 아이누와 일본의 정책 -사할린·치시마 교환조약 이후를 중심으로-	송완범 (고려대)
2	10:00~ 10:30	瀧音能之 (駒澤大)	日本列島に設置された百濟郡・新羅郡・高麗郡に ついて	이부용 (강원대)
3	10:30~ 11:00	이세진 (호서대)	일제강점기 영동지역의 공산주의 운동	장혜진 (관동카톨릭대)
	11:00~ 11:10		휴식	홍성화 (건국대)
4	11:10~ 11:40	이기원 (강원대)	이시다 바이간의 ‘체험적 신체지’와 음성언어의 세계	신근영 (순천향대)
5	11:40~ 12:30		전체토론	

점심시간 (12:00~13:00)

개회식 및 국제학술심포지엄 (13:00~17:30)

연구윤리교육 및 정기총회 (17:30~18:00)

제 6 발표장 일본어교육분과 심포지엄

주관: 한국일어교육학회

좌장: 장근수(상명대)

순서	시 간	발 표 자	주 제	토론자
주題: グローバル社会におけるコミュニケーションと日本語教育			사회: 노황희(동국대)	
1	10:00~ 12:00	北出慶子 (立命館大学)	日本語教育でつながる -越境コミュニケーションと日本語教育-	종합토론: 諏訪昭宏 (부산외대) 윤영민 (연세대) 김채현 (명지대) 조선영 (인천대)
2		장근수 (상명대)	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授業事例 -ブレンド型学習の実践報告-	
3		박상현 (경희사이버대)	日本古典文学教育、どう教えるか -『万葉集』を例として-	
4		신효진 (前백석예술대)	동화(童話)를 활용한 일본어 교수법 연구 및 적용 -대학생 대상의 일본어 표현연습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점심시간 (12:00~13:00)

개회식 및 국제학술심포지엄 (13:00~17:30)

연구윤리교육 및 정기총회 (17:30~18:00)

제 7 발표장 한국일본교육학회 (제 141 차 하계학술발표회)

기획 주제: 일본의 공생공영교육

순서	시 간	발 표 자	주 제	토론자
1	10:00~ 10:05	개회사	최순자 회장 (국제아동발달교육연구원 원장)	

초대강연

사회: 신현정(중부대)

2	10:05~ 10:50	北村友人 (동경대 교수)	日本における「持続可能な開発のための教育 (ESD)」の現状と課題	양병일 (부산교대)
---	-----------------	------------------	--------------------------------------	---------------

주제발표

3	10:50~ 11:15	윤종혁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일본의 '새로운 자본주의'와 국제교육개발협력 전략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파트너십의 미래구상-	김수동 (동국대)
4	11:15~ 11:40	장지은 (성균관대)	공생의 관점에서 교육환경변화 분석	조규복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책임연구원)
5	11:40~ 12:00	종합토론 이정희(광주교대), 한용진(고려대), 이성환(고신대), 임형연(경일대)		
6	12:00	폐회		

점심시간 (12:00~13:00)

개회식 및 국제학술심포지엄 (13:00~17:30)

연구윤리교육 및 정기총회 (17:30~18:00)

제8 발표장 일본어통번역분과 심포지엄

주관: 한국일본어통번역학회

좌장: 이예안(제주대)

순서	시 간	발 표 자	주 제	토론자
기조강연			사회: 반노신지(제주대)	
1	10:00~ 11:40	김한식 (한국외대)	「放送通訳」の特徴 -KBSニュースの韓日通訳を中心に-	

일반발표			사회: 심보경(제주대)	
2	11:50~ 12:20	박미정 (한국외대)	『82년생 김지영』의 페미니즘 문체 번역 -여성 등장인물 ‘지칭어’ 어역 분석을 중심으로-	이나경 (한국외대)
3	12:20~ 12:50	박민아 (이화여대)	법률번역에 나타나는 언어간섭 현상 일고찰 -일본민법의 한글 번역본을 사례로-	이은조 (고려대)

점심시간 (12:00~13:00)
 개회식 및 국제학술심포지엄 (13:00~17:30)
 연구윤리교육 및 정기총회 (17:30~18:00)

제9 발표장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문학문화 패널

주관: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장소: 혜화관339

좌장: 김효순(고려대)

순서	시 간	발 표 자	주 제	토론자
기획주제: NHK대하드라마로 보는 현대일본			사회: 유재진 (고려대)	
1	10:00~ 12:00	류정훈 (고려대)	전후 일본의 미디어콘텐츠와 신선조의 계보 -NHK 대하드라마 『신선조!』를 중심으로-	엄인경 (고려대) 이가현 (고려대) 反町真寿美 (고려대박사과정) 하성호 (고려대박사과정)
2		김욱 (서울대)	NHK 대하드라마 <료마전(龍馬伝)과 일본의 사카모토 료마(坂本龍馬)인식 -시바 료타로 <료마가 간다(龍馬がゆく)>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3		김인아 (고려대)	NHK 대하드라마 <다이라노 기요모리(平清盛)>에 등장하는 쌍륙놀이(双六遊び)의 역할과 의의	
4		한채민 (고려대박사과정)	다이라노 기요모리(平清盛) 서사의 소환과 인물상 연구 -NHK 대하드라마 <다이라노 기요모리>를 중심으로-	
5		노슬기 (고려대석사과정)	『료마전(龍馬伝)』: 현재로 연속하는 ‘메이지(明治)’	

점심시간 (12:00~13:00)
 개회식 및 국제학술심포지엄 (13:00~17:30)
 연구윤리교육 및 정기총회 (17:30~18:00)

제10 발표장 일본문학분과

장소: 혜화관304
좌장: 엄인경(고려대)

순서	시간	발표자	주제	토론자
		기획주제: 일본 근현대시 속 조선		사회: 이문호(고려대)
1	10:00~ 10:30	反町真寿美 (고려대)	森崎和江の旅路の果て -最終詩集『ささ笛ひとつ』を読む-	이상혁 (고려대)
2	10:30~ 11:00	김보현 (충남대)	재일조선인 단카(短歌) 연구 -박정화 『신세타령(身世打鈴)』을 중심으로-	신소정 (조선대)
3	11:00~ 11:30	根来由紀 (성신여대)	『建設期の朝鮮文学』を読む	박희영 (한밭대)
4	11:30~ 12:00	이상미 (고려대)	조선인과 재조일본인의 ‘남양(南洋)’ 표상 시 연구 -『국민시가(國民詩歌)(1941~1942)』를 중심으로-	김학순 (충남대)

점심시간 (12:00~13:00)
개회식 및 국제학술심포지엄 (13:00~17:30)
연구윤리교육 및 정기총회 (17:30~18:00)

제11 발표장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일본학연구소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주관: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일본학연구소

장소: 혜화관328
좌장: 김환기(동국대)

순서	시간	발표자	주제	토론자
		기획주제: 글로벌 시대 재일디아스포라의 복합적 가치		사회: 조수일(동국대)
1	10:00~ 10:30	정성희 (동국대)	재일코리안의 민족교육 -히가시오사카시를 중심으로-	신재민 (고려대)
2	10:30~ 11:00	이영호 (동국대)	김산과 님 웨일즈의 『아리랑』과 재일코리안	남유민 (서일대)
3	11:00~ 11:30	김영준 (동국대)	삼국지 유비의 인물상 변형 -요시카와, 고우영 삼국지를 중심으로-	남상현 (충남대)
4	11:30~ 12:00	나리카와 아야 (동국대)	한일수교 이후의 한일 문화교류	이승진 (건국대)

점심시간 (12:00~13:00)
개회식 및 국제학술심포지엄 (13:00~17:30)
연구윤리교육 및 정기총회 (17:30~18:00)

제12발표장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패널

주관: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좌장: 서정완(한림대)

순서	시 간	발 표 자	주 제	토론자
----	-----	-------	-----	-----

기획주제: 포스트 신제국(GHQ/1950년)론: 장치·권력·지(知)

사회: 전성곤(한림대)

1	10:00~ 10:40	김혜숙 (한림대)	GHQ 점령기의 지역공동체 재편과 포스트제국 -도쿄도 조나이카이 사례를 중심으로-	김웅기 (한림대)
2	10:40~ 11:20	전성곤 (한림대)	1951년의 전회(轉回) -스기모리 고지로(杉森孝次郎)와 그 주변-	야마 요시유키 (간세이가쿠인대)
3	11:20~ 12:00	김경옥 (한림대)	하니 세쓰코(羽仁説子)의 여성해방과 봉건주의 -하니 세쓰코의 「여성과 자유」를 통한 ‘문화권력’ 고찰-	이인자 (도호쿠대)

점심시간 (12:00~13:00)

개회식 및 국제학술심포지엄 (13:00~17:30)

연구윤리교육 및 정기총회 (17:30~18:00)

제 13 발표장 일본어학·일본어교육분과 일반발표

장소: 혜화관 315

좌장: 김영민(동덕여대)

순서	시 간	발 표 자	주 제	토론자
----	-----	-------	-----	-----

사회: 염미란(전남대)

1	10:00~ 10:30	檢校裕朗 (極東大)	地球市民教育を目指した日本語教育 -SNAの観点を生かして-	최진희 (백석대)
2	10:30~ 11:00	松崎真日 (福岡大) 磯野英治 (名古屋商科大) 檢校裕朗 (極東大)	ビデオ教材『映像で学ぶキャリアー日韓の学生が専攻 言語を生かすために』の全容の報告	황운 (대전대)
3	11:00~ 11:30	里見 陸 (静岡大学) 宮崎佳典 (静岡大学) 谷誠司 (常葉大学)	CEFRを用いた日本語文章CDS自動分類システムの 精度改善の試み	조은영 (부산외대)
4	11:30~ 12:00	임도영 (제주대)	일본 애니메이션 속 역할어 -아루요코토바(アルヨコトバ)를 통한 의미분석-	이선희 (서울여대)

점심시간 (12:00~13:00)

개회식 및 국제학술심포지엄 (13:00~17:30)

연구윤리교육 및 정기총회 (17:30~18:00)

제 14 발표장 일본학분과 일반발표 1

좌장: 박순애(호남대)

순서	시 간	발 표 자	주 제	토론자
사회: 임성숙(한림대)				
1	10:00~ 10:30	김미연 (니혼대)	교환유학이 한일교류에 미치는 영향 -일본인 교환학생들의 인터뷰조사를 통한 고찰-	이혜진 (경남연구원)
2	10:30~ 11:00	한정균 (고려대)	일본 애니메이션의 한국에서의 수용양상의 변화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劇場版 鬼滅の刃:無限列車編)>을 중심으로-	김보경 (방송대)
3	11:00~ 11:30	박선영 (국민대)	김옥균의 ‘메이지 유신’ 이해에 관한 소고(小考)	이세연 (한국교원대)
4	11:30~ 12:00	방경희 (고려대)	일본의 고령사회기와 개호(介護) 문학 연구 -히가시노 게이고(東野圭吾)의 『붉은 손가락 (赤い指)』에 드러난 소극적 간병(看病) 범죄-	박수현 (충남대)

점심시간 (12:00~13:00)

개회식 및 국제학술심포지엄 (13:00~17:30)

연구윤리교육 및 정기총회 (17:30~18:00)

제 15 발표장 일본학분과 일반발표 2

좌장: 김준섭(국방대)

순서	시 간	발 표 자	주 제	토론자
사회: 송정현(동국대)				
1	10:30~ 11:00	송정현 (동국대)	일본 지방분권개혁 정책에 관한 고찰	김승배 (부경대)
2	11:00~ 11:30	진원원 (동국대)	企業の技術革新効率の評価 -中国の新エネルギー企業を例として-	김웅기 (한림대)
3	11:30~ 12:00	이영식 (동국대)	웹툰 시장의 임금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임현정 (한일산업기술 협력재단)

점심시간 (12:00~13:00)

개회식 및 국제학술심포지엄 (13:00~17:30)

연구윤리교육 및 정기총회 (17:30~18:00)

목 차

국제학술심포지엄: 〈한국일본학회 창립 50주년과 일본연구의 좌표: 공생과 연대를 향해〉

기조강연 〈한국일본학회 50년과 일본연구〉

- <한국일본학회> 50년과 디지로그(digilog) 시대의 일본연구 김환기 3
- <共生>と<連帯>の可能性に向けての小田実からの問いかけ 大橋毅彦 13
- 한국인의 이해와 새로운 한일관계의 모색 이진한 22

기획발표 〈한국 일본연구의 좌표: 공생과 연대를 향해〉

- 二つの震災、二つのマイノリティ -阪神淡路大震災と東日本大震災における外国籍マイノリティ- 松田利彦 44
- 福島第一原発事故への責任=応答可能性とグローバルな連帯 佐藤嘉幸 45
- 東アジアにおける安全と和解学を模索する -災難・安全アジェンダの日韓協力を中心に- 김영근 54
- 日韓の文化的融合と相互作用 -J-POPとK-POPのカテゴリー化を中心に- 김성민 65
-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통역과 교육 -음성인식 활용을 중심으로- 이주리에 66

한국일본연구단체 기획 및 분과별 학술심포지엄

【제2발표장】 한일언어학회 패널

- 마광운경 진섭운의 자음형에 대하여 맹 요 73
- Stata를 활용한 ‘~とどうか’의 문법화(文法化) 분석 유예진 77
- 작문 태스크에 나타나는 일본어 학습자의 조건표현 사용 양상 분석 최연주 82
- 前舌母音假説과 咽頭音化假説에 대하여 진위신·이경철 86

【제3발표장】 한국일본문화학회·경희대글로벌류큐오키나와연구소

- 越境する日本語 -植民二世・森崎和江の思想- 佐藤泉 91
- 植民地台湾と南島研究 手島崇裕 95
- 재건 내셔널리즘과 지역의 상상력 -『국가재건최고회의보』를 중심으로- 김동현 98

【제4발표장】 한일정경사회학회, 한양대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기획발표

- 일본을 통해 본 지역재생의 성공조건 -ABS모델의 제안- 전영수 103
- 人口減少地域の地方創生 -東日本大震災被災地の教訓- 河村和徳 110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과 한일관계 -일본의 독도정책을 중심으로- 곽진오 120
- 일본의 기후안보와 태평양 도서국 이기태 126

【제5발표장】 한국일본역사문화학회, 고려대학교글로벌일본연구원 기획발표

- 사할린 아이누와 일본의 정책 -사할린·치시마 교환조약 이후를 중심으로- 박정임 130
- 日本列島に設置された百濟郡・新羅郡・高麗郡について 瀧音能之 135
- 일제강감기 영동지역의 공산주의 운동 이세진 139
- 이시다 바이간의 ‘체험적 신체지’와 음성언어의 세계 이기원 151

【제6발표장】 일본어교육분과 심포지엄

- 日本語教育でつながる -越境コミュニケーションと日本語教育- 北出慶子 156
- 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授業事例 -ブレンド型学習の実践報告- 장근수 157
- 日本古典文学教育、どう教えるか -『万葉集』を例として- 박상현 162
- 동화(童話)를 활용한 일본어 교수법 연구 및 적용
-대학생 대상의 일본어 표현연습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신호진 167

【제7발표장】 한국일본교육학회 (제141차 하계학술발표회)

- 日本における「持続可能な開発のための教育(ESD)」の現状と課題 北村友人 172
- 일본의 ‘새로운 자본주의’와 국제교육개발협력 전략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파트너십의 미래구상- 윤종혁 178
- 공생의 관점에서 교육환경변화 분석 장지은 190

【제8발표장】 일본어통번역분과 심포지엄

- 「放送通訳」の特徴 -KBSニュースの韓日通訳を中心に- 김한식 203
- 『82년생 김지영』의 페미니즘 문체 번역
-여성 등장인물 ‘지칭어’ 어역 분석을 중심으로- 박미정 205
- 법률번역에 나타나는 언어간섭 현상 일고찰 -일본민법의 한글 번역본을 사례로-
..... 박민아 212

【제9발표장】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문학문화 패널

- 전후 일본의 미디어콘텐츠와 신선조의 계보 -NHK 대하드라마 『신선조!』를 중심으로-
..... 류정훈 217
- NHK 대하드라마 <료마전(龍馬伝)>과 일본의 사카모토 료마(坂本龍馬) 인식
-시바 료타로 <료마가 간다(竜馬がゆく)>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김 욱 222
- NHK 대하드라마 <다이라노기요모리(平清盛)>에 등장하는 쌍륙놀이(双六遊ひ)의
역할과 의의 김인아 225
- 다이라노 기요모리(平清盛) 서사의 소환과 인물상 연구
-NHK 대하드라마 <다이라노 기요모리>를 중심으로- 한채민 230
- 『료마전(龍馬伝)』: 현재로 연속하는 ‘메이지(明治)’ 노슬기 234

【제10발표장】 일본문학분과

- 森崎和江の旅路の果て -最終詩集『ささ笛ひとつ』を読む- 反町真寿美 236
- 재일조선인 단카(短歌) 연구 -박정화 『신세타령(身世打鈴)』을 중심으로- 김보현 240
- 『建設期の朝鮮文学』を読む 根来由紀 245
- 조선인과 재조일본인의 ‘남양(南洋)’ 표상 시 연구
-『국민시가(國民詩歌)』(1941~1942)를 중심으로- 이상미 247

【제11발표장】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일본학연구소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 재일코리안의 민족교육 -히가시오사카시를 중심으로- 정성희 251
- 김산과 님 웨일즈의 『아리랑』과 재일코리안 이영호 254
- 삼국지 유비의 인물상 변형 -요시카와, 고우영 삼국지를 중심으로- 김영준 258
- 한일수교 이후의 한일 문화교류 나리카와 아야 263

【제12발표장】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패널

- GHQ 점령기의 지역공동체 재편과 포스트제국 -도쿄도 조나이카이 사례를 중심으로-
..... 김혜숙 266
- 1951년의 전회(轉回) -스기모리 고지로(杉森孝次郎)와 그 주변 전성곤 272
- 하니 세쓰코(羽仁説子)의 여성해방과 봉건주의
-하니 세쓰코의 「여성과 자유」를 통한 ‘문화권력’ 고찰 김경옥 278

【제13발표장】 일본어학·일본어교육분과 일반발표

- 地球市民教育を目指した日本語教育 -SNAの観点を生かして- 檢校裕朗 283
- ビデオ教材『映像で学ぶキャリア-日韓の学生が専攻言語を生かすために-』の全容の報告
..... 松崎真日・磯野英治・檢校裕朗 287
- CEFRを用いた日本語文章CDS自動分類システムの精度改善の試み
..... 里見陸・宮崎佳典・谷誠司 290
- 일본 애니메이션 속 역할어 -아루요코토바(アルヨコトバ)를 통한 의미분석-
..... 임도영 294

【제14발표장】 일본학분과 일반발표1

- 교환유학이 한일교류에 미치는 영향 -일본인 교환학생들의 인터뷰조사를 통한 고찰-
..... 김미연 299
- 일본 애니메이션의 한국에서의 수용양상의 변화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劇場版 鬼滅の刃:無限列車編)>을 중심으로 한정균 304
- 김옥균의 ‘메이지 유신’ 이해에 관한 소고(小考) 박선영 308
- 일본의 고령사회기와 개호(介護) 문학 연구 -히가시노 게이고(東野圭吾)의
『붉은 손가락(赤い指)』에 드러난 소극적 간병(看病) 범좌 방경희 315

【제15발표장】 일본학분과 일반발표2

- 일본 지방분권개혁 정책에 관한 고찰 송정현 319
- 企業の技術革新効率の評価 -中国の新エネルギー企業を例として- 진원원 325
- 웹툰 시장의 임금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이영식 329

[국제학술심포지엄]
한국일본학회 창립 50주년과
일본연구의 좌표:
공생과 연대를 향해

<한국일본학회> 50년과 디지로그(digilog) 시대의 일본연구

김 환 기 (동국대)

1. <한국일본학회> 50년의 역사

1) 학회의 출발

<한국일본학회>는 한국에서 일본을 연구할 목적으로 창립된 한국 최초의 일본연구 단체이다. 학회가 출범하던 1972년 당시, 동북아시아는 냉전체제가 조금씩 완화되고 남북한의 정치이념적 ‘벽’이 누그러지며 점차 평화를 모색하던 시기였다. 당시 <한국일본학회>의 창립은 동북아 냉전체제의 완화와 남북한의 만남, 한일 간의 협력/소통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았다. 굴절된 근현대사의 역사적 현장을 경험했던 한국의 학자들(국문학, 민속학, 언어학, 역사학, 일본학 등)은 평소 반듯한 학술활동을 통한 지일(知日)만이 극일(克日)이라는 확고한 명제를 갖고 있었고, 그 실천의 목소리가 학회 창립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학회 창립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해방 이후의 한국 사회는 반일(反日) 프레임에 갇혀 학문적, 정서적으로 일본에 접근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에도 한국사회의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1970년대로 접어들어 양국관계는 정치경제 분야 등의 교류가 진행되지만 학계에서의 일본연구는 여전히 부담이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서송 이영구 전 회장님을 비롯해 몇몇 지일 학자들은 민족 감정을 넘어 일본을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학문적 공간개설의 시급성을 인식한다. 일본이 전면적으로 치밀하게 한국을 연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연구를 외면만 해선 안된다는 엄정한 자각이었다. 또한 한국의 일본관련 연구자들의 정보교환과 대외접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학문적 협의체의 필요성, 불모상태에 있는 국내 일본연구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학회의 설립도 추진된다. 1972년 가을 ‘한국일본학회 창립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¹⁾ 마침내 1973년 2월 1일 교수 20여명이 서울대 교수회관 합춘원(현 서울대 부속병원 구내)에 모여 <한국일본학회>를 창립한다. 당시 학회는 “彼我間の 歴史的關係에 대한 公正한 考察”과 “比較를 통한 우리 自身の 文化를 再發見”한다는 목적의식, 그리고 “어떠한 政治的, 社會的 機關과의 關聯도 갖지 않으며 또한 어떠한 公式的인 主義主唱을 내세우지도 않는 純粹한 學術團體”²⁾임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

그렇게 출발한 <한국일본학회>는 초대 구병삭 학회장을 시작으로 총25대 회장단이 선출되었고 16명의 회장이 학회를 위해 헌신했다. 특별히 학회장 명단을 거론해 보면, 구병삭 회장(1, 2대)을 시작으로

1) 1973년 1월 27일 개최된 <한국일본학회> 창립총회는 발기인 6명(李榮九, 丘秉朔, 鄭明煥, 白琪洙, 吳正烈, 安炳周)과 宋敏, 金致善, 李錫烈, 于惠鳳, 李治白, 金孝子, 鄭致薰, 李吉麗, 徐羅史, 高昌範 등 23인이 참석해 학회의 회칙을 제정하고 초대회장에 丘秉朔, 부회장(鄭明煥, 李榮九), 총무간사(閔聖泓), 학술간사(白琪洙), 편집간사(安炳周), 감사(李錫烈)를 선출한다.

2) 한국일본학회, 「創刊辭」, 『日本學報』(第1輯), 한국일본학회, 1973.

로 이영구(3,4,5,6,7,9,10대), 송민(8대), 광영철(11대), 황성규(12,13대), 이덕봉(14,15대), 김춘미(16대), 구태훈(17대), 이성규(18대), 이강민(19대), 최관(20대), 권혁진(21대), 안평호(22대), 이진원(23대), 김환기(24대), 그리고 현재 정병호(25대)가 학회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듯 <한국일본학회>는 역대 회장/임원/학회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한 걸음씩 역사와 전통을 쌓아왔고 자랑스러운 학회 창립 50년 주년을 맞게 되었다.

2) 학회의 조직과 산하학회와의 협력

<한국일본학회>는 창립 시기부터 일본학 전반의 학문발전과 연구자 상호간의 정보교환/친목을 도모하였다. 학회의 상임이사회를 중심으로 각 위원회, 즉 학회발전위원회, 기금운영위원회, 학술상위원회, 학술지발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총서간행위원회가 활동하면서 학회의 내실을 다져왔다. 특히 1980년대부터 일본학 전반의 전문화/학제화 작업을 위해 다양한 산하학회를 지원 운영하고 있다. 다양성과 융복합적 성격을 가진 일본학을 학문적 전문성을 높이고 대형학회로서 학술적 성과를 공유/극대화하기 위해 산하학회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이를 위해 <한국일본학회>는 네트워크형 학회를 기획해 적극적으로 산하학회의 독립과 지원/연계를 추진한다. 그에 따라 1996년부터 조직 개편에 돌입했고 1999년 2월 6일 개최된 제26차 <한국일본학회> 정기총회에서 한국일본학회회칙 개정안을 통과시킨다. 그해 3월 <한국일본학회>가 구심점이 되어 운영가이드를 규정하고 각 산하학회는 회칙을 제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특별히 <한국일본학회>의 산하학회를 거론해 보면 <일본어학회>, <일본문학회>, <일본어교육학회>, <일본교육사상학회>, <일본역사문화학회>, <일본민속학회>가 있고, 2022년 8월 현재 <한국일본학회> 내 산하학회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1> 한국일본학회 산하학회 명단

연번	학회명	창립연도	학회 목적
1	한일언어학회	2009	•한국과 일본의 국어학, 한국어학, 일본어학, 언어학 등을 총망라한 한일간의 언어연구자의 학술적 교류와 학문적 발전 도모
2	한국일본문학회	1996	•전문연구회의 활성화와 회원들의 원활한 교류, 학술활동 기능의 효율적 수행. 일본 문학연구에 대한 새로운 담론구축과 학술교류를 통한 인문학 발전에 기여
3	한일정경사회학회	2002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등을 연구테마로 하는 연구자들의 지식공유와 학문적 시각 확장. 월례회(연구회)를 통한 연구의 질적 향상과 연구자의 교류활성.
4	한국일본역사문화학회	1999	•일본역사와 일본문화뿐 아니라 다양한 일본학 분야의 융합 및 학술적 교류
5	한국일어교육학회	1999	•한국의 일본어교육의 선도적 역할 수행과 세계의 일본어 교육/소통 •일본어교육 전문학회로서 한국에서의 일본어교육의 견인차 역할
6	한국일본교육학회	1985	•일본의 교육 현상에 대한 지역연구로 일본교육에 대한 이해 심화 •한일 교육의 비교연구를 통한 우리나라 교육 발전
7	한국일본어통번역학회	2002	•한일 양국 언어적 특성에 입각한 통번역 연구를 통한 통번역의 품질과 전문성 향상, 일본어 통번역의 이론적 체계화와 학문적 발전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한국일본학회>는 산하학회와 유기적인 학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일본연구단체로서 기능하고 있다.

3)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

<한국일본학회>가 창립되고 1970-80년대까지 학회의 학술행사는 한일관계는 물론 국제협력을 실천적으로 도모한다. 1978년 8월, 제1회 <한일학자 공동세미나>를 시작으로 1984년 6월까지 총7회의 학술행사를 개최하며 연구자들의 국제적인 교류협력을 이끌었다. 그 후 학회의 공동세미나는 학회 규모가 커지고 산하학회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국제학술대회로 자리잡는다. 2010년대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다양한 국가의 일본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일본연구포럼(East Asia Forum for Japanese Studies)>이 개최된다. 특히 2010년 12월에 제1회 연구포럼이 한국에서 개최될 때는 한중일 학자 40여명이 참가하기도 했다. 제2회 연구포럼은 2011년 12월 센다이(仙台)에서 개최되었고 제3회는 2012년 11월에 북경외국어대학에서 개최를 이어갔다.

<한국일본학회>는 연구자들의 국제적인 교류협력을 도모하면서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도 추진했다. 2003년 7월에는 <한국일본학회>가 중심이 되어 <한국일본문화학회>, <대한일어일본문화학회>, <한국일본문화학회>, <일본어문화학회> 등 전국 규모의 학회가 참여하는 <한국일본학연합회>를 결성한다. 이 <한국일본학연합회>는 매년 7월에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지역적 한계를 넘어 연구자들의 인적, 학문적 교류를 도모했다. 비록 연합회는 2012년 7월 제10회 대회로 막을 내렸지만, 일본학의 연구지평을 넓히고 연구자들의 상호교류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했다. 그후 <한국일본학회>는 글로벌시대에 걸맞게 학제적, 지역적 한계를 넘어선 일본학 관련 단체가 폭넓게 참여하는 테마/토론 심포지움 중심의 학회를 기획한다. <한국일본학회> 산하학회는 물론이고 가천대, 고려대, 동국대, 부산대, 서울대, 인천대, 중앙대, 한림대, 한양대, 인천대 등 국내 일본 관련 연구소와의 교류협력 관계를 공고히 한다. 그 결집체로서 2012년 8월 <한국일본연구단체>를 발족시켜 제1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국내의 일본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이번에 개최되는 제11회 <한국일본연구단체> 국제학술대회는 그러한 역사적 흐름의 연장선에서 기획된 학술행사이다. 최근 일본의 <쇼와문화학회>와 실질적인 학술교류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특별하다.

이처럼 <한국일본학회>는 창립과 함께 현재까지 일본연구를 한국과 일본에 머물지 않고 최근 한중일, 동아시아, 글로벌 세계의 관점에서 학문적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한층 존재감을 발신하고 있다. 특히 일본 관련 학회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인문학/인문지리의 관점에서 다양한 학문영역과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연구아젠다 중심의 연구소와 소통협력하면서 새로운 일본연구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

2. 한국일본학회 50년의 학술활동과 성과

1) 주요 국제학술대회

1973년 2월 1일 창립된 <한국일본학회>는 1974년 11월 2일 세종호텔 수련홀에서 <일본의 전통과 근대화>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며 공식적인 학술행사의 막을 올렸다. 그후 국제학술대회, 연구발표회, 국제세미나, 분과별 학술발표회, 초청강연, 학회지 『日本學報』, 일본학연구총서, 뉴스레터 발간 등을 통해 한국에서 일본연구의 목적, 과제, 방향을 모색하며 일본학 연구를 리더해 왔다.

지난 50년간 <한국일본학회>가 주최한 주요 국제학술대회(국제학술발표회)의 주제와 참가자를 거론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2> 한국일본학회의 주요 국제학술대회

	연월일	주제	주요 발표(특별/기조강연)
제1회	1974.11.2	일본의 전통과 근대화	차기벽(성균관대): 일본의 전통과 정치적 근대화, 芳賀徹(도쿄대): 근대화에 있어서의 武士지식인, 伊藤正己(도쿄대): 법에서 본 일본의 근대화와 전통, 전해중(서강대): 일본의 전통과 근대화
제2회	1975.11.2	현대일본의 사회와 문화	林健太郎(도쿄대): 일본의 사회와 대학
제3회	1976.10.30	일본인의 미의식	백기수(서울대): 語義에서 본 미의식의 특성
제4회	1977.11.5	일본인의 종교의식	장병길(서울대): 일본인의 종교의식
제5회	1978.10.28	경제성장과 일본	황명수(단국대): 경제성장과 기업
제6회	1979.9.29	일본문학의 특성	정명환(서울대): 일본 자연주의의 특질-에밀 졸라와 대비하여-
제7회	1980.9.27	일본 사회발전과 교육의 제문제	김종철(서울대): 일본에서의 고등교육의 대중화 추세와 새로운 대응
제8회	1981.9.26	한일근세교류사	유승국(성균관대): 이나리아마(稲荷山) 고분 출토 철검명문에 관한 고찰
제9회	1982.9.25	일본의 민속	임동권(중앙대): 일본에 심은 韓문화
제10회	1983.12.9/10	일본문학의 양상과 교류	須之部量三(전주한일본대사): 한일양국 학문교류의 의의
제11회	1986.6.27	일본어 문법론의 재조명	송민(국민대): 문법론의 흐름
제12회	1990.6.28	일본의 철학사상	山田慶兒(국제일본문화연구원): 三浦梅園의 ‘玄語’에 대하여
제13회	1991.6.27	일본의 국학사상	이원순(서울대): 국학사상과 일본의 역사관
제14회	1992.6.26	일본의 예도사상	박전열(중앙대): 일본의 예도와 「남방록」
제15회	1993.6.25	일본의 시가론	송석래(한양대): 만엽집과 신라향가의 만가연구-변천과정을 중심으로-
제16회	1994.10.15/16	일본어 교육의 현재와 미래	今田滋子(히로시마대): 일본어교재·학습재의 분류·분석 [초청강연] 古川ちか(일본국립국어연구소): 자기평가-자율과 네트워크-
제17회	1995.10.14	한·일 문화교류의 재조명과 21세기 한·일관계의 전망	黒田勝弘(산케이신문): 한국 속 일본문화
제18회	1996.10.26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의 외국어교육의 현실과 과제	北原保雄(쓰쿠바대): 명사술어문의 여러 가지
제19회	1997.10.25	동아시아의 일본론, 그 현황과 전망	최상용(고려대): 한국의 일본연구 일본론-몇 가지 제안-
※ 1999년 8월 20일부터 8월 21일까지 양일간 개최된 제58회 학술발표회부터 학술대회의 개최 횟수를 통합하여 산정하였다.			
제61회	2000.11.25/26	21세기형 종합적 일본어교육에 있어서의 어학·문학·문화 및 미디어의 자세	水谷修(전일본국립국어연구소장, 나고야대): 국제화시대에 있어서의 외국어교육의 자세
제67회	2003.07.3-5	[제1회] 일본학 연구방법의 재조명	川本皓嗣(세계비교문화학회 회장, 오테마에대): 문화연구와 비교문학, 亀井秀雄(오타루문학관장): 1970년대 일본의 역사와 문화
(중략)			
제83회	2011.7.1/2	[제9회] 글로벌시대의 디지털자료활용과 일본학연구	中村康夫(국문학연구자료관): 글로벌시대에 있어서의 디지털자료 활용과 일본연구, 曹大峰(베이징일본학연구원)
제84회	2012.2.4	전환기의 일본연구	会津泉(다마대): 동일본대진재와 정보활동-넷, 소셜, 휴대폰은 피해자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가? 3,000명에 대한 조사에서-
제85회	2012.8.24	[제1회] 3.11 이후 한국의 일본연구-새로운 일본연구의 방법을 모색한다	최관: 한국의 일본연구, 서정완(한림대): 일본학 관련 연구소의 현황과 지향점, 안평호(성신여대), 박진수(가천대) 등 발표
제86회	2013.2.1	[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동아시아의 일본연구	尾崎明人: 동아시아의 다문화 공생과 ‘상냥한 일본어’, 徐一平, 李美淑 등 발표.
제87회	2013.8.23	[제2회] 동아시아의 변화와 새로운 일본연구의 모색	桂島宣弘(리쓰메이칸대): ‘영토문제’를 넘어서는 지평을 바라며

제88회	2014.2.8	일본연구의 인문사회학적 융복합화	박전열(중앙대): 일본다도연구의 에티컬 시각
제89회	2014.8.22	[제3회] 일본문화의 현재적 가치와 일본연구	當作靖彦(캘리포니아대): 일본어교육의 현재적 가치와 일본연구 -글로벌 언어로서의 일본어-
제90회	2015.2.7	동아시아의 공존과 일본연구	川島眞(도쿄대): 동아시아의 과거·현재·미래
제91회	2015.8.21	[제4회] 포스트 20세기의 한일관계와 일본연구-경계를 넘어서	공로명: 향후 50년을 위하여-한일 국교정상화와 50년에 즈음하여
제92회	2016.2.13	성숙한 한일관계를 위한 상생의 모색-현황과 과제-	小倉紀藏(교토대): 일한·한일 모델 -화해와 변영과 평화를 위한-
제93회	2016.8.26	[제5회] 동아시아의 인문정신과 일본연구	조성택(고려대) '동아시아(East Asia)에 대한 인식론적 패러다임의 전환
제94회	2017.2.18	동아시아의 마이너리티와 일본연구	서경식(도쿄경제대): 애매한 일본과 나
제95회	2017.8.25	[제6회] 지식정보화시대의 일본연구	마르첼라 마리오티(베네치아 카포스카리대): 지식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신·일본어교사상
제96회	2018.2.10	정보화시대의 학제적 일본연구	荻野綱男(니혼대): 정보화시대의 학제적 일본연구
제97회	2018.8.25	[제7회] 4차산업혁명과 일본연구	山田奨(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본연구 -'디지털인문학의 아프리카'를 넘어설 수 있을까-
제98회	2019.2.15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변동과 일본연구	毛利嘉孝(도쿄예술대):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일본의 문화연구 -변동하는 스트리트의 사상을 중심으로-
제99회	2019.8.23	[제8회] 동아시아의 평화와 3·1 운동	外村大(도쿄대): 일본에 있어서의 3·1운동의 인식, 기억과 기념, 손춘일(중국연변대), 정재정(서울시립대) 등 발표
제100회	2020.8.21	[제9회] 포스트휴먼 시대의 일본연구	日比嘉高(나고야대): 환경과 신체를 둘러싼 포스트 휴먼적 상상력 -다와다 요코와 무라타 사야카, 逆井聡人(도쿄외대) 등 발표
제101회	2021.2.6	한일65년 체제의 재조명과 제언	桂島宣弘(리쓰메이칸대): 1965년 일한국교정상화와 일한관계에 있어서의 상호인식
제102회	2021.8.20	[제10회] 3.11 이후 10년과 일본의 변화	川口隆行(히로시마대): 카타스트로피의 망각과 상기 -포스트 '3·11'의 역사적 지층, 松谷基和(도호쿠학원대), 김형(연세대), 山本昭宏(교베시외대), 심정명(조선대) 등 발표
제103회	2022.2.12	협오 시대의 한일문화협단의 양상과 가능성-K컬처와 J컬처를 중심으로-	渡辺直紀(무사시대): K문학의 일본에 있어서의 수용에 대해 -연구자가 본 한국문학과 페미니즘, 이향진(릿쿄대), 藤田直哉(일본영화대), 杉本章吾(고려대), 이석(인천대) 등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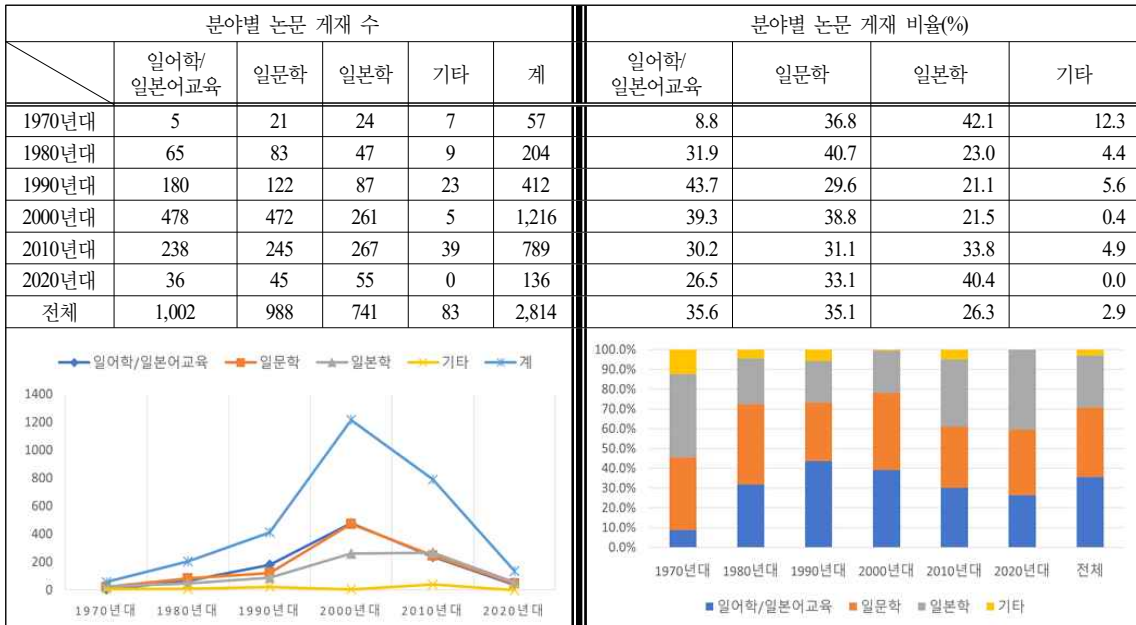
(2003년 제1회는 '한국일본학연합회 국제학술대회'를 지칭하며 2011년 제9회로 막을 내리고, 2012년 제1회는 '한국일본연구단체'의 국제학술대회를 의미하며 2022년 현재 제11회째를 맞았다.-필자)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일본학회>의 국제학술대회는 일본의 민속, 역사, 철학, 전통, 사회, 의식, 경제, 문학, 교육 등 굵직한 주제를 정하고 국내외 저명학자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하고, 일본 연구와 한일관계의 과거·현재·미래를 생각하는 일본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장이었다. 한편 2000년대에 들어서는 학회 단독 기획만이 아닌 <한국일본학연합회> <한국일본연구단체>를 통해 국내 일본연구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현실주의에 입각해 연구의 주제론, 방법론을 모색하면서 일본 연구의 양적/질적 확장을 이끌어내는 장으로 기능한다. 특히 21세기의 일본연구는 학제간의 교류협력과 융복합적 연구를 강조하는 주제가 많고 시대성을 의식하면서도 질적인 연구심화를 이끌어낸다. 예컨대 한중일, 동아시아, 글로벌시대, 정보화시대, 4차산업혁명 시대와 같은 시대성을 주목하고, 일본연구가 실질적인 측면에서 인문사회학적 융복합, 마이너리티(minority), 4차산업혁명, 포스트휴먼, 3.11, K컬처 J컬처, AI시대의 일본연구와 같은 주제의식을 선보인다. 일본 및 한일관계를 넘어 지구촌시대의 핵심가치를 의식하며 다양한 학문영역의 교류/협력, 학제적 교류플랜을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학술지 『일본학보』

<한국일본학회>의 얼굴은 학회지 『일본학보』라고 할 수 있다. 1973년 8월 제1집을 시작으로 2022년 8월 현재, 제131집까지 발간한 『일본학보』는 1983년 2월 발간된 제11집까지는 연간지로, 1984년 제12집부터 2000년 제45집까지는 반연간지로 발간되었다. 그리고 2001년부터 계간지로 탈바꿈하여 21세기 한국의 일본학을 이끌어온 명실공히 한국의 일본연구를 대표하는 학술지로 자리잡는다. 1999년 7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되고 2002년 한국의 일본학연구 학회 중에서 처음으로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것과는 무관하지 않다.

<표3> 『일본학보』의 분야별 논문 게재 수 및 분야별 논문 게재 비율



위의 표에서처럼 『일본학보』에 게재된 연구논문을 시기별/학문분야별로 살펴보면 몇가지 특징이 드러난다. <한국일본학회>가 창립된 1970년대에는 “문학과 일본학의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일본어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게 나타나는데, 이는 학회 창립초기에 회원들의 전공이 문학과 일본학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과 그렇기 때문에 국제학술대회의 테마가 주로 일본학과 관련된 내용”³⁾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후 2000년대까지 『일본학보』의 연구논문 게재 수는 엄청난 양적 팽창을 거듭하는데, 그것은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에 걸쳐서 전국의 대학에서 일본 관련 학과(주로 일어일문학과)가 대거 신설되었다는 점, 그 결과 교수/연구자가 늘어난 것”⁴⁾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1990년대 많은 대학에서 원어민(일본인) 교수를 채용하고, 실용적인 일본어학과 일본어교육을 중시했던 교육환경의 변화가 일어학/일본어교육 분야의 게재 논문 수 증가”⁵⁾로 이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최건식, 「1970년대 한국일본학회 활동과 연구성과」, 『일본학보』 91, 한국일본학회, 2012.05, p.117.

4) 서정완, 「1980년대 한국일본학회 활동과 연구성과」, 『일본학보』 91, 한국일본학회, 2012.05, p.127.

그리고 2000년대로 접어들면 게재 연구논문의 편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거의 “모든 논문집에서 전임교원의 논문이 비전임 교원의 논문을 상회하고, 한국 국내뿐 아니라 외국 대학 소속 연구자의 연구논문 게재가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에서 보듯”⁶⁾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일본 관련 학과가 증가하였고 그에 따른 많은 학문후속세대가 연구자로 성장함에 따라 관련 연구 논문도 자연스럽게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일본학보』에 게재된 연구논문을 임의로 일본어학/일본어교육, 일문학, 일본학이라는 범주로 구분했지만, 최근 들어 그 연구주제가 다변화하고 중층적으로 얽히면서 연구범주의 경계가 해체되거나 모호해지는 경향도 한층 뚜렷해진다. 이러한 학제적 교류/협력과 융복합적 연구주제는 이미 1970년대 이래로 연구/교육환경의 변화, 일본 연구를 둘러싼 연구 네트워크의 확장과 함께 부상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2008년 합병된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연구재단>의 개인/집단 연구지원 사업의 영향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예컨대 2020년대로 접어들어 ‘지금 동아시아에서 여성을 말한다’ (123집), ‘번역 정치의 패러다임을 묻다’ (126집), ‘한일 65년 체제의 재조명과 제언’ (127집), ‘3·11 이후의 10년과 일본의 변화’ (129집), ‘에도 문학 연구의 새로운 시도’ (130집), ‘협오 시대의 한일 문화횡단의 상상과 가능성’ (131집) 등 『일본학보』 기획특집 연구논문 주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고전적/개별적인 형태의 어학/교육/문학/정치/역사의 범주에서 벗어나 넓은 의미의 일본학이라는 관점을 천착하는 융복합적 연구주제가 부각되고 있다.

또한 <한국일본학회> 제100회 국제학술대회(제9회 한국일본연구단체 국제학술대회, 주제: 포스트 휴먼 시대의 일본연구, 2020.8.21)를 필두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초래한 비자발적 비대면 상황에서 개최되는 온라인 국제학술대회는 자연스럽게 지역적, 이념적, 종교적, 학제적 한계를 넘어 다양한 학문분야의 연구자들에게 교류/협력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국가/민족/이념/종교의 경계를 넘어서 학문분야의 상호교류/소통/협력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최근들어 『일본학보』에 외국인 학자들의 연구논문이 늘어나고, 융복합적 연구주제가 많아지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러한 현상은 『일본학보』가 글로벌시대의 핵심가치를 의식한 연구좌표를 통해 연구경쟁력을 확보해야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3) 연구총서 발간과 <뉴스레터> 발행

<한국일본학회>는 지난 50년동안 일본관련 연구총서를 줄곧 간행해 왔다. 1차적으로 1977년부터 <일본문화총서>를 기획하였고, 1980년 <일본문화총서> 2차분(전4권), 1981년 <일본문화총서> 3차분(2권), 1989년 <일본사상총서> 전기분(전7권), 1993년 <일본사상총서> 후기분(전3권, 1997년 <일본학 연구총서> 1차분을 기획해 발행하였다.⁷⁾ 발간된 <일본문화총서>와 <일본사상총서>로는 『일본민속의

5) 김환기, 「1990년대 한국일본학회 활동과 연구성과」, 『일본학보』 91, 한국일본학회, 2012.05, p.145.

6) 김수희, 「2000년대 한국일본학회 활동과 연구성과」, 『일본학보』 91, 한국일본학회, 2012.5, p.160.

7) 1977년 <日本文化叢書> 1차분 전4권(『日本の近代化와 知識人』, 『日本語의 構造』, 『日本人의 美意識』, 『日本近世法制史』), 1980년 <日本文化叢書> 2차분 전4권(『日本文學概論』, 『教育哲學』, 『日本經濟史』, 『日本科學史』), 1981년 <日本文化叢書> 3차분 전2권(『日本民俗의 理解』, 『日本史概說』), 1989년 <日本思想叢書> 전기분 전7권(『文明論의 概略』, 『構想力의 理論』, 『和俗童子訓』, 『先祖 이야기』, 『普勸坐禪儀』, 『靈의 眞柱·初山踏』, 『二儀略說·天文瓊統』), 1993년 <日本思想叢書> 후기분 전3권(『町人叢 외』, 『風姿花傳 외』, 『南方録·古今和歌集假假名序 외』), 1997년 <日本學研究叢書> 1차분 전9권(『日本民俗의 理解』, 『日本教育의 理解』, 『新日本語學의 理解』, 『新日本文學의 理解』, 『日本政治의 理解』, 『日本經濟의 이해』, 『日本歷史의 理解』, 『日本文化의 理解』, 『日本思

이해』, 『일본교육의 이해』, 『신일본어학의 이해』, 『일본정치의 이해』, 『일본경영의 이해』, 『신일본문학의 이해』, 『일본역사의 이해』, 『일본문화의 이해』, 『일본사상의 이해』, 『일본예술의 이해』, 『일본종교의 이해』, 『일본인의 사회행동 이해』가 발간되었다. 또한 <일본학연구총서>로는 『일본 교육의 이해』, 『일본 정치의 이해』, 『신일본어학의 이해』가 발간되었고, 이어서 <일본학연구총서>로 『경쟁과 협력의 한일관계』(2016), 『일본전후문학과 마이너리티문학의 단층』(2018), 『한국일본학회 기획총서3-일본학편』(2019)도 간행된다. <한국일본학회>의 연구성과를 학술지 『일본학보』에 머물지 않고, 단행본으로 발간해 시중의 일반인과 연구자들에게 발신함으로써 일본연구의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의미있는 학술 활동의 일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일본학회>는 1993년 3월 1일, 학회행사 관련해 안내와 회원들의 연구동정 등을 학계와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2쪽 분량의 <韓國日本學會 會報>를 발행하였다. 초창기 비정기적으로 발행되어 오다가 학회 홈페이지를 정식으로 개설하면서 매년 두 차례 발행해 왔다. 현재는 『한국일본학회 소식지 KAJA Newsletter』 봄호와 가을호를 간행하고 있는데, 학술대회 일정을 비롯해 인사말, 연구포커스, 산학학회 활동, 위원회 소식, 한국일본연구단체 연구동정, 회원 활동, 신간 소개, 『일본학보』 최신 게재 논문, 회비납부 안내, 회원가입 안내, 학회 사무국, 학회 홈페이지 안내 등을 통해 학회원의 정보교류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3. 글로벌시대 일본연구의 방향(제안)

글로벌시대의 학문적 담론은 과거의 블록화된 국가주의/민족주의 시대와 달리 월경적, 혼종적 가치를 천착하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강화되고 있다. 최근 신자유주의와 민족주의적 경향이 회자되기도 하지만 글로벌시대의 연구경향은 여전히 탈민족/탈이념의 경쟁력 체제와 맞물려 진행될 것이다. 인문학의 위기 속에서 문사철을 비롯한 지역학 개념의 일본/중국/유럽 연구의 관점도 지구촌의 시대적 흐름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인문학과 AI, 디지로그(digilog), 융복합 형태의 연구 페러다임이 강조되는 현시점에서 일본연구의 방향도 다각적인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과거처럼 일본어/일본어교육/일본문학/일본학으로 고정화된 개념이 아닌 학제적, 융복합적 형태의 연구가 부상되고 이러한 월경적 연구환경은 한층 강화될 것이다.

얼마전 작고하신 이어령 장관은 일본연구에 “정통한 넥스트 제네레이션(Next generation)”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과거처럼 일본사람이나 재일 교민, 일본에 유학을 갔다온 사람들이 중심이 되면, 과거의 프레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앞으로는 “객관적, 보편적 세계관에 근거한 제3세대인 넥스트 제네레이션의 통합/융합적 연구를 통해, 미국, 영국, 프랑스처럼 글로벌 시각에서 한중일을 논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이 일본/중국과 대등한 삼분의 일(1/3)의 지분을 가진 아시아의 리더로서, 그동안의 “‘친일’, ‘친중’, ‘국수적인 민족주의자’로 회자되는 것이 아닌, 글로벌 시대의 보편적, 열린 세계관에 근거한 제3세대의 연구자 배출, 물리학자가 됐든, 수학자가 됐든, 정치학자가 됐든, 글로벌시대를 리드할 수 있는 일본연구자를 국가, 일본연구소, 일본의 교민들이 키워야 한다.”⁸⁾고 역설했다.

想의 理解) 등이 발간된다.(『韓國日本學會40年史-日本研究의 成果와 課題』, pp.133-134 참조)

8) 이어령·김환기(특별대담), 「디지로그(digilog) 시대의 접촉과 접속-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중일」, 『일본학』(제55집), 동국대일본학연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의 일본연구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시기별(1970부터 2020년대까지)로 『일본학보』의 연구논문은 양적/질적 측면에서 적잖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21세기 글로벌시대는 각종 국가적, 민족적, 이념적 블록화를 넘어 연구영역을 확장하고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열린 시각이 중요해 보인다. 대학의 인문학만 해도 문·사·철을 비롯해 국문/영문/불문/일문 형태의 학문영역의 ‘벽’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이 진행되고 있다. 대형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일본 관련 연구주제의 체계와 내용을 보더라도 기존의 전통적 개념의 개별 대학/학과/학자/학문의 범주를 벗어나 협업구도가 일반적이다.9)

일본연구의 현재적 지점과 자화상을 바깥세계(타자)를 통해 점검하고 내실화하는 시좌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일그러진 한국의 근현대사를 조국 바깥에 존재하는 다양한 역사기록, 문화텍스트를 통해 조명하는 시좌이다. 구한말(멕시코 에니켄, 하와이 사탕수수농장 노동자), 일제강점기(구소련권/중국 조선족의 독립운동), 한국전쟁(전쟁고아 해외입양/미군과의 결혼여성/반공포로), 조국의 근대화/산업화(파독 광부/간호사,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의 영농이민, 중동의 근로자파견), 민주화운동(정치인 구명운동, 해외이민), 베트남전쟁(파병)과 같은 조국 바깥의 역사적 현장을 통해 우리의 근현대사를 재조명할 수 있다.

일본연구는 개별적으로 특정 테마/주제를 중심으로 심화연구를 진행하는 과정과 국내외적으로 학제적 콜라보레이션과 융복합적 형태의 공동연구도 중요할 것이다. 개별적인 연구능력이 우수해도 테마/주제가 개인의 연구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얼마든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사할린’은 아무르강 중하류에서 원주민들이 모피(단비/어피 등)를 중심으로 조선, 러시아, 청나라, 일본이 활발하게 무역활동을 펼쳤던 공간이다. 일제강점기에는 북사할린과 남사할린이 분할되어 조선인 강제징용을 비롯해 일본과 러시아의 충돌, 일본과 아이누의 갈등 등이 내재된 지역이다. 당연히 학문적으로 인류학, 역사학, 사회학, 문화학, 문학 등이 혼재될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한국, 일본, 러시아, 중국의 학자들이 함께 연구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국가/민족 개념을 넘어 학제간 콜라보레이션, 융복합적 공동연구를 진행해야만 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분위기가 현실주의적 관점을 선호하고 대학가에 디지털 인문학, 인문학과 AI, 디지로그(digilog) 개념이 부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전통적인 인문학보다 사회수요형 실용주의로 해체/재구축될 것이라는 점이다. 최근 대학가를 점령한 인문학적 위기의식과 디지털 인문학으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말하자면 <한국일본학회>가 지난 50년간 대면(접촉)으로 국제학술행사를 개최했지만 최근 비대면(접속) 국제학술행사가 성공적이었다는 사실, 그 혁명적 수준의 대면(접촉)/비대면(접속)의 공존이 현시대의 실질적인 학문연구의 소통/협력 방식임을 확인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일본연구는 디지털 인문학을 간과할 수 없으며, 그러한 글로벌시대의 변화한 연구환경에서 연구경쟁력을 확보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글로벌시대의 경쟁력 있는 인문학/일본연구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일본학회를 비롯해 인문학 관련

구소, 2021, p.10.

9) 최근 한국연구재단의 대형 국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단(HK+사업, BK사업, 중점/인문사회연구소지원)의 연구아젠다를 보면 다음과 같다. 「포스트제국의 문화권력과 동아시아」(한림대 일본학연구소), 「협오시대, 인문학의 대응」(숙명여대 인문학연구소), 「재일디아스포라의 생태학적 문화지형과 글로벌리티」(동국대 일본학연구소), 「아시아 대중문화와 한류의 상호이해에 기반한 인문학 교육」(가천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일본사회의 서벌턴 연구-동아시아의 소통과 상생」(한국외대 일본연구소), 「근세 및 근대 일본의 한국어 학습 자료 집대성」(한양대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일본 점령기 전후 인도네시아 이중언어문학 연구」(고려대 일본연구센터) 등이다.

학회/연구소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결국 학회/연구소가 당대의 시대성을 반영한 인문학/일본연구의 가치를 제시하고 개별적인 연구성과를 발신/공유하는 기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韓國日本學會40周年特別委員會編, 『韓國日本學會40年史-日本研究의 成果와 課題』, 韓國日本學會, 2012.

韓國日本學會, 「創刊辭」, 『日本學報』(第1輯), 韓國日本學會, 1973, p.3

이어령·김환기(특별대담), 「디지로그(digilog) 시대의 접촉과 접속-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중일-」, 『일본학』(제55집),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2021, p.10.

〈共生〉と〈連帯〉の可能性に向けての小田実からの問いかけ

大橋 毅彦*

【講演要旨】

現代作家小田実(一九三二～二〇〇七)は、初期を代表する旅行記『何でも見てやろう』(一九六一)が出版の翌年韓国語に翻訳されたのをはじめとして、朝鮮とはさまざまな縁で結ばれてきた人物である。いくつかその例を挙げれば、結婚して彼の「人生の同行者」となった、在日朝鮮人女性とその家族との付き合いの中から生まれた長編エッセイ『オモニ太平記』(一九九〇)も韓国語に翻訳されているし、川端康成文学賞受賞作『「アボジ」を踏む』(一九九六)は、済州島の劇団「劇団ハルラ山」によって劇化され、釜山やソウルで上演された(一九九九)。

そんな小田の文学営為が、本大会が掲げている〈共生と連帯に向けて〉というテーマとどう関わるかについて語ってみたい。すなわち〈共生〉や〈連帯〉を阻むものとしてある〈差別〉という問題に、思想家として、表現者として、小田実がどのようにむき合ってきたのかについて、見ていくことにしたい。

そのために取り上げるのが、まずはちょうど今から五〇年前(!)、それより少し前に発表した小説『冷え物』に向かって放たれた批判に対する応答として書かれた、『ある手紙』(一九七二)と題する彼の文章の一節である。多くの在日朝鮮人が暮らす大阪で生まれ育ってきた小田にとって、ごくふつうの日本人の庶民のうちに根深く存在している彼らに対する「差別」意識は、その乗り越えの方途を模索することも含めて、自分の問題として考えていかざるを得ないものであった。『ある手紙』からその一端を読みとっていく。

あと一つ、今度は小田の最晩年の作品、雑誌連載期間が一〇年近くに達したが、筆者の死によって未完の長編となった『河』(一九九九～二〇〇七)を通して、これと同じ問題を考えていく。一九二〇年代の日本・朝鮮・中国を舞台として、在日朝鮮人の父親と日本人の母親を持つ少年が歴史の「目撃者」から「参加者」へと変化、成長していく過程を物語る、全体小説的な結構をもつ作品だが、この中で主人公の少年に同化していく小田実は、「差別」と「被差別」の間に存在する覆い難い断層、裂け目を前にして、どのように考え、どのような行動をとろうとしたのか、その一端に言及していきたい。

*この後に続く資料の一部を紹介しておきます。

1 枚目＝小田実文学碑(所在地・兵庫県芦屋市) 2 枚目＝講談社版『小田実全集』全82巻タイトル一覧 3・4 枚目＝韓国語に翻訳された小田実の著作＋日韓文化総合誌『識見交流』5 枚目以降 略

* 昭和文化学会前代表幹事・関西学院大学教授



小田実全集【評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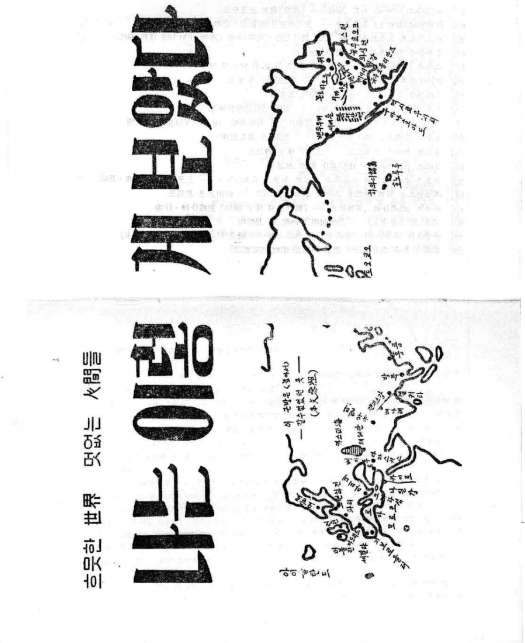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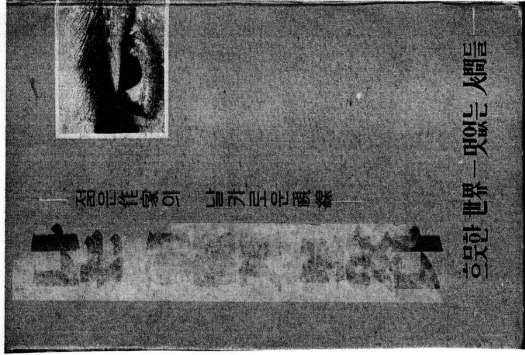
第I期	
第1巻	何でも見てやろう
第2巻	壁を破る 世界のなかの体裁と思想
第3巻	日本の知識人
第4巻	戦後を拓く思想
第5巻	平和をつくる原理
第6巻	義勇としての旅
第7巻	世直しの倫理と論理
第8巻	状況から
第9巻	「御国」の文学
第10巻	「共生」への原理
第11巻	「民」の論理、「軍」の論理
第12巻	小田実 小説世界を歩く
第13巻	基底にあるもの
第14巻	「ベトナム以後」を歩く
第15巻	毛沢東
第16巻	われ=われの哲学
第17巻	西ベルリンで見たこと 日本で考えたこと
第18巻	オモニ太平記
第19-20巻	「ベ平連」・回顧録でない回顧(上・下)
第21-22巻	被災の思想 難死の思想(上・下)
第23-24巻	でもくらていあ(上・下) 「人間は殺されてはならない」・「人間の国」・「人間の文明」の構築へ
第25巻	これは「人間の国」か 西方ニ異説アリ
第26巻	崇高について
第27巻	ひとりでもやる、ひとりでもやめる 「良心的軍事拒否論」日本・市民の選択
第28巻	私の文学——「文」の対話
第29巻	戦争か、平和か 「9月11日」以後の世界を考える
第30巻	随論 日本人の精神
第31巻	市民の文 思索と発言1
第32巻	西雷東顧 思索と発言2
第33-34巻	9.11と9条(上・下) 小田実 平和論集
第35巻	中流の復興
第36巻	生きる術としての哲学 小田実 最後の断議

小田実全集【小説】

第II期	
第1巻	明後日の手記／泥の世界
第2巻	わが人生の時
第3巻	アメリカ
第4-5巻	大地と星輝く天の子(上・下)
第6-7-8巻	現代史(上・中・下)
第9巻	ガ島
第10巻	冷え物
第11巻	羽なげれば
第12巻	列人列景
第13-14巻	円いひっぴい(上・下)
第15巻	タコを揚げる ある私小説
第16巻	HIROSHIMA
第17巻	海冥 太平洋戦争にかかわる十六の短篇
第18巻	風河
第19巻	D／ベルリン物語
第20～26巻	ベトナムから遠く離れて(全7巻)
第27-28巻	民岩太閤記(上・下)
第29巻	生きとし生けるものは
第30巻	文
第31巻	大阪シンフォニー
第32巻	XYZ
第33巻	「アボジ」を踏む 小田実短篇集
第34巻	暗潮 大阪物語／玉碎
第35巻	さかさ吊りの穴 「世界」十二篇
第36巻	くたく うめく わらう
第37巻	深い音
第38巻	子供たちの戦争
第39-40巻	終らない旅(上・下)
第41～46巻	河(全6巻)

韓國語訳された小田実の著作 (資料提供 Ⅱ玄順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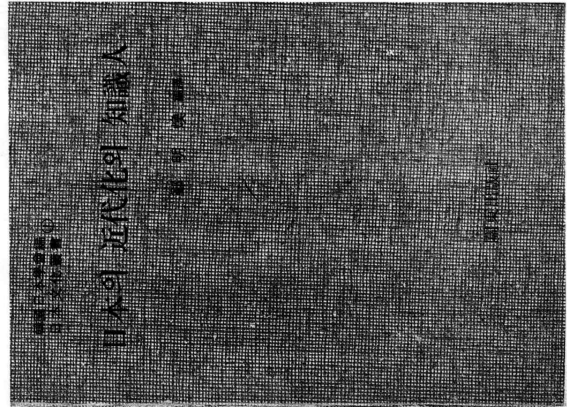
①



②



③



目次

序 言 5

I. 近代化의 위한 日本人의 態度의 變遷

1. 1910년대(1910) 以前 : 日帝國 7

2. 1920년대(1920) 以前 : 日帝國 7

3. 1930년대(1930) 以前 : 日帝國 7

4. 1940년대(1940) 以前 : 日帝國 7

5. 1950년대(1950) 以前 : 日帝國 7

6. 1960년대(1960) 以前 : 日帝國 7

7. 1970년대(1970) 以前 : 日帝國 7

8. 1980년대(1980) 以前 : 日帝國 7

9. 1990년대(1990) 以前 : 日帝國 7

10. 2000년대(2000) 以前 : 日帝國 7

11. 2010년대(2010) 以前 : 日帝國 7

12. 2020년대(2020) 以前 : 日帝國 7

13. 2030년대(2030) 以前 : 日帝國 7

14. 2040년대(2040) 以前 : 日帝國 7

15. 2050년대(2050) 以前 : 日帝國 7

16. 2060년대(2060) 以前 : 日帝國 7

17. 2070년대(2070) 以前 : 日帝國 7

18. 2080년대(2080) 以前 : 日帝國 7

19. 2090년대(2090) 以前 : 日帝國 7

20. 2100년대(2100) 以前 : 日帝國 7

II. 近代化와 日本人의 態度

1. 1910년대(1910) 以前 : 日帝國 7

2. 1920년대(1920) 以前 : 日帝國 7

3. 1930년대(1930) 以前 : 日帝國 7

4. 1940년대(1940) 以前 : 日帝國 7

5. 1950년대(1950) 以前 : 日帝國 7

6. 1960년대(1960) 以前 : 日帝國 7

7. 1970년대(1970) 以前 : 日帝國 7

8. 1980년대(1980) 以前 : 日帝國 7

9. 1990년대(1990) 以前 : 日帝國 7

10. 2000년대(2000) 以前 : 日帝國 7

11. 2010년대(2010) 以前 : 日帝國 7

12. 2020년대(2020) 以前 : 日帝國 7

13. 2030년대(2030) 以前 : 日帝國 7

14. 2040년대(2040) 以前 : 日帝國 7

15. 2050년대(2050) 以前 : 日帝國 7

16. 2060년대(2060) 以前 : 日帝國 7

17. 2070년대(2070) 以前 : 日帝國 7

18. 2080년대(2080) 以前 : 日帝國 7

19. 2090년대(2090) 以前 : 日帝國 7

20. 2100년대(2100) 以前 : 日帝國 7

III. 近代日本人의 態度의 變遷

1. 1910년대(1910) 以前 : 日帝國 7

2. 1920년대(1920) 以前 : 日帝國 7

3. 1930년대(1930) 以前 : 日帝國 7

4. 1940년대(1940) 以前 : 日帝國 7

5. 1950년대(1950) 以前 : 日帝國 7

6. 1960년대(1960) 以前 : 日帝國 7

7. 1970년대(1970) 以前 : 日帝國 7

8. 1980년대(1980) 以前 : 日帝國 7

9. 1990년대(1990) 以前 : 日帝國 7

10. 2000년대(2000) 以前 : 日帝國 7

11. 2010년대(2010) 以前 : 日帝國 7

12. 2020년대(2020) 以前 : 日帝國 7

13. 2030년대(2030) 以前 : 日帝國 7

14. 2040년대(2040) 以前 : 日帝國 7

15. 2050년대(2050) 以前 : 日帝國 7

16. 2060년대(2060) 以前 : 日帝國 7

17. 2070년대(2070) 以前 : 日帝國 7

18. 2080년대(2080) 以前 : 日帝國 7

19. 2090년대(2090) 以前 : 日帝國 7

20. 2100년대(2100) 以前 : 日帝國 7

IV. 日本의 近代化와 知識人의 態度

1. 1910년대(1910) 以前 : 日帝國 7

2. 1920년대(1920) 以前 : 日帝國 7

3. 1930년대(1930) 以前 : 日帝國 7

4. 1940년대(1940) 以前 : 日帝國 7

5. 1950년대(1950) 以前 : 日帝國 7

6. 1960년대(1960) 以前 : 日帝國 7

7. 1970년대(1970) 以前 : 日帝國 7

8. 1980년대(1980) 以前 : 日帝國 7

9. 1990년대(1990) 以前 : 日帝國 7

10. 2000년대(2000) 以前 : 日帝國 7

11. 2010년대(2010) 以前 : 日帝國 7

12. 2020년대(2020) 以前 : 日帝國 7

13. 2030년대(2030) 以前 : 日帝國 7

14. 2040년대(2040) 以前 : 日帝國 7

15. 2050년대(2050) 以前 : 日帝國 7

16. 2060년대(2060) 以前 : 日帝國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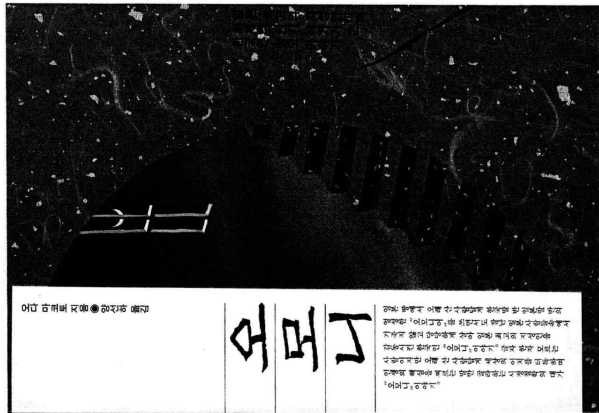
17. 2070년대(2070) 以前 : 日帝國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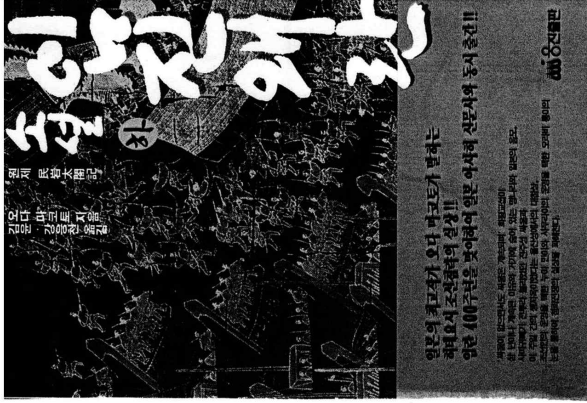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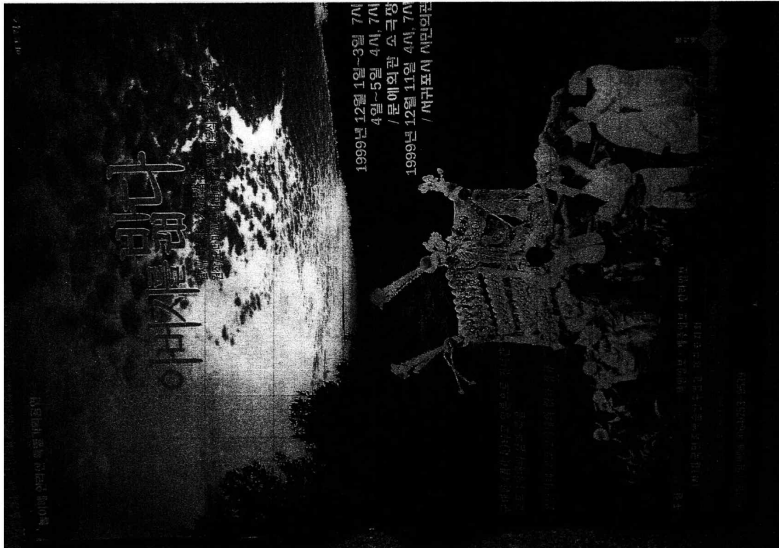
18. 2080년대(2080) 以前 : 日帝國 7

19. 2090년대(2090) 以前 : 日帝國 7

20. 2100년대(2100) 以前 : 日帝國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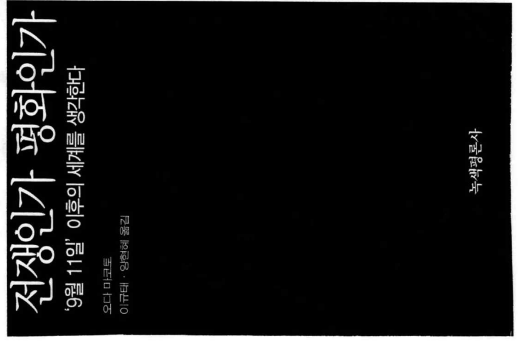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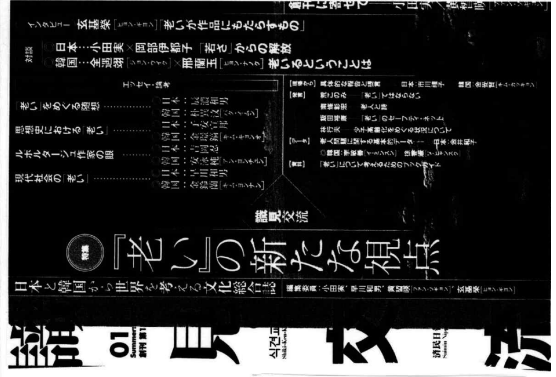
④





⑤

⑥



⑧

- () 内の「/」의 左は日本での出版年, 右は韓国語版의 出版年.
- ① 『何でも見てやろう』 (1961/1962) ② 『日本を考える』 (1963/1964)
 - ③ 『日本の知識人』 (1964) 所収「日本の近代化と知識人の変遷」が、韓国日本学会編日本文化叢書①に収録 (1977) ④ 『オモニ太平記』 (1990/1992)
 - ⑤ 『民岩太閤記』 (1992/1992) ⑥ 『アメリカ』 (1962/1992) ⑦ 『アホジ』 (1996) を劇団ハルラ山が舞台化 (1999) ⑧ 『戦争か、平和か—19月11日』 以後の世界を考える』 (2002/2004)

◇ 「思想家」「表現者」小田実の五十年前の立ち位置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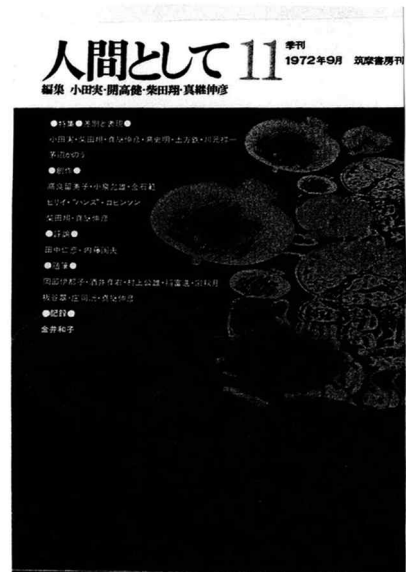
「冷え物」は、ひとりの貧しい女性をふくみ込んだ「差別」（それは「差別」と「被差別」とがまさに表裏一体となって存在する「差別」です）、そのえんえんとしたひろがりにまともにむき合おうとした作品です。その「差別」の構造のひろがりのなかで、ひとりのふつうの女性がどう生きたか——そんなふうと言ってもよい。

彼女は、まったくありきたりの貧しい女性でした。彼女は抑圧されているゆえに、差別されているゆえに、差別し、抑圧し、そして、そのことにはじめ気がつかない。彼女のまわりの同じように抑圧され、差別され、それゆえに、抑圧し、差別している人たち——たとえば、岡本とも彼女自身の両親ともきょうだいとも、まったく、ちがいはない。おそらく、彼女が二人の朝鮮人とあいついで結婚するというようなことがなかったならば、彼らともにくらし、彼らのもって行きどころのない怒りをまともに受け、彼らと争い、彼らを憎み、それでいて彼らを愛し、おしまいには、とうとう韓国まで出かけて行く——そうしたことがなかったならば、おしまいまで、岡本たちとまったくかわるところはなかったにちがひありません。しかし、彼女はそうした体験を経て変って行く——その変化（いや、それはまぎれもなく彼女の「成長」であり「発展」であります）を、私はこの小説のなかに描き出そうとしたのです。

II

それはさつきから述べて来た「冷え物」の主人公と朝鮮人——「被差別」の世界との関係に似ているのですが、私は、表現する者は、表現される者の内部に入り込むことができるというように錯覚してはならない、そうした幻想を抱いてならない（それはあまりにも傲慢な錯覚であり幻想であると思います）と考えます。それは、ある場合には、ちょうど、「差別」、「被差別」の関係がそうであるように、そうした錯覚、幻想にのりかかって、表現される者に対して加害者として働く、ということがあるからです。

表現する者は、そうした錯覚、幻想なしに、表現される者の世界にできるかぎり密着しなければならない。表現される者の世界を自分の問題としてとらえなければならない。そして、同時に、彼が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は、いくら彼がそうした努力をつづけようとも、自分は表現される者の「外」にいる人間だということを自覚すること、その自覚にもとづいて自分の考えと行為をくみだてることであると思います。つまり、そうすることで、表現される者の世界のもつ重みが、自分にもおおいかぶさって来る——私には、それが表現という行為



エッセイ「ある手紙」（『人間として』11、一九七二・一一）一九六九年七月号の『文芸』に掲載された小田の小説「冷え物」に対して、被差別部落解放に取り組む人々の中から批判的立場をとる集団が糾弾の声を挙げたが、それに対して、自身の「差別」と「文学」にかかわる考えを書き記したもの

が、表現者自身に、また、表現者がぞくする世界(表現される者の外側の世界)にもつもつとも重要な意味ではないかと考えます。

◇ 『河』の主人公は共生と連帯に向けてどのように歩み出するのか？

書誌的事項「河」初出：雑誌『すばる』一九九九・三～二〇〇七・五 全九十章(未完)

単行本化：集英社刊『河1』(二〇〇八・六)『河2』『河3』(同・七)

梗概(集英社版単行本帯文より)

『河1』＝「関東大震災で朝鮮人の父と生き別れた少年・重夫は、日本人の母とともに、神戸へ、そして上海へとむかう。中国革命の胎動、独立を求め叫び始めたアジアの人々。少年は歴史の目撃者となる。」

『河2』＝「発火寸前の革命都市・広州へと渡った少年・重夫。様々な民族・人種・階層の人たちと、革命の行方を見つめ、語り、歩く。少年は「使命」をおびて動き出す。」

『河3』＝「1927年4月、蒋介石による反共クーデターが勃発。少年・重夫の「同志」たちは傷つき、散り散りとなった。自由と自立を求める革命は、潰えてしまうのか。少年は「戦場」の渦中の人となる。」

I

重夫は眼をそらせた。(中略)そのとき、彼もまたその自警団の人間の屑のような日本人の一団のまえで「ぼくは朝鮮人じゃない。日本人です」とふるえ声で、しかし、全身の力を込めてそう言ったとき、さっき「わたしは朝鮮人だが、日本人だ。そのどこがわるい。何がわるい」と叫びながら姿を消した、消された朝鮮人とは自分がまったく無関係だとあきらかにそのことばで言っていた、その重夫のことばに対して、「行け」と言った、いや、命令した日本刀の抜き身を持った男の姿が見えて来た。その男と、重夫は日本人であることによって同一なのか。大きな台風が吹き抜けて行ったようだった。(中略)重夫はその「父」の不在のテーブルのその部分をうつろな眼で、しかし、一心にみつめた。「父」の不在は朝鮮の不在かも知れなかった。そう思うと、重夫の心はいっそう冷え冷えとして来た。(第十二章一五)

→自己の身の安全をはかって差別する側についたことに対するいたたまれなさ。

II

あきらかに高敬信もコブシをふり上げて重夫に突き出し、「倭奴、出て行け」と叫んでいた。(中略)重夫もその正しさを自分のこととして感じとっていた。重夫も、彼なら、まちがいなくそうしていた。しかし、重夫は「白衣の民族」の彼ではなかった。たとえ、父親が「白衣の民族」であったとしても、母親は日本人——「倭奴」だった。(中略)重夫は自分のふり上げたコブシを自分で感じとることができた。しかし、その自分のコブシは自分にむけられている。まぎれもない「白衣の民族」のひとりをもつことで、その血を半分は受け継いでいることによって、重夫は「倭奴、出て行け」と叫ぶことができた。いや、からだのなかですでに彼は懸命に叫んでいた。しかし、それは、日本人の女性を母親にもつことによって、半分は「倭奴」の血を受け継いだ自

分にむかって、自分が叫んでいることでもあった。自分が自分にむかって「出て行け」と叫ぶとき、自分はどこへ出て行けばよいのだ。いや、自分に出て行く先など、あるのか。／何か、おさえのきかない激しいものが重夫のからだのなかで渦巻いていた。憤りとも悲しみとも苦しみともつかぬ、また、誰に対してのものとも知らない、ただ激しいことだけはたしかなものが全身にみなぎり、出どころがないままで渦巻いた。(第十七章一四)

→被差別の側の抱える存在の重みにつながっているながら、同時に重みの外にいるという裂け目に自分のからだを突き入れていく。

III

「しかし、日本租界はまだもとのままだ。あそこではまだ租界がつづいている」の一語が重夫の足をとめた。／「ぼくは帰ります。お二人はみんなといっしょにこのまま行って下さい。このイギリス租界の解放に参加してください」と重夫は落ちついた口調でことばを返した。自分でもおどろくほど冷静な言い方でそう言えたが、そのあと「ぼくは日本人です。日本人だから……」と同じ落ちついた口調で言いかけて口ごもった。(中略)たしかなことは、日本人は租界をもつ側の人間であること、租界にされる、租界をもたされる側の人間でないことだった。租界にする側の人間が租界にされる、租界をもたされる側の人間のふりをすることはできない。それはやってはならないことだ。それだけはたしかだ。／重夫はそう明瞭に心を決めると、イギリス租界の入口をすぐ目のまえに見ながら、金、白と別れて、その入口めがけて強い、重い力で動く民岩の流れから自分のからだをもぎ離すようにして離れて、逆の方向指して歩き出した。(第五十二章一六)

→マヤカシの連帯を拒絶。自分が差別する側につながっていることを自覚しながら、そのつながりの意味を変えていこうとする。

集英社版『河1』に現れたるさまざまな《朝鮮》

章	ページ	舞台	内容に関するコメント
1	17	東京	子守歌の一節「ウリアギチャジャンチャジャン」
	20		「わたしは朝鮮人だが、日本人だ。そのどこがわるい。何がわるい。」vs「こいつ、ほんとうにフテイ鮮人だ。ぶちのめせ。」
2	48	神戸	「朝鮮はアイルランドみたいやないか」
3	59		三月一日に朝鮮で起こった日本に対する独立要求の運動
	74		「そやけど、岡田さんはほんまは朝鮮人なんや」「今なあ、広州の軍官学校にはようけ朝鮮のお人が入っているらしい」
4	81		「さあ、ここが朝鮮人がたくさん住んで、生きているところやで。」
	83		お盆のように円い朝鮮の餅＝シルトック
	84		「鮮人部落」 白いアゴヒゲの男
5	102		京城から来た高博士
	104		重夫の父が息子に渡してくれと高博士に託した柿の実と葉の腐りこみのある硯(トルジャビの際に重夫が手にとったもの)
6	134		「朝鮮はアイルランドと同じ。……しみが、黒い点がからだじゅうを覆って真っ黒になっている」
7	151	船中	昔はずっと朝鮮にいて、いまも朝鮮で商売(同時に特務活動)をしている中川が登場、大韓民国上海臨時政府に対しての否定的評価を下す。
8	190	上海	重夫、名前を知らぬ中国人に対して、三月一日の出来事を語り、その運動の正しかったことを主張する。
9	214		上海フランス租界にある大韓民国臨時政府。
	215		呂運亨 安昌浩 李承晩
	221		2枚の紙片に書かれた父の言葉「私は上海に行く。臨時政府に連絡して待て。」「私はこれから私の国に入る。私の国で任務をすませて、上海に行く。再会は延期。しかし、私は必ず行く。待て。」
10	240		臨時政府の一員で上海と間島地方との間を行き来する金。安東にあるイギリスの会社に勤めながら朝鮮時の独立運動を支援するアイルランド人ショウ。
11	247		重夫の友人中西が口にする朝鮮人イメージ。ユダヤ人と同じく、自分の国がないから、金儲けに必死になる。
	259		「ウサギの横姿」に似た、地図に描かれた朝鮮半島のかたち。
	260		金九先生
	265		重夫の父、朝鮮でお金を集めて上海に持ち込み、上海からは爆弾を運んで朝鮮に持ち込むこと。
	269		フランス公園で写真を撮りあう義烈団の青年
12	282		重夫の名前は「安重根」にちなんだ名前
	284		軍隊の兵士のみならず儒者も多く参加した「義兵闘争」
	285		今自分のからだのなかにもっている朝鮮のすべてを必死に息子の重夫に手渡そうとしている母
	287		重夫の父「玄文羅」の「文羅」は「文の国」。「玄」は「宇宙とかなんとかそいう」。「あまりにも大きすぎる名前」
	289		金玉均「甲申政変」
	295		三・一万歳事件を「朝鮮人が自分で立ち上った」出来事として祝う美智子(重夫の母)の父の知り合いの木村。
	301		重夫と母、震災の日の出来事を回想—「わたし」「ぼく」は「日本人」—「さっき連れて行かれた朝鮮人とは無関係な人間だと言っていたんじゃないかしら」—「父」の不在・「朝鮮」の不在
13	304		重夫に朝鮮語を教える朴登場。朝鮮の北部からアメリカ合州国に渡った「移民の子」。
	306		アメリカから朝鮮へ赴任する宣教師用の朝鮮語の教科書
	308		「ナンブヨデ、プロヒュヨ(男負女載、扶老携幼)」
	310		安昌浩、1923年、上海で「国民代表会議」開催。「理想村」の創設を画策
	310		サンフランシスコの「興士団」、1913年に創設。
	317		「急進論」「準備論」という運動の方法をめぐる二つの考え方
	321		不熟練労働者である崔さん一家。三人の子供たちが通う「仁成学校」は上海に住む朝鮮人みんなが金を出し合って作った学校
	322		白湯とソンボンで重夫をもてなす一家。
	324		中国人の子どもたちが崔家の子どもたちに投げつける「ウァン クォ スウ ウァン クォ スウ」(「亡国奴 亡国奴」)
14	333		朴の同志の緊急集会 演説・通訳する崔在倫・在植父子
	339		金の朴に対する批判「彼らは祖国の独立と自由のためにたたかっているのではない」「もっとべつの目的のために動いている」「共産主義革命を起こすことです」
	340		李東輝の「上海派」共産党と「イルクーツク派」とのいがみ合いにより、臨時政府混乱に巻き込まれる。
15	352		虹口の小学校で重夫の担任が話した「三韓征伐」の話
	372	神戸	「高先生、お願いがあるのです。ぼくを今朝鮮に連れて帰ってくださいませんか」
16	377		朝鮮人にとっていちばんいやな、もっとも危険な場所としての開釜連絡船の船内
	379	釜山	重夫の釜山の(朝鮮の)第一印象＝全体が圧倒的に眼にあざやかな白
	384	車中	列車の進行に伴い、そのイメージ後退。高博士が説明する、かつてこの地で起きた秀吉軍の朝鮮侵攻。
	387		「しかし、わたしは今また日本は朝鮮と同じことをしていると思うのだよ」
	387		「民岩」ということば
17	396	ソウル	ソウル、北漢山白岳からの瞰望—王宮・黒い屋根の街・総督府となる建物・建造中の朝鮮神宮。

(以下略)

한국인의 이해와 새로운 한일관계의 모색

이진한 (한국사연구회회장)

안녕하십니까

고대에서 한국사 가운데 고려시대사를 가르치고 있는 이진한입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한국일본학회의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노력으로 한국의 일본학 후속세대가 더욱 번성해서 향후 100주년, 500주년 행사는 오늘보다 더욱 성대하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정병호 회장님께서 저에게 한국일본학회 50주년 행사를 맞이하여 몇 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편하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받고 아무 생각없이 덜컥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다가올수록 제가 주제넘은 일을 맡았다는 생각에 후회하면서도 일정을 얼마 앞두고 갑작스럽게 못하겠다고 사양하는 것도 정병호 학장님이나 주최 측에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주로 일본을 연구하시는 학자 여러분에게 역사적으로 형성된 한국인의 특징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 주장이 여러분의 한국인에 대한 이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더 나아가 한국과 일본이 조금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일 관계가 사상 최악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특히 일본 기업의 조선인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해 아베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보복조치를 실행하였습니다. 그러자 한국은 지소미아 협정 중단 등으로 대응하고, 일본 관광 안가기,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벌어지면서 한국과 일본의 외교 정상화 이후 가장 최악의 상태가 되었고, 2020년 코로나 유행으로 양국의 시민교류마저 거의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금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정부 차원에서 한·일 관계의 개선의 의지를 보이자, 정치학자와 외교전문가들이 많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사 전공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처럼 당장 실현 가능한 방법을 하고 내놓을 수는 처지는 아닙니다. 다만 중국, 거란, 여진, 몽골, 일본 등 우리 주변 세력과의 전쟁이 많고 대외관계가 복잡했던 고려시대 외교사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국제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고려의 실용주의적 태도와 강대국에 대해 끝까지 저항하는 고려인의 자세는 한일 관계를 푸는데 힌트가 된다고 생각해서 어설픈 주장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일본 뉴스나 드라마, 책 등을 통해 조금 아는 정도인데, 한국인과 유사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이 일본인들의 정서를 잘 이해하지 못한 채 한국적 사고 방식으로 일본을 상대하여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나 일본인들이 한국인을 잘 모르고 일본식 사고로 한국과 한국인을 상대하다가 오히려 더 소원해지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양국간의 오랜 교류와 상대국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여전히 상대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화해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사 전공자이므로 오랜 역사를 경험 속에 만들어진 한국인의 기질을 알려드려서 한국과 일

본의 양국민이 친해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논지를 펴는 과정에서 한국인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도 하고, 제가 아는 박약한 수준의 일본인관을 바탕으로 양국민을 조금씩 비교도 할 것입니다, 일본과 일본인에 대해 곡해한 것이 있다면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의 자주성과 외세에 대한 저항정신이 강합니다>.

구한말 외국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서울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마을 간의 석전이 벌어지면, 상대방이 던진 돌에 맞아 머리가 깨지고, 해마다 며칠씩 진행되는 와중에 심지어 여러 명이 죽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관원은 그것을 크게 제지하지 않았고, 석전의 대장은 매우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사시에 대비한 전투의 훈련이기도 한 석전을 즐기면서 죽음을 불사하고 이기기 위해 싸운다는 것 역시 한국인의 성격으로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건대 한국은 역사의 시작인 고조선부터 중국과 싸우면서 성장해왔습니다. 고조선과의 전쟁(BC109-108)을 시작으로 고구려와 수·당 전쟁(598-668), 고려와 거란 전쟁(993-1019), 고려와 몽골 전쟁(1231-1259), 임진왜란(1592-1598), 정묘호란과 병자호란(1627, 1636) 등 여러 차례 주변 국가와 국제전을 치렀습니다. 그 가운데 고조선과 고구려는 결국 한과 당에 의해 멸망되었고, 거란과의 전쟁에서는 승리하였으며, 몽골과의 전쟁에서는 지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에 쫓겨 국왕이 의주까지 피난가는 위급한 상태에서 명군과 의병의 도움으로 반전을 일으킬 수 있었으며, 병자호란 때는 남한산성의 항전이 무위가 되어 마침내 청 황제에게 인조가 항복의 표시로 삼배구고두하는 굴욕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전근대 시기 우리 조상들은 강한 외세—주로 중국—를 곁에 두고 때로는 전쟁하고 때로는 사대하면서 국가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국제적인 사회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거란과 세 차례 치열하게 싸우고 3차에서는 상대에게 큰 패배를 안겼으면서도 거란과의 사대 관계를 결정하는 외교적 유연성을 보였습니다. 당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몽골과의 전쟁에서도 7차례의 침입을 당하면서 국토가 유린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희생되었지만, 끝내 항복하지 않아 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원나라의 많은 정치적 간섭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조상들은 2500년 이상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중국과 그 주변세력과 함께 지내며 독립을 유지해왔습니다. 1910년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으나, 삼일운동을 비롯하여 끊임없이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고 마침내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1997년 일본이 단기외채를 급작스럽게 회수하여 IMF 구제금융 사태를 초래하고,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주기 위해 2019년 일본이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 등의 한국 수출을 제한해도 결국 이겨냈습니다. 이번 일로 한국인의 일본에 감정도 나빠져서 일본 상품 불매와 일본 관광 거부 운동 등으로 서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국은 오랫동안 문화선진국이자 군사강국인 중원왕조와 몽골, 여진, 거란 등을 사대하면서도 자주 독립을 지켜왔고 나름대로의 맺집을 길러왔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이 선불리 한국에 위협을 가하는 일은 단기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어도, 끝내는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일본은 우리 조상들이 온몸으로 중국 세력을 막아준 덕분에 온실의 화초처럼 자라왔고, 운 좋게 근대화 성공했으나, 예측불가능한 대외적인 변수에 대한 적응력이 우리보다 취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배경에는 우리 조상들이 중국 및 몽골, 거란, 여진 등과 분투하며 자주성을 유지하며 방과제

역할을 하였으므로 일본은 외적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아주 평화롭게 내전을 할 수 있었으니, 일본은 우리 덕을 톡톡히 본 셈입니다.

<한국인은 매사에 허술하고 준비가 안 된 듯하지만, 특정 상황을 맞이하여 신속히 대처하는 임기응변에 강합니다>.

한국인의 먼 조상은 수렵 유목을 하는 퉁구스 계통의 신석기인과 몽골 주변 초원에서 유목을 하다가 한반도로 이주한 청동기인이 결합하여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신석기 시대에 시작된 농업은 청동기 시대와 철기시대를 거치며 더욱 확대되어 가지만, 우리 조상이 살던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농업 환경은 토지의 비옥도, 기후 등에서 중국과 일본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하였습니다. 매년 경작하는 땅은 극히 적었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은 논이 비중이 낮았습니다. 따라서 한국인의 조상들은 농사를 주업으로 하면서도 바다, 산, 강 등을 다니며 또 다른 음식원을 보충해 생존해나갔던 것입니다. 농업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어서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하며 안정적으로 살기 보다는 현실에 맞춰 각종 먹거리를 구하는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한국인에게는 유목적 속성이 남아 있어서 전통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사고를 합니다. 농업 중심의 사회가 되면서 자연에 순치된 중국이나 일본인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낮은 농업생산력으로 인해 역설적이게도 대규모 기근이 거의 없었습니다. 매년 경작하는 상경화된 농법이 아니라 1년 또는 2년 쉬어가며 농사를 짓던 조선시대 이전에는 우리의 조상들은 농업에만 의존하지 않아서 가뭄이나 홍수 등 자연 재해를 당해도 피해가 적고, 임산물, 각종 어패류, 해산물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조선후기 상경화가 진전되고 농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가뭄 등으로 인한 아사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인은 풍요롭지 않은 자연 환경으로 인해 강인한 생존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최악의 상황에서 살아남는데 탁월합니다. '한국인의 밥상'이란 프로그램을 보면 출연자들은 50년 전까지만해도 일상적인 식량 부족을 겪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까지 많이 남아있던 초가집의 주거 환경은 신석기 시대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인들은 오래가는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고, 산해진미를 즐기는 소수의 특권 계층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생존하기 위해 임기응변하는 것이 생활화되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처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매뉴얼을 만들어 위험에 대비하는 일본의 생활이나 사고방식과는 크게 다릅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하고, 한국인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예측하고 계획을 짰다고 해도 예상대로 될 가능성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은 생각하는 것보다 행동이 빠르고, 과거의 경험에서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 바뀐 현실에서 최선의 대응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자연재해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강점이 있지만, 한국은 외국의 침입이나 외환위기와 같은 '인간이 만들어낸 재해' 극복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보여왔습니다.

임기응변의 능력, 각자도생의 처세술은 한국인의 조상들이 물려준 귀한 자산입니다. 고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종 전쟁에서 수많은 전투를 벌였음에도 대규모 군대가 전멸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전투를 하지만, 전세가 여의치 않으면 살아남는데 힘쓰고 각자 헤쳐 모여 권토중래를 도모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행동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 것은 가

능하겠지만, 정확하게 몇 단계 앞까지 보는 것은 불가할 것입니다. 현재의 남북 문제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한이 매우 소원한 관계가 되어있는데, 한반도 외부 세력이 위해를 가하고자 할 때, 하루아침에 다시 뭉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이 한국을 위협하는 것을 권투에 비유하자면 일본 선수가 코치의 지시대로 한국 선수에게 최초의 한 두 방을 먹이는 데 성공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 다음부터 작전을 눈치챈 한국선수에게 예측 못할 반격을 받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인은 문화적 저력이 있으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높아졌습니다>

한국사의 무대인 한반도와 주변 지역은 토질이 척박하고 농업에 적합한 기후가 아니어서 인구의 증가가 매우 더뎠습니다. 대신 말갈인 또는 여진인, 거란인, 몽골인, 중국인 등과 같은 주변 민족들이 한반도로 이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면서 인구의 사회적 증가가 일어났고, 이들이 농업 생산력의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철, 구리 등 자연 자원과 같은 물산도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유산은 크지 않습니다. 새로운 건축물이나 물건을 만들 때에도 예전의 것들을 다시 쓰는 경우가 많아 아주 오래된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형편입니다.

그러나 19세기 이전 세계에서 최고의 문화 수준을 자랑하던 중국이 우리 이웃 나라였습니다. 평화로운 때에는 사신이나 교역으로 중국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워왔고, 그것이 세계적으로는 중국 다음 가는 문화수준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순청자, 대장경, 금속활자 등은 모두 중국의 자기와 인쇄술을 고려의 방식으로 문화적 재창조를 한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농업 생산력이 높아졌으나, 그 만큼 인구가 증가하여 절대 빈곤의 상태는 유지되었는데, 조선의 사대부들은 송대에 주자가 완성한 주자성리학을 신봉하였고, 명나라 멸망된 후 성리학이 구현되는 유일한 문명국이 조선이라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조선이 근대화 과정에서 뒤처지는 원인이 되고, 결국 일본에게 강제 점령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유교망국론의 근거가 되었으나, 조선이 패망하는 과정이나 망했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투쟁한 분들은 다름 아닌 정통 성리학의 후예였습니다. 일본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가난하고 미개한 조선인들이 왜 일본의 지배에 순종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조선인들은 자신을 지배하는 일본인들에 대해 왜놈, 왜경, 왜각시 등의 비칭을 사용하고, 1930년대 조선학 운동과 조선어 사전 편찬 사업과 같은 식민지에서 일어날 수 없으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은 이와 같은 문화적 저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한국을 점령하기 전부터 조선 역사의 부정적인 측면을 침소봉대하여 식민주의 사관을 체계화하고, 일제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사관에 의하면 우리 민족이 자주 독립국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없으므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당연하게 됩니다. 그 세부적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타율성론은 중국, 만주몽고, 일본 등 아시아의 3대 강국 사이에 끼어있는 조선은 그들의 영향 하에 놓여있어 타율적으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정체성론은 한국이 10세기 이후 독자적인 역사 발전을 이루지 못하여 정체되었다는 것으로, 주로 경제 분야에서 한국도 다른 아시아 국가들처럼 숙명적으로 정체가 고정되어 자율적인 발전을 해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파성론은 파쟁적인 민족성을 부각시켜 민족의 자주적 정치적 능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일제는 조선의 멸망 원인의 하나로 고질적인 당쟁을 들었습니다. 문화의 창조성 부재론은 한국의 유교, 불교 등 여러 방면의 문화

를 보건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은 없으며 모두 중국·인도 등 외래의 것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일제강점기 식민주의 사관을 주입식으로 배운 세대나, 해방 후 여전히 식민주의 사관의 잔재가 남아 있는 국사를 배운 세대들에게는 아직도 그 영향이 남아있어서 어르신들이 ‘그저 조선놈들은 맞아야 정신차린다’, ‘우리는 역사상 1000번이 넘는 침략을 받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결할 줄 모르고 맨날 씹박질만 한다’는 등 자신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 비하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셨습니다. 제가 대학을 입학한 82년만 해도 여전히 식민주의 사관의 찌꺼기는 한국사에서 말끔하게 없어지지 않아서 강의 시간에 교수님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그에 대한 비판을 조목조목 비판해주셨습니다. 90년대 이전의 많은 한국사 연구자들이 식민주의 사관이라는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주장을 극복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요즘들어 대학의 교양 한국사나 전공 한국사 입문 등에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이 이루어놓은 빛나는 성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구차하게 해명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일본식민주의 사관에 의하면 일본 제국주의에서 벗어나 한국이 자주독립국가가 되어도, 한국은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후진국으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해방 이후 남북이 분단되고, 1950년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국토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질 높은 노동력을 활용하여 만든 상품을 팔아 무역대국으로 성장하고 민주화에 성공하였습니다. K 드라마, K 영화, K 가요는 세계인이 가장 즐기는 오락이 되었습니다. 한국인이 속성상 고질적으로 당파성, 정체성, 타율성, 문화적 창조 능력이 없었다면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국이 한국 전쟁 후 이룬 성과는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에 성공하여 현재 세계 3강이 된 일본이나, 아편전쟁 이후 반식민지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중국의 건설하여 현재 세계 2강에 오른 중국보다 더욱 대단한 일로 평가해야 마땅합니다. 정말 한국은 아무것도 없이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북한을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엄청난 국방비를 써가면서 이루어낸 것입니다.

얼마 전 한일의원연맹 회의 때 일본 의원이 ‘일본이 형이다’라고 주장해서 양국 의원들 간에 분위기가 매우 썰렁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일본 국회의원이 한국을 한 참 아래인 조카나 손자 항렬 정도로 보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같은 항렬인 동생으로 한국을 대우하는 것을 보니, ‘한국이 크긴 컸구나’라며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다만, 이처럼 자신에게 불편한 ~~과거~~ 기억하지 않고, 100년 전의 좋은 기억하는 편의적인 일본인은 소수이고, 소수일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강제 점령의 가장 큰 공헌은 한국인을 각성시켜준 것입니다. 한국인은 그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달라진 한국 일본다루기』(김현구 저, 이상미디어, 2020)라는 책에서는 일본의 경제 보복 등으로 촉발된 한일 양국의 관계 악화에 대해 한국이 어떻게 대처해야 그동안 당해만 왔던 일본을 이길 수 있는지 비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역사 뿐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등에 대한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일본의 급소까지도 잘 설명해주셨는데, 책 표지의 “일본이 기억하는 100년 전 그 약소국은 없다!”라는 카피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이 일본에 일방적으로 당하던 때와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일본이 혼내주겠다고 한 방 날리면 혹 가는 한국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일본인들도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친해지는 것이 좋다>

이상과 같은 한국인의 기질을 아는지 모르는지 일본은 여러 차례 침략 또는 경제적 공격을 했고 한

국은 식민지가 되었으며 한국인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본의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일본인은 우리 조상을 비롯한 현재의 한국인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은 많이 했습니다. 반대로 은혜 갚기의 관점에서 보면 일본과 일본인은 역사적으로 한국의 역대왕조와 한국의 조상, 대한민국과 한국사람에게 많은 신세를 졌으니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일본 드라마 형사와 변호사가 등장하는 수사 또는 법정 드라마를 많이 보는 편인데, 일본인은 가족에 대한 원수를 갚는 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이러한 가족이나 지인에 대한 복수는 일본인의 저변에 자리잡은 일종의 심성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피해자이고 일본이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차라리 다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 관계가 반대였다면 한국과 북한에 대해 아주 못살게 굴었을 것이고, 관계 개선은 매우 요원했을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한국인들은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인들은 한일 관계에 이 금언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인은 과거사에 대해 때로는 유연하게 양보하는 태도를 보이고 가해자에게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건전한 한일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본의 시민들과 연대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정권을 잡고 유지하기 위해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 평범한 일본인들은 남을 배려하는 일본적인 사고로서 우호적인 시선으로 한국과 한국인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몇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한일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리츠메이칸 대학 교수님이 초청 강연에 오셔서 ‘일본 젊은이들의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미래 양국의 관계는 비관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전문가인 교토대 교수께서 한국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고대 한국사학과 대학원생을 위한 특별 강연을 부탁해 성사가 되었는데, 그녀는 반인륜범죄의 시효가 없다면서 서구 제국주의 시기에 있었던 수 백 년 전의 사건에 대해서도 사과와 배상을 하는 사례를 들고 일본 중군위안부 문제도 그와 같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독도에 대해서도 일본인 학자가 ‘누가 먼저 인지했는가?’, ‘누가 먼저 이용했는가?’, ‘누가 먼저 선언했는가?’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한국 땅이라고 명언을 해주어 한국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2015년 5월 25일 일본의 16개 역사연구 및 교육 단체는 ‘강제연행의 사실 여부’ ‘위안부를 성노예로 볼것인지’ ‘일본정부에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등에 대해 일본 정부와 다른 성명서를 발표할 때 13,800명 참가해주었습니다.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일본인의 성격을 고려하건대, 훨씬 더 많은 한국의 친구들이 일본에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희망입니다.

한국에 대한 호불호의 여부에 관계없이 자주 교류하며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해가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의 하나는 서로의 공통점과 훌륭한 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니시지마 선생은 <동아시아공동체론>을 주장하면서 중국·일본·한국·베트남에 공통되는 것으로서 한자문화·울명제·유교·불교를 들고, 이러한 가치체계를 공유하는 하나의 역사적 세계로서 중국문화권, 혹은 한자문화권이라고 부르고 동아시아세계라고 이름지었습니다(西嶋定生, 『東アジア世界と日本』 『西嶋定生古代東アジア論集 3—東アジア世界と冊封體系—』, 岩波書店, 2002, 174·175쪽). 이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어 왔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니시지마 선생의 선견지명은 동아시아 문화와 역사의 공통점을 찾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귀는데 비슷한 것을 찾아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문화유전자>>(한국국학진흥원 엮음, 주영하 외, 아모르문디, 2012)의 한국인의 문화적 특징으로 ‘곰삭음(발효?), 정, 자

연스러움, 공동체, 어울림, 해학, 흥, 예의, 역동성, 끈기' 등 열 가지를 들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일본에 적용했을 경우에 다섯가지 이상은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양국이 티격태격 다투면서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지니 구별하려는 경향이 강했는데, 한일 양국은 오랫동안 서로 다른 국가를 이루어 살아왔음에도, 유교·불교 문화 등의 영향을 받아 매우 유사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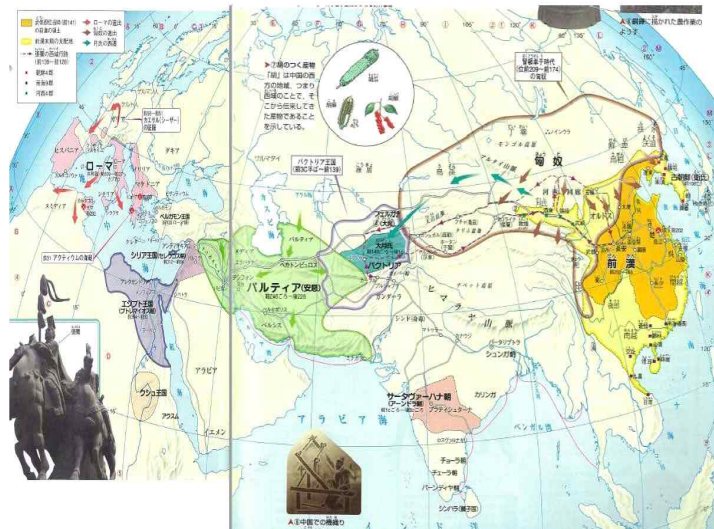
사실 유럽의 국가는 동아시아보다 국가의 수도 많고, 언어, 종교, 문화적인 역사의 친연성도 동아시아보다 높지 않습니다. 유럽 지역은 구교와 신교의 갈등으로 인한 상대방 종교에 대한 박해와 학살이 수없이 일어났고, 독일과 프랑스, 영국과 프랑스, 독일과 폴란드 등 이웃한 나라들 간에는 전쟁과 지배 등으로 인한 묵은 원한이 많은데도 유럽연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에 비하면, 북한을 포함해도 동아시아 4국의 문화적 친연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공동의 이해와 대의를 위해 뭉친다면 유럽 연합을 능가하는 동아시아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과 일본의 협력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여운: 여몽연합군의 일본정벌과 조선통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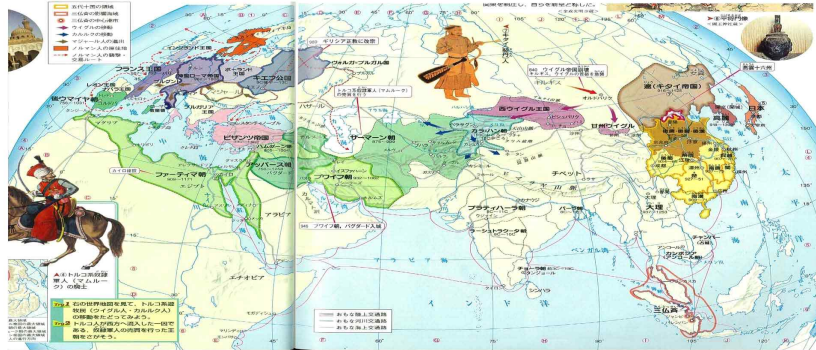
한국일본학회

이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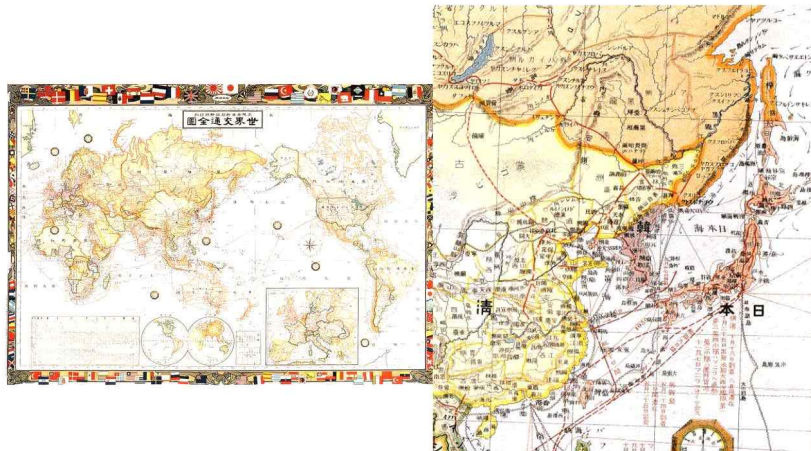
기원전 1-2세기의 세계와 고조선



10세기경의 세계와 고려



세계교통전도(1909)





후쿠오카 하카다 해안: 고려 몽골 연합군의 침입에 대비해 만든 방루와 목책(방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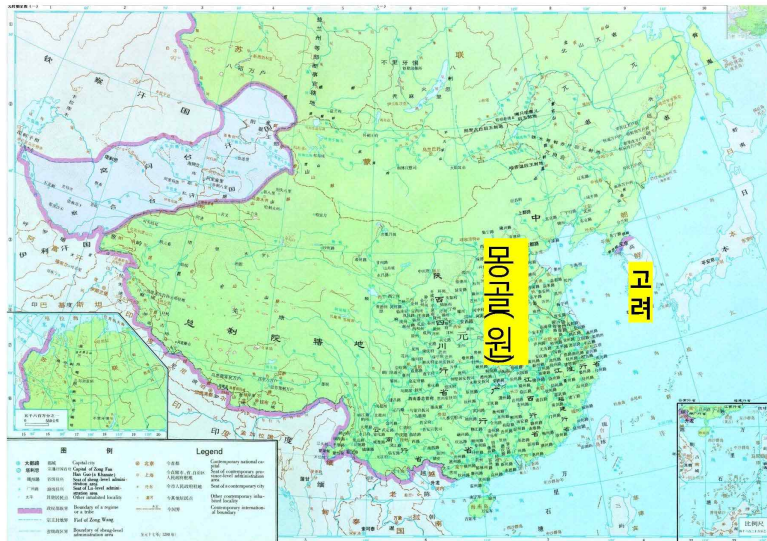


후쿠오카 하카다 해안: 고려 몽골 연합군의 침입에 대비해 만든 방루와 목책(목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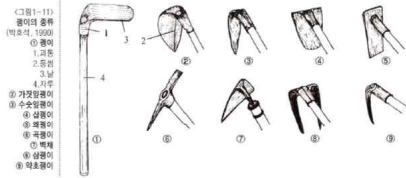
12세기의 동아시아



13세기 말-14세기 동아시아



괭이(鑿, 괭)



〈사진 1-14〉
여러 가지의 괭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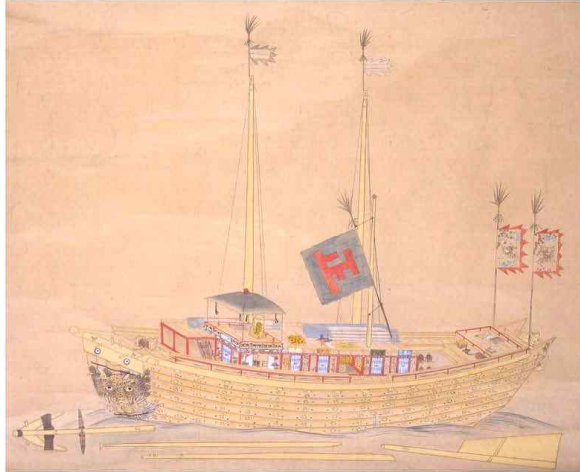
〈그림 1-12〉
괭이(鑿)
(『해동농서』)

호미의 종류/ 날, 슝베, 자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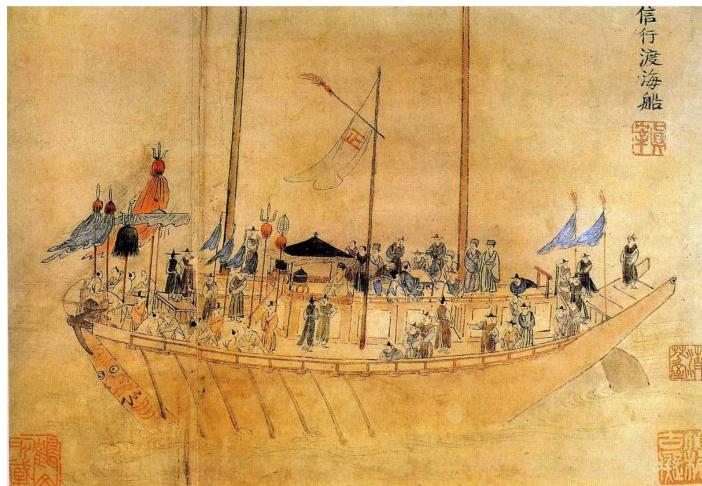
여러 가지 호미

조선 통신사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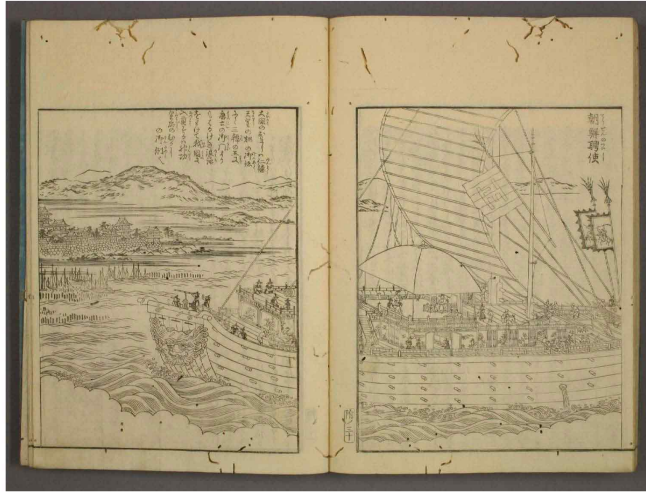
『朝鮮通信使船圖』(사가현 나고야성박물관 소장)
 - 1763년(영조 39년)에 통신사 조엄(趙曷)과 그 일행이 타고 갔던 배가 大阪(오사카)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일본 측 수행원이 그린 그림

조선 통신사선도



◆ 신행도해선(信行渡海船) 복한 조선미술관 소장
 ◆ 조선 후기 문인화가 김윤겸(1711~1775년) 그린 그림

조선통신사선도



◆ 『오우미 명소도회 조선빙사近江名所圖會 朝鮮聘使』,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 1811년 그린 그림

조선통신사선 재현 작업



재현된 조선통신사선



韓国人の理解と新しい韓日関係の模索

李 鎮 漢 (高麗大)

こんにちは。

高麗大学で韓国史、なかでも高麗時代史を教えている李鎮漢と申します。本日、このような晴れの場へお招きいただき、光栄と思います。

まず、韓国日本学会の創立50周年を心よりお祝い申し上げます。皆様方のご功績が次の世代へしっかりと受け継がれ、さらに盛大な100周年、500周年の催しへ結つくことを切に願います。

平素より尊敬しております、鄭炳浩会長から、先日、韓国日本学会の創立50周年に際し、ひとこともらいたいという依頼をうけ、何気なく承諾致しましたが、正直なところ、時間が経つにつれ、手にあまる仕事をうけもったことを後悔しました。ただ、土壇場でキャンセルしてしまいますと、鄭炳浩会長をはじめ、学会の先生の方々へ大変迷惑になると思いました。そこで、本日は、主に日本を研究対象とされている皆様方へ、歴史的に形作られた韓国人の特徴をいくつか紹介させていただくことにしたいと思います。私の話が、韓国人に対する皆様方の理解へ少しでも役に立ち、さらに韓国と日本が近寄りあう上で何らかの手掛かりになればと思います。

最近、韓日関係は史上最悪、という話をよく耳にします。とくに、日本企業の朝鮮人強制徴用に関する韓国大法院(最高裁判所)の賠償判決に対し、安倍政権が韓国をホワイトリストから除外する報復措置を実行しました。すると、韓国は、GSOMIA(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終了などをもって対応しましたが、NO-JAPAN運動も展開し、韓国と日本の関係は、両国の外交の正常化以来、最悪の状態に陥りました。さらに、2020年のコロナ流行により、民間レベルの交流さえほぼ途絶えてしまいました。

ところで、今年、韓国に新しい政権が誕生し、政府レベルでの韓日関係の改善へ意欲をみせておりますが、これに呼応し、多くの政治学者や外交専門家たちが色々と提案をしています。私は、韓国史専門なので、彼らのようにすぐ実現しうる方法を提案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ただ、中国、契丹、女真、モンゴル、日本など、周辺勢力との戦争が多く、対外関係が多岐にわたっていた高麗時代の外交史を研究した者として感じとったこと、すなわち、国際情勢の変化に主体的に対応した高麗の実用主義的な態度、そして強国に対し粘り強く抵抗した高麗人の姿勢を紹介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これらの歴史現象は、今日の韓日関係を解いてゆく上で、何らかのヒント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私は、ニュースやドラマ、本などを通じて日本人の考え方などに接しておりますが、そのなかには、韓国人の考え方とよく似ているものもあれば、異なるものも少なくないと思っております。韓国人が日本人の情緒を理解せず、韓国の考え方をもって日本側と接し、結局、所期の成果が得られず失望するケースが多々あります。まったく同じことですが、日本政府や日本人が、韓国人の感覚を理解せず、日本の考え方をもって韓国側と接し、かつての関係が悪化することも少なくありません。残念なことです。実に長い間、両国の間の交流や各国の社会の実態についての研究が、お互い蓄積されてきたにもかかわらず、依然として相手のことが理解できず和解への進展は乏しいようです。

私は、韓国史専門の立場から、歴史的経験のなかで形成された韓国人の気質を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両国の国民の親交が深まることに少しでも資すればと思います。論旨を展開する上で、我田引水のような解釈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また、日本人に対する管見に基づき、両国の比較も少々試みたいと思います。あらかじめ、ご了承ください。

<韓国人の自主性と、外部勢力に対する抵抗精神は強いです>

1900年を前後とした時期の外国人たちの証言によりますと、ソウルをはじめ、多くの地域で、毎年のように数日にわたって石合戦が行われていたそうです。相手が投げつけた石に当って頭が破れたりしたといいますが、場合によっては数人の死者が出ることもあったようです。だけど、役人たちは、それをあまり制止せず、石合戦の大將は大いに歓待されたそうです。いざという時に備えた軍事訓練でもあった石合戦を楽しみ、死をも物とせず、勝つために闘うということですが、これは、韓国人の性格について示唆するところがあります。では、なぜ、このようなことがありえたのでしょうか。

歴史を振り返ってみますと、韓国は、歴史の曙にあたる古朝鮮の時代から中国と闘いながら成長してきました。古朝鮮と漢の戦争(BC109-108)を皮切りに、高句麗と隋・唐の戦争(598-668)、高麗と契丹の戦争(993-1019)、高麗とモンゴルの戦争(1231-1259)、壬辰倭乱(1592-1598)、丁卯胡乱(1627)と丙子胡乱(1636)など、韓国は、複数回にわたって周辺諸国との国際戦争を経験してきました。そのなかで、古朝鮮と高句麗は、結局、漢と唐によって滅ぼされましたが、高麗は契丹との戦争で勝ちましたし、モンゴルとの戦争では負けておりません。壬辰倭乱の際には、日本軍に追われ国王が義州まで逃れましたが、明軍と義兵の働きで戦況を覆すことができました。また、丙子胡乱の際には、南漢山城での抗戦もむなしく、結局、仁祖が降伏の意味で、清の皇帝に対し、三拜九叩頭する屈辱を味わうこともありました。

このように、前近代の韓国人の祖先たちは、強い外部勢力一主に中国一と隣合わせし、時には闘い、時には事大をしながら、国家を保ってきましたので、「国際的な社会性」が極めて高かったです。契丹とは三回にわたって戦いましたが、三回目の戦いでは、相手に莫大なダメージを与えましたが、にもかかわらず、事大関係を結ぶという柔軟な外交もみせました。当時、世界最強の軍事力を誇っていたモンゴルとの戦争においても、七回にわたって侵略をうけ、国土は蹂躪され、多くの人民が犠牲となりましたが、最後まで降伏せず、王朝を保つことができました。もちろん、元が色々と政治的に干渉したことは否定できませんが。

韓国人の祖先たちは、2500年以上、世界最強の国であった中国や、その周辺勢力と隣合わせしながら、独立を保ってきました。1910年に日本の植民地となりましたが、3・1運動をはじめ、絶え間なき抗日独立運動を展開し、ついに国を取り戻しました。1997年には、日本が短期外債を突如回収し、IMF救済金融という事態が発生し、さらに、2019年には、日本が韓国の半導体産業に打撃をあたえるべく、半導体関連部品などの韓国輸出を制限しましたが、韓国人は、いずれも乗り越えました。今回のことで、韓国人の対日感情も悪化し、日本商品不買運動や日本観光拒否運動などが展開しましたが、結果的に、両国ともに、少なからぬ被害を受けたと聞いております。

今一度強調したいのですが、韓国は、長い間、文化先進国であり、軍事強国であった中原の王朝や、モンゴル、女真、契丹などに対し、事大をしながらも自主独立を保ってきましたし、自分なりの打たれ強さがあって、簡単に崩れることはありません。この点に鑑みれば、日本が生半可に韓国を脅かしたりすることは、短期的には成功するかもしれませんが、結局は失敗すると確信致します。

日本は、韓国人の祖先たちが身をもって中国勢力を防いでくれたおかげで、難なく成長し、運よく近代化に成功しましたが、予測のつかない対外的変数への適応力の面では、韓国より弱い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その背景には、韓国人の祖先たちが、中国やモンゴル、契丹、女真などと奮闘し、自主性を保ちながら防波堤の役割を果たした歴史があり、このため、日本は外敵を恐れず、内戦に没頭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日本は韓国に借りがあるわけです。

<韓国人は出鱈目で準備不足のようにみえますが、いざという時に、速やかに対応する臨機応変は強いです>

遠い昔へ遡れば、韓国人の祖先は、狩猟・遊牧生活をしながら新石器文化を営んでいたツングース系統の者たちと、モンゴル周辺の草原での遊牧生活を経て韓半島へ移住し青銅器文化を営んでいた者たちが結ついて形成されたものといわれます。新石器時代に始まった農業は、青銅器時代と鉄器時代を経てさらに広がりますが、韓国人の祖先たちが住んでいた韓半島と周辺地域の農業環境は、土壌肥沃度や気候などの面で、中国や日本のそれに比べられないものでした。毎年耕しうる土はごくわずかであり、単位面積当りの生産量の多い水田の比重は低かったです。したがって、韓国人の祖先たちは、主に農業に携わる一方、海や山、川からも食糧をもとめつつ生存していきます。農業一本で安定した生活ができない、という現前の厳しい環境を前提に、未来を予測し、計画しながら食糧をもとめる形で生存してきたわけです。韓国人には、遊牧民族としての属性が残っており、伝統に拘らぬ自由奔放な思考も多々みられます。農業中心の社会のなかで自然に順応してきた中国人や日本人とは、気質の面でかなり異なります。

一方、低い農業生産力により、逆説的に、大規模の飢饉は殆んどありませんでした。毎年の耕作を前提にした農法ではなく、1年、または2年の休耕を挟んで耕作をしていた時代に、韓国人の祖先たちは、農業だけに頼りませんでしたので、旱魃や洪水などの自然災害に見舞われても被害は少なく、林産物や、各種の魚介類、海産物をもって生存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ただ、朝鮮後期にいたって、毎年耕作するようになりますと、農業への依存が高まり、旱魃などによる餓死者が大幅に増えました。

このように、韓国人は、豊かでない自然環境により、強靱な生存能力を身につけたという経緯があり、最悪の状況で生き残ることににおいては抜群の能力をもっています。「韓国人の食膳」という番組をみますと、出演者たちは、50年前でも日常的に食糧不足を経験していたと証言しています。1970年代まで多々みられた草屋の住居環境は、新石器時代のそれと比べ、あまり変わらないといっても過言ではないくらいです。したがって、長持ちする大きい建物を立て、山海の珍味を楽しむ一握りの特権階層を除き、一般の韓国人にとって、生存のための臨機応変は日常のようなものでした。ある事柄に対応すべく、徹底的に準備し、マニュアルをつくって危険に備える日本の生活や考え方とは大いに異なります。

日本が韓国に対し、ある措置を取る前に色々準備をし、韓国人の反応を予測しつつ計画を立てたとしても、予想通りの流れになる可能性はあまり高くありません。なぜなら、韓国人は予想より早く行動し、過去の経験から解決策をもとめるよりは、変わった現実を前提にして最善の対応を追求するからです。日本は、自然災害に対し徹底した準備を通じて被害を最小化することに強みがありますが、韓国は、外国の侵略や通貨危機のような「人災」を乗り越えることに優れた能力を発揮してきました。

臨機応変の能力や、個々の処世術は、韓国人の祖先たちから受け継がれてきた貴重な資産です。古朝鮮時代から現代にいたるまで、様々な戦争で数えきれないほど戦いがありましたが、大規模の軍隊が全滅した事

例は、殆んどありません。韓国人の祖先たちは、まず指揮官の命令にしたがって戦いましたが、戦況がままならない場合、生き残ることに専念し、捲土重来をはかりました。そこで、韓国人の行動をある程度予測することはできますが、何段階か先を正確に読むことはできません。たとえば、現在の南北問題です。確かに核実験やミサイル発射などで、南北の関係は疎遠となっていますが、韓半島の外部勢力が危害を加えようとした時には、咄嗟に団結することもありうるでしょう。

このことを踏まえ、日本が韓国を脅かすことをボクシングにたとえれば、次のようなことになるでしょう。日本人選手がコーチの指示通りに動き、まず韓国人選手に何発かパンチを食らわせることはできますが、その次から作戦を見抜いた韓国人選手が予想外の反撃に出る、ということです。

<韓国人は、文化的に底力があり、韓国の国際的な位相は高まりました>

韓国史の舞台である韓半島や、その周辺地域は、痩せ地であり、農業に適した気候でもありませんでしたので、人口の増加は非常に後れました。その代りに、靺鞨人あるいは女真人、契丹人、モンゴル人、中国人など、周辺の民族が韓半島に移住して農業に携わり、人口の社会的増加へつながりました。彼らは農業生産力の発展にも貢献しました。鉄、銅など、自然資源も豊富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ので、韓国の文化遺産は大きくありません。新しい建物やモノを造る際には、建築材などを再活用することが多く、したがって、古い文化遺産はあまり残っていないのが現状です。

しかし、19世紀以前の世界で、最高の文化水準を誇っていた中国が隣の国でした。平和の時代には、使臣や交易のことで中国へ渡り、様々な文物をみたり学んだりしましたが、それが、世界的にみても、中国に次ぐ文化水準を維持する原動力となりました。高麗時代を代表する純青磁、大蔵経、金属活字などは、いずれも中国の磁器や印刷術を高麗の立場から咀嚼し、文化的に再創造したものです。朝鮮時代に農業生産力は高まりましたが、それだけ、人口が増え、絶対貧困の状態が続きましたが、朝鮮の士大夫たちは、宋代に朱子が完成した朱子性理学を信奉し、明の滅亡のあと、性理学が具現されている唯一の文明国は朝鮮であると自負しました。これが、朝鮮が近代化に後れる原因となり、結局、日本に強制占領される結果を招いた、という儒教亡国論の根拠となりました。だが、朝鮮が減じる過程や、減びた際に誰より積極的に闘争したのは、他ならぬ正統性理学の末裔たちでした。日本人の立場にしてみれば、みすばらしく、未開な朝鮮人たちが、なぜ日本の支配に従順しないのか、到底理解できなかったことでしょう。朝鮮人たちは、自分自身を支配する日本人たちに対し、ウェノム(외늬)、ウェギョン(외경)、ウェガクシ(외각시)などの卑称を使ったりしました。1930年代の朝鮮学運動や、朝鮮語辞書編纂事業など、およそ植民地では起りえない、あるいは、起ってはいけなかったのは、歴史的に培われてきた文化的底力があったからです。

かつて、日本の帝国主義者たちは、韓国を占領する前から、朝鮮の歴史の否定的な側面を浮彫りにして、植民主義史観を体系化し、日帝の植民支配を正当化しようとしてきました。この史観によりますと、韓国民族は、自主独立国としての権利を全うすることができず、日本の植民地になるのが当然の成り行きと見做されます。その主な内容は、次の通りです。

まず、他律性論は、中国、満州モンゴル、日本など、アジアの三大強国の間に挟まれていた朝鮮は、彼らの影響下にあり、他律的に歴史が展開したということです。停滞性論は、韓国が、10世紀以降、独自の歴史発展を成し遂げられず、停滞したという主張であり、主に経済分野のことですが、韓国もほかのアジア諸国のように、宿命的に停滞が固定化し、自律的な発展ができ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党派性論は、派閥の間の闘争を

民族性として位置づけ、民族の自主的な政治運用能力そのものを否定することです。日帝は、朝鮮滅亡の原因の一つとして、痼疾的な党争をとりあげました。文化創造性の不在論は、韓国の儒教、仏教など、諸方面の文化を見渡してみると、自ら造り上げたものは何一つなく、すべて中国、インドなどから輸入されたもの、すなわち、外来のものであるという主張です。

日帝強占期の植民主義史観を叩き込まれた世代や、植民主義史観の残滓のある国史を学んだ解放後の世代には、なお、その影響がひびいており、一昔のお年寄りたちは、「朝鮮のやつらは打たれてこそ正気にもどる」、「我々は、歴史的に一千回以上も侵略をうけた」、「我が国の人々は、団結を知らず、毎日喧嘩三昧だ」など、自分自身をふくめ、韓国人を蔑む言葉を平気で口にしていました。私が大学に入った1982年頃にも、植民主義史観の残滓は、韓国史分野で払拭されず、教授たちは、講義中に相当の時間を割愛し、一々批判を行いました。1990年代以前の韓国史研究者の多くは、植民主義史観という一方的で、かつ質の悪い主張を克服することに力を注ぎました。ところが、最近、大学の教養韓国史や、専攻の韓国史入門などでは、この問題に深入りしておりません。その理由は、2022年現在、大韓民国が成し遂げた輝かしい成果があるからです。敢えて説明する必要はないというわけです。

日本の植民主義史観によりますと、日本帝国主義から抜け出した韓国は、自主独立国になったとしても、他国に依存する後進国に止まっていたはずです。韓国は、解放して間もなく分断され、1950年に韓国戦争を経て国土がすっかり廃虚となり、世界でもっとも貧しい国になりましたが、にもかかわらず、良質の労働力を活かして作った商品売り捌き、貿易大国として成長しましたし、民主化にも成功しました。Kドラマ、K映画、Kポップは、世界中の人々がもっとも嗜む娯楽となりました。韓国人が痼疾的な党派性、停滞性、他律性を自分自身の属性としてあわせもち、かつ文化的な創造能力をもっていなかったとしたら、このようなことは起りえないです。韓国が、韓国戦争後に成し遂げた成果は、明治維新以降、近代化に成功して今現在世界三強となった日本の成果や、阿片戦争を経て半植民地化を経験した後、新しい国造りに成功して今日世界二強となった中国の成果より、賞賛されてしかるべきことでしょう。なぜなら、韓国は、文字通り、無から有を創り出したからです。しかも、北朝鮮を睨みつつ、莫大な国防費を投じながら成し遂げた成果です。

つい最近、韓日議員連盟の会議で、日本のある議員が、「日本が兄貴分だ」と主張し、会場の空気は一瞬にして張り詰めたという話を聞きました。私は、平素より、日本の国会議員たちが韓国を甥っ子か姪っ子、あるいは孫くらいに見做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感じていましたが、韓国を同列の弟としてみている、という今回の話を聞き、「韓国が確実に成長したものだ」と相当驚きました。ただ、このように、自分自身に都合のわるい過去は記憶せず、100年前のおいしい記憶だけにこだわる日本人は少数に過ぎないと信じたいと思います。韓国人にしてみれば、日本の韓国強制占領の最たる貢献は、韓国人を覚醒させたことです。韓国人は、それを忘れていません。

最近、『様変わりした韓国、日本の取扱い方』(金鉉球、イサンメディア、2020)という本では、日本の経済報復などに触発された韓日両国の関係悪化に対し、韓国がどのように対応すれば、やられっぱなしだった日本を勝ち抜くことができるか、その秘策を提言しています。歴史だけではなく、政治、経済、軍事などに関する高い識見に基づき、日本の急所まで分かりやすく説明していますが、「日本が記憶する、100年前の弱小国は、もういない!」という表紙の広告文からわかりますように、韓国が日本に一方的にやられていた頃に比べれば、今現在、両国が置かれている境遇は全く異なります。日本がとっちめるべく、パンチを出すと、そのままパンチを食らってくたばってしまう韓国は、もういないことを日本人たちも直視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韓国と日本は、親しくなるのがよい>

以上が、私が思う韓国人の気質ですが、日本は、数回にわたって韓国を侵略し、さらに経済的に攻撃し、韓国は植民地となり、韓国人たちは少なからぬ被害を受けました。人様に迷惑をかけてはいけない、という観念もむなしく、日本人は、韓国人の祖先たちや、現在の韓国人に、やっつけてはいけないことを散々やってきました。また、恩返し視点からすれば、日本と日本人は、歴史的に韓国の歴代王朝や、韓国人の祖先たち、大韓民国と韓国人の人々の世話を大いに受けましたので、恩返し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私は、日本のドラマのなかで、刑事と弁護士が登場するサスペンスや法廷ドラマをよくみますが、日本人は、家族の仇を討つことを、当たり前のこととっているようです。家族や知人の仇への復讐は、歴史的に形成された日本人の心性のようです。そういったことを考えますと、韓国が被害者で、日本が加害者だったことが、さいわいであると思えます。もし、その関係が逆だったら、日本は、韓国と北朝鮮を執拗に苛めただろうし、関係の改善は極めて難しかったでしょう。「歴史を忘却した民族に未来はない」という言葉を、韓国人たちは肝に銘じています。にもかかわらず、韓国人たちは、韓日関係にもこの金言を必ず適用せねばならないとは考えておりません。韓国人は、過去の歴史に対し、時には柔軟に譲歩する態度をもっており、加害者に手を差し伸べることもできます。

ただいま、健全なる韓日関係を築き上げるために、韓国人がやるべきことは何でしょう。それは、日本の市民たちと連帯し、彼らと引切り無しに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とることです。日本の政治家たちは、票をえるために、政権をとってそれを維持するために、善悪を弁えない場合が多々ありますが、一般の日本人たちは、人を配慮する思考のもと、友好的な目線で韓国と韓国人をみています。

私が知っているいくつかの事例があります。韓国大統領の独島訪問後、韓日関係が悪化した際に、立命館大学の教授が韓国での講演で、「日本の若者たちは、韓流などの影響で韓国を敵対視してはいないので、未来の両国の関係は、悲観的ではない」とおっしゃいました。また、慰安婦問題専門の京都大学の教授が韓国へお出でになった際、弊校の韓国史学科の大学院生向けの講演をお願いしたことがあります。彼女は、反人倫犯罪に時効はないとし、西欧の帝国主義時代に起きた数百年前の事件に対しても謝罪や賠償がなされた事例をとりあげ、日本の従軍慰安婦問題も全く同じであると説明しました。さらに、独島に対しても、日本人の学者が、「誰が先に認知したのか」、「誰が先に利用したのか」、「誰が先に宣言したのか」、という三つの側面からみて、独島は韓国の領土であると明言し、韓国に大きな助け船となりました。さらに、2015年5月25日、「強制連行の事実如何」、「慰安婦を性奴隷とみるべきか」、「日本政府に法的責任はあるのか」などに対し、日本政府を批判する声明書を発表した際、日本の16個の歴史研究および教育団体から、13,800名が参加してくれました。本音をあまり表さない日本人の性格を勘案しますと、韓国の友人たちは、もっと大勢日本にいるはずですが、彼らが希望です。

韓国に対し、好感をもっているのかどうかはさておき、まず頻繁に交流し、お互いの理解を深め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その方法の一つは、お互いの共通点や、相手の長所を探り当てることです。西嶋先生は、「東アジア共同体論」を主張し、中国、日本、韓国、ベトナムに共通するものとして、漢字文化、律令制、儒教、仏教をとりあげ、これらの価値体系を共有する一つの歴史的世界を中国文化圏、あるいは漢字文化圏と呼び、東アジア世界と名付けました(西嶋定生、「東アジア世界と日本」、『西嶋定生古代東アジア論集 3: 東アジア世界と冊封體系』、岩波書店、2002、 174・175頁)。これに対し、数多くの批判が寄せられてきましたが、私

は、西嶋先生の先見の明は、東アジア文化と歴史の共通点を探し求めたことであると思います。お互い付き合う上で、似通ったものを探り当てることより重要なことはありません。ところで、『韓国人の文化遺伝子』(韓国国学振興院、周永河ほか、アモールムンディ、2012)では、韓国人の文化的に特徴として、<ゴムサグム(醜癖)、情け、自然さ、共同体、調和、諧謔、興、礼儀、力動性、粘り強さ>など、10個をとりあげています。これらを日本に適用した場合、五つ以上は該当すると思います。両国がごたごたと小競合をし、相手を段々否定的にみるにつれ、自分自身と相手を峻別する傾向が強まってきたわけですが、韓日両国は、実は、長い間、異なるカタチの国家を営んできたにもかかわらず、儒教や仏教文化などの影響うけ、非常に類似した情緒を共有しております。

実際、ヨーロッパの諸国は、東アジアより国の数も多いし、言語や宗教、文化的歴史の親縁性も東アジアより高くありません。ヨーロッパ地域は、カトリックとプロテスタントの葛藤による迫害や虐殺が相次いだし、ドイツとフランス、イギリスとフランス、ドイツとポーランドなど、隣合わせの国々の間には、戦争や支配などに因む根深い怨念も燻っておりますが、にもかかわらず、ヨーロッパ連合は創り出されました。それに比べれば、北朝鮮をふくめても、東アジア四ヶ国の文化的親縁性がずっと高いので、共同の利害や大義のために団結するのであれば、ヨーロッパ連合を凌ぐ東アジア共同体を創り出すこともできるでしょう。そして、それは、韓国と日本の協力から始まることでしょう。

<余韻: 蒙古襲来と朝鮮通信使>

二つの震災、二つのマイノリティ

一 阪神淡路大震災と東日本大震災における外国籍マイノリティ

松田利彦(国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近代日本におけるエスニックマイノリティの形成は、歴史的に見ると、一九二〇～四〇年代と一九九〇年以降という二つの山をもっている。いわゆるオールドカマーとニューカマーである。阪神淡路大震災の被災地と東日本大震災の被災地における外国人住民の構成は、このような在日外国人住民形成にまつわる二通りの歴史的経緯を、ある程度対照的に反映している。

すなわち、兵庫県は、オールドカマーの韓国・朝鮮人の集住地域を抱えていたのに対し、東北三県は、オールドカマーとニューカマーの混成地域であり、韓国・朝鮮人のほかにニューカマーが高い比率を占めていた。いわゆる「農村の花嫁」や技能実習生、留学生などである。東日本大震災における外国人被災者は居住地域が散在し、在留資格もまちまちであり、その分、職場や日本人家庭のなかで彼らの姿は見えにくくなっていた。

二つの震災における在日外国人の行動には共通点と相違点がある。共通点は、オールドカマー、ニューカマーのいずれも、情報や物資の入手において、日本人とのネットワークだけでなく、エスニックなネットワークを活用したことである。韓国・朝鮮人の場合は、両震災において民団・総聯という二大組織が独自の支援活動を行った。東日本大震災におけるニューカマーの場合も本国領事館や本国の家族・親族あるいは教会を通じたネットワークが存在した。

反面、相違点としては、東北におけるニューカマーの場合、エスニックなネットワークと日本人とのネットワークが併存していたことがあげられる。県の国際交流協会や各地の日本語教室など日本人の行政担当者や民間人が作っていたネットワークが有効に機能した場合も少なくない。ただし日本人が介在する外国人住民のネットワークづくりには問題点も指摘されている。また、オールドカマーとニューカマーが在住外国人として課題を共有するという動きは阪神淡路大震災ではみられたのに対して、東日本大震災ではこうした活動は確認できないという違いも指摘できよう。

福島第一原発事故への責任＝応答可能性とグローバルな連帯

佐藤嘉幸 (筑波大)

福島第一原発事故から11年が経過し、原発事故被害者たちの集団的な抵抗運動は、国と東京電力を相手とした裁判闘争へと収斂しつつある。最近、こうした裁判闘争において、二つの極めて重要な判決が出された。2022年6月17日の原発被害者訴訟(生業訴訟、千葉・群馬・愛媛避難者訴訟、以下「生業訴訟」と略記)最高裁判決と、7月13日の東電株主代表訴訟(以下「株代訴訟」と略記)東京地裁判決である。生業訴訟最高裁判決は東京電力の責任を認めたものの、国の責任を全面否定した。他方、株代訴訟東京地裁は、東電元経営陣四人に対して原発事故の責任を認め、13兆3210億円という巨額の賠償を命じる判決を出した。両者の判決内容は全く対照的だが、同時に、照応する部分もある。本発表ではその対照的な二つの判決を比較することで、福島第一原発事故の責任の所在について考えてみたい。福島第一原発事故において、15.7メートルの津波襲来の可能性を2008年の時点で予見していながら何の対策も取らなかった東京電力に責任があるのは当然である。しかし、国策民営として展開されてきた原発政策の中で規制権限を適切に行使してこなかった国に本当に責任はないのだろうか。そして、民間企業である東京電力にのみ責任を認め、国の責任を免除する司法の態度に問題はないのだろうか。

ところで、福島第一原発事故への責任は、東京電力と国のみならず、原発という「差別のシステム」(小出裕章)に依存してきた私たち自身にもある。そこから結論として、「責任」の概念を「責任＝応答可能性 [responsabilité]」(ジャック・デリダ)と読み替え、福島第一原発事故というカタストロフィとその被害者への応答可能性こそがグローバルな連帯をもたらす、という点を論じたい。原発とは本質的に差別を内包するシステムであって、原発に本質的に内在する事故と被曝のリスクを地方に押し付けることによって成立している。その構造はむしろ日本でも韓国でも同一であり、大都市の電力消費者は、地方の原発立地地域にリスクを押し付けることで便利な生活を享受してきた。福島第一原発事故後にドイツ、イタリア、スイス、台湾、韓国(ムン・ジェイン政権、政権交代により撤回)で宣言された脱原発とは、まさしく福島住民の被害を真剣に受け止め、それに応答することで原発という差別のシステムを放棄する、というグローバルな連帯である。本発表ではそうした視点から、国境を超えた脱原発の決定を、福島住民への応答とグローバルな連帯として捉え直したい。

1. 生業訴訟最高裁判決と国の責任

生業訴訟最高裁判決と株代訴訟東京地裁判決について、私たちは各訴訟の原告代理人である馬奈木 徹太郎弁護士、海渡雄一弁護士にインタビューを行った¹⁾。ここでは、そのインタビューに依拠しながら

¹⁾ 海渡雄一・馬奈木徹太郎弁護士インタビュー(聞き手=佐藤嘉幸)、「原発事故への国、東電の責任を考える—生業最高裁判

ら、それぞれの判決を分析し、国と東京電力の責任について考察したい。

生業訴訟最高裁判決²⁾は概ね次のように述べて、国の責任を否定している。「政府の地震調査研究推進本部が2002年に出した長期評価に基づいて防潮堤を作っても、2011年に起きた地震、津波はより規模の大きいものであり、事故を防ぐことはできなかった。従って、経済産業大臣が規制権限を行使しても事故は防げなかった」。しかし判決は、講じ得た対策を防潮堤だけに限定し、水密化など他の対策を全て排除している。非常に無理のある仮定に則って国の責任を免除しており、多くの批判に曝されている。

具体的に見てみよう。地震調査研究推進本部(以下、地震本部)とは、日本を代表する多くの地震、津波の専門家が集合して地震に関する調査研究を行う政府機関であり、日本周辺で想定される大地震の発生可能性を評価する「長期評価」を2002年に公表した。「日本海溝沿いの領域のうち、三陸沖北部から房総沖にかけての日本海溝寄りの南北に細長い領域に関し、明治29年に発生した明治三陸地震と同様の地震が上記領域内のどこでも発生する可能性があること、上記領域内におけるマグニチュード8クラスのプレート間大地震(津波地震)については、今後30年以内の発生確率が20%程度、今後50年以内の発生確率が30%程度と推定されること、その地震の規模は、津波マグニチュード8.2前後と推定されること」(生業訴訟最高裁判決、3-4頁)がその内容であった。「30年以内の発生確率が20%」とは、1万年に1度の地震も考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原発の安全性基準にとっては極度に高い値であり、国は、政府機関である地震本部の出した長期評価に基づいて、福島第一原発に対して規制権限を行使し、過酷事故を避けるために有効な対策を実施させる必要があったはずだ。しかしながら、最高裁判決は奇妙にもこの可能性を完全に退けている。2020年9月の生業訴訟仙台高裁判決が、国の態度を次のように厳しく断罪したのとは正反対の態度である。

平成14年8月に一審被告東電から「長期評価」の見解の科学的根拠についてヒアリングをした保安院の対応は、国の一機関に多数の専門分野の学者が集まり議論して作成・公表した「長期評価」の見解について、その一構成員で反対趣旨の論文を発表していた一人の学者のみに問い合わせたその信頼性を極めて限定的に捉えるという、不誠実ともいえる一審被告東電の報告を唯々諾々と受け入れることとなったものであり、規制当局に期待される役割を果たさなかったものといわざるを得ない(生業訴訟仙台高裁判決要旨、8頁)³⁾。

仙台高裁判決は、国が長期評価に従って東京電力に規制権限を行使し、正当な津波対策を行わなかったことを、東京電力の主張を「唯々諾々と受け入れ」、「規制当局に期待される役割を果たさなかった」と厳しく断罪している。それに対して、最高裁判決は国の責任をめぐってどのような主張を展開しているのだろうか。引用しよう。

本件長期評価が今後発生する可能性があるとした地震の規模は、津波マグニチュード8.2前後であったのに対し、本件地震の規模は、津波マグニチュード9.1であり、本件地震は、本件長期評価に基づいて想定される地震よりもはるかに規模が大きいものであった。また、本件試算津波による主要建屋付近の浸水深は、約2.6m又はそれ以下とされたのに対し、本件津波による主要建屋付近の浸水深は、最大で約5.5mに及んでい

決・株代東京地裁判決 二つの対照的な判決から」、『週刊読書人』、2022年8月12月号。

2) 生業訴訟最高裁判決は以下。 https://www.courts.go.jp/app/files/hanrei_jp/243/091243_hanrei.pdf

3) 生業訴訟仙台高裁判決要旨は以下。 <http://www.nariwaisoshou.jp/progress/2020year/entry-845.html>

る。そして、本件試算津波の高さは、本件敷地の南東側前面において本件敷地の高さを超えていたものの、東側前面においては本件敷地の高さを超えることはなく、本件試算津波と同じ規模の津波が本件発電所に到来しても、本件敷地の東側から海水が本件敷地に浸入することは想定されていなかったが、現実には、本件津波の到来に伴い、本件敷地の南東側のみならず東側からも大量の海水が本件敷地に浸入している。

これらの事情に照らすと、本件試算津波と同じ規模の津波による本件敷地の浸水を防ぐことができるものとして設計される防潮堤等は、本件敷地の南東側からの海水の浸入を防ぐことに主眼を置いたものとなる可能性が高く、一定の裕度を有するように設計されるであろうことを考慮しても、本件津波の到来に伴って大量の海水が本件敷地に浸入することを防ぐことができるものにはならなかった可能性が高いといわざるを得ない(生業訴訟最高裁判決、10頁)。

最高裁判決はこのように、長期評価が予測した地震のマグニチュード8.2よりも、2011年に実際に起きた地震のマグニチュードは9.1とより大きかったため、長期評価に基づいて作られたであろう防潮堤によってこの津波を防ぐことはできなかつたであろう、と極めて不可解な仮定を積み重ねた上で、次のように国の責任を否定する。「仮に、経済産業大臣が、本件長期評価を前提に、電気事業法40条に基づく規制権限を行使して、津波による本件発電所の事故を防ぐための適切な措置を講ずることを東京電力に義務付け、東京電力がその義務を履行していたとしても、本件津波の到来に伴って大量の海水が本件敷地に浸入することは避けられなかつた可能性が高く、その大量の海水が主要建屋の中に浸入し、本件非常用電源設備が浸水によりその機能を失うなどして本件各原子炉施設が電源喪失の事態に陥り、本件事故と同様の事故が発生するに至っていた可能性が相当にあるといわざるを得ない。／そうすると、本件の事実関係の下においては、経済産業大臣が上記の規制権限を行使していれば本件事故又はこれと同様の事故が発生しなかつたであろうという関係を認めることはできないことになる」(生業訴訟最高裁判決、10-11頁)。これを単純化して言い換えれば、「津波は長期評価の予測よりも大きかったので、国が東京電力に規制権限を行使していても、事故は防げなかつた。だから、規制権限を行使する必要はなかつた」ということになり、極めて不条理な論理であることは明確である。明らかに、国の責任を免責するために構築された論理であるとしか考えられない。

判決はまた次のように述べて、防潮堤以外の津波対策の可能性を否定している。

本件事故以前において、津波により安全設備等が設置された原子炉施設の敷地が浸水することが想定される場合に、想定される津波による上記敷地の浸水を防ぐことができるように設計された防潮堤等を設置するという措置を講ずるだけでは対策として不十分であるとの考え方が有力であったことはうかがわれず、その他、本件事故以前の知見の下において、上記措置が原子炉施設の津波対策として本件事故以前に経済産業大臣が上記の規制権限を行使していた場合に、本件試算津波と同じ規模の津波による本件敷地の浸水を防ぐことができるように設計された防潮堤等を設置するという措置に加えて他の対策が講じられた蓋然性があるとか、そのような対策が講じられなければならなかつたということではできない(生業訴訟最高裁判決、9-10頁)。

津波対策としては防潮堤以外にも、例えば原発の水密化など、事故前に国内の原発で現実に実施されていた対策が存在した。にもかかわらず、判決は津波対策を防潮堤のみに絞った上で、防潮堤では事故

は防げなかっただろうから、東京電力に規制権限を行使しなかった国に責任はない、と述べて国の責任を否認するのである。馬奈木弁護士は私たちによるインタビューで、このような判決の論理構造を厳しく批判している。

最高裁判決の多数意見には、批判されるべきポイントが多々あります。「最高裁文学」という言い方がありますが、特に多数意見ではそうした「文学性」が遺憾なく発揮されている。東電が取ったであろう蓋然性の高い対策として、防潮堤が「基本」だったと断定していますが、これは主語も根拠も明確ではなく、法令や指針に基づくものでもない。多数意見がそう評価しているだけです。そこから第一の仮定が出てきます。防潮堤を作ったとして、どこに作るのか。敷地高さを超えると試算された南東側には作っただろうが、敷地高さを超えないと試算された東側には作らなかつただろう、という勝手な仮定です。その上で、第二の仮定が置かれます。実際の津波は南東側からに限らず、東側から襲ってきた。結果建屋まで浸水し、SBO(ステーション・ブラックアウト)になるので、結果は変わらないだろう、という仮定です。まず、第一の仮定が非常にご都合主義です。最高裁の脳内シミュレーションに過ぎない。試算結果では東側でも敷地高さに対して70センチしか裕度がない。そこからなぜ「東側には作らなかつただろう」という仮定を導き出せるのか。70センチは余裕がない状態なので「東側も対応しないとイケない」となるのではないのか。多数意見は、数字(裕度70センチ)は出さず、「敷地高さを超えない」とごまかして表現している。そして、70センチの余裕で原発を操業させることに、立地自治体や福島県は同意するのか。実際は同意しないのではないのか。

馬奈木弁護士は「最高裁の脳内シミュレーション」という厳しい言葉を使って、判決を批判している。防潮堤は「敷地高さを超えないと試算された」原発の東側には作らなかつただろう、というのが判決の第一の仮定であり、その上で、実際の津波は東側からも襲ってきたので、やはり過酷事故が起きたはずだ、という第二の仮定が置かれている。しかし、東側では想定される津波に対して裕度が70センチしかないにもかかわらず、判決は「敷地高さを超えない」とその点を隠蔽しており(むしろ、70センチの裕度は誤差に過ぎないとして、東側にも防潮堤を作っていた可能性が高い)、さらには、こうした危険な状況下での原発稼働への地元自治体の同意も問題にしていな。このように考えれば、判決があまりに恣意的な論理展開によって国の責任を否認していることが、明瞭に理解できるだろう。

最高裁判決は54頁あるが、概要を除けば判決は4頁程度しかない。しかし驚くべきことに、判決には三浦裁判官による30頁もの反対意見がついており、これは実質的に判決文の体裁を取っている。極めて例外的な判決である。三浦反対意見は多数意見を厳しく批判しており、また、津波対策としての原発の水密化の可能性も是認して、規制権限を正しく行使しなかった国の責任を厳しく断罪している。「本件長期評価は、本件地震のように、複数の領域が連動して超巨大地震が発生することを想定していなかったが、「想定外」という言葉によって、全ての想定がなかったことになるものではない。本件長期評価を前提とする事態に即応し、保安院及び東京電力が法令に従って真摯な検討を行っていれば、適切な対応をとることができ、それによって本件事故を回避できた可能性が高い。本件地震や本件津波の規模等にとらわれて、問題を見失ってはならない」(生業訴訟最高裁判決、51頁)。福島第一原発事故が本当に「想定外」の事故であったかどうかは次節で検討するが、現実に照らしても、国が東京電力に対して正しく規制権限を行使しておらず、それが事故につながったことは明白である。例えば、当時の規制機関である原子力安全・保安院は、長期評価を受けて2002年に東京電力に福島沖の津波計算を求めた際、東京電

力・高尾氏の「[確定論でなく]確率論で検討する」という「40分の抵抗」を受けて、それを容認した(後に高尾氏は「確率論で評価することは実質評価しないこと」と発言している)。また、東京電力は耐震バックチェック(新たな安全基準が作成された場合に、それ以前に作られた原発について、新基準に照らし合わせて調査し直す作業)を、国が定めた期限の2009年6月どころか事故時点でも完了しておらず、国はこの先延ばしを容認していた。耐震バックチェックについて、海渡弁護士は問題を次のように説明する。

2009年9月に東京電力が貞観の津波の試算結果を保安院に説明した。この説明会に小林勝・保安院耐震安全審査室長は当初欠席したと証言していた。これは、後に訂正され、当初から出席していたことを同氏は認めた。小林氏の政府事故調調書には次のやり取りが記録されている。小林「ちゃんと議論しないとまずい」。野口・審査課長「保安院と原子力安全委の上層部が手を握っているから余計なことをするな」。原昭吾・広報課長「あまり関わるとクビになるよ」。

野口氏は以前、経産省資源エネルギー庁でプルサーマルを推進する立場にいた人であり、安全を審査する立場の小林氏を恫喝するような発言をしていた。この点について、海渡弁護士は私たちによるインタビューで次のように説明する。「忘れられている論点が二つあります。一つは、当時東電の原発の中で、柏崎刈羽原発は中越地震の影響で止まっていて、新潟県知事は耐震バックチェックの合格を再稼働の要件としていた。だから必死になってバックチェックを通すしかなく、耐震補強もやらなければならない。だから、福島第一原発にまでお金をかけたくない。もう一つは、福島第一原発三号機ではプルサーマルが計画されていたことです。だから、不安定要素になるバックチェックをしたくなかった。この点が東電と保安院と、原子力安全委員会の暗黙の共通理解になっていたんじゃないか」。プルサーマルとは、原子炉で使用した使用済み燃料を再処理して取り出したプルトニウムとウランを混ぜたMOX燃料を、既存の軽水炉で使用するという計画であるが、その計画実現のために福島第一原発の規制を緩和していたのだとすれば、規制当局は事故の責任を免れ得ない。規制当局が正しく東京電力を規制していれば、事故は起きなかった可能性は高い。またそもそも、原発は国策によって作られ、民間によって運営されるという「国策民営」として推進されてきた。その点から考えても、国に倫理的な責任がないなどということはありません。

最高裁はしばしば国家の政策に追従的であり、それゆえ「政治的」と評されてきた。これまで最高裁は、砂川事件で日米安保条約について判断を留保し、事実上それを是認した(統治行為論)と同様に、国策民営で推進されてきた原発政策についても、それ否定する判決を出したことはない。その意味で、日本には正しい意味での「三権分立」は存在しないのである。しかし、現実に原発過酷事故が起きてしまったポスト3.11の社会において、そのような構造は果たして温存されるべきだろうか。東京電力による原発被害者への賠償という枠組みを維持し、国家賠償請求を棄却すべく、福島第一原発事故への国の責任を免除した最高裁の「政治性」は、国策民営の原発によって自らの故郷を放射能で汚染された原発事故被害者の無念を考えれば、極めて強い非難に値する。

4) 海渡雄一、「耐震バックチェック最終報告の延期をめぐる、保安院と原子力安全委員会と東電間の実情を解明することが必要である」、福島原発刑事訴訟支援団HP、2018年4月27日。<https://shien-dan.org/trial-report-20180427-kaido/>

2. 東電株主代表訴訟と東京電力の責任

次に、東電株主代表訴訟の東京地裁判決⁵⁾について検討しよう。この判決は、東電旧経営陣四人に福島第一原発事故の責任を認め、13兆3210億円の賠償を命じた画期的な判決である。13兆円余という賠償金額(東京電力が事故によってこれまでに支出した損害金額を根拠としている)が目玉だが、実際の重要性はそこにはない。この判決の重要性は、福島第一原発事故に対する東京電力の責任を、東電旧経営陣四人の経営責任として十全に認定した点にある。

多くの人々はこれまで、東京電力の事故後の言い訳に欺かれて、福島第一原発事故は「想定外」の津波による不可避の事故であったと考えてきたかもしれない。しかし実際には、東京電力は2008年にはすでに、長期評価に基づいて、福島第一原発に15.7メートルの津波が襲来する可能性を認識していた。また、津波対策工事を行うことも組織内部でほぼ決定されており、2008年6月10日、7月31日の会議でその方針を、当時取締役であった武藤栄氏に進言していた。しかし武藤氏は最終的に土木学会(電力会社の影響下にある学会⁶⁾)に津波高さの検討を依頼するだけで、何の対策も行わなかった。これは津波対策工事によるコスト増と、その間福島第一原発を運転停止しなければならない恐れを考慮した、津波対策先送りの決定である。そして、この時点で津波対策工事の実施を決定していれば、事故は避けられた可能性が高い。海渡弁護士はこの決定の詳細を、私たちによる東電刑事裁判についてのインタビューで次のように説明する。

6月10日の会議について説明しておきます。武藤さんを囲んで、吉田原子力管理部長、山下中越沖地震対策センター長、加えて、機器耐震技術グループ、建築グループ、土木技術グループが出席している。さらに重要なのは、東電の広報部長が同席していることです。どういうことか。津波対策を実施することになったとき、福島県や、原発のある双葉町、大熊町にどう説明するか、そのことも含めて議論する場だったわけです。しかも、この会議は2時間もやっている。この会議は、2月に元々予定していた4メートル盤上の対策を、さらに拡充して10メートル盤の上でもやることを決めてもらうための場だったと思います。ところが、結果的に4つぐらいの宿題が出されることになり、決定は持ち越されてしまう。現場の土木技術グループとしては、対策実施を決めてもらえんと思ってた。そのことがはっきりうかがえる証拠もあります。7月23日、太平洋岸四社情報連絡会が行われます。東京電力と東北電力、東海第二原発を持つ日本原電、日本原子力研究開発機構が参加しています。この場で「防潮壁、防潮堤やこれらを組み合わせた対策工の検討を10月までには終わりたい」と、土木調査グループの津波担当である高尾誠氏が説明しています。他の会社もいる場での発言ですから、当然対策工事をやるつもりでいるわけです。ところが7月31日、前回(6月10日)出された宿題に対する説明をしていくと、会議の終りがけに武藤さんが「研究を実施しよう」と言った。つまり、あくまでも「研究」であり、実際の「対策」は実施しない、という意味です。そして、「土木学会に検討してもらおう」とも言った。時間稼ぎをしつつ福島第一原発が止まらないようにして、柏崎刈羽原発の運転再開を待つという狙いがあったのでしょう⁷⁾。

5) 株主訴訟東京地裁判決、判決要旨は以下。<http://tepcodaihyosho.blog.fc2.com/blog-entry-403.html>

6) 土木学会津波評価部会の委員・幹事30人の半数以上は、電力会社関係者(電力会社社員13人、電力中央研究所員3人、東電設計1人)で占められている。以下を参照。添田孝史、「土木学会の津波評価部会は「第三者」なのか?」、福島原発刑事訴訟支援団HP、2018年7月25日。<https://shien-dan.org/soeda-201807025/>

7) 海渡雄一弁護士インタビュー(聞き手=佐藤嘉幸)、「東電刑事裁判の誤りを徹底批判する」、『週刊読書人』、2019年12月6日号。

このように、いったん組織内部で決まっていた津波対策は、武藤氏の「研究を実施しよう」、「土木学会に検討してもらおう」という決定によって、明らかに先送りされている(土木学会での検討には数年かかるというのがその前提であり、実際に、事故が起きた時点でも検討は終わっていなかった)。株代訴訟東京地裁判決はこの決定を「武藤決定」と名付け、津波対策の不作为から任務懈怠を認定しているが、その論理は二段構えになっている。判決はまず、工事のコスト等を考慮すれば、土木学会に津波高さの検討を依頼した「武藤決定」には一定の合理性があったと認定する。しかしすぐさま、「当該検討の間、過酷事故を防止し得る措置が講じられるのであれば」(株代訴訟判決要旨、20頁)という留保を付けるのである。これはつまり、土木学会の回答を待って防潮堤設置を検討するという東京電力の方針は、その間に「過酷事故を防止し得る」補助的な措置を講じる限りにおいてのみ合理性がある、ということの意味している。この点について、海渡弁護士はインタビューで次のように分析する。

今回の判決は、7月31日の決定を二つの部分に分けています。一つは、正確な津波の高さを計算するために、土木学会に検討を依頼した。返事が返ってきたらそれに基づいて防潮壁等を作る計画だった、と東電側は言っている。しかし、そのこと自体が不当な先延ばしだった可能性が高い、と地裁は認めた。武藤決定に「経営判断としての一定の合理性があるとしても、その間、福島第一原発がウェットサイトに陥っている以上、何らの津波対策に着手することなく放置する本件不作为の判断は、相応の科学的信頼性を有する長期評価の見解及び明治三陸試算結果を踏まえて津波への安全対策を何ら行わず、津波対策の先送りをしたものと評価すべきであり、著しく不合理であって許されるものではない」(株代訴訟判決要旨、21-22頁)という論理になっている。津波対策に関しては、二種類に分けられています。根本的な対策、防潮壁等を作ることについては、土木学会の決定以後で仕方ない。しかし、その間に津波が来る可能性もある。それを防ぐために、重要建屋と重要機器室を水密化しておくべきだった。そのことに関しては、国内でも海外でもやった事例があるし合理的判断である。対策をしなかったことには正当性の根拠はないと言ってくれた。

武藤決定自体に「経営判断としての一定の合理性があるとしても」(実際には、コストを考慮して津波対策を先送りするといった決定は、原発という危険なテクノロジーには全く相応しくない)、「何らの津波対策に着手することなく放置する」という行為は津波対策を単に先送りする不作为であり、許されることではない。土木学会が津波高さの検討を行っている間も福島第一原発に巨大津波が襲来する恐れがある以上、原発の重要部分の水密化し、津波の影響から防護しておくべきだったのであり、それを行わなかった東京電力の福島第一原発事故に対する責任は明白である。判決はこうした論理に従って、東京電力旧経営陣の不作为と任務懈怠の責任を厳しく非難している。判決は水密化の工事に2年程度の時間がかかったと仮定し、2009年3月に東電経営陣を構成していた勝俣、清水、武黒、武藤氏の4人に13兆円余の賠償を命じた。これは判決が、行うべきであった津波対策を先送りにすることで原発過酷事故を引き起こした東京電力の責任を認定した、ということの意味している。

判決は武藤決定について、次のように付け加えてもいる。「このように考えることが、本件事故後の「後知恵」であるというのであれば、それは、突き詰めれば、そのような津波は、防潮堤等の対策が完成するまでの間に、実際には来ないであろうという認識が、東京電力において一般的であったということ

になるが、それは、取りも直さず、本件事故前における、被告らおよび東京電力が原子力事業者として有してはならない基本的ともいえるべき過酷事故に対する想像力の欠如と安全性に関する意識や認識の甘さを示すものであって、許容できるものではないといわなければならない(株代訴訟判決要旨、18-19頁)。判決はここで「後知恵」という言葉を使っているが、防潮堤以外の津波対策(原発の水密化)など後知恵に過ぎない、と述べたのが生業訴訟最高裁判決であったことを想起すべきだろう(生業訴訟最高裁判決、9-10頁、先に引用)。株代訴訟判決は明らかに生業訴訟最高裁判決を意識し、その論理を批判している。株代訴訟判決はその枠組みゆえ、あくまで東京電力の責任のみを問題にしているが、このような批判を通じて、「過酷事故に対する想像力の欠如」ゆえに適切な規制権限を行使しなかった国の責任をも浮き彫りにしているのである。もちろん、こうした判決は民事裁判の下級審だから可能なものであって、上級審や刑事裁判では不可能ではないか、という観測もあるだろう(同じ東電旧経営陣の刑事責任を問うた東電刑事裁判で、2019年9月の東京地裁判決は、被告の刑事責任を全面否定している)。しかし私たちは、今回のような公正な判決が今後上級審でも維持され、刑事裁判にも反映されるよう、あらゆる手段で司法を監視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

最後に、判決冒頭の次の認定の重要性にも触れておきたい。「原子力発電所において、一たび炉心損傷ないし炉心溶融に至り、周辺環境に大量の放射性物質を拡散させる過酷事故が発生すると、当該原子力発電所の従業員、周辺住民等の生命及び身体に重大な危害を及ぼし、放射性物質により周辺環境を汚染することはもとより、国土の広範な地域及び国民全体に対しても、その生命、身体及び財産上の甚大な被害を及ぼし、地域の社会的・経済的コミュニティの崩壊ないし喪失を生じさせ、ひいては我が国そのものの崩壊にもつながりかねないから、原子力発電所を設置、運転する原子力事業者には、最新の科学的、専門技術的知見に基づいて、過酷事故を万が一にも防止すべき社会的ないし公益的義務がある」(株代訴訟判決要旨、2頁)。原発過酷事故は、その規模の甚大さゆえに、単に原発立地地域のコミュニティを崩壊させる危険のみならず、一国全体を崩壊させる危険を内包している、という点を判決文は明瞭に指摘している。実際、2011年3月25日、当時の首相、菅直人の要請によって原子力委員会委員長、近藤駿介が作成した福島第一原発事故の最悪シナリオは、事故が四号機燃料プールの燃料破損など最悪の状況に達すれば、半径170キロメートル以上の範囲での住民の強制移転、半径250キロメートル以上の範囲での希望者の移転容認など、首都圏を含む5千万人の住民避難が必要になる可能性を示唆していた⁸⁾。また、ソ連とヨーロッパを広範に汚染したチェルノブイリ原発事故は、その事故被害の甚大さによって、最終的にソ連という国家を崩壊させる一因となったとされる。一国どころか国際的な放射能汚染を引き起こし得る原発過酷事故の可能性を考えれば、私たちに必要とされるのは、まさしく国境を超えたグローバルな連帯なのである。

3. 福島第一原発事故への責任＝応答可能性とグローバルな連帯

私たちはここまでで、福島第一原発事故への国と東京電力の責任について考察してきた。しかし、よ

8) 近藤駿介、「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の不測事態シナリオの素描」、2011年3月25日。内閣府より情報開示を受けた文書が以下で公開されている。<http://www.asahi-net.or.jp/~pn8r-fjsk/saiakusinariorio.pdf>

り深く考えるなら、原発事故の責任は国と東京電力のみにあるわけではない。原発の運転が事故と被曝のリスクと表裏一体であることを考えるなら、原発事故の責任は、被曝リスクを原発立地地域に押し付け、そうした差別構造に目をつむって原発の電気を使い、豊かな生活を享受してきた私たち自身にもある。

原発は、人口が密集する大都市圏で消費される電気を作るために、1970年代以来、人口の少ない地方に設置されてきた。原発は、原理上大都市圏に設置することはできない。なぜなら、原発を人口密集地帯に設置すれば、原発過酷事故が起きた場合に多くの人口を被曝させることになるからだ。それゆえ福島第一原発は、東京電力の原発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東京電力の給電範囲の首都圏＝関東地方を避け、東北地方の福島県浜通りに設置され、運転されてきた。つまり、関東地方で使う電気を生産するために、東北地方の福島県浜通りが原発事故の犠牲となったのである。こうした構造は、日本だけでなく世界共通であり、むしろ韓国でも同じである。人口密集地帯であるソウル周辺には原発は一基も存在せず、原発はソウルを避けるように、東から南の海岸地帯(ハヌル、ウォルソン、コリ、ハンビッ)に集中立地されている。こうして原発は、中央(首都圏)と周縁(地方)の間の政治的、経済的非対称性に基づいて設置、運転されているのである。こうした事実から、日本を代表する批判的科学者・小出裕章は、原発を「差別のシステム」と呼んでいる。

ここで私たちは、「責任」の概念を、20世紀フランスの哲学者・ジャック・デリダの概念に依拠して「責任＝応答可能性[responsabilité]」と読み替えてみたい。そのように考えるなら、原発に依存してきた私たち全員が、福島第一原発事故に責任を感じることで福島第一原発事故に「応答し、脱原発を模索する必要がある、ということになるだろう。実際、日本では、福島第一原発事故から10年後の2021年時点で、脱原発を主張する世論は(「即時廃止」、「将来に廃止」の両者を合わせて)69%と依然多数であり、原発を「将来も維持すべき」という世論は14%に過ぎない⁹⁾(なお、同年の原発による電力生産は5.9%)。また、2011年以降に脱原発を宣言したドイツ、イタリア、スイス、台湾、韓国は、いずれも福島第一原発事故の惨状に「応答して脱原発を選択している。私たちはこれを、まさしく福島住民の被害を真剣に受け止め、それに「応答することによって原発という差別のシステムを放棄する、グローバルな連帯だと解釈する。韓国は、ユン・ソンニョル政権への政権交代によって、残念ながら脱原発の方向性を撤回してしまったが、私たちは依然として、韓国民の連帯に感謝し、それに期待し続けている。

1989年のいわゆる冷戦終結後も、東アジアには引き続き冷戦構造が残存している。だからこそ私たちは、東アジアに、原発、核兵器を含む非核地帯を構築することが重要だと考えている。ウクライナ戦争からもわかるように、原発は、戦時には攻撃対象ともなり得る危険な施設であり、原発が軍事攻撃されれば核兵器と同等あるいはそれ以上の被害を、国境を超えてもたらしかねない。そのような意味でも、国境を超えた脱原発の連帯と、東アジアにおける非核地帯の構築は、まさしく切迫した課題だと言えるだろう。

9) 毎日新聞と埼玉大学の2021年調査による。 <https://mainichi.jp/articles/20220224/ddm/010/010/021000c>

東アジアにおける安全と和解学を模索する*

— 災難・安全アジェンダの日韓協力を中心に —

金 暎 根 (高麗大)

한국일본연구단체 제11회(한국일본학회 창립 50주년 제104회) 국제학술대회의 기획발표 <한국 일본연구의 좌표: 공생과 연대를 향하여>이라는 주제하에 “동아시아의 안전 및 화해학의 모색(東アジアにおける安全と和解学を模索する: 災難・安全アジェンダの日韓協力を中心に)”에 관해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한다.

최근 지나치게 긴장된 한일관계에 관해 ‘재난안전학’이라는 관점에서 되짚어 보고 나아가 어떻게 ‘화해’의 길을 모색할 것인가라는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일관계가 갈등이나 긴장 상황에서 평화와 화해의 단계로 전환하기 위해 한일 간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현상을 이해하고 선형적 대안을 제시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한일관계가 단순히 정책이나 정치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학문적 차원에서 여러 계층의 학자가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고 다양한 성찰이 절실한 시기이다. 어떻게 한일 간 리스크를 관리하고 화해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현상(현안) 파악 및 갈등 구조의 유형화 등 이론적 고찰도 필요하다. 나아가 관계개선 혹은 화해를 위한 대학의 역할 및 한일 양국의 미래 비전을 구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1. 和解学を始めよう

1.1 「和解学」とは何か、そしてどう始めるか

日韓の間では、国家レベルはもとより、あらゆる個人的レベルにおいても、多様な紛争や対立、そして摩擦が存在してきた。日韓関係の現況及び相互認識の分析を通じて、その要因をどう受け止めてきたか、またどのように「和解」しようと努力してきたのか、さらに紛争(葛藤)とその原因を究明するため、和解学の類型と実践の要素を点検する必要がある。さらに、日韓和解に向けた災害・安全・エネルギー・環境外交など、社会・文化的観点における新たなアジェンダを提示する。和解学および危機管理を通じて、葛藤を越え和解に至る道、日韓関係の改善に向けた科学技術・人文・社会の融合的観点からの提言を目指す。

「和解学」(Reconciliation Studies)の定義のために、戦争と平和の概念に注目する必要がある。よく言われるように、「戦争こそ人類が犯しうる最も大きな罪悪であり、人類が目標とする最も理想的な状態が平和」である¹⁾。事実、私たちはあまりに多様な「戦争」と「平和」の意味を受け入れている。教科書やメディアなどを通じて

* 金暎根(2017)「日韓“和解学”をはじめよう」『日韓協力』および金暎根(2014)「韓日間危機管理の政治経済学」『日本学報』に掲載した論文を大幅に修正・補完し、東京大学総合文化研究科国際政治シンポジウムにて発表(「日韓「和解学」を始めよう: 科学技術・人文・社会融合的「災難・安全共同体」構築に向けた提言」)したもので、2007年政府(教育科学技術部)財源である韓国研究財団の支援を受けて遂行された研究である(NRF-2007-362-A00019)。

1) 例えば、「戦争とは、自分の意志を実現するため、敵に屈服を強要する暴力行為である。」カール・ヴォン・クラウゼウィッツ (Carl von Clausewitz) /金暎洙訳(1994)『戦争論(Vom Kricge)』 p.46.

目にする様々な紛争と平和の姿を政治、経済、歴史、文化、社会、思想、文学、語学、教育などの広範囲にわたる分野で論じている。なぜ日本が戦争に打って出たのか、果たして「正当な戦争」が存在するのか、などといった判断を下すことは容易ではない。むしろ、日本の戦争意欲によって植民地時代を経験した韓国(人)にとっては、和解のプロセスともいえる「戦後処理」あるいは「戦後補償」問題により大きな関心がある。

「戦争」とは「国家のような政治的集団間の闘争として、長期間または大規模な武力衝突を伴う敵対的行為」を意味する。一般的には、「国家相互間、特に主権国家間で行われる組織的な武力闘争」という、狭義の概念に限定される。一方広範な意味で、戦争とは「人種・部族・民族・国家・政治団体などの様々な集団間に発生する拮抗(敵対)的行動」を意味する。東アジアの大気汚染問題に対する非政府(NGO)・非営利的(NPO)対応や、日本の「在日特権を許さない市民の会(在特会)」が行う反韓デモもこれに該当する。社会学者たちは、社会科学的な戦争概念として、戦争を「社会的に容認された一定の形式で開始し、継続される闘争、つまり慣習または法によって認定された形式を備えた一つの制度」として捉える。彼らは戦争を派兵・干渉・報復・反乱・暴動と区別するが、実際の状況ではそういった区分は非常に難しく、上記のような武力衝突が拡大し戦争に発展したりもする。

「平和」の辞典的定義は、「戦争や対立あるいは敵対的行動がない、世の中が平穏な状態」を指す。狭義の意味での平和とは「戦争をしない状態」を意味する。しかし実際の「平和」概念は幅広く包括的だ。上記の「戦争」に対する相対的概念として使われる「戦争」の目的・原因・方法等の変化とともに、平和の概念や範疇(アジェンダやイシュー)も変化してきた。例えば、「5.29日朝合意(2014年)」における「日本の対北朝鮮制裁の緩和」に相応する措置としての北朝鮮の「日本人拉致被害者の再調査」という政治外交的アプローチも、北東アジア平和秩序構築の一段階として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北朝鮮問題をめぐる日本の対北強硬外交政策が日朝間の敵対的力学関係へとつながり、韓半島平和体制構築に否定的な影響をもたらし、核問題解決に向けた6者協議(多国的制度)の進展にも悪影響を及ぼしていたという点を考慮すると、上の変化は平和への可能性を広げたわけである。変化する6者協議参加国間力学にあって、日本の対北朝鮮政策の変化が戦争と平和に対する議論にもたらした政策への示唆は極めて有用である。戦争と平和をめぐる議論への肯定的な影響力が評価できよう。

平和学(Peace Studies)は「平和」議論と関連した学問で、国家間の紛争や対立の原因を究明し、紛争解決の方策(手段及び方法)を模索する上で重要である。平和維持のための制度化および国内的な受け入れなどに注目する過程学(プロセス及びメカニズムの分析)と言える。さらに、人文社会科学的視点にとどまらず、戦争防止(予防)及び戦争被害の最小化のために、科学技術工学までも融合した学際的(inter-disciplinary)アプローチが導入されている。

では、「和解学」とは何か。紛争解決制度あるいは当事者間の約束(契約や紛争調整)を通じて達成を目指す目標、つまり「和解」に至るまでの一連の過程を研究する学問である。ここで「和解」とは対立関係を解消し連帯および平和的關係を結ぶ行為、これによって互いに一致する状態を意味する²⁾。例えば、国家間の葛藤や紛争が発生した場合、相互に譲歩し協定を締結する外交的権利と義務が優先される場合、また国家内部の経済的・歴史思想的・社会文化的・心理的利益獲得までの過程において存在したあるいは存在する争いの原因を解消する過程(プロセス)もこれに該当する。

2) 川村真(国際政治外交史)教授は、「和解とは、戦争や紛争をおこした当事者同士で行われる未来に向けた行為である」と定義する。川村真(2021)「和解の視点から見た戦後日中・日台歴史問題1945 - 2008」『国際社会科学』2020(第70号)、東京大学大学院総合文化研究科国際社会科学専攻、pp.1-25

1.2 何を和解するのか:日韓関係の現況及び相互認識

一国家や個人が多様な「紛争」の要因をどのように受け入れてきたか、どのように「和解」しようと努力してきたか、さらに紛争(葛藤)とその原因を究明するため、和解学の類型と実践の要素を点検してみる([表1]参照)。そもそも和解とは何か。何が争点(分野)で、何が和解を難しくしているのか。それ(阻害要因)を乗り越えるかリスクをネージメントするためにどういうレンズを持つべきかは大事である。まず「紛争」や「葛藤」とは、政治(民主化)、経済(産業化)、社会文化(自由化・合理化)、歴史認識(平和思想)など、領域別構成要素が対立することを指す。さらに、分野別行動主体及び対立メカニズムの変化がもたらす複雑な和解のプロセスも念頭に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戦争と平和の議論が日本や韓国、中国などの国内問題だけでなく、東アジアを含めた超国家的災害であり、世界の国々が持続的に関心を持ち、平和の道を歩み、解決していくべき事案だという点に注目する必要がある。これは戦争と平和がもたらす政治、経済、社会、文化、思想、言語的側面などこれらが交差(cross)する融合・複合的分析を基にした学際的(inter-disciplinary)アプローチが欠かせないことを意味する。

葛藤と協力の屈曲が著しい日韓間の関係変化をきちんと理解し、危機管理プロセス及びメカニズムを類型化し、理論的に分析する「和解学」の先行研究は見当たらない。日本を中心として東アジアで展開された「戦争」と「平和」、「和解」の談論が、単なる日韓関係、さらに東アジア諸国間の対立ではなく、米国が関与する重層的な構図で展開されてきたために、和解学理論の提示がさらに困難であった。したがって「和解学」を始めるには、日韓両国間の視点から脱し、多国間主義的要因を加え分析する必要がある。西欧列強(米国)という外部的要因とあいまって、国内(内政)の対立構造の解決までを包含した総体的状況を問題視する解釈方法および解決策を考えねばならない。ただ、日韓間の危機管理および和解(協力)を説明する核心要件と条件などに関し、「国際正義論(懲罰的定義)」及び「容赦論(回復的定義)」などといった理論的分析よりも、和解に向けた<機能的多国間協力論>を提示しようとした。特に、本稿では右傾化あるいはナショナリズムの深化など日本の過去回帰現象を正しく理解し、ひいては日韓和解のためにいくつか提言したい。

<表1> 和解学の類型と実践要素

領域	類型	阻害要因の管理および実践要素
政治 (民主化)	政治的和解(平和) =【民主主義理念の共有】 ⇒地政学的対立	政権交代の政治: <u>イデオロギー</u> 戦後体制、市民革命、ヘイトスピーチ <u>国交正常化交渉(謝罪、賠償及び開発協力など)</u>
経済 (産業化)	経済的和解(協力) =【産業化および協力構図】 ⇒地経学的対立	<u>産業政策と経済成長論</u> <u>開発協力(ODA)、開発主義、垂直的分業構造/競争関係、水平的分業構造/共生関係、従属的發展モデル、協力的な發展モデル、自生的發展モデル</u>
社会文化 (自由化・合理化)	社会的・文化的和解(交流) =【自由・平等・合理主義の実現】 ⇒(地社会学/地文学的対立	<u>近代文明論</u> 韓流、日流、災害文明論、社会階層、多文化共生(移民)、在日韓国人、在韓日本人、文化の衝突、宗教改革、啓蒙思想家
歴史認識 (平和思想)	歴史認識的和解(共感) =【平和思想および言論の自由の実現】 ⇒ 地史学/地智学的対立	<u>戦争から平和体制へとの転換史</u> 哲学、認識、マスコミ、イデオロギー、学知
共同体 (共有)	グローバル的和解(共存) =【ヒューマニティ(Humanity)+Smart)・ソサイエティ】 ⇒地公学/地共学対立	地域協力及び災難安全共同体 Public Diplomacy、共有経済、人間の安全保障(human security)、地域秩序、開かれた未来(Open Future)、国際協力、 <u>持続可能性、レジリエンス</u>

出処: 筆者作成

安倍晋三元首相の右傾化した政治行動と、アベノミクスを主軸として展開していた経済政策は現在でも、日本を代表(象徴)するイメージといえる。アベノミクスの成果およびナショナリズムの進路がさらなる注目を集めるなか、日本の右傾化はさらに深刻化するという懸念の声が聞こえるだけで、日韓関係改善や和解に向けた対策はほとんど行われていない。したがって、日韓関係の進展、つまり「和解」に向けた新たな足場を作る努力が何よりも必要である。しかしほとんどの韓国人は、安保外交・領土外交の問題、特に日本との対外的紛争に對峙する際、国際的要因よりも国内的対応を考慮してきた。韓国の対日外交政策が領土紛争、歴史認識、教科書問題、従軍慰安婦問題などといった特定の問題別にどう展開されたのか、また各々の課題において、なぜ独自の様相を帯びるのか、という点に注目してみる。「外交不在」といわれる状況が続く「進展のない不信感の日韓関係」を、今は解決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つまり「日韓和解学の開始」という主題を議論するには、日本の過去回帰傾向、右傾化あるいはナショナリズムの深化などの、葛藤的現況に対する客観的な理解が必要だ。こういった問題意識にたち、日韓和解に向けたプラットフォームとシステム構築案を提言したい。既存のイシュー別の外交政策については先行研究を着実に実践していくという主張に同意しながら、本稿では和解(協力)可能な新たなアジェンダを中心に見ていくことにする。

2. 日韓和解に向けた新アジェンダ:災害・安全文化およびエネルギー・環境外交

最近の韓国政府の対日政策は、一言で「外交ラインの非正常化」あるいは「外交政策の不在」と要約できる。韓国は「領土主権守護および日本の歴史に積極的に対応する」立場にたち、従軍慰安婦・領土紛争・歴史認識など日韓間の懸案問題と関連し日本に対し真の謝罪と反省に基づく歴史問題の解決を要求する原則を固守している。2012年8月の李明博前大統領の独島訪問後、国際社会における日本の影響力縮小および3.11東日本大震災以降の日本経済の低迷、また政権奪還後の自民党・安倍政権によるナショナリズム強化などにより、日韓両国の関係は最悪の状態という評価が続いている。

日韓和解のための前提条件という対立構造は、一時的な現象ではなく歴史の中で繰り返されてきた厳然に解決されるべき課題であることに間違いない。ただし、対日政策の基調が個々の変数、すなわち大統領の価値観や対外認識のみによって形成・推進されれば、これは国家の品格に深刻な影響を及ぼす可能性もある。韓国政府は国内における政策決定過程と米国・中国などの国際的変数などを考慮し、より戦略的なレベルで対日政策を推進する必要がある。行き過ぎた感情的対応を招く行為は、対日政策基調を揺さぶり、日韓協力の推進力自体が弱まる恐れがある点に留意する必要がある。日韓和解に向け、国際化の過程で出現した災難・安全・エネルギー・環境外交など、科学技術・人文・社会の融合的な視点を基にする新たなアジェンダに注目する必要がある。

2.1 ポスト・アベノミクスと日韓政治・経済協力

アベノミクスに関する政策的実効性についての議論は絶えない。アベノミクスの経済成長戦略の核心は、日本の産業改革、さらに構造改革に重点を置いている。一方、韓国は「新しい市場、新たな需要と新しい雇用の創出」という創造経済の概念に基づいた「価値改革」を推進してきた朴槿恵政権とは違い、文在寅政府(いわゆる「Jノミックス」)は「地方が強い国、バランスの取れた大韓民国」を目標に「革新成長」を追求している。たとえ韓

国政府がアベノミクスとは違った一見異質な政策を推進しているように見えても、韓国と日本は相互補完の対象になり得るという点に注目すべきだ。アベノミクス成功の是非は、韓国にとっても重要な事例となる。韓国経済および日韓関係にも非常に重要な影響を及ぼすものとみられる。実際に日本と競合・競争している韓国の自動車・鉄鋼・造船産業の輸出は大きな打撃を受けている。

結局、韓国の外交通商政策をどう確立し、日本が抱えるネガティブな展望に備えた政策をどのように立てるかが急務だ。例えば、価値改革を通じて雇用を創出し、内需喚起のための構造改革と自由貿易協定(FTA)やTPP(環太平洋経済パートナーシップ)³⁾などの経済協力体に対する政策の樹立が必要である。したがって、アベノミクスの教訓を韓国の経済リスク管理に有用に使う必要がある。

アベノミクスの否定的な結果だけを期待するのではなく、むしろアベノミクスの政策効果への対策作りをはじめなければならない。また、創造的日韓関係の改善に役立つ両国の経済回復が実現すれば、韓国政府も効果的な経済政策管理と対日政策をまとめることができるかもしれない。日韓関係が悪化するほど、政治はもちろん他分野にも悪影響が広がる点を考慮すれば、何よりも政治課題ではなく社会・文化・経済分野を優先するという、政経分離や先経後政戦略にたち、日本との対話の道、つまり日韓首脳協議のプロセスを速やかに進めなければならない。

2019年、日本の半導体コア材料の輸出規制措置は「日韓貿易戦争」へ拡大し、日韓関係も災難(災害)に晒されていたとも言える。現在の日韓の対立は、ヒューマンエラー(Human Error)がもたらした「危機(リスク)」である。3年の時が経つ現時点でも日韓両国間の葛藤の終わりが見えず、どのような事態が起きるか、将来的に予測することも困難である。しかし、一つ明らかなのは、日韓の貿易戦争が長期にわたって激化すればするほど、その被害は、両国国民に返ってくるという点である。これはつまり、日韓両国の国民の国益を考慮すると、両国関係はいつか必ず回復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話になる。

現在貿易戦争へ突っ走っている日韓間の葛藤は、エリート政治家のイデオロギーや思想などに基づいている「ヒューマン・エラー(Human Error)」が作り出した総体的な「危機」状態ともいえる。「ヒューマン・エラー」は人為的、または人間が起こすミスを意味するが、現在の両国間の葛藤は何かのシステム的な要素ではなく、両国間の敏感な問題を解釈し判断する政策当局者や政治指導者による人為的な側面が強いということである。安倍首相の日韓関係に対する立場は、日本の極右勢力に寄り添っている。特に文在寅政権になってから浮上した慰安婦合意の問題、哨戒機のレーダー照準、そして強制徴用への最高裁の賠償判決など敏感な問題に対して、当時安倍晋三首相官邸を中心とした、いわゆる「官邸レジーム(regime)」が強く作用してきた。特に「経産省内閣」と呼ばれる安倍政権が外務省を中心とし、国際交渉から抜け出し「コード(イデオロギー)合わせ」の通商政策をしてきた結果でもある。周知のように、「最近の韓国最高裁の強制徴用判決後、落ち着いていた日本経済官僚も、一連の経済報復措置を推進するにあたって感情的な対応に出てきているという点は憂慮に値する。」

日本の7.1経済報復措置宣言(2019)に続く7.4貿易制裁の発動(2019)が大阪G-20サミット(2019年6月28-29日)直後に電撃発表された点、そして戦略物資の流出を問題視したという点に注目してみると、これは安倍首相が安全保障問題を口実に「反保護貿易主義」に率先するスタンスと全く相反する経済報復措置を断行したのは、外交的エラーに近いものと解釈することができる。

3) アメリカが交渉プロセスから脱退し日本が主導していた「環太平洋パートナーシップに関する包括的及び先進的な協定(略称: 包括的・先進的TPP協定/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は、2018年サンティアゴで署名(3月8日)、国会承認(6月13日)、効力発生のための通報(7月6日)、公布及び告示(12月27日)を経て効力発生(12月30日)している。

もちろん、韓国側にもヒューマン・エラーや「リスク・マネジメント」の限界は存在する。これは、日韓間の敏感なイシューに対して韓国政府や政界では、安倍首相の歩みについて、事前に十分に認知して対処する機会が多かったという点だ。韓国政府の対日外交において、いわゆる「危機意識」が不足していたという点である。「7.1 経済報復措置だけをとっても、日本政府で長いあいだ緻密に企画した点を考慮すれば哨戒機レーダー照準(2018.12.20)問題や慰安婦合意問題などで高まった日本政府の不满を複数のチャンネルを介して事前に把握し対処することができたのに、まさか」という安易な認識が事態を悪化させたもう一つのヒューマン・エラーだったと見ることができる。したがって、韓国と日本が積極的に経済協力(和解)を模索する過程で、単なる経済的な観点から政経分離、進んでは歴史・思想・社会(文化)的な要因などを融合的に考慮し、ナショナリズムやヒューマン・エラーから起因する日韓の対立などリスクをどう管理していくのか重要な課題であろう。

2.2 エネルギー・環境外交

資源と環境分野における葛藤の解消を通じた日本の国際協力案は非常に興味深い。大国とミドルパワーの違いとは、物理的な国力の差ではなく力(power)をどのような影響力に転換させようか、にかかってくるという点を考慮すると、「日本のグローバル環境機構への参加」プロセスにおける「ミドルパワー外交」理論は非常に有意義である。ただし、日本の政治指導者やその対抗勢力が日本外交の「ミドルパワー戦略」をほとんど自覚できておらず、むしろ自らの認識による固定化された対応だけを繰り返してきた政治安保分野とは違い、資源と環境分野では地方自治体の活動・制度化が中央政府に影響を及ぼすという「地方外交論(Local Diplomacy)」あるいは「市民社会外交論(Civil Society Diplomacy)」に注目すべきであろう。

外務省(MOFA)などが環境分野において実施している柔軟な対応に注目し、さらに現実的に韓国と日本がどのように協力し、いかなる政策を実現できるかを考える必要がある。国際社会から見た日本は経済大国ではあるが、エネルギー・環境外交においては国際的な役割に限界があり、それらを克服するためグローバル・リーダーシップの発揮に注力している。もし環境レジームに関する論議と環境問題の解決、国際制度及び国際機構的レベルにおける国際レジームを創設する上で、日本が主導的努力を行えば、韓国も日本の対応の態に歩調を合わせ、地球環境問題と関連した政治・経済的協力ネットワークを構築すべきである。

2.3 災害と安全文化

(1) 災害と安全問題

国家の専門領域と考えられてきた外交通商政策や災害・安全・環境・エネルギー・資源政策においても、多様な行為者および想定外のイシュー・アジェンダが連携・融合する時代である。日韓間に今なお残る危機と漸増するリスクの効果的管理および未来の成長動力確保という二重課題を抱える政府や非政府行為者らが、何に焦点を当てどう解決していくかとの答えを出すのは容易ではない。現代社会の複雑性(Complexity)が増大しているためだ。これと関連して「複雑性の増加による3大危険要因として『リスク』増加、『コスト』増加、『新技術』の必要性」が指摘されている。また危機管理や災害ガバナンスに関する国家間の境界を超える国際協力も考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例えば、日本災害研究の基点とも言える1995年の神戸阪神淡路大震災や2011年の3.11東日本大震災、2008年に中国で発生した<汶川大震災>の現場経験を共有し、今後の災害発生時に

における「安全共同体」としての観点から協力を模索しなければならない。

周知のとおり、東日本大震災(2011年3月11日)以降、未曾有の複合的災害問題(大震災、津波、原発事故)が単に日本の問題ではなく、東アジアにおける地域的問題、ひいては世界的なイシューとして浮上している。特に韓国はセウォル号沈没事故(2014年4月16日)及び慶州地震(2016年9月12日)という大型災難を経験し、北朝鮮の核実験による白頭山噴火の問題、東アジアの原子力発電所事故、テロ、MERS(中東呼吸器症候群)およびジカウイルスなどの医療災害に関する超国境的問題の危機管理および「災害学」の構築に向けた土台作りが急がれている。日本が東日本大震災や熊本地震(2016年4月)の際に見せた災害対応システムを韓国側が受け入れる過程で、日本の協力は不可欠である。日本が経験した大災害(阪神淡路大震災及び東日本大震災)以来、現場で行われた社会的変動やリスク対応、復旧努力などの災後(post-Disaster)教訓を、トランスナショナル(trans-national)的対応及び地域復興に再投影する必要がある。現場と政府、そして国家間の相互作用に注目する過程こそ、日韓間の新たなアジェンダ協力と言える。「超国家的災害復興論」と「日韓和解学」が合わさるアカデミズムの役割(理論と実践)が注目される背景でもある。

(2) 日本の安全文化、災害復興文化

韓国にとって、社会安全文化の構築、さらには教育と連携させるための体系的な努力や制度的支援は早急な課題だ。では福島の大災害現場で得た安全文化に関連する教訓(田中真理・川住隆一・菅井裕行、2016)とは何であろうか。

第一に、3.11東日本大震災の復旧・復興・再生の過程における日本の災害文化において、職業倫理などの心理教育的側面が重要である。第二に、災害が文化に影響を及ぼす点に着目すれば、<災害文化>あるいは<災害と文化>というアジェンダは、「災害人類学」、「災害予防社会学」、「災害経済学」、「災害認知心理学」、「災害思想学」、「災害歴史学」、「医療災害学」、「予防災害医学」などのさまざまな学問領域(discipline)と連携して論議され、災害復興の過程に導入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第三に、国家あるいは企業、地域コミュニティなど多様な行為者の社会的責任(CSR)は、安全文化の創出および実践(安全社会の構築)に向けて非常に重要な要素である。

一方、災害復旧/復興/再生過程において、災害学の類型と災害ガバナンスの変化要因は多様である。例えば、災害からの復旧・復興・再生過程で、日本の災害文化は都市復興、社会復興、産業復興、家族復興という融合・複合的災害復旧と密接に関連付けられている。また、災害の空間(避難所、仮設住宅など)や災害関連行為者(地方自治体、市民・企業、国家など)、災後の物的・心理的支援体制と連携し、災害文化は変化しうる。

日本の安全文化や災害復興文化を理解するうえで、その手がかりとなる「日本の政権交代の災害社会学・災害文化学」は非常に興味深いテーマである。特に、災害多発国である日本としては、大災難にまともに対応できない政府だと評価される場合、政権交代に至るほどの影響がある。「日本の民主党政権はとても弱い政府である。2011年の3.11東日本大震災当時、災害復旧及び復興の過程において、強いリーダーシップが求められる状況は、民主党政権自らが生み出した。いわば不安感と右傾化を日本国内で量産する体制だったと見ることができ(金暎根、2012b)」。結果的には3.11大災害が「失われた20年」という日本経済の低迷を加速化させることで、「経済不況(危機)」からの脱皮を目指す社会文化的政策(支持基盤)を基にした自民政権が再び生まれるきっかけになった。「3.11発生直後の初期対応では迅速に前面に乗り出したが、民主党の実務陣の行政手続き

(マニュアル)に対する未熟さから救援品がきちんと届かず、災害地域における政府不信が高まった。また想定外であった原発事故まで発生し、対策が低迷し未熟であったと評価され、結局翌年総選挙において自民党の政権交替へと繋がったと評価される。」

周知のように日本の災害対応システムに対する評価は高いが、東日本大震災と熊本地震を経験する過程で、多くの脆弱性と限界を露呈している状態でもある。九州地域が比較的地震の発生確率が少ない地域であるという意外性がさらなる不安をもたらしている。その分今回の安倍政府の素早い対処能力が注目を集めた。4月14日の一度目の熊本地震発生後、26分後にはマスコミとインタビューをし、国民を安心させることに注力した。また危機管理センターに移動後は被災状況把握に尽力し災難対応の前面に直接乗り出し迅速に行動する姿が目立った。今後の安倍政権の進路は「初期対応に肯定的な評価を導き出した安倍首相が災害以降、現在までの評価と支持を維持できれば、(日本の社会文化的要因を十分な政策に反映した形で)これから先、さらに頑丈な支持基盤となり得る(金映根、2016)。」

(3) 文化的交流協力:韓流と日流、そして還流

さらに、日韓和解の政治経済学のために、韓流と日流、そして「還流」プロセスの利活用が重要である。韓国のTVドラマ(K-Drama)、映画(K-Movie)をはじめとした大衆音楽(K-Pop)、韓国料理(K-Food)、娯楽番組(K-Entertainment)、ビューティー(K-Beauty)、電子政府行政・制度等(K-Governance)などが海外で高い人気を享受する韓流現象が続いている。韓流による文化コンテンツと消費財および観光輸出額の増大など、経済学的効果はもとより、韓流は国家イメージにも影響を及ぼしている。結果的に韓流の様々な影響係数を想定しうるが、その中でも日韓の和解メカニズムにおいて韓流効果が相互作用するものと期待される。

3. 葛藤を乗り越え和解と安全へ:日韓関係改善に向けた提言

<表2> リスク・マネージメント及び和解への課題

領域	類型	阻害要因の管理および実践要素
政治 民主化	政治的(輪) = 民主主義理念の共有 ⇒地政学的対立	政権維持/交代の政治: 脱イデオロギー/脱国家主義 戦後体制、市民革命、ヘイトスピーチ
経済 産業化	経済的(和) = 産業化および協力構図 ⇒地経学的対立	産業政策と経済成長論: 地域活性化 共有経済、分散経済、開発主義、垂直的分業構造/競争 関係、水平的分業構造/共生関係、従属的發展モデル、 協力的な發展モデル、自生的發展モデル
社会文化自 由化・合理 化	社会的・文化的(和) = 【自由・平等・合理主義の実現】 ⇒地社会学/地文学的対立	文化の祭典、近代文明論 韓流、日流、災害文明論、社会階層、多文化共生(移民)、 在日韓国人、在韓日本人、文化の衝突、宗教改革、啓蒙 思想家
歴史認識 平和思想	歴史認識的(和) = 【平和思想および言論 の自由の実現⇒地史学/地智学的対立	戦争から平和体制への転換歴史 規範的価値、哲学、認識、マスコミ、イデオロギー、学 知
共同体 (共有)	地域協力及び災難安全共同体 = 【ヒューマート(Humanity+Smart)・ ソサイエティ】 ⇒地公学/地共学対立	Public Diplomacy 共有経済、人間の安全保障(human security)、地域秩 序、開かれた未来(Open Future)、国際協力

出典: 筆者作成、富永健一(1990)『日本の近代化と社会変動』講談社から援用し、加筆

現在、日本の右傾化やナショナリズムがさらに深刻化し日韓関係がさらに悪化するという懸念の声は聞こえるが、今後の関係改善に向けた対策はほとんど目に付かない。日韓関係の悪化は両国経済にとって悪影響を及ぼす点を勘案すれば、さらなる関係改善努力が求められる。柔軟な相互主義を基調として、未来志向的な日韓関係の構築(進展)や和解に向けいくつか提言したい。

第一に、東アジア「災難・安全共同体」構築に向けた日韓協力の文化的土台を作らなければならない。東日本大震災(2011年)を契機に、日韓間の共同危機管理体制の整備や災害専門家養成など、実践的な国際協力の模索が切実となった。東日本大震災時の津波と原発放射能問題を契機に、「人類愛」的連帯といった意味での国際協力の模索が再度活発になっており、東アジア諸国の連帯感形成の契機として作用した。今後韓国社会を襲うかもしれない災害に備えた対応論理と克服論理を「人文社会科学的・制度的・政策的」に樹立するため、韓国と日本が「東アジア共同体的立場」から「実体的な代案」を共同研究し、国際協力を模索する契機となっている。日韓国際協力案の一つとして、例えば超国家的災害と安全問題に関するグローバルな対応体制として、人災を管理できる人材が必要である。3.11大震災以降、日本から得た教訓のうち韓国でも急務な課題は、原発事故の発生を想定し、複式連鎖的危機を管理する専門家の養成、また共同危機管理体制の整備である。それでは、グローバルな視点から災害を通じた安全共同体を模索するための具体的な課題は何か?何よりも脱地政学的スタンス、すなわち「トランスナショナリズム」の高揚が求められる。安全革命のための関連行為者の文化的認識や、意識(思想)の役割が重要である。

第二に日韓関係改善、つまり日韓和解(平和)と関連した歴史・文化的教訓を生かし、新たな協力を模索しなければならない。周知のとおり、日韓間の歴史的経験だけを見ても、日韓交流は古代史にさかのぼる。百濟文化の伝授、文禄・慶長の役後の日韓両国の国交回復・交流の進展の契機となった朝鮮通信使、対日関係の改善と関連する様々な条約などは、日韓関係改善に大きな役割を果たしたと評価される。近年、安倍政権のアベノミクス経済政策の成果およびその評価に日本国民の関心が集まっている。日本の経済回復および復興・再生を強く望む国民の期待を考えると、アベノミクスの成否は日韓関係にも影響を及ぼすものとみられる。両国間に散在する阻害要因として作動する様々な問題よりは経済問題が優先されるという点で、今後の対日関係の改善につながるとみられる。日韓両国の経済協力を発展させるための日韓FTAの発効など「制度的枠組み」が必要である。日韓間の交渉(過程)及び条約の締結プロセスにおいて、(CP)TPP、日韓FTA、日中韓FTAの交渉そのものが日韓関係改善のきっかけになりうる。今後安倍政権が日韓・日中韓FTA妥結、東アジア地域経済統合構想または東アジア共同体構想の実現に向けた具体的な戦略やイメージの提示を行えるよう、日韓間の交渉の機会を増や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に、韓国の外交・安保および経済政策は、相手国との対立と協力のプロセスの中で、日韓関係をどのように「競争のゲーム」から「協力のゲーム」に進展させていくかという「危機管理」の問題である。この際、協調のゲームに転換できるかという観点から、我々が注目すべき論理は「政経分離の原則」だ。これは経済協力問題をまず協議し、政治的イシューの突破口をもうけるという意味で先経後政政策ともいえる。特に、日韓両国関係の外交問題解決のためにも「政経分離の原則」が重要である。例えば、独島問題を日韓経済協力プロジェクトとして解決する案を模索するなど、まず政治のプロセスとは別に経済・科学・災害・安全分野で新たな政治の分離型連携モデルを発掘しなければならない。政経分離

政策が肯定的に推進されるなら、突発的な外交交渉ではない日韓対話の過程、韓国の政策議題設定、政策形成、政策採択を含めた一連の政策決定過程が一般化し、予測可能性が高まり、効果的な政策運営が可能になると考えられる。もちろん、今後韓国政府は、日本の対外政策基調の変化および北東アジア秩序を巡る主導権争いなど、新たな環境により柔軟に対応しつつ、協力的な戦略と政策を推進することが求められる。

第四に、真の和解プロセスのために和解の当事者ともいえる新たな行為者および協力アジェンダに注目しなければならない。特に「災害と安全に関する科学技術・人文・社会の融合的協力ネットワークの構築」や「アジア災害・安全共同体構想」など、日韓交流分野の拡大及び進展は非常に重要だ。さらに、和解の逆走を管理し、日韓和解の目標に達するためのロードマップを作成し、両国の和解ビジョンと戦略を共有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ためには、国会から全権を委任され外交交渉を行う米国の「貿易促進権限(TPA: Trade Promotion Authority)」あるいは「迅速処理権限(Fast Track)」制度を導入する必要がある。日韓間協議(交渉結果)の效力発揮が容易になり、両国の国内的信頼獲得および迅速な交渉妥結につながるだろう。例えば、日韓慰安婦交渉妥結(2015.12.28.)後に議論となっている「不可逆的最終合意(問題が最終的かつ不可逆的に解決されたことを確認する)」に関し、国会から権限を与えられていない状況であるがゆえ、無効あるいは再交渉の要求が続いている。「不可逆」という文言が外交において効力を発揮するには、何よりも「外交迅速処理権限(仮称)」を通じて国内の世論を収れんし、対立が解消された状態での国会と連携され、外交交渉が進め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五に、日韓関係の悪化は民間部門に直接的影響を与え、日韓間の和解に向けた交流協力が中断に追い込まれるだけに、普段から日韓両政府間の対話と同時に民間レベルでの科学技術・人文・社会分野における融合的交流を拡大する対策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日韓間の対話チャンネルの復活または拡大努力が切実な状況だ。特に、領土紛争、歴史認識、従軍慰安婦問題などの繊細な政治的事案を前に、まず日韓間の経済協力に関する対話チャンネルを維持・拡大する必要があると考える。先に言及した政経分離の原則に立ち、政治的対話のチャンネルに拘束されない「経済問題協議チャンネル」の持続的稼働が重要な時期だ。さらにこれまで韓国政府が強調してきた「信頼プロセス」政策を基調とした外交・安保および経済政策について、国内で幅広い支持を確保することが重要だと言える。

結論的に「葛藤を越え和解へ」向かう和解学を始めるには、日韓間の前提条件を再確認し実践する努力が必要である。「和解学」の観点から提示した様々な葛藤や紛争の類型を管理するには、日韓和解のロードマップと行動計画(Action Plan)を作り、第一歩を踏み出すことが重要だ。これは長期化する日韓間の非常事態的「外交不在」の状況から脱却し、正常なシステムが構築される状況へ転換する上で不可欠だ。韓国は日本との領土紛争、歴史認識、従軍慰安婦、教科書歪曲、靖国神社参拝に関する見解など、敏感な政治的事案を多数抱えている。韓国政府は国内的政策決定過程と米国・中国などの国際的変数などを考慮し、より戦略的視点から対日政策を推進する必要がある。

何より危機状態に至った日韓関係は、日韓両国の国益に決してプラスにならない。政府レベルではもちろん、民間または非政府アクターのレベルで、日韓関係を修復するための努力が必要である。たとえば、日韓関係の回復と発展のために相互に協力できる問題、特に環境、自然災害、気候変動などの安全に関する包括的な外交協力チャンネルとしての一種の「危機安全共同体」を構想し、これを政府レベルで積極的に推進しなければならない。また、ソフトパワーやスマートパワーに人間(Humanity)を優先す

る「ヒューマートパワー」を活用する必要がある。「日本には750万人の韓流ファンがいる。BTSに熱狂する日本の若者たちの層を、日韓関係における一種の安全装置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つまり、ソフトパワーを通して日本国民の心を動かし、政界が日韓関係の修復に乗り出すように圧力をかけなければならない。」

グローバル危機問題と自国民の安全に関しては日韓の意見に相違があるはずはないので、これに基づいて共通分母を形成するための組織を設け、関連するさまざまな問題についての議論と協力を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時である。一連のプロセスとメカニズムを通して、日韓関係の修復、さらには発展を図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共生と国際協力(外助)の重要性について共感し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

日韓国交正常化(1965)の60周年(2025年)へ再評価し、新たな日韓関係史の百年大計を考えると、これまで蓄積された協力の結果が完全に埋没したり、未来から断絶されれば、これは日韓両国にとってあまりにも大きな損失だ。持続的社會文化の共有、經濟協力などを通じて、「ゼロサムゲーム(Zero Sum Game)」ではなく、「ウィン・ウィン(Win-Win)ゲーム」へと転じる日韓関係を期待する。厳格な相互主義原則を固守する政策から脱し、柔軟な相互主義をベースに真の未来志向的な日韓関係の構築、つまり「和解学」の第一歩に力を入れるべき時期であろう。

◀ 参考文献 ▶

下村恭民『日本型開発協力の形成』東京大学出版会、2020年。

山田順一『インフラ協力の歩み』東京大学出版会、2021年。

金暎根 (Young-Geun Kim)

東京大学大学院総合文化研究科にて博士学位(国際関係学専攻)を取得。現在、高麗大学グローバル日本研究院教授、社会災難安全研究センター所長。「災害後の日本の經濟政策変容:関東・戦後・阪神・東日本大震災の比較分析」等の論文を発表、『日本災害学と地方復興』(共編)、『韓日関係史1965-2015.II:經濟』(共著)、『東日本大震災と日本の進路』(共著)などの著書がある。また『日本自民党の政治經濟学』、『日本大災害の教訓』、『日本原子力政策の失敗』、『熱狂宣言』、『韓日經濟協力資金100億ドルの秘密』(共訳)、『提言 東日本大震災』(共訳)、『災害から生き残る2』(共訳)などの訳書がある。

主な関心分野は、グローバル危機管理や災害安全学、日本の政治經濟、東アジア国際関係、国際機構(WTO)、外交・通商など。

米国エール大学国際地域研究センター(YCIAS)派遣研究員、青山学院大学国際政治經濟学部協力研究員、現代經濟研究院・北東アジア研究センター研究委員、貿易投資研究院(ITI)貿易政策室研究室長、啓明大学国際大学日本学科助教授を歴任。

e-Mail: ikimyg@korea.ac.kr

日韓の文化的融合と相互作用

— J-POPとK-POPのカテゴリー化を中心に —

金 成 玫 (北海道大)*

本発表は、ポピュラー音楽のカテゴリー化に焦点を当て、1990年代以降再構築されてきた日韓の文化的関係について考えることを目的とする。ジャンルとスタイルの定義とともに行われるカテゴリー化は、我々らしさと他者性を区別し、社会的関係を構築する制度的、言説的、実践的交渉の過程である。したがってカテゴリーは、さまざまな歴史性と連動しながら、新しい音楽ジャンルとスタイルやその生産・消費主体を生み出すポピュラー音楽の融合と相互作用によってつねに変容する。戦後日韓においては、「1965年体制」と音楽・メディア産業のシステムが構築された1960年代から1980年代までのあいだ、音楽市場とメディアによるカテゴリーが可視化した。しかし、日本の歌謡曲と韓国の歌謡に対する相互のカテゴリーは、(ポスト)コロニアルなまなざしと音楽市場の不均衡な構造、政治的不安定を反映する単純かつ偏狭なものだった。そのカテゴリーの更新が求められたのは、東アジア経済圏の拡大とメディア・都市文化のグローバル化、移動の自由化と文化の多様化とともに音楽産業構造の再編が進んだ1990年代以降だった。新たな生産・消費主体によるJ-POPとK-POPの融合と相互作用が活発化し、既存のカテゴリーにさまざまな亀裂を与えながら、我々らしさと他者性の再定義と社会的関係の再構築を促したのである。本発表では、1990年代以降のカテゴリー化過程を、J-POPとK-POPの生産と消費がナショナル・ローカル・グローバルに交錯する場として捉え、日韓の文化的関係がもつ重層性と多様性、流動性を浮き彫りにすることをめざす。

* E-mail: kim@imc.hokudai.ac.jp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통역과 교육

— 음성인식 활용을 중심으로 —

이주리에 (이화여대)

1. 서론

ICT, AI의 발전,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은 통역 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통역은 화상회의 시스템의 발전으로 원격통역 시장이 활성화되었으며, 통역 교육 또한 원격수업이 일반화되었다. 2020년을 기점으로 기술 기반 통역 연구도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환경 위주의 연구가 온라인 환경을 염두에 둔 연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기계번역과 자동통역 등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도 하지만, 비즈니스, 의료, 사법, 국제회의 등 통번역 시장은 여전히 인간의 비중이 높다. 따라서 이제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을 모색해야 하며, 발전되고 있는 기술에 익숙해지고 활용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상 생활 뿐 아니라 언어 학습에도 음성인식의 활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에 주목하고자 하며, 효과적인 통역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최근 연구 논문을 통해 기술 기반 통역연구와 음성인식 활용 교육을 살펴본 후, 통역 교육에 접목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2.1 한국과 일본의 기술 활용 통역 연구(2016~2022 상반기)

이창수(2019)의 2010년대 통번역연구동향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계번역이 본격화한 2016년 이후로 기술 기반 통번역연구가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통역시장 및 교육 환경이 원격으로 전격 전환되면서 연구동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2016년 이후 기술을 활용한 통역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¹⁾, 다음과 같다.

1) 한국 내 연구는 kci에서, 일본 내 연구는 cinii(국립정보화연구소 데이터베이스)에서 2016년부터 2022년 7월 현재까지 키워드를 '통역'으로 하여 기술기반 연구에 해당하는 논문을 모았다. 통역의 종류로는 국제회의통역과 교육에 한정했다.

<표1> 한국/일본 내 기술관련 통역 연구(n=41)

연도	편수	주제
2016	1	동영상활용 순차수업(1)
2017	5	통역교육용기술개발(3), 통역교육의 공학적 설계(1) 스마트폰활용 순차통역수업(1)
2018	4	통역교육용 기술 개발(2), 용어집구축(2)
2019	4	AI통역연구현황(1), 4차산업혁명시대교과과정(1) 원격통역(1), 통역교육용기술개발(1)
2020	8	원격통역(4), 원격통역수업(2), 용어집구축(1), 통역사테크네인문학교육(1)
2021	13	원격통역(2), 원격통역수업(4), 통번역융복합학과(1) 기술적전환 통역연구현황(1), LMS기반 통번역교육(1) 통번역학습자의 기계번역인식(1), 자동음성인식활용 통역(1) 가상현실활용 통역훈련(1)
2022 (상반기)	4	원격통역(1), 원격통역수업(1), 메타버스 활용 통역스터디(1) 컴퓨터보조통역동향(1)

2010년대를 지나 2020년대로 들어오면서 보인 가장 큰 변화는 한국과 일본 모두 연구 주제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기술 관련 연구라는 점이다. 특히 원격통역 연구가 눈에 띄는데, 2016년에서 2019년까지는 한 편에 불과했던 원격통역 연구가 2020년에는 원격통역수업을 포함해서 6편, 2021년에도 6편, 그리고 2022년 상반기에만 2편이 나오고 있다. 2020년 이후에는 연구 주제도 다양해지면서 자동 음성인식(이주리아, 2021), 메타버스(허지운, 2022) 등의 새로운 주제가 등장했다²⁾.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대응 가능한 기술 기반 연구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에서 2019년에는 통역훈련을 위한 기술 개발 관련 연구가 꾸준히 있었다. 최근 2년간 주춤하고 있는 양상인데, 온오프라인 혼합형 수업이 일반화되는 추세에서 통역 교육에 유용한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2.2. 음성인식 활용 교육 연구

음성인식의 정확도가 향상되면서 언어 학습에 음성인식 연구가 다방면으로 도입되고 있다. 이혜란 외(2020)에 따르면, AI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은 어학영역이 49%로 가장 많고 기술 유형은 음성인식 비율이 제일 높았다(60%). 이러한 어학교육에 활용한 앱은 영어학습에 적용되어 연구되는 사례가 많다. 일본어 발음 연습에도 음성인식이 가능한 앱을 활용한 연구(이경숙, 2015)가 시도된 바 있으며, 범용 STT 앱이 다양해진 2022년 현재 챗봇과의 대화를 통한 회화 연습, 음성인식 발음 교육, 음성인식 활용 창작 활동 등 다양한 사례를 볼 수 있다.

2) [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커뮤니티통역 중에는 가상현실기기를 활용한 의료통역 교육 연구(이계연, 2021)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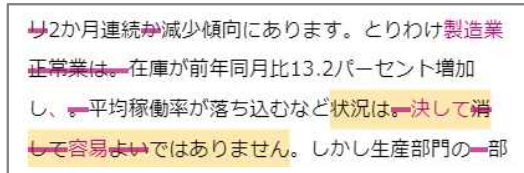
3. 음성인식 기반 통역 교육 제안

3.1 TTS(텍스트 투 스피치) 활용

일본어 낭독 프로그램(音律読み上げチュータズズキクン)이나 각종 문서프로그램, 포털사이트의 ‘읽어주기’기능 등을 통해 통역을 위한 원문 텍스트를 음성화하여 스테디 등에 활용한다.

3.2 STT(스피치 투 텍스트) 활용³⁾

실시간 STT와 녹음 후 STT 변환으로 분류된다. 활용 방식은 원문 인식과 통역 인식으로 나뉜다. 실시간 STT 기능으로 원문 음성을 인식하여 통역보조툴(Computer Assisted Interpreting)로 활용할 수 있다. 통역결과물의 STT 인식은 발음과 내용을 확인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학생의 과제물 제출 중 발음 오류가 그대로 인식되어 나타난 사례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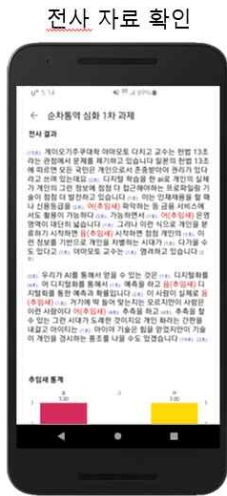
[그림1] 발음오류의 수정 사례

통역번역대학원생은 통역 훈련을 위해, 쉐도잉, 문장구역, B언어 숙달 등 다양한 기초 연습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발음을 모니터링하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STT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각 연습의 종류에 따라 STT 활용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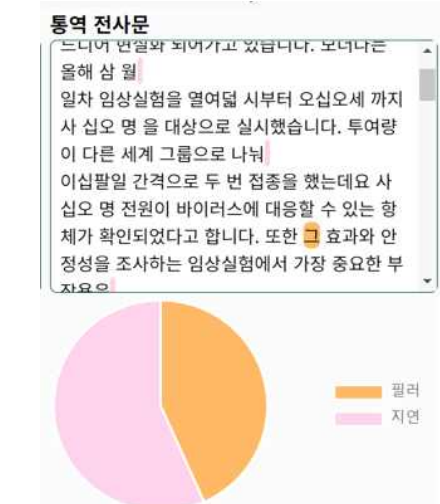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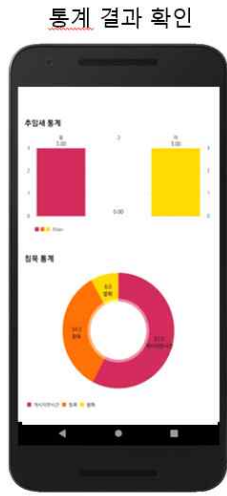
3.3 통역 평가용 STT 틀 개발

통역 피드백 및 평가를 위해서는 통역 결과물의 음성파일을 원문과 비교하며 들어야 한다. 이때 STT를 활용하면 내용 확인에 도움이 되며, 피드백을 주기에다 유용하다. 번역 피드백과 같이 텍스트에 직접 메모를 할 수도 있고 여러 번 반복청취를 하면서 평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STT 기능이 향상되어 정확도가 매우 향상되었으나, 통역평가를 위한 STT 기능 구현은 별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이주리에 외(2017)와 이주리에 외(2018)에서는 반복발화와 필러, 침묵 등의 통역에서 나타나는 유창성을 평가할 수 있는 STT를 제안한 바 있으며, 이를 앱으로 구현(이주리에 외, 2021)한 사례와 개정버전은 다음과 같다.

3) 자동음성인식틀은 모바일용, PC용으로 나뉘며, PC용은 문서형, 자막형, 타임라인형, 음성인식 자동번역, 숫자인식 등이 있고, 모바일용은 단어인식, 두 언어 인식, 녹음동시음성인식으로 나뉜다(이주리에, 2021)



[그림2] interprecam (이주리에 외, 2021)



[그림3] 통역전사 및 통계 사례(개정버전, 2022)

현재 STT는 필러(간투사)와 반복 발화를 제거하거나 잘못 발화한 단어가 자동으로 수정되는 기능이 있어, 회의록 작성이나 자막 송출 등으로는 유용할 수 있으나, 발화 연습에는 적합하지 않다. 통역의 유창성(휴지, 반복발화, 필러 등)을 알 수 있게 발화한 그대로 인식될 필요가 있고, 교수자 및 학습자가 유창성을 확인하기 위해 통계처리를 해 준다면 유창성을 저해하는 습관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4. 결론

2010년대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한국과 일본의 기술기반 통역 연구 동향을 살펴본 결과, 인공지능 기반 기계번역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번역 연구의 동향에 변화를 준 2016년 이후, 통역 연구도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원격통역, 원격수업 연구의 증가와 음성인식, 메타버스 등이 통역 교육에 적용되고 있다. 이 중 본 연구는 음성인식 기술에 주목하여 통역교육에 적용해볼 수 있는 제안을 해 보았다. 음성인식 기반 통역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이며, TTS와 STT를 통역 훈련의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학습법과 교수자의 피드백 및 평가에 도입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고안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통역 훈련용의 STT의 제안 및 개발 사례도 제시했는데, 현재 STT의 불필요한 음의 제거나 수정 기능은 원문의 STT에 활용하되, 통역결과물 확인에 필요한 새로운 기능 등 통역 교육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한 연구를 해 나가고자 한다.

◀ 참고문헌 ▶

- 이경숙(2018) 「음성인식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일본어 음성교육 방안 연구」 『日本語教育』 85, pp.29-42
- 이계연(2021) 「가상현실을 활용한 한국어-아랍어 의료통역 교수 모델」 『번역학연구』 22(5), pp.181-203

- 이주리에(2021) 「자동음성인식의 통역 활용에 관한 예비연구」 『인문사회 21』 12(5), pp.2407-2422
- 이주리에·박혜경·박성주(2017) 「순차통역수업의 스마트러닝활용안 구상 -일본어 순차통역수업의 예를 중심으로-」 『일본언어문화』 41, pp.227-251
- 이주리에·박혜경·상우연(2018) 「동시통역 수업의 보조도구로서의 애플리케이션 설계 -과제 제출 및 피드백 기능을 중심으로-」 『일본어교육연구』 42, pp.99-116
- 이창수(2019) 「2010년대 국내 통번역학 연구 동향에 대한 키워드 분석」 『번역학연구』 20(5), pp.107-129
- 이혜란·소효정·LINGXI JIN(2020) 「교육용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의 특성 및 설계 수준 분석」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6(3), pp.647-670
- 허지운(2022) 「메타버스 플랫폼의 교육적 활용: 통역 스터디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3(1), pp.225-257

[소프트웨어]

인터프리캠(등록번호: C-2021-002956. 이주리에 외, 2021)

**한국일본연구단체 기획 및
분과별 학술심포지엄**

마광운경 진섭운의 자음형에 대하여

孟 垚 (東國大)

1. 서론

『韻鏡』은 현존 가장 오래된 韻圖 중 하나이며 저자는 미상이다. 『韻鏡』의 작성 년대에 대하여 隨末唐初說, 晚唐五代說, 宋代說 등 여러 관점이 존재한다. 『韻鏡』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중심 모음을, 그리고 韻尾 또는 韻尾의 發聲 부위가 동일한 글자를 모아 총 43轉圖로 나누었다.

『磨光韻鏡』은 에도시대 중기의 학승이자 운학자인 文雄이 편찬한 韻圖로, 총 4279자를 수록하였다. 文雄은 『磨光韻鏡』에서 歸字의 左音注에 吳音, 右音注에 漢音, 下音注에 華音(唐音)을 달고, 발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밑에 反切을 加注하였다. 『磨光韻鏡』의 下音注에 대해 岡島昭浩(1988), 平田直子(2019·2021), 湯沢 質幸(2014) 등이 언급한 바가 있으며, 叶晓芬·叶桂柳(2022)은 『磨光韻鏡』 순음자의 독음 문제를 고찰하였고, 孟垚·李京哲(2021a·2021b·2022a·2022b·2022c·2022d·2022e·2022f)은 『磨光韻鏡』 遇·流·效·通·江 宕·梗·蟹¹⁾·曾攝의 左·右音注에 기재한 자음형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본고에서는 臻攝을 중심으로 『磨光韻鏡』의 左·右音注와 吳音資料 및 漢音資料의 비교분운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磨光韻鏡』에서 기재한 자음형의 규정과 오류를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吳音資料는 『法華經』, 『般若經』, 漢音資料는 『蒙求』, 『孔雀經』 文雄의 저서는 『翻切伐柯篇』, 『三音正譌』, 『磨光韻鏡字庫 上』을 참조한다.

2. 본론

2.1 開口1等 痕韻

聲母	吳音		磨光韻鏡		漢音	
	法華經	般若經	左音注	右音注	蒙求	孔雀經
見 k	コン根良	コン根	コン根頭良 コチ挖	コン根良頭 コチ挖		コン根
溪 k ^h			コン懇報碾	コン懇報碾		
群 g>k ^h	ゴン頷	コン頷	ゴン頷	コン頷		
疑 ŋ> ⁿ g	ゴン垠眼體 ゴチ體	コン垠眼 ゴン體 コチ體	ゴン垠眼體 ゴチ體	コン垠 ゴン眼體 コツ體		
影 ?	オン恩	オン恩	ワン恩稷饑	ワン恩稷饑		

1) 蟹攝 1·2等

匣 f>h	コン恨	コン痕恨	ゴン痕很恨 ゴチ斂	コン痕很恨 コツ斂		
透 t ^h		トン呑	トン呑愆痞	トン呑愆痞	トン呑	
心 s			シン洒撻	シン洒撻		

2.2 合口1等 魂韻

聲母	吳音		磨光韻鏡		漢音	
	法華經	般若經	左音注	右音注	蒙求	孔雀經
見 k	コツ骨 クツ嘸	コン鶻 コツ骨	クン昆髡論 クチ骨	コン昆髡論 コツ骨	コン昆鯁現 コツ骨滑	
溪 k ^h	コン困 コツ窟 クツ窟		クン坤闌困 クチ窟	コン坤闌困 コツ窟		コツ窟
疑 ŋ> ⁿ g		コツ杌	ゴン俚顛 ゴチ兀	ゴン俚顛 ゴツ兀		コツ兀 コン兀
影 ʔ	ワン穩 ウン溫	ウン溫	ワン溫穩搵	ワン溫穩搵	ワン溫縕 オン溫	ワン穩
曉 h	コツ忽	コン昏愆 コツ忽	コン昏愆 コチ忽	コン昏愆 コツ忽	コン婚	コン昏 コツ忽
匣 f>h	コン魂		ゴン魂混恩 ゴチ措	コン魂混恩 コツ措		
端 t	トン頓	トン敦頓	トン敦頓頓 トチ咄	トン敦頓頓 トツ咄	トン敦	
透 t ^h			トン噉唾噉 トチ突	トン噉唾噉 トツ突		
定 d>t ^h	トン鈍	トン鈍	ドン屯園鈍 ドチ突	トン屯園鈍 トツ突	トン饨	
泥 n> ⁿ d			ナン磨嫩炳 ナチ訥	ドン磨嫩炳 ドツ訥		
來 l	ロン論		ロン論怨 ロチ菽	ロン論怨 ロツ菽	ロン論	ロン論
幫 p	ホン奔本	ホン奔 フン奔	ホン奔本 ホチ不	ホン奔本 ホツ不	ホン奮	ホン本
滂 p ^h			ホン敷栩噴 ホチ諱	ホン敷栩噴 ホツ諱		
竝 b>p ^h	ホン盆盆 フン盆 ホツ諱	ホツ勃悖	ボン盆盆贖 ボチ勃	ホン盆贖盆 ホツ勃	ホツ勃 ホク勃	
明 m> ^m b	モン門悶 モツ沒	モン捫悶 モツ沒歿	モン門慳悶 モチ沒	ホン門慳悶 ボツ沒	フン門	フン悶門 ホン悶 フオン悶 ホツ沒
精 t̥	ソン尊 ソツ卒	ソツ卒	ソン尊劓焮 ソチ卒	ソン尊劓焮 ソツ卒	ソン尊	ソン尊
清 t̥ ^h	ソン村村 スン寸	ソン村 スン寸	ソン村村寸 ソチ猝	ソン村村寸 ソツ猝		ソン村
從 dz>s	ソン蹲存		ゾン存鱗鱗 ゾチ掙	ソン存鱗鱗 ソツ掙		ソン存
心 s	ソン孫損	ソン損	ソン孫損巽 ソチ宰	ソン孫損巽 ソツ宰	ソン孫損巽 巽	ソン孫損

2.3 開口3等 欣韻

聲母	吳音		磨光韻鏡		漢音	
	法華經	般若經	左音注	右音注	蒙求	孔雀經
見 k	コン筋 コツ訖	コン筋斤	コン斤謹斬 コチ訖	キン斤謹斬 キツ訖	キン謹	キン謹
溪 k ^h	コツ乞	コツ乞	コン炊起掀 コチ乞	キン炊起掀 キツ乞		キツ乞
群 g>k ^h	コン勤勲近	コン勲	ゴン近勤 ゴチ起	キン近勤 キツ起		キン勤近
疑 ŋ> ⁿ g			ゴン虬听迺 ゴチ疙	ギン虬听迺 ギツ疙		
影 ʔ	オン殷隱	オン殷隱	ワン殷隱僂 ヲチ乙	イン殷隱僂 イツ乙	イン殷隱	イン隱
曉 h	コン欣	コン欣忻	コン欣蟪焮 コチ迄	キン欣蟪焮 キツ迄		
徹 t ^h			チン斬 チチ眈	チイ斬 チツ眈		

2.4 合口3等 文韻

聲母	吳音		磨光韻鏡		漢音	
	法華經	般若經	左音注	右音注	蒙求	孔雀經
見 k	クン君軍		クン君擔擔 クチ亥	クン君擔擔 クツ亥	クン君軍	クン軍
溪 k ^h	クツ屈	クツ屈	クン卷趨 クチ屈	クン卷趨 クツ屈	クキン屈 クツ屈	
群 g>k ^h	クン群郡 クツ掘堀		グン羣郡 グチ倔	クン羣郡 クツ倔	クン群郡 クキン群郡 クツ掘堀	クキン群 クン群 クエン群
疑 ŋ> ⁿ g			グン轄轄 グチ崛	グン轄轄 グツ崛		
影 ʔ	ウツ鬱 ヲツ鬱	ウン氤	ウン焜煇醞 ウチ鬱	ウン焜煇醞 ウツ鬱	ウン縕 ワン縕	
曉 h	クン薰勳訓 クツ欵 コツ欵	コツ欵	クン薰訓 クチ颺	クン薰訓 クツ颺	クキン訓 キン訓	
于 ʋ	ウン云雲運	ウン雲運	ウン雲抔運 ウチ颺	ウン雲抔運 ウツ颺	ウン雲運 ワン雲	ウン云雲 キン雲
非 f	フン分紛糞奮 フツ佛 ホツ佛不	フン紛糞奮 ホツ佛	フン分粉糞 フチ弗	フン分粉糞 フツ弗	フン分紛	フン分
敷 f ^h	ホツ拂	フン芬氛忿	フン芬忿溢 フチ拂	フン芬忿溢 フツ拂	フン忿	フン忿
奉 v>f ^h	フン焚 ホン焚 フツ佛	フン焚憤 ホン焚	ブン憤汾分 ブチ佛	フン汾憤分 フツ佛	フン汾憤分	フン分 フツ佛
微 m> ^m v	モン聞文聞問 モツ勿物 モチ勿	モン聞蚊 モツ勿	モン文吻問 モチ物	ブン文吻問 ブツ物	フン聞問	フン聞 フツ勿物

3. 결론

이하 생략

Stata를 활용한 ‘~といつか’의 문법화(文法化) 분석

劉 鑿 眞 (三育大)*

1. 서론

본고는 일본어학에서의 적용 사례가 없었던 Stata를 활용한 문법화(grammaticalization) 분석, 즉 문(文)에서의 ‘といつか’의 위치 판별을 위한 코딩법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일본어학 연구를 위한 새로운 통계적 방법을 모색하여 그 가능성 및 유용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와 같은 일본어학과 Stata의 창발적인 결합의 통계기법 제안이 현대에서 요구되는 학제간의 융합적 접근의 한 방식이 되어 일본어학 이외의 타언어학 영역에서도 효율적인 분석 도구로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문법화는 문법화론(grammaticalization theory)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협의로는 ‘한 형태소가 어휘적 지위에서 문법적 지위로 혹은 파생형에서 굴절형으로의 변화처럼 덜 문법적인 것으로부터 더 문법적인 것으로 범위가 증가되는 현상¹⁾·의미적으로 완전한 단어들로부터 별 의미가 없이 문법기능만을 주로 하는 단어들로 바뀌는 변화²⁾’로, 광의로는 ‘점진적이며 연쇄적인 언어변화 현상³⁾’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본고는 후자의 문법화 정의를 적용하여 ‘といつか’를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といつか’의 언어 변화 현상, 그중에서도 문에서의 위치 및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⁴⁾ 이와 같은 문법화 관련 분석의 근거는 Meillet(1912)에서의 ‘語のだけが文法的表現の道具(source)ではなく, 語順変化も文法的表現の道具になりうることを示唆している’라는 논의를 근간으로 한다. 이는 어순변화도 문법적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을 상징하는 언급이 되며 다음과 같은 ‘といつか’포함의 예문을 살펴보자.

(例1) といつか、夏真つ盛りのこの時期にカニなんか手に入るか！

(例2) このクラスのメンバーは普段からアクが強いといつか、お祭り好きだといつか、落ち着きがない。

* 三育大校 航空觀光外國語學部 日本語學科 副教授, jyyou@syu.ac.kr

1) 이성하(2016:23)에서 현대 문법화론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Kurylowicz(1975[1965]: 52)의 기술 부분을 재인용하였다.

2) 이성하(2016:21-22)에서 ‘의미적으로 완전한 단어들’은 ‘내용어 또는 어휘어’로서 ‘별 의미가 없이 문법기능만을 주로 하는 단어들’은 ‘기능어’와 병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 이성하(2016:22)에서의 전체적인 기술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였다.

4) 日野資成 訳(2006: 64-65)에서의 논의에 따라 ‘문에서의 위치’는 어순의 변화는 구성요소(constituent)의 순서의 변화에 관계되는 것으로 상정 가능하다. 또한 ‘어순변화는 언어조직(texture)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문법적 규칙에 관한 것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으며, 따라서 언어변화를 문법화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기술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어순변화는 좁은 의미에서는 문법화와 동일시 할 수 없으나 어(語)의 요소(material)가 문법적으로 특히 형태론적으로 편성되는 것은 문법화에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하는 바와 같이 문법화를 넓은 의미로 파악한다면 어순변화도 검토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기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例3) 過去など忘れたというか。

위와 같이‘というか’가 (例1)에서는 문두, (例2)에서는 문중, (例3)에서는 문말로서 문에서의 다양한 위치 출현을 볼 수 있다. 먼저 해당 연구를 위하여‘というか’포함의 예문 총 724개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대량의 각 예문에서 ‘というか’의 위치변화와 문법화와의 유의미한 관련성 고찰을 위한 정성적·정량적 측면을 고려한 분석 수행에 한계가 내재하였다. 즉 각 예문에서 ‘というか’추출 및 기본적인 계량적 통계분석 즉 출현빈도 및 비율 산출은 수행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였으나 ‘というか’추출과 이들 위치에 대한 동시 분석은 기존의 일반적인 통계방식의 적용이 용이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방법 모색이 필요하였다. 이에 대하여 본고는 최근 제분야에서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장점을 포함하는 통계분석용 소프트웨어인 Stata를 적용 전례가 없었던 일본어학 분야에 시도해 보기로 하였다. 이를 통하여 효율적인 위치변화 분석을 통한 문법화 고찰을 수행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고에서의 분석의 초점은 문에서의 ‘というか’의 위치가 된다. 그러나 기존 빅데이터 기반의 다수의 예문에서는 용이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항목이었을 뿐만 아니라 통계패키지에 의한 적용 사례도 찾아 보기 어려웠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코퍼스에 포함되어 있는 어휘들의 단순한 계량적 통계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연구대상의 위치 파악에 대한 통계적 분석 시도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Beeching and Detges's(2014)에서도 제안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표적인 발화문의 위치로서 문두 및 문말 등 위치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정형(定型)적 표현이 다수 출현하는 중요한 발화 장소로서 해당의 두 위치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⁵⁾. 본고에서는 이에 더하여 문중까지를 포함하여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이는 ‘というか’가 문두, 문말에서 뿐만 아니라 문중에서 출현을 보였고 상이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의 Stata 적용의 분석의 연구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というか’의 문에서의 위치에 따른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というか’의 형태와 의미 변화 단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5) Beeching and Detges's(2014:11) functional asymmetry hypothesis.

LP	RP
Dialogual	Dialogic
Turn-taking/attention-getting	Turn-yielding/end-marking
Link to previous discourse	Anticipation of forthcoming discourse
Response-marking	Response-inviting
Focalizing, topicalizing, framing	Modalizing
Subjective	Intersubjective

<段階 1>

: 기본 자료 수집단계로서 用例.jp를 사용하여 ‘というか’포함의 전체 예문 자료를 수집한다.

<資料1> 1단계 수집 데이터 목록화 예시

- その辺はやはり律儀というか堅物だが、今回ばかりはちょっと間が悪い。ジャックがクリップフォードに行くということは、シールシャと会うということでもあるからだ。
- そうしてまた慌ただしく出発する。母は父の忙しさが好ましいというか、誇りに思っていたような気がする。タクシー呼びましようかなどいって、むしろ急かしたりする。
- というか意地になってないかあいつ、食べるスピードが尋常じゃないぞ。もしかして美味しいのか。
- その池の大きさは大きいのは十丁あるいは二、三丁また一丁位もある。この辺の名は何というか知らんけれどもモンギョ州の中であろうと思います。で私はその辺を名づけて「千池ヶ原」と言いました。
- 辞書というのは常に若書きであるというか、そういう部分はありますね。
 どうか自分がいたらそういう状況は発生してなかったんじゃないかと思うのだが。
- 彼らは孔子夫婦でも、二宮尊徳夫婦でもないから、若いころはイガミ合い、けんか、さまざまあったが、四十年、人間らしくつきあってきた夫婦だ。こういう夫婦を理想的な夫婦といわぬなら何をさして夫婦というか。こんな老夫婦っていいなあ。
- 客間の、ひーやりする籐の敷物、古風なオールゴール、白いクマの皮などが一年に何度あけられるかshれない乾いた動かない空気の中で樟腦の香をたてていたのが、今はフーフーと風吹きとおしにあげはなされ、書院の「磐山書院」という額の下には、健坊の昼臥のフトンがしかかれていて、おむつがちらばっているという光景です。自然的というか、本能的というか、人間のそういう生活が溢れています。書院に、小包がワンサとつんであってね、その左右に、こんな文句の聯がかかって居ります。
- 当時よっぽど驚いたというか、大きな出来事で印象に残ったんやろね。よう憶えてはったわ。
- なお本作のイラストは、瑚澄遊智氏にお願い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こちらに関しては何というか、もう凄いという言葉しか思いつきません。キャラの可愛さカッコ良さはもちろん、文章とのマッチング感と言うに及ばず、それを支える構図、風景、小物、メカと、死角ナシ過ぎです。

total n_1		Number of obs = 615		
Total estimation		Total	Std. Err.	[95% Conf. Interval]
n_1		724	10.76428	702.8607 745.1393

. log off

<段階 2>

: 한 예문에서의 ‘というか’의 출현 횟수를 계산한다.

```
gen num=_n
replace num=2000+num
ren 일본어예문 —6)
_____
_____

drop n_11
ren n_14 n_11
위의 결과에서 변수 n_14가 각 예문에서의 ‘というか’의 사용 횟수를 나타낸다.
```

<段階 3>

: ‘と’を基準として 文を 前・後로 이분한다.

```

snapshot save
global snum2=r(snapshot)
snapshot restore _____
_____
compress
_____
_____
_____ustrtrim(after_touka)
_____

위와 같은 작업을 통하여 ‘と’의 문에서의 위치, 즉 ‘문두·문중·문말’을 구분하기 위한 기초 작업에 해당된다.
    
```

<段階4 >

: ‘と’전후의 문부호 및 구분 조건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문두, 문중, 문말’에 대하여 순서대로 ‘Head, Mid, End’ 표기한다. ㉞

```

* Head
gen type="Head" if ustrregxm_____
* End
replace type="End" if ustrregxm_____
* Mid
replace type="Mid" if type=="_____
    
```

<段階5>

: 전 단계 수집 데이터에서 문말 위치의 ‘と’예문을 코딩을 적용하여 추출한다.

<資料2> 段階5 수집 데이터 목록화 예시

	A
1	例文
2	その辺はやはり律儀//とていつか//堅物だが、今回ばかりはちょっと間が悪い。ジャックがクリップフォードに行くとい
3	そつてまた慌たたく出発する。母は父のやさしさが好き//とていつか//、誇りに思っていたよな気がする。タク
4	//とていつか//意地になってないかあいつ、食べるスピードが尋常じゃないぞ。もしかして美味しいのか。
5	その池の大きさは大きいのは十丁あるいは二、三丁また一丁位もある。この辺の名は何//とていつか//知らんけ
6	れどもコンギョ州の中でであろうと思います。で私はその辺を名づけて「千池ヶ原」と言いました。
7	辞書というのは常に若書きである//とていつか//、そういう部分がありますね。
8	//とていつか//自分がいたらそういう状況は発生してなかったんじゃないかと思うのだが、
9	彼らは孔子夫婦でも、二宮尊徳夫婦でもないから、若いころはイカミ谷い、けんが、さまたまあったが、四十年、大
10	間らしくつきあってきた夫婦だ。こういう夫婦を理想的な夫婦といわぬなら何をさして夫婦//とていつか//。こんな老夫
11	客間の、ひーやりする籐の敷物、古風なオールゴール、白いクマの皮などが一年に何度あけられるかしのれない乾
	いた動かない空気の中で樟腦の香をたてていたのが、今はフーフーと風吹きとおしにあげはなされ、書院の「磐山
	書院」という額の下には、健坊の屋敷のフンがしかかれていて、おむつがちらばっているという光景です。自然的//
	とていつか//、本能的//とていつか//、人間のそういう生活が溢れています。書院に、小包がワンサとつんであってね、
	その左右に、こんな文句の聯がかかって居ります。
	当時よっぽど驚いた//とていつか//、大きな出来事で印象に残ったんやろね。よう憶えてはったわ。
	なお本作のイラストは、珊瑚遊智氏にお願い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こちらに関しては何//とていつか//、もつ羨しいとい
	う言葉しか思いつきません。キャラの可愛さカッコ良さはもちろん、文章とのマッチング感に言うに及ばず、それを支

6) 점선은 이미 작성된 코딩으로서 일부에 해당된다.

<段階 6>

: 마지막 단계로서 계량적 분석 작업으로 문말 위치의 ‘といつか’에 대한 일원 빈도표(one-way frequency table)를 만들고 ‘といつか’ 위치변수와 그에 대한 변역변수를 이용하여 이원 빈도표(two-way frequency table)를 생성한다.

```
tab type if regexm(M, "M")
drop nnn n_*
gen file_num=1
order file_num
tab type M if regexm(M, "M")
. tab type, m
```

type	Freq.	Percent	Cum.
Head	196	27.07	27.07
Mid	458	63.26	90.33
End	70	9.67	100.00
Total	724	100.00	

```
. log off
```

3. 결론

◀ 참고문헌 ▶


이성하(2016:21-23) 『문법화의 이해』 한국문화사, pp.21-23.
松浦 寿幸(2015: 2-3) 『Stataによるデータ分析入門 第2版』, 東京図書, pp.2-3.
P.J.호ッパー, E.C.트라우고트 著 ; 日野資成 訳(2006)『文法化』九州大学出版会, pp. 64-65
用例.jp
<https://yourei.jp/%E6%97%A5%E6%9C%AC%E8%AA%9E>(검색일: 20200825)

작문 태스크에 나타나는 일본어 학습자의 조건표현 사용 양상 분석

최연주 (경상국립대)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한국/중국/영어권 일본어 학습자의 조건표현의 사용양상을 작문 태스크를 통해 살펴보고 학습자의 모어에 따른 사용경향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복수의 형태가 존재하는 문법항목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 습득에 이르러 가는지를 분석, 고찰하고자 한다.




조건표현의 습득관련 선행연구

✓일본어 조건표현은 다양한 유의표현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일본어 학습자에게 조건표현은 습득이 어려운 문법항목 중 하나임
✓대부분의 조건표현의 습득연구는 의미용법의 사용경향에 주목하고 있는 연구가 대부분임

①寺村(2006):관용표현의 사용이 자주 보이는 조건표현 「バ」 학습자들에게는 즐겨사용하는 조건표현 존재
②崔(2012):학습자의 발화데이터를 대상으로 조건표현의 사용 분석→학습자의 조건표현의 사용에는 固まり表現이 존재. 이로 인해 각 형식 간 구별

조건표현의 습득관련 선행연구

✓崔(2017)
JSL과 JFL환경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특정표현과의 공기현상 주장 하지만 학습환경에 따른 차이가 보인다



조건표현의 습득관련 선행연구

✓崔(2011)
JSL환경에서 일본어를 습득하고 있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조건표현의 습득을 종단적으로 분석한 결과
(1)조건표현「たら.ば.と」는 형식에 따라 출현 시기가 다르며 공기하는 동사에 따라 조건표현 형식의 사용에 차이가 보임
(2)「ば」는 「~といえは」등의 관용표현, 「と」는 부정표현과의 공기등 조건표현의 형식에 따라 다른 경향을 나타냄
(3)또한 모어화자(중국/한국)에 따른 사용의 차이는 보이지 않음

본 연구에서는 작문 태스크에서의 조건표현의 사용양상을 분석, 발화 데이터에서의 사용과 비교/대조

no.2

데이터 개요 및 분석 관점

데이터 개요

表 2 調査地および調査環境別の公開予定人数と登録機型

調査地/調査環境	言語制度	言語制度	公開予定人数 (人)
1	インドネシア語	オーソドックス語系	50
2	スペイン語	母語語族-イタリック語系	50
3	タイ語	タイ語系	50
4	トルコ語	アルタイ語系	50
5	ロシア語	母語語族-バルチック語系	50
6	フランス語	フランス語系	50
7	ポルトガル語	母語語族-イタリック語系	50
8	ベトナム語	モンクメール語系	50
9	한국어	母語語族-스타브르어족	50
10	英語	母語語族-ゲ르만어족	100
11	中国語	不明	100
12	中国語	シネチベット語系	200
13	調査環境	-	100
14	自然環境	-	50

I-JAS(International corpus of Japanese As a Second language) 다언어모어 일본어 학습자 횡단 코퍼스

迫田久美子・その他(2016) 인용

데이터 개요

【태스크의 종류】
① 스토리텔링(2태스크), ② 대화(약30분), ③ 롤플레이(3태스크), ④ 絵描写, ⑤ 스토리-라이팅(2태스크), ⑥ 메일문(3태스크), ⑦ 에세이, 총 12태스크


【분석데이터】

- I-JAS(International corpus of Japanese As a Second language) 다언어모어 일본어 학습자 횡단 코퍼스
- 한국/중국/영어권 학습자에 의한 **작문(에세이) 태스크**
- JFL환경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언어 코퍼스

데이터 개요

【작문(에세이) 태스크 방법】
사전, 인터넷의 사용이 가능하며 시간제한은 설정하지 않음
일본인 혹은 일본어 교사에게 물어보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허가하지 않음

【작문(에세이) 태스크 주제】
작문 주제는 「私たちの食生活:ファーストフードと家庭料理」이며 600자 정도의 작문을 지시하였다



데이터 개요

모어별 학습자	인원수
한국 학습자	75명
중국 학습자	90명
영어권 학습자	28명

【대상 표현】 조건표현「たら・と・ば」

【분석의 관점】 조건표현의 전후에 접속하는 품사 혹은 특정표현을 분석
 예: 「お餅がないと、寂しいよ」→「否定ない」と
 「(料理)作れば、いいと思うよ」→「口ば、いいよ」
 「時間があれば、遊ぶ」→「あれば」

no.3 분석 결과

조건표현 전체 사용경향



【출어문에서의 사용】 「と」의 사용이 가장 많음
 ✓ 영어권 학습자
 と(45%)-たら(35%)-(ば(20%))
 ✓ 한국 학습자
 ば(39%)-(と(37%)-たら(24%))
 ✓ 중국 학습자
 と(44%)-(ば(33%)-たら(23%))

【話し言葉에서의 사용】 「たら」의 사용이 가장 많음

의미용법의 분류 기준

前田(2008) 인용
 가정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가 → 가정적인 문 or 비가정적인 문

학습자들의 관점에서 본 의미분류란?
 [가정성을 가지고 있는 문장 vs 그렇지 않은 문장]

실제 학습자들의 사용에 많이 보이는 표현
 「관용적 표현」: 「語彙化・慣用化した表現」
 일본어능력시험 문법출제기준으로 제시된 항목
 예) ~からみれば, ~という、によれば

본 연구에서의 의미 분류
 ✓ 가정(가정조건성을 가지고 있는 문장)
 ✓ 비가정(일반, 확정, 반복 등, 가정조건성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 관용적 표현

의미용법에 따른 조건표현의 사용예

【CCH39 중국 학습자】
 「ずっとファストフードを朝ごはんとしたら、体が壊れる可能性があります」
 → 비가정(일반, 반복 등)

【CCH42 중국 학습자】
 「もし眠がなければ、私たちは外に食事をせざるを得ないです」
 → 가정

【KKR35 한국 학습자】
 「食生活といえ、人のもっとも基本的なものだと思います」
 → 비조건

의미용법에 따른 「たら」의 사용



의미용법에 따른 「ば」의 사용



✓ 영어권 학습자 비가정의 사용이 많다
 ✓ 한국 학습자, 중국 학습자 관용적 표현 비가정 사용 많음
 ● 「たら」에 비해 관용적 표현 사용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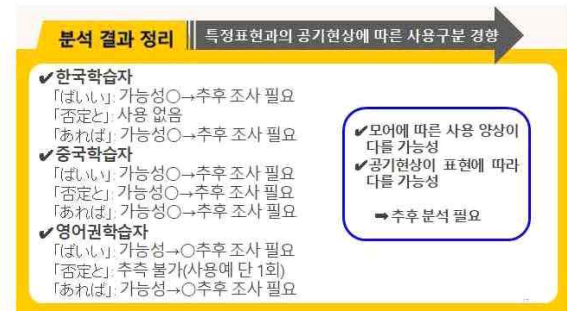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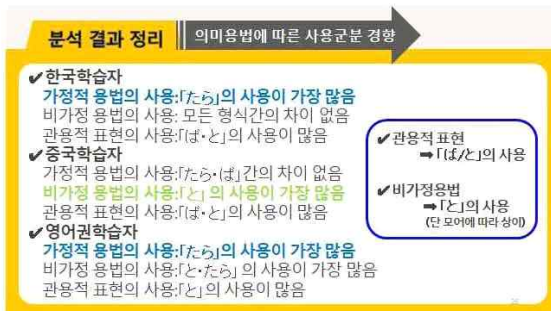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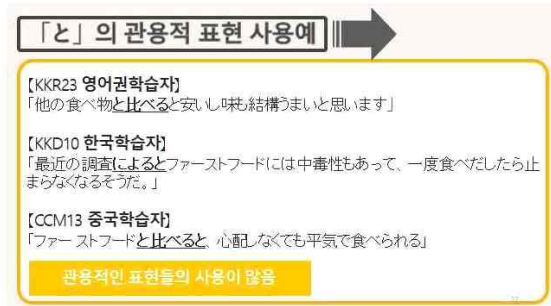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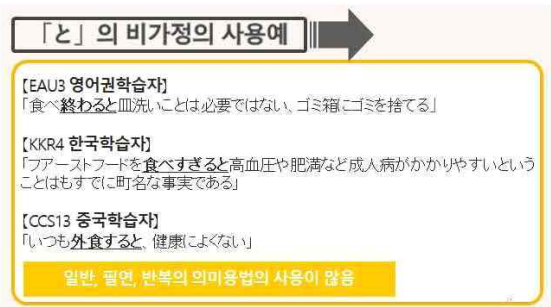
「ば」의 관용적 표현 사용예

관용적인 표현의 사용이 많음

【KKR36 한국 학습자】
 「でも時間さえあればゆっくりして、きちんと栄養をとることはもちろん、家族と話す機会や時間とられる」

【CCH63 중국 학습자】
 「ファーストフードといえ、作るスピードが速く、持ち方と食べ方が便利です」

【CCS26 한국 학습자】
 「学生食堂のビュッフェと比べれば、ファーストフードのほうが高いのが原因で、それを食べる頻度が少ないのは無理ありませんでしよう。」



정리 및 과제

✓ 語彙에서의 조건표현의 사용 양상

- 1) 특정표현과의 공기현상
- 2) 학습환경에 따른 유니트 형성 경향의 차이(JSL형식적인 유니트 多, JFL의미용법에 따른 형식간의 구분 경향)
- 3) 모어에 따른 사용의 차이는 현저하지 않음

✓ 構文에서의 조건표현의 사용 양상

- 1) 모어화자에 따라서는「ㄷ」의 경우, 비가정 용법으로의 사용 정착 경향
- 2) 「ㄷ」의 경우, 관용표현의 사용이라는 특정 유니트 형성의 가능성
- 3) 모어화자에 따라서는「ㄹ」의 경우, 관용표현의 사용이라는 특정 유니트 형성의 가능성
- 4) 모어에 따른 사용 차이의 가능성(대상 학습자가 JFL이기 때문)

구체적인 형식(특정표현과의 공기 현상=유닛)으로서의 사용경향은 추후 연구를 통해 분석 필요하나 관용표현이라는 특정 형태로의 사용으로서 문법형식간의 구분이 이루어질 가능성

THANK
YOU

前舌母音假說과 咽頭音化假說에 대하여

진위신(동국대 대학원) · 이경철(동국대)

1. 咽頭音化假說

전통적인 음운론 학자들의 관점은 音節類型A(1 2 4等)과 音節類型B(3等)의 변별적 자질이 音節類型B가 硬口蓋介音¹⁾이 동반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후에 鄭張尚芳(1987:67-90) 潘悟雲(2000:141-153) Стáростин(斯塔羅斯金 2010:216-218)을 비롯한 학자들은 長短母音으로 보고 있으며, Jerry(1994:397-408) Baxter·Sagart(2014:68-76)를 비롯한 학자들은 咽頭音化로 보고 있다. 본고도 咽頭音化로 보고 있지만 Jerry Baxter·Sagart와 달리 咽頭音을 介音으로 보고 있다.

먼저 선행연구자들이 제시한 자료를 포함해서 본고가 정리된 3等字가 介音이 동반하지 않고 咽頭音이었다는 증명자료는 주로 (1.)대역자료, (2.)현대방언, (3.)동계어, (4.)차용어, (5.)韻書, (6.)諧聲으로 구성된다.

俞敏(1999:1-62) 鄭張尚芳(1987:67-90) 潘悟雲(2000:141-153) Стáростин(斯塔羅斯金 2010:216-218)이 제시한 증명자료를 결합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Sanskrit어의 대역자료에서 [弗⇒put] [無⇒mo] [目⇒mog] [浮屠⇒buddha]과 같이 3等字가 介音이 동반하지 않는 형태로 반영된다. 한편 Sanskrit어의 [ka] [kha] [ga]를 대역하기 위해서 일부로 만들어진 [迦字 [佉字 [伽字가 있는데 모두 歌韻3等字인데 이들도 역시 介音이 동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방언인 경우는 廣州方言에서 音節類型B가 집중적으로 短母音, 音節類型A가 집중적으로 長母音으로 반영되며 音節類型B와 音節類型A의 대립관계는 母音의 長短에 있다. 浙江南部的 吳語와 閩語에서도 3等字가 白讀音이 j介音이 동반되지 않는다.

[強 go : gio :]와 같이 音節類型B에 걸친 吳音과 漢音의 대립관계 중에서 吳音이 i介音이 동반하지 않고 漢音이 i介音이 동반된 특징이 존재한다. 한편 베트남한자음에서도 [洋 đuong /zuəŋ 1/] [張 truong /tuəŋ 1/] [良 lưong /luəŋ 1/]과 같이 3等字가 i介音이 아니라 u介音으로 반영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潘悟雲(2000:141-153)은 AC의 3等介音은 長短母音의 대립구조가 쇠퇴함에 따라 u→j란 변화과정을 거쳤다고 언급했다.

Стáростин(斯塔羅斯金 2010:216-218)는 Lushei어(Tibeto-Burma어군에 속함)와 중국어의 대응관계상 音節類型A가 長母音, 音節類型B가 短母音과 대응관계를 이루어진 것을 지적했다. 따라서 鄭張尚芳 潘悟雲 Стáростин은 音節類型B가 i介音이 동반되어 있지 않고, 短母音이었으며, 音節類型A가 長母音였다는 長短母音의 대립관계로 보고 있다.

다만 Sagart(1999:48-49)는 長短母音說에 대해서 비판했으며, 그의 주된 이유는 Sanskrit어의 대역자료에서 Sanskrit어의 長母音이 音節類型A, 短母音이 音節類型B와 대응관계를 이루어지지 못

1) 학자에 따라 표기가 조금 다를 수 있다. 일부 학자는 j를 i 혹은 유사한 표기로 표기한다.

하며, 오히려 Sanskrit어의 短母音이 上聲과 대응관계를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Jerry(1994:397-408)와 Baxter·Sagart(2014:68-76)는 咽頭音化說을 주장했는데 長短母音說과 달리 音節類型A의 어두자음은 咽頭音화된 자음이며, 音節類型B인 경우는 일반적인 어두자음이었다고 보고 있다. Baxter·Sagart의 핵심적인 증명자료는 아래와 같이 2개 있다.

먼저 [故 quoH] [空qhəŋ B] [嫁 qua C]와 같이 Proto-Hmong(Mien)어에서는 중국어의 차용어인데 音節類型A에 해당하는 見溪母字가 k와 k^h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 보다 발음위치가 뒤에 있는 q와 qh로 반영된다. 한편 漢代 經師 何休가 [言乃者, 內而深, 言而者, 外而淺]이란 문장이 있는데, [乃]字와 [而]字는 모두 [but] 혹은 [instead]에 해당하는 역접부사(adversative adverb)인데, 차이점은 [乃]字를 받음할 때 [內(inside)] 그리고 [深(deep)]인 반면에 [而]字를 받음할 때 [外(outside)] 그리고 [淺(shallow)]이라는 대립적인 특징이 존재한다. [乃]字가 1等, [而]字는 3等이라서 [內而深(inside & deep)]을 咽頭音化로, [外而淺(outside & shallow)]을 一般音節로 설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본고는 위 학자들의 관점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추가적인 자료와 결합해서 입증하고자 한다. 먼저 Miyake(2003:15)가 제시한 之部 3等字가 推古朝(Suiko)의 OJ(Old-Japanese)와의 대응사례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1等			3等			
OC	OJ	gloss	OC	OJ	gloss	
乃	nʃəq	no(*nə)	止	təq	to(*tə)	stop
母	mʃəq	mo(*mə)	意	ʔ(r)əq	o(*ə)	idea

위에 표를 통해서 보면 1等字와 3等字인 경우 OJ에서 모두 介音이 동반하지 않는다. 특히 [止]字는 hiragana의 [止] katakana의 [ト]의 어원이고 照母 3等甲類字이다. 위의 베트남한자음에서 제시한 [洋]字·[張]字·[良]字가 있는데, 이들이 이경철(2006:268-269)계통에서 陽韻3等甲類 즉 j介音으로 규정되었지만, 베트남 한자음에서 w介音으로 반영된다. 그 중에서 [良 raŋ]字인 경우 李京哲(2006:259-260)이 陽韻3等甲類로 규정하였으며, 吳音과 漢音이 모두 ㄹㅇ으로 표기했지만 根津本 <大般若經>과 龍谷大學本 <淨土三部經音義>에서 모두 ㄹㅇ(로2), <法華經>에서도 ㄹㅇ으로 표기된다(이보람 2018:55). [春而過 夏來良之 白妙能 衣乾有 天之香來山]이란 문장은 <萬葉集·卷1>에 수록한 문장인데, 여기서 [良之]가 音讀 [ラシ]에 해당되는데, [良 raŋ]과 [기]의 대응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萬葉假名와 吳音에서 사실상 모두 介音이 없는 형태로 반영된다. 내부적인 입증자료로서 廣州方言과 福州方言에서 [良]字가 각각 ㄹœŋ과 ㄹuoŋ이며 硬口蓋介音이 반영되지 않는다.

<日本書紀>에서 [野父播羅]란 문장이 있는데 OJ로 각각 ya bu pa ra이다(Miyake 2003:37). 여기서 介音이 없는 bu를 3等인 [父 baq]字로 대역했으며, [父]字는 [아버지]의 뜻인데 魚部 3等字이다. 아버지를 뜻하는 한자 [爺 ʃba]字가 있는데 <說文解字>에서 수록하지 않았으며 상당히 늦은 시기에 만들어진 글자이다. 이 문자를 만들어진 이유는 [父]字의 주모음이 AC에서 이미 a에서 다른 주모음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爺 ʃba]字가 歌韻1等字라서 [父 baq]字도 역시 원래 介音이 없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동계어인 WT와 WB에서는 각각 [ʃ p^ha]와 [ʉ p^ha]인데 모두 介音이 동반하지 않는다. 金理新(2002:175)이 지적했듯이 현대 중국어 각종 방언에서 [아버지]를 [pa]·[papa]·[a-pa] 등으로 부르며, Tibetan어·Cona-monba어·Lahu어·Tujia어에서는 [a-pa], Jino어는

2) 古音小鏡 www. kaom.net에서 정리된 자료를 의거한다. 검색일: 2022.06.23

[a-pu], Burman어는 [a-phe], Lhao Vo어는 [a-pho], Darang Deng어·Nusu어·Naxi어에서는 [a-ba], Z aiwa어·Pela어에서는 [a-va]이라 모두 介音이 동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언어	대응관계					
	音節類型A			音節類型B		
水語 Sui	qaŋ ¹ ↔kʰaŋ	銅	見1陽部	kun ³ ↔k(r)uŋ	宮	見3冬部
苗語 Hmong	湘西 qa ¹ ↔kʰe	雞	見4支部	je ¹ ↔krəm	金	見3侵1部
	黔東 qe ¹ ↔kʰe			tein ¹ ↔krəm		
	川滇黔 qai ¹ ↔kʰe			ko ¹ ↔krəm		
白語 Bai	洛本卓 qo ¹ ↔kʰra	鰲	見2魚部	kur ⁵ ↔k(r)u	救	見3幽1部
	營盤 qe ¹ ↔kʰra					
突厥語 Trukic	qam↔kʰam	甘	見1談1部	ki↔k(r)əq	己	見3之部

위의 표는 曾曉渝(2003:109-120)에서 인용한 자료인데, Sui어 Hmong어 Bai어 Trukic어의차용에서 音節類型A의 見母字가 q, 音節類型B의 見母字가 k 또는 口蓋音化된 j te로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潘悟雲(2014:531-576)에 의하면 Uyghur문자로 번역된 <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에서도 見母1等字가 q로, 3等字가 k로 대역하는 대응관계를 이루어진 것을 지적했으며 위표의 Trukic어자료와 일치하며 이는 唐代에 걸친 見母1·2·4等字가 q, 3等字가 k였다는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고는 추가적으로 <廣韻>의 <辨字五音法>³⁾과 <辨十四聲例法>에서도 같은 형상이 반영된다. <辨字五音法>에서 [四牙聲迦佉, 五喉聲鋼各]가 있는데 여기서 [迦]字와 [佉]字인데 각각 見母3等과 溪母3等字이고, 喉聲에 기입한 한자는 [綱]字와 [各]字인데 모두 見母1等字이다. <辨十四聲例法>에서도 [十一牙聲]에 [迦]字와 [佉]字가 기입되어 [十三喉聲]에 [鴉]字 [加]字와 [痕]字가 기입되는데, [鴉]字가 影母2等, [加]字와 [痕]字는 見母2等이며, 音節類型A의 影母와 見母는 모두 [喉聲]으로 규정되었다. 즉 사실상 <廣韻>에서 音節類型A인 見·溪母는 喉音, 音節類型B인 見·溪母는 牙音으로 규정되었 있다. 따라서 본고는 AC의 見·溪母를 각각 q와 k, q^h와 k^h로 나누어서 본다.

AC의 群母는 3等字만 있으며, 1 2 4等字가 없다. 邵榮芬(2009a:1-23, 2009b:24-50)에 의하면 群母의 1 2 4等字는 匣母⁴⁾에 해당되며, 匣母(匣1)는 OC에서 g였지만, AC에서는 보다 발음위치가 뒤에 있는 fi로 변한 이유는 사실상 見·溪母와 같다. 見·溪·群(匣)母의 대응관계를 정리해서 아래의 표와 같이 상정할 수 있다.

音節類型	聲母	OC→AC	대응관계
A	見母	kʰ→q	牙音의 咽頭音化→喉音
	溪母	k ^h ʰ→q ^h	
	匣1	gʰ→fi	
B	見母	k→k	牙音→牙音
	溪母	k ^h →k ^h	
	群母	g→g	

3) 凡呼吸文字即有五音: 唇聲, 舌聲, 牙聲, 喉聲, 齒聲等。一唇聲併餅, 唇聲清也。二舌聲靈歷, 舌聲清也。三齒聲陟珍, 齒聲濁也。四牙聲迦佉, 牙聲濁也。五喉聲綱各, 喉聲濁也。——<廣韻·辨字五音法>

4) 匣母는 匣1과 匣2로 나누어 아며 匣1은 音節類型A인 g였으며, 이와 대응하는 音節類型B는 본고에서 다루는 群母 g이다. 匣2는 音節類型A인 g였으며, 이와 대응하는 音節類型B는 극소수 喻母(以母) g이외의 주로 于母(雲母) g와 대응되며 서로 다르다.

아래의 표는 邵榮芬(2008:102)에서 인용한 <王仁旭刊謬補缺切韻>과 <廣韻>의 反切上字에 해당하는 反切係聯의 결과이다. 그 중에서 見·溪母의 호용수는 1·2·4等(音節類型A)의 反切上字와 3等(音節類型B)의 反切上字의 호용관계이며, 나머지는 각 舌頭音과 舌上音의 反切上字의 호용관계이다.

AC의 舌頭音과 舌上音의 구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학술계에서 異見이 없는데 舌頭音과 舌上音의 反切上字의 호용비율의 최소치가 1.32%로, 최대치가 9.76%로 나타났다. 반면에 見·溪母의 호용비율의 최소치가 단지 0.8%로, 최대치가 2.8%에 있다. 특히 <王韻>인 경우는 見·溪母의 호용비율의 최대치가 1%이며 舌頭音과 舌上音의 최소치보다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反切係聯法을 통해보아도 見·溪母가 AC에서 각각 q와 k, q^h와 k^h로 나누어야 할 것이다.

聲母	王仁旭刊謬補缺切韻			廣韻		
	小韻數	호용수	호용비율	小韻數	호용수	호용비율
見	244	2	0.8%	247	2	0.8%
溪	197	2	1%	213	6	2.8%
端知	156	13	8.33%	163	11	6.75%
透徹	138	2	1.45%	152	2	1.32%
定澄	151	5	3.31%	160	4	2.5%
泥孃	161	10	6.21%	123	12	9.76%

Sanskrit어의 대역자료에서 音節類型A와 B는 長短母音으로 반영된 것이 아니라는 점부터 위에서 다루는 見·溪母의 문제 그리고 群·匣母의 문제를 통해서 보면 OC의 音節類型A와 B의 변별적 자질은 主母音의 長短이 아니라 咽頭音化에 있다는 점이 틀림없다. 다만 본고가 咽頭音化를 聲母의 동반된 특질이 아닌 독립적인 介音으로 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淮南子> <呂氏春秋>에서 3等字를 [急氣(급한 소리)], 비 3等字를 [緩氣(완화된 소리)]로 주석을 달았는데, 이를 咽頭音化로 해독하기 어려우며, 長短母音으로 해독하는 것이 더욱⁵⁾ 적합하다. 그 밖에 위에서 다루는 粵方言과 Lushei어도 音節類型A와 B가 長短母音으로 변별된다. 따라서 아래의 표와 같이 ʃ介音이 쇠퇴함에 따라 크게 介音과 長短母音으로 변별하게 된 것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 長母音인 경우는 ʃ介音이 쇠퇴함에 따라 원래 ʃ介音의 발음 길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主母音이 자연스럽게 길어진 것으로 예상된다.

변화형태	音節類型	예상된 음운변화
형태1 介音	1等	kʃV(C)→kʰV(C)→qV(C)→kV(C)→kjV(C)
	3等	kV(C)→kuV(C)→kjV(C)
형태2 長短母音	1等	kʃV(C)→kV:(C)
	3等	kV(C)→kV(C)

결론적으로 ʃ介音은 音節類型A와 B의 변별적 자질이었으며, ʃ介音이 동반된 음절은 硬口蓋介音이 생길 수 없다. AC이후 ʃ介音이 소멸됨에 따라 2·4等字는 물론이고 1等字까지 모두 硬口蓋介音이 생길 수 있게 된다. 鄭張尚芳(2002:89-108)이 지적했듯이 粵·贛·徽·吳方言에서 [頭 thi²/thio²]字와 같이 1等字가 硬口蓋介音이 생기는 현상이 존재한다.

5) Baxter·Sagart(2014:109)에 의하면 古丈方言에서 流音의 閉鎖音化가 일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桃]字인 경우 kʰaw→lao13를 들 수 있으며, 喻母 3等인 [姚 law]字와 諧聲한다.

ㄹ介音의 두번째 기능은 流音의 閉鎖音化인데, 기존의 長短母音說인 경우는 主母音이 長母音인 경우 ㄹ가 d로 변화하는데 短母音이 j로 변화하는 점이 논리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웠다. 다만 咽頭音化說을 도입한 후 ㄹ→d ㄹ→j로 쉽게 해독할 수 있다. ㄹ와 ㄹ의 최소대립쌍은 아래의 표와 같다.

漢字	韻部	音韻	古丈話	OC		
				본고	B&S	鄭張
桃	宵1	定豪開1平	laɔ13	lʃaw	*C.lʃaw	l'aaw
姚	宵1	以宵開3平	-	law	없음	lew

2. 前舌母音假說(생략)

越境する日本語

— 植民二世・森崎和江の思想 —

佐藤 泉 (青山学院大)

詩人であり批評家である森崎和江は一九二七年に植民者日本人の二世として朝鮮の大邱で生まれた。日本敗戦の後は九州で暮らし、炭坑労働、女性、命といった主題をめぐる文章を書きついでいったが、朝鮮は生涯を通じて彼女の思想の大きな機軸でありつづけた。幼少期を過ごした慶州の思い出をつづった『慶州は母の呼び声』が韓国で翻訳出版されたこともあり、日本と韓国と、共同で森崎の思想を検証する条件が整いつつある。その森崎が、つい二か月ほどまえの二〇二二年六月一五日に九州で亡くなった。今回は、この場でともにこの思想家の死を悼むことができるのかを考えたい。私は森崎和江の思想を疑いなく重要だと認識しているが、韓国にあって植民二世である彼女の思想がどのような評価を受けるのかはわからない。今回の発表が、森崎をめぐる対話をはじめのきっかけの一つになることを願うのみである。

「私は顔がなかった」と森崎和江は書いている(「わたしのかお」『アジア女性交流史研究』一九六八年七月)。もちろん手でさわることのできる顔はあるのだし、森崎といえば「息を呑むほどの美人」(澤宮優『放浪と土と文学』二〇〇五年)という評判さえあるのだが。

森崎和江は一九二七年四月、植民地支配下の朝鮮、慶尚北道大邱に生まれ、一七歳で日本に「留学」するまで朝鮮で育った。彼女の父親はリベラルで普遍主義的な理想を抱いて植民地朝鮮の青年たちの教育に献身した教育者だった。これを皇民化教育を現場で実施する立場にあったと言い換えることもできようし、また当時は「外地」朝鮮の教員は高額な給料を約束されていたという事情もある。ただ、森崎の父は教え子である朝鮮の若者らから深く敬愛された。朝鮮の若者を深く愛した父は、そうであるからこそ彼らに精神的な面でも影響を与え得たのだが、後年の森崎は、その分だけ同化主義の罪業を深めたことになるのだと振り返る。

宗主国の娘・森崎和江は、日本を知らない日本人として成長し、古都慶州の美しい風土のなかで自分の基本的な感性を形作ることになった。のちに彼女は、自分は朝鮮という「鑄型」に型どられ、朝鮮によって作られた存在だと書いている。

顔がない、というのはどういうことだろう。鑄型によって型どられた自分が、その鑄型であり自分をはぐくんだ土地から今は切り離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そして自分がそれを養分にして成長したその土地はほかならぬ自分の国が奪い取った植民地だったということをおそらく語っているのだろう。森崎が朝鮮で育った自分を語る場合、いつでも精確に語ろうとし、そのために言葉が詩の言葉にならざるをえないことに注意を払っておこう。この「鑄型」という言葉もまた高度に精確な詩語である。朝鮮はそのままの姿で支配者の娘の前に現れたりなどしなかった。それは敗戦から二〇年を経て分かったことである。森崎は朝鮮の懐で育ち、その風土を限りなく愛したが、それはそのままの姿の朝鮮でなく、

人びとの民族性そのものではなく、「実は彼らの民族性の裏返されたものであったろう」(「故郷・韓国への確認の旅」『婦人公論』一九六八年八月)。型どられたものとそれを型どった「鑄型」とはぴたりと一分の隙間なく張り付いているが、相互の凹凸は裏返しなのだ。自分が他者を鑄型として成型され、しかもそれが裏返しの他者だったのであれば、自分には起源とよびうる起源はなく、自分は自分にとって二重に他者である。顔がない、とはそういうことだ。「私は自分の顔にさわると、その鑄型となった朝鮮のところに外からふれている思いがする。外からさわわりうるだけである」(「わたしのかお」)。

そして、植民地朝鮮に型どられた自分は、八・一五の日付とともに____この日付もまた日本の敗戦／朝鮮の解放という鑄型のありかたを鮮烈に指し示している____、鑄型から剥離して、自分を型どったものからそれきり遠ざかった。戦後の日本で森崎は顔をもたない時を過ごす。「敗戦後二〇年、私は私の鑄型である朝鮮を思うたびに、くだらなくも泣きつづけた。この断章も泣き泣き書いている阿呆らしさである」(「朝鮮断章1」)。自分の嘆きをくだらない、阿呆らしいと形容する視点には、被害者の側から見たときに自分の嘆きがどう映るかという他者の目が重なっている。自分が泣きつづけたとして、朝鮮にとってそれがなんだというのだろう。その涙が加害者の無自覚にすぎないとすれば、徹底的に無意味な涙であり、くだらないというほかに言葉がない。

その地に生まれ、すべてを吸収して自己を形成した彼女にとって、朝鮮は自分の肉であり、なおかつ自分の他者だった。自分の内の他者、自分そのものである他者、そうしたものとのかかわり方は加害／被害の単純な対応に収まるものではない。彼女は、自分の肉となったものを表現できずにいたが、それは被害者の思いに対し恐縮していたからではない。それを表現する方法そのものを失っていたのだ。

「唇には、背負ってくれたオモニとネエヤの髪がはりついている。(略)その一すじの髪毛について私のところは、いまだに一度もことばになっていない。(略)私はひたすら朝鮮によって養われた。オモニに逢いたいのが礼をのべる立場をもたない。私はこの小文を朝鮮人の目からかくしておきたい。その感情とのたたかいなしに私は朝鮮を語れない。」

「私は朝鮮について、事実を____私の肉となったものを____表現する自由はない。私はそれをおしころしてきた。おしころすことで、ネエヤをさらにふたたびおしころしている……。ここは、私のこの肉のどこかは、あれの墓である」(「二つのことば・二つのところ」)

いかなる言語的な記憶をも逃れる幼年期の「私」、私の唇にはりついたネエヤの一すじの髪。なまなましく具象的なこのイメージが、具象的であるとまったく同時に象徴性を帯びるのは森崎の文章の、したがって思考の特徴だといっている。この場面が「いまだに一度も言葉になっていない」のはなぜなのか。ここには「私」の形成にかかわるあらゆる根源的な条件が映し出されていて、その過程のすべてが言語的存在に先立つものであるためだ。この場面に登場しているのは小さな子どもとそれをケアする他者である。幼い森崎は、朝鮮人のオモニとネエヤに負ぶってもらい、必要なケアを受けた。そうした他者による生の援助、支えを通して「私」は「私」として形成される。「私」の身体と生存とは「私」が選択したわけではない他者によって支えられており、それは言語をもった「私」の意志に先立っている。脆く、無力な子どもの身体を保護してくれた他者がそこにいたという事実、根本的でしかも自分の意志によら

ない事実を通して「私」は私になる。その他者が、森崎の場合には彼女を背負ってくれた朝鮮人のオモニとネエヤだったのだ。森崎の「私」はそれじたいが植民地主義と分離できない様態において形成された。

私たちの肌と肉は他者に委ねられ、さらされ、その痕跡を刻まれている。ジュディス・バトラーは、堅固な輪郭をそなえた自律的個人という理念を築き上げることによってしばしば否認される人間一般の傷つきやすさ、身体が不可避的にはらむ被傷性、可傷性を政治的想像力の原点におくべきものと考え。人間の一般的な被傷性とは、小さな子どもであれ大人であれ、私たちがまさに初めから「他者に対して開かれて在ること、私たちが個として存在する以前に、身体が要求するところによって一連の根源的な他者性にゆだねられている、そのような概念であるという[バトラー2007:66]。人間の根源的成り立ちとして、その身体は他者の世界に差し出され、根源的な他者性にゆだねられ、他者の痕跡が刻まれている。朝鮮人のオモニ、ネエヤに負われ、その一すじの髪の毛が唇にはりついているこの場面が言語化不可能なのは、それが「私」の形成に先立っているから、そして被傷性が「私」の形成に先立っているからだ。唇にはりついた「一すじの髪の毛」の形象は、言語を準備しながら言語化に先立つ幼年期の時空にある。言語的な「私」の彼方で、「私」のこの肉のどこかはネエヤの墓である。深刻なのは、それが植民地支配の罪業とともにあるということだ。

オモニやネエヤを「私」が言語化することはできない。だが、表現しないことで、自分を今あるように作りあげた朝鮮を、当時の支配に引き続きより深く「おしころす」ことにもなっている。おしころしたままではいけない。なぜなら、その朝鮮はうちひしがれた被害者などでは決してなかったのだから。

当時の自分は一九一九年の三一独立運動も、一九二九年の光州抗日学生事件も知らなかったと、森崎は振り返る。自分の意志が形成される以前に、何ひとつ理解しないまま、何ひとつ選択したわけではなく、自分はそこで自分となった。だから自分に罪はない、といているのではない。「自分の出生が____生き方でなくて生まれた事実が____そのまま罪である思いのくらは口外しえるものではない」。

森崎の个体史と日本の植民地体制の歴史とは分離不可能な様態で縋り合され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若い彼女にとっては「個体の歴史をさておいて頭にえがくことができるアジア史・世界史のほうが鮮明」であり、また「朝鮮の民衆や農民や学生がたどった植民地闘争の書物上の歴史のほうが明確」だった。奇妙な歴史感覚というべきだろう。国家、民族を主語とした大文字の歴史は明瞭に理解できるのだが、しかしそこには自分自身の个体史を書き込む場所がない。

強いて書き込もうとするなら、森崎一家もまた植民者であり、植民者は侵略者としてカテゴライズされることになるのだろう。過去の侵略の歴史は疑問の余地なき悪であるという認識は留保なく正しいというべきだ。なぜなら実のところ日本の「戦後」はそれほど「正しい」認識を常に持ち得ていたわけではなかったのだから。戦後日本は自らの内に残存する「戦前」を掘り起こし、対象化するという作業を怠ってきた。現在もアジア侵略と植民地支配の歴史を否認する発言、むしろ肯定する発言がしばしば公然となされ、しかもそれが日本社会の中で一定の支持を集めている。それが「戦後」のいきついたところの現実だったとすれば、規範的な歴史認識を規範にすぎないとして冷笑するわけにはいかない。ただそれが硬直した定式のように感じとられているのであれば、やはりその言説を問い直さないわけにはいかない。やはり植民地で生まれた松村武司は「多くの植民者がいたにもかかわらず、いまその歴史が近・現代史から欠落している。このまま放置すれば彼等の歴史はうしなわれてしまうであろう」という

危機感をもって、自分の祖父を材料にしてその歴史を書こうとした。彼らを「侵略者」とカテゴリーのも
とで理解するのは正しいことだが、カテゴリー的な思考の枠内にとどまるのでは「侵略」を実際にすす
めた日本の民衆のそれぞれに具体的な体験が虚像になってしまうと考えたのである。

大文字の歴史は、その渦中であって個々の生を生きた人々の体験の質とどのように関係するのだろ
うか、しないのだろうか。「私は顔がなかった」という言葉に立ち返るなら、それは明瞭な歴史像のなか
に場所を与えられることのないまま放置され言語化できないままの个体史を、それでもなお虚数のよ
うに表現を与えようとする言葉として理解できるのである。

そして結局のところ、彼女の経験はなんら特別なものではない。敗戦時点で、朝鮮内部に約五〇万、
北部に約二七万人の日本人がいたと言われている。このほか「満洲」からの避難民が一二万人。植民地生
まれた世代もまた少数では全くない。ただ、人びとは単に数なのではない。さきほどの村松武司がそ
の消滅を危惧した个体史、一般的に「大国主義的な侵略者」として一括りにされる個々の体験がそれだ
けの規模で存在している。敗戦と引き揚げの混乱をさまざまな度合いで潜り抜けたであろう彼ら彼女
らが、みな顔なき者の哀しみを哀しんだのか、それとも子どもの時代をすごした「故郷」へのノスタル
ジーに誘われたのかはわからないが、植民地から「内地」へ、巨大な奔流となって移動した日本人とその
二世の経験をまるごと取り落としたなら歴史はその厚みのいくぶんかを失うことになる。重要なのは
その厚みが一国単位の歴史に収まるものではないことだ。失われるのは歴史の対話の契機でもある。

植民二世の日本人の娘と同じ子どもの時代を、朝鮮人の子どももまた同じその場所で経験していた。
彼ら彼女らのそれぞれの个体史は、同じひとつの植民地体制の厚みの内に____ただし鑄型の表裏、型ど
るものと型どられたものとの関係をなしてともにある。支配と被支配の立場を一まとめに語ることな
どできないにもかかわらず、植民二世の个体史がそうだったのと同様に、同世代朝鮮人の个体史にもや
はり後年の歴史において意味付け困難な部分が横たわっていたのではなかつただろうか。森崎和江の
「くだらない」、無意味な个体史は、ここで歴史の通路たりうるように思う。その、いかんともしがたい
経験は、植民地主義の歴史経験を考えるうえで、そこからなおけなしの何かを汲みとることができる
質をそなえている。のみならずそれを思想化する作業を断念しなければ、ある普遍性の次元さえ備えて
いるのではないか。

植民地台湾と南島研究

手島崇裕 (慶熙大)

近代に入り沖縄に関する研究が盛んとなった地として、東京(本土)、沖縄のほか、台湾が挙げられる。台湾の場合、沖縄研究を行う同人の機関誌である『南島』の発刊が目される。ちなみに、日本語の「南島」は、単なる「南の島々」としてではなく、今の南西諸島地域(つまり奄美・沖縄の島々)を指して用いられる場合が多いことを注記しておく。

『南島』は3輯(1944年9月)まで刊行され、4輯は編集途中で終戦を迎えた。これは、須藤利一(すどう・りいち、東京出身、1929～1942台北高等学校教授として数学を教える。沖縄、特に八重山地方の算法に関心を持っていた)を発起人とするようだ。その須藤を師と仰ぎ、研究会と雑誌の運営に尽力していたのが、沖縄本島出身、台湾放送局に勤務し、総督府臨時情報部にも籍を置くことになる川平朝申(かびら・ちょうしん)である。川平は戦後の沖縄文化復興に重要な役割を果たした人物であり、近年研究が進んでいる。『南島』1輯(1940年8月)、2輯(1942年5月)は、この両者を含む4～5人が編集に当たり、須藤が内地に移った後も、川平を中心に3輯、4輯が編集された。

『南島』は、顧問として、浅井恵倫(あさい・えりん※)、伊波普猷(いは・ふゆう)、移川子之蔵(うつしかわ・ねのぞう※)、上原景爾(うえはら・けいじ)、江崎悌三(えさき・ていぞう)、小葉田淳(こばた・あつし※)、大島広(おおしま・ひろし)、金関丈夫(かねせき・たけお※)、川平朝令(かびら・ちょうれい)、喜舎場永珣(きしゃば・えいじゅん)、島袋源一郎(しまぶくろ・げんいちろう)、島袋全発(しまぶくろ・ぜんぱつ)、志喜屋幸信(しきや・こうしん)、玉城尚秀(たまぐすく・しょうしゅう)、豊川博雅(とよかわ・ひろまさ)、南風原朝保(なまかぜ・あさむね)、東恩納寛惇(ひがしおんな・かんじゅん)、比嘉春潮(ひが・しゅんちょう)、比嘉盛章(ひが・もりあき)、萬造寺龍(まんぞうじ・たつ)、柳田国男(やなぎた・くにお)、山中樵(やまなか・きこり)を迎えた。顧問のメンバー構成について、いくつもの視点からの分析が可能であろうが、ここでは、台北帝国大学、及び台湾の教育・情報機関関係者が名を連ねていることに焦点を絞る(※印は台北帝大教授)。台湾における沖縄研究は、植民地という近代的空間、もしくは帝国大学の学知を背景にして進められようとした側面があるのだ。

台北帝大(1928年成立)は、日本の南方進出と歩を合わせ、いわば南方研究の拠点として創立された。例えば、初代総長幣原坦(しではら・たいら、東京帝大國史学第一期卒業生、朝鮮史の草分けとして知られるが、『南島沿革史論』が初期の業績)は、台北帝大の特徴は「文政学部」にあり、同学部には他の大学に類例のない「南洋史学・土俗人類学」の学科があると述べている。

具体的に文政学部には哲学科、政学科のほか、史学科、文学科が置かれ、史学科には東洋史学(藤田豊八ふじた・とよはち、桑田六郎くわた・ろくろう、青山公亮あおやま・こうりょうなど)、土俗学・人種学(移川子之蔵など)、国史学(小葉田淳など)、南洋史学(村上直次郎むらかみ・なおじろう、岩生成一いわた・せいいちなど)、西洋史学が、文学科には国語学国文学、西洋文学、東洋文学、言語学(浅井恵倫な

ど)が置かれた(括弧内は、特に注目すべき教授陣)。なお、台北帝大には遅れて医学部も置かれるが、そこに属したのが、自然人類学者金関丈夫である(金関の博士論文は「琉球人の人類学的研究」)。金関の研究は、土俗・人種学や国史・南洋史学など文政学部で行われた諸学問と密接に関わるものであった。

『南島』については、川平の回顧によれば、「土俗、人類学(文化人種学)教室」を中心とした台北帝大研究室に入り浸りながら研究・刊行が進んでいった。このあたりの事情を、さらに確認しておく。

先行研究(中生勝美氏など)の整理を踏まえて記すと、この『南島』は、台北帝大文政学部教員の研究会を母体とする南方土俗学会及び雑誌『南方土俗』(のち『南方民族』)と密接な関係を持つ。この研究会は、台湾の土俗研究を中心として発足したが、台北帝大には「南方」を専門とする会員も多いことから、台湾のみならず南洋(太平洋の島嶼のみならず、現・東南アジアの島嶼、沿海部をも含む地域を指す)の研究報告も行われる場となった。そして、この南方土俗学会では、沖縄関係の研究発表も行われていた。このような環境のなかから、沖縄研究に特化した研究集団、及び雑誌『南島』が誕生したわけである。

ここで注目すべきは、台湾での沖縄研究が、「南方」研究のための学問空間に居続けながら、その一部として行われるのではなく、沖縄関連の研究を推進する個別の研究会・雑誌として独立したまとなりになっていった点であろう。

以上を踏まえ、台湾での沖縄研究(南島研究)について追究すべき論点とその見通しを一部示しておきたい。

まず、『南島』第2輯では、主要メンバーによる「沖縄の文化を語る」と題した座談会(ラジオ放送)が行われた。そのうち、松村一雄(まつむら・かずお、台北帝大、国文学)が、沖縄の図書館の古書保存法が劣悪であることを指摘したが、それを受けた比嘉盛章(沖縄本島出身、与那国や西表の国民学校校長を経て、一時台湾総督府文教局に赴任)、須藤利一の一連の発言に注目する。比嘉が「これからの沖縄文化の研究は東京は遠いし、京都や福岡では余り構つて呉れないから台北が中心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ね。一つウンとやらうぢやありませんか。」と、須藤が「研究は地理的にも実に恵まれてますからね。」と発言したのだ。

近代に入り、台湾が植民地化されると、至近距離にありながら近代以前には没交渉であった台湾と琉球(沖縄)との関係にはわかに深くなった。このうち、特に八重山(ないし、宮古も含む先島)と台湾の関係が重要であることは、既に「移民」研究からも注目されている(松田ヒロ子氏などの研究)。すなわち、八重山を中心とする沖縄県から台湾への人の移動は、日本の辺境・沖縄県(沖縄本島)には欠けているが、植民地・台湾では急速に整備されつつあった近代的なキャリア形成の場や教育・学問の機会を求めていることであった。

座談会での一連の発言、すなわち、文化財管理も行き届かない沖縄現地とは異なり、東京にも比肩する近代的学知を擁する台湾が沖縄研究を主導していくべきだ、という発言もまた、同様の空間構造を背景に行われたことになるだろう。

では、この台湾の地での研究は、沖縄研究のもう一つの中心であった東京(伊波や東恩納らと、本土の学者との協業)とは異なる、独自の特色を帯びるものだったのだろうか。

比嘉の経歴、須藤の八重山への関心、『南島』1輯が八重山特集号、3輯が宮古特集号であったこと、その他関係者たちの回想記なども踏まえると、台湾に集った沖縄研究の同人たちには、首里―那覇―沖縄本島を中心として構築されようとする東京や沖縄県での沖縄研究を、外地から捉え直そうとする意思

が存在した可能性があろう。植民地帝国・日本という広域空間の登場・拡大により、琉球王国期から常に辺境の地に甘んじていた八重山(先島)が、逆に、近代国家・日本の辺境でありつづける沖縄本島、ないし沖縄県という単位を見つめ直す場として浮上してくる。

他の論点として、台北帝大の「校是」である南方研究から、南島研究すなわち沖縄研究の独立が志向された点はどうか。見通しのみ示せば、川平のような、『南島』同人の中核を占める人たちに、「南島」が日本の一部であり、報告者の関心に即するならば、国史の一部であることへのこだわりがあったのではないか。彼らにとって沖縄は、台北帝大で新たに誕生し、体系化されつつある南洋史の一部として研究されるべき地ではない。例えば琉球王国による海外交易の隆盛、といった過去の歴史は、日本の南洋進出の先駆的事跡として、すなわち国史の一部に刻まれるべき事跡として、意味を付与されるべきものであった。

これに関しては、台湾の沖縄研究同人誌に「南島」の語が冠された意義についても、他地域での沖縄研究と比較しながら検討してみる必要があるかもしれない。台湾における「南島」の語は、伊波や東恩納、あるいは柳田のような本土の学者が用いた「南島」と完全に同義なのか否か。そして、戦後に当該地域を呼称して用いられた他の言葉(例えば島尾敏雄の「琉球弧」と、どの程度重なり、どのような違いがあるのか、等々。

いずれにせよ、上記のような『南島』の独立志向をめぐる今後の課題として、この志向が、台北帝大の学者たちとどの程度の次元まで共有されていたかの検討が残されているだろう(彼らの個人史を見たとき、沖縄が自らの研究の土台をなす学者も多かった)。報告者は、特に国史・南洋史の展開に即して、そのなかでの沖縄の位置取りを具体的に追っていく必要を感じている。これは、植民地・台湾を背景とする学知が、戦後から現代にいたる沖縄研究にどのように流れ込み、それを支えているのかを見極めるための必須の作業となるだろう。

재건 내셔널리즘과 지역의 상상력

— 『국가재건최고회의보』를 중심으로 —

김 동 현 (경희대 글로벌류큐오키나와 연구소)

1. 재건 내셔널리즘의 시작

5.16 군사 쿠데타의 명분은 ‘구약일소’와 ‘경제재건’이었다. 쿠데타 직후 장도영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명의로 발표된 성명에서 밝힌 이른바 ‘혁명 공약’은 쿠데타의 명분을 분명히 보여준다. 잘 알려졌 듯이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한다’는 ‘혁명공약’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3번째와 4번째 대목이다.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약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덕과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청신(淸新)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기한다.” 이 두 가지 명분은 이후 쿠데타 집권 세력의 ‘국가 재건 프로젝트’의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했다. ‘경제재건’은 쿠데타의 명분이자 그들의 집권을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였다.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명칭이 보여주듯이 2년 동안의 군정기간 동안 ‘국가재건’은 ‘위로부터의 개혁’의 명분이자 당면 과제였다.

이러한 ‘재건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한 것은 기존 법률을 무효화하는 쿠데타적 상황에 기인한 것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들이 법제도의 무력화와 새로운 법률의 선포를 동시에 수반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감벤이 “예외상태”를 정의하면서 “법률적인 것과 정치적인 교차하는 모호하고 불확정적인 경계선”이며 “법률 차원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법률적 조치”라는 점을 상기해보자.¹⁾ 쿠데타는 그 자체로 기존 법률 체제를 무효화하는 조치이자 주권을 생성하는 폭력적 힘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법의 내부’를 무력화하는 동시에 ‘법의 창안’과 새로운 ‘법의 외부’를 동시에 만들어낸다. 쿠데타 직후 제정된 국가재건최고회의법은 ‘예외상태’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적이며 정치적 조치였다.

특히 쿠데타의 명분으로 내세운 ‘경제재건’은 국가재건최고회의법과 재건국민운동법이라는 법률적 형식의 선포로 이어졌다. 1961년 6월 제정된 재건국민운동법의 핵심은 ‘국가 재건을 위한 범국민운동’ 추진을 위한 ‘재건국민운동 본부의 조직’이었다. 이 법 제2조에서는 재건국민운동을 “전국민이 청신한 기풍을 배양하고 신생활체제를 견지하며 반공이념을 확고히 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으로 정의 내리면서 7가지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1. 용공중립사상의 배격
2. 내핍생활의 려행

1) 조르조 아감벤, 김항 역, 『예외상태』, 새물결, 2009, 14쪽

3. 근면정신의 고취
4. 생산 및 건설의지의 증진
5. 국민도회의 양양
6. 정서관념의 순화
7. 국민체위의 향상



그림1. 조선일보 1961년 6월 11일자

예외상태를 생명정치의 관점에서 “법이 생명에 가닿고 스스로를 효력 정지시켜 생명을 포섭하기 위한 근원적 장치²⁾”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법률의 선포는 단순한 법의 선포가 아니라 ‘재건 이데올로기’의 내면화를 통한 단일한 국민의 포섭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시적 삶의 영역을 ‘재건 이데올로기’로 포섭하려는 이러한 전략은 쿠데타 세력의 전유물은 아니었다. 당시 지식인 엘리트 역시 ‘재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재건 이데올로기’의 동반자가 되었다. 물론 이러한 지식인 엘리트의 동참이 군부 쿠데타 세력의 의도와 전적으로 부합되는 것은 아니었다. 국민재건범국민운동 본부장인 유진오를 비롯하여 이 단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유달영, 이관구 등 지식인 엘리트는 범국민운동을 민간 주도의 비정치적 국민운동이자 대중생활과 윤리사상의 개조에 방점을 찍었다.³⁾ 이러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기에 재건국민운동본부의 중요 사업 중 하나가 교육 사업이었다. 재건국민운동 본부에서 실시한 교육의 본질이 군사 쿠데타 세력이 주도한 새로운 질서를 수행하고 계몽, 훈육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은 ‘재건 이데올로기’가 쿠데타 이후 새로운 국민의 창출의 수단이었음을 보여준다.

1961년 쿠데타는 단순한 군사 반란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내셔널리즘의 발명을 위한 치밀한 기획의 시작이자, 이후 한국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영역과 미시적 일상, 포획하는 ‘국민 만들기’의 전략이

2) 위의 책, 14쪽.

3) 김현주, 「5.16 군정기 재건국민운동본부의 국민교육활동」, 『대구사학』, 제117, 2014.

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쿠데타 집권 세력의 내셔널리즘의 창출을 ‘재건 내셔널리즘’의 차원에서 수행되었다는 점과 이러한 내셔널리즘이 지역을 어떻게 폭력적으로 재편성해 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1961년 쿠데타 직후부터 1963년까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발행한 ‘국가재건최고회의보’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이른바 ‘재건 이데올로기’가 ‘예외상태의 지속’과 내셔널리즘의 표상을 어떻게 구현해 갔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2. ‘국가재건최고회의보’라는 문제적 담론장

국가재건최고회의보는 1961년 8월 창간하여 1963년 12월까지 모두 27호가 발행되었다. 발행인은 국가재건최고회의 총무처장이었고, 편집은 국가재건최고회의도서관장이었다. 최고회의보 창간호 목차를 살펴보면 이 매체의 발행 목적을 알 수 있다. 창간호 목차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⁴⁾

필자	제목	비고
최문환	5.16군사혁명과 경제사회문제	
성창환	5.16군사혁명과 경제개혁	
이관구	5.16 군사혁명과 통일문제	
조순승	국제정세와 혁명정부의 외교방향	
유진오	재건국민운동의 성격과 방향	
한재덕	현하 방공의 긴요성	
김유택	혁명제2단계와 경제건설책을 논함	
박동운	혁명제2단계와 민심수습책을 논함	
홍이섭	史的諸弊를 제거	
김광섭	혁명과 인간애와 건설	
박남수	명량한 사회를 이룩하자	
정충량	혁명업적의 재평가	
김성한	한 가지 제안	
유현목	영화문화의 진흥을	
오재경	혁명공약과 혁명구호를 논함	공보부 장관
박정희 장군	내외혁명지도자론	
우누(U.NU)	내외혁명지도자론	
윤태일	서울시정 2개월	서울특별시장
박희동	5.16혁명과 국민의 협조	총무처장
	혁명일꾼 젊은 농촌지도자 조한규씨	
이석제	5.16혁명과 법치국가재건	법사위원장
오치성	지방자치제도의 개혁을 논함	내무위원장
유양수	외교신장의 구체적 방안	외무국방위원장
이주일	당면한 경제정책	재경위원장
김윤근	공정기업회계제도로써 운영의 합리화	교통위원장
손창규	국가재건을 위한 전제와 사회문화 정책의 방향	문사위원장
한태연	국가재건비상조치법	
박일경	국가재건최고회의법	
최호진	농어촌고리채정리법의 의의와 내용	
함석헌	민족개조론	
김기석	국가재건과 인간혁명	
	고급정치 평전-왕안석, 막사이사이	

4) 『국가재건최고회의보』, 창간호, 1961. 8. 이하 인용은 호수와 쪽수만 명기한다.

창간호 목차에서 볼 수 있듯이 『최고회의보』를 단순히 쿠데타 집권세력의 이데올로기의 일방적 전파장이었다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창간호에 필자를 보더라도 단순히 쿠데타 세력 뿐만 아니라 유진오를 비롯한 김광섭, 홍이섭, 유현목, 이관구 등 당시 지식인 엘리트들도 필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특히 창간호에서 주목할 부분은 함석헌의 글이다. ‘민족개조론’이라는 제목도 의미심장하거나와 1950년대 반이승만 진영의 대표적 인물이자, 3공화국 출범 이후 반 박정희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함석헌의 이력을 본다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조합이다. 당시 사상계를 중심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함석헌은 1961년 7월 사상계에 ‘5.16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게재한다. 함석헌의 이 글은 5.16 쿠데타에 대한 함석헌의 입장을 보여준다고 평가받는다.⁵⁾ 당시 사상계에 게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혁명은 민중의 것이다. 민중만이 혁명을 할 수 있다. 군인은 혁명 못한다. 아무 혁명도 민중의 전적(全的) 찬성, 전적(全的)지지, 전적(全的)참가를 받지 않고는 혁명이 아니다. 그러므로 독재가 있을 수 없다. 민중의 의사를 듣지 않고 꾸미는 혁명은 아무리 성의로 했다 하여도 참이 아니다. 또 민중의 의사를 모르고 하는 것이 자기네로서는 아무리 선(善)이라 하더라도, 또 사실 민중에게 물질적인 행복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의(誠意)는 아니다. 강아지를 아무리 잘 길러도 그것이 참 사랑은 아니다. 참 사랑은 내가 저를 좋아할 뿐 아니라 제가 또 나를 좋아하도록 되어야 하는 것이다. 민중을 동물로 사랑하고 기르고 불쌍히 여겨서도 성의(誠意)는 아니다. 그는 때리면서라도 사람으로 대접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민중 내놓고 꾸미는 혁명은 참 혁명이 아니다. 반드시 어느 때 가서는 민중과 버그러지는 날이 오고야 만다. 즉 다시 말하면 지배자로서의 본색을 나타내고야 만다. 그리고 오래 속였으면 속였을수록 그 죄는 크고 그 해는 깊다.

인간 개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번 혁명으로 새로 나온 말은 “인간을 개조해야 한다.” 하는 말이다. 4·19 때만 해도 “정신적인 운동으로까지 들어가야 한다.” 하는 정도였으나 이번은 좀 더 분명해졌다 이것은 나와야 할 것이 나온 것이다. 옳은 말이다. 인간이 달라져야 한다. 제도만 고쳐서 되는 것이 아니요, 사람, 바로 그것이 달라져야 할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분명히 알 것은 인간 개조는 강제로는 아니 된다. 사람이 다 성인이 아닌 이상, 민중이란 더구나 무지하고 타락된 것인 이상 어느 정도의 강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정치는 결국 강제 없이는 아니 될 것이다. (중략) 5·16이 뭐냐? 이것은 달라지려는 인간의 꿈틀거림의 조그마한 한 마디에 지나지 않는다. 이 세계역사의 흐름의 향하는 바를 아는가? 모르는가? 모르는 것은 모처럼의 성의와 힘씀도 소용이 없다. 이 혼란이 왜 오냐? 첫째는 민족주의의 무너짐으로 인해 오는 것이다. 민족은 이날껏 인간의 길러주는 어머니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인제는 아기는 어머니 품에만 있기에는 너무도 지나쳐 자랐다. 이 앞으로는 집에서 살지 않는다는 것 아니다. 그러나 집이 그 전부가 아니다. 인제는 사회의 아이이다. 이제 인간은 세계의 인간이란 말이다. 민족은 운명을 같이 하는 단체이니 아직 이 앞으로도 상당한 동안 계속할 것이지만, 그러므로 제 민족 잊고 나라할 수 없지만, 인제는 도덕을

5) 이와 관련해 2011년 중앙일보에서 진행한 조갑제 기자와 연세대 김호기 교수의 대담은 함석헌 재단 측과 마찰을 빚었다. 당시 사회를 맡은 김종혁 중앙선데이 국장은 5.16직후 사상계에 장준하, 함석헌 등이 지지하는 글을 쓴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냐며 대담자에게 질문한다. “박정희는 자기 성공의 희생자였다”, 중앙선데이, 2011.05.15. 이 기사가 나가자 함석헌 기념사업위원회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이를 반박하는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함석헌 선생이 5.16 군사쿠데타를 지지했다고?’ <중앙일보> 보도 유감... 몇 차례 요구해 결국 정정보도, 오마이뉴스 2011. 5.31.

규정하는 마지막 표준이 민족에 있지 않고 세계에 있다. 민족에 권위가 있을 때에는 국민정신 통일하기가 참 쉬웠다. 그 때 나라의 걱정은 주로 기술적인 문명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상이 문제다. 이상, 이념이 문제다. 그것은 민족사상이 “전체(全體)”를 대표해 주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물론 새 표준이 제시(提示)되지 않은 것 아니다. 민주주의가 그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 지나간 시대에 민족 감정같이 자연적인 감정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 혼란이다. 인간 개조를 하려 하는데 민족주의만 고취하면 되는 줄 아는 것은 사상의 간난을 표시하는 말이다.⁶⁾

그런데 이런 글을 발표했던 즈음에 발표한 ‘민족개조론’이라는 글은 재건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한 당시 지식인 엘리트들의 논리와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재건 이데올로기’가 ‘인간성 개조’라는 정신적, 신체적 변용을 통한 새로운 국민 창출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재건 이데올로기’가 단순히 위로부터의, 강압에 의한 국가적 구호가 아니었음을 의미하며 그것의 자기 내면화와 적극적인 훈육과 계몽의 수단으로서 작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추후 보완>

6) 사상계, 1961년 7월호.

일본을 통해 본 지역재생의 성공조건

— ABS모델의 제안 —

전 영 수 (한양대)

1. 지역재생의 취지와 한계

지역재생의 필요와 취지가 갈수록 공감·확대되는 상황. 열키고섬현 사회문제를 풀어내는 사실상의 원점이슈가 소멸위험에 직면한 지역한계이기 때문. 즉 ‘지역소멸→인구유출→경제파탄→지속불능→도농격차’의 악순환 반복. 이로써 비정상·불균형이 점철된 지역과소·도시집중의 이중적인 사회문제 한층 가속화. 도농간의 질서회복을 위한 균형발전은 불가피. 반복적인 시행착오와 함께 실효적인 대안모색도 본격화. 그럼에도 지역재생을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제한적인 상황. 따라서 즉전(卽戰)적인 지역재생을 위한 실효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 무엇보다 과거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접근방식이 절실. 본고는 일본의 호평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조사 결과 추출된 성공조건을 밸류체인으로 구조화한 ABS모델을 지역재생을 위한 준거논지·표준조건으로 제안하고자 함.

2. 지역재생의 이론과 방향

2.1. ABCD방식

자산기반지역공동체발전(ABCD=Asset Based Community Development)은 1990년대 초반 미국에서 시작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인적·물적자산의 발굴·활용형 지역역량 발전방식(Kretzmann & McKnight, 1993)¹⁾.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자산활용 관련연구로는 가장 폭넓게 거론되는 개념. 지역자산의 활용정도에 따라 창출가치가 비례한다는 주장. 정부·기업 등 외부지원보다 내부적 역량개발에 초점. 외부환경의 의존성에서 벗어나 지역자산을 스스로 개발해 공동체의 역량을 키우는 전략. 즉 지역발전은 외부지원보다 내재·자생·연대적인 잠재능력, 자산발굴, 역량강화가 중요하며, 그 출발로 지역사회의 보유자산을 활용하자는 의미의 접근방식.²⁾ 특히 ABCD접근은 자산지도화(Asset Mapping)로 ‘개인→조직→기관→공간→연결’의 지역자산 활용단계별 보물을 찾고(자산발굴), 어디에 어떻게 쓸지 궁리해(자산검사), 지역활력을 향상하도록 구조화(구슬 꿰기)하는 구체적인 실행체계를 제안³⁾

1) Kretzmann, J. P. & McKnight, J. L. (1993). *Building Communities from the Inside Out: A Path toward Finding and Mobilizing a Community's Assets*, Skokie: ACTA Publications. p.25

2) 김재현·장주연, ‘커뮤니티 발전을 기반으로 한 지역순환경제 형성’, 한국지역개발학회 2014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2014, pp.5-7

2.2. CDD(Community-Driven Development)

CDD(지역주도개발)는 개발협력의 새로운 방식을 제안·흡수한 일종의 패러다임. 세계은행만의 고유한 사업수행방식이 아닌 공여국·국제NGO 등에서도 적용사례가 증가하는 실험적인 아이디어로 해석. 2000년대 이후 세계은행(WB) 등 국제개발협력의 공론장에서 ODA(공적원조)의 투입대비창출효과와의 한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제안된 개념. ODA의 패러다임 전환차원에서 원조의 방향성을 재구축하는 취지로 효과성을 높이려면 지역·주민중심의 발전방식이 대안이 될 것이란 접근방식. 실제 ODA 등 개발협력은 공여국 중심의 주입식 개발로 이뤄지며 공여국의 정치·사회·경제적 목표달성을 위한 투자로 진행. 수여국의 빈곤감소·경제성장을 위해 공여국의 선진기술·자본투자 등을 그대로 전달·이식하는 근대화론에 근거를 둬. 따라서 ODA의 실패란 지적과 함께 수원국의 자원과외·분쟁초래 등을 막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그들의 자발·자생적인 의지·능력을 사업에 투입하는 참여적 개발방식이 제안. 취약 지역의 개발과정에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권한을 강화해 설계·집행·평가 등 제반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방식.

2.3.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s)

PPP는 민관합작투자사업으로 공적자금과 민간재원이 함께 투입되는 프로젝트. 정부예산만으로 충분한 성과가 힘들 때 민간재원·민간주체가 결합해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경감·분담하는 방식. 정책목적(공공성)을 갖는 사업시 정부·민간이 사업설계·의사결정·사업운영·지분소유·자금조달 등의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 위험(Risk)과 수익(Retern)의 분담설계가 핵심으로 계약을 통해 거버넌스를 규정하는 게 기본원칙. 즉 분절적인 기존방식과 달리 밸류체인을 하나의 연장적인 일관체계로 구성하며 민간사업자가 종합·주도하는 방식. 사업위험을 민관이 분담·제한해 지속가능성 창출. 관건은 행정과 대등한 연대파트너로서 민간위치. 최소한 초기단계는 행정주도가 불가피해도 추진이후 사업주도는 민간주체로 이양. 민간의 가성비적인 영리경험이 기획단계부터 결합하면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영리성의 확보가능. 추가적인 소프트웨어의 사업단계에서도 기업가정신의 발휘기대. 행정은 과잉투자·재정부담을 덜고 민간은 행정지원·사업수익을 확보. 영리창출을 담보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절묘한 결합형태로 해석.⁴⁾

3. 10대 일본사례와 공통분모로서 ABS모델

현장조사를 통해 압축된 10곳의 사업현장이 지닌 성공조건·투입자산을 분석한 결과 뚜렷한 공통지점과 이를 통한 가치창출의 확인. 즉 문헌조사·외부평가·현장확인 등으로 일정부진 지역재생의 성과창출이 발현된 지역사례일수록 누가(Who), 무엇을(What), 어떻게(How)의 달라진 추진주체·사업내용·지원체계의 차별화와 함께 지속가능성의 평가가능. 후술할 ABS모델의 항목범주인 Actor·Business·Support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인적·관계자산, 지역·사업자산, 행정·금융자산의 6대 개별지

3) 유병선(2016), 『고장 난 자본주의에서 행복을 작당하는 법』, 위즈덤하우스

4) 전영수(2019), '지속가능한 지역활성화는 실현되는가', 일본학보 제121권, pp.278-281

표로 세분화할 수 있음. 사업공정의 밸류체인이 실효성을 갖고 전후방의 연관·승수효과를 내는 과정에서 활용된 유무형의 투입자산을 단계별로 범주화한 분석결과를 ABS모델로 제안함. 즉 ABS모델은 3대 항목(추진주체·사업내용·지원체계)별 6대 자산(인적·관계·지역·사업·행정·금융자산)으로 구분. 이때 각각의 영문 머릿글자를 따 추진주체(Actor), 사업내용(Business), 지원체계(Support)를 본고는 ABS 모델이라 칭함.

실제 현장확인 결과 10대 일본사례에는 ABS의 항목별 투입자산이 다양한 형태·조합으로 재생사업에 활용되고 있음. 지역특화형 개별사업단계 투입자산의 성격·역할·순위·연결 등은 각양각색임. 따라서 개별사례를 일반화해 일관·단일화된 공정체계와 투입자산별로 범주화하는 시도는, 비록 작위·임의적이라 일반화의 오류가 염려되지만, 벤치마킹을 위한 후발주자의 가이드라인 혹은 표준설계도의 제 공차원에서 의미를 가짐. 무엇보다 달라진 지역재생이 필요하다는 공감 속에 새로운 대안논지로서 향후 진행될 고민·논의의 기초자료가 됨. 특히 투입자산을 한정해왔던 기존방식이 아닌 사실상 지역전체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가 모두 재생자원으로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10대 일본사례는 유의미함. 실제 지역재생에 투입될 자산은 셀 수 없이 다종다양. 선행경험·기반환경·직주양태·공유문화 등 지역공간 및 생활주체 전반의 유기·반복적인 지역재생의 추진가치를 감안할 때 유무형의 투입재료 모두가 대상. 주민역량의 조직화를 위한 민주·자치적인 의사결정도 포함. 주민관계망과 지역공간에서의 규범·신뢰기반 등은 불가분의 관계. 창출된 재생편익의 환류적인 순환체계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투입자산을 지칭.

본고는 지역재생에 활용될 다양한 인적·물적·구조적 투입자원을 자산(Asset)이란 단어로 규정. ‘자산=부채+자본’이란 재무회계적 접근방식을 토대로 부정적인 한계조건(부채)조차 발굴해 재구성하면 훌륭한 지역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 한계조차 강점으로 전환하는 지역재생이 절실하고 선행성과도 확인했다는 점에서 양적자본의 플러스(+) 투입측면뿐 아니라 지역약점의 마이너스(-) 부채측면까지 반영하는 자산개념이 더 고무·혁신적. 동시에 ABS모델의 6대 자산은 지역별 존재여부와 활용경험은 편차 속에 제각각의 상황·경로에 위치. 실제 자산관련 선행이론도 포괄성이 확대되는 경향. 가령 인적, 사회적, 문화적, 자연적, 물리적, 경제적, 정책적 자산 등 7대 자산으로 명명한 선행연구 존재(임순정 외, 2016). 지역성·계절성·문화성을 활용한 음식·주거·에너지·복지의 4대 영역을 개성적인 산업구조로 형성해 역내잔류형 순환경제의 자산으로 쓰자는 논지(吉田敬一·2018)도 있음⁵⁾. 자연자산, 구조자산, 문화자산, 사회자산, 경제자산 등 5개 분류를 토대로 모두 10가지의 지역특화적인 잠재자산을 분류한 연구도 주목(이왕건, 2012).⁶⁾

5) 吉田敬一(2018), ‘地域資源を活かした循環型産業振興政策による地域活性化’, 月刊全労連 2018.8, pp.16-18

6) 이왕건 외, ‘지역자산을 연계·활용하는 도시재생의 개념과 전략’, 『도시정보』 2012년 6월호(No. 363), 대한민국토·도시계획학회, 2012, p.4. 자연자산(장소, 환경), 구조자산(공간, 시설), 문화자산(역사, 관광), 사회자산(인적, 이미지), 경제자산(기업체, 노동력) 등으로 구분된다.

<표> 일본사례에서 추출한 ABS모델의 자산별 요약정리

	Actor		Business		Support	
	인적자산	관계자산	지역자산	사업자산	행정자산	금융자산
단바사야아마시 (丹波篠山市)	이마무라 도시아키 (今村俊明·NPO대표)/긴노 유키오(金野幸雄·NOTE 대표) 등	NPO마치나미야나 미연구소/NPO단 바구미/주민학습회 /자원봉사그룹 등	마루야마 지구(丸山地区) 고민가/구 도심 빈 점포·주택 (약 50여채) 등	고민가 숙박시설/ 구도심 거리호텔니 포니아/Sub-Lease 방식/유한책임사업 조합(LLP) 등	지자체 창조도시과 /빈집뱅크/고정자 산세 면제/청년 UI 턴 촉진운동 등	행정지원금/상공 회 투자관광활성 화마터펀드/시민펀 드 기금창설/민간 은행 조달 등
도야마시 (富山市)	모리 마사시(森雅志·시장)/마츠다 류이치로(槇田隆一 郎·주조사대표) 등	민관출자 SPC(㈱) 마치즈쿠리도야 마)/이와세마을만 들기(㈱)/상점가조 합 등	구도심 유휴시설 (스프롤현상)/그랜 드플라자 정비사업 /차량대체 트렐할 용/이와세전통마을 등	컴팩트시티(경단· 코쟁이모텔)/전통 가옥 리모델링(50 여채)/농수산물슈 퍼마켓/다목적광장 소프트웨어 사업 등	경단지구 주택보조 금/차등적 행정지 원(이와세 리모델 링비)/외출정기권/ 초등학교 간병시설 화 등	민간기부·시민출 자(상점가조합·중 소기업 출자) 등
마니와시 (真庭市)	나카시마 코이치로 (中島浩一郎·메이 켄공업 사장)/오타 노보루(太田昇·시 장)/니에다 쇼(仁枝 彰·공무원) 등	21세기마니와주쿠 (민간기업연구조 직)/SDGs미래도시 마니와포럼/16개 NPO조직 등	목재부자재 펠릿활 용(나무쓰레기)/전 기대체 독자발전소 /ALL마니와방식/ 자연관광+산업시 찰 등	바이오매스(Bio- mass)의 산촌자본 주의/바이오매스발 전소(9개 단체출 자)/지역관광 산업 화 등	후행적 결합지원/ 정부인증 등 외곽 지원/바이오매스산 업도시 지향/지역 홍보 등	행정지원금/지역 은행 융자/민간기 업 출자 등
마루가메쵸 (高松市 丸亀町)	후루카와 야스히로 (古川康宏·조합 장)/아키시 데루오 (明石光生·조합상 무)/사이고 마리코 (西郷万里子·외부 전문가) 등	마루가메상점가진 홍조합(157개점)/ 청년회의소/도쿄위 원회/마루가메마치 1번가(주)/제3섹터 (마을만들기회사)/ 쇼나이카이 등	구도심 7개 구역 재 개발(인구유출·산 업폐쇄/중심지가 활성화/지역특화 점포배치 등	소유·활용 분리의 정기차지권(定期 借地権) 활용/차별 적 점포배치/복합 공간 유효활용/재 택의료형 주상복합 등	행정은 침관역할 (장기간 규제대치)/ 성과확인 후 측면 지원 등	행정지원금/정기 차지권 비용절감/ 상점가 공동출자 (마을만들기회사 95% 민간출자) 등
사바에시 (鯖江市)	마키노 하루오(牧 野百男·시장)/다케 베 미키(竹部美樹· NPO대표) 등	지역만들기 NPO 단체(10여개)/민관 실행위/관민파트너 십(4개 협회)/시 민주중총회(사바 누시총회) 등	전통산업(안경·철 기 등) 혁신화/지역 청년 참가(지역활 성화 플랜콘테스 트)/시민주역 지역 활성화 등	청년창업 관민지원 /산업육성·고용확 보/전통사업 혁신 고도화/제안형시민 주역사업 등	민관협력 기회확대 /주력산업 판로개 척/행정정보 오픈 데이터/시민주역조 례/사바에시JK과 등	행정지원금/SAP 등 외부기업 자금 지원/행정주도 크 라우드펀딩/시민공 모채 등
시와쵸 (紫波郡 紫波町)	후지와라 타카시 (藤原孝·지자체 장)/오카자키 마사 노부(岡崎正信·개 념제안) 등	지역창조회의/도요 대(東洋大) PPP연 구진/오갈프로젝트 추진위/지역기업연 구회 등	시와쵸 소유공유지 /복합시설(공공·민 간임대)/농민직관 시설/지역건설사 등	오갈프로젝트(주 오갈시와/주오갈플 라자)/구분소유·민 간운영/돈버는 인 프라 등	시와쵸 100% 출자 법인(이후 민영화)/ 공민연대실 설치/ 공공시설 운영 등	시와쵸 출자분/도 호쿠(東北)은행/민 간도시개발추진기 구/임대수익/운영 수익 등
우베시 (宇部市)	테즈야 모리모토 (森本 哲也·주니기 와이우베 대표) 등	임의단체 YCCU (민관산학)/어반디 자인센터/미라이카 이/마쯔나카이벤트 실행위 등	쇠퇴한 중심상점가 복원(셔터거리)/빈 점포·주택 유효활 용/지역대학(야마 구지대) 산학협력 등	잔디광장·컨테이 너(우베항) 등 신규 활용/민간주도 다 세대 교류공간/이 벤트로 사업지속 등	행정주도 후 민간 확대/도시계획 위 주지원 등	관민공동 출자 SPC(시·상공회의 소)/클라우드펀딩/ 중앙정부 보조금 등
유바리시 (夕張市)	스즈키 나옴치 (鈴木直道·시장) 등	NPO유바리판타/ 유바리농가조합 (190가구)/서로돌 봄의로복지 등	관광입지·목재자 원/파산경험 사업 화/키네마거리 재 구성/유휴공간 컴 팩트시티 등	유바리국제영화제/ 유바리멜론팝콘 등 신상품화/행정소유 시설매각 등	파격적인 행정수장 리더십/마을만들기 기획실/권한제한 속 행정주도 구조 개혁 등	중앙지원금/고령남 세제도/클라우드펀 딩 등

하치노헤시 (八戸市)	야마모토 고이치로 (山本耕一朗·외부 전문가)/고바야시 마코토(小林眞·시 장) 등	다문화도시하치노 헤추진회의/NPO 마치구미/중심상점 가협의회/시민협동 그룹 등	8대 재생거리별 차 별키워드(필드뮤 지엄)/투어리즘 프 로젝트/전통문화 (음악·음식 등)/유 휴시설(폐교·빈집) 등	지역시설 활용 통 한 관광매력(하치 노헤복센터 등)/난 고(南郷)프로젝트/ 하치노헤포털뮤지 엄(하치·다목적공 공시설) 등	창조도시정책 비전 채택(예술마을만 들기)/유휴시설 보 수지원/마을만들기 관광스포츠투부 등	행재정지원금/복센 터(일반회계전역 충당)/민간기부 매 칭기금(협동마을 만들기추진기금) 등
히가시가와시 (東川市)	마츠오카 이치로 (松岡市郎·초장)/ 오다 노리츠구(織 田憲嗣·교수) 등	농협·상공회의소/ 외부전문가 그룹 등	산간벽지 공간활용 /힐링마을/사진문 화수도(자연+문화 =사진)/나무목공 활용 등	문화관련 기반도시 /지역특색 반영주 택 의무화(히가시 가와풍)/육아환경 대폭개선/3차 산업 화/국제교류(유학) 등	정주지원/택지분양 /관계인구 적극확 대/주주우대 사업 확대 등	주주제도(고향납 세)/중앙정부 특별 교부금/민간기업 기부 등

- 주: 필자의 현장조사 후 개별자원 특징정리(가나다순).

4. ABS모델의 제안과 일반화

4.1. ABS모델의 제안

지역재생의 성공조건은 기존이론을 포함해 연구자의 시선·선호는 물론 가치평가별 우선순위·무게 중심에 따라 달라짐. 특정사례의 분석결과를 일반화하는 작업은 적잖은 한계. 지속가능한 지역재생의 목표창출에 닿는 수많은 가치철학과 세부방법이 인과·상관성을 갖고 지역착근적인 상황논리와 결합해 움직이기 때문. 특히 투입될 가용가능의 재생자산만 해도 수많음. 당연히 비용편익을 통한 가치평가에 도 어떤 자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밀한 판단도 불가능. 때문에 최대한 가치중립을 전제로 사중·대 체·귀인효과를 반영해 필요이상 과장될 여지를 줄여주는 장치가 필요. 따라서 ABS모델의 6대 재생자 산은 사업현장별로 우선순위와 정합성·영향력 등이 유연하게 재구축·재배치. 단 분석틀·방법론을 반 복하는 과정에서 지역특화적인 자산구성 기대. 지역재생은 장기시선이 전제된 개별·연결현장의 반복 사업·순환가치가 전제되기에 6대 재생자산의 시기·공간·사업별 탄력적인 운영필요. 4대 필수자산과 2 대 선택자산으로 나뉘었지만, 전부투입과 부분적용의 여지공개.

4.2. 추진주체(Actor·필수자산): 인적자산과 관계자산

지역재생의 성공변수 중 추진주체(Actor)의 의지·능력을 포함한 역할발휘는 대단히 중요. 특히 리더 십·에너지를 지닌 단수 혹은 극소수의 존재여부가 관건. 그간의 주류방식은 중앙정부의 관제식 시혜 정책이 전달체계를 통해 지역공간에 뿌려지는 구조가 일반적. 이 결과 행정주도의 하향식 지역재생이 갖는 다양한 한계가 확인된 상태. 지역중심의 착근·내재적인 자생·자발형 발전방식으로 무게중심을 전환하자는 흐름 본격화. 애정·이해를 지닌 당사자성의 선도인재가 지역재생의 첫발을 (사회적)기업가 정신으로 발휘해 달라진 추진주체의 의의·취지를 공유·확산할 필요. 일본사례에서 예외 없이 확인된 투입변수로 공공·영리성의 양수경장을 통해 관계자산이 될 협업·협치의 파트너·지지자를 획득하는 발 전경로를 보임. 소수의 인적자산이 협업적 파트너십을 구현할 규모·범위의 경계를 달성할 때 이해관 계자는 모두 관계자산으로 취합할 수 있음. 지역의 다중이해관계자가 네트워크를 이뤄 집합적 성과창

출이 가능한 구조. 관민산학금연노 등이 재생사업을 계기로 클러스트화되는 리빙랩·플랫폼이 구축되면 관계자산은 한층 구조화됨. 일본사례도 단일의 인적자산 출현·역할 후 비영리법인(NPO)·협동조합·영리기업·행정기관 등이 공동조직한 관계자산으로 확대·연결되며 지역전체의 다중이해관계자가 편입되는 경로를 지향. 따라서 추진주체로서 시간경과에 맞춰 고도화되는 인적자산과 관계자산은 지역재생의 필수자산으로 규정할 수 있음.

4.3. 사업내용(Business·필수자산): 지역자산과 사업자산

지역재생의 사업내용을 규정할 지역자산과 사업자산은 무엇(What) 어떻게(How) 할 것인지를 결정할 실제적인 방법론의 중대변수임. 과거관성과 행정편의로 점철된 천편일률적인 기존방식에 맞서 가성비적인 실효성은 물론 지원종료 후에도 지속가능한 재생성과를 담보해낼 유력한 가치체계로 평가. 따라서 ‘지역자산→사업자산’의 개별·연결적인 사업추진은 지역재생의 필수자산일 수밖에 없음. 지역자산은 지역재생에 투입될 원자재로 풍경·입지·역사·문화·경제·시설 등 지역정체성과 직결되는 차별적인 가용자산을 의미함. 가시적인 양적자본뿐 아니라 부채화된 한계재료까지 포함하는 확장적인 인식전환 필요. 해당공간만의 비교되는 차별적 지역자산을 발굴·규정해 이를 지역재생에 투입할 때 독창적이고 정합적인 성과창출 기대. 지역사정에 밝고 지역전문가일 수밖에 없는 인적·관계자산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지역자산을 스스로 찾아내 활용하는 접근방식이 권고. 중앙정부·외지시선으로는 범접하기 힘든 숨겨지고 방치된 지역자산까지 투입가능. 발굴된 다양한 잠재적인 지역자산은 자주·민주적인 관계자산간 의사결정으로 목표설정·투입순위 등을 공론화해 결정. 단 차별적인 지역자산을 투입해도 지속가능한 자생적인 사업화에 닿지 못하면 의미훼손. 이때 필요한 것이 사업자산. 공공적인 시혜사업에서 벗어나 영리적인 순환성과를 통한 돈 버는 지역재생이 관건. 사회성과(공공성)와 경제성과(영리성)의 동시추구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선행과제가 외부지원 없는 자립·자생적인 수익구조를 갖추는 것임.

4.4. 지원체계(Support·선택자산): 행정자산과 금융자산

4대 필수자산은 일본사례뿐 아니라 선행이론에서도 확인되는 공통의 투입재료이자 가치공급망의 연결루트로 설명. 즉 ‘인적자산→관계자산→지역자산→사업자산’의 순서로 재생사업의 밸류체인 구성하는 게 일반적. 다만 행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부가조건이 추가되면 성과창출은 한층 손쉽게 업그레이드됨. 누락되거나 제한된 역할에 머문다고 지역재생의 기대효과가 사라지는 건 아니나 존재·기능하면 확실한 승수효과는 기대. 행정자산은 지역재생의 과거관성과 잠재역할을 볼 때 충분한 우군기반으로 평가됨. 특히 사업초기 4대 필수자산이 구체적이지 않을 때 행정자본의 선도적 리더십과 지원체계는 굉장히 중요함. 달라진 일본사례도 대개 ‘행정주도→반관반민→주민주도’의 인적·관계자산의 전환경로를 통해 달라진 사업주체로 탄생. 이때 사업규정·예산투입·행정지원 등 목표달성을 위한 행정자산의 역할·발휘가 일종의 운할유이자 착화제로 기능함. 금융자산도 지역재생의 지원체계로 배제할 수 없음. 지역재생은 결국 활성화의 마중물로서 다양한 자본투입이 전제될 수밖에 없음. 한계가 따르는 예산(세금)중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금융자산이 지역재생에 투입될수록 그 역할과 성과는 커질

것으로 판단. 지역금융·주민주주제·클라우드펀딩 등 다양한 조달채널을 통해 사업실물을 뒷받침하는 금융기능이 강화될수록 기대효과는 증진.

<표> ABS모델의 일반화(특징 및 키워드)

구분	조건	내용	특징 및 키워드
추진주체	필수 자산 (4필)	인적자산 (Human Asset)	단일+소수주제. 지역애정. 지역전문가. 당사자성(지역무관). 선도인재. 경험·열정보유. 우호·신뢰관계. (사회적)기업가정신. 사업마인드. 협업선호. 연쇄창업가. 연령무관. UI인 인재.
		관계자산 (Relational Asset)	복수+다수주제. 인적연결. 전달체계. 다중이해. 네트워크. 공동체의식. 선도그룹. 토착조직. 영리기업. 사회적경제조직. 반관반민. 파트너십. 관민산 학금연노. 리빙랩(플랫폼). 지역클러스트. 집합성과
지역자산 (Regional Asset)		지역풍경. 특이입지. 자연환경. 기반역사. 지역문화. 특화경제. 산업시설. 시장상권. 주거여건. 관광명소. 유희시설. 축제경험. 지역정체성(상징성). 집단경험. 지역특화. 순위함의. 주민참가. 내부발굴.	
사업자산 (Contents Asset)		영리구조. 공공성+사업성. 사업모델. 초기예산. 민간자본. 반관반민 후 민간주도. 주민참여+영리기법. 혁신사업. 연계가치. 아이디어. 재무성과. 가치평가. 다중참여. 이해조정. 지속사업. 순환경제(역내승수)	
지원체계	선택 자산 (2선)	행정자산 (Administrational Asset)	중앙정책+지방행정. 예산투입. 사업규정. 주체연결. 목표제안. 제도지원. 민간위탁. 민관협치. 전달체계. 당사자성(지방선거). 행정경험. 관료수준. 지역정치. 지자체리더십(의사결정). 주민공론. 행정소비. 판로·홍보지원
		금융자산 (Financing Asset)	예산사업+세금탈피(예산독립). 다양자금(펀딩채널). 지역금융. 실물·사업 지원. 사회가치. 고향사랑기부금. 클라우드펀딩. 주민주주제. 기업 ESG연계. CDFI(BSC). 다중환수(탈이자방식).

5. 지역재생의 미래

ABS모델은 다양한 한계를 지님. 즉 일본의 지역재생 현장에서 확인한 제한적인 보고서·인터뷰를 토대로 필수·선택자본을 취합했다는 점에서 한국과의 경로의존성·비교제도에론 부합되지 않을 가능성 존재. 기반조건·가용자원·축적경험 등에서 차별적인 한국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음. 그럼에도 지역재생의 표준방식으로서 ABS모델의 제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의미·가치는 충분함. 지역재생이 완결적이지 않듯 재수정·재구축의 반복을 통해 모델의 설명력과 효과성도 보완하는 건 당연.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취지와 지향을 통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고 지속가능한 지역재생의 구체적인 공정제안 기대.

人口減少地域の地方創生

— 東日本大震災被災地の教訓 —

河村和徳 (東北大)

1. はじめに一終わる復興・創生期間

原子力災害下にある福島再生の道のりは先が見通せない。2021年3月をもって「復興・創生期間が終了した」と言っても、それは復興政策が重点的に行われる期間の終了を意味するだけであって、復興に関わる施策が完全に終了するというわけではない。福島を中心に東日本大震災からの復興関連事業は規模を縮小しつつも継続されている。ただ福島復興がいつ一区切りとなるか、福島県民¹⁾の思いもさまざまである(図1)。約4割が福島第一・第二両原発の廃炉の目処がついたときに福島復興の一区切りと考えているが、発災から半世紀経過しても一区切りは来ないと考える悲観的な層も16.4%いるのが実情と言える。

しかしながら、2021年3月をもって東日本大震災の復興・創生期間が終わり²⁾、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拡大によって延期された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東京2020大会(以下、東京2020大会)が終了したことで、東日本大震災からの復興は終わりを迎えつつあることは事実である。復興庁岩手復興局並びに宮城復興局は、県庁所在地から津波被災の影響を受けた沿岸部に移転し、「被災者の心のケア」や「コミュニティの形成」などの支援体制がシフトしつつある³⁾。これまでの復興政策を振り返り、その検証を始める時期に来ていることは間違いない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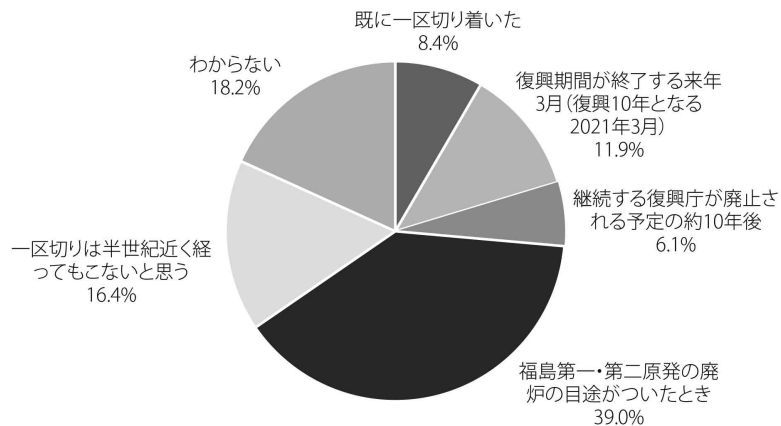
本報告では、東日本大震災から得られた政治学的な教訓の幾つかを採りあげた後、過疎化が急激に進む東日本大震災の被災地における創造的復興・地方創生について考えることにしたい。

1) データの出所は、筆者が代表を務めた科学研究費補助金 基盤研究B「民主制下における復旧・復興—そこで生じる政治的課題の整理・検討(18H00812)」の一環で実施した福島県民意識調査2020である。福島県民意識調査は福島県民1000人を対象に2020年2月から3月にかけて実施した郵送調査であり、回収率は43.7%である。福島県民意識調査2020の詳細な分析結果については、河村・岡田・横山(2021)を参照。

2) 日本国政府は、2021年4月以降を第2期復興・創生期間と位置付け、「被災者支援(心のケア、コミュニティ形成、子どもへの支援等)」「住まいとまちの復興」「産業・生業の再生」「地方創生との連携強化」に改めて尽力する方針を決めている。「復興・創生期間」後における東日本大震災からの復興の基本方針の変更について[令和3年3月9日閣議決定]<https://www.reconstruction.go.jp/topics/main-cat12/sub-cat12-1/20210311135501.html>(2022年7月27日訪問)

3) 復興庁「復興・創生期間後も対応が必要な課題の整理(概要)」https://www.reconstruction.go.jp/topics/main-cat1/sub-cat1-1/successor-org/material/20181218_kadainoseirigaiyou.pdf(2022年7月27日訪問)

4) マスメディアでは発災10年を契機に検証記事が始まり、読売新聞



出典:筆者作成

<図1> 福島県民意識調査2020にみる福島県民が認識する復興が一区切りする時期

2. 政治学の側面からみた東日本大震災の教訓

2.1. 初動の可視化

COVID-19による世界的パンデミックで明らかになったように、権威主義国と民主主義国との間の危機管理は決定的に異なる。基本的人権を軽視する権威主義国では、国民の意向に逆らう危機対応を採ることが容易であるが、民主主義国では国民の意向に配慮した対応が求められる。選挙民主主義国では、国民は危機対応が不適切と判断すれば「選挙」という過程を通じて、与党に対する罰として野党への投票を選択する⁵⁾。そのため、民主主義国のリーダーは国民の審判を意識しながら危機対応するのが一般的である。

現職が国民からの懲罰を受けたことがわかる象徴的な選挙がある。2013年、福島県で現職首長が次々と落選した「現職落選ドミノ現象」である(河村・伊藤 2016, 2017)。この現職落選ドミノ現象は、一般的に圧倒的に優位とされる現職首長候補が次々と落選した現象であり、相馬市長選挙で立谷秀清が再選を果たすまで続いたのであった。なぜ、現職が次々と落選したのか。その理由を筆者らは調査し、落選した現職たちは、東日本大震災の発災時、初動を可視化せず、住民の支持を失っていた結果、再選を果たせなかっ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とりわけ、無党派の女性有権者の支持を得られなかったことが大きかった。

危機下での政治的リーダーの対応は難しい。パフォーマンス重視で災害に現場に足を運べば、現地で対応している自治体職員の足を引っばることになり、公務員などから不評の声が上がる。ただ、現場に指示をしている姿を見せなければ、前述のように住民の評価が下がり、再選が覚束なくなる。政治家が再選を目指す存在と位置付けた場合、突発的に発生した自然災害などの危機は自らの評価を高める機会でもあるが、評価を貶める機会にもなりうることを東日本大震災後の被災地選挙は示したのである。

5) 2012年衆議院選挙において自民党が政権に返り咲いた1つの理由として、民主党の震災対応の拙さを国民が嫌ったからという言説がある。安倍元首相が好んだ「悪夢の民主政権」という表現はその代表と言える。ただ、それがデータの支持されない結果を示す調査結果もある(河村 2014=2019)

東日本大震災以降、日本では熊本地震や九州北部豪雨、令和元年台風など大規模な自然災害が発生しており、多くの被災自治体の首長はSNSなどを利用しながら可視化に努める傾向にある。新型コロナ禍においても一部の首長が記者会見を積極的に行っているのは、危機に対応している自身を可視化する必要に迫られているからという側面があることを忘れてはならない。

2.2. 選挙のたびに進む風化

時間が経過すればするほど、被災地であっても震災時の記憶は徐々に風化し、復興政策に対する関心は薄れていく。また、多くの被災者が日常生活を取り戻し、被災地のインフラ復旧が進めば進むほど震災時の風景は消えていき、被災地であってもごく一部を除けば日常の風景の中に震災を見つけ出すことは困難になる。

いまでも「被災者に寄り添う」と選挙で訴える政治家はいる。しかしながら、その多くは集票のための掛け声だけで、実のある被災者対策を訴える者は選挙を追うごとに少なくなっていく。そしてついに2022年7月の参院選岩手選挙区では、立憲民主党現職候補で小沢一郎の秘書出身の木戸口英司を破った自民党新人候補の広瀬めぐみのように、被災地選挙区で復興を語らずに当選する国会議員が誕生するようになっている(河村・伊藤 2022b)。

選挙のたびに復興の風化が進むことも、東日本大震災で得られた教訓である。なぜ、選挙のたびに風化が進むのか。それは、復興が進めば進むほど、復興に期待する有権者が少数になり、「復興を熱く訴えても票にならない」と判断する政治家が増えるからである(河村・岡田・横山 2021)。

図2を見てもらいたい。東日本大震災が発災し復興庁の創設が議論されていた頃、将来が見通せなかった当時の被災自治体の住民は、「自分は被災者だ(主観的被災者、表中のa)」と思っていた者もいれば、「自分は被災者ではない(非被災者、表中のb)」と思っていた者もいた。これはあくまでも主観的な見方であって、家族を失ったり自宅が損壊したりした「直接的な被害を受けた者(a1)」もいれば、職場の同僚等が被害を受けたために仕事が増えたなどといった「間接的に震災の影響を受けた者(a2)」もいた。そして明示的な被害はないのだが、「なんとなく被災者と思っている者(a3)」もいた。

しかしながら、現在、なんとなく被災者と思っているa3の者は多くはないことは確実である。なぜなら、インフラが復旧し復興・創生期間が終了したことによって、彼らの多くは復興に一区切りついたと思っているからである。また東日本大震災の被災者の中から生活再建を果たした者もいる(a')。彼らの中には被災地の復興の次、ポスト復興にこころを移している考えられる。

復興庁創設時

自分は被災者である(a) 主観的被災者			自分は被災者ではない(b)	
直接的な被害を受けた者 (a1)	間接的に震災の影響を受けた者 (a2)	なんとなく被災者と思っている者 (a3)	発災時から住み続けている者 (b1)	発災後に引っ越してきた者 (b2)
客観的被災者				
現在				
自分は被災者である (a) (生活再建・生業再生が済んでいない者)		自分はもう被災者ではない(a') (生活再建・生業再生が済んだ者)	自分は被災者ではない(b)	

出典:河村・岡田・横山(2021)

<図2> 被災自治体の有権者分布

選挙環境的に見れば、発災直後は、自粛せずに「復興」を積極的に訴えなければなかなか当選できない状況であった(河村・湯淺・高 2013)。被災地では自らは被災者と認知する「主観的被災者(河村・岡田・横山 2021)」の数は多かったし、被災地に住む非被災者の中にも復興を早く進めることが地域をよくすることだと思っている者も少なくなかった。また、復興を面と向かって否定することが憚られる雰囲気もあった。しかしながら、復興に期待する有権者が少数化していけば、被災地の選挙に立候補する政治家の中には復興を語らなくなっていく者も現れる(河村・伊藤 2017, 2019)。

ただ難しいのは、被災地で「真の復興」と叫ぶだけでは、bの有権者は振り向かない。事実、2016年参院選福島選挙区で「真の復興」を訴えた現職法務大臣が落選している(河村 2019)。被災地でより多くの支持を得るには、主観的被災者ではない層を意識し、被災者に寄り添うという活動に共感してくれる者を増やしていったり、「被災者とともに復興に向けて歩み続ける」というベクトル合わせを意識した政策を打ち出す必要がある。すなわち、政治的なフレーミングが大事だということである。

阪神・淡路大震災の復興の過程でNPBのオリックス・ブレーブスが掲げた「がんばろうKOBE」といったスローガンや、宮城県知事の村井嘉浩が東日本大震災後に掲げた3つの創造的復興策(医学部の新設、仙台空港の民営化、水産業復興特区)は被災地に住む被災者と非被災者をまとめる上で有効なものと言えるだろう。熊本地震の被災地である熊本県は復興を県外にアピールするためにくまモンを積極的に活用しているが、これもまた被災地に住む被災者と非被災者が同じ方向を進むための政治的フレーミングと解釈が可能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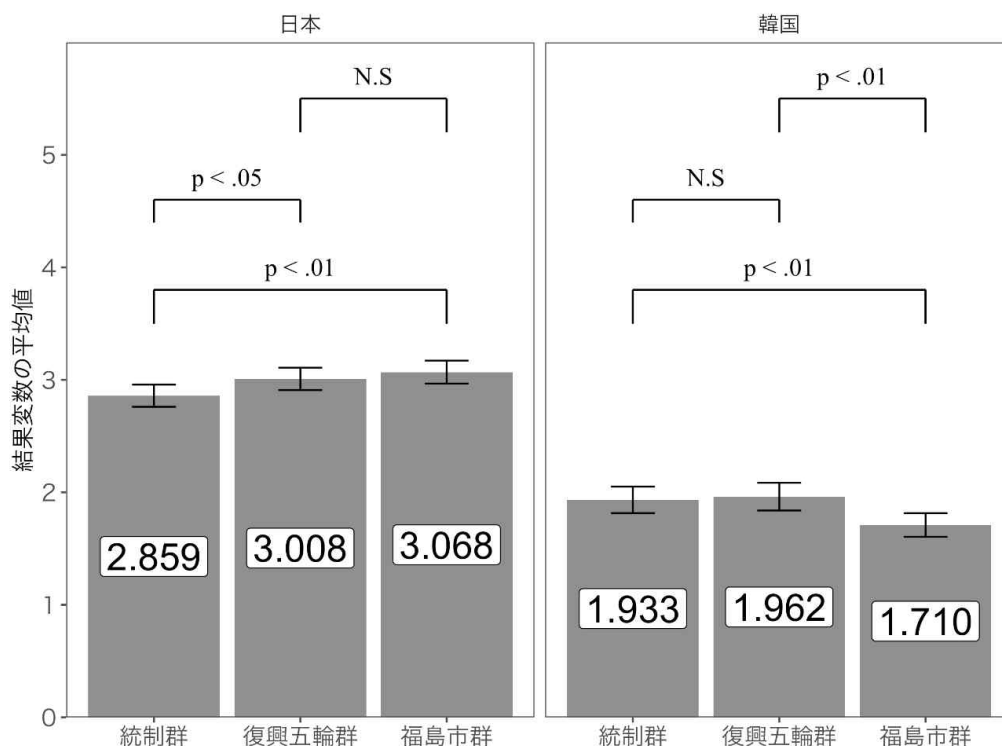
2.3. 政治家やメディアによる政治的フレーミングと日韓関係

政治的フレーミングが日韓関係に大きな影を落とすことがわかったことも、東日本大震災の教訓である。とりわけ、東日本大震災の原発事故をめぐる政治的フレーミングは、日韓関係を翻弄することとなり、東日本大震災からの復興を世界に発信する「復興五輪」を掲げた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東京2020大会(以下、東京2020大会)をめぐる政治的フレーミングが日韓関係を傷つけた。

2013年9月7日のIOC総会で2020年大会のオリンピック東京招致のスピーチを行った安倍晋三首相は、「Some may have concerns about Fukushima. Let me assure you, the situation is under control.⁶⁾」と、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の事故に対する懸念は不要であると聴衆に訴えた。このスピーチは東京承知の決め手になったと言われるが、国内外に東京大会開催に対する不安は根強いものがあり、その不安を煽るような非科学的な発言を主張する者も後を絶たなかった。

福島原発に対する不安等は、東京2020大会に対する韓国の一部政治勢力の批難やボイコットの呼びかけと結びつくことになった。「韓国の民間団体が東京五輪・パラリンピックを東京電力福島第1原発事故と結び付けて揶揄(やゆ)するポスターを制作(『産経新聞』2020年2月17日)」「韓国のオリンピック委員会に当たる大韓体育会が、東京五輪の選手村の食事で使われる福島県産などの食材を食べないよう、自国選手団を指導している(『読売新聞』2021年7月17日)」などの報道が伝わるたびに、日本人、とりわけ被災地の有権者たちは反応し嫌韓意識を高めていった。

6) 衆議院ホームページ https://www.shugiin.go.jp/internet/itdb_shitsumon.nsf/html/shitsumon/a191019.htm(2022年3月29日閲覧)



＜図3＞ 日韓オンライン・サーベイ実験の結果

ただ、筆者が行った日韓の18歳以上3000人を対象としたオンライン・サーベイ実験⁷⁾によれば、報道の伝え方で有権者心理に与える影響が異なっていることが確認できる。筆者らは日韓の有権者を「何も説明もなく大会賛否を答える層(統制群)」「復興五輪の説明を読んでから賛否を聞いた層(復興五輪群)」「福島市開催の説明を読んでから賛否を聞いた層(福島市群)」に分け、それぞれの賛否を比較した。その結果、日本人では統制群よりも、復興五輪群や福島市群の方が東京2020大会の開催に賛成する傾向にある一方⁸⁾、韓国人には、福島市群は統制群に比べ、より反対する傾向があることが確認できた(図3⁹⁾)。

このサーベイ実験の結果は、「復興五輪」というフレームや「福島」という地名が、復興五輪への賛否を左右し

7) 日本人2000人(首都圏1000人、九州1000人)、韓国人1000人に対し2020年度に実施(拓殖大学の倫理審査済み)。この調査の詳細な情報は、遠藤・河村(2021)を参照。

8) 調査対象者をランダムに統制群、復興五輪群、福島市群の3つに分け、それぞれ以下の文章を読ませてから、東京2020大会の賛否に回答してもらった。なお、選択肢は、賛成を5、反対を1とする5点尺度である。

統制群:周知の通り、2021年に東京オリンピックが開催される予定です。あなたは東京オリンピックの開催に賛成ですか。それとも反対ですか。

復興五輪群:周知の通り、2021年に東京オリンピックが開催される予定です。この東京オリンピックは、東日本大震災からの「復興五輪」と言われています。あなたは東京オリンピックの開催に賛成ですか。それとも反対ですか。

福島市群:周知の通り、2021年に東京オリンピックが開催される予定です。この東京オリンピックは、東日本大震災からの「復興五輪」と言われています。その一環として、福島市の県営あづま球場でのソフトボールと野球の試合が開催されます。あなたは東京オリンピックの開催に賛成ですか。それとも反対ですか。

9) 1に近いほど反対、5に近いほど賛成と回答する傾向にあるとなる。なお、図中の $p < .01$ は統計的有意確率が1%未満であることを表現している(平均の差が1%水準で統計的に有意という意)。N.S.は統計的に有意ではなかったことを示している(Not-Significantの略)。

たことを示唆している。そして、同じ言葉でも日韓で受け止め方が異なるため使い方に注意が必要であることや、政治家やマスメディアがつくるフレームの影響について研究を日韓で深化させる必要があることも我々に問うている。

3. 人口減少地域の創造的復興・地方創生

大規模自然災害の被災地では、地域の復興のために様々な復興政策がなされる。しかしながら、復興政策を振り返ると玉石混濁と言わざるをえない。もちろん、震災後の気づきから提案された新しい政策もあるが、震災前より計画されていたが予算制約等の要因で着工できなかったものや、予定していた規制緩和策を前倒しすることで復興政策とするものもあった(河村 2012)。前出の仙台空港の民営化はまさに規制緩和を前倒した策であった。

復興政策によって「震災前に戻す」と言うことは容易いが、インフラは復旧できても、生業を元に戻すことは困難である。災害によって一次的でも市場から退出すれば、シェアを失い、そのシェアを取り戻すことは容易ではないからである。その象徴が神戸港である。阪神・淡路大震災で大きな被害を受けた神戸港は、大規模災害によって東アジアのハブ港の地位を喪失し(釜山港のハブ化を促したとされる)、神戸新聞の報道によれば、神戸港のコンテナ貨物取扱量が阪神・淡路大震災の水準を上回るのに20年もの月日が必要であった¹⁰⁾。

東日本大震災の被災地のほとんどは過疎・高齢化に悩んでいた地域であり、人々に退出圧力が強くかかっていた地域であった。生業の再生や地域経済の復興を果たすには、災害を奇貨として新しい取り組みを行う必要がある¹¹⁾。東日本大震災の被災地は、日本の将来を先取りする「課題先進地」として創造的復興・地方創生に取り組む必要が求められているのである。

3.1. Build Back Better

災害工学的な発想に立てば、災害は都市社会の成長のきっかけとなるものと位置付けられ、災害からの復興とは「被災者の生活を災害前に戻し、経済や地域をより良い状態に創り直す」こととされる(中林 2020)。2015年に仙台で開催された第3回国連防災世界会議でも「Build Back Better」が強調されており¹²⁾、Build Back Betterを創造的復興と同義でとらえる傾向にある。

ただ、何をもってよくなったと判断するか、これには見解が分かれる。どんなにインフラを整備しても人口流出が著しければ、災害前よりもよくなったとは言えないだろう。ただ、人口が減っても地域の担税力が高まれば、災害前よりもよくなったと言えるかもしれない。被災者の傷は癒やされないのだから、「前よりもよくなったとは永遠に言えない」という考え方もできる。

Build Back Betterという掛け声を訴えることは容易である。ただ、被災地における創造的復興・地方創生を考えるにあたっては、焦点を絞る必要がある。

10) 「神戸港のコンテナ取扱量が過去最高 17年、震災前水準を上回る」『神戸新聞NEXT』2018年1月25日。 <https://www.kobe-np.co.jp/rentoku/sinsai/24/201811/0011790481.shtml>(2022年7月26日閲覧)

11) 関連して、中林(2020)を参照。

12) 内閣府ホームページ「第3回国連防災世界会議」<https://www.bousai.go.jp/kokusai/kaigi03/index.html>(2022年7月26日)

3.2. 東日本大震災被災地の創造的復興・地方創生の視座

3.2.1. マクロ・メゾ・ミクロ

東日本大震災被災地で試みられている創造的復興・地方創生策をみる上で、有効なのはそれが「マクロ(中央政府レベル)」、「メゾ(地方政府レベル)」、「ミクロ(個人・企業レベル)」のどのレベルで実施されているのかである。福島県の創造的復興策である「福島イノベーションコースト構想¹³⁾」はマクロレベルでの創造的復興策と言える。現在、福島県浜通り地域には既に福島ロボットテストフィールド(写真1)が作られ、福島の創造的復興の中核拠点となる福島国際研究教育機構の法律案が2022年2月に閣議決定されている¹⁴⁾。現在、東北大学青葉山キャンパス内に建設が進められている次世代放射光施設も、マクロレベルでの創造的復興策に該当するだろう¹⁵⁾。



出典：筆者撮影(2020年9月8日)

写真1. 福島ロボットテストフィールドからの風景

前述したように、多数決ルールを基本とする民主主義体制の下で、少数化する被災者に寄り添った復興政策を進めるには、被災地に住む被災者と非被災者が恩恵を受ける政策を、創造的復興・地方創生策として掲げることが効果的である。村井宮城県知事が掲げた仙台空港の民営化は、仙台空港の利便性を高めることによって被災者・非被災者の双方にメリットをもたらすものであり、医学部の新設も新型コロナ禍における宮城の医療環境にプラスに働いた。これらは宮城県を対象とするメゾレベルでの創造的復興・地方創生策と言える。

13) 福島イノベーションコースト構想ホームページ <https://www.fipo.or.jp/>(2020年12月15日閲覧)

14) 復興庁ホームページ <https://www.reconstruction.go.jp/topics/main-cat1/sub-cat1-21/20210202160535.html>(2022年7月28日閲覧)

15) 東北大学国際放射光イノベーション・スマート研究センターホームページ <https://www.sris.tohoku.ac.jp/>(2022年7月28日閲覧)
これに関しては、河村・伊藤(2021)も参照。

福島県が掲げるイノベーションコースト構想は、日本全体のイノベーションにつなげる意味合いがあるため、メゾレベルというよりもマクロレベルの創造的復興・地方創生策に分類できるだろう。マイクロレベルの復興としては、たとえば高選圭が紹介するAIを利用して北限のイチゴづくりに取り組んでいる農業法人の事例(河村・岡田・横山 2021)を挙げることができるであろう。

3.2.2. 規制緩和と新しい技術の活用

村井宮城県知事が掲げた創造的復興は規制緩和策が中心であり、市場経済を意識した復興策である(村井 2012)。ナオミ・クラインの「惨事便乗型資本主義(クライン 2011)」に掛け合わせて村井の提案を批判的に論じる者¹⁶⁾もいるが、マイクロレベルでは彼の進めようとする方向性に賛同する者も少なくなかった(河村 2012)。

日本政府も「地方公共団体が地域の状況や特性を踏まえて自ら作成したオーダーメイドのメニューに基づき、地域限定で思い切った特例措置を実現し、復興を加速する仕組み¹⁷⁾」として、「復興特区制度」を設けた。規制が復興の足枷になるという判断とともに、前述のように市場経済の下では被災地と非被災地が同一条件では、被災地は圧倒的に不利になるからである。

ただ被災地に対する支援のやり方は、政治力に頼って復興予算をぶんどる高度経済成長時代のスタイルではなく、地方から提案し、それに国が応じるプロポーザル方式になっている点に留意する必要がある¹⁸⁾。言い方を変えれば、地方の提案力がそのまま復興の早さやポスト復興期の地域経済にダイレクトにつながる形となっているのである。東日本大震災からの復興は、地方が地域づくりの人材を育て、またそうした人材と如何につながるかが重要であることを可視化した。

かつてと異なり、情報通信技術の発達に伴い、地域には収まらない人間関係資本がより重要であることを知らしめたのも、東日本大震災の特徴である(アルドリッチ 2021)。更に、情報通信技術を社会的ネットワークの構築だけに留まらず、AI農業の開始や自動運転の実証実験など生業再生に活用することが重要視されたのも、重要な視点である¹⁹⁾。

3.2.3. 「幸せ」のお裾分け

マイクロレベルの創造的復興・地方創生策は、どうしても生業再生における新たな取り組みに焦点が当たりやすい。なぜなら、生業再生によって被災地の働き先が増えれば定住人口の維持、そして自治体にとっては将来の担税力の確保につながるからである。しかしながら、定住人口増・担税力確保といった物質的な復興ばかりに焦点を当てることは不十分である。復興を通じてできた縁を利用して、交流人口を増やし、人と人とのふれあいを通じて得られる幸福に思う機会を増やすことも、大事な創造的復興・地方創生策と言える。すなわち、非営利な営みにも我々は注目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たとえば阪神・淡路大震災以降続けられてきた神戸ルミナリエ²⁰⁾のようなイベントや中越地震をきっかけにつ

16) たとえば、古川(2015)。

17) 首相官邸「復興特区制度」<https://www.kantei.go.jp/fukkou/organization/reconstructionzones.html>(2022年7月29日訪問)

18) その背景には、1990年代後半以降、行政には説明責任を果たす必要性があることが共通認識となったことがある。

19) 関連して、新しい東北官民連携推進協議会などの取り組みも参照。https://www.newtohoku.org/bizstartup/bizstartup_index.html(2022年7月29日訪問)

20) 神戸市観光局ホームページ <https://kobe-luminarie.jp/index.html>(2022年7月29日訪問)

くられた越後雪かき道場²¹⁾のような取り組みは「産業化を二の次」とした創造的復興・地方創生策と言える。東日本大震災の被災地でも定期的に行われている「石巻リボーンアートフェスティバル²²⁾」は前者に近い取り組みと言え、岩沼市の千年希望の丘²³⁾で試みられている植樹は後者に近い取り組みのように見える。

これらは、地域住民が鎮魂の空間を来訪者と共有したり、精神的な幸せと呼べるものを来訪者に提供する取り組みであり、非被災者たちが支援してあげるという復興とは異なる住民参加型の非営利的な取り組みと言える。

繰り返しとなるが、創造的復興・地方創生策を見るにあたって「営利か、それとも非営利か」という視座も大事なのである。

4. おわりにかえて一求められる被災地を対象とした政治経済学的研究

冒頭に述べたように東日本大震災の記憶は風化しつつある。それに伴い、復興に対する研究者の関心が落ち始めている。震災によって生じた弱者(福島避難者も含まれる)に対する支援そして彼らの生活再建に対する研究は継続される可能性は高いものの、被災地における政策決定過程や住民の政治意識に対する研究は下火となることは間違いない。地域経済の再生具合についての考察も限定的になるであろう。

しかしながら、東日本大震災の被災地は冒頭述べたように「課題先進地」であり、課題先進地の権力構造が復興支援という名で来訪する「よそ者」と関わることでどう変わり、それが意思決定過程や経済活動の変化にどうつながるのか、研究課題は残っている。2022年石巻市議会議員選挙では、かつて震災ボランティアとして石巻にやってきた者が3名当選している(河村・伊藤 2022a)。そうした「よそ者」が政治過程に参入した地域と閉鎖的な状況を守った地域でどのような差が出ているのか、検討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また復興政策の評価やその終了過程の考察も必要である。東日本大震災の教訓が、COVID-19パンデミック下でどう活かされたのかについても検証が必要ではないか。

最後に、筆者は、2022年から2カ年の日本学術振興会二国間交流事業(韓国(NRF))「Municipal Administration and Policy Making Using AI/Robotic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の日本側研究代表者を務めている。東日本大震災の被災地と韓国の人口減少地域における行政の取り組みを相互に研究するプログラムである。日韓の知見を合わせることで、人口減少地域の地方創生に多くのヒントが得られるのではないかと。また交流を通じて、東日本大震災の教訓の共有だけではなく、韓国の福島をはじめとした東日本大震災被災地のイメージの改善に役立てばと思っている。

謝辞 本報告論文の作成にあたっては、日本学術振興会からの助成(18H00812, JPJSBP120228801)を受けた。記して感謝申し上げたい。また本報告論文は、経済産業研究所プロジェクト「先端技術と民主主義:技術の進展と人間社会の共生を目指して(プロジェクトリーダー:尾野嘉邦早稲田大学教授)」並びにKDDI財団調査研究助成「ICTを活用した危機に強い地方議会の構築(研究代表者:河村和徳東北大学大学院准教授)」の研究成果でもある。

21) 長岡技術科学大学雪氷工学研究室 <https://mcweb.nagaokaut.ac.jp/~kami/html/laboratory.html>(2022年7月29日訪問)

22) 石巻リボーンアートフェスティバルホームページ <https://www.reborn-art-fes.jp/>(2022年7月29日訪問)

23) 千年希望の丘ホームページ <https://sennen-kibouno-oka.com/>(2022年7月29日訪問)

◀ 参考文献 ▶

- アルドリッチ, D. P. (飯塚 明子・石田 祐【訳】)(2021), 『東日本大震災の教訓—復興におけるネットワークとガバナンスの意義』, ミネルヴァ書房。
- 古川美穂(2015), 『東北ショック・ドクトリン』, 岩波書店。
- 遠藤勇哉・河村和徳(2021), 「ALPS処理水の海洋放出に対する日韓国民の心理:フレーミングを意識して」木村泰知【編著】. 『自治体DX推進とオープンデータの活用』, 日本経済評論社。
- 河村和徳(2012), 「震災復興と利益団体—水産業復興特区構想の事例から」, 『年報政治学2012-II 現代日本の団体政治』 88-109頁。
- 河村和徳(2014), 『東日本大震災と地方自治—復旧・復興における人々の意識と行政の課題』ぎょうせい(가와무라 가즈노리(河村和徳) [편저]김영근・김경림 [옮김])(2019), 『고려 대학교 글로벌 일본 연구원 총서 22 일본의 재난・안전과 지방 자치론—포스트 3.11 동일본 대지진의 거버넌스』, 진인진)。
- 河村和徳(2019), 「2016年参院選福島県選挙区における復興政策評価と投票行動」, 『選挙研究』 第35巻1号、35-43頁。
- 河村和徳・伊藤裕顕(2016), 「原子力災害と福島の地方選挙」村松岐夫・恒川恵市【監修】 辻中豊【編】『大震災に学ぶ社会科学第1巻 政治過程と政策』東洋経済新報社。
- 河村和徳・伊藤裕顕(2017), 『被災地選挙の諸相 現職落選ドミノの衝撃から2016年参議院選挙まで』, 河北新報出版センター。
- 河村和徳・伊藤裕顕(2021), 「被災地選挙の諸相(71) 被災地の事例から考える研究開発拠点の誘致・整備(1)」『月刊選挙』 2021年3月号、29-34頁。
- 河村和徳・伊藤裕顕(2022), 「被災地選挙の諸相(85) なぜ2022年石巻市議選の候補者数は多かったのか」『月刊選挙』 2022年6月号、9-12頁。
- 河村和徳・伊藤裕顕(2022b), 「被災地選挙の諸相(87) 低投票率の激戦だった2022年参院選岩手選挙区—組織対組織型選挙が残したもの」, 『月刊選挙』 2022年8月号。
- 河村和徳・岡田陽介・横山智哉【編著】(2021), 『東日本大震災からの復興過程と住民意識—民主制下における復旧・復興の課題』, 木鐸社。
- 河村和徳・湯浅塾道・高選圭【編著】(2013), 『被災地から考える日本の選挙—情報技術活用の可能性を中心に』, 東北大学出版会。
- 村井嘉浩(2012), 『復興に命をかける』, PHP研究所。
- 中林一樹(2020), 「日本における「復興」とは何か—成長社会の復興と持続可能社会の復興—」, 『日本災害復興学会論文集』 第15巻、1-10頁。
- 発想と政策を転換する機会
- ナオミ・クライン(幾島幸子・村上由見子【訳】)(2011), 『ショック・ドクトリン<上><下>』, 岩波書店。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과 한일관계

— 일본의 독도정책을 중심으로 —

곽진오 (동북아역사재단)

1. 서론

2021년 10월 4일 자민당 중(衆議院)·참(參議院) 양원에서 의원과반이상¹⁾의 지지를 받은 기시다 일본자민당총재가 제100대 수상으로 선출되자 한국 언론에서는 향후 한일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 강했다. 그 이유로는 “기시다의 얼굴을 한 아베내각, 아베·스가 계승 정권²⁾을 시작으로 일본 정부 대변인이자 기시다 내각의 2인자가 될 관방장관에 마츠노 히로카즈(松野博一) 전 문부성장관³⁾의 내정이 그 이유이기도 했다.⁴⁾ 그리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日 기시다 내각, 과거사-수출규제 관련 각료 3명 모두 우익인사⁵⁾”라는 이유를 들기도 했다. 한편 일본 언론의 경우 요미우리, 닛케이(日本經濟新聞) 그리고 마이니치신문 등은 “일본 자민당 간부 인사에선 (각각 제1, 제2 파벌 수장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아소 다로(麻生太郎) 전 부총리 배려가 두드러졌지만 내각 인사는 노장과 젊은 층의 균형을 취해 ‘기시다 후미오 컬러’ 연출에 주력했다.”⁶⁾고 평가 했지만 아사히신문은 기시다 내각 인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는 지난해(2020) 9월조각에서 각료 20명 중 11명을 직전 아베 내각 인사로 채웠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외교안보 라인을 포함한 3명만 스가 내각 인물을 임명해 차별화하는 모습이다. 다만 한국과의 관계에 관여가 많은 부처 각료의 면면을 보면 ‘아베 컬러’가 짙게 밴 우익 강경파가 많은 게 특징이다.”⁷⁾로 보도했다. 하지만 한일양국언론의 우려와는 달리 한겨레신문은 “한일관계 더 악화시키지 않을 것⁸⁾이라는 주제로 일본 게이오대학교 현대한국학연구센터 니시노 준야(西野純也)교수 인터뷰를 예로 들고 있다. 니시노 교수는 한일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으로는 이하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째, “지속 가능한 한일관계 측면에서 미·중 대립에 대한 공조도 중요하다는 것이다.”⁹⁾ 둘째, “일본도 새로운 정권이 들

1) 일본은 의원중심내각제를 채택하기에 일반적으로 다수당의 대표가 수상(총리)으로 선출된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 ”(인용) 이외는 수상으로 부르기로 한다.

2) 한겨레신문(2021.10.4) 한국일보(2021.10.5)

3) 일본은 총리실 산하 내각장관을 제외하고는 각료에 대해서는 ‘대신(大臣)’으로 부른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한국국무위원에 해당하는 ‘대신’에 대해서 장관으로 부르기로 한다.

4) 마츠노는 문부성 장관시절 일본군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내용의 의견 광고를 아베 전 수상과 함께 미국 신문에 낸 인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2021.10.4)

5) 조선일보(2021.10.5), 동아일보(2021.10.5)

6) 요미우리(2021.10.4), 닛케이(니혼게이자이, 2021.10.4), 마이니치(2021.10.4)

7) 아사히신문(2021.10.4)

8) 한겨레신문(2021.10.4)

어섰고, 한국도 2022년에 대통령이 바뀌기에 한일 관계만 너무 초점이 맞춰지면 할 수 있는 것이 적다.”¹⁰⁾고 했다. 이러한 주장은 국제정세를 가미한 넓은 의미에서의 한일관계에서나 얘기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일관계는 지금도 이하 이유들로 인해 협력의 가능성과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그 이유들은 첫째, 기시다 수상을 설명할 때 그가 수장을 맡고 있는 파벌인 ‘고치카이(宏池会, 현재 기시다 파벌)’¹¹⁾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고치카이는 전통적으로 아시아 외교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현재 미중의 전략 경쟁으로 기존의 정책이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난 아베정부 8년 동안 한일 관계는 사실상 고착화 됐다. 이는 한일정상회담이 적었고 제대로 된 정상회담도 없었다. 그리고 일본외상은 주일한국대사를 만나주지도 않았으며 2019년에 있었던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조치는 지금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새로운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전과는 다르게 ‘CO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강조하는 등 강경하다. 이는 한미일이 대북관계에서 만큼은 동일한 입장이라 할 수 있지만 일본에 의한 독도영유권주장,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피해자 등 역사 문제는 퇴로 없이 간혀 있다. 이에 대한 한일양국의 입장은, 지금의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세 변화로 양국이 협력할 영역을 넓혀야 한다’거나 기 상기 문제에 대해서는 ‘선부른 합의보다 지속가능한 한일관계를 고민해야한다’는 입장이 팽배하다. 한편 기시다 정부성립 이후 6개월이 지난시점에서 한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자 일본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일본은 한일 간에 주권분쟁으로 쟁점화 되고 있는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고유영토인 독도가 한국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어 있다’는 거친 표현을 들어가며 한국을 비난하고 있다. 이는 기시다 내각이 아시아정책에 무게를 두는 고치카이에 기반하고 있다 할지라도 기시다 내각의 독도정책은 향후 한일관계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문재인정부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윤석열 정부도 ‘독도’¹²⁾는 일본과 협의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¹³⁾ 그리고 기시다 내각각료들 중에는 과거 독도관련 발언에 있어서 한국의 독도정책을 비난하거나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임을 주장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일본의 독도정책의 향방을 가늠해보는 차원에서 기시다 수상을 포함한 기시다 내각의 주요정치인 중심의 독도관련 발언분석을 통해 기시다 정부의 독도정책을 분석하기로 한다.

9) 한겨레신문(2021.10.4)

10) 한겨레신문(2021.10.4)

11) 코치카이는 일본자민당의 주요파벌 중 하나로 2022년 현재 당내에서 가장 오래된 계파 중 하나이며, 현재는 회장인 기시다의 이름을 따서 기시다 파라고 부르고 있다. 시작은 1957년 6월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를 중심으로 결성되어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스즈키 겐코(鈴木 善幸), 미야자와 기이치(宮澤 喜一) 수상을 배출했다.

12) 일본은 한국의 ‘독도(獨島)’를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죽도·竹島)로 부른다. 대나무가 없는 독도를 일본이 대나무섬(다케시마)으로 부르는 이유는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40호에 독도를 새로운 이름 ‘다케시마’로 붙여 넣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은 1905년 이전에는 울릉도(鬱陵島)를 다케시마, 독도는 마쓰시마(송도·松島)로 불렀다.” 한편 이 논문에서는 독도에 대해 일본에서 부르는 용어 ‘다케시마’를 ‘죽도’로 부르기로 한다. 광진오(2020.8), 『일본중학교 교과서 검정과 독도: 일본국회 의사록 분석을 중심으로』, 『한림일본학』 제36집,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p.6.

13) 윤석열 정부 출범(5.10) 이후 처음 열린 한일 외교차관회담에서 한국은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문제 제기한 ‘독도 해양조사’가 국제법상 정당한 활동임을 주장했다. 한겨레신문(2022.6.10)

2. 기시다 발언과 독도인식

기시다 내각이 출범하자 한일양국 언론에서는 한일관계 개선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먼저 기대했던 이유로는, 기시다가 아시아중심의 외교정책을 중시했던 ‘코치카이’에 기반을 둔 정권이라는 이유에서이다. ‘코치카이’는 전후 일본이 고도경제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아시아중시외교’와 괴를 함께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한편 당시 일본과 경제협력이 절실했던 한국으로서는 ‘고치카이’의 ‘아시아중시외교’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었다.¹⁴⁾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기시다 수상이 1993년 국회의원이 된 이후 보수정당인 자민당에서 의원활동을 했으며 강경보수정권으로 불리는 고이즈미·아베내각에서 오랫동안 국무위원을 역임했기에 한일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것 이라고 보기도 한다. 이유로는 기시다 수상이 2012년 12월 제2차 아베내각 출범부터 일본 외교의 수장으로서의 관련 발언들이 그의 독도 관을 잘 설명해주기 때문이다.¹⁵⁾

이에 대한 관련 근거들로는, 기시다가 외상으로 취임한지 두 달이 채 안된 시점에서 일본정부는 시마네현이 개최하는 이른바 ‘죽도의 날(竹島の日)’¹⁶⁾행사에 차관(보)급인 시마지리 아이코(島尻安伊子) 해양정책·영토문제 담당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했다. 8회째 맞는 이 행사에 일본 중앙정부 당국자가 참석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외교부는 성명에서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차 분명히 밝힌다”면서 “앞으로도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기도에도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¹⁷⁾이라고 일본의 독도정책에 대해 항의했다. 그러나 일본의 이 같은 행동은 일찍이 예견되었었는데 2012년 12월 제46회 일본 중의원 총선공약에 독도영유권주장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¹⁸⁾ 한편 2013년 2월 28일, 기시다는 국회외교연설에서 자민당출신 외상으로는 처음¹⁹⁾으로 한국에 대해 “미래지향적이고 중층적이고, 보다 강고한 관계를 구축할 것을 호소한다”며 독도문제가 “하루지체에 해결되지는 않지만, 끈질기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²⁰⁾ 그리고 기시다는 외상취임 이후 곧이어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유신회 사쿠라우치 후미키(桜内文城)의원의 독도관련 질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응답한다. 사쿠라우치 의원, “생략... 죽도에 관해서 작년 정권교체 이전에 겐바 외무대신이 ICJ,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에 대해서 국회답변이 있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죽도,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이번기회에 법과 정의에 기초해서 해결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마지막으로 외무대신의 생각을 말씀해주시시오.” 이에 대한 응답으로 기시다 외상은 “죽도

14) 『한국을 사랑했던 일본인, 일본을 사랑했던 한국인』월간조선(2020.8)

15) 2012.12.26 제2차 아베내각(2012.12.26~2014.9.3)에서 외무장관에 임명되어 2017년까지 연임했다.

16) 일본은 2005년부터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해 시마네현의 이른바 ‘죽도의 날’ 제정을 통해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시마네현의 이른바 ‘죽도의 날’행사가 독도영유권을 억지로 주장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죽도의 날’로 부르기로 한다.

17) 중앙일보(2013.2.25)

18) “자유민주당이 정권에 복귀하게 되는 2012년 12월 중의원 총선 공약집에서 ‘불법점거가 계속되고 있는 북방영토와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교섭을 재 활성화하여 우리나라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영토문제 전담부서의 설치도 총선정책공약에서 언급하였다.” 김영필 「STRATEGY 21」 통권31호 (2013. Vol. 16 No. 1) 일본 정치권의 독도인식과 우리의 대응전략. p.177.

19) 1965년 한일국교 수교이후 일본외상이 일본국회 외교연설에서 첫 독도영유권 주장제기는 기시다의 전임외상이었던 민주당소속의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였는데 그는 당시 독도문제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한국에)전하겠다”고 했다.

20) 第183回国会 衆議院(2013.2.26) 本会議 第8号
(国会議事録検索システム <http://kokkai.ndl.go.jp>) (검색일자, 2022.8.11).

문제의 ICJ단독 제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죽도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만, 냉정하고 강한 끈기로 대응해 나아가겠습니다. 그중 단독 제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²¹⁾ 이 발언은 이를 전 국회외교연설내용과 동일하지만 기시다 외상의 독도ICJ제소에 대한 입장은 이전 외상이었던 겐바²²⁾와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기시다 외상은 사쿠라우치 의원이 제기한 북방영토 질의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독도ICJ제소만을 강조하는 형국이다. 이는 향후 일본의 영토정책이 독도에 대해서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후 일본국회에서는 독도ICJ제소를 포함한 전후 독도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질의 응답되었다. 특히 평화선관련 독도에 대한 질의응답에서 기시다 외상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로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일본유신회의 미야케 히로시(三宅博)의원의 질의에서 알 수 있는데, 미야케 의원, “생략..., 소화27(1952)년이었습니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직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독도를 힘으로 빼앗아갔습니다. 일본은 점령상태였기 때문에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생략.”²³⁾ 답변에 나선 기시다 외상,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먼저 죽도에 대해서는 ‘국제법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고유영토입니다. 그리고 청구권에 있어서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서 이는 이미 해결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생각과 입장을 확실하게 국제사회에도 또한 한국에도 끈기 있고 강하게 호소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이며 계속해서 이러한 과제에 대해서는 의연하게 대처해나갈 생각입니다”²⁴⁾고 했다. 기시다 외상의 이러한 독도관은 이후 독도가 한일 간에 현안이 되는데 일조하게 된다.

한편 2016년 1월 22일 기시다 외상은 일본국회 외교연설에서도 “일본의 고유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에 대해 일본의 주장을 확실하게 전하고 끈질기게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일본의 독도영유주장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응수 하는 한편 일본의 독도영유주장은 억지이기에 이는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같은 독도영유관련 한일 간의 파고(波高)는 양국관계를 소원(疎遠)하게 했으며 더 나아가서 같은 시기에 일본외교의 중심에는 기시다 외상이 있었다. 이후 기시다 외상은 2017년 1월 17일, ‘독도 소녀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에서 일본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의회가 독도에 소녀상 설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아 “독도는 원래 국제법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일본의 고유영토이기에 이런 입장에 비추어도 독도에 소녀상을 설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²⁵⁾ 이라고 했다. 또한 2019년 12월 11일 당시 포스트 아베로 거론되던 자민당 정조회장 기시다는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독도관련에 대해서 ‘독도는 일본고유의 영토’라는 일본정부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국제사법제도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시마네현의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국제법에 어긋나게 불법으로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주장과도 일치하는 대목이다. 이후 기시다 외상은 독도영

21) 第183回 国会 衆議院(2013.2.28) 予算委員会 第7号

(国会議事録検索システム <http://kokkai.ndl.go.jp>) (검색일자, 2022.8.11).

22) 겐바 외상은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독도와 쿠릴열도(일본이 부르는 ‘북방영토’)가 “법적 근거 없이 점거·지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 2012.8.6)

23) 第186回 国会 衆議院(2014.2.26.) 予算委員会第三分科会 第1号

(国会議事録検索システム <http://kokkai.ndl.go.jp>) (검색일자, 2022.7.11).

24) 第186回 国会 衆議院(2014.2.26) 予算委員会第三分科会 第1号

(国会議事録検索システム <http://kokkai.ndl.go.jp>) (검색일자, 2022.7.11).

25) 아사히신문(2017.1.17), 동아일보(2017.1.18)

유권주장을 통해 한일관계를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며 ‘한국이 지금까지 국제법적인 약속을 무시해온 것이 문제의 근원에 있다’고 말하기에 이른다. 그러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국제여론을 환기해야한다’면서 ‘당에서는 독도관련 예산획득이나 대외적이 발신, 인적교류에 힘을 싣고 싶다’고 했다.²⁶⁾ 그리고 수상취임 일주일을 남기고 실시된 수상후보 선거과정에서 기시다의 독도관은 강성일변도였다. NHK에 의하면, 당시 차기 수상후보자들이 독도와 관련해 ICJ제소를 예고하는 등 외교·선전전 강화를 주장했다. 제100대 수상후보 선거 일주일전에 열렸던 일본공영방송 NHK주관 방송에 출연한 기시다 전 외무상과 고노 다로(河野太郎) 행정개혁상,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총무상,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전 총무상 등은 자민당총재 선거 토론회에서 독도,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이 자리에서 기시다 후보는 “일본이 여러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독도ICJ제소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일본이 독도ICJ제소를 몇 번인가 시도한 적 있지만 상대국(한국)이 응하지 않아 재판으로 가지 않았다”며 “이런 행동도 확실히 계속해야한다”고 주장했다.²⁷⁾ 상기 수상후보들의 독도관은 하나같이 강경했음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기시다의 독도관은 다른 세 명의 후보들과는 달리 독도ICJ제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향후 기시다정부의 독도정책이 일본정부가 1954년부터 꾸준히 제기해오고 있는 독도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서 독도ICJ제소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기시다 내각 각료발언과 독도인식

2021년 10월 4일 제1차기시다 내각이 성립되고 약 한 달 후에 제2차기시다 내각이 구성되었다. 그리고 2022년 8월 10일 제 3차기시다 내각구성에 대한 조각이 진행되고 있기에 기 주제에 대한 연구는 논문투고에 즈음해서 논문이 완성 되어 질 수 있다고 예상되기에 이번 프로씨딩스 발표를 계기로 완성도를 높이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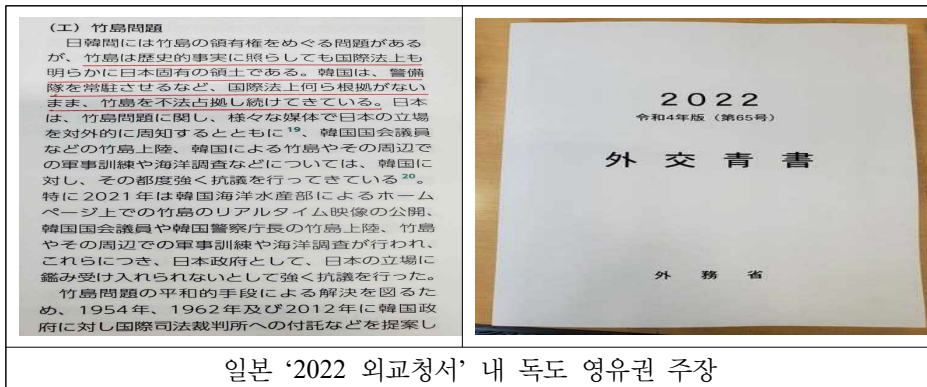
4. 결론

2022년 4월과 7월에 일본 독도정책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외교청서와 방위백서가 발표됐다. 각 백서는 기시다 수상 취임 이후 처음 내놓은 일본정부의 독도관련 공식입장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기 발표내용에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을 되풀이했다. 올해 발표된 일본외교청서와 방위백서에는 모두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취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담겼다. 아울러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죽도

26) 요미우리신문(2019.12.11)

27) 그리고 고노 후보는 독도와 관련해 “영토 의식을 (일본) 국내에서 높이는 것과 동시에 일본 주장을 확실히 국제사회에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보전에서 지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 정보전에 대해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 정보를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카이치 전 총무상은 “한국이 독도에 구조물을 더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독도의) 역사적 경위는 타국 분들에게 전달되기 힘들니 NHK 국제방송도 활용해 일본영토라는 설명을 계속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현재 한국이 실효 지배 중인 독도에 추가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노다 후보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일본영토”라며 “그것을 먼저 (일본) 국민 각계각층에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외교 루트를 통해 우호국의 이해를 얻어 한국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할 바탕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그림1>

이는 향후 기시다 내각의 독도정책에 대한 근간이 이전 정부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보여 지지 만 한편으로는 이른바 ‘북방영토’ 정책과는 별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독도ICJ제소를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기시다 외상이 사쿠라우치 의원의 질의응답에서 이른바 ‘북방영토’에 대한 답변은 무시하고 독도ICJ제소만을 강조하는 것이 하나의 예라 할 수 있겠다.

◀ 참고자료 및 관련 웹 사이트 ▶

일본외무성홈페이지. (<http://www.mofa.go.jp/mofaj/>)
駐韓日本大使館. <http://www.japanem.or.kr>
国会議事録検索システム (<http://kokkai.ndl.go.jp>)

◀ 참고문헌 ▶

곽진오(2020.8), 「일본중학교 교과서 검정과 독도: 일본국회 의사록 분석을 중심으로」, 『한림일본학』 제36집,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p.6. DOI: <https://doi.org/10.18238/HALLYM.36.1>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조선일보, 연합뉴스, 월간조선, 닛케이,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외교청서, 방위백서

일본의 기후안보와 태평양 도서국

이 기 태 (통일연구원)

1. 들어가며

일본은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정책을 계속해서 전개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해양국가의 정체성을 가진 일본 입장에서 태평양 도서국은 법의 지배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지속가능한 해양질서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과 역사적으로 일본이 과거 ‘남양군도’라 부르면서 깊은 관계를 가져왔던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즉 일본 입장에서 태평양 도서국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다. 첫째, 역사적으로 친일적인 국가들이다. 일본과 도서국들 간의 활발한 인적 교류로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친일적이다. 둘째,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파트너이다. 유엔을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조직과 활동에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셋째, 자원(수산, 광물, 에너지 등)의 중요한 공급지이며 해상수송로이다.

반면에 일본이 인식하고 있는 태평양 도서국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과제, 즉 3개의 취약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토가 협소하고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국내시장이 작고, 국토가 광대한 해양에 흩어져 있다. 둘째, 국제시장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태평양 도서국은 지리적 특성상 주요 국제시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송 비용이 많이 든다는 약점이 있다. 셋째, 자연재해와 기후변동 등 환경 변화에 취약하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받기 쉽고,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세계적 기후변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생존의 위협으로까지 느끼고 있는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일본의 외교안보정책, 그 중에서도 기후변동문제를 안보 차원에서 모색하는 ‘기후안보(climate security)’ 차원에서 일본의 태평양 도서국 외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기후안보 개념과 태평양 도서국의 대응

2.1. 기후안보 개념

기후안보(climate security)라는 용어는 1990년대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 환경정상회의’에서 확산되었다. 동서냉전이 종결되고 군사면에서뿐만 아니라 환경면에서도 안보 문제가 중시되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동을 다른 국제정치 과제와 동등한 수준에서 중시하려는 목적에서 ‘안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오히려 정부부터 논의되었던 1980년대 이후 일본 안보 개념을 나타내는 ‘종합안전보장’ 개념은 다양한 폭넓은 안보 개념을 포함한 것이다. 종합안전보장은 위협을 없애려는 자조 노력에 더해 국제화

경 전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와의 연계를 진행하는 것이다. 또한 군사적 수단 뿐만 아니라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 강화라는 비군사적 수단도 활용한다. 이러한 생각은 기후변동이 가져오는 위협에도 적용가능하며 이것을 국민의 안전과 생활, 더 나아가 폭넓은 인간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경제적 상호의존 강화를 포함한 국제협조를 추진하는 것이 안보로 이어진다는 인식으로 이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기후변동 대책의 촉진으로 이어지는 개념이 되었다.

따라서 일본의 종합안전보장의 맥락에서 기후안보정책은 국민을 기후변동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저탄소사회구축을 통해 기후, 에너지, 산업경쟁력에서 안보능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제협력 분야에서 유엔 및 이념과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기후안보를 추진하는 것이다.

2.2. 태평양 도서국의 기후변동 대응

전후 태평양 도서지역은 북반구는 미국이, 남반구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가 통치했다. 1960년 유엔 ‘식민지독립부여선언’과 1962년 서사모아부터 1994년 파라오까지 14개국이 독립하면서 주권을 확보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들은 인재 부족, 지리적 문제, 경제 취약성 때문에 예전 중주국의 원조에 깊이 의존하고 있었다.

1971년 프랑스의 핵실험에 대한 항의를 배경으로 남반구 도서국 5개국과 호주, 뉴질랜드는 안보와 경제의 지역정책을 논의하는 ‘남태평양 포럼(현재 태평양도서포럼, PIF)’을 설립하였다. 현재 도서국은 태평양소도서개발도상국(PSIDS) 체제로 결속해서 기후변동, 해양환경안전, 경제를 축으로 국제사회에서 발언력을 높여나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 도서국 정상은 PIF에서 ‘태평양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건전하게 생산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평화, 조화, 안보, 사회적 포섭성, 번영의 지역’을 추구하는 ‘Pacific Vision(2014)’, ‘푸른 대륙의 관리자’로서 Pacific Vision 실현을 향해 협력하는 ‘Blue Pacific Identity(2017)’, ‘기후변동과 인간의 안전보장 등 비전통적 안전보장’을 포함한 지역안보협력에 관한 보이선언(2018)에 합의하였다.

지역 레벨에서 기후 문제가 태평양에서 단결을 촉진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은 틀림없다. PIF가 2018년 9월에 발표한 ‘지역안보에 관한 보이선언’은 기후변동을 ‘태평양 국가들의 사람들의 생계, 안보, 복지를 위협하는 최대의 단독요인’으로 규정하고, ‘인간안보’와 ‘안보의 확대개념’을 주장하고 있다.

PIF는 세계적으로도 기후변동을 평화와 안보로 연결하는 움직임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 PIF 가맹국은 유엔 사무총장이 기후변동과 안보에 관한 특별고문을 임명하는 문제, 그리고 기후변동에 의한 안보 위협에 대해 정기적으로 상세한 보고를 하는 특별보고서를 유엔안보리가 임명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단적으로 말하면 PIF는 기후변동에 의해 가장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발언의 장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변동에 관한 논의에서 PIF는 도의적 리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3. 일본의 태평양 도서국 정책과 기후안보문제

3.1.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중국은 남태평양의 도서국에 대한 외교공세를 강화하면서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태

평양 도서국은 미국과 중국 양국의 대결장이 되고 있다. 도서국은 미군의 거점인 하와이, 괌과 미국의 동맹국인 호주 사이에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22년 4월 솔로몬 제도와 안보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중국군과 치안부대 파견, 함정 기항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중국은 2022년 5월 남태평양 피지에서 남태평양 도서국 10개국과 외교장관회담을 열었다. 도쿄에서 쿼드 정상회담이 열린 직후의 타이밍으로 미국과 동맹국의 결속 강화에 대항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왕이 외교부장은 경제지원 및 안보와 무역, 데이터 통신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한 협정 체결을 제안하였지만, 일부 국가가 안보협력에 반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

태평양 도서국은 강대국의 군사적 위협에 처해있지는 않지만, 미중대립에 휩쓸릴 가능성에 대한 위협 인식이 높다. 게다가 태평양 도서국 지역에는 파라오를 비롯한 4개국이 대만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견제로 미국을 비롯한 호주, 일본 등은 결속 강화 및 태평양 도서지역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면서 중국에 대응하고 있다.

사실 태평양 도서국 입장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국가 존망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기후안보와 이와 관련된 자연재해 대응 및 복구가 가장 중요한 국가과제이다. 여기에 중국의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 강화 시도와 기존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의 양 세력 사이에서 가능하면 지원을 많이 얻으면서 관광산업 유지를 통한 경제력을 유지하는 것이 태평양 도서국의 주요 국가목표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사회의 국가들이 HA/DR을 통해 태평양 지역으로 관여를 확대하는 것은 각국이 기후변동분야에서의 원조를 통해 도서국과의 관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과도 복잡하게 교착되고 있다. 도서국 입장에서 이러한 개발 파트너로부터의 지원을 얻어서 관계를 강화해 나갈 때 동시에 기후변동 문제가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본은 아베 수상이 2016년 8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6차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현재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발표하였다.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과 관련해서 방위성은 일본의 해양안보에서 중요한 시레인이 통과하는 지역 중 하나로 태평양 도서국을 언급하면서 인도태평양 구상 추진을 위해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과 구상을 공유하고 협력을 증진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3.2. 방위성/자위대의 기후안보 대응

이미 기사 방위상은 2021년 4월 23일, 미국 정부 주최의 기후 정상회의 기후안보 세션에서 기후변동에 대한 자위대의 대응을 발표하면서 안보와 기후변동 문제가 결코 연동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표명하였다. 예를 들어 기후변동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육지를 감소시키고 영토와 자원을 둘러싼 갈등을 활발하게 만든다. 또한 대규모 인구 이동을 일으키면서 지역 전체가 불안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기후변동에 의해 자연재해가 더욱 증가한다면 자위대 파견 인원 및 파견기간이 늘어나면서 자위대의 훈련도의 유지 및 향상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안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기후변동문제와 관련해서 2021년 4월 22일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에서 스가 총리는 일본의 온실효과가스 삭감의 목표도 끌어올릴 것을 언급하였고, 방위성도 목표 달성을 목표로 온실효과가스의 삭

감을 더욱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방위성은 2020년부터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전기 조달을 시작하였고 2021년에는 전국 각지의 자위대 시설 985개 시설 중 2020년 151개 시설에서 2021년 526개 시설에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전기 조달을 실시하면서 온실효과가스 삭감에 대응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발표된 방위계획대강에서 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과 교류를 추진한다는 취지를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즉 태평양 도서국과 자위대 부대에 의한 기항 등을 통해 각 자위대의 능력 및 특성을 활용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한다는 것이다(防衛省 2018, 15). 일본 정부가 안보 차원에서 태평양 도서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기후변동 문제를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는 움직임이 2021년 처음으로 나타났다. 일본·태평양도서국 국방장관회의(Japan Pacific Islands Defense Dialogue: JPIDD)는 2021년 9월 2일 온라인 회의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JPIDD는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PALM) 프로세스에 따라 발전시켜 왔던 정상 레벨의 파트너십에 따라 지역 안보상의 과제에 대응하면서 국방당국 간 상호이해와 신뢰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공동선언 제6항에서 ‘지금 실현해야할 긴급한 기후변동행동을 위한 카이나키 선언’의 요청 및 기후변동과 방재가 제9회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의 다섯 개 중점협력분야 중 하나임을 유의하면서, 방재 특히 강인성 구축에 관한 국방당국 간의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기시 방위상은 2021년 5월 방위성 내에 ‘기후변동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기후변동에 의해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 상의 과제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4. 나가며

일본과 태평양 도서국은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일본은 해양국가 정체성을 가지고 최근에는 안보적 관점에서 시레인의 중요한 통과지점으로 태평양 도서국 지역을 중시하고 있다. 일본의 태평양 도서국 외교, 특히 지원과 협력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외교는 전후 일본 외교의 전통으로 자리잡은 ‘종합안전보장’ 개념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종합안전보장 개념은 인간안보, 기후안보, 에너지안보, 식량안보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기후안보는 다른 안보 개념과 밀접하게 연동되면서 하나의 중요한 개념으로 정립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 방위성/자위대는 일본 정부의 기후안보 인식 강화와 더불어 기후안보를 위한 조직 내 대응과 함께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기후안보 차원의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21년 5월 방위성 내에 설치된 ‘기후변동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향후 안보적 차원에서 기후변동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일본은 당장은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HA/DR 운용협력을 국제사회의 다른 국가들과 함께 전개해 나가는데 중점을 둘 것이며, 점차적으로 인프라 구축 및 기술연구개발, 그리고 능력구축지원과 같은 형태로 태평양 도서국의 기후안보 차원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사할린 아이누와 일본의 정책

— 사할린·치시마 교환조약 이후를 중심으로 —

박 정 임 (강원대)

1. 머리말

사할린은 1800년대 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일본과 바다로 진출하기 위해 영토 확장을 하는 러시아의 세력권 투쟁지였다. 사할린 남쪽은 홋카이도(北海道)에서 이주한 아이누인이, 북쪽은 연해주 쪽에서 이주한 길랴크(Gilyak)¹⁾ 및 오로촌(Orochon)²⁾족이 거주했으나, 오랫동안 국제법상 무주도(無主島)였다. 일본의 도쿠가와 시대 에조지(蝦夷地)³⁾를 관장하던 마쓰마에 번이 1821년 사할린 일부를 영유했고, 1853년에는 러시아 제국이 사할린 영유를 선언했다. 1867년에는 러일 양국의 협동관할지가 되었으나, 1875년 러일 양국이 ‘사할린·치시마 교환조약’⁴⁾에 조인하면서 사할린 섬 전체가 러시아 제국의 영토가 되었다. 그러나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여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 남부를 넘겨받아 이 지역에 ‘사할린(樺太) 민정서’를 설치했다. 이처럼 사할린은 러일 양국의 세력권 투쟁에 영향 받는 곳이었다. 사할린은 북방4도(北方四島)처럼 일본과 러시아가 영토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곳은 아니지만, 근대 시기 러시아와 일본이 패권을 다투던 곳이었다.

‘사할린·치시마 교환조약’ 이전 사할린에 거주하던 아이누들은 일본인이 운영하는 어장에 고용되어 있었는데, 조약 체결 이후 일본 정부에서 아이누들을 일본 본토로 이주시켰다. 그 과정에서 아이누들의 저항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아이누의 전통 생활과 맞지 않는 곳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본고에서는 사할린 아이누의 이주 과정과 일본 정부의 아이누 정책을 고찰하여 근대 시기 일본의 아이누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사할린 아이누와 사할린·치시마 교환조약

도쿠가와 시대 말기 이후 러시아인과 일본인이 같이 거주하던 사할린은 ‘사할린·치시마 교환조약’으로 러시아령이 되었고, 러시아령이었던 우루프섬과 치시마(크릴)는 일본령이 되었다. 사할린에는 일

1) 니브흐(Nivkh)족의 전 이름. 1930년대까지 러시아인과 주변의 민족들은 니브흐족을 길랴크라고 불렀다.

2) 동아시아 북동부의 퉁구스 어계의 수렵민족.

3) 에조(蝦夷)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다르다. 가마쿠라(鎌倉) 시대 이후는 주로 아이누를 의미하는 말로 정착했다. 따라서 에조지란 아이누가 사는 땅을 의미하고, 근세에는 일반적으로 현재의 홋카이도를 가리킨다.

4) 일본은 사할린 섬 전체를 러시아령으로 인정함.

러시아는 우루프 섬을 포함한 쿠릴 열도 북쪽의 18개 섬을 일본에 넘겨줌.

러시아는 사할린 섬에 있던 일본인의 재산을 배상하고 일본의 어업권을 승인함.

본인들이 진출하여 아이누인을 고용하여 어장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이 조약으로 오랜 세월 사할린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사할린 아이누의 귀속이 문제가 되었다. 당시 두 지역에 거주하는 아이누인에 대한 거취를 1875년 8월 22일에 체결된 조약의 부속 제4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사할린 및 치시마에 사는 아이누는, 현재 사는 곳에 영주하고, 또한 그대로 현재 영주의 신민이 되는 권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기 정부의 신민이 되고자 하는 것을 원하면, 그 거주의 땅을 떠나고, 그 영주에 속하는 땅으로 옮겨가야 한다. 또한 그대로 살아온 토지에 영주를 원하면 그 원적을 고쳐야 한다. 각 정부는 아이누인의 거취 결심을 위해, 그 조약 부록을 아이누인에게 전달한 날로부터 3년간의 유예를 부여해야 한다. 그 3년 동안은 지금까지처럼 사할린 및 치시마에서 얻는 특허 및 의무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어로 및 조 수렵, 그 밖의 모든 직업을 갖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모든 지방의 규칙 및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3년의 기한이 지나고, 더욱 쌍방 교환이 끝나고 거주하고자 하는 아이누인은 모두 그 땅의 영주의 신민이 되어야 한다.⁵⁾

사할린과 치시마 지역의 아이누들이 자신들의 거취를 결정할 수 있었고, 그것을 3년 이내에 결정하면 된다고 했다. 그리고 제5조에서 ‘사할린 및 크릴 섬의 토인에 대해 각자 종교의 유지를 깊이 존중하고 자유를 준다. 또한 사당 및 묘지는 훼손하지 않는다’⁶⁾고 규정했다.

조약에서 아이누의 신앙의 자유를 인정했고, 국적 및 주거는 어느 나라에도 귀속되지 않고 자유로 우며 국적에 따라 거주하는 영토를 제한했다. 아이누들은 어느 나라의 국민이 될지를 선택할 수 있었고 3년이란 기간이 주어졌다. 이 조약은 사할린에서 살아온 원주민이었던 아이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일본과 러시아에 의한 분할 점유라고 할 수 있다.

3. 홋카이도로의 이주

‘사할린·치시마 교환조약’ 체결 후 일본 정부에서는 사할린 거주 아이누를 일본 홋카이도로 이주시켜 홋카이도 개발에 동참시키려고 했다. 아이누들이 자신들의 거취를 3년 이내에 결정하면 된다고 교환조약에서 명시했지만, 일본 정부에서 사할린 아이누들에게 홋카이도로 이주할 것을 권유하는 도중 사할린의 반환이 급속하게 진행되어 ‘홋카이도개척사’ 관리들은 어쩔 수 없이 사할린 지청 소재지 부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설득했다.

사할린 아이누는 본래 거주지를 바꾸지 않고 조상대대로 지낸 토지에서 거주하는 민족이었다. 이주를 원하지 않는 아이누들에게 관리들이 찾아다니며 설득하자 부득이 이주를 승낙했다. 당시 사할린 아이누들은 국경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홋카이도로 이주해도 다시 올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108가구의 841명의 아이누가 홋카이도로 이주할 것을 결정하고 1875년 9월 9일부터 10월 1일까지 홋카이도로 이주했다.

아이누들은 사할린과 가까운 홋카이도 소야(宗谷)로 이주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개척사에서는 소야에는 천연산물이 적다는 이유와 고향을 그리워하는 아이누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국제 분쟁

5) 外務省調査部編, 『大日本外交文書第8巻』, 日本国際協会, 1938, 261쪽.

6) 外務省調査部編, 『大日本外交文書第8巻』, 日本国際協会, 1938, 262쪽.

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견지에서 사할린 아이누를 쓰이시카리(対雁)에 정착시켜 농업에 종사시킬 계획을 세웠다. 소야에 정착하여 어업을 하고 싶은 아이누들에게 개척사가 이시카리로 이주를 지시하자 아이누들은 이시카리(石狩)로의 이주를 반대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75년 10월 7일 개척 장관 구로다가 아이누를 이시카리로 이주시킬 것을 결정했다는 통지를 보냈다.

소야에서 이주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던 사할린 아이누들은 현지 관리의 설득으로 이시카리와 아쓰다(厚田)의 어장에서 어업에 종사하겠다고 한발 양보했다. 그러나 개척사는 처음부터 사할린 아이누들을 아쓰타로 이주시킬 계획이 아니었다. 거짓으로 이것을 허락한다고 하여 1876년 6월 24일부터 소야를 떠나게 했다.

사할린 아이누를 인솔했던 개척사 관리 마쓰모토 주로(松本十郎)의 기록에 의하면 사할린 아이누들의 이주를 위해 삿포로의 경관 20명이 총을 쏘고 바다를 향해 대포를 발포하여 떨고 있는 아이누들을 양과 돼지를 모는 것처럼 거룻배에 태워 큰 배에 옮겨 태워 이시카리 강 상류인 에베츠부토(江別太)로 이주시켰다고 한다.

이주 과정에서 난케이(楠溪)의 오토나(乙名)가 텐베(伝兵衛)가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마쓰모토는 사할린 아이누들이 일본 정부에서 처음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분노하여 추장인 텐베를 압박했고, 텐베는 매우 근심하며 정신이 혼미해져 피를 토하고 죽었다고 기록했다.

사할린 아이누들이 이주를 승낙한 당시의 약속과 다른 것을 자신들의 지도자에게 항의한 것이다. 아이누들의 지도자인 오토나는 마을의 수장이며 대표로 전쟁에서는 우두머리가 되어 지휘했으며 재판 등에서 강한 권한을 가졌다. 그래서 아이누들은 처음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자신들의 지도자에게 항의했고, 이것이 텐베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개척사에서 소야, 이시카리, 아쓰타로 이주할 것이라는 약속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았다. 쓰이시카리로의 이주가 사할린 아이누의 의향에 반하는 것이라는 것을 개척사 측에서는 숙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이누들을 배에 태운 후에 행선지가 쓰이시카리라는 것을 통보했다. 그리고 이 결정으로 인해 반발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 경관을 배치하는 것을 처음부터 계획했다.

6등 관리였던 스즈끼는 사할린 아이누에게 이주처가 쓰이시카리라는 진실을 어디에서 밝힐 것인가를 고민했다고 한다. 배가 제니바코(錢箱)⁸⁾ 앞 먼 바다로 접어들었을 때 아이누를 모아놓고 쓰이시카리로 이주해야만 한다고 전달했다. 배 안이 소란스러워졌고 경관의 제지도 듣지 않는 상황에서 배는 이시카리 강을 거슬러 올라 쓰이시카리에 도착했다. 사할린 아이누들은 태도를 바꾸지 않았고 약속을 위반했다고 항의했고, 쓰이시카리에서 영주할 의지가 없다고 하면서 가옥 건축을 거부한 채 임시 오두막에서 쉼 수 일을 보냈다.

사할린 이주 아이누의 담당 관리들의 설득과 이시카리와 아쓰타 방면의 어장을 준다는 약속에 아이누들도 점차 상황을 받아들이고 도요히라 강(豊平川) 어귀를 중심으로 이시카리 강 옆에 가옥을 지었다. 이렇게 개척사는 사할린 아이누의 이주를 겨우 달성했다.

7) 아이누를 관리하던 아이누인 하급 관리.

8) 현재의 오타루(小樽) 시.

4. 쓰이시카리 교육소에서의 아이누 교육

개척사의 아이누인 교육정책에 의해 개척사 관리 우에노 다다시(上野正)의 건의로 1878년 홋카이도 최초의 아이누 학교인 쓰이시카리 교육소가 설립되었다. 쓰이시카리 교육소는 아이누 부녀자들을 위해 세운 제망소 안에 설치되었다. 그리고 교육소의 교사로는 아이누어를 할 수 있는 의사 오코치 소사부로(大河内宗三郎)가 겸직했다. 오코치는 사할린에 있을 때부터 사할린 아이누들과 같이 지내서 아이누어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교직을 담당하게 되었다.

쓰이시카리 교육소에서는 학생 30명에게 일본어 읽기와 쓰기를 교육했다. 교과 과정은 일반 초등학교와 달랐고, 나이 든 학생에게는 교과 과정과 상관없이 생계를 위해 일상적인 문장을 교육하거나, 어업과 양잠 등의 실습을 했다.

그런데 교사인 오코치의 본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초기 쓰이시카리 교육소의 교육은 병자가 생기면 수업을 쉬어서 심할 때는 한 달 동안에 수업일수가 10일 정도에 그칠 때가 있었다. 게다가 중병 환자가 있을 경우는 10~15일 정도 쉴 때도 있어 배웠던 것을 모두 잊어버려 다시 배워야 할 정도였다고 한다. 당시 쓰이시카리 교육소에서 공부한 야마베 야스노스케(山邊安之助)는 4년 정도 다녔지만 정말 배운 것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다.

오코치 이후에 부임한 교사들도 아이누 학생들의 교육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야마베는 몇 번의 교사가 바뀐 뒤 도슈 온이치(導守策一)라는 교사가 부임한 뒤 비로소 학교가 안정되고 학생들도 학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학교 교육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교사 개인의 역량에 따라 부침(浮沈)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사할린으로의 귀환

사할린 아이누들은 고향인 사할린을 떠나 홋카이도에 이주하여 많은 일을 겪었다. 1880년부터 홋카이도에 콜레라가 유행하기 시작해 몇 번의 유행이 있었다. 사할린 아이누들은 전염병의 유행으로 1886년 1월부터 1895년 3월 1일까지 382명이 사망했다. 기록에 의하면 1886년 1월부터 7월까지 매월 몇 명 정도 사망했는데, 8월이 되자 급증해서 8월에 26명 9월 15명, 10월 6명, 11월 4명, 12월에는 갑자기 증가해서 158명이 되었다. 이렇게 사망자가 증가하며 이 시기에 267명이 사망했다. 1887년에도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시기 사망률이 50% 정도였다고 하니 환자는 사망자 수만큼 있었다는 것이 된다. 1875년 홋카이도로 이주할 때 841명이었던 사할린 아이누의 절반 가까운 사람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었다.

사할린 아이누에게 있어 홋카이도에서의 생활은 낯선 땅에서의 전쟁과 같은 것이었다. 함께 왔던 가족과 이웃을 잃으며 사할린 아이누들은 1890년대가 되면서 고향인 사할린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에서는 사할린 아이누들이 홋카이도를 떠나는 것을 막았지만, 아이누들은 일본 정부 몰래 고향으로 돌아갔다.

사할린 아이누 중의 한 명이었던 야마베 야스노스케(山邊安之助)는 부모님의 묘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1893년 8월 자신의 가족과 친구 가족이 함께 사할린으로 돌아갔다. 야마베가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들이 떠난 사이에 고향은 러시아인의 거주지가 되어 거주할 곳이 없었다. 이곳저곳을 전전하다 겨우 친척이 있는 곳을 찾아서 정착하게 된다. 이후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해 사할린 남쪽을 할양받게 되면서 홋카이도에 거주하던 사할린 아이누들 전원이 사할린으로 돌아갔다. 사할린 아이누들은 떠나올 때 인구의 절반이 되어 3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다. 일본과 러시아의 세력 확장으로 자신들의 영역을 상실하고 유랑한 사할린 아이누의 삶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日本列島に設置された百濟郡・新羅郡・高麗郡について

瀧 音 能 之 (駒澤大)

1. 問題の所在

百濟、新羅、高(句)麗は、いまでもなく朝鮮半島に成立した国であるが、それらの国名をつけた郡が古代に日本列島の中に設置されている。すなわち、摂津国の百濟郡、武蔵国の新羅郡・高麗郡である。これらの外国名を冠した郡がいつごろどのような事情で成立したかについて考えることは興味深いと考えられる。

もとより、いまでもこうした問題について、文献史学や考古学の立場からいくたの論及がなされているものゝいまだ未解決なものもあるように思われる。ここでは、主に3郡がもつ性格の違いについて考えをのべることにしたい。

2. 百濟郡の成立と善光の関係

百濟郡は現在の大阪市に設置された郡であるが、その郡域については、いまだ検討しなければならない点が多いとされている。しかし、おおむね現在の東住吉区と生野区の西部にかけての地域で、当時は低湿地帯であったと推測されている。

郡の成立年代に関しても諸説みられ、定説といわれるものはないように見うけられる。たとえば、大化2年(646)の大化改新詔に求める説があるが、これは早すぎるとされる。また、この他にも大化2年、大化3年、大化5年、天平6年(734)~同12年(740)、天平9年(737)~同12年(740)、天平9年(737)~同12年といったようにいくつかの説が提示されている。ちなみに、百濟郡が正史にみえる初見は、『続日本紀』延暦10年(791)8月条に、

摂津国百濟郡の人正六位上広井造真成に姓連を賜ふ。

にあるのがそれである。正史以外では、靈龜元年(715)の年紀をもつ長屋王家木閑に百濟郡南里の車長である百濟郡若末呂の名がみられるし、同じく靈龜元年から天平11年(739)までのものとされる『正倉院文書』のいわゆる「従人勘籍」に百濟郡東郷がみられる。また、『正倉院文書』では、天平神護元年(765)2月の「造東大寺司移」には、百濟郡の名がみられる。

郡域・成立年ともに謎が残されている百濟郡であるが、この郡の設立に大きな影響を与え人物として百濟王善光を考えるのが通説とされてきた。善光は、舒明天皇3年(631)に百濟の義慈王によって日本(倭)へ送られた豊璋とともにやってきたとされる。しかし、斉明天皇6年(660)、唐・新羅連合軍によって百濟は滅ぼされてしまう。こうした状況下で、日本からの支援を受けた豊璋は朝鮮半島にもどり、百濟の再興を試みるものの、現地で

の内部争いが起き、天智天皇2年(663年)の白村江の戦いで、日本の軍事援助を受けた豊璋側は大敗を喫し、豊璋自身も高句麗へ逃亡してしまふ。ここに百済の復興は完全についてしまうことになる。

こうした中で、日本に残っていた善光は、帰るべき母国を失い、日本へ定住せざるを得なくなった。『日本書紀』の天智天皇3年(664)の3月条には、善光らを難波に住ませたことが記されている。

善光ら一族は、持統朝のころには「百済王氏」とよばれるようになり、これが姓へと転化したといわれている。このように善光らの一族に王姓が賜与されたことの意味については、日本列島の内に小中華世界を形成するためであるとする説など諸説がみれる。

このような通説に即して、百済郡をみるならば、善光の存在は大きく、このことの原因は、日本と百済との関係が大きく影響しているといってもよいであろう。もともと、百済郡と善光との関係を決定的なものとはみない見解もみられる。それは、百済郡に相当する地域には、7世紀中頃の段階ですでに百済系渡来者集団の定住が実現しており、これは百済郡が成立する以前のことであったというのである。したがって、百済郡に百済王氏が果たした役割は小さくないと考えられるが、善光が百済郡となる地域に住む以前に百済系渡来者集団の定住が考えられることから百済郡の成立については、必ずしも善光一族の存在を立郡の契機とすべきではないというのである。以上のように百済郡に関しては、摂津国に置かれたことは確かなことであるが、その具体的な郡域や成立年代およびその背景といった細部に関しては、明らかでない点も多いといわざるを得ない。

3. 新羅郡・高句麗郡と東国

次に、新羅郡と高句麗郡とについて、成立の事情をみることにしたい。まず、新羅郡からみるならば、現在の埼玉県朝霞市・和光市・志木市・新座市の4市にわたっている。

新羅郡の設立に関しては、『続日本書紀』の天平宝寺2年(758)8月癸亥条に、

帰化の新羅僧卅二人・尼二人・男十九人・女廿一人を武蔵国の閑地に移す。是に於て、始めて新羅郡を置く。

とある。これが新羅郡の建郡記事であり、758年のこととされる。それにしても、ひとつの郡の人口が74人というのはいかにも少ないといえる。当時の地方行政区画は、国→郡→郷であり、一番下の単位である郷は50戸で1郷となっている。1戸の構成員を仮に20人とすると1郷は100人となるから、この74人というのは、その数だけみると少なすぎるといわざるを得ない。

この点に留意して、『日本書紀』をみるならば、天武天皇13年(648)5月甲子条に、百済の僧尼及び俗、男女併せて23人を武蔵国に住ませた、とある。また、持統天皇元年(687)4月癸卯条によると、筑紫大宰が帰化してきた新羅の僧尼及び百姓の男女22人を奉った、とあり、この22人を武蔵国に住ませて土地と食糧を与えて生業に不安のないようにした。さらに持統朝では、4年(690)2月壬申条にも新羅の韓奈末許満ら12人を武蔵国へ住ませたとある。このように、7世紀の中頃から後半には、朝鮮半島からの数々の渡来人がやってきたことを指摘することができる。こうしたことの原因の主なもの、いうまでもなく百済や高句麗の滅亡などによる朝鮮半島における混乱があげられる。こうした動乱を避けて多くの渡来集団が日本列島にやってきたであろうことは十分に想定されるであろう。したがって、新羅郡の建郡に際しても74人によってひとつの郡がつくられたというこ

とではなく、その背景には多くの新羅からの渡来者集団が想定されてよいであろう。

また、新羅郡の建郡記事の中には、多くの僧尼が含まれていることを注目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指摘がなされている。具体的にみると、74人のうちの34人が僧尼と記載されている。この点について、彼らの存在が地域への仏教布教に大きな役割を果たしたといわれている。確かにそうした面は否定できないかと思われる。しかし、その一方で、彼らが身につけていた技術力についても考慮してよいのではなかろうか。古代の僧尼は、仏教の知識はもとよりであるが、その他に医学・天文・土木・文学などといったさまざまな面での素養が必要であり、それが即ち高僧の条件とされていた。このことは何も高僧のみならず、一般の僧尼についてもいえることであつたと思われる。このことは、日本の僧尼に限らず朝鮮半島の僧尼についてもあてはまることであろう。したがって、新羅郡の建郡記事に武蔵国の「閑地」、つまり荒地に郡が設置されたことが記されていることから、開発・開墾のために僧尼の技術力が期待されたとみることも十分に可能かと思われる。

7世紀から8世紀の東国は辺境地域と考えられ、その中の武蔵国も例外ではなかった。先にとりあげた『日本書紀』の天武天皇13年(648)条に百済の僧尼を武蔵国に住まわしたとあるのも持統天皇元年(687)条に新羅の僧尼を武蔵国に居住させたというのもこうした事情があると思われる。特に、持統天皇元年条に新羅の僧尼たちを武蔵国に住まわせた際に、田と食糧とを与えたことが記されているが、これは逆にそうしないと彼らの生活がなり立たないということに他ならないともいえる。この時期の東国は多かれ少なかから、こうした未開拓の土地であったと推測されるが、新羅郡もこの例外ではなかった。次に高麗郡についてのべるならば建郡は新羅郡の設置に先立つことおよそ40年の霊亀2年(716)のことである。『続日本紀』の霊亀2年5月辛卯条をみると、

駿河・甲斐・相模・上総・下総・常陸・下野の七国の高麗人千七百九十九人を以て、武蔵国に遷して始めて高麗郡を置く。

とある。これが高麗郡の建郡記事である。

高麗郡は、武蔵国の入間郡の一部を分割して建てられたとされ、駿河国と相模国をはじめとする東国の諸国から高麗人1799人を集めて置かれた郡であり、現在の埼玉県の日高市・飯能市・鶴ヶ島市のあたりに相当する。

高麗郡が設置されたときの郡司は、高麗若光とされる。この人物は、『続日本紀』大宝3年(703)4月乙未条に、

従五位下高麗若光に王姓を賜ふ。

とあるのが史料上の初見とされる。すなわち、高麗若光は、この段階で高麗王氏となっている。しかし、高麗王氏については、このあとの動向をみるできない。また、若光に関しては、『日本書紀』の天智天皇5年(666)10月己未条に、高句麗が調をたてまつったことがみえ、このときの副使に2位の玄武若光の名が記されている。高麗若光と玄武若光とを同一人物とするのが通説であるが、この点に関しては問題点を指摘する説もみられる。また、高麗郡が武蔵国の入間評(郡)に設置された理由としては、高麗福信の存在が大きいといわれている。『続日本紀』の延暦8年(789)10月乙酉条にみられる福信の墓伝には、

其の祖の福德は唐将李勣が平壤城を抜くに属して、国家に来帰して、福信は即ち福德の孫なり。

とある。これによると、福信の祖の福德は高句麗の滅亡に先立って帰化し、武蔵国に住んだことがわかる。このことが武蔵国の入間評(郡)を分割して高麗郡とした理由とされている。

以上、新羅郡と高麗郡の建郡についてみてきた。両郡の建郡に関しては、いまだ多くの謎があることが理解できたが、いずれにしても両郡が武蔵国の未開発の地に設置されたことは異論のないところであろう。

4. 3つの郡と日本側の対応

百済郡、新羅郡、高麗郡、それぞれの郡について成立の事情をみてきたが、百済郡と新羅郡・高麗郡との間には相違があるように思われる。何よりも違いを強く感じるのは、3つの郡の位置である。すなわち、百済郡は幾内に属する摂津国に設置されたのに対して、新羅郡・高麗郡は幾内から遠く離れた東国に置かれている。このことは、やはり日本と百済・新羅・高句麗との関係性の違いを感じざるを得ない。

さらに、摂津国は日本が外国へ使節を送る際の出発点にあたり、そこに百済郡を置いたということをつまえるならば、日本の百済に対する信頼の高さや優遇度の厚さがうかがわれる。そして、それは百済が滅亡したあとも変わらなかったといえよう。そのことを示す一端として、百済郡の所管する郷にもあらわれているように思う。『和名類聚抄』をみると、百済郡は、東部郷・西部郷・南部郷から構成されている。ここにみられる郷名については従来から機械的であり、地名としてふさわしくないと指摘されてきた。そこから、かつて百済の王都の軍政区画である五部制に倣ったものであるという指摘がみられたが、その後、こうした見解はいわれなくなっているように思われる。しかし、こうした五部制との考えは今後、再考の余地があるのではなかろうか。

百済郡に対して、新羅郡・高麗郡の場合は未開地の武蔵国への入植といった印象が強く、これは、やはり朝鮮半島を統一して日本と緊張関係の強かった新羅やかつての強国であった高句麗への日本列島内における対応といえるのではなかろうか。東国へ住まされた渡来者集団の中に、開発のための技術力を持っていたと思われる僧尼の存在が少なからずみられることも未開地への入植といった要素の強さをいえるかと思われる。

以上、日本列島内に設置された百済郡・新羅・高麗軍を対象としてそれぞれの相違について考えてみた。結果的には、従来いわれてきたことへの確認に終始した感が否めないが、この3郡に関しては、いまだ解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問題が多いことをあらためて指摘したいと思う。

일제강감기 영동지역의 공산주의 운동

이 세 진 (호서대)

1. 머리말

19세기 전세계는 사회진화론을 근간으로 하는 제국주의의 광풍에 휩싸였다. 동아시아에서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도 제국주의 반열에 서게 되었다. 일본 제국주의는 팽창을 거듭하면서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았다. 이에 맞선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과 민족운동가들은 사회개조, 세계개조론이 민족해방운동을 지도할 새로운 사상이라고 여겼다. 개조론은 러시아 혁명 이후 대동사상과 결합되면서 한국인들에게 확산되었다. 당시 개조론은 이광수의 실력양성론과 신민회의 자강론 등으로 구현되었다. 그러나 지식인들은 제국주의에 대항할 무기로써 실력양성론과 자강론이 더 이상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양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제국주의의 논리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무기는 민족주의였다. 민족주의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민족주의 운동 세력은 다시 민족주의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진다. 이때 민족주의 좌파는 일본 제국주의들에 대해 비타협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중을 동원한 반일 정치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사회주의들과 연합하여 신간회를 결성하기도 하였다. 한편 민족주의 우파는 양육강식의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민족은 아직 독립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면서도 직접적인 독립운동에 앞서 실력을 양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다른 한편 한국 사회는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논리로 공산주의 사상이 대두되었다. 공산주의 사상이 식민지 조선에 유입되면서 계급 문제보다 민족문제에 집중되었다. 그 이유는 식민지 상황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계급보다 민족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였기 때문이었다. 민족주의 진영 내부에서도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다. 민족주의 좌파의 민족운동가들은 선실력 후독립노선을 버리고 선독립 무장항일투쟁으로 돌아섰다. 이들은 만주와 연해주 등지로 무대를 옮겨 항일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그중에서도 해외에서 항일무장독립운동을 하던 많은 민족운동가들은 공산주의 노선을 취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의 청년 지식인들 상당수가 공산주의 사상 빠져들었다. 이 글에서는 왜 식민지 조선에서 사회주의가 그토록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글은 식민지 조선의 청년들이 공산주의에 사로잡힌 배경을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내부적 모순 요인의 발화점은 3.1운동에서 찾고자 한다. 외적 요인은 국제사회에 대한 실망과 러시아 혁명과 레닌의 포용정책에서 찾고자 한다.

이러한 공산주의의 확산은 지방의 농민층에서도 일어났다. 공산주의 사상이 지방에서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나타났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강원도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해방 이후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공산주의 운동이 활발했던 지역이다. 공산주의 활성화하게 된 배

경과 지역별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동안 거대 담론의 공산주의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미시사적인 지방 공산주의 관련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목적은 거시사적 맥락 속에서 지방사회에서의 공산주의 발생 배경과 활동을 살피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현대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균형 잡힌 관점을 보이하고자 함이 이 글의 의의라고 하겠다.

2. 제국주의에 대한 대항 담론 사회개조론

유럽에서 시작된 계몽주의 사상은 두 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천부인권설과 사회진화론이다. 19세기 말 일본도 이와 같은 사회진화론을 제국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이러한 가치를 갖는 제국주의자들은 국민들의 애국심과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 자국을 패권국가로 만들어 나갔다. 한국사회는 사회진화론을 극복하고 민족해방운동을 지도할 새로운 사상을 정립해야 하는 사상적 과제가 주어졌다. 1910년대 한국사회는 이러한 사상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 과정에서 민족주의와 대동사상, 그리고 사회개조, 세계개조론 등이 반제국주의 사상체계로서 대두되었다. 이러한 반제국주의 사상체계들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주의가 수용되었다. 이때 수용된 사회주의에는 아나키즘을 비롯하여 기독교사회주의, 길드사회주의 등 다양한 사상적 조류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아나키즘이 주류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사회주의를 사상적 기반으로 하여 공산주의가 러시아 혁명 이후부터 한국인들에게 수용되었으며 1922-23년 무렵부터는 사회주의계를 주도해 나갔다. 사회주의는 일제강점기에는 반제국주의 사상으로서 민족주의와 함께 한국의 민족해방운동을 지도하였으며 해방 이후에는 자주적 민족국가 건설 운동을 이끄는 등 한국의 근현대 사상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먼저 사회개조와 세계개조론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사회개조론이 한국 사회에 수용되면서 당대 지식인들은 개조론의 범주를 크게 내적 개조와 물적 개조 내지는 국내개조(사회개조론)와 국제개조(세계개조론)로 구분했다. 내적 개조를 중시하는 경우 “우리가 결함 있는 제도를 개조하려고 할 것 같으면 정당한 방향과 순서로 말하면 그 제도의 주인공인 사회심(社會心意)의 개조부터 시작하여 아니하면 안 될 것”에서 보여지듯이 그것은 종교와 교육에 관한 개조에 주안점을 두게 된다. 반면 물적 개조론은 맑시즘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사회주의의 이론적 토대로 작용했다. 세계개조의 경우 1차 대전과 같은 참화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제관계에 새로운 평화체제의 구축을 논의하였다. 이는 기존 현실주의적 입장과는 공정한 국제관계의 확보를 위한 공개외교와 외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주장하였다. 즉 분쟁은 조정에 의해 해결될 수 있고 따라서 평화유지가 가능하다는 이상주의적 논리로서 과거의 비밀외교 권력장치를 부도덕하다고 비판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 진행된 것이 월슨의 14개 조항에서 보인 민족자결론과 국제연맹에 대한 논의가 그 예이다.

개조론의 내용은 다양한 범주를 포함하고 있으며,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실천에 옮길 것인가를 둘러싸고 다양한 입장과 견해 차이가 존재했다. 그렇지만 개조론이 등장하게 된 것이 1차 대전 발발의 원인이 되었던 자본주의 체제에 있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개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시 국내외 지식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춘원 이광수도 1919년 9월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독립신문>에서 과

1) 이호령, 『한국의 아나키즘』, 지식산업사, 2001, 14-15쪽.

거의 자본주의의 제도로는 도저히 국내에서 빈공의 적(跡)을 절(絶)할 수 없을지라. 현금 노동문제가 세계개조의 중심 문제가 됨을 보아도 알지니 아국(我國)에도 토지문제 노동문제는 장차 신국가의 중심문제가 될 것이라고 하여 그는 개조의 문제가 자본주의제도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다고 보고 개조 문제 안에는 토지문제, 노동문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러셀의 개조론은 자본주의에 대해 비판적이고 사회개조를 지향하는 사회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볼셰비즘을 포함한 사회주의의 경제적 측면을 강조한 점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당시 식민지 지식인들에게 제기된 개조의 방향은 크게 자본주의 체제를 지장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주의 체제를 지장할 것인가에 놓여 있었다.

또한 러시아 혁명의 성공으로 인한 볼셰비즘의 소개로 지식인들 사이에서의 논의 구도가 더욱 복잡해졌다. 즉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입장, 반자본주의적이며 광의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입장과 이에 더해 볼셰비즘을 반대하는 견해도 포함하는 입장, 볼셰비즘을 긍정하는 입장 등으로 구분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춘원 이광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식민지 조선에서도 개조론이 수용되었다. 양육강식, 적자생존의 원칙이 제1차 대전의 대참사를 가져온 것으로 파악한 식민지 조선인들은 힘의 논리인 사회진화론을 극복할 수 있는 사상을 모색하였다. 이들은 양육강식, 적자생존의 원칙을 부정하고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질서를 수립할 것을 주장하는 사회개조, 세계개조론을 수용하고, 그 입장에서 힘이 지배하는 현재의 세계질서를 개조하여 모든 민족이 평화가 공존할 수 있는 인도, 정의의 사회를 건설할 것을 주장하였다.²⁾

식민지 조선의 상황에서 지식인들은 반(反)제국주의의 무기로서 실력양성론과 자강론이 더 이상 무기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양육강식의 패권주의적인 제국주의 논리에 맞대응할 수 있는 무기는 민족주의였다. 민족운동가들 뿐만 아니라 민중들도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민족주의와 공산주의에서 찾았다. 당시 공산주의 사상이 식민지 조선에 유입되는 과정에도 공산주의 근본 논리라고 할 수 있는 계급 문제보다 민족문제의 차원이 보다 집중하였다. 당시 지식인들은 식민지 상황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계급보다 민족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여겼다.

3. 청년을 사로잡은 공산주의

식민지 조선 내부에 맑시즘이 수용된 것은 대체로 3.1운동 실패 이후 192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1910년대의 한국 공산주의는 실제 국외에서 이루어졌다. 국내에서 공산주의 활동이 시작된 것은 3.1운동 이후 일제가 무단통치로부터 문화통치로 정책적 변화가 있게 되자 해외 공산주의자들이 국내로 잠입하였다. 1925년 4월 17일 조선공산당 창당식이 거행되었다. 이튿날인 4월 18일 박헌영의 집에서 조선공산당의 청년조직인 고려공산청년회가 결성되어 박헌영을 책임비서로 선출하였다.

공산주의는 순식간에 지식인 청년들을 사로잡았다. 3.1운동 이후 공산주의 사상의 급진적 유입을 당시의 한 운동가는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양적 발전을 이룬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산주의 사상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고 공산주의를 모르면 바보 취급을 받을 정도였다.³⁾

2) 류지현, 「식민지시기 러셀의 『사회개조의 원리』의 번역과 수용」, 『한국사학보』, 고려사학회, 2006, 212-226쪽.

3) 김창순, 김준엽, 『한국공산주의운동사』 3권, 청계연구소, 1986, 8쪽.

공산주의는 하나의 유행이 되었고, 심지어 처세의 상식이라고까지 불리게 되었다. 사회주의 서적을 옆에 낀 채 “라이트식 안경에 루바사카를 입고 사쿠라 몽둥이를 들고 돌아 다니던” 모던보이의 모습은 식민지 조선의 새로운 풍경이 되었다.

1920년대 식민지 조선사회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지도 않았고, 근대적인 노동계급이 형성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가 단순히 외부로부터 이식된 수입 사상이라고 폄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다시 지식인들의 지적 유희감이라고 해서 더욱 안 될 것이다. 즉 사회주의 사상의 이식의 측면만 중점을 두게 된다면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경로, 사회주의 사상, 국내 사회주의 사상가들에 대한 측면만을 설명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⁴⁾ 그러나 왜 식민지 조선에서 사회주의가 그토록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가 간과했던 역사적 사실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것의 이유를 몇 가지로 제시해보겠다.

먼저 내적 요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청년들이 공산주의에 사로잡는 데는 분명히 당시 현실 사회에 모순이 있었기 때문이다. 식민지 조선의 비참한 현실, 암흑한 일제의 통치 등이었다. 그 내적인 모순을 가름하는 사건이 3.1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1운동 자체만 놓고 볼 때 3.1운동은 일본의 무단통치가 주원인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쌓여온 우리 내부 모순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3.1운동 원인을 북한학계와 남한학계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북한학계⁵⁾는 3.1운동의 명칭을 ‘3.1인민봉기’로 칭하고 있다. 그것의 성격도 민족대표의 주도성보다 민중의 주도성을 강조한다. 1959년 출간된 3.1운동 40주년 기념 논문집에서는 3.1운동의 기본 원인으로 10월 혁명의 영향을 들고 있다.

3.1운동의 직접적 동기는 일제가 고종을 독살하였다는 소식과 1919년 2월 8일에 동경에 있는 유학생들이 <독립선언>을 발표하고 대중적 반일 집회와 시위를 단행하였다는 소식과 관련되어 있으나 그 기본 원인을 일제의 무단통치하에서 당시 이미 국내에 조성된 일촉즉발의 혁명 정세가 10월 혁명의 직접적 영향 하에 전체 인민들의 직접 투쟁으로 쫓겨나고 있다(엄창중,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과 그의 직접 영향 하에 일어난 동방 인민들의 민족해방 투쟁」, 과학원출판사, 99쪽).

북한학계의 황공률, 김희일과 같은 연구자들, 인민 중심의 관점을 가진 일본의 야마베 겐타로, 강덕상, 박경식, 남한의 이종현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3.1운동이 고종의 독살과 2.8독립선의 영향과 일제의 무단통치하에서 조성된 혁명적 정세 속에서 러시아의 10월 혁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이들 연구자들은 월슨의 민족자결주의를 미국이 조선 인민을 기만 농락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조선의 부르조아민족주의자(민족대표)들이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에 대해 큰 희망을 걸었다고 하여 민족자결주의 이념에 의존한 민족대표를 평가절하하고 있다. 북한학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농민층을 비롯한 인민대중이 과연 민족자결주의나 10월 혁명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⁶⁾

4) 한홍구, 「공산주의」, 『한국사시민강좌』, 일조각, 1999, 94-95쪽.

5) 북한학계의 입장은 마르크스주의의 계급투쟁론을 바탕으로 민족주의론을 수용한 민중적 민족주의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남한에서 1970년대까지 간헐적으로 나타나다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역사학계의 주요한 흐름으로 나타났다(참고, 도면회, 「3.1운동 원인에 관한 성찰과 제언」, 463쪽).

둘째, 남한학계에서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남한 사회에 혁명적 정세가 도래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주체사상 등이 수용되면서 3.1운동에 대한 연구는 급속히 ‘민중적 민족주의’로 기울었다. 이들은 3.1운동의 명칭을 ‘운동’이 아닌 ‘민족해방운동’이라고 바꾸어 부르고 있다. 3.1운동에 참여한 원인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3.1운동의 동인은 한국민족 내부에 형성 축적된 민족독립운동 역량의 내재적 동인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것은 개항 전부터 3.1운동 직전까지의 민족운동의 성과가 한국민족 내부에 축적되어 형성된 것이다. [...] 한말 애국계몽운동이 양성한 수십만의 당시 10세 청소년들과 의병운동에 참여했다가 해산하여 농촌에 잠재해 있던 농민 병사들이 9년 후에 자라서 3.1운동의 전국 각 지방에서 자발적 봉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주체세력이 된 것이다(신용하, 「3.1운동의 사회사」, 『한국학보』, 1983, 39-40쪽).

상층부 부르조아 민족주의자들이 운동에 참여한 궁극적 공기는 물론 일본의 조선 강제 병합에 대한 불만과 총독 정치에 대한 불만 [...] 조선인에 대한 차별정책, 특히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정책(박찬승, 「3.1운동의 사상적 기반」, 『3.1민족해방운동연구』, 1989, 399-401쪽)

토지조사사업과 1914년의 지세령으로 인해 지세부과 토지면적이 80%나 확대 파악되어 결과적으로 지주의 지세 부담이 늘어났고, 도로 및 철도 부설의 명목으로 강제 또는 헐값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등의 용인이 이 시기 일부 지주들로 하여금 민족해방운동에 어떻게든 참여하게 한 동기가 되었다. 그 밖의 각종 기부금 납부, <모지 화장장매장 및 화장 취체규칙>의 강제 시행, 양반의 부역 동원에 따른 불만 등이 그러한 경향을 더욱 가속화시켰다(임경석, 「1910년대 계급구성과 노동자 농민운동」, 위의 책, 1989, 190쪽).

농민은 일제 무단통치의 최대 피해자였다. 무단농정, 중과세, 부역 징발, 토지 수탈, 소작료 인상, 고리대수탈, 각종 농민적 권리의 부정 등은 농민을 비참한 처지로 내몰았다. [...] 양반유생은 대한제국의 멸망, 고종독살 등에 분개하는 신민의식, 향교 재산의 몰수, 공동묘지규칙, 기타 봉건적 특권과 관습의 부정에 대한 불만 독립선언서의 서명에서 유림대표의 노력 등 여러 요인에 자극받아 운동에 참가하였다(정태연 외, 「3.1운동의 전개양상과 참가계층」, 위의 책, 1989, 239-243쪽).

3.1운동에 참여한 식민지 조선 민족은 계급 또는 계층별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졌다는 것이다. 민족대표를 비롯한 지식인들은 강제 병합과 총독정치 및 조선인 차별대우 등이었다. 지주는 지세부담과 토지수용과 기부금 납부 및 부역동원 등이었다. 농민들은 무단농정, 중과세와 부역징발, 소작료 인상 등 경제적 경제외적 수탈과 동원 등이었다. 양반 유생은 고종독살설과 공동묘지 규칙, 봉건적 특권과 관습 부정 등에 분노하여 운동에 참가하였다. 3.1운동은 우리 내부에 축적된 내재된 역량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⁷⁾

공산주의에 대한 식민지 조선에서 확대 전파된 데에는 일제의 식민통치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역사에 가정이 없다고는 하지만 일제의 식민지가 아니었다면 공산주의 사상이 그렇게까지 확산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당시 식민지 조선의 민중들의 열악한 상황은 사회주의가 확산되는 데 토양을 제공한 것이다. 당시 지식인들과 민족운동가들은 이 같은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 무관심할 수만은 없을 것

6) 도면회, 「3.1운동 원인론에 관한 성찰과 제언」, 『역사와 현실』, 한국역사연구회, 2018, 459-460쪽.

7) 도면회, 같은 글, 462-469쪽

이다. 공산주의 사상은 민중의 삶과 역사의 작동원리와 방향을 명쾌하게 길을 안내하는 길라잡이로 다가왔을 것이다. 더 나아가 민중들도 공산주의 사상은 가뭄에 단비와도 같았을 것이다.

다음으로 외적 요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청년 지식인들과 민족운동가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끌린 외적 요인을 살피고자 한다. 첫째, 국제사회에 대한 실망감이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산주의 사상은 3.1운동이 실패한 상황 속에서 유입되었다. 다른 한편 3.1운동으로 분출된 한국인의 독립의지가 확산되어 가던 1919년 3-4월 사이에 국내외 각지에서 임시정부가 수립, 선포되었다. 3월 17일 노령에서 대한국민회의가 성립을 선포한 이래, 4월 11일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고, 4월 23일 국내에서 한성정부가 선포되었다.⁸⁾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1차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한 파리강화회의는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특히 약소 민족들은 미국 대통령 윌슨이 제창한 식민지 민족자결주의 문제를 독립의 기회로 삼고자 했다.⁹⁾ 이에 더해 식민지 조선에 기대감을 안겼지만 실망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와 파리강화회의였다.

먼저 민족자결주의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윌슨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라는 표현을 처음 공개적으로 한 것은 1918년 2월 11일 상하 양원 합동 회의에서였다. 이 연설에서 최초로 공개적으로 윌슨 대통령은 민족자결주의의 원칙과 민족적 열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전쟁에 연루된 모든 영토 문제는 관계된 주민의 이해와 이익을 위해 조정될 것이라는 선언을 함으로써 전후 영토 조정 과정에서 민족자결주의 원칙을 적용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¹⁰⁾

그러나 윌슨의 민족자결은 독일, 오스트리아 등 패전국 식민지에 한정한다는 것이 전제였기 때문에 승전국 식민지에 대한 민족자결 문제는 파리강화회의의 의제로 상정될 수 없었다. 그것이 파리강화회의의 기본 합의였다. 참고로 당시 국제정세는 일본이 1차 대전 중에 영국 등과 함께 연합국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동 1차 대전의 승전국이었다. 그렇지만 독립을 열망하는 약소 민족들은 파리강화회의에서 그들의 독립 문제가 상정되길 바라면서 각종의 청원서를 올렸다. 윌슨의 14개조에서 9개조가 민족자결에 관한 것으로 패전국의 식민지 할양 문제에 관계한 선택적 경우에 해당되었다. 이 제안은 당시 강화회의는 물론 본국인 미국에서조차 외면받았다. 여기서 독립을 확실히 지목한 민족은 벨기에, 루마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폴란드 등이었다.

김규식이 1919년 4월 3일과 5일 신한청년당 대표의 자격으로 파리강화회의에 보낸 <해방을 위한 한국민의 호소를 담은 비망록>과 김규식이 5월 10일 대한민국임시정부 한국대표단 명의로 보낸 <청원서>가 있다. 이 둘의 내용은 서로 비슷하다. 참고로 자격이 신한청년당 대표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표로 바뀐 이유는 1919년 3.1운동 이후 4월 11일 상해 임정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5월 10일 <청원서>에는 김규식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한국 대표가 된 것이다.

파리강화회의는 승전국 식민지들의 민족자결 문제를 철저히 외면했다. 그것은 민족자결의 정의가 아니었다. 제국주의의 확산과 팽창이라는 새로운 세계구도를 결정짓는 민족자결의 배반이었다. 그것은 파리강화회의의 한계이자 과오였다.¹¹⁾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에 고무되어 서구열강의 지원을 얻어 독립을 이루어 보려던 외교론적인 발상은

8) 오영섭, 「대한민국임시정부 초기 위임통치 청원논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2, 81쪽.

9) 장석홍,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한 승전국 식민지의 청원서와 그 성격」, 『한국학논총』,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1, 315쪽.

10) 박현숙,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와 세계평화」, 『미국사연구』, 한국미국사학회, 2011, 154쪽

11) 장석홍, 위의 글, 315-316, 338, 345쪽.

파리강화회의와 워싱턴회의가 철저히 일본의 기득권을 옹호하고 나섬으로써 대중적 설득력을 상실했다. 한동안 민족주의자들 내부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긍정적 역할을 수행했던 자강론이나 준비론 역시 역사의 진전에 따라 민족해방운동의 지도이념이 되기에는 치명적인 결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나라를 잃은 초기에 독립운동의 사상적 구심점으로 기능했던 대종교 등 저항 민족주의도 식민지 조선의 민족적, 계급적 모순의 심화와 대중의 성장에 따라 호소력을 상실하고 급속한 해체, 분화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족해방운동 내부의 지도이념의 공백을 메울 대체 이념으로 등장한 것이 공산주의 사상이다.¹²⁾

둘째, 10월 혁명과 레닌의 약소 민족 지원이었다. 공산주의가 한반도에 도입되기 시작한 1920년대 이념적 채널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다. 러시아 혁명의 성공에 대한 러시아에 거주하는 한인 단체들의 이념적 경도였으며 다음으로 그보다 다소 늦은 시기에 중국 혁명을 목격한 중국(만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통한 이입이었으며 마지막은 도쿄(東京) 유학생을 통한 학습이었다. 이중에서도 가장 크게 들린 것이 러시아 혁명의 성공담이었다.¹³⁾

러시아 10월 혁명 이후 레닌의 적극적인 포용 정책을 취했다. 러시아 10월 혁명 이후 특히 시베리아 내전기에 한인 항일운동 세력은 러시아 볼셰비키 세력에 의하여 적극적 제휴 대상이 되었고 실제로도 러시아 원동지역의 해방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레닌의 포용정책은 3.1운동 이후 많은 민족운동가들이 노령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었다.

러시아의 지방당국자의 자율권 여부가 노령지역의 한인들에게 중요한 문제였다. 지방당국자의 자율권이 많으면 노령지역 민족운동가들의 활동이 자유로웠다. 러시아 2월 혁명 이후의 임시정부 시기라든가 1917년 말에서 1918년 8월까지의 초기 볼셰비키 정권기에는 지방당국자의 자율권이 강했다. 또한 시베리아 내전 종결 이후 1920년대 중후반기의 이른바 신경제(NEP) 시기에는 러시아 지방당국자들은 폭넓은 자율권을 행사했다.¹⁴⁾

또한 러시아의 볼셰비키 당과 소비에트 정부가 임시정부에 대하여 가장 큰 관심과 기대를 가졌던 것은 한인사회당의 이동휘(李東輝)가 국무총리로 참여하였던 1919년 11월부터 1921년 1월에 이르는 15개월의 짧은 기간이었다. 그리하여 상해임시정부 초기에 대소외교를 주도했던 한인사회당의 한형권(韓馨權)과 박진순(朴鎭淳)은 상해임시정부 구성원들이 소비에트 정부와 볼셰비키 세력에 대하여 우호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임시정부에 참여하고 있던 한인사회당 당원들의 상해임시정부에 대한 평가는 레닌을 비롯한 소비에트러시아와 코민테른의 책임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고 소비에트 정부는 임시정부를 매우 적극적인 제휴 상대로 상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러시아 볼셰비키들에게 그 항일혁명 경력이 잘 알려져 있던 이동휘가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로 활약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¹⁵⁾

또 하나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1921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극동피압박민족회의였다. 극동 피압박 민족회의는 당시 자본주의 국가들이 소집한 워싱턴회의(1921-1922)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베르

12) 한홍구, 위의 책, 95-96쪽.

13) 신복룡, 「한국공산주의자의 발생 계기」,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 2001, 61쪽.

14) 반병률, 「러시아 당국과 한인민족운동」, 『아시아문화』,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7, 104-105쪽.

15) 반병률, 같은 글, 489쪽.

사이유회의(1919)에서 미흡하게 처리된 소수 민족문제를 다룸으로써 이들을 껴안으려는 전략이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여운형, 김규식, 박헌영 등은 레닌을 만나 감격과 제정러시아의 모순을 청산한 공산혁명을 눈앞에서 확인하였다. 이 축제를 통해 가장 감동받은 사람은 박헌영이었다.¹⁶⁾

4. 영동지역의 공산주의 활동

강원도 지역은 지금까지 보수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해방 전후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공산주의 운동이 활발했던 지역이다. 많은 경우 그 이유에 대해 가난과 수탈적인 소작제 때문이 아닐까 추측한다. 그러나 동해안 지역의 공산주의 운동은 수탈적 소작제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동해안 지역에 가난과 소작제의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동해안 공산주의의 기원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일제강점기 소작, 모플(MOPL, 국제혁명운동희생자구원회), 농민조합을 살피고자 한다. 본장에서는 공산주의 활성화하게 된 배경과 지역별 활동을 중심으로 살피겠다. 먼저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공산주의가 활성화하게 된 배경을 보기로 한다. 첫째, 브루스 커밍스의 견해를 살펴보기로 한다.

<지역별 토지소유률> 1943년

도 (Province)	자작농 (Owner-Cultivators)	자소작농 (Part-Owners)	소작농 (Tenants)	기타 (Others)
경기	6.8%	11.8%	80.8%	1.3%
충북	11.6	15.0	72	1.4
충남	8.3	13.7	75.9	2.1
전북	5.1	10.1	81.1	3.6
전남	18.2	25.9	63.2	1.9
경북	20.4	19.4	59.9	0.4
경남	15.9	19.4	62.5	2.1
강원	22.1	19.8	56.8	1.2
황해	16.2	12.1	71.4	0.4
평북	23.3	12.9	63.5	0.3
평남	24.0	17.0	58.3	0.8
함북	47.4	21.3	30.9	0.4
함남	32.7	21.6	43.7	2.0
전국 평균	17.6	15.9	65.0	1.4

자료: 조선은행, 『조선통계연감』, 1943, 42~42쪽.

자작농: 경작지의 90% 이상을 소유한 농민; 지주(landlords)는 제외된 수치.

자소작농: 경작지의 50~60%를 소유한 농민(자작과 소작을 겸한 농민).

소작농: 완전소작, 경작지의 10~50%를 소유한 농민.

16) 신복룡, 위의 글, 62-63쪽.

자료를 보면, 남한의 전라도 지역이 가장 높은 소작료율과 함께 전형적인 수탈 지대였음을 알 수 있다. 지주들의 집중은 그 어떤 지역보다 높았다. 전라도 지역은 한국에서 쌀 생산량 가장 많았던 지역이기에 세금에 관심이 있었던 정부뿐만 아니라 이윤추구에 관심이 있었던 일본은 전라도 지역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에 비해 강원과 경북 제주의 소작비율은 전라도에 비해 높지 않다. 전라도는 강력한 인민위원회가 없었으며, 있었어도 쉽게 해체되었다.

한국에서는 소작료율이 높고 땅값이 높은 지역에서 지주계급이 보다 강력하고, 빠르게 분화했으며, 적응성도 뛰어났다. 그렇기에 지주계급은 소작농의 불만을 회피할 수 있었다. 중농과 자영농, 소작료율이 보통인 지역에서는 지주의 지역 장악력이 약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중농과 자작농들에게 집단적 행동을 가능하게 했고, 가족의 사회적 지위 향상(family-oriented upward mobility)을 위해 움직일 수 있도록 하였다.

당시 한국의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강원도는 소작료율이 과도하지 않았으며 주변부에 속해 있던 강원도의 북부해안 지방과 제주지역보다 더 많은 자유와 정치적 공간이 열려 있었다. 이는 지주들이 현지에 부재하거나 불만을 표출하는 소작농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단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¹⁷⁾ 브루스 커밍스는 강력한 인민위원회의 활동을 보다 많은 자유와 정치적 여유, 부재지주, 지주의 지배 수단의 부재 등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조동걸의 견해를 살펴보자. 조동걸은 강원도 동해안의 공산주의를 커밍스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강원도 북부동해안 지역의 활발한 공산주의 운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920년대는 사상논쟁을 일으킨 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등으로 불리는 여러 정치 사회경제의 이념이 중요한 문제였다. 이와 같은 사상이 1920년대부터 만발했던 이유는 3.1운동에서 정의와 인도를 외치고, 아울러 정의와 인도를 실현할 사회건설을 위하여 세계개조와 사회개조를 독립선언서마다 주장하고 있었던 데에 근원적 이유가 있었다. 즉 세계나 사회개조의 구체적 방법론으로 각종 이념들이 만발했던 것이다.

당시 강원도 동해안 지방에서는 농민조합운동이 활발했다. 그 이유를 계급과 민족 문제에서 찾기보다는 해운교통의 조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남쪽으로부터 울진의 죽변항, 삼척의 정라진항 그리고 묵호항, 주문진항, 양양의 용진항, 고성의 거진항, 통천의 장전항구를 거쳐 원산항으로 북상하여 소련의 블라디보스톡 항구로 연결된 해운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 1930년을 전후하여 블라디보스톡에는 코민테른 동양비서부가 있었고, 모플(MOПP, 국제혁명운동희생자구원회: 1927~1929년 블라디보스톡에서 혁명가 및 그 가족의 구원), 즉 국제공산주의운동자 후원회도 있었다. 모플은 함경도 출신의 이 동휘가 간부조직 지도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단체였다.

모플에서 국내로 공작원을 파견하고 있었으므로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가운데 양양, 강릉 삼척 울진의 적색농민조합이 세인의 주목을 받았고 강릉농민조합은 북경의 레닌정치학교 출신자인 권오훈이 주도하여 이색적이었다. 그렇다고 농민조합에 가입해 있던 농민이 모두 공산주의자였다는 것은 아니다. 최용달과 조두원을 배출한 양양, 여운형이 일찍이 강릉 초당 의숙(義塾)에서 교편을 잡았던 강릉, 최익한과 주진수를 배출한 울진의 경우가 그에 해당할 것이다.¹⁸⁾

강원도 인민위원회의가 영월, 강릉, 삼척, 울진 등의 동해안 지역에서 그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난다.

17) Bruce Cum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ume 1, Yuksabipyungsa, 2002, pp. 283-285.

18) 조동걸, 「강원도민이 전개한 민족운동의 특징」, 강원사회연구회, 『강원사회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1997, 592-3쪽.

이것은 대체로 이 지역들이 광산과 공업지역으로 일제강점기 노동운동을 통해 좌익계 세력이 주도하고 있었던 점에 있었다는 점과 관련된다.¹⁹⁾

다음으로 강원도 동해안의 양양 지역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활동을 살펴 보기로 한다. 1927년 12월 김대봉(노동총동맹의 중앙위원, 권오설 책임비서 시기 고려공청원으로서 모스크바 유학생으로 파견됨)의 지도하에 오용영, 김병환, 최옥 등 양양지역의 활동가들은 6개의 리단위 농업조합을 통합하여 군단위의 조직체인 양양농조를 창립했다.²⁰⁾ “전 양양농민조합연합 집행위원회에서는 지난 23일 오전 10시에 조산리 보용학원에서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좌기 사항을 결정하였더라. [...] 전 양양농민조합 □(판독 불능)친회 개최의 건²¹⁾ 양양농민조합은 군내의 문제만 다루지 않았으며, 원산 노동자 파업을 격려하기도 하였다.²²⁾

양양농민조합이 혁명적 적색농민조합이 되기 시작한 것은 1932년부터였다. 양양지역의 조합원 수는 400명에 달했으며, 적색농민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렇다고 이들 모두가 공산주의자라는 것은 아니다. 양양농민조합원들이 검거되기 시작한 것은 1932년 12월부터였으며, 그 숫자는 김병환 외 366명이었다.²³⁾ 이들 가운데 90퍼센트는 석방되고 수뇌부 33명만 기소되었다. 이렇게 검거된 수뇌부는 1934년 재판에 회부되었다.

강원도 양양농민조합사건의 관계자 오용수와 33인의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은 원산검사국을 거치어 동 예 심에 회부되었다가 함흥법원으로 송치 [...] 소화 2년 12일 강원도 양양농민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제1회 집행위원회에서 농민조합조직을 결의하고 동군(同郡)에서 수 개소에 지부를 설치하고 □□(판독불능)결과 소화 3년 1월 경에는 지부 20개소 조합원 400명을 가진 유력한 적색농민조합의 조직의 완결을 보게 되었다. 이에 조합원으로 공산주의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산의식을 함양하는 입장. 조합원 지도정신으로 사회과학적 지식을 보급할 것의 4개조의 강령에 의한 교양 방침을 확립 결정하고 매월 조합본부로부터 강사를 각 지부에 파견하여 자연과학, 정치, 법률, 역사에 관한 강연을 하여 그 기본 조직의 분회조직의 확립에 노력하여 차등의 조직을 중심으로 조합원 미조직 대중조직들을 도모하는 지방 조선공산당과 격려하여 양양군 노동자 계급으로 하여금 그 종국적 목표인 적화를 획책하였다는 것이다.²⁴⁾

1930년대 강원도 양양지역의 농민조합은 마르크스 사상 보급, 계급의식 확산 등 공산주의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이러한 공산주의 사상은 강원도 지역의 대도시였던 함흥과 원산을 통해 유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 함흥은 화학공장이 많은 공업지대이면서 해안지대였기 때문에 공업노동자와 부도노동자 등 노동인구의 이동이 많았던 지역이었다.

뱃길과 철도는 공산주의 사상이 전파되는 주요 루트였을 것이다. 게다가 강원도 양양군에 국내 최대의 철광이 1933년 발견되어 1939년부터 소규모로 개발하였고, 1941년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본격적으로 개발하였다. 이처럼 양양지역은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기엔 적합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19) 강원도사 편찬위원회, 『강원도사 9-해방과 분단』, 2013, 90쪽.

20) 지수걸, 『일제하농민조합운동연구-1930년대 혁명적농민조합운동』, 역사비평사, 1993, 418쪽.

21) 『동아일보』, 「전 양양농조연합회」, 1927년 8월 31일.

22) 『매일신보』, 「양양농조간부 등 4명 송국(送局) 원산파업단을 격려」, 1929년 3월 16일.

23) 『동아일보』, 「양양농조사건피의자 90퍼센트 석방 8개월 취조바든 366명중 55명만 예심회부(원산)」, 1932년 12월 10일.

24) 『동아일보』, 「양양농민조합 오용수 등 삼사(卅四)명 불일(不日)간 공판에 회부 농민계급에 적화(赤化)교양」, 1934년 4월 1일.

강원도 북쪽에 있는 함북 단천에서부터 강원도 남쪽 울진, 삼척에 이르기까지 동해안의 공산주의 활동은 활발했다. 무엇보다도 이는 이동회의 모플과 상당한 연관성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이동회는 모플 자금을 모으기 위해 광산과 어업에 초점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업이 활성화되어 있었던 강원도 동해안은 모플의 좋은 후원자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양양과 삼척 등은 철광과 시멘트 등 광산 지역이었던 점도 그러하다. 둘째, 강원도 태백산맥으로 동서가 막혀 있어²⁵⁾ 강원도 동해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원산, 함흥을 통해 서울 등 도회지로 나아갈 수 있었다. 블라디보스톡 등 외국으로 나아가는 길은 바닷길이 가장 용이했다. 대체로 소련에서 한반도에 이르는 루트는 모스크바-블라디보스톡-함흥-서울 혹은 강원도 동해안의 작은 항구로 이어졌던 것이다. 양양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은 3·1 운동 후 일제 측의 탄압이 극렬하여 반일 감정도 더욱 확대되어 망명의 길을 떠난 사람이 많았다. 이들의 망명의 루트는 자연 대포항을 통해 가거나, 대포항에서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원산, 함흥, 홍남 등의 방면으로 이루어졌다. 양양지역에 사회주의자가 많았던 것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공산주의 사상의 발생을 살펴보았다. 사회진화론을 핵심 근간으로 하는 제국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반제국주의 논리로 우리의 지식인들과 민족운동가들은 사회개조론으로 맞섰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의 상황에서 지식인들은 제국주의에 대항 무기로써 개조론적인 사상이었던 외세에 의존한 실력양성론과 자강론이 더 이상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당시 양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제국주의의 논리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무기는 민족주의였다. 민족운동가들 뿐만 아니라 민중들도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민족주의에서 찾았다. 또 하나는 3.1운동이 좌절된 이후 1920년대 해외로부터 공산주의가 유입되었다. 국내에서 공산주의 활동이 시작된 것은 3.1운동 이후 일제가 무단통치로부터 문화통치로 정책적 변화가 있게 되자 해외 공산주의자들이 국내로 잠입하면서부터였다.

공산주의가 식민지 조선에 확산된 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산주의에 대한 식민지 조선에서 확대 전파된 데에는 일제의 식민통치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3.1운동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듯이 당시 식민지 조선의 민중들의 열악한 상황은 사회주의가 확산되는 데 토양을 제공한 것이다. 당시 지식인들과 민족운동가들은 이 같은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 무관심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공산주의 사상은 민중의 삶과 역사의 작동원리와 방향을 안내하는 길라잡이로 다가왔을 것이다. 더 나아가 민중들도 공산주의 사상은 가뭄에 단비와도 같았을 것이다.

공산주의 사상이 식민지 조선에 확산된 외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국제사회에 대한 실망감이었다. 월슨의 민족자결주의에 고무되어 서구열강의 지원을 얻어 독립을 이루어 보려던 외교론적인 발상은 파리강화회의와 워싱턴회의가 철저히 일본의 기득권을 옹호하고 나섬으로써 대중적 설득력을 상실했다. 둘째는 10월 혁명과 레닌에 포용정책의 긍정적 이미지였다. 러시아 10월 혁명 이후 레닌의 적극적인 포용 정책을 취했다. 러시아 10혁명 이후 특히 시베리아 내전기에 한인 항일운동세력은 러

25)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ume 1, Yuksabipyungsa, 2002, p.340. 춘천에서 산맥을 넘어 동해안에 이를 수 있는 기차나 도로가 없었다(No railroads or unable highway ran over th mountains to the east coast... from Chunchon).

시아 불세비키 세력에 의하여 적극적 제후 대상이 되었고 실제로도 러시아 원동지역의 해방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레닌의 포용정책은 3.1운동 이후 많은 민족운동가들이 노령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산체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영동지역의 공산주의 발생 배경은 살펴보았다.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공산주의 운동은 수탈적 소작제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었다. 동해안 지방에서는 농민조합운동이 활발했는데, 그것에는 해운교통의 조건에도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남쪽으로부터 울진의 죽변항, 삼척의 정라진항 그리고 묵호항, 주문진항, 양양의 용진항, 고성외 거진항, 통천의 장전항구를 거쳐 원산항으로 북상하여 소련의 블라디보스톡 항구로 연결된 해운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

1930년을 전후하여 블라디보스톡에는 코민테른 동양비서부가 있었고, 모플(МОПР, 국제혁명운동 희생자후원회: 1927~1929년 블라디보스톡에서 혁명가 및 그 가족의 후원), 즉 국제공산주의운동자후원회도 있었다. 모플은 함경도 출신의 이동휘가 간부조직 지도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단체였다. 모플에서 국내로 공작원을 파견하고 있었으므로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가운데 양양, 강릉 삼척 울진의 적색농민조합이 세인의 주목을 받았고 강릉농민조합은 북경의 레닌정치학교 출신자인 권오훈이 주도하였다. 최용달과 조두원을 배출한 양양, 여운형이 일찍이 강릉 초당의숙(義塾)에서 교편을 잡았던 강릉, 최익한과 주진수를 배출한 울진의 경우가 그에 해당할 것이다.

강원도 인민위원회가 영월, 강릉, 삼척, 울진 등의 동해안 지역에서 그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대체로 이 지역들이 광산과 공업지역으로 일제강점기 노동운동을 통해 좌익계 세력이 주도하고 있었던 점에 있었다는 점과 관련된다. 광산, 공업지역은 모플 자금을 모금하기가 수월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강원도 북쪽에 있는 함북 단천에서부터 강원도 남쪽 울진, 삼척에 이르기까지 동해안의 공산주의 활동은 활발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이동휘는 모플 자금을 모으기 위해 광산과 어업에 초점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업이 활성화되어 있었던 강원도 동해안은 모플의 좋은 후원자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양양과 삼척 등은 철광과 시멘트 등 광산 지역이었던 점도 그러하다. 둘째, 강원도 태백산맥으로 동서가 막혀 있어 강원도 동해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의 특구였던 함경도와 연해주로 닿을 수 있는 해운과 철도가 연결되었다는 점이다.

이시다 바이간의 ‘체험적 신체지’와 음성언어의 세계

이 기 원 (강원대)

1. 머리말

전근대 석문심학(石門心學)은 이시다 바이간(石田梅岩, 1685-1744)에 의해 개창되고 그의 제자 테지마 도안(手島堵庵, 1718-1786)에 의해 조직화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했다. 테지마 도안은 ‘심학(心學)’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했으며 심학 수행을 위해 교토를 시작으로 오사카, 에도에 심학 강사(講舍)를 설치했다. 심학 강사는 이후 점차 전국적으로 발전하여 최전성기에는 전국에 180곳에 설치된다.¹⁾ 바이간은 기본적으로 유학에 기초해 있으면서도 신도, 불교 등의 교설까지도 수용했다.

바이간은 그 자신의 ‘개오(開悟) 체험’을 저술보다는 강석(講釋)을 통해 서민들에게 전달했다. 강석은 강의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바이간은 강의 형태가 아닌 문답 형태의 강석을 실시했다. 바이간이 사망 후 남긴 것도 “책 세 권짜, 평생 남들의 질문에 답한 말의 초고”였다 (『石田先生事蹟』, 『石田梅岩全集』下卷). 바이간의 『검약제가론』과 『도비문답』은 이러한 문답을 정리한 것이다. 이처럼 바이간의 행적에서 보이는 것은 ‘글쓰기’ 보다는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과 ‘문답’하는 모습이었다. 바이간이 저술보다는 문답에 의한 강석으로 ‘개오체험’을 전한 이면에는 학문을 전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 바이간은 ‘문자’ 보다는 ‘음성언어’가 ‘개오체험’을 전하는데 더 효과적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간은 ‘이성지(理性知)’ 보다는 ‘체험’에 의한 ‘신체지(身體知)’에 더 주목했다.

2. ‘탈문자’와 ‘음성언어’의 세계

바이간의 초기 ‘강석’은 그다지 인기는 없었던 모양으로 “강석을 열었을 때는 아침 저녁 모두 청중이 대략 두 세 명에서 네 다섯 명에 지나지 않았다”거나 “어느 날은 밖에 사람도 없고 선생과 친분이 두터웠던 벗이 있었는데 이 사람과 단지 마주앉아 강석을 했다” (이상 『石田先生事蹟』)고 하여 한 사람 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애당초 문학에 서투른 강석이기에 청중도 적었다”(『儉約齊家論』)는 바이간의 회고도 있다.

바이간의 ‘강석’은 일반적인 ‘유자(儒者)’들의 학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소독과 같은 강석’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소독’이란 한문의 일본식 훈독의 기초 과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바이간의 초기 ‘강석’은 ‘서물을 훈독하는 기초적 수준에 지나지 않는’ 정도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바이간은 “나는 배우지 못하여 사서오경조차도 가나로 읽었다.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오늘까

1) 석문심학의 계승 문제는 시바타 미노루(1971), 「石門心學について」, 『日本思想大系』42, 岩波書店、高野秀晴(2003), 「手島堵庵による石門心學の創出」(『日本思想史學』35号, ペリカン社) 참조.

지 강석에 오는 청중도 끊이지 않으며 그 중에는 친한 제자도 있다”(『儉約齊家論』)고 회고한다. 한문도 제대로 읽지 못해 ‘사서오경조차도 가나로 읽는’ 정도의 수준에, 청중들에게 그다지 인기가 없었던 바이간의 ‘강석’이었음에도 청중이 끊이지 않았으며 입문한 제자도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여기에는 바이간의 ‘강석’이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일종의 변화가 있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이야기의 도입’이라는 방식의 전환이 있다. 바이간은 ‘문자가 없으면 학문의 보람도 없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세상의 세태를 비판하면서 ‘문자’에 의한 학문이 아니어도 청중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한다. 바이간은 대중들에게 ‘문자에 의한 학습’이 아닌 ‘이야기’ 중심의 강석이 교화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간파했다. 경서의 의미를 해설하는데서 그치던 초기 바이간의 강석은 ‘이야기’를 담은 형태의 강석으로 발전했다. 강석에서 ‘이야기’의 도입은 바이간 사후 테지마 도안에 의해 ‘도화(道話)’라는 형태로 발전했다.

(오구라 료운이 말하길) 마음은 일신의 주인이다. 몸의 주인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방랑자로 머무를 곳 없는 것과 같다...나는 생각을 말하려 했지만 계란으로 바위에 던지는 것과 같았으며...그때부터 다른 일에는 마음이 가지 않고 낮에도 밤에도 어찌지 어찌지 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몸도 지쳐 매일을 보내기를 1년 반 정도, 그 즈음 모친이 병이 나 20여일을 간병하는데 그 자리를 일어서려 하는데 그 때 갑자기 의식이 사라져... 20년 동안의 의문이 해소되었다. 이것은 문자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수행한 바의 것이다.『都鄙問答』 권1, <都鄙問答の段>

바이간은 스승 오구리 료운의 ‘마음은 몸의 주인’이라는 말에 자극되어 1년 반 정도 수행의 시간을 보낸 어느 날 홀연히 ‘인간의 도는 효제충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바이간은 『石田先生事蹟』에서 ‘성은 천지만물의 부모’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바이간이 ‘개오체험’한 것은 ‘천지자연의 도와 인간의 도’의 근원적 내용이였다. 그런데 여기서 바이간이 말하는 것처럼 ‘개오체험’은 ‘문자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수행한 것’이라는 부분이다. ‘문자’에서 벗어나 ‘수행’이라는 ‘체험’으로 사물의 이치에 도달한 것이다.

바이간이 ‘말하기’에 의한 ‘개오체험’의 전달 이면에는 상업출판에 의한 식자층의 성장 그늘에 “문자세계에서 소외된 다수의 비식자 민중 층의 존재도 드러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辻本雅史(『江戸の学びと思想家たち』, 2021)). 바이간의 시대에는 상업출판의 성장에 따르는 이른바 ‘독서하는 민중’이 출현했다. 이러한 현상과는 별도로 책을 가까이 하지 않거나 책을 읽지 않는, 또는 읽지 못하는 ‘비 식자층’도 여전히 존재했다. 바이간의 ‘문자’에의 불신과 ‘말하기에 의한 강석’에는 ‘비 식자층’까지도 사정권에 있었다. 바이간은 청중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자신의 ‘개오체험’을 전한 것이다.

이처럼 문자의 세계에서 이탈하여 이야기로 구성된 바이간의 강석은 석문심학이 대중들에 공명하는 중요한 방법이었다. 바이간의 강석은 음성언어가 중심이었으며 바이간의 ‘학문’은 음성언어로 구성된 것이다. 청중의 입장에서 ‘학문’은 ‘읽기’가 아니라 ‘듣기’를 통해 형성된다.

3. 문답법을 통한 ‘학문’의 전달

바이간은 교토에서 봉공을 하면서 독학으로 공부했다. 그는 특정한 스승에게 입문하지 않았다. 전술한 것처럼 바이간은 불학(不學)이어서 한문으로 된 ‘사서오경’을 ‘가나’로 읽을 정도였다. 바이간이 한문을 ‘가나’로 읽었다는 것은 한문 학습의 기초과정인 ‘소독’을 배우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한문을 원문으로 자유자재로 읽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도비문답』에는 유학의 경서를 비롯하여 불교, 일본의 고전에 대한 인용이 많다. 또한 바이간의 유학적 경향은 기본적으로 주자학에 기초해 있지만 『도비문답』에 있는 ‘사서오경’에 대한 해석이 반드시 주자학을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바이간이 강석을 열었을 때 유자들이 그를 비웃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서 이해나 한문을 자유롭게 잘 읽지 못하는 자가 청중들을 모아놓고 강석을 한다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바이간은 장소를 이동하면서 강석을 진행했다. 일반적인 강석이 선생의 자택 등 특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의외적인 요소가 있다.

출강석을 한 곳은 오사카, 가와치(河内), 이즈미(和泉), 오사카에는 가끔 가서 강석을 했다. 교토에서도 장소를 바꿔 30일 혹은 50일 數席 강석을 했다. 집에서 매일 아침, 저녁에는 격일로 강석을 했다. 또 월차로 세 번 모임이 있었다. 그것은 함께 질문을 하고 문인에 답서를 시키고 선생도 답을 쓰고 판단하는 것이었다. 『石田先生事蹟』

바이간은 주로 교토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강석을 했지만 교토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도 강석을 했다. 또한 바이간은 오사카와 인근의 가와치, 이즈미 까지 가서 강석을 했다. 이것은 ‘학문’이 필요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전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강석 장소의 이동은 데지마 도안에 의해 각지의 심학 강사의 설립으로 이어졌다고 보인다. ‘출강석’은 바이간의 강석이 그만큼 많은 청중들에게 인기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바이간의 강석은 ‘질문을 하고 문인에 답서를 쓰게 하고 자신도 답을 쓰는’ 형식이었다. 이처럼 바이간의 강석은 ‘질문과 대답’에 의한 상호성을 갖는 문답이 특징이었다. 이러한 바이간의 ‘강석’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강연이라기 보다는 청중과의 ‘일대일의 대화’ 즉 ‘다이알로그(dia-logue)’의 형태라는 견해가 있다(辻本雅史(2011)).

확실히 바이간의 행적을 기록한 『石田先生事蹟』을 보면 바이간의 강석은 불특정 다수의 청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과 같은 형태의 강석보다는 특정한 대상과의 대화라는 면이 강해 보인다. 그것은 예를 들어 “낮에는 오는 사람이 많았고 또 시간을 정하지 않고 강석을 청하여 듣는 사람도 있다. 저녁은 매일 해시(亥時)까지 문인이 모여 듣는 바의 의심나는 것을 묻고 논했다”(『石田先生事蹟』)거나 『도비문답』의 집필이 끝났을 때 “유키 후지 모씨, 모리 모씨가 『도비문답』을 보고 모리씨는 의심나는 곳을 글을 써서 선생에게 질문하였고 유키 후지씨는 와서 문답하는 일 두 번 종일에 이르렀다”(『石田先生事蹟』)는 기록에서도 분명하다. 『도비문답』을 둘러싸고 문인들과 시간에 구애됨 없이 문답하는 바이간의 모습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바이간은 ‘학문의 강령’, ‘지극한 학문’ 또는 ‘학문의 힘’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다. 예를 들어 “본성을 아는 것은 학문의 강령”(『都鄙問答』 권1, <都鄙問答の段>), “심성이 어떠한지는 평판을 제외하

고 그 외에 지극한 학문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都鄙問答』 권1, <都鄙問答の段>), “상인은 정직하게 생각하여 서로가 터놓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뜻은 학문의 힘이 없으면 알지 못하는 바이다”(『都鄙問答』 권2, <或學者商人の學問を譏の段>) 등 ‘학문’이 갖는 유용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러한 바이간의 학문이란 “일상적 여러 문제를 극복해 가는 힘의 원천”이었다(辻本雅史(2011), 210쪽). 일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한 과정, 일상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학문’이었다. 그렇다면 바이간이 행한 문답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혹자가)문기를 저에게는 아들 녀석이 하나 있는데 학문을 희망하여 제발 단기간이라도 좋으니 교토로 가서 하다못해 『소학』이나 『대학』의 강석을 받고 싶다고 몇 번이고 간청한다. 그대(바이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약간 망설여지지만 말하겠다. 히메지 근방의 유복하여 전답도 많은 자들이 (자신의 아들에게) 학문을 시켰더니 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일어난 모양이다. 『都鄙問答』 권1, <播州の入学問の事を問の段>

히메지번에 거하는 ‘어떤 사람’이 바이간에게 묻는다. 자신의 아들이 학문을 하고 싶어 교토로 보내 달라고 하는데 아들에게 학문을 시킨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히려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에 바이간은 ‘어려운 일’이란 무엇인지를 다시 묻는다. 이에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혹자가)말하기를 학문을 시킨 자들도 열 중 일곱 여덟은 상업과 농업을 등한시하고 여기에 더하여 칼을 차기를 바라고 자신을 으스대고 타인을 깔보며, 부모에게도 면전에서 불효는 하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부모를 배운 것이 없다고 여기는 표정을 보인다. 『都鄙問答』 권1, <播州の入学問の事を問の段>

여기에서 보듯이 ‘어려운 일’이란 학문을 하면 인품이 더 좋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 나빠져 ‘열 중에 일곱 여덟은 상업과 농업을 등한시하고’ 여기에 ‘칼을 차기를 원하는’ 즉 사무라이 흉내를 내며 ‘타인을 깔보거나’ ‘부모를 업신여기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혹자’가 말하는 ‘문제의 자제’는 “학문을 한 자제들 중 칠 팔 할은 교토에서 이름난 선생에게 배운”(『都鄙問答』 권1, <播州の入学問の事を問の段>)자들이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교토의 이름난 선생’에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성품을 보였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 여기서 바이간은 ‘학문의 내용’의 문제를 문제 삼는다. 어떠한 ‘학문’을 할 것인가에 따라 인간의 성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위 대화는 다음의 바이간의 대답으로 이어진다.

답하여 그대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렇게 배운 자들은 모두 인륜에 반하는 것이다. 가르침의 길은 인륜을 밝히는 것뿐이다. 스승이라는 자는 가령 배우는 자가 적이라 하더라도 성인의 길에 반하여 가르쳐서야 되겠는가? 『都鄙問答』 권1, <播州の入学問の事を問の段>

바이간은 인륜의 도를 가르치는 것이 ‘학문’이라고 말한다. 인륜의 도에 반하는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륜의 도, 즉 성인의 도는 무엇인가? 바이간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학문의 길이란 첫째 자신의 몸을 공경하고 의로 주군을 귀하게 여기며, 인애로 부모를 섬기고 신뢰로 벗과 교유하며, 널리 사람을 사랑하고 빈약한 사람을 어질게 여긴다. 공이 있어도 자랑하지 말며, 의복에서 각종 도구에 이르기까지 검약을 지키고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는다. 가업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재산은 수입을 잘 생각하여 나가는 것을 잘 알고, 법을 지키고 집안을 잘 다스리는 것이 학문의 길이다.(『都鄙問答』 권1, <播州の人學問の事を問の段>)

바이간은 참된 ‘학문’은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한다. 그것은 유학의 ‘오륜’이다. 이 ‘오륜’은 예컨대 검약을 지킨다거나 화려하게 꾸미지 않는다거나, 가업을 소홀히 하지 않고 지출에 맞게 살림살이를 하는 등에서 보듯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오륜’이다.

또 다른 대화를 보자. ‘혹자’는 바이간에게 ‘효’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혹인이 묻기를 나는 젊은 시절 앞뒤를 생각지 않고 살았기에 부모에게 불효한 일도 있다. 이제 장년이 된 무렵부터는 효행의 마음도 있어서 어떠한 불효도 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노력해 왔지만 이 정도의 효행은 세상에 있는 일이라면 천하에 누구이며 이름이 불릴 정도의 효행을 하고 싶는데 어찌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都鄙問答』 권1, <孝の道を問の段>

‘혹자’는 바이간에게 세간에 칭찬받는 ‘효’를 하고 싶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묻는다. ‘혹자’는 세간의 평판이라는 측면에서 ‘효’의 이익에 대해 바이간에게 물었지만 이에 대한 바이간의 대답은 ‘효’의 실제에 대한 것이었다.

답하기를 부모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고 자신의 얼굴빛은 온화하게 하고 부모가 마음의 아픔을 느끼지 않도록 섬기는 것이 효행이 아닐까? (『都鄙問答』 권1, <孝の道を問の段>)

여기서 바이간은 ‘효’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여 ‘효’를 주지시킨다. 바이간의 ‘효행’의 설명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이 ‘효’라고 말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어느 사람’은 다시 “말하길 내가 묻는 것은 부모를 섬기는 방법이다. 그 급한 것을 제쳐두고 단지 단순하게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都鄙問答』 권1, <孝の道を問の段>)라고 했다. 그는 ‘마음을 아는 것’이 어째서 ‘효’가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바이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말하는 바는 모든 것에서 부모를 섬기는 길에 대한 것인데 그대는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음을 아는 것이 급선무이다.(『都鄙問答』 권1, <孝の道を問の段>)

바이간은 ‘효’를 ‘부모를 섬기는 도’에 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효’의 대상이 되는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효’의 핵심이 된다. 바이간은 ‘마음을 아는 것’이 오륜의 중핵이 된다고 판단했다. 바이간의 문답법은 문자를 모르는 자가 들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평이한 언어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日本語教育でつながる

— 越境コミュニケーションと日本語教育 —

北出慶子(立命館大)

韓国で日本語を学ぶ学生と日本の学生との正課・非正課での交流は、随分前から実践されてきた取り組みである。ITの高度化と普及に伴い、対面だけではなく、オンライン上で同期・非同期、多様な形でつなが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また、感染症拡大による渡航制限期間においては、オンライン上での交流が双方の学生間をつなぐ貴重な手段としても機能した。このように学生間の韓日交流は身近なものとなったが、その形や意義は、社会の変化、言語学習や言語教育における考え方の多様化とともに過去30年で大きな変化を見せている。

まず、使用言語における変化が挙げられる。日本語使用だけではなく、英語、または日本の大学で韓国語を学ぶ学生が急増したこともあり、韓国語と日本語の二言語併用での交流も見られる。最近では、日本の大学に留学している中国人学生、韓国の大学に留学中のベトナム人学生、といった第3言語使用者の参加も珍しくない。また、このような交流の意義自体についても多様な見方がされるようになった。例えば、「ネイティブ」相手に目標言語を使い、言語知識を獲得し運用能力を鍛える機会とみなすこともできる。または、同世代同士でコミュニケーションし、共通点や違いを知ることで相互理解を深めるきっかけになるとも考えられる。さらには、オンライン辞書も含め、多様な言語・非言語リソースを駆使して意思疎通を図り、新たな意味を生み出すトランス・ランゲージングの実践と捉えることもできる。

本発表では、このような交流がどのような意味を持ち得るのかについて言語教育・言語学習の理論的背景から考察を試みる。具体的には、1990年代以降のグローバル化の加速に伴う言語教育および日本語教育における思想的転換から変遷を概観し、今後の展開に向けて議論する。過去30年で顕在化してきた「ことば」、「文化」、「学び」といった概念の捉え直しが、国などの既存の枠組みを越えた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どのような可能性をもたらうるのかを踏まえた上で、それぞれの目的にあった場の設計について検討する。特に、多文化・多言語交流の第3形態ともいえるトランス・ランゲージングを目的とした実践例を報告し、そこから見えてきた可能性と課題について議論する。

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授業事例

— ブレンド型学習の実践報告 —

張根壽 (祥明大)

1. はじめに

現代社会は情報化基盤のグローバル社会である。世界の人がインターネットでつながり、互いに多量な情報を交換している。一つの地域・国境を越え、他の文化圏とも自由に交流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それだけ多様な言語や違う文化的背景をもつ人との接触が可能になり、異文化間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は何よりも重要になってきた。

一方で、現代社会は人との接し方も変わってきた。従来と違い、個人化の問題が深刻になり、他文化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仕方や他人との協業・調和、共感力などが重視されてようになった。つまり、自分と違う文化的な背景をもつ人とうまく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とれる能力が求められている。このような問題を踏まえ、本発表では教育の現場で人や社会・世界とどのように交流、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取るかという問題を取り上げる。その事例として、「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授業の実践報告を行う。

2. 理論的背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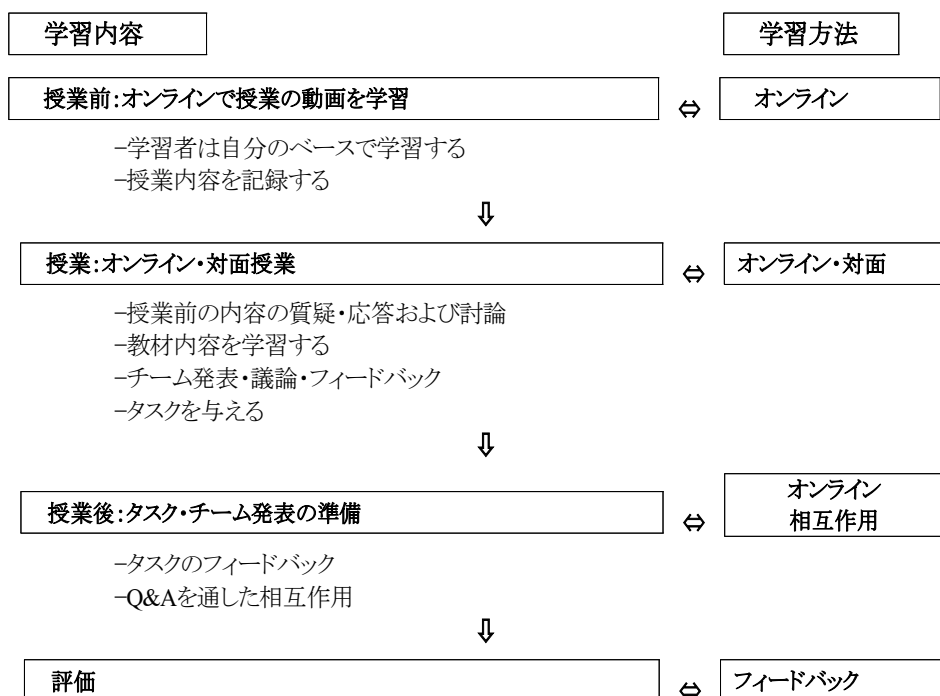
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とは、「文化的背景を異にする(異文化)存在同士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ことである。これは違う国の人同士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だけでなく、同じ国の人であっても、地域、性別、年齢、職業、社会的な地位など数多くの文化的な違いが存在するというを意味する。英語では「intercultural communication」で、自分の国で獲得したコミュニケーション行動を背景にする人が、文化的な背景の違う人と接触する場合、言語や文化などの習慣の違いによる誤解や摩擦が生じる。この時に生じる問題点や解決方法を模索することによって、互いの文化の違いによる摩擦を事前に回避するために始まったと理論である。

日本では2006年、総務省の「多文化共生」という概念が推進され、「国籍や民族などの異なる人々が、互いの文化的ちがいを認め合い、対等な関係を築こうとしながら、地域社会の構成員として共に生きていくこと」という旨で様々なプログラムが進められている。自分とは異なる文化を理解し、異文化間の交流を続けるということは、結局「多文化共生」へつながると考えられる。このような背景には多文化社会への変化が考えられるが、韓国も多文化社会へと急速に進んでいる。一般に、人口の5%以上の外国人が暮している社会を多文化社会と定義しているが、韓国は2020年、多文化社会に入っている。また、急速な少子化の問題も一つの原因とされる。少子化による社会性の欠如や個人化の問題が生じ、他人に対する共感、協働・協業が重視されるように

なった。今は、異なる文化を持つ人々がそれぞれの文化を互いに認め合い、共に協力しながら生活するための工夫が必要である。

3. 「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授業モデル

本節では、本学で行われた「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授業内容を紹介する。対象とする科目は、2021年2学期に大学2年の専攻科目として開設されている。受講生は22名で、韓国人の学生が17名、留学生が5名(日本人2名、ベトナム人3名)である。授業は週3時間で、19年度はコロナの影響で「動画コンテンツ」と「ライブオンライン授業(同期型学習)・対面授業」が融合した「ブレンド型学習」の方式で行った。週3時間のうち、1時間は動画コンテンツ、2時間はライブオンライン、あるいは対面授業を行った。



<図1> 「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授業モデル

今回は「ブレンド型授業」の中でも「ハイフレックス型」を導入した。教室にはウェブ用のカメラが設置され、それがwebexシステムと連動する仕組みで、校外でも大学のLMSシステムに接続すれば、教室の音声や画像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たしかに、教室という場所に制限されることなく受講できるということがメリットであるが、教室の状況とオンラインでの状況を両方とも観察しながら授業を進めるということになり、授業の負荷が多くなる部分もあった。たとえば、今まで対面授業で行った教室活動がハイフレックス型授業ではうまく行えないことや、オンラインで参加する学生の状況の把握が難しいという問題点もあった。

4. 授業の内容および活動

日本語関連の大学で「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という科目の開設はそれほど多くなく、開設されてもその内容は大学によって違いがある。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定義が広だけあって、そこで扱えるテーマも様々であるのが現状である。内容としては、韓日間の社会言語学的な言語行動を含め、両国の文化・生活様式の違いを扱っているケースもある。

<表1> 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授業内容

週	学習内容	活動と課題
1週	見える文化と見えない文化・文化の冰山モデル	見える文化・見えない文化の調査
2週	異文化適応過程・カルチャーショック	カルチャーショックの事例
3週	高コンテキスト・低コンテキスト文化・空間学	コンテキストによる文化の違い
4週	ホフステードの文化理論・文化測定	ホフステード文化理論のまとめ
5週	権力距離・集団/個人主義・女性/男性性・不確実性回避・短期/長期指向・充足/抑制	ホフステード文化理論と韓国文化
6週	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グローカリゼーション	グローバルとローカルの事例
7週	医療・教育・ビジネスで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	西洋の文化と東洋の文化
8週	中間テスト	オンライン
9週	身体動作・接触行動・周辺言語	非言語コミュニケーション
10週	空間学・ドレスコードの事例	韓国の文化と他国の文化
11週	数字で見る異文化	数字やコードで見る文化
12週	人種差別・ジェンダーの問題	差別の文化
13週	タブー・忌み言葉	タブーの文化
14週	色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色と文化	文化による色の違い
15週	期末テスト	オンライン

この授業では韓国と日本を中心に文化相対主義の観点から文化接触や交流の事例を取り上げた。また、世界自民としての教養・意識も考慮に入れ、他の国の事例も調査し、発表する活動も行った。ただ、それぞれの国の文化的な違いを探して報告することに止まらず、なぜその違いが発生するか、それからその違いをどう解釈し、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していくかに重点を置くようにした。9週目からは、対面授業も許容され、タスクを基盤とした「チーム発表」を行った。発表内容は、異文化、他言語、コミュニケーションと関連したテーマをPPTで製作し、1回のグループ発表を行った。基本的にはチームプロジェクトとしていくつかのチームに分け、それぞれ

のテーマを決め、共同作業でチームの成果を発表する形である。これにより、今の時代に要求される協業・問題解決能力を身につけるようにした。

<表2> グループ発表の内容

構成	発表テーマ
韓国人学生 (17名)	異文化の適応過程 / 日本での適応過程 非言語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事例 / 韓国と日本のドレスコード エドワード・ホール of 文化理論 (文化比較) ホフステードの文化理論 (韓国の社会) タブーの文化 (忌み言葉の事例) 差別の問題 (コロナ以降のアジア人に対する差別) 韓国の多文化社会 (現況と問題) 数字で見る異文化 / 色で見る異文化 (国別色のイメージ)
日本人留学生(3名) 関東出身1名、 関西出身2名	韓国と日本の文化の違い / 生活する上で感じたマナー 地下鉄での通話などマナーの違い 関西と関東の違い・習慣・交通・食べ物・名称など
ベトナム人留学生 (3名)	ベトナムの元旦に行われる行事とその意義 ベトナムの食べ物の特徴と韓国との比較 ベトナムにおける男性と女性の役割、性差別の問題、ジェンダ意識

グループ発表の意義として、特に留学生が自分の国の事例を紹介し、それを韓国と比較することで互いを理解することができたという点である。留学生の場合、韓国語能力にある程度差があり、授業内容を理解した上で討論することには限界があったが、発表では自分の国の行事や文化をしっかりと伝えることができるし、他の学生にも勉強や刺激になった。

一方、「異文化の知識を勉強することはおもしろく有益だが、実際どのように応用するか」という声もあった。異文化に対する理解や知識を学び、これをどのような活動につながるかという問題であるが、その方法の一つとして「プロジェクト・課題解決型(PBL)」授業が考えられる。教員が講義が中心ではなく、学生が自分の意見を自由に述べる発表や討論による学生中心の授業が望まれる。最後に、学期末に授業内容の満足度に対するアンケート調査を行った。

<表3> 「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授業内容の満足度

項目	5	4	3	2	1
授業内容の満足度 (異文化理解に役立ったか)	12	9	2		
ブレンド型学習の満足度 (オンラインでも効果があったか)	10	9	4		
動画コンテンツの適切性 (動画コンテンツは効果的だったか)	9	8	5	1	
評価の客観性・信頼性 (中間テストは適切だったか)	4	6	7	5	1

調査結果を見ると、「授業内容の満足度」は、異文化理解という授業の目標を大方達成したと評価できる。一

方で、問題になるのが「評価の客観性・信頼性」の項目であるが、コロナの影響により中間テストをオンラインで行った。オンライン授業で常に問題になっているのが評価の客観性・信頼性の問題である。オンライン授業での評価の問題は、大学のLMSの効果的な活用とも関わるので、今後解決し課題であると思われる。

5. おわりに

「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授業事例の成果・問題点などを提示する。

最初に、「授業前(オンライン)→授業(オンライン・対面)→授業後(相互作用)」の循環モデルを提示した。授業の前の動画コンテンツは事前学習の道具として活用できるが、動画コンテンツの質的な問題を含め、効果的な活用方法はさらに改善していく必要がある。次に、オンライン授業では授業後のタスクに対するフィードバックなどの相互作用が重要である。学習ツールやLSMなどで、オンラインでも十分、相互作用が可能であることを確認した。さらに、「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は多言語・多文化時代に必要な科目であり、学習者の満足度が高かった。異文化交流のためには韓国人の学生と留学生の協業・協働が大事である。

今回の事例を基礎資料として、今後、プロジェクト基盤の問題解決型、実習・体験活動につながる授業づくりを計画していきたい。

日本古典文学教育、どう教えるか

— 『万葉集』を例として —

朴相鉉 (慶熙サイバー大)

1. はじめに

韓国日本学会50周年を記念して韓国日語教育学会が企画した主題は「グローバル社会におけるコミュニケーションと日本語教育」です。今現在私たちがグローバル社会に生きていることを考えると、この主題はとても意義のあるものだと思います。さて、本日私が発表するテーマは「日本古典文学教育、どう教えるか—『万葉集』を例として—」です。

さて、現在東アジアは様々な理由で相互信頼が薄くなる一方です。今だからこそ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大事だと思われれます。こうした認識に基づいて、本発表の結論を先に申し上げますと、「日本古典文学教育、中でも『万葉集』を教えることが東アジアにおける国際交流の記憶を呼び戻し、今後この地域における相互理解のために大きな役割を果たすことが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趣旨の発表を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なぜかと言うと、『万葉集』には古代日本の言語と文化のみならず、古代中国の古典が引用されており、さらに古代朝鮮の痕跡が残されているからです。これらは古代東アジアが相互信頼や尊重に基づいた一つの文化圏だったことを示しています。

本発表には二つの質問が含まれています。一つ目は、「日本古典文学とは何か」です。二つ目はそれを「どう教えるか」です。まず最初の質問です。一般的に「日本古典文学」というと日本の近代以前の文学作品を意味します。ここで問題は数多い近代以前の文学作品の中で「何を古典として選ぶか」ということです。韓国で日本古典文学を教えている先生方が意識的あるいは無意識的に主に使う方法は日本で出版された古典文学に関する教材を採擇したり、韓国語で訳された教材を借用したりすることです。または古典文学を担当する教員がいくつかの古典文学作品を選び、またそこから重要だと思われる部分を抜き出して日本語そのままあるいは韓国語で翻訳して使うことです。このような古典の選定で大きな影響を及ぼしているのは日本の学界での評価です。日本文学を含め外国文学を研究する外国の研究者が、その学問の本国で行われた学問的成果を無視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この方法における最大の長所は、日本での研究成果を韓国の学生たちに伝え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です。ところが、この方法における短所は、韓国人研究者の観点が入る余地があまりないということです。最初の質問に対する具体的な答えは、本発表の二章で述べたいと思います。

二つ目の質問は「どう教えるか」です。この質問は、先に申し上げた日本古典文学の教材と密接に関わっています。学部で用いられる教材は、日本古典文学における全般的な説明とともに、主要な作品を抜き出したものでできている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と思います。一学期、多くても二学期で日本古典文学を体系的および効率的に教えるには、主な日本古典文学作品を扱ったダイジェスト版が最適だと思われれます。したがって、日本古典文学を擔當する教員は、日本古典文学のダイジェスト版に適した教授法を取り入れることとなります。こ

の教授法は限られた時間に最大の量が教えられるというのが長所です。しかしながら、それぞれの作品から選ばれたものを学ぶことによって、個別の作品に対する綿密な学習は行われにくいと思われます。二番目の質問に対する具体的な提案は、本発表の三章で述べたいと思います。

ところで、先におことわりさせていただきたいのですが、本発表は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スキルを磨く、あるいは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技術を向上させる方法に関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東アジアというグローバル社会における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内容に関する発表です。さらに、その内容は日本の古典、『万葉集』に関するものです。ですから、日本語教育や日本語学の専門家の先生方にはおもしろくない発表になりうるかもしれません。が、韓国での日本古典文学教育を見直すことで東アジアにおける人々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幅を広げ、古代東アジアにおける国際交流の記憶を呼び戻し、東アジアにおける漢字文化圏という文化共同体の回復や強化につながっていくのではないかと思っております。そして、さらにそこから新しい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方法を生み出していくのではないかと思っております。

2. なぜ『万葉集』なのか

ご存じのように『万葉集』は7~8世紀に成立されたもので、ここには約4500首に及ぶ歌が納められています。ところで、何年か前に『万葉集』が韓国で話題になったことがあります。「令和」という日本の元号のためです。最近ご逝去された安倍元首相は、「令和」は『萬葉集』に由来するものだとし、『萬葉集』が日本固有の歌集であることを強調しました。しかし、安倍元首相の発言とは異なり、『万葉集』には当時古代東アジアの古典たる中国の古典が多数引用されています。たとえば、『詩経』や『文選』、それから『遊仙窟』などがそれです。また、『万葉集』には佛教や儒教そして道教などに関連する作品も少なくありません。さらに、『万葉集』には古代朝鮮語の痕跡が見られる語彙があり、また歌人の中には古代朝鮮からの渡來人も確認されます。

このような意味で『万葉集』は古代東アジアの宝庫だと言えます。また、『万葉集』は韓国語でも中国語でも完訳されています。このことは、『万葉集』が東アジアの文化史の中で貴重なテキストであることを物語っており、その意味で東アジアの古典だと言えるでしょう。

韓国の日本古典文学教育で『万葉集』は扱われていました。たとえば、やや古い教材ですが、申鉉夏が編纂した『日本古典文学』(学問社、1990)に『万葉集』が紹介されていますし、現在販売されている日本文学史などにも『万葉集』は含まれています。

しかし、申鉉夏の『日本古典文学』や日本文学史などに出てくる『万葉集』は「東アジアの古典」という観点からでは扱われていません。東アジアが漢字文化圏とは言えども、字体を含め、韓国と日本そして中国の間には同じ文化圏という意識が次第に薄くなっていることは確かです。このような状況で「東アジアの古典」としての『万葉集』は東アジアにおける共通の人文教養書になりうると思われます。言い換えれば、『万葉集』は今現在を生きている東アジアの人々における相互理解のための材料になりうるかと期待されます。日本古典文学教育において『万葉集』が選ばなければならない理由がここにあると思います。

3. 『万葉集』をどう教えるか

すでに申し上げたように、『万葉集』は日本古典と関わる授業のごく一部に過ぎなかったと言えます。たとえ

ば、何度か引用した『日本古典文学』は559ページに至りますが、『万葉集』に関する内容は54ページ(pp.29-83)に過ぎません。しかも、その内容は古典文法や古語中心だったと言えます。

今まで行われた日本古典文学における教授法では、限られた時間にできるだけ多くの日本古典文学作品を教えることができました。これはとても魅力的ですが、逆に言えば、この方法では一つの作品もしっかり読んでいたとは言いがたいでしょう。したがって、本発表では一学期に『万葉集』だけを教える授業を提案したいと思います。いわばスロー・リーディングによる古典教育です。

ところが、このスロー・リーディングを導入しても一学期で約4500首に及ぶ『万葉集』の歌をすべて教えることはできません。いや、さらに言えばすべてを教える必要があるわけでもありません。私の考える『万葉集』教育の主な目的は『万葉集』に見られる普遍性や日本的な特殊性に関わる作品、それとともに古代朝鮮や古代東アジアに関連する作品を教えることにあるからです。ここに注目する理由は、このことが古代東アジアにおける交流や相互理解の歴史を物語っているからです。

具体的に言うと、以下の6つのようなものとなります

第1に、「遣新羅使人歌群」や「防人歌」そして「東歌」です。

「遣新羅使人歌群」の一部

券15・3578

武庫の浦の 入江の洲鳥 羽ぐもる 君を離れて 恋に死ぬべし
むこのうらの いりえのすどり はぐもる きみをはなれて こひにしぬべし
무코(武庫)의 포구의/ 이리에(入江)의 물가 새/ 날개로 댄던/ 그대를 이별하니/ 그리워 죽겠지요¹⁾

「防人歌」の一部

券20・4321

畏きや 命被り 明日ゆりや 草がむた寝む 妹なしにして
かしこきや みことかがふり あすゆりや かえがむたねむ いむなしにして
두렵기도 한/ 명령을 받았으니/ 내일부터는/ 풀과 함께 잘 건가/ 아내도 없는 채로²⁾

「東歌」の一部

券14・3348

夏麻引く 海上潟の 沖つ洲に 船は留めむ さ夜更けにけり
なつそびく うなかみがたの おきつすに ふねはとどめむ さよふけにけり
(나츠소비쿠)/ 우나카미(海上) 갯벌의/ 얇은 여울에/ 배를 정박시키자/ 벌써 밤이 깊었네³⁾

第2に、古代朝鮮と関連がある歌で、たとえば白村江の戦いに関わる歌です。

1) 李妍淑 訳解(2017) 『韓国語訳 万葉集 12』, 博而精, p.23.
2) 李妍淑 訳解(2018) 『韓国語訳 万葉集 14』, 博而精, p.221.
3) 李妍淑 訳解(2017) 前掲書(『韓国語訳 万葉集 11』), 博而精, p.175.

券1・8

熟田津に 船乗りせむと 月待てば 潮もかなひぬ 今は漕ぎ出でな
にぎたつに ふなのりせむと つきまてば しほもかなひぬ いまはこぎいでな
니기타츠(熟田津)서/ 배를 출발시키려/ 달 기다리니/ 조수도 밀려왔네/ 지금 저어 나갑시다⁴⁾

第3に、古代東アジアが共有していた年中行事と関わる作品です。『万葉集』には1月1日、3月3日、7月 7日(七夕)などと関わる多彩な作品があります。

【1月1日】

券20・4516

新しき 年の初めの 初春の 今日降る雪の いやしけ吉事
あらたしき としのはじめの はつはるの けふふるゆきの いやしけよごと
다시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는/ 새해 첫날은/ 오늘 오는 눈처럼/ 더 많아라 좋은 일⁵⁾

【7月7日】

券8・1518

天の川 相向き立ちて 我が恋ひし 君来ますなり 紐解き設けな
あまのがは あひむきたちて あがこひし きみきますなり ひもときまけな
하늘 은하수/ 마주 향하여 서서/ 내가 그리던/ 그대 오는 듯하네/ 띠 풀고 기다리자⁶⁾

第4に、『萬葉集』には道教(神仙思想)や佛教そして儒教などといった古代東アジアが共有した思想や宗教と関わる作品も少なくありません。

道教(神仙思想)関連作品

忍壁皇子に獻する歌一首 [仙人の形を詠む]

券9・1682

とこしへに 夏冬行けや 裘 扇放たぬ 山に住む人
とこしへに なつふゆゆけや かはごろも あふぎはなたぬ やまにすむひと
오사카베노 미코(忍壁 황자)에게 바치는 노래 1수 신선의 모습으로 노래하였다
언제까지나/ 여름 겨울 가니까/ 가죽 옷이랑/ 부채 놓지 않는가/ 산에 사는 사람아⁷⁾

仏教(無常觀)関連作品

券3・351

4) 李妍淑 訳解(2012)『韓国語訳 万葉集 1』, 博而精, p.39.
5) 李妍淑 訳解(2018) 前掲書(『韓国語訳 万葉集 14』), p.407.
6) 李妍淑 訳解(2014)『韓国語訳 万葉集 6』, 博而精, p.137.
7) 李妍淑 訳解(2014)『韓国語訳 万葉集 7』, 博而精, p.43.

世間を 何に譬へむ 朝開き 漕ぎ去にし船の 跡なきごとし
よのなかを なににたとへむ あさびらき こぎいしふねの あとなきごとし
이 세상일을/ 무엇이 비유할까/ 아침이 되어/ 노를 저어서 간 배의/ 자취 없는 것 같네⁸⁾

【儒教関連作品】

券5・800

父母を 見れば貴し 妻子見れば めぐし愛し 世間は かくぞことわり ……
ちちははを みればたふとし めこみれば めぐしうつくし よのなかは かくぞことわり……
부모님을요/ 보면 존귀하고요/ 처자를 보면/ 무척 사랑스럽네/ 세상살이는/ 이것이 도리일세/ ……
…9)

第5に、『萬葉集』には渡來人と関わる作品もあります。たとえば、「余明軍(よみょうぐん)」は百濟からの渡來人です。

券4・579

見まつりて いまだ時だに 変らねば 年月のごと 思ほゆる君
みまつりて いまだときだに かはらねば としつきのごと おもほゆるきみ
만나고 나서/ 아직도 조금밖에/ 안 지났는데/ 세월 많이 지난 듯/ 생각되는 그대여¹⁰⁾

第6に、『万葉集』には古代朝鮮と関わる用語もあります。たとえば、「高麗(こま)」、「高麗錦(こまにしき)」、「韓(から)」、「韓衣(からころも)」などです。

一方、『万葉集』教育に使うテキストは韓国語で完訳された『万葉集』を用いるのが望ましいと思われます。現在、韓国語訳『万葉集』は2種類があります。李妍淑の『韓国語訳 万葉集(한국어역 만엽집)』と崔光準の『万葉集(만요슈)』です。これらには『萬葉集』の原文も載せられています。

4. おわりに

今世界はコロナなどの感染症のパンデミック、ウクライナ戦争、インフレ、物価の急上昇、食糧不足など様々な問題を抱えています。したがって、このような示唆的なテーマをもって東アジアの人々が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とることもできると思います。また、一方で東アジアの古典、本発表で取りあげた『万葉集』を話題にして東アジアの人々が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とることもできると思います。特に、後者には韓国での日本古典文学教育が担う役割があると思います。東アジアに共通した教養書が見当たらない状況で『万葉集』はその役割を充分果たせると期待されます。

8) 李妍淑 訳解(2012) 『韓国語訳 万葉集 2』, 博而精, p.143.

9) 李妍淑 訳解(2013) 『韓国語訳 万葉集 4』, 博而精, pp.34-35.

10) 李妍淑 訳解(2012) 『韓国語訳 万葉集 3』, 博而精, p.117.

동화(童話)를 활용한 일본어 교수법 연구 및 적용

— 대학생 대상의 일본어 표현연습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

신 효 진 (前 백석예술대)

1. 서론

대학 일본어 강의에서 학습자의 수준별 수업진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일본어 상급자는 학습량에 답답함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고, 일본어 초급자는 수업의 난이도에 대한 불만으로 학기중에 수업이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동기유발과 집중력을 도모하고 다양한 수준의 학생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텍스트의 선택은 항상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어 창작동화는 설화나 신화등의 옛날이야기에 비해 내용이 가볍고 다양한 수준의 동화가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에서 이를 텍스트로 하는 수업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영어, 한국어, 특수교육 등에서는 동화를 활용한 교수모델이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았지만, 일본어 학습자 대상의 연구는 많지 않아 일본어 학습에 있어서의 활용가치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동화를 선별하여 사용할 경우 정제된 표현과 문법, 어법에 문제가 없는 표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생활 속 현장감 있는 표현이나 생동감 있는 언어를 학습할 수 있는 교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2. 본론

2020년과 2021년 2학기에 진행된 대면, 비대면 융합 실시간 수업에서 일본어 표현연습 강의의 효과적인 운영과 학습기간이 각기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본어로 출판된 창작동화로 수업을 진행한 결과와 그 효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주교재와 부교재를 활용하여 독해능력 외에 일본어 문법 및 일본어 표현 습득, 작문 능력까지 통합하여 발달시키는 방법으로 모델로 구성하였으며, 총제적 언어활동을 통한 수준별 보충 심화방법을 교수법으로 제시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동화의 교육적 활용의 의미를 검증하고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모색하고자 한다.

2.1 교재구성 및 수업구성

대학생 대상 수업임을 감안하여 동화와 함께 부교재를 활용하였다. 또한 일본어 동화는 국내에 수입되는 양이 한정적으로 일본에서 출판된 모든 동화를 대상으로 교재를 선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국내 도서관에 비치된 일본어 동화 중 연구자가 임의로 교안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8종을 선정하였

다. 그리고 출판된 일본어 동화로 교재로 제작할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과 일부 절판된 동화들이 있어 대부분은 ppt나 구글 클래스룸 잼보드(Jamboard)에 이미지화하여 제공하였다.

<표1> 동화(童話)텍스트 목록

「カエルが見える。」まつおか きょうこ・馬場のぼる
「バスに乗って」荒井良二
「おおきくなるっていこうとは」 中川ひろたか 作
「かぜひいちゃった日」 김동수 작(국내동화 번역판)
「スルスルとネルネル」 荒井良二 作
「頭の中」 高橋修治 作
「ふまんがあります1-2」 ヨシタケシンスケ 作
「だるまちゃんとかみなりちゃん」 加古里子 作・絵
일본어 표현문형 200 (JLPT4・5級)

<표2> 수업교안

주	동화	수업내용	과제	중점 포인트	부교재
1	빨간망토 이야기	일본어 동화에 대한 흥미 진작과 수업방법 고지.	도서관에서 찾아보기	오리엔테이션	영상
2	「カエルが見える。」	동음이의어 동사, 명사학습.	「カエルが見える」 재구성 하기	동음이의어 학습. (참고자료 제공)	표현학습 동사변화
3	「バスに乗って」	반복된 문장을 통해 중점 표현을 익힐 수 있음.	동화에서처럼 리듬을 살려서 짧은 동화 만들기	일본어 음편형 및 일본어 표현 학습	비교급, 최상급 표현
4	「おおきくなるっていうことは」	형용사 변화 동사의 가능형 의성어 의태어 및 부사학습	짧은 동화 만들기. 「~がる」를 배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할 것	형용사활용 및 관련 응용표현	원인, 이유 표현
5	「風邪ひいちゃった日」	날씨관련 일본어 표현학습 질병관계 일본어 표현 놀이관련 일본어 표현	중간고사 대체과제준비	다양한 일본어 표현연습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표현 학습	희망 ~ほしい ~たい ~がる 목적 ~に行く
6		수수표현(授受表現) 접속사학습	중간고사 대체과제 준비	수수표현,접속사	의뢰, 명령표현 학습
7	「スルスルとネルネル」	종조사・지시대명사・접속조사 및 일상생활 관련 표현	신조어, 의성어, 의태어표현 찾기	의성어,의태어 종조사 일상생활표현	
8	중간고사 : 대체과제 완성해서 제출.				
9	「あたまのなか」	보통어/미화어 차이 추측표현 양태표현	일본어 복합동사 조사 (20개 이상)	미화어 추측표현 복합동사	상태표현
10		受け身(수동표현)・복합동사	동화 제목 정하기	수동표현(受け身) 복합동사	의도적인 행동 표현
11	「ふまんがあります」	정중한 의뢰・명령 사역(使役) 사역형+ 수수동사	한국어로 동화작성	자타동사 사역형/사역형+수수동사 형태표현	자동사 타동사 상태표현
12		금지표현 동사 가능형	작성한 동화 일본어로 번역 (첨삭후 반환)	금지표현 조건표현	수수표현(授受) 심화
13	「だるまちゃんとかみなりちゃん」	동사 연용형+に行く 동사 타형접속표현	첨삭 받은 내용으로 최종본 제출.	復習	조건표현
14	기말고사 대체과제 제출 및 발표				
15					

각 주차별로 텍스트로 정한 동화내용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1주차부터 7주차까지는 일본어 기초인 「주어+동사」만으로 이루어진 동화를 시작으로 동음이의어 동사, 동사 음편형, 수수동사, 의성어 의태어 및 다양한 형용사 표현들을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의 동화책을 선정하여 이미 공부한 내용이지만 일본어 문법과 표현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일본어 문법 기초에 대해서 확인해 가는 수업으로 구성하였다. 아울러 간략화된 표현이 많은 동화의 특성상 학습량이 부족할 경우 따로 자료를 준비하여 배부하였으며, 수수표현, 의뢰명령 표현등의 자세한 설명과 다양한 예문학습이 필요한 경우는 부교재를 활용하였다. 이시기의 과제는 간단한 글쓰기로 일본어 작문에 대한 자신감을 재고와 흥미유발 및 자기주도학습을 유도하는 효과도 더불어 노렸다. 과제의 경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흥미진작을 위해서라도 매주차 교수자의 첨삭과 지도가 필요하였다. 9주차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동화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일본어 표현들과 생활밀착형 표현문형, 조건표현, 동사 가능형, 동사의 자·타동사, 受け身、使役 등의 심화된 문법들로 이루어진 동화를 텍스트로 선택하여 수업을 구성한다.

2.2. 과제 및 평가

2.2.1. 매주 과제

각 주차별 중점 포인트를 심화학습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과제는 과제에 대한 저항감을 덜어주므로 학생의 자발적 자기주도 학습을 일으키는데 효과적이다. 연계과제가 어려울 경우는 부교재와 연계된 단어암기를 하도록 하고, 매주 첨삭 후 환류를 기본으로 하였다. 오프라인 제출의 경우는 과제보관 및 피드백 전달이 용이하지 않아 제출 및 첨삭 결과 확인이 실시간으로 가능한 패들렛(padlet)이나 구글 잼보드(jamboard)를 이용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초기에는 앱사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으나 교수자 입장에서는 과제를 출력하여 쓰고 보관할 필요가 없고, 학생들은 첨삭이나 평가결과의 빠른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 학습의 이점이 있었다. 8주차 이전의 과제들은 연계과제로 구성하였다면 그 이후는 기말고사 대체과제인 동화 창작하기 준비로 구성하여 각주 과제는 차주 과제로 연계되는 만큼 실시간으로 학생들과의 소통에 노력하였다.

2.2.2. 중간고사 대체과제

일본어로 동화를 작성하기 앞서 미리 7주차에 진행한 한국어 동화 번역본「감기에 걸린 날」을 참고하여 학생이 선택한 한국어 동화 이미지에 일본어 번역을 입혀 제출하도록 하였다. 대체과제는 채점 기준 20점 만점으로 최소 15페이지, 페이지 당 2문장 이상 포함하는 동화를 선택(기본 점수 8점)하도록 하고, 그 이상의 긴 동화를 선택한 경우에 추가점수를 산정하여 일본어 상급자 학생들을 배려하였다. 채점은 번역 내용에 따라 감점해가는 방법으로 점수를 배점하여 일본어 초급학생들도 배려하였다.

2.2.3. 기말고사 대체과제

기말고사는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대체과제 제출과 발표로 성적을 산출하였다. 채점기준은 30점 만점으로 완성된 동화에는 문장 20개 이상 포함, 내용과 주제는 자유, 문법 내용은 수업시간에서 학습한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학습한 문법이나 표현문형은 최소 20개인 경

우를 충족하면 감점하지 않았다. 보통 지필고사로 운영되는 기말고사와는 달리 이러한 대체과제 평가 방법으로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배운 일본어 문법과 표현들을 기반으로 동화를 창작해 보는 경험을 통해서 수업내용을 복습, 활용하고, 스스로 새로운 결과물을 도출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방법을 선택하였다. 학생들의 동화작품은 구글의 잼보드(jamboard), 파워포인트(power point), 미리캔버스(miri canvas), 프레지(Prezi) 등 자유롭게 선택하여 작성하고 발표 시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2.3. 동화 텍스트, 과제 및 수업 만족도

2.3.1. 교재 만족도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확인된 학생들의 반응과는 다르게 설문조사에서는 동화를 통한 학습보다는 부교재학습이 더 좋다는 학생이 많았다. 실제 수업에서는 동화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했고 동화수업이 일본어 동화창작에의 준비과정이었음에도 대학 일본어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저평가 한 학생들이 많았는데 이는 동화가 「아이들 대상」이라는 선입견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본어 동화창작에 대해서는 43.8%의 학생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실제로 일본어로 쓴 동화를 발표하는 시간에 학생들의 집중력이 가장 높았으며 학생 상호 간의 피드백도 빈번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37.5%의 학생이 긍정적으로 본 부교재 학습은 현장에서는 오히려 가장 집중력이 낮았던 것으로 기억되지만 학생들의 피드백에서는 결과가 다르다는 것도 집중해 볼 부분이다.

2.3.2 과제 만족도

과제를 성실히 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매주 과제를 힘들어한 학생들이 많았다. 이는 비대면 기간이었기 때문에 혼자 과제를 해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학생이 질문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했으나 학생의 성향에 따라서는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느라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대면수업으로 전환되어 교수자에게 질문할 기회가 많이 보장될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나 주목한 부분으로는 과제에 대한 환류 및 피드백에 대한 질문에 대해 100%에 달하는 만족도를 보인 점이다. 학생들에 대한 열정적 강의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학습자의 학습 달성도에 대한 관심과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자주 제공하는 것도 교수자가 갖춰야 하는 필수적인 능력 요건으로 보인다.

2.3.3. 평가 만족도

설문조사 항목 중 가장 응답이 많아 그만큼 학생들이 평가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은 매주 과제의 결과물과 중간, 기말고사 지필평가를 모두 합산한 방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학생들이 평가에 대해 민감한 세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형태의 평가를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한 듯하다. 매주 과제를 평가에 도입할 경우에 컨디션이나 상황에 따라 지필고사에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고, 수업을 얼마나 충실하게 들었는지도 일본어 능력과 함께 평가에 반영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교수자는 평가의 다양성과 객관적 지식외에 학생의 과제수행능력 및 자기주도 학습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과제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다

고 생각했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평가의「공정성」을 문제삼는 경우가 있었고, 시험과 같이 답이 있고 OX가 확실하게 나뉘는 공정한 시험제도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큰 듯하다. 이 점은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으로 기술하도록 하는 평가를 진행할 경우에도 시험이 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할지 조금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었다. 대학 수업에 경우 모든 것을 객관식화한 지필고사로만 학생들의 종합적인 성취도를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향후로는 대체과제 평가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세워 학생들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설계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3.4. 수업설계 만족도

일반교재를 이용하여 교수자의 판서와 강의로만 이루어지는 수업보다는 81%이상의 학생들이 교재 학습에 동화 텍스트를 블렌딩하는 방식을 선호했으며 특히나 주목할 점은 대부분의 학생들을 과제, 특히 작문과제나 새로운 과업을 제시하는 동화 창작하기와 같은 기말고사 과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대담이 많을 것으로 당초 예상했으나 동화독해보다 동화 만들기 과제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으며 「교재학습+동화독해+동화창작」의 모델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과가 상당히 흥미롭다.

3. 결론

기존 수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신화나 설화 등의 이야기가 아닌 일본어 창작동화를 대학수업의 주요 텍스트로 활용하고 일본어 교수법의 하나로 확장이 가능할지를 확인해보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로 하여금 높은 완성도의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번역과 작문이 가능한 대체과제와 동화내용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독해와 문법을 과제 수행의 준비로서 수업을 설계하니 하나의 수업 내에서 다양한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총체적 언어습득이 가능하고 학습자의 만족도도 높음을 확인하였고 교수자의 피드백과 첨삭 및 환류가 학습의 달성도를 높일 수 있어 꼭 요구되는 역량임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대학 일본어 수업에서 언어능력에 따라 학생을 나누어 수업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점에서도 학생들 간의 차이를 극복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다만 평가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하고, 동화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텍스트라는 선입견으로 인한 학습동기 저하의 극복방안 모색과 피드백과 환류를 손쉽게 적용 가능한 앱의 발굴 등은 금후의 과제로 삼고 싶다. 그렇지만 동화는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해도 참고자료 등을 이용하여 수업내용을 확대할 수 있는 확장성이 좋아 기초와 중급학생이 모두 모여있는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된다. 향후로는 수업에 적용가능한 동화작품을 교재로 발굴하고 관련 교수법을 정리하여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뿐만 아니라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교수법의 하나로서도 정립해 나가고자 한다.

日本における「持続可能な開発のための教育(ESD)」の現状と課題

北村 友人 (東京大)

1. はじめに

「持続可能な開発のための教育(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という新しい教育のあり方は、2002年9月に南アフリカのヨハネスブルグで開かれた「持続可能な開発のための世界首脳会議」において、世界が目指すべき新しい教育のあり方として日本政府と日本の市民社会組織によって提案され、同年12月の第57回国連総会決議として採択された。それ以降、国連教育科学文化機関(UNESCO)が主導機関(a lead agency)としてESDを推進し、さまざまな形で世界各国の教育や学習に関する政策と実践に取り入れられている。

ESDとは、すべての人が現在と将来にわたる地球規模の課題に対して建設的かつ創造的に取り組み、より持続可能でレジリエントな社会を実現することを可能にするような教育活動のことである。すなわち、環境、開発、貧困、平和、人権など、今日の世界各地で人々が直面しているさまざまな課題に対して、それらを学際的に捉え、体系的な思考で理解し、そこから課題解決の方策を導き出し、自己や社会の変容のための行動に繋げるための能力(すなわち「汎用的コンピテンシー(transversal competencies)」)を育むことをESDでは目指している¹⁾。

そこで本発表では、日本におけるESDの現状と課題について、ESDを積極的に推進している横浜市において実施した質問紙調査の結果にもとづきながら、論じることとする。

なお、ESDと並び、今日の新しい教育のアプローチとして「グローバル市民性教育(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という取り組みもある。どちらも、持続可能な開発目標(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の目標4・ターゲット7の中で、重要な教育の取り組みとして掲げられている。韓国では、GCEDの推進にも積極的に取り組んでいるが、ESDも、GCEDも、汎用的コンピテンシーを育むための教育という特徴を共有している。そのため、本稿の議論を韓国の文脈と比較する際には、ESDのみに限定するのではなく、GCEDとの比較という視点も必要になってくるであろう。

2. 日本におけるESDの推進

日本では、およそ10年に一度のペースで、学習指導要領(Course of Study、いわゆるナショナルカリキュラム)が改訂されてきた。この学習指導要領の中で、教科の学習を通して「持続可能な社会」につい

1) ESDのより詳しい定義については、ユネスコのホームページ(<http://en.unesco.org/themes/education-sustainable-development> [2021年7月18日閲覧])を参照のこと。

て理解することの重要性が、最初に明確に指摘されたのが2008年・2009年の改訂版であった。この改訂版を踏まえつつ、文部科学省がESDの促進を重要な政策の一つとして打ち出したことによって、ESDを実践する場としての「ユネスコ・スクール」が2010年代に急増した。「ユネスコ・スクール」とは日本独自の名称であり、ユネスコ憲章に示された理念を学校現場で実践するため、国際理解教育の実験的な試みを比較研究し、その調整をはかるためにユネスコが支援しているAssociated Schools Project Network(ASPnet)の加盟校のことである。現在、世界182か国で11,500校以上が加盟しており²⁾、日本では、2019年11月の時点で1,120校の幼稚園、小学校・中学校・高等学校及び教員養成系大学がこのネットワークに参加している³⁾。

そして、2020年から一年ごとに、初等教育、前期中等教育、後期中等教育と順番に導入されている、最も新しい学習指導要領の中でESDの推進が明確に記された。この新しい学習指導要領では、「何を知っているか、何ができるか(個別の知識・技能)」、「知っていること・できることをどう使うか(思考力・判断力・表現力等)」、「どのように社会・世界と関わり、よりよい人生を送るか(学びに向かう力、人間性等)」という資質・能力に関する3つの柱を打ち出している。そして、これらの資質・能力を育むうえで、「主体的・対話的で深い学び」を実現していくことが不可欠であると強調している。そうした学びを実現するために、新しい学習指導要領ではアクティブ・ラーニングを通して、ESDを実践することの重要性を指摘している。そのような教育を通して、人々が市民として、また職業人として、必要とされる資質・能力を身につけていくことが期待されている⁴⁾。

そうした能力を育むためには、単なる知識習得ではなく、学習者みずからの価値観を見つめ直し、よりよい社会づくりに参画するための力を育むことが重要である。また、学校のみならず、企業、行政、NPO/NGO、社会教育機関など、社会におけるさまざまな組織・機関が協働してESDを実践していくことが欠かせない。そのようなESDを通して、「自分自身と社会を変革することを学ぶ(Learning to transform oneself and society)」ことが期待されている(Dannenberg and Grapentin, 2016; UNESCO 2014)。

3. 横浜市のESD推進校における調査の結果

2020年10月に横浜市のESD推進校を対象として、児童・生徒と教師の「ESDに対する知識・態度・行動」に関する質問紙調査を実施した。本調査は、「持続可能な開発」の概念を構成する環境・経済・社会の3領域を踏まえて、地球規模課題として広く認識されている諸問題に関して児童・生徒や教師がどのような知識を有しており、それらの問題に対応するためにいかなる態度や行動をとっているのかという実態を把握し、今後の課題を明らかに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行った。その際、知識については地球環境や国際社会に対する認知度、態度や行動に関しては日常的な学習場面や生活場面において、どのような態度・行動をとっているかについて尋ねた。

2) ASPnetについては、ユネスコのホームページ(https://aspnet.unesco.org/en-us/Pages/About_the_network.aspx[2021年7月18日閲覧])を参照のこと。

3) ユネスコスクール公式ホームページ(<https://www.unesco-school.mext.go.jp/>[2021年7月18日閲覧])を参照のこと。

4) 新しい学習指導要領の詳細については、文部科学省ホームページ(http://www.mext.go.jp/a_menu/shotou/new-cs/1383986.htm[2021年7月18日閲覧])を参照のこと。

調査概要

調査時期	<ul style="list-style-type: none">2020年10月~11月
調査方法	<ul style="list-style-type: none">質問紙調査
調査対象	<ul style="list-style-type: none">令和2年度横浜市ESD推進校22校(小学校15校、中学校7校)児童・生徒:2,631人(小5:1,358人、中1・中2:1,273人)教師:683人(小学校 450人、中学校 233人)
回答数と回答率	<ul style="list-style-type: none">令和2年度横浜市ESD推進校21校(小学校15校、中学校6校)児童・生徒:2365人、89.9%(小5:1,268人、中1・中2:1,097人)教師:378人、55.3%(小学校 275人、中学校 103人)

3.1. 児童・生徒の知識・態度・行動

児童・生徒の知識・態度・行動に関する質問への回答を見ると、態度や行動の面では平等性や多様な価値観を重視し、環境保全に積極的に取り組み、多様性に関わった行動を取る傾向が見られた。その一方、知識に関しては格差や不平等に関する知識は身に付けているが、環境・経済・社会の相互関連性や自分自身の行動とそれらの関連性について十分に理解をしていないと感じていることが見て取れた。学校でも、校内での環境保全に関わる取り組みには積極的に取り組んでいるが、地球規模課題についての授業では受動的な態度である可能性が示唆された。

とりわけ、ESD推進校において「ホールスクールアプローチ(機関包括方アプローチ)」によるESDの取り組みが積極的に進められており、そのことが小中の各学校段階に共通して、児童・生徒の知識・態度・行動の全てに対してポジティブな影響を及ぼしていることが、今回の調査結果から明らかになった。また小学校ではESD/SDGs関連の取り組みも児童の知識や態度にプラスの影響を与えている。このように、ESD推進校における学びの体験が一定の成果を上げており、持続可能な社会の実現に貢献するような方向に向かっていると考えられる。

一方、汎用的能力の育成や世界的課題についての知識の伝達といった教師の教育実践が必ずしも児童生徒の知識、態度、行動に結びついていないとは言えない可能性も示唆された。その原因として、地球規模課題として挙げられる諸問題が、この年代の子どもたちにとっては馴染みが薄く難度の高いものであることに、まずは留意する必要がある。とりわけ「知識」に関しては、児童・生徒に地球規模課題についてどのくらい知っているかを聞いた「意識」の結果であって、実際の「知識」の多寡を検証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ことにも注意を払う必要がある。すなわち、子どもたちの学びが深まるなかで、世の中には難しい問題がたくさんあることを理解し、自分はまだ知らないことが多いということを謙虚に受け容れる意識が働いている、といった可能性についても、今後さらに検証していくことが欠かせない。

なお、知識を得た場所に関する回答で、「学校の授業や活動」を挙げる児童・生徒が多かったが、これは私たちの研究チームが東京都で実施した同様の調査と比較して、明らかに横浜市のESD推進校の特徴であると言える。このことは、ESD推進校での取り組みが、子どもたちにとって重要な学びの機会となっていることを示唆している。

3.2. 教師の知識・態度・行動

教師の知識・態度・行動に関する回答を見てみると、ESDに取り組むなかで対話や多様性の尊重などは身につけているが、グローバルな課題についての関心や具体的な教授法・指導方法の理解は未だ不十分であると感じていることがわかる。とくに、コミュニケーション能力など汎用的能力の育成や公平性や共感といった価値観の醸成には力を入れて取り組んでいるが、世界的課題に関する知識の伝達には必ずしも十分に取り組んでいないと考えていることが見て取れる。このことは、日常の文脈に関連づけることがより容易な知識や活動に関しては、積極的に教育実践のなかに取り入れているものの、日常との関連が薄い地球規模課題に関しては、必ずしも十分に取り入れることができている様子からも推測できる。

また、環境・経済・社会の相互関連性や、自分自身の知識や行動とそれらの関連性への理解が十分ではないと感じていることがわかる。このことは、個別具体のトピックに関しては一定の理解をしたうえで学習や活動のなかに取り入れているが、それらをより俯瞰的な視点から関連性を明らかにしたうえで、教科や領域を横断しながら繋げるといったことが、未だ十分にできてはいないと解釈できる。したがって、まさにESDの特色である「つなげて、ひろげる」といった取り組みを、今後さらに積極的に行っていくために、教師の「グローバル課題に関する関心や理解」を高めていくことの必要性を指摘しておきたい。

さらに、ESDに関する研修をより多く受けている教師ほど、ESDを実践するための知識や教授法について必ずしも十分な理解をできていないと感じていることがわかる。これは、さらなる分析が必要ではあるが、考えられる解釈としては、これまで自分が知らなかった教授法について学べば学ぶほど、自らに足りないものに気づいた結果であると推察される。これは、研修が教師たちにとって新たな教授法を学ぶことへの動機づけを高める効果を上げている可能性を指摘しておきたい。今後はトピックベースの研修から、身につけさせたい教師の資質能力の全体像に基づいた体系的な研修への転換も必要であろう。

3.3. 校種別・担当教科別の傾向

以下に、小学校と中学校との間で見られた傾向の違い、ならびに、担当教科別に見られた傾向の違いについて、気づいた点を挙げておく。

- 「紛争と平和・人権」「貧困や不平等」「情報リテラシー」といったテーマに関する学習は、小学校より中学校の方でより積極的に取り上げられている。他方、「SDGsに関する行動変容」「学校内での環境配慮の取り組み」「地域や保護者との協力」については、中学校より小学校の方がより積極的に取り組んでいる傾向が見られる。
- 「教科横断／統合型学習」「個別指導」「体験/校外学習」「外国語を使用した学習」のいずれも、小学校の教師の方が中学校の教師よりも力を入れて取り組む傾向が見られる。
- 学校全体としてのESDやSDGsに関する取り組みについては、ほとんどすべての項目で小学校の方が中学校よりも積極的に取り組んでいる傾向が見られた。

- 文系科目(国語・社会・英語)の教師の方が、理系科目(数学・理科)の教師よりも、貧困問題、食糧問題、労働問題、相互依存、多様性の尊重、平和、民主主義、格差といった今日の社会的課題に関して、教育実践のなかで取り上げるうえでの知識を持っていると認識する傾向が見られた。
- 文系科目の教師の方が、紛争・平和・人権の問題、多様性に関わった態度、地球規模の課題の解決、固定観念にとらわれない思考の育成に、より積極的に取り組んでいる傾向が見られる。
- 文系科目の教師の方が、児童・生徒主導型の学習や活動、外国語を使用した学習、発表の機会の提供に、より積極的に取り組む傾向が見られる。

本節で概説したように、横浜市のESD推進校において積極的に取り組まれているESDのポジティブな影響が、子どもたちの態度や行動に現れていることが理解できる。また、推進校においてはESDの実践を進めるにあたって、日常的な文脈のなかで子どもたちが理解しやすく、取り組みやすいことを中心に据えている様子も伺えた。子どもたちの発達段階に合わせて、まずは身近な問題を理解するとともに、より複雑な問題に対応していくための汎用的な能力を身につけることを重視する取り組みを高く評価したい。

そのうえで、そうした取り組みが児童・生徒の知識・態度・行動に結びつくためには、今後も領域横断・教科横断的な学びの機会を積極的に創出し、さらには、子どもたちの日常的な文脈からは距離のある地球規模課題についても「自分事」として捉えられるように促していくことが必要であろう。

4. 結び

日本におけるESDは、必ずしも最近になって新たに実践されるようになってきたわけではない。たとえば、自由研究や調べもの学習といった形で、あるいは総合的な学習の時間や生活科といった教科を通して、日本の教育現場ではここで示したような考え方にきわめて近い形で教育実践の積み重ねが行われてきた。そのため、領域横断的な学びのあり方や、それを通して育みたい資質・能力の中身は、日本の教師たちにとってそれほど目新しいものではないと考える。

しかしながら、「持続可能性」という概念を基軸に、今日の世界の(そして地球の)持続可能性を脅かしている諸問題に対して、教科横断的な学びを実践することは、多くの教師たちにとってやはり新しい取り組みになるともいえる。ただし、そもそも各教科の教科内容が必ずしも十分に系統性をもってデザインされているわけではないなかで、無理やり「教科横断ありきのカリキュラム編成」(阿部、2018)をしてはならないことにも留意する必要がある。

いずれにしても、ESDに関する理解を現場の教師たちが深めることのできる研修や、ESDを実践するための教材開発や教授法の検討などを行っていくことが、今後ますます欠かせない。とはいえ、近年の日本では、教師の労働時間がOECD諸国の中で最も長いことが問題視されており⁵⁾、ESDに関する研修を大幅に増やすということは、教師への負担が増大するという観点からも、安易に提案すべきではない。そのため、今回の横浜市での調査結果を踏まえると、たとえば地球規模課題に関する理解を深めるためには、ある程度生徒たちが自学自習できるような副教材(ワークブックなど)を開発していくことが

5) 日本の国立教育政策研究所のレポート(<https://www.nier.go.jp/English/educationjapan/pdf/20180816WEJT.pdf>[2021年7月18日閲覧])を参照のこと。

必要である。

このようなESDに象徴されるような新しい教授・学習のアプローチについての理解を深めていくなかで、これからの教育のあり方について検討していくことが欠かせない。その際、GCEDに積極的に取り組む韓国の学校教育のあり方とも比較していくことで、新たな知見を得て行くことを期待したい。

*本発表の中で取り上げている横浜市での調査は、横浜市教育委員会の協力を得て、佐々木織恵・開智大学准教授と八木恵里子・東京大学特任研究員と実施した共同研究の成果である。

◀ 参考文献 ▶

阿部昇(2018)『『カリキュラム・マネジメント』と教科教育の系統性—『教科横断』の重要性と危険性』「読み」の授業研究会『研究紀要』17、13-22頁。

Dannenberg, Sascha and Theresa Grapentin (2016)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Learning for Transformation,” *Journal of Future Studies*, Vol.20, No.3, pp.7-20.

UNESCO (2014) *Aichi-Nagoya Declaration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ESCO World Conference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ttp://unesdoc.unesco.org/images/0023/002310/231074e.pdf> [Retrieved on July 18, 2021]).

일본의 ‘새로운 자본주의’와 국제교육개발협력 전략

—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파트너십의 미래구상 —

尹 鍾 赫 (韓國教育開發院)

1. 일본의 ‘새로운 자본주의’와 국제교육개발협력의 변화

글로벌 차원에서 다양한 리스크가 출현함으로써 일본의 국내외 환경과 정치경제 사회문화적인 변수가 상당히 크게 부각되고 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미국 중심의 국제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도전과 응전으로 인해 강대국 중심 국제정치가 부활하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세계적인 수준의 인간안보에 대한 위협이 여전히 두드러지고 있다. 나아가서는 이 두 가지 요인과 함께 국제공급망의 혼란과 국제규범, 가치경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국제협력과 경쟁이라는 글로벌 구도의 패러다임이 그려진다(정성운, 2020: 7).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제교류협력과 경제안보에 주목하는 일본의 ‘새로운 자본주의’가 주목받는 상황에 접하고 있다.

2013년 재집권에 성공한 2기 아베(安倍)내각은 ‘일본이 돌아왔다(Japan is Back!)’는 구호를 통해서 교육재생을 비롯한 일본의 국가적인 부활전략을 실천하였다. 1기 내각의 실패를 교훈삼아 구상한 전략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 재기할 수 있는 국가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목하였다. 국가체제 운영과 관련하여 성장과 분배를 조화롭게 일치시키는 선순환 구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교육전략으로서 교육진흥기본계획을 충실하게 적용하였다. 일본경제·사회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촉진시키며 성별·계층간 불공평과 격차를 시정하는 전략을 중심으로 경제적 자립을 완성하기 위한 혁신을 본격적으로 단행하였다. 즉, 언제, 어디서, 누구라도 희망하는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일하는 방식 개혁, 자녀양육에 대한 충실한 지원, 저출산고령화를 맞이하여 국민이 능력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을 실현하고, 동시에 권력, 자본, 자원 등이 집중하지 않도록 Web3.0 이나 블록체인 등의 지역분권형 경제사회를 추구하고자 하였다(日本內閣官房(2022a)).

일본 정부가 추진한 ‘새로운 자본주의’ 혁신전략은 교육개혁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국제사회에 대한 개발협력전략 등 교육계 전반의 변혁적 구조를 이끌어냈다. 이와 같은 개혁적 배경 속에서 인간안보와 경제안보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교육개발협력의 초안이 구상되었다.

첫째,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호혜적인 협력의 근간으로서 경제안전과 인간안전을 보장하는 원칙이 강하게 드러났다. 일본의 ‘새로운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서 실리적이며 인간주의적인 개발협력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교육ODA 등을 실천하였다. 현재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배경으로 하여 에너지와 식량을 포함한 경제안전보장을 강화하는 것 자체가 지속가능하며 포용성이 높은 교육개발협력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건전한 거버넌스를 통해서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인 가치가 글로벌 이상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교육개발협력은 인간의 기본적인 웰빙과 지구상의 위험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전환시키는 지속가능발전교육·시민교육 등의 사회정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즉, 보편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글로벌 사회가 교육을 통해 뒤쳐지지 않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학습하고 생활을 개척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가치관을 공조하는 국가들이 단결하여 자유롭게 열린 경제 질서를 유지·강화함으로써 자유무역을 추진하며 불공정한 경제활동에 대한 대응체제를 강화할 수 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 프레임워크’(FOIP; Free and Open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의 기본 교육철학과 대외경제정책을 살짝 엿볼 수 있는 측면이기도 하다.

셋째, 국제개발협력 그 자체가 막혀 있는 분배연결망을 해소하고 한층 더 발전하는 글로벌 성장을 위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철저히 성장을 목표로 하면서도 성장 과실이 적절하게 분배되고 다음 성장을 위해 지속가능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하며, 적극적인 정책 관여를 통해서 분배망이 공평하게 촉진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침공사태 등의 국제사회 위협요인을 적극 해소하는 전략으로서 국제 공급망 구축과 온라인, 메타버스 등의 디지털 혁신체계가 주목받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인권 촉진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이 새로운 개발협력의제로 추가되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인간에 대한 투자,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 창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국제교육개발협력을 촉진하면서도, 추가적으로 녹색산업 중심의 그린 변혁(GX; Green Transformation)과 제4차 산업혁명의 중점 기조인 디지털 변혁(DX; Digital Transformation)에 대한 투자 등을 강조하였다. 일본 정부가 강조하는 이른바 ‘새로운 자본주의 투자의 4대 기둥’이 국제교육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핵심의제로 부각되었다.

2. 공생공영을 위한 ‘인도·태평양협력’과 국제교육개발협력 추진전략

2.1. ‘새로운 자본주의’ 체제와 민간-공영주의 교육개발협력

원래 아담 스미스 등이 자본주의를 설명할 때는 ‘보이지 않는 손’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방임주의 체제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는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보장을 중시하는 복지국가 정책, 즉 국가가 책임을 지는 수정자본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 경제체제가 자유방임주의를 대체하였다. 그 후 1980년대 이후 냉전구조 속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던 경제를 재생하기 위해 시장 경제 중심의 신자유주의 사교가 등장하였고,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본주의 역사상 제3차 대전환으로서 ‘새로운 자본주의’, 즉 자본주의의 4.0 버전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의 자본주의 전환 방식은 주로 ‘시장 대 국가’ 혹은 ‘관 대 민’ 사이에서 크게 요동치는 것에 비해서, 새로운 자본주의는 시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외부환경 자극이 강한 사회적 과제에 대해서 ‘시장과 국가 모두 함께’라는 관점에서 민관연계 제휴전략으로서 해결하고자 한다(日本内閣官房, 2022a).

‘새로운 자본주의’는 해결 과제를 장애물이 아니라 에너지 촉진원천으로 포착함으로써 포용적이며 새로운 성장을 목표로 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소득분배와 경제성장을 균형 잡힌 방식으로 포용하며, 공정하고 사회적 과제로서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신자유주의와 다른 측면이 있다. 즉, ‘새로운 자본주의’는 시장경제와 국가관여를 모두 인정하며, 두 가지 측면의 인프라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

으로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장과 성장경제에 주목한다. 국제교육개발협력에 대한 시각에서도 인도주의적인 관점에 중점을 두는 한편으로 개발도상국과 공여국 입장의 일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게 된다. 예를 들면, 공여국 관점에서 개발협력을 위한 자원과 물자지원 방식을 정부 혹은 NGO 이외에 민간기업 등이 사회적 환원 전략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국가 수준에서 국익 외교정책(National Interest Policy), 그리고 민간기업과 비정부기구 등이 적극적이며 안정적으로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Benefit Corporation) 방식의 인도주의적 실천전략이 장려되었다.

이런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한 국익 정책은 일본만의 예외적인 사례라고 볼 수 없다. 2015년 영국의 개발협력백서는 국익 차원에서 글로벌 의제를 다루는 ODA사업을 실천한다고 선언하였다. 이후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이 주도하여 2017년 11월 OECD/DAC 평가네트워크 회의에서도 교육개발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국익’을 천명하고, 이런 관점에서 민간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교육개발협력사업에 적극 활용·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추진하였다(한국수출입은행, 2017; 안해정 외, 2021: 240에서 재인용). 이 시기부터 선진공여국은 문해사업을 포함한 교육개발협력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새 전략에 착수하였다. 즉, 정부예산 이외에 ‘무역과 통상, 원조를 통합’하여 ‘국익(National Interest)’을 반영하는 식으로 새로운 공공민간협력체제(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패러다임을 추진하였다. 이는 기존의 국제 NGO, 비영리법인 외에 영리기업 법인체도 포함한 민간부문 개발전략(PSD; Private Sector Development)을 목표로 한다. 결국, 선진공여국은 민간기업 재원을 확충하는 새로운 국익외교 전략으로서 기초교육, 문해교육, 보건위생, 기후환경 등을 결합하는 범분야 인프라지원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2.2. 다자주의 지역외교와 일본의 발전경험을 통한 교육협력

일본은 2015년 UN이 새롭게 제안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30년에 기여하는 국제교육개발협력 전략을 새롭게 구상하였다. 그런 관점에서 기존의 ODA 대강을 대체하여 2015년 2월에 외무성이 ‘개발협력대강’을 발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아프리카 권역을 중점협력대상국가로 재구축하는 다자협력권을 구상·실천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부각하고 있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협력체제’(FOIP; Free and Open Indo-Pacific Framework)과 이의 연장선상에 있는 ‘아세안 신개발전망’(AOIP: ASEAN Outlook Indo-Pacific), 쿼드(Quad), D-10 혹은 T-12 등도 일본이 교육개발협력과 직간접적으로 연계하여 인간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인간안보외교, 개발협력 전략을 강조하였다(日本外務省, 2022a).

세계적 관점에서 볼 때 기후변동, 자연재해, 환경문제, 감염질환, 난민문제 등 국가 내부적인 문제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구규모 문제가 심각하게 쌓여 있으며,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도 일국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 과제로 확산되고 있다. 2015년 UN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하여 2030년까지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사회를 구축하도록 실천하는 인도주의적 원칙도 이에서 비롯한다. 더구나 이와 같은 인도주의적 개발협력전략이 교육과 다른 분야를 연계하는 방식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잘 드러났다. 코로나19 감염확대에 따라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의 무상공여와 콜드체인 등을 실행하는 ‘라스트 원마일(Last One-mile) 지원’을 통해서 세계적 규모의 감염 종식에 공헌하고, ‘보편적 건강실천전략’(UHC: Universal Health Coverage)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일본 국내의 보건교육 안전망 구축과 교육격차 해소지원방안을 국제적으로 선도함으로써 일본 사회인프라와 경제구조를 직간접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으로도 활용하였다. 다른 한편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배출이나 해양 플라스틱쓰레기를 줄이는 활동에 적극 협력하는 것도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실천항목으로서 일본을 둘러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일본이 2020년에 실시한 공적개발원조(ODA)의 지출 총액은, 약 176억 달러(한화 21조원, 세계 제3위 규모)에 이르고 있다.¹⁾ 사실 지난 10년간 일본의 ODA 예산규모는 1990년대 초반까지에 비하면 국제적인 역할 분담 측면에서 축소 지향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5년 SDGs 2030 전략을 새롭게 실천하는 과정에서 국내외의 여러 가지 긴급 상황, 즉 코로나19 감염질환 사태와 대응 방안, 저출산고령화 심화 및 311동북대지진 이후의 자연재해 복구·대책 등, 일본 내에서 여러 가지 과제를 ‘국토강인화(國土強靱化)전략’²⁾으로 극복하였다. 이런 일본의 국내 개발사업 경험을 대내외적인 국제협력전략으로 전환·상승시키는 과정에서 인도·태평양 협력전략에 따른 ODA 지원사업에 적용하고자 한 것이다. 이런 상황을 활용하여 일본은 ODA를 통한 교육변혁, 일본식 발전경험과 국가전략을 소개·적용하는 방식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전략을 압축적으로 실천한다. 글로벌 수준에서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인권과 자유를 구축하면서 법치 구조를 활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모든 사람이 안전할 수 있는 체제’(No one is safe until everyone is safe.)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선도국가 역할과 공여국으로서 개발협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2.3. 인도·태평양 협력체제와 아시아·아프리카 교육개발협력

최근 일본의 외교정책은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네트워크’(FOIP; Free and Open Indo-Pacific framework)를 통해서 새로운 다자주의, 공영협력체제에 따른 개발협력전략을 실천하고자 한다. 외교청서 2022년판 권두언에는 다음과 같이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외무대신의 주장을 실고 있다.

세계는 미·중 경쟁, 국가간 경쟁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여 파워 균형(Power Balance)이 가속화·복잡화하며,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받치고 있던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법치-인용자 주)라고 하는 보편적인 가치와 국제질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 2022년판 외교청서는 … ‘모든 사람이 안전할 때까지는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No one is safe until everyone is safe-인용자 주)는 강한 의식 아래 2021년에 이어서 코로나19 감염질환에 대한 대책이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또한 국제사회가 직면하는 커다란 변화 … **미일동맹의 강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의 실현, 한국과 중국이라는 주변국가와의 외교 복원을 둘러싼 여러 현안에 대한 대응, 지역외교의 추진, 경제안전보장을 포함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의 확대, 코로나19·기후변동·균축비확산** 진하게-인용자표기) 등의 지구규모 과제에 맞붙고 있다…(日本外務省, 2022a).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를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고 하는 거버넌스로 강조한 측면이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가 평등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자유는

1) OECD DAC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홈페이지(공적개발지원:ODA 데이터검색) <https://www.oecd.org/development/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development-finance-standards/official-development-assistance.htm> (2022년 5월16일 출력)
 2) 국토강인화(National Resilience)는 자연재난을 예방하고 재난감축과 관련하여 국가 수준의 위험관리 측면에서 강하면서도 유연한 국가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일본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안심할 수 있는 생활을 만들기 위해 실천하는 일체의 국가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日本内閣官房國土強靱化推進室 홈페이지 검색 인용, https://www.cas.go.jp/jp/seisaku/kokudo_kyoudjinka/index.html 2022년 5월 16일 최종출력)

‘강건하면서도 절제된 자유주의(tempered liberalism)’로서 개인의 탁월성과 창발성을 존중하고 육성한다는 관점이 부각된다. 그러므로 개인의 존엄성으로서 인권이 중시되고, 예외적 이탈에 대한 규제로서 법의 지배가 거버넌스로서 부각되어야 한다(최장집, 2022). 일본의 국제협력전략은 이와 같은 민주주의적인 질서 속에서 개인의 탁월하고 절제된 경쟁과 자율적인 운영체제를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체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일본 외무성과 결합하는 문부과학성의 교육지원정책도 일본적인 특성을 갖춘 기초교육과 직업기술훈련, 고등교육 지원방안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평화와 번영을 위한’ 자본주의적인 교육체제를 전수하려고 노력한다.³⁾

또한 외교청서 권두언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미국과 연계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포용하면서 이런 과정을 지역외교, 즉 ASEAN을 포함한 지역주의적인 결합방식으로 평화와 번영을 강조한다. 이를 교육적으로 해석하면, 일본이 지난 70년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던 ‘평화’를 핵심으로 하는 교육원칙과 이념이 국제이해와 평화교육, 그리고 지속가능발전교육(ESD)으로 정착하면서 이것을 외교와 결합하는 국제교육개발협력을 실천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런 교육 콘텐츠를 외교정책에 결합하면서 지역적으로 태평양과 인도양 전역을 포괄하는 측면에서 기존의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 경제파트너십 체제’가 미국 주도의 쿼드(Quad-lateral Partnership)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체제’로 진화한 것이다. 특히 인도태평양 체제는 궁극적으로 동남아시아 중심의 아세안체제, 그리고 아프리카 동안지역과 태평양군도, 중남미 연안지역권을 아우르는 개발협력체제에 일본식 교육개발협력, ‘Japan is Back!’ 슬로건의 복귀라고도 할 수 있다.

사실상 인도태평양은 아시아태평양부터 인도양을 거쳐서 중동·아프리카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이며, 세계인구의 절반을 넘는 세계의 중핵지대라고 할 수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강대한 군사력을 지닌 대국이 다수 있는 관계로 안정적인 질서를 해칠 수 있는 무력분쟁과 테러, 해적행위, 대량파괴무기의 확산, 자연재해 등에 대한 대책으로서 법의 지배를 통한 자유롭게 열린 질서를 실현하고, 지역 전체적으로 평화와 번영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배경에서 일본은 2007년 당시 아베(安倍)총리가 인도 국회에서 인도양과 태평양이라는 ‘두 개의 바다가 교차하여 만나는’ 연설을 하는 등 당초부터 인도양과 태평양을 총체적으로 인식하였다. 2016년 8월 이런 구상을 진화시켜서 케냐에서 열린 제6회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VI; Sixth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Africa Development) 기조연설에서 아베총리는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을 재차 강조하였다. 아베는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라도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는 아시아와 잠재력 넘치는 아프리카라는 ‘두 개의 대륙’, 자유롭게 열린 태평양과 인도양이라는 ‘두 개의 대양’이 서로 만나면서 생기는 역동적인(Dynamism) 실천이 결정적이며, 일본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상호 번영을 실천하는데 함께 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日本外務省, 2022a: p. 24).

일본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을 추진하기 위해 공감대를 갖춘 국가들과 연계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은 미국, 호주, 인도, ASEAN, EU와 일부 유럽국가가 동참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2019년 6월 ASEAN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인도·태평양에 관한 ASEAN 전망’(AOIP;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은 이를 본격적

3) UN에서 강조하는 2015년 이후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 의제에서 Planet(지구;환경), People(사람;교육;보건), Place(도시화), Peace(평화), Prosperity(번영;경제) 등 5P 개념을 강조하여 17개 SDGs와 직간접적으로 연계하는 Partnership(협력전략) 자체가 기본적으로 ‘새로운 자본주의, 혹은 미국이 주장하는 (D-10(민주주의 10개국), T-12(테크노 민주주의 12개국) 등의 다자협력의 민주주의 질서를 통해 중국·북한·러시아 등의 권위주의 체제에 맞대응하는 민주주의(자본주의)체제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뒤에서 살펴보는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은 이런 과정에 대한 정치적, 교육적, 경제적인 글로벌 합의를 갖추고 있다.

으로 연계틀로 추진한 것이며, EU에서도 2021년 9월 ‘인도·태평양 협력을 위한 EU전략에 관한 공동 소통’ 등의 비전으로 동참하였다(日本外務省, 2022a: p. 24).

이와 같이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FOIP)’을 실현하기 위해서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소다자주의를 확장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원래 지역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교육체제에 대한 질 높은 인프라 지원과 법적, 제도적인 협력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일본과 지역적 연대와 문화적 유사성이 강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를 중점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환태평양 파트너십(CPTPP) 전략이 FOIP와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아세안협력방안으로서 제안된 AOIP(ASEAN Outlook Indo-Pacific Framework)를 중심으로 전개하면서도 아프리카 지원전략(TICAD 등)과 결합하고, 중남미 개발협력전략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日本外務省, 2022b).

3. 지속가능개발목표 2030 체제 출범과 일본의 ESD·시민교육

3.1. 개발협력대강을 통한 새로운 교육협력 비전과 추진전략 변화

일본의 개발협력은 2015년 2월에 새롭게 개정된 개발협력대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개발협력대강은 국제협력주의에 기초하여 적극적 평화주의 관점에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확보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공헌한다. 또한 그와 같은 전략을 통해서 일본의 국익 확보를 도모하는 일본의 기본적인 방침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외교정책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정부개발원조(ODA)를 전략적이며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개발협력대강은 ‘비군사적 협력에 따른 평화와 번영에 대한 공헌’, ‘인간의 안전보장 추진’, ‘자조노력에 대한 지원과 일본의 발전경험과 지식을 근간으로 하는 대화·협동하는 자립적 발전을 향한 노력’ 등 세 가지 측면을 개발협력기본방침으로 한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서 ‘질 높은 성장과 이를 통한 빈곤박멸’, ‘보편적 가치의 공유와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 실현’, ‘지구규모 과제에 대한 전략을 통한 지속 가능하면 강인한 국제사회의 구축’ 등 3대 중점과제에 따라서 협력을 추진한다(日本外務省, 2022b).

2015년 UN이 새로운 개발협력 구상으로 제안하였던 SDGs 2030 실천전략이 구체적으로 드러남에 따라서 일본의 ODA 현장도 새로운 구상과 미션을 담은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는 현장에 따라 집행되고 해당 현장에는 “국제 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이바지하여 일본의 안보와 번영을 보장하도록 한다.”라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해당 현장은 다시 초안이 작성되어 2015년에 “개발협력 현장”이라는 이름으로 채택되었다. 개발협력 현장에는 ODA의 범위를 넘어 “모든 사람의 위한 평화, 번영 및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를 주제로 삼았다(日本外務省, 2022b).

2015년 ODA현장을 개정하게 된 것은 앞에서 언급한 ‘새로운 자본주의’ 추진을 위한 배경 요인으로 2013년에 제창한 “새 일본이 돌아왔다”(Japan is Back)라는 정부의 신 국가 성장 전략에서 비롯하였다. 디스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침체 및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가 20년간 지속되면서 일본은 부흥을 위한 강력한 전략이 필요했다. ODA의 전략적 중요성 및 다양한 역할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다시 논의되었다. 국가 안보 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및 “일본이 돌아왔다”는 세계와 국익을 위해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른 새로운 ODA 현장은 기존 ODA 프레

임워크에 맞지 않는 프로젝트를 명시하는데 이는 높은 소득 수준을 지닌 도서국가에 대한 협력 및 민간 투자 협력을 포함한다. 또한 이는 일본의 국익 보장에 기여함을 명시한다. 따라서 일본의 새로운 국가 성장 전략은 해외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새로운 준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안해정 외, 2016: p. 91).

일본 ODA를 통한 과거의 기여를 인지하고 새롭게 개정된 현장은 다음의 세 가지 기본 원칙을 강조한다(日本外務省, 2022b; 안해정 외, 2016: p. 91-92). 첫째, 비군사적 목적의 협력을 통한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자 한다. 일본의 개발협력은 진정성 있는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염원의 구현으로써 세계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기반으로 일본은 해당 정책에 대한 지지를 지속하고 군사적 목적, 국제적 충돌을 도발하는 목적으로 개발협력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여 적극적으로 국제 사회의 평화, 안전, 번영에 기여한다. 둘째, 인류 안보를 도모한다는 지침에 맞추어서 일본의 개발협력은 개개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특히 아이들, 여성, 장애인, 노인, 피난민, 국내 난민, 소수 인종 및 원주민 등과 같이 취약한 사람들을 포함한다. 또한 인류 안보를 실현한다는 목표 하에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협력을 제공할 것이다. 셋째, 자립적인 개발과 수원국의 주체적인 실천의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일본 개발협력의 특징은 대화와 협력을 통한 각 부문 위주의 접근으로 개발도상국의 자조적인 노력을 지원하고 미래의 자립적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전통을 근간으로 하여 일본의 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이 고유의 이니셔티브를 구축하고 스스로 개발을 위한 노력 및 일본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면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개도국의 자립적 개발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둔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2016-2020 기간 동안 ‘평화와 성장을 위한 학습 전략’이란 이름으로 국제 사회가 2015년 유엔 총회에서 SDGs에 합의하였던 양질의 교육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정책은 특히 인천에서 열린 세계교육포럼 2015에서 채택된 교육 2030(Education 2030)에 적용되며 SDG 4 교육목표의 근간이 되었다. 이 정책은 일본의 60년간의 교육 협력에 대한 경험을 활용하여 인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실천수단과 활용전략으로서 전 지구적 수준의 ‘평화와 성장을 위한 학습 전략’으로 “All Japan”모드로 협력전략을 적용한다(안해정 외, 2016: p. 98).



<그림1> 일본의 교육개발협력 비전과 원칙

출처: 평화와 성장을 위한 학습 전략: 상호 학습을 통한 양질의 교육 성취 (Government of Japan 2015b, p. 4.), 안해정 외, 2016. p. 100에서 그대로 전재하여 재인용함.

새로운 접근은 국가 건립 및 성장에 기여하는 인적자원 개발 및 지속 가능한 개발 장려의 목표와 함께 “상호학습을 통한 양질의 교육 실현: 모두를 위한 학습, 학습을 위한 모든 것”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한다. 일본이 개발협력 대강에 기초하여 실천하고자 하는 세 가지 원칙은 (1)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학습을 위한 교육 협력, (2) 산업, 과학, 기술 인적자원 개발 및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개발을 위한 교육 협력, (3) 교육협력을 위한 국제·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확장을 포함한다. 또한 일본의 교육개발협력은 “보다 나은 학습”을 실현하고, “국제·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필수 시스템 구축” 및 “국제 사회의 성장과 혁신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 및 국제 사회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Government of Japan, 2015b, p. 4). 비전과 원칙은 앞의 [그림 1]로 잘 설명된다(안해정 외, 2016: p. 100).

3.2.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따른 ESD·시민교육의 글로벌 협력구상 실천

2000년대 초반 이래 일본 정부는 세계화를 상징하는 국제이해교육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본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후로 일본 내에서는 ESD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이라는 국가 정체성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2015년 5월 인천에서 열린 세계교육포럼에서도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세계시민교육과 동등한 역할로서 세계교육의제로 확립되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은 평화와 환경, 시민의식 등을 고양함으로써 지구촌의 미래 발전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에 초점이 모이고 있다. 일본은 ‘개발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동반성장 전략이 글로벌 교육공동체를 달성하는 첩경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일본의 세계시민교육은 개발협력을 통한 발전전략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실천과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연계하는 그 자체라고 이해할 수 있다(윤종혁, 2021: p. 25).

일본 정부가 구상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은 세계 시스템에서 드러나는 환경, 빈곤, 인권, 평화, 개발 등의 과제를 지구촌 과제로 인식하고, 일본의 국가 정책으로서 실천하는 ‘지속가능역량을 육성하는 시민교육’인 것이다. 결국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은 이와 같은 글로벌 수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서 새로운 가치관이나 행동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창조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일본의 학교현장은 선진국이 대응해야 할 환경보전을 중심으로 한 과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환경, 경제, 사회의 통합적인 발전 전략을 구상함과 동시에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세계 규모의 지속 가능한 개발로 이어지는 여러 개발협력과제를 중점 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이를 중점적으로 소개하는 실천방안이 바로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유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 10년 실천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2013년 11월 제37회 유네스코 총회에서 “유엔 ESD의 10년”(2005~2014년)의 후속 프로그램으로서 “ESD에 관한 글로벌 액션 프로그램(GAP)”이 채택되어 2014년 제69차 유엔총회에서 승인되었다(日本文部科學省, 2019).

일본 정부의 정책 기조로 볼 때, 지속가능한 개발은 정치적인 합의, 금전적 유인, 또는 기술적 해결책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국가적 수준에서 교육주체의 사고와 행동 혁신이 있어야 하며,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것은 이런 교육혁신을 실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혁신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끌어내고, 만인에 대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학습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 일본 정부는 그런 측면에서 교육비전 2030 전략

과 결합하는 방식으로“ESD에 관한 글로벌 액션프로그램(실천계획)”을 본격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원래 지속가능발전교육은 ‘현재 우리 세대가 누리고 있는 글로벌 환경 속의 이익과 행복에 대해, 미래 세대도 그와 동일한 정도, 혹은 그 이상으로 계속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준비 교육’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심각한 사회·경제적인 불평등, 환경오염 및 훼손, 생물다양성을 상실하는 생태계 위협, 자연재해와 기후변화로 인한 파괴 등을 교육적으로 예방하고 복구하는 전략을 강조한다. 또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세계시민교육과 더불어 인권, 평화, 환경보존, 양성평등, 사회적 유대, 빈곤퇴치 등을 위한 실천사업을 전개한다. 즉,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통해서 글로벌 지구촌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삶과 민주주의, 인간의 복지에 기초한 평등을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제안한 기후변화협약, 유엔생물다양성협약,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등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 훈련, 홍보에서 비롯하였다. 이를 계승하여 2002년 UN 총회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을 선언하고, 일본, 스웨덴, 독일, 덴마크 등이 선도하여 교육전략과 실천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UN 회원국들은 지난 10년 동안 공동의 주인의식과 참여의식을 통해 ‘새천년개발목표(MDGs)’, ‘모두를 위한 교육(EFA)’, ‘유엔문해 10년(UNLD)’ 등과 연계 추진하는 계획을 실천하였다(윤종혁, 2021: p. 32-33).

이와 같이 일본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지구촌 미래와 인류 개개인의 복지를 실현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즉, 교육은 지구촌 평화교육체제를 갖추고, 지속가능하면서도 인간에게 포용적일 수 있는 가치와 역량을 올바르게 육성해야 한다. 교육은 소수 민족의 문화와 언어를 포용할 수 있는 교육 생태계를 갖추어야 하며,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유네스코에 따르면, 지구촌 환경보존과 생태계, 녹색성장 산업과 소수민족 배려정책 등의 글로벌 시민교육을 포괄하는 교육과정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 대책이 요청된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윤종혁, 2021: p. 36).

4. 일본의 국제교육개발협력 연계전략과 향후 과제: ‘타협’과 ‘상생’

현재 일본의 외교정책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특성은 글로벌 수준의 대표적인 국익외교(National Interest Diplomacy) 정책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 자국민의 개발협력에 대한 공감과 수용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민간기업의 자본을 활용하는 등 재산성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기존에 부정적인 개념으로 금기시되었던 구속성원조 방식을 포함하여 국가경제를 후원하는 개발협력 외교정책이 강조되고, 심지어 교육개발협력조차도 인도주의적 관점보다는 인재육성과 시장교육 원리를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 이를 대변한다. 예를 들면, 수원국의 주체 의식과 협업체계를 강조하면서도 공여국의 자본과 시스템, 교육제도 등이 자연스럽게 이식·체화되는 것이 최근 교육개발협력, ODA 진흥정책이 가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SDG 4번 목표(교육) 2030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공공기구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우선 외무성은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향상시키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개도국

4) 사실상 글로벌 수준에서 2010년대 금융공황에서 촉발된 ODA 효과성에 대한 자국민들의 부정적인 정서와 재정적 위기 등에 대한 대책이 국익외교정책으로 전환된 계기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영국과 네덜란드, 일본 등이 이를 주도하면서 OECD DAC 조차 개발협력계원으로 민간기업 등이 적극 참여하는 전략이 정착되고 있다.

이 직면한 복잡한 교육 문제에 적극 대응하며, 주로 일본의 경험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All-Japan” 방식의 협력이 도모하고자 한다(안해정 외, 2016: p. 101). 문부과학성(MEXT)은 UNESCO와의 오랜 우호 관계 및 ESD에 대한 지지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ESD의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교육 협력에 있어 일본의 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일본 교육 모델의 세계적 확대(Global Expansion of Japanese Education Model)”라고 불리는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향후 일본의 개발협력은 몇 가지 장기적인 과제를 모색해야 한다. 국제사회 전체를 살펴보면, 2015년에 채택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와 같은 해에 성립한 기후변동에 관한 파리협정이 지향하는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구나 2020년 이후 전 세계를 급습한 코로나19 감염질환에 대한 대책도 부각되었다. 이런 모든 과정을 외교적으로 종합하는 관점에서 2016년 이후 제안하였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FOIP)을 중요한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결국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기후변동, 코로나19 대유행, FOIP는 각각 서로 다른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구촌 새로운 평화전략으로 부각된 개발협력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재도 코로나 19 감염질환에 따른 경제공황, 사회불안 등의 상황으로 인해서 수많은 SDGs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日本外務省, 2022b: p. 7)

이미 수십년에 걸쳐서 감소하였던 극빈층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극복하기 위해 서라도 세계적으로 상당수의 개발도상국들은 극도의 빈곤을 박멸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전략을 강화·실천해야 한다. 더구나 ‘인간의 안전보장’을 중시하는 일본의 개발협력은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실천 전략의 최전선에서 맞서 대응해야 하며, 기후변동문제는 2021년의 UN 기후변화협약 제26회 조약국 회의(COP26)에서 지구의 평균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1.5도 미만으로 억제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기후변동대책을 실천하는 것이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이 된다는 근거에 따라서 개발협력에 대해서도 민간투자를 활용한 상승효과를 제고하는 창조적인 기후변동대책에 따른 전략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자연재난방지대책은 일본 자체적으로도 커다란 개혁과제임과 동시에 일본이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전문분야이기도 하다. 코로나 이후 세계에 있어서 특히 인도태평양지역은 가장 역동적인 발전 가능성을 가진 지역이다. 20세기 후반 동아시아에서 시작하였던 성장의 커다란 물결이 두 개의 대양을 뛰어넘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지역을 커다란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극도의 빈곤층과 취약하고 불안정한 정치사회를 겪고 있는 국가들도 있다. 인재육성과 인프라를 정비함으로써 미래 전망을 열어 나가면서 후발개도국이 부담해야 하는 여러 측면의 SDGs를 달성하는데 진력할 필요가 있다. 자유롭게 열린 질서를 유지하면서 코로나체제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을 더 튼튼하게 회복하는 전략(Build Back Better)이 바로 일본의 교육외교와 개발협력의 커다란 사명일 것이다(日本外務省, 2022b: p. 7).

결국 외무성과 문부과학성 등이 연계하는 개발도상국의 기초교육 육성전략이 가장 일본의 교육발전 경험을 잘 반영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세계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약 5,800만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중등교육 단계까지 추정하면 전 세계 아동의 16.8%에 해당하는 약 2억 5,600만 명의 아동이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특히 2000년 이후로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동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이후로 코로나 19 대유행에 따라서 학교봉쇄 전략이 가중되면서 상당수 아동이 이런 학교 접근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장 장애인학생, 소수민족과 이주민 자녀 등의 교육취약계층, 강제이주민

과 난민자녀, 도서벽지지역 주민자녀도 교육접근성에서 큰 위험부담을 안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학교 봉쇄조치로 인해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영양결핍, 조혼, 젠더 불평등에 대한 악영향도 초래되었다(日本外務省, 2022b).

현재 UN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4번 의제로서 ‘모든 사람에게 포용적이고 공정한 양질의 교육을 확보하고, 평생학습의 기회를 촉진’하는 ‘교육 2030 실천전략(Education 2030 Framework for Action)’을 달성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 일본은 2019년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G20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인적자본 투자 이니셔티브 ; 포용적이고 강인하며 혁신적인 사회를 창조하기 위한 질 높은 교육’에 따라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최소 9백만 명의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교육×이노베이션’ 실천전략을 추진하였다. 2030년까지 모든 아동이 질 높은 초등·중등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해 가속적으로 혁신적인 전략을 실천한 것이다.

일본은 지난 65년 이상 국제사회에서 OECD DAC 회원국 중에서 평화와 인도주의, 좋은 거버넌스의 법치 중심 교육협력을 강조한 대표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DAC 회원국 중에서 ODA 예산 세계 1~2위권을 유지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 국내경제 상황에 따라서 2021년 현재는 세계 3위권의 실적을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국제교육개발협력은 SDGs 2030 실천전략에서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의 주도협력국가로서 ESD, 기초교육, 인간 및 과학경제안보외교 정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즉, 기존의 국내 상황에 적합한 예산규모와 아시아·아프리카 및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규모의 개발협력, 평화와 인도주의, 인권과 개발을 위한 교육협력정책을 적극 실천한다.

◀ 참고문헌 ▶

- 안해정·서예원·윤종혁·김은영·임후남·박환보·최동주·김명진·이정화(2016). 2030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실천 방안 연구: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안해정·박효원·윤종혁·서예원·정재원·박환보·장은하·조순옥·김신애(2021).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교육개발협력 연구(V): 문해교육 실천전략. 한국교육개발원.
- 윤종혁(2009). 일본의 교육협력. 한국교육개발원 연구포럼자료집. 선진국의 아시아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협력정책, 추진체제 및 협력사례 분석.
- 윤종혁(2021). 일본의 지속가능발전교육(ESD)과 세계시민교육(GCED)의 쟁점. 한국일본교육학회 공병호 외(편). 일본의 세계 시민교육: 실천과 방향. 학지사.
- 윤종혁(2022a). “미래 세계시민교육의 방향과 지속가능성 쟁점: 새로운 ‘타협’과 ‘상생’의 문제”, 2022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충남대학교 세계시민교육세션. 2022년 6월 30일.
- 윤종혁(2022b). “코로나19 교육위기 극복을 위한 세계 교육동향과 향후 과제”, 2022 초등교육전문직 혁신리더되기 직무연수 자료집. 서울대학교 교육행정연수원.
- 정성윤(2022). 글로벌 중추국가와 한반도 평화: 선제적, 주도적 대응으로 복합위기 극복해야. 평화+통일. 2022년 8월호, VOL. 19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최장집(2022). 네이버 열린연단: ‘강건하면서도 절제된 자유주의’를 위하여. 교수신문, 2022년 4월 25일자.
- UNESCO(2020),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역(2021).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로드맵;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A Roadmap. https://www.unesco.or.kr/assets/data/report/YtZmTjhHkeNyvHNAyjsCcxhAI05Yyq_1622006543_2.pdf (2022년 1월 17일 출력)
-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6).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2005-2014) 최종보고서: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그리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unesco.or.kr/assets/data/report/F5nZBIL3ry309mQulBC6TMWuT8KAC_2.pdf 2020년 8월 19일 최종출력.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홈페이지 ‘해외교육동향’; <https://edpolicy.kedi.re.kr>(2021. 12. 08. 최종검색)

小川佳万外編(2022). **アジアにおける市民性教育の標準化と多様化に関する国際比較研究**. 広島大学大学院人間社会科学研究科. (非公開中間報告書).

小林亮(2018). 유네스코의 지구 시민 교육이 추구하는 능력: 글로벌 시대における 價値教育의 새로운 展望. ‘論叢’玉川大學教育學部紀要 第18号.

近藤孝弘(2014). 民主主義의 持續可能性と市民性教育. 田中治彦·杉村美紀共編. **多文化共生社会におけるESD·市民教育**. 東京:上智大學出版. p.205-221.

シティズンシップ教育と経済社会での人々の活躍における研究会(2006). **シティズンシップ教育宣言**. 經濟産業省.

中治彦(2014). 持續可能な開發のための教育(ESD)の歴史と課題. 田中治彦·杉村美紀共編. **多文化共生社会におけるESD·市民教育**. 東京:上智大學出版. p.88-103.

奈須正裕(2014). 総合的な學習の時間とESD·市民教育. 田中治彦·杉村美紀共編. **多文化共生社会におけるESD·市民教育**. 東京:上智大學出版. p.222-238.

シティズンシップ教育と経済社会での人々の活躍における研究会(2006). **シティズンシップ教育宣言**. 經濟産業省. <http://www.akaruise.nkyo.or.jp/wp/wp-content/uploads/2012/10/hokokusho.pdf> (2022년 2월 3일 출력) 혹은 <https://www.moj.go.jp/content/000012452.pdf> (2022년 2월 4일 출력)

日本外務省(2022a). 2022年版外交青書. <https://www.mofa.go.jp/mofaj/files/100334590.pdf> (2022년 5월 11일 출력)

日本外務省(2022b). 2021開發協力白書. <https://www.mofa.go.jp/mofaj/gaiko/oda/files/100314156.pdf> (2022년 5월 11일 출력)

日本内閣官房(2022a). **新しい資本主義のグランドデザイン及び実行計画-人・技術・スタートアップへの投資の実現**. 新しい資本主義実現本部/新しい資本主義表現会議. 2022年6月7日. https://www.cas.go.jp/jp/seisaku/atarashii_sihonsyugi/pdf/ap2022.pdf (2022년 8월 9일 최종출력)

日本内閣官房(2022b). **我が国の未来をけん引する大学等と社会の在り方について(第一次提言)**. 教育未來創造會議擔當室. 2022年5月10日. <https://www.cas.go.jp/jp/seisaku/kyouikumirai/pdf/honbun.pdf> (2022년 8월 9일 최종 출력)

日本文部科學省(2020). 文部科學白書; <https://www.mext.go.jp>. (2022년 5월 12일 최종 출력)

日本文部科學省(2016). G7倉敷教育大臣會合. 일본문부과학성 홈페이지. www.mext.go.jp/component/a_menu/other/detail/_icsFile/afieldfile/2016/05/15/1370953_02.pdf (2019년 11월 27일 최종출력).

UNESCO(2016). 2016 글로벌 교육 모니터링 보고서. UNESCO(2016. 09. 06)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http://edpolicy.kedi.re.kr>, 2016년 9월 23일 최종출력).

UNESCO(2016). Education for People and Planet: Creating Sustainable Futures for All, Global Education Monitoring Report Summary 2016.

구글 홈페이지(www.google.co.kr, 2019년 11월 27일 최종출력).

Government of Japan(2015a) Development Cooperation Charter – For peace, prosperity and a better future for everyone.

Government of Japan.(2015b). Learning Strategy for Peace and Growth: Achieving Quality Education through Mutual Learning. (Original in Japanese: 平和と成長のための学びの戦略-学び合いを通じた質の高い教育の実現)

OECD 홈페이지. <https://www.oecd.org/dac/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development-finance-standards/ODA-2021-summary.pdf> (2022년 5월 15일 출력)

공생의 관점에서 교육환경변화 분석

장 지 은 (성균관대)

1. 들어가며

교육학 이론 중에서는 레빈(Lewin)의 장이론을 비롯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환경이 인간의 성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있게 고찰한 이론이 있다. 레빈은 인간의 행동은, 장의 함수이며, 장을 이루고 있는 개인과 환경의 함수라고 보았고 상호의존적 변인으로 이루어진 장의 한부분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여겼다. 그리고 장이론에서는 개인의 행동이란 공존하는 사실들의 전체성, 곧 역동적 장(dynamic Field)으로부터 도출된다고 믿고, 역동적 장 안에서 모든 사상은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이라고 보았다(김덕삼, 이경자, 2022; 박병기, 1998). 한편 성인교육에서는 엔게스트롬(Engeström)은, 인간의 행동은 활동시스템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이러한 점에서 진정한 개체의 변화는 자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시스템으로서의 환경에 저항하고 변혁하는 새로운 행동을 통하여 새로운 경험, 그리고 새로운 학습이 가능함을 시사한 바 있다. 이렇듯, 교육학 이론을 통하여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자신의 형성을 도모하는 가능성은 의미있게 제기되어 왔으며, 이와 같은 환경의 영향력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교육의 기능이 더욱 주목받기도 한다.

특히, 문화재생산의 담론의 근거가 되고 있는 P. Bourdieu의 아비투스론에 따라, 미성년 시기의 환경요인은 더욱 비중있게 논의되어 왔다. 왜냐하면 아동은 환경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상호작용하여 가기에는 아직 경험이 미숙하고 자아가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욱 강화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학교라고 하는 환경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주택환경, 교통환경, 여가환경, 커뮤니케이션 환경 등이 많은 변화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물리적인 면에서도 조직 및 체계의 면에서도 변화가 늦어, 사회환경변화와의 갭을 노출하고 있었다. 이러한 학교환경변화의 느슨함은 아동들이 변화하는 사회생활의 주체로서 아직 본격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면에서 전통적 유산으로서의 지식의 체계를 학습하여야 하는 교육환경으로서의 고유성과 독립성이 인정되는 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교가 미래생활의 준비, 그리고 그 미래가 빠른 변화로 다가온다는 면에서는, 전통적 학교체제의 극복은 중요한 과제가 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급변화하는 사회에 의하여 적응의 주체로서 미성년세대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학교는 최근 들어 보다 환경의 측면에서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환경은 비단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심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문화적 환경, 제도적 환경 등 보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환경은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학교환경은 그동안도 공교육의 체계로 인하여 초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안학교와 같이 공동체지향, 자연친화, 학습자 중심의 가치를 기반으로 교육을 추구하여왔다. 나아가 근년에는 급변화하

는 사회의 맥락에 대응하여 공교육 내에서도 종래에 없었던 형태의 공교육 환경 개선에 돌입하고 있는 정책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이나 일본 등에서 나타나는 인구구조의 변화, 극심한 도시집중현상,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그리고 4차산업혁명을 비롯하여 코로나 19로 확대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등의 변화 등은 교육환경변화에 많은 도전을 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급변화하는 사회 속에 두드러지는 사회과제에 대응하여 교육환경의 과감한 변화를 도모하는 일본의 교육정책은 교육환경의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들어와 학교환경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역연계정책, 교육정보환경 개선, 그리고 학교복합화 관련하여 나타난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2. 학교환경변화와 교육경험 확장

2.1. 학교와 지역연계 - 커뮤니티 스쿨¹⁾

글로벌화, 고령화, 개인주의 심화 속에서 현대 일본 사회에 있어서 교육환경의 확대에 크게 활용되어 온 것 중의 하나는 지역이다. 지역은 교육의 관점뿐만 아니라, 지역재생 및 활성화의 관점에서든 주요한 정책 현안으로 주목되어 왔다. 지방은 지역공동화의 위기의 극복, 도시는 인간관계의 회박화 속에 커뮤니티의 회복은 중요한 지자체 및 사회적 과제가 되어 있고 (橋本行史, 2015, 9-14) 이러한 사회현상은 곧 교육방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014년 제2차 아베내각에서 「마을, 사람, 일 창생본부」가 설치되고 인구감소억제와 지역활성화를 추구하는 「마을, 사람, 일 창생법안」과 지역지원책의 신청창구를 일원화하는 「지역재생법개정안」이 국회에 통과하여 성립하였다. 마을, 사람, 일 창생법은 지역사회형성(마을), 지역인재확보(사람), 지역취업기회창출(일)을 기본이념으로 표방하였다(大森 彌, 2015). 이를 통하여 아베노믹스라고 불리는 구조개혁 속에서 민간의 잠재력을 끌어내며 여성, 젊은이, 고령자들이 활동하는 장으로서의 지역은 중요한 정비의 대상이 되었다(橋本行史, 2015; 장지은, 2019).

사실, 위와 같이 개인의 생활영위와 사회적 공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으로서의 지역은 고도경제성장기부터 주목되어왔다. 1970년대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한 일본사회는 경제제일주의 가치관의 지배 속에서 선별경쟁에 따른 교육황폐, 전통적 생활양식의 붕괴, 환경오염 등에 의한 생존위협 등의 문제를 일상에서 느끼면서, 문제의 근본을 함께 생각하고 처방을 강구하는 사색과 실천의 장으로서의 지역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게 된다. 또한 아래로부터의 변혁의 장인 지역에의 관심이 고양되는 가운데 정재계에서도 정주구상과 지역의 자립이나 산업을 위하여 위로부터의 고향만들기(ふるさとづくり)가 추진되며 적응의 장으로서의 지역만들기가 전통문화살리기, 평생교육, 커뮤니티 활동의 추진으로 나타났다(北田耕也, 1986:124-126; 장지은, 2019).

2.1.1. 학사연계, 학사융합

위와 같이 사회적 문제의 해법으로서의 지역의 활용은 이미 1970년대 본격적인 사회교육정책으로

1) 본 장은, 장지은, 이준희(2019). 일본의 지역연계기반의 커뮤니티스쿨의 특징. 비교교육연구. 29(3), 63-90. 그리고 장지은, 박지숙 (2014). 지역연계를 바탕으로 한 학교교육지원 -일본의 학교지원지역본부와 학교블런더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20(1)pp.1~30를 토대로 재구성되었다.

서도 부각되었다. 즉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즉 학사연계가 사회교육담신을 통하여 발표되었다. 장지은(2014)의 정리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학교와 지역의 교육력(教育力)을 높이기 위한 교육전략으로서의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학사연계(学社連携)’에서 ‘학사융합(学社融合)’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시켜 왔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활동에 대한 논의는 이미 전후(戰後) 1949년 사회교육법이 제정된 당시부터 법률로 규정되었다. 사회교육법 제44조에서는 학교의 관련기관은 (...중략...) 그 관할하는 학교 시설을 사회교육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48조에서는 (전략) 문화강좌, 전문강좌, 하기강좌(夏期講座), 사회학급강좌 등 학교시설의 이용에 의한 사회교육강좌의 개설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전후(戰後)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는 주로 지역평생교육을 위하여 학교개방의 형태를 취하는 정책으로서 1960년대까지 지속되어 왔다. 그런데 1971년, 정부의 정책자문심의 보고서(일본에서는 답신(答申)이라고 함)인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처하는 사회교육의 자세에 관하여(1971,4.30)」를 통하여 학사연계의 성격이 규정되는데, 여기에서는 청소년교육을 위한 항목에서 가정교육·학교교육·사회교육 3자의 유기적 결합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1981년에는 문부과학성의 정책자문기구인 중앙교육심의회의 답신에서 국가차원에서 평생교육을 테마로 하여 성인이 되기까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과의 연계·협력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침은 이후 1985-87년 총리의 자문기관인 임시교육심의회의 답신에서 더욱 강화되어, 학교교육에 대한 반성과 함께 가정과 지역의 교육력 회복 및 가정·학교·사회의 3자가 연계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 답신에 의하여 실시된 학교 주 5일제와 함께 학교교육의 재편성을 위한 학사연계의 중요성, 기존의 학사연계의 관점에서 ‘가정·학교·지역의 3자를 융합한 종합적인 학습기회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더 나아가 1996년의 생애학습심의회답신 「지역에서의 생애학습기회 충실을 위한 방책에 관하여」에서 비로소 학사융합이 제안되었고 문부성의 생애학습국은 1996년 학사융합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체험학습프로그램개발사업(국립청소년교육시설에 위촉)’, ‘교육네트워크 구축 추진사업(시정촌에 위촉)’을 전개하였다(上條秀元, 1997; 장지은, 2014). 이러한 가운데 연구자들은, 학사연계와 학사융합을 개념의 발전적인 관점으로 분류하여 논의하였다. 즉 학사연계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社會教育)이 학교교육의 개선과 지역평생학습의 추진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여 각각의 역할분담을 전제로 한다(林田匡, 2013:41)고 하면, 학사융합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적극적으로 특정의 교육과제를 공유하며 양자의 교육력을 동시에 제고한다는 것이다(山本恒夫, 1996; 장지은, 2014).

2.1.2. 학교지원지역본부와 커뮤니티 스쿨

그간 위와 같이 학사연계 및 학사융합을 통하여 학교교육환경의 확장을 도모하여 왔던 학교지역연계에 기반한 학교교육환경의 개선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학교지원지역본부, 그리고 커뮤니티 스쿨을 통하여 정책적 계승을 하고 있다. 학교-지역 연계는 변화하는 사회와 학교교육의 실제적인 문제, 예를 들어 학령인구감소로 인한 학교운영곤란의 문제등에 대응한 과제해결형의 접근의 성격도 보이고 있다. 일본은 2004년을 피크로 하여 급격한 인구감소 속에 생산연령 인구가 급감하여 전국의 초중학교가 2014년-2015년 2년간 997교가 폐교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지역에서는 지역 그 자체의 존속을 걸고 마을 만들기, 사람 만들기, 일 만들기를 추진하고 미래의 커뮤니티를 짚어질 인재육성의 관점에서 지역 사회와 학교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静岡教育総合センター, 2015).

2000년대 학교지역연계는, 2008년도 학교지원지역본부 사업을 통하여 더욱 확대되었다. 문부과학성에서는 학교, 가정, 지역의 연계 협력 하에 교육을 추진한다고 하는 기존 방침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이와 같은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원능력개발을 도모하여 지역평생학습사회의 실현, 그리고 지역교육력의 향상 그 자체를 목적으로 표방하였다(문부과학성 2015). 그리고 이를 위하여 학교의 요구와 지역의 자원을 연결하는 창구로서 시정촌 단위의 학구 중심으로 학교나 공민관(일본의 사회교육시설)과 같은 기관에 학교지원지역본부를 설치하였다. 나아가 여기에 지역코디네이터라고 하는 유급인력을 배치하고 지역교육협의회라고 하는 의사결정기구를 설치하여 지역민이 학교볼런티어가 되어 학교교육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의 교육력을 제고하는 사업이 추진 되었다(장지은 외, 2014; 장지은, 2019). 그리고 학교지원지역본부에 머물지 않고 학교 교육환경의 확장은, 이후의 본격적인 커뮤니티 스쿨을 통하여 제도적으로는 더 확장한다. 커뮤니티스쿨은, 2015년도의 중앙교육심의회 답신 「새로운 시대의 교육과 지역창생의 실현을 위한 학교와 지역의 제휴 협동의 본연의 자세와 향후 추진방안」을 통하여 제안된다. 이 답신에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나 보호자 등도 포함하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육의 당사자가 되어 사회 전체로서 교육의 실현을 도모하는 지역평생학습사회의 실현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학교와 지역이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일체가 되는 「지역과 함께 있는 학교」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존의 커뮤니티 스쿨의 제도적 재검토를 통하여 사회교육의 체제로서 지역주민이나 단체 등의 네트워크화에 의하여 추진하는 「지역학교 협동본부」의 준비를 제안한 것이다(문부성자료, 2015 답신; 장지은, 2019).

이러한 답신의 배경에 관련하여서는 장지은(2019)의 선행정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원래 지역과 학교가 일체가 되어있던 일본 사회가 전후 사회교육법(1949년)의 성립과 생애학습진흥법(1990년)의 제정으로 인하여 이미 지역사회에서는 문화·학습 및 교류 거점이 공민관, 도서관, 문화회관, 대학, 민간의 컬처 센터, 그리고 다양한 평생학습관련 NPO 들이 설립되어 있어 학교지원정책이 추진되어도 지역사회와 학교와의 괴리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小林文人, 2018). 그리고 학교 내부적으로는 학교붕괴에 관련된 청소년들의 폭력 및 일탈 행동(今津 孝次郎, 2014)이 증가하였으며, 사회 전체적으로는 인구감소와 충당가능재원 등을 근거로 한 시설총량감소책에 따른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石井山竜平, 2018) 나아가 일명 「마스다(増田) 레포트」라고 불리는, 전 총무대신 増田寛也이 발표한 내용과 같이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도쿄에의 일극집중현상으로 지역소멸론(大森彌, 2015) 등의 위기론에 의하여 학교는 지역전체의 상황과 관련지어 인식되어야 하였기 때문이다(장지은, 2019).

그리하여 2015년 답신 이후의 정부의 학교-지역연계의 방향은 지역사회시스템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학교의 문제에 대하여, 지역사회 전체의 네트워크의 구축과 가동 을 통하여 해법을 찾는 것이었다. 佐々木保孝(2017)등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지원지역본부의 50%이상이 운영사무국을 공민관(일본의 대표적인 성인학습시설)에 두고 있고 공민관이 연계추진모체가 되어 학교의 요구와 지역의 지원인력을 매칭하였다. 특히 공민관에는 다양한 문화활동서클이 항시 운영되고 있어 교육지원에 활용할 인적 자원이 있고 기존의 공민관이나 교육위원회 인맥으로 볼런티어의 발굴이나 모집 교육에도 기여한다는 실태가 나타났다(佐々木保孝, 2017). 위와 같은 2015년도의 답신이후, 문부과학성의 자료에 따르면, 전술한 2015년도의 중앙교육심의회 답신 이후 추진되는 커뮤니티 스쿨의 구체적인 양상은 다음과 같다. 전술한 답신에서는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을 창생하기 위하여 종래의 학교지원지역본부

등과 같은 지역과 학교의 연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체제로서 「지역학교협동본부」를 전국에 정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학교협동본부에서 추진하는 지역학교협동이란, ‘지역과 학교가 연계 협동하여 고령자, 성인, 학생, 보호자, PTA, NPO, 민간기업, 단체, 기관 등, 폭넓은 지역주민 등의 참획에 의하여 미래를 짚어질 아이들의 성장을 도와주고 지역을 창생하는 활동으로서 ‘지원’으로 부터 ‘연계·협동’으로, 개별 지원 활동으로 부터 종합화·네트워크화로 발전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文部科学省, 2017; 장지은, 2019)

그리하여 학교 지역연계는, 학교지원에만 편향되어 온 기존의 방향을 크게 전환하여 지역단위에서 학교 살리기와 학교돕기를 매개로 하여 증진하는 지역 학습력, 지역 교육력을 바탕으로 지역부흥을 유도하는 지역 활성화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마을이 주도하는 교육사업에서 광범위하고 지역 맥락적인 사회적 경험을 아이들에게 제공한다고 하는 특별한 교육환경의 확장을 가져왔다.

2.2. 의무교육학교 일관학교

일본은, 새로운 학교시스템의 구축의 일환으로서 2015년도에 일관교육의 제도화를 의무교육학교를 통하여 도모하였다. 그 배경에는 무엇보다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이노베이션을 도모하고 국제노동시장에서 다양한 가치관을 수용하고 공생할 수 있는 인재육성에 대한 국가적 요구가 있었다. 또한 교육문제로서는, 전후 70년이 지난 현재, 아이들의 발달이 조기 화하고 있고 초1프로그램이나 중1겍이라고 불리는 진학에 동반한 환경변화에 대한 부적응의 과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종래의 6-3-3-4 학교제도가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효과적인 제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교육재생실행회의에서 학제개혁의 방향을 일관교육에 두고 초중일관교의 제도화를 추진하였다.²⁾

일본에서 일관교육이 도입되기 시작한 시기는 2000년 초반이며, 히로시마현 구레시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구레시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1개를 문부성 ‘연구개발학교’로 지정하여 학교급을 구분하지 않고 교육과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관교육 실천 모델을 개발하였다(히코 코세이, 2018; 임연기 외, 2018:123; 이현명, 2019)³⁾. 일반적으로 학교통합의 목적이 학교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 최소한의 학교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관교육은 기존 학교 교육의 한계를 넘어 학년과 학교 급을 아우르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하여 학교의 교육이념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는 학생 수 감소로 어쩔 수 없이 취해진 것이라면 후자는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하여 학교 스스로 자발적으로 취한 것이다. 또한 전자는 보호적이고 양적이라면 후자는 혁신적이고 질적이다.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초중학교 일관교육에 대해 연구학교 등을 통해 성과를 축적하여 왔고 교육재생실행회의의 제 5 차 제안과 중앙교육심의회 답신을 거쳐 2015년 6월 국회에서 9년간의 의무교육을 일관되게 진행하는 새로운 학교유형인 ‘의무교육학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학교교육법을 발표하고 2016년 4월에 시행하였다(성열관, 2019)⁴⁾.

이미 실시되어 온 일관교육의 실태나 사례조사에 따르면 일관교육은 학생이나 학교환경, 교육과정 등

2) 중앙교육심의회 자문 2014년 7월 子供の発達や学習者の意欲・能力等に応じた柔軟かつ効果的な教育システムの構築について

3) 히코 코세이(2018). 일본의 일관학교 제도와 사례: 서울형통합운영학교연구팀 제2워크숍자료집. 1-21. 강원도교육연구원(2019). 강원도형 초중통합운영학교 실태연구. 연구책임자 이현명

4) 성열관의 연구보고서 내의 조규복의 기고에서 인용함. 성열관(2019). 저출산시대 도래에 따른 통합학교 교육과정 효율적 편성·운영방안 연구.

에 여러가지로 유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학생들은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되고 다른 연령 층과의 교류로 인하여 사회성이 증가하며 학교에서는 복식학급이 줄어들고 학생수의 증가로 인하여 다양한 집단 활동이 가능하여 지며 교과담임제나 교차 수업등으로 학업성적이나 학습의욕을 고취하는 것등이다.

<표1> 일관학교의 교육적 효과

학생	선의의 경쟁 발생, 향상심 증가 / 교사의존도 감소 / 사회성과 의사소통능력 증가 / 학습의욕 증가/ 친구증가 / 다른 연령과의 교류, 집단놀이 가능, 야외놀이 증가/ 학교가 즐거워 응답증가/ 진학격차완화/ 다양한 진로 이해
학교환경	복식학급해소/ 반편성가능/ 교직원의 다각화 / 교직원간의 협력 및 연수활성화 / 그룹 학습과 반별활동 활성화/ 예체능 집단교육, 운동회, 학예회, 동아리 활동 개선/ 소규모지도 및 학습정도에 따른 지도 등 다양한 지도형태가능/ 특별지원학습 개설/ 균형잡힌 교원배치가능/ 시설개선, 교재교구양적인 증가/ 교무 효율화/ PTA 활성화 및 지역연계증가
교육과정관	학력증가/ 생활리듬, 체력개선, 수업진전, 학습의욕 향상 등 / 교과담임제 실시 쪽에서 더 많은 개선/ 교차수업하는 쪽이 성적, 학습습관, 의욕, 학교생활만족도 등이 높음.

자료: 성열관, 2019

2.3. 지자체 단위의 도입: 동경도의 시나가와구 (東京都品川区)

시나가와구에서는 2002년부터 히노학원이 초중일관교육에 관한 문부과학성연구개발학교로 지정되어 2003년에 구조개혁 특별구역법에 근거하여 구 전체가 초중일관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시나가와초중일관교육요령」을 발표한다. 2006년 4월에 시설일체형 초중일관교인 히노학원의 개교와 동시에 전구립초중학교에서 초중일관교육을 개시하였다.

일관교육의 추진배경에는 초졸학생이 중학교 진학 후 학교부적응, 기초학력부진 및 폭력성을 보이는 것에 대하여 초등교사들은, 평범한 학생이 중학교 진학 이후 문제가 발생하여 중학교 교육에 불신을 가지게 되고 중학교 교사는 기초학력부진문제로 초등학교 신뢰가 저하된 가운데 각급 학교급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던 맥락이 있다. 그리하여 갈등해소를 위하여 교육위원회는 구전체를 초중일관교육을 도입하게 된다. 2019년 현재 6개의 의무교육학교(일관교육)가 있고 모두 시설일체형이다(히노, 이토, 야시오, 에바라히라즈카, 시나가와, 히요노모리 등). 초기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문화적 차이로 용화되지 않았으나 의무교육학교라는 새로운 정체성과 소속감을 가지도록 하였고 2006년에 교사들이 각급학교 간의 교육과정의 연속성과 연계성이 이루어지도록 협의하여 시나가와구 학습지도요령을 만들었다. 이와 같은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수업뿐만 아니라, 생활교육, 학습, 공동체활동이 중심이 되는 교육을 추구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방식은 1-4학년은 학급담임제, 5-9학년은 교과담임제를 실시한다. 나아가 학년구분에 따른 지도목표는, 1-4학년의 경우, 기초 및 기본의 정착을 도모. 5-7학년은 기초 기본을 철저히 하여 학력의 정착과 능력배양에 중점을 두며 8-9학년은 학생의 개성과 능력을 발휘하도록 지도하도록 되어 있다.⁵⁾

위와 같은 일관학교는 두개이상의 각급학교가 통합됨으로서 물리적 환경 면에서 학교 및 학생 규모가 증대하고 이에 따라 학생이 학교에 거하는 시기에 다양한 학생과 교사, 집단활동, 그리고 교육방식을 가지게 함으로써 성장의 연속성, 예측가능성을 높여준다는 면에서 교육적 의의가 있다.

5) 성열관 (2019) 연구보고서 부록 장지은(2019) 번역, 시나가와 구립 의무교육학교 Kick-off Guide.

학교환경의 변화는 주로 학교바깥의 사회환경과의 연계를 통하여 교육환경을 간접적으로 확장하는 사례가 학사연계의 교육전통을 계승하여 계속되어 왔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위의 일관학교에서 보여지듯이 변화하는 사회문제뿐만 아니라 교육효과를 제고하는 데 필요한 학교 내 환경의 급격한 개선도 나타났다. 그 실태는 학교의 정보환경증대로서 기가스쿨과 교육시설집적화에 기반한 학교복합화를 거론할 수 있다.

2.4. GIGA스쿨

문부과학성의 GIGA스쿨의 정책은, 정부(내각부)의 사회전망에 기반하여 수립된 교육혁신정책이다. 정부는, IoT나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테크 등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변화 가운데 아이들에게 최적화되어 창조성을 키우는 ICT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GIGA 스쿨 구상의 실현에 관하여」를 제창하였고 아동 및 학생 한 사람에게 한 대의 단말기를 제공하는 환경 정비를 추진하였다(日高純司 외, 2021).

GiGAs쿨이, 착수되기 전에 이미 문부과학성자료에서는 ICT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제언이 이루어졌다. 2017년에 고시된 학습지도요령에서는 「각 교과 등의 학습기반이 되는 자질, 능력으로서」충치에 언어활동이나 문제발견, 해결능력과 나란히 정보활용능력(정보모형을 포함)이 거론되었다. 또한, 초등학교학습지도요령에는 「아동이 컴퓨터로 문자를 입력하는 등의 학습기반으로서 정보수단의 기본적인 조작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활동」을 계획적으로 실시할 것이 제시되었다(문부과학성, 2017). 나아가 그 전에 문부과학성(2015)은 초등학교 5학년생 및 중학교 2학년생의 아동학생, 각각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정보활용능력의 습득상황을 측정하는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교에서 ICT를 활용하는 빈도가 높은 학교의 아동학생은, 정보활용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ato Kazunori, 2021).

그러나 현실은, OECD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이하, PISA 2018)의 ICT활용조사의 결과, 일본의 학생들은 학교수업에서 디지털 기기(스마트 폰 등을 포함)의 이용시간이 짧고 ‘컴퓨터를 사용하여 숙제를 한다’, ‘열람자료를 찾기 위하여 수업 후에 인터넷을 열람한다’ 등 수업 외의 ICT를, 학습도구로서 활용하는 경험은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적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의 학교에 ICT 환경 정비의 지체가, PISA에서 요구되는 자질, 능력 향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이해되었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정보활용능력의 육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었던 것이다(국립교육정책연구소, 2019).

이러한 가운데 중앙교육심의회에서는 ‘빅데이터의 활용 등을 포함하여 사회전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의 가속을 표방하며, 학교교육의 방향도 검토할 필요’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교육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GIGA School(Global and Innovation Gateway for All) 구상을 내걸고 2022년도를 목표로 하여 공립 초·중학교의 모든 아동학생에게 1인1대의 정보단말기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런데 코로나 19에 의한 휴교조치에 의하여 아동학생의 학습이 정체되자, GIGA스쿨 구상이 앞당겨져서 2020년도 말을 목표로 하여 정책이 추진되었다(문부과학성, 2020).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언제든, 어디서든지 배움을 보장하기 위해 1인 1대의 단말기의 정비가 실현되었고 나아가 1인1계정, 초고속네트워크, 단말의 소지 귀가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Sato Kazunori, 2021).

최근의 문부성조사결과를 정리한 보고⁶⁾에 의하면, 2021년 7월 시점에, 전국의 지자체의 96.1%에

6) 小槌健太郎(2021.9) 文部科学省、GIGAスクール構想の整備状況と課題の調査を公表.

해당하는 1,742 지자체에서 GIGA스쿨에 의한 학습자용 단말 준비가 완료되었다. 그리고 전국의 공립 초등학교의 96.1%, 중학교의 96.5%가 GIGA스쿨의 단말 이용·활용이 개시되었다(문부과학성 「端末の利活用状況等の実態調査」).

2.4.1. GIGA 스쿨의 전개와 효과

이렇게 추진된 GIGA 스쿨의 전개와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성과가 발표되어 있는 실천학교 사례연구결과를 보면, 향후 ICT 활용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해당연구는, GIGA 스쿨 구성의 표준시양에 따라서 ICT환경이 정비되고 1인 1대 단말을 활용하는 학교에서 ICT 활용에 관한 아동과 교사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ICT활용과 교사의 지도의 특징을 검토한 것이다. 사례학교의 아동은 1인1대의 정보단말을, 매일 활동 속에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조합하여 활용하고 클라우드 위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그리고 교사는 학교 내의 정보단말활용에 관하여 지도하는 특징을 보인다.

연구결과에서는 GIGA스쿨의 도입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정보활용의 면에서 GIGA스쿨을 실행한 학교는, 종래의 일반학교의 학생에 비하여 그리고 OECD 정보활용능력 선진국에 비하여 상당한 높은 성취를 보이고 있다(Sato Kazunori, 2021). 둘째, 이러한 성과를 위하여 학생들의 노력의 요인으로서의 다음과 같은 7가지 행동이 나타났다. 1) 매일 학습 속에서 빈번히 단말기를 사용한다. 2) 클라우드에서 공동편집이나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한다. 3) 조사하고 정리하고 표현하고 통합한다. 4) 조사한 정보를 확인한다. 5) 학습 스케줄 조정에 사용한다. 6) 노트 등 이제까지 학습과의 밸런스를 생각한다. 7) 메일 등에서는 상대방을 상처주지 않으려고 의식하고 학습에 착수해온 것이다. 셋째, 교사들의 ICT 활용지도력에서도 ICT를 활용한 학습자 중심 수업에 배려하는 모습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업 중에 인터넷 검색을 허용하고 조사학습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구글 클래스 룸을 활용하여 과제배부나 제출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 등이다(Sato Kazunori, 2021).

2.5. 학교복합화

일본의 학교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주목할 학교 안의 변화 중 하나는 학교시설복합화이다. 학교시설 복합화는, 한편으로는 공공시설매니지먼트에 대한 요구와 관련되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교육시설노후화로 인한 학교개수 대책마련과 더불어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복합화 역시 학교교육환경의 변화의 관점에서는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공시설매니지먼트와 관련하여서는 지역 내의 공공시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재정운영과 연동하여 계획적 관리와 활용이 필요하다고 하는 관점에서 공공시설의 40%에 해당하는 학교시설매니지먼트를 통하여 공공시설 전체의 효과적 효율적 준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리고 학교시설에서는 복합화의 수요가, 건축 25년이상 되어 개수가 필요한 공립 초·중학교 시설이 약 70%에 육박하는 가운데 지역실정이나 니드에 대응하여 학교시설과 다른 공공시설등과의 복합화의 수요가 증대한 것이다.7)

<https://project.nikkeibp.co.jp/pc/atcl/19/06/21/00003/090100268/>

7) https://www.mext.go.jp/b_menu/shingi/chousa/shisetu/013/toushin/1364500.htm

学校施設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協力者会議(2015). 報告書「学習環境の向上に資する学校施設の複合化の在り方について～学びの場を拠点とした地域の振興と再生を目指して～」



<그림1> 학교시설과 다른 공공시설등과의 복합화 이미지

자료: 学校施設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協力者会議(2015).

학교시설 복합화의 실시상황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조사결과, 공립초등학교 시설의 복합화사례는 전국 10,567교로 전체의 35%를 점하고 현재도 증가경향에 있다. 지역방재시설을 제외하면, 사회복지 시설과의 복합화가 가장 많고 중학교는 공민관이나 사회체육시설과의 복합화가 타시설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표2> 학교시설 복합화 현황

施設区分	文教施設					社会福祉施設							文教施設・社会福祉施設以外の施設					計	
	社会教育施設			社会体育施設		児童福祉施設			老人福祉施設				病院・診療所	行政機関	給食共同調理場	地域防災用備蓄倉庫	民間施設		その他
施設種別	図書館	公民館等	博物館等	プール	体育館等	放課後児童クラブ	保育所	児童館等	特別養護老人ホーム	老人デイサービスセンター等	障害者支援施設等	その他の社会福祉施設							
小学校	38	383	17	18	42	6,294	97	354	0	98	10	11	3	32	99	4,036	5	16	11,553
中学校	7	60	5	14	68	39	15	7	2	13	1	3	2	17	54	1,517	1	16	1,841

자료: 学校施設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協力者会議(2015).

그리고 위와 같은 복합화에 의한 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1) 시설기능의 공유화에 의한 학습환경의 고기능화 다기능화, 2) 아동학생과 시설이용자와의 교류, 3) 지역에서의 평생학습이나 커뮤니티의 거점 형성, 4) 전문성이 있는 인재나 지역주민과의 연계에 의한 학교운영지원, 5) 효과적 효율적인 시설정비, 부지의 유효활용 등이다.

① 施設機能の共有化による学習環境の高機能化・多機能化

公共図書館との複合化により、豊富な資料を授業等で利用することが可能。

② 児童生徒と施設利用者との交流

授業の一環として、老人デイサービスセンターの高齢者との交流を実施。

③ 地域における生涯学習やコミュニティの拠点の形成

地域住民の生涯学習の拠点としての役割も担う公民館ホールとの複合化

④ 専門性のある人材や地域住民との連携による学校運営の支援

複合施設を拠点とする総合型地域スポーツクラブによる体育や部活動への支援

⑤ 効果的・効率的な施設整備・敷地の有効活用

保育所や老人福祉施設、商業店舗等との複合施設としてPFI事業により整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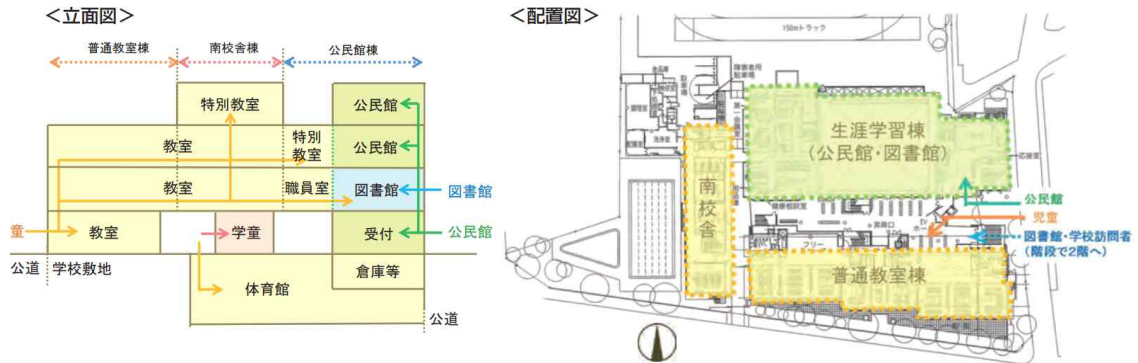
・既存の学校施設の活用

周辺地域の待機児童の増加に伴い、余裕教室等を改修し保育所を整備。

<그림2> 학교시설복합화의 교육효과유형

자료: 学校施設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協力者会議(2015).

사례로서, 埼玉현志木시의 시립志木초등학교의 경우를 보면, 22학급 677명규모의 학교인데 이 학교는 일본의 대표적인 사회교육시설 공민관과 도서관과의 복합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하기의 사진과 같이 평생학습시설과 일반학교교실등을 연결하는 테라스와 브리지가 이어져 있다. 이와 같은 교육시설의 복합화를 통하여 자료가 풍부한 공공도서관을 학교의 교육활동에서도 이용하고 시설의 상호이용에 의하여 아동과 지역의 학습활동의 폭을 확대하여 간다.



<그림3> 시키 초등학교의 복합화 이미지

이와 같은 학교복합화의 사례를 검토하면, 기존의 학교 바깥의 교육자원과의 연계가 아니라, 학교 내로 직접되어 있는 다양한 공공시설의 자원을 상호이용하고 인적교류가 있다는 면에서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런데 사례 검토에서는 이러한 편이성과 유용성보다 더 중요한 교육가치로서 소자화 현상이 증가하는 가운데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다양한 세대와 그들의 활동하는 모습을 일상적으로 보는 것 자체를 중요한 사회화의 계기로 인식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타인의 존재가 나의 생활 속에서 자주 보여진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교육적 의의라는 점이다.

3. 논의 및 마무리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국가수준의 정책을 통하여 미성년자들이 자라나는 교육환경에 적극적인 환경개선을 도모하여 영향을 미치고자 한 것을 알 수 있다. 교육과정의 개선이나 프로그램에 의하기 보다는 미성년학습자가 일상 속에서 접하는 교육환경에 한편에서는 이벤트와 같은 교육목적과 관련된 특별한 사회환경을 접하도록 하는 형태로 다른 한편에서는 일상적으로 접하는 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아이들의 경험에 관여하여 온 것이다. 이러한 교육환경의 개선이 미성년자들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두 가지 양태로 추론된다. 하나는 교육경험의 확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변화된 환경에 대한 일상적인 적응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사회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3.1. 교육경험의 확장

교육경험의 확장은, 종래의 학사연계, 학사융합 등을 계승하여 학교지원지역본부나 커뮤니티 스쿨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정규교육프로그램과는 별도의 활동이나 시간에 지역자원이 활용되는 가운데 학교정규교과와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마을에 해바라기 심기 운동을 전개하는 마을 사업에 아이들이 참여하여 집집마다 해바라기씨를 나누어주고 해바라기씨를 짜서 기름을 만들고 그것을 담은 병을 만들어 해바라기유를 팔아 수익을 내는 마을사업에 참여하는 경험 등은 학교수업에서와는 달리 세상과 사회를 배우는 경험을 줄 수 있다(장지은, 이준희, 2019)⁸⁾.

홋카이도의 平取고등학교는, 이제까지도 각종 지역행사나 볼런티어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에 근거한 매력있는 학교만들기에 나서왔다. 그리고 2015년부터 2017년에 걸치어 平取초등학교, 중학교와 함께 초중일괄 고향 커리어 교육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2017년 문부과학대신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하여 지역의 아이들의 커리어형성을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일체가 된 커리어 교육을 위하여 지역인재와 문화 등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어 커뮤니티스쿨을 도입하였다. 그리하여 2020년 지역의 힘을 활용하여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학교를 표방하며 학교운영협의회를 설치하고 학교에 대한 지역의견이나 조언을 폭 넓게 수렴하여 지역과 협동을 하였다. 이를 통하여 아이누 문화에 관한 학습, 토마토 농가의 수확체험, 지역명물인 토마토를 소재로 하여 조리하고 레시피를 개발하는 동아리 토마토 클럽 등을 추진하는 환경을 만들었다. 사례집에 따르면, 이와 같은 특별한 교외체험등을 통하여 아이들은 자기긍정감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키운다. 또한 지역의 일군과 기수로서의 자각을 높인다고 되어 있다.⁹⁾

위와 같이 지역과의 연계는, 학교자원만으로는 체험하기 어려운 특별한 활동과 체험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교육적 경험을 대폭 확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별히 학교에서 교과를 통하여 가르치어 얻는 경험과는 다른 방식으로 형성 체득되는 것으로서 전인적이며 생활적이고 신체적인 특징으로 가지면서 오래도록 배움이 내재화될 수 있고 타인과 함께 한 추억을 토대로 만들어 진 경험이다. 나아가

8) 장지은, 이준희(2019). 일본의 지역연계기반의 커뮤니티스쿨의 특징. 비교교육연구. 29(3). 63-90.

9) 令和3年(2021年)3月 北海道教育庁学校教育局高校教育課, 令和2年度(2020年度) コミュニティ・スクール実践事例集~コミュニティ・スクールの導入に向けて~

특별한 이벤트성을 가진 즐거운 놀이의식이 있어 타인에 대한 배려와 배움의 즐거운 의식이 기억에 남아있어 이 역시 인지주의 교육과는 질적으로 다른 교육경험의 형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특별한 경험이, 아동 및 학생들이 현장에서 만나는 기성세대의 돕는 손(한순미, 2004)¹⁰⁾을 통하여 1차적 경험에서 반성적 경험(John Dewey, 1982)¹¹⁾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이벤트를 둘러싼 사전 사후 학습의 시간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2. 적응을 통한 교육경험과 성장

또 하나의 학교환경변화의 특징은, 기가스쿨과 학교복합화를 통하여 학교환경자체가 변화함으로써 지역 및 사회와의 본격적인 연계가 없이도 학교 안에서 종래보다 경험을 확장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이벤트적인 활동보다는 일상의 생활과 일상의 수업활동을 통하여 보다 사회화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가스쿨을 통하여 학교 수업에 자유로운 단말기 사용의 주체로서 미성년이 성장하는 경험이 주어진 것은 그들이 학교 안에서도 피시를 통하여 교과를 넘어 교사의 티칭을 넘어 자신의 학습경험을 자유롭게 확장하고 그것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나누며 재생산하는 시간이 주어진 것으로서 단말기 환경이 정비된 수업환경에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정보의 생산자 가공자로서의 능동성이 키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교육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 학교시설복합화에 의하여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나 사적영역으로서의 가정을 넘어서 존재하는 다양한 세대의 타인들을 학교환경을 통하여 일상적으로 보고 자란다는 점 자체가, 그들이 향후 타인과 함께 지역생활, 사회생활을 하여가는 삶의 과제에 대하여 저항감을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저출산 고령화, 급격한 사회변화 현상으로 고립화되어 가는 세대가 증가하는 가운데 학교환경의 조정 개선을 통하여 이들이 사회적 인간으로서 타인과 함께 관계성의 네트워크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과 역량을 공교육기간을 통하여 연마하도록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함께 응원하며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일본의 학교환경은 분명히 학교 내외로 교육적 경험을 확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사한 사회문제, 교육문제를 가진 한국사회에서는 이러한 교육환경의 내외적 변화를 도모하는 일본의 정책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박병기(1998), 레빈: 장이론, 교육과학사

김덕삼, 이정자(2022). 장(場) 개념의 사용과 확장 탐구. 동방문화와 사상 12. 145~171.

윤창국, 박상옥(2012).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의 이론적 발전과 평생교육 연구에 주는 시사점. 평생교육학연구. 18(3). 113~139

이소영(2011). 부르디외의 문화이론과 재생산으로서의 교육에 대한 철학적 고찰. 교육철학연구 33(1), 129~159

장지은, 박지숙(2014). 지역연계를 바탕으로 한 학교교육지원- 일본의 학교지원지역 본부와 학교불런티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20(1). 213~243.

10) 한순미(2004). 비고츠키와 교육: 문화-역사적 접근. 교육과학사

11) John Dewey저, 신득렬 역(1982). 경험과 자연. 계명대학교 출판부.

- 장지은, 이준희(2019). 일본의 지역연계기반의 커뮤니티스쿨의 특징. 비교교육연구. 29(3). 63-90,
- 성열관(2019). 저출산시대 도래에 따른 통합학교 교육과정 효율적 편성·운영방안 연구.
- 히고 코세이(2018). 일본의 일관학교 제도와 사례: 서울형통합운영학교연구팀 제2워크숍자료집. 1-21.
- 강원도교육연구원(2019). 강원도형 초중통합운영학교 실태연구. 연구책임자 이현명
- 小林文人(1971). 戦後社会教育論における地域. 月刊社会教育, 15(5). 松下拓(1981). 健康問題と住民の組織活動—松川町における実践活動, 勁草書房 北田耕也(1986). 大衆文化を越えて, 国土社.
- 北田耕也(1986). 大衆文化を越えて, 国土社.
- 山本恒夫(1996). 学社融合. 月刊公民館, 全国公民館連合会. 1996(1).
- 上條秀元(1997). 「学社連携」から「学社融合」へ: 国の政策の史的 분석を中心として. 生涯学習研究, 宮崎大学生涯教育研究センター紀要, 2. 1-9.
- 林田 匡(2013). 学社融合への新しい試みに関する考察: 熊本市における小学校と社会教育施設における事例をもとに. 佛教大学大学院紀要, 41. 37-54.
- 大森彌(2015). 人口減少時代に立ち向かう. 人口減少時代の地域づくり読本. 公職研.
- 日高純司・小林博典(2021). GIGA スクール構想の実現に向けた校内研修の推進に関する研究. 宮崎大学教育学部紀要, 96, 1-14.
- 橋本行史(2015). 地方創生の理論と実践—地域活性化システム論. 創成社.
- 静岡教育総合センター(2015). 公立学校における地域連携の現状と課題に関する研究—生涯学習社会における学校と地域の連携・協働で「社会に開かれた教育課程」を実現する—. 静岡教育総合センター研究紀要, 1-61.
- 佐々木保孝・熊谷僕之輔・志々固まなみ・天野かおり(2017). 公民館と「学校支援地域 本部」の連携に関する調査研究—. 天理大学生涯教育研究, 21. 1-25.
- Sato Kazunori 외(2021). 1인1대 정보단말의 도입초기에서의 아동에 의한 ICT활용과 교사지도의 특징. 일본교육공학회논문지. 45(3). 2021
- 국립교육정책연구소(2019). OECD 학생의 학습달성도조사(PISA) 2018년 조사보족자료- 학생의 학교 학교밖에서의 ICT 이용.
- 문부과학성(2020). GIGA스쿨 구상의 실현에 관한 보조사업 개요. https://www.mext.go.jp/content/20200226_mxt_syot_o01-000004170_02.pdf
- 学校施設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協力者会議(2015). 報告書「学習環境の向上に資する学校施設の複合化の在り方について～学びの場を拠点とした地域の振興と再生を目指して～」
- 文部科学省 資料 2015年度 中央教育審議会「新しい時代の教育や地方創生の実現に向けた学校と地域の連携・協働の在り方と今後の推進方策について(答申(案)).
- 文部科学省(2015). 実践発表資料. 実践発表資料鹿屋市教育委員会. 文部科学省(2015). 「コミュニティスクールって何?」.
- 文部科学省(2017). 地域学校協働活動の推進に向けたガイドライン参考の手引き.
- 文部科学省(2017). コミュニティスクール 2017~地域とともにある学校づくりを目指して~.
- 小林文人(2018). 東アジア的観点からみた学校と地域の連携に対する展望. 제4회 동아시아 평생학습포럼. 학교와 지역연계를 통한 마을교육공동체의 창조. 자료집.
- 上田孝典(2018). 日本における学校との協働をめぐる政策動向と地域社会. 제4회 동아시아 평생학습포럼. 학교와 지역연계를 통한 마을교육공동체의 창조. 자료집.

「放送通訳」の特徴

— KBSニュースの韓日通訳を中心に —

金 漢 植 (韓国外大)

1. プロローグ

放送通訳について基調講演をすることになったいきさつ。
「かつてい」?

2. 「KBS뉴스9」から「ワールドニュース」へ

NHK BS1 ワールドニュース

毎週火曜日～土曜日の午前5:00 ~ 午前5:50 (50分)に放送

▽イギリス・BBC, シンガポール・CNA, 韓国・KBS, 中国・CCTV, 上海・東方衛視, 香港・TVB, タイ・M
COT, ベトナム・VTV

韓国・KBSは、1987年(ソウルオリンピックの1年前)夏から現在まで放送中
週5日、1日約5分の放送

3. ニュース通訳に関する4つのクエスチョン

3.1. ニュース通訳は同時通訳か?

:作業スケジュール

3.2. 「正確」に通訳すべきか?

—正確性を重視するか、速報性を重視するか

—언론계 재난보도 준칙 제정, “신속성보다 정확성”

<표1> NHK 뉴스의 발화속도

분야	제목	발화자 성별	①1분당 拍수 (MPM)	②1분당 음절수	②÷①
경제	N Y 円相場一時7 9 円台に	남	407.9	349.9	0.87
생활/문화	J R 深刻な被害実態明らかに	여	389.0	336.1	0.86
정치	首相 代表経験者に協力求める	남	407.1	347.1	0.85
사회	放水を再開 連続7時間を計画	남	391.9	320.9	0.82
정치	谷垣総裁に入閣要請も“応じず”	남	416.1	348.9	0.84
평균			402.4	340.58	0.85

김한식(2012). 방송통역의 충실성과 이해용이성

“3분의 2 정도로 줄여야~”-??

3.3. 基本的なストラテジーは?

:「同化(자국화)」vs 「異化(이국화)」

	KBS World	NHK	韓日ニュース通訳
국무총리	國務總理	首相	首相
외교부	外交部	外務省	外務省
북한	北韓	北朝鮮	北朝鮮
대법원	大法院(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검찰총장	檢察總長	檢事總長	檢事總長
대통령실	大統領室	大統領府	大統領府
원	ウォン	~ウォン、日本円にして~	-不統一

例外的なケース: 日韓両国、日韓関係など → 韓日両国、韓日関係など

3.4. 韓日ニュース通訳での禁止語は?

4. 「正確さ」と「わかりやすさ(聞きやすさ)」のバランス

『82년생 김지영』의 페미니즘 문체 번역*

— 여성 등장인물 ‘지칭어’ 어역 분석을 중심으로 —

박 미 정 (한국외대)

1. 서론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은 첫 출간(2016년 10월) 후 2년 1개월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 부를 기록하는 등 페미니즘 소설로는 이례적으로 베스트셀러 대열에 합류한 문학작품이다. 『82년생 김지영』의 출판과 함께 주인공 ‘김지영’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시키는 수많은 여성 독자 ‘김지영’들이 탄생했고, 이러한 김지영 신드롬은 “김지영 현상”(허윤, 2018: 146)으로까지 불리며 페미니즘 대중화에 불을 붙이게 된다. 이 소설에 수많은 여성 독자들이 공감하고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요인 중의 하나는 주인공 ‘김지영’의 이름에 있다. 노르트(Nord)가 강조한 것처럼 어떠한 형태로든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지 않은 소설 등장인물의 이름은 없을 것이다(2003:183). 특히 『82년생 김지영』에서 작가는 주인공 ‘김지영’의 이름을 소설의 제목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김지영’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름으로 독자의 공감과 감정이입을 유도하기 위해 조남주 작가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지칭어(terms of reference)이자 기호학적 표현이다. ‘김지영’이라는 이름은 80년대 태어난 30대 여성을 대표하는 젠더화된 기표이다. 조남주 작가는 주인공 ‘김지영’을 비롯해 모든 여성 등장인물을 ‘성+이름+씨’로 지칭한다. 이렇게 이름 뒤에 의존명사 ‘-씨’를 붙이는 지칭어는 3인칭 관찰자 시점 소설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표현이다. 이러한 독특하고 생경한 인칭 표현방식이 이 소설을 사실적인 보고서나 다큐멘터리처럼 읽히게 하는 가장 큰 문체적 특징 이 된다. 반면, 남편 ‘정대현씨’를 제외한 모든 남성 등장인물들은 ‘아버지’, ‘남동생’ 등 친족어 지칭어로 처리하면서 이름을 반복적으로 호명하는 여성 등장인물들과 차별화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 등장인물의 ‘성+이름+씨’ 지칭어는 작가가 ‘어머니’, ‘아내’, ‘○○엄마’ 등의 젠더 표지(gender mark)를 의도적으로 중립화시킨 젠더 뉴트럴(gender neutral) 기호로 볼 수 있다.

여성 등장인물에만 유효적으로 사용된 ‘성+이름+씨’의 지칭어 표현은 한국 여성에 대한 이른바 ‘이름 불러주기’이고, 조남주 작가는 이를 통해 남성의 억압과 지배로부터 여성을 해방시키고 여성에게 주체성과 정체성을 찾아주기 위한 페미니즘적인 글쓰기를 실천하고 있다. 일반적인 소설 글쓰기에서 3인칭 등장인물을 지칭하는 표현으로는 ‘이름’ 또는 ‘성+이름’, ‘친족어’, ‘이름+직함’, ‘3인칭 대명사’ 등이 있고, 이름으로 지칭된 등장인물도 이름만을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고 3인칭 대명사로 선행사를 받아 이름의 반복사용을 피한다. 그러나 『82년생 김지영』에서 조남주 작가는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의존명사 ‘-씨’를 붙인 이름 지칭어 표현만을 반복 사용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여성 등

* 본 요지문은 현재 통번역학연구의 논문 심사 중에 있는 논문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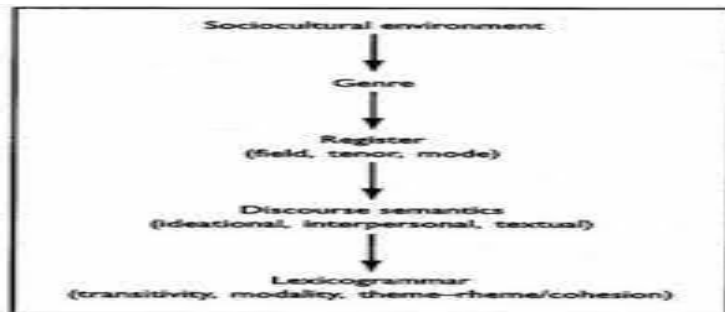
장인물들의 이름을 끊임없이 불러주도록 유도하고 있다. 의존명사 ‘-씨’는 가족 간에는 사용하지 않고, 공적·사무적인 자리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여성 등장인물의 ‘성+이름+씨’의 지칭어 표현은 수많은 30대 기혼 여성 ‘김지영’의 사회적 위치로의 복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82년생 김지영』의 페미니즘 기호이자 문체인 여성 등장인물 ‘지칭어 (이성+이름+씨)’에 주목하고 이 지칭어 표현에 대한 일본어 번역과 영어 번역을 기호론적 층위에서 비교·분석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호칭어와 지칭어라는 언어변이는 담화의 발신자와 수신자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 고에서는 서술자와 등장인물 간의 관계 및 등장인물과 독자와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언어를 사회적 기호로 보는 할리데이(Halliday)의 체계기능언어학(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이하 SFL)의 사용역(register)을 바탕으로 ST의 여성 인물 ‘지칭어’에 대한 TT를 사회·문화적 틀 속에서 살펴볼 것이다. 소설 텍스트의 사용역은 이야기라는 상황과 관련하여 의미를 구성하고 문학 텍스트의 특성을 규정하는 데에 강력한 분석 틀을 제공하기 때문에(Marco, 2000: 1), 사용역을 분석하는 것은 문학 번역에서 중요하다(Landers, 2001: 61).

2. 이론적인 배경

2.1. Halliday의 SFL 모델

할리데이의 체계기능언어학(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이하 SFL)은 언어의 코드(code) 및 발화(utterance), 텍스트의 모든 잠재적 의미의 실현에 초점을 맞추는 기호학을 바탕으로 사회적 맥락을 분석(1985: 11)하는 담화 분석(discourse analysis)모델이다. SFL에서는 저자나 화자가 의사소통을 위해 선택하는 언어를 상호 연관된 의미의 시스템으로 본다(Eggin, 2004: 327, 필자 강조). 먼데이(Munday 2001)는 할리데이의 SFL을 아래 [그림 1]과 같이 도식화하여 어역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1> 장르, 어역, 언어의 관계 (Munday 2001, p.90)

- 1. 담화 장(field): 무엇에 관한 내용인가?
- 2. 담화 관계(tenor): 누가 누구에게 의사소통하고 있는가?
- 3. 담화 매체(mode): 의사소통의 형식.

1) 국립국어원(<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 1-1. 관념적(ideational) 의미: 세상 또는 이벤트에 대한 표현(representation)을 제시.
- 2-1. 대인 관계적(interpersonal) 의미: 사회적 관계를 보여줌.
- 3-1. 텍스트적(textual) 의미: 텍스트를 일관된 방식으로 연결.

2.2. 지칭어(terms of reference)

본 논문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는 지칭어는 화자에 의해 말해지는 대상(즉 지칭자(referent))을 화자가 가리키는 말, 다시 말하여 화자가 대화 중 가리켜 일컫는 대상을 지시하는 말이다(왕한석, 2005: 17). 따라서 “부름말”(박갑수, 1989) 또는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말”(한갑수, 1989)로 정의되는 호칭(terms of address)과는 명료히 구별된다. 정유진(2021) 역시 호칭어는 상대방을 부르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이며, 지칭어는 담화 맥락에서 다른 사람을 가리키기 위해 쓰이는 용어(p.3090)로 각각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2.3. 의존명사 ‘-씨’와 번역

2.3.1. 의존명사 ‘-씨’

의존명사 ‘-씨’는 성년이 된 사람의 성이나 이름 아래에 쓰여, 그 사람을 높이거나 대접하여 부르거나 이르는 말로 공식적·사무적인 자리나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에서 사용한다.윗사람에게는 쓰기 어려운 말로, 대체로 동료나 아랫사람에게 사용한다. 이렇게 ‘이름’ 또는 ‘성+이름’ 뒤에 의존명사 ‘-씨’를 붙이는 표현은 호칭어도 될 수 있고, 지칭어도 될 수 있다. 의존명사 ‘-씨’는 지칭어보다는 호칭의 관점에서 논의(이정복, 2000: 216 등)되는 경우가 많고,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일반 매체에서도 ‘지칭어’가 아닌 ‘호칭어’로 통칭된다. 『82년생 김지영』에서 여성 등장인물들에 대한 지칭어 자리에 호칭어로서의 언어적 기능이 두드러진 ‘성+이름+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조남주 작가가 특정 효과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어역(register)을 선택했다는 의미이다. 3인칭 관찰자 시점 소설에서 등장인물을 지시하는 지칭어는 ‘성+이름’ 이나 ‘이름’ 혹은 친족어(아내, 어머니 등) 등의 형태가 일반적으로, ‘성+이름+씨’ 형태의 지칭어 사용은 대단히 유표적인(marked) 어역 선택이기 때문이다. 하티프와 메이슨(Hatim & Mason, 1990)은 이렇게 소설에서 특정 효과를 내기 위해 저자가 정교하면서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어역을 문체(style)라고 설명한다(pp.44-45). 특히 저자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특정 어역이 반복 사용되고, 그것이 텍스트에서 “패턴화된 형태”(Simpson, 2004: 50)로 나타나는 경우 이를 텍스트 전경화(foregrounding)라고 한다. 전경화는 중요한 문학적 문체 장치이다. 문학적 문체의 분석 목표는 미학적 감상에 대한 비평가의 관심을 언어학자의 언어적 묘사에 대한 관심과 연관시키는 것이다(Leech and Short, 1981: 13).

2.3.2. 일본어 호칭 접미사「さん」과「氏」

한국어 의존명사 ‘-씨’에 해당하는 일본어 호칭 접미사(부가호칭사 affixal designation term)에는 「さん(sang)」과 「氏(ssi)」가 있고, 성, 이름, 성명 뒤에서 접미사로 나타난다(일본어교육사전 1982: 420). 일본어의 두 접미사 모두 지시 대상이 되는 인물의 사회적 위치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남성에게

게는 「氏」를 여성에게는 「さん」을 붙이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田中・諸橋, 1996:38-80; 齊藤, 2010:180-191).

2.3.3. 영어의 호칭 유형

영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호칭은 성(Last Name, 이하 LN)이 포함된 것으로 (1) Title+LN, (2) Mr.+LN, (3) Mrs.+LN, (4) Miss+LN이다. 그 다음은 이름(First Name, 이하 FN)을 사용하는 호칭으로 (5)Kin Titel+FN과 (6) FN의 두 유형이고 기타 상대방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7) ø (무호칭)까지 포함해 모두 7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Ervin-Tripp, 1972: 219). 어빈-트립(Ervin-Tripp)의 호칭어 모델을 바탕으로 한국어 호칭과 영어 호칭을 비교한 황(Hwang, 1975)에 따르면, 한국어에서는 FN이 매우 드물게 쓰이며 사장님, 선생님 등의 직위 관련 표현이나 아저씨, 아주머니 등의 친족어가 FN 대신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한국인은 사회문화적 관습에 따라 상대방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는 것이 예의가 바른 표현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옥종석, 2015: 112). 반면, 영어권 문화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호칭은 상대방을 이름으로만 부르는 FN이다.

3. 분석

3.1. 여성 등장인물 지칭어

① ‘성+이름+씨’ 지칭어

주인공과의 관계	지칭어	비고
주인공	김지영 씨	1장에서 남편 정대현 씨의 시점으로 서술되는 장면에서만 ‘아내’라는 지칭어가 잠시 등장
시누이	정수현 씨	첫 등장에서만 ‘정대현 씨의 여동생, 정수현 씨’로 소개(p.15-16), 이후 ‘정수현 씨’로 지칭
언니	김은영 씨	김지영 씨의 어린 시절(2장)에는 ‘언니’와 ‘김은영 씨’의 지칭이 혼재되다가, 성인 시절 이후(3장 이후) ‘김은영 씨’로 지칭
대학 동아리 여자 선배	차승연 씨	
같은 학번 대학 여자친구	윤혜진 씨	
회사 여자 팀장	김은실 팀장	‘성+이름+직함’으로 지칭
여자 입사 동기	강혜수 씨	

② [‘성+이름+씨’ 지칭어]와 [친족 지칭어] 혼용

주인공과의 관계	지칭어	비고
어머니	①김지영 씨의 어머니 ②어머니 ③김지영 씨의 어머니 오미숙 씨	어머니의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에 한해서 오미숙 씨 라는 지칭어를 2번 사용 (2장: 1982-1994)
할머니	①김지영의 할머니 ②할머니 ③ 고분순 여사	김지영 씨의 어머니의 시어머니이자 김지영 씨 아버지의 어머니로 등장. 고분순 여사 라는 지칭어가 2번 등장 (2장: 1982-1994)
시어머니	① 정대현 씨의 어머니 ②시어머니	김지영 씨의 시어머니이자 정대현 씨의 어머니는 친족 지칭어로만 지칭되고 이름 지칭어 사용하지 않음.

3.2. 등장인물 지칭어와 번역

(1) 여성 등장인물 ‘성+이름+씨’ 지칭어(ST)에 대한 번역

ST	JTI(일본어 번역)	JIT BI(일본어 역번역)	ETI(영어 번역)
김지영 씨	①キム・ジョン氏 ②ジョン氏 ③妻 ④彼女	①김지영 씨 ②지영 씨 ③처 ④그녀	①Kim Jiyoung ②Jiyoung ③She
정수현 씨	①デヒョン氏の妹 チョン・スヒョン氏 ②スヒョン氏	①대현씨의 여동생 정수현씨 ②수현 씨	①Suhyun, ②Daehyun's younger sister, Shhyun
김은영 씨	①キム・ウニョン氏 ②姉	①김은영 씨 ②언니	①Jiyoung's elder sister/(big sister) ②She ③Eunyoung ④Kim Eunyoung
차승연 씨	チャ・スンヨン氏	차승연 씨	①Cha Seungyeon ②Seungyeon
윤혜진씨	ユン・ヘジン氏	윤혜진 씨	①Yun Hyejin ②Hyejin
김은실 팀장	キム・ウンシル課長	김은실과장(님)	Kim Eunsil team leader Eunsil
강혜수 씨	カン・ヘス氏	강혜수 씨	Kang Hyesu

(2) [‘성+이름+씨’ 지칭어]와 [친족 지칭어] 혼용(ST)에 대한 번역

ST	JTI(일본어 번역)	JIT BI(일본어 역번역)	ETI(영어 번역)
①김지영 씨의 어머니 ②오미숙 씨 ③어머니	①キム・ジョン氏の母である オ・ミスク氏 ②母 ③お母さん	①김지영 씨의 엄마인 오미숙 씨 ②어머니(지칭어) ③어머니(호칭/지칭어)	①Jiyoung's mother Oh Missook ②Mother
①할머니 ②고순분여사	①祖母のコ・スンブン女史 ②祖母 ③彼女	①할머니 고순분 여사 ②할머니 ③그녀	①Koh boonsoon, Jiyoung's grandmother ②grandmother
①정대현 씨의 어머니 ②시아머니	姪	시아머니	her mother-in-law

3.3. 지칭어에 대한 어역 분석

3.3.1. ST의 어역 분석

어역(register)	⇒	담화 의미 (discourse semantics)	문체 효과
담화장(field)	① ‘성+이름+씨’ 지칭어를 여성 등장인물에게만 유표적으로 사용(젠더 중립화 기표 사용)→ 페미니즘 소설 ② ‘성+이름+씨’ 지칭어의 반복 사용 → 보고서 형식 문체	관념적(ideational) 의미	‘성+이름+씨’ 지칭어를 여성 등장인물에게만 사용하여 페미니즘 이데올로기를 드러냄.
담화 관계(tenor)	서술자 vs. 여성 등장인물 간의 관계 등장인물 간의 관계(여성 등장인물vs. 남성 등장인물) 여성 등장인물 vs. 독자와의 관계	인간관계적 (interpersonal) 의미	수평적 관계 격식 있는 관계 거리감 있는 관계
담화 매체(mode)	‘~씨’가 결합된 이름 지칭어는 호칭어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문어 채널 속에 구어 채널이 함께 공존하는 것 같은 효과.	텍스트적(textual) 의미	‘씨’가 결합된 이름 지칭어의 반복 사용으로 텍스트의 결속성 (cohesion) 강화

3.3.2. 번역에 대한 어역 분석

어역/담화 의미 (register/discourse semantics)	ST	JTT	ETT
담화 장(field)	페미니즘 소설	유지	약화→보완
	보고서 문체	유지	문체 특징 사라짐
담화 관계(tenor)	서술자 vs. 여성 등장인물들 관계	유지(1장 제외)	약화
	등장인물 간(남성등장인물들 vs. 여성등장인물들) 관계	유지(1장 제외)	약화
	독자 vs. 여성 등장인물들 관계	유지(1장 제외)	약화
담화 매체(mode)	구어 체널 효과	약화	사라짐
관념적(ideational) 의미	페미니즘 이데올로기	유지	약화→보완
인간관계적(interpersonal) 의미	수평적/격식/거리감	유지(1장 제외)	수평적/격식(-)/거리감(-)
텍스트적 (textual) 의미	결속성*	결속성 ↑	결속성 ↓

4. 결론

본 논문은 『82년생 김지영』의 여성 등장인물 지칭어를 ‘성+이름+씨’로 특정하고, 이러한 지칭어 표현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문체라는 점에 주목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특정 언어 변이인 ‘성+이름+씨’ 어역 선택을 통해 소설 텍스트 전체가 페미니즘 담론 안에서 의미작용하고 있음을 할러데이의 SFL 모델을 바탕으로 이끌어 냈다. 또한 이러한 문체적 특징이 번역에서는 어떻게 반영되고 또한 어떠한 제약으로 작용하는지 일본어 번역과 영어 번역의 비교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82년생 김지영』의 여성 등장인물에 대한 지칭어는 일부 예외(어머니/할머니/시아머니 등)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성+이름+씨’ 형태를 취한다. 반면, 주인공 김지영 씨의 남편 정대현 씨를 제외하고 모든 남성 등장인물들에 대한 지칭어에는 이름 지칭어가 없다. 이렇게 여성 등장인물들과 남성 등장인물들을 지칭어로 2분화함으로써 여성 등장인물의 주목도를 환기시킬 수 있다.

둘째, 『82년생 김지영』의 ‘성+이름+씨’ 지칭어는 호칭 접사의 기능을 하는 의존명사 ‘-씨’와의 결합을 통해 호칭어와 같은 문맥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결혼과 출산 이후 경력단절이 된 전업주부들은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이름이 호명될 기회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자는 서술자의 목소리를 빌려서 주인공 ‘김지영 씨’를 비롯한 많은 여성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불러주고 있다. 독자들 역시 서술자의 목소리를 따라서 함께 그녀들의 이름을 불러주게 된다. 이러한 이름 불러주기를 통해 여성은 ‘~의 엄마’나 ‘~며느리’, ‘~의 아내’가 아닌 ‘○○○ 씨’로 본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다시 복원하게 된다.

셋째, ‘성+이름+씨’ 지칭어의 반복된 사용을 통해 텍스트가 전경화되고, 이렇게 전경화된 기표들은 저자의 의도적인 선택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어역 분석을 통해 문체의 기저에 내포된 함의를 읽어낼 필요가 있다.

넷째, 할러데이의 SFL 모델을 바탕으로 어역 분석을 한 결과 ‘성+이름+씨’ 지칭어 어역은 담화 장

(페미니즘 소설/보고서 형태), 담화 관계(서술자와 등장인물/등장인물 간/독자와 등장인물), 담화 매체(구어 채널 효과) 모두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어역의 메타 기능은 페미니즘 이데올로기(관념적 의미), 수평적/격식/거리감 있는 관계(인간관계적 관계), 결속성 강화(텍스트적 관계)의 형태로 나타났다.

다섯째, 여성 등장인물 지칭어에 대한 일본어 번역과 영어 번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 1장에 대한 번역을 제외하고 대체로 ST의 메타 기능이 TT에서도 잘 유지되었다. 한국어 의존명사 ‘-씨’에 대한 일본어 호칭 접사로 ‘さん(sang)’과 ‘氏(ssi)’ 정도가 올 수 있는데 번역가는 의도적으로 ‘氏(ssi)’를 선택해 일본어 지칭어를 젠더 중립화시켰다. 다만, ‘氏(ssi)’는 구어보다는 문어에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구어 채널 효과가 약화된다. 한편 영어권 국가에서는 이름, 특히 FN만으로 인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평적인 사회이다. 예컨대 영어권에서는 ‘Hi, Tom’ 등 ‘이/아/야’ 등의 호격조사나 의존명사 ‘_씨’ 등의 호칭 접사 역할이 필요 없고 ‘순수 이름만으로 독립어 역할을 하는 호칭어로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성+이름+씨’에 대한 영어 번역은 ‘성(LN)+이름(FN)’ 또는 ‘이름(FN)’, 3인칭 대명사(She)로 ‘-씨’가 탈락한 형태의 이름 지칭어를 사용하게 된다. 그 결과 담화 장(페미니즘 소설), 담화 관계(등장인물 들간의 관계→수평적/격식(-), 거리감(-)), 담화 매체(구어채널 효과 사라짐)는 ST에 비해 문체 효과가 전체적으로 모두 약화되거나 사라진다.

법률번역에 나타나는 언어간섭 현상 일고찰

— 일본민법의 한글 번역본을 사례로 —

박민아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1. 서론

E.A.Nida는 “출발어와 도착어 사이의 언어적 및 문화적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경우에 번역자는 큰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여겨지나, 실제로는 두 개의 언어가 밀접한 관계일 경우 표면적인 유사성에 현혹되어 중대한 오역을 범하는 경우가 많다”¹⁾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한국어와 일본어는 어순이 같고 같은 한자문화권 나라이다 보니 직역을 했을 때 좀 어색해도 뜻은 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한편으로 동형이의(同形異義) 한자어의 음(音)을 그대로 옮긴 경우, 또는 조사나 문형을 그대로 옮겨서 오역이 나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언어간섭 현상을 일한 법률번역문 중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일본민법의 한국어 번역본을 대상으로 고찰하였다. 법률번역은 정확도와 충실성도 중요하지만 법적 효과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나라마다 다른 사회 환경과 문화적 요소를 고려하여 출발어와 도착어가 동일한 법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번역되어야 한다.

법제처에서 각국 법령의 외국어 번역본을 제공하는 목적²⁾에 부합하도록 우리 국민이 일본법의 번역본을 보고 혹시나 잘못 이해해서 기업이나 개인의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일본법을 알고 싶어 하는 국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어투 표현으로 인한 어색한 표현이나 오역을 최대한 줄이고, 향후 한일 법률번역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례 제시와 제언을 하였다.

2. 연구 방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³⁾에 게시된 일본민법과 동 한글 번역문을 연구 대상 텍스트로 하되, 일부 대조 가능한 조항의 비번역 표현을 참고하기 위해 한국민법에 해당 조문의 범위를 연구 참

1) Nida(2003),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on* Brill, pp.160-161; 박혜정(2015), *公の場における言語形式の考察 - 「~하지 않으면 안 된다/어야 한다(しなければならぬ/べきだ)」を中心に -* pp.191-192 재인용. 한편, 강경원(2008) 언어유형 구분에 의한 한국어 유사 언어와 그 분포, *문화역사지리* 제20권 제2호 pp.1-13.에 따르면 한국어와 가장 유사한 언어는 일본어라고 한다. 박미정(2013) BA언어의 언어간섭과 수용성에 대한 일고찰, *일본어교육* 제63집 pp.32 재인용.

2) 법제처(<https://www.moleg.go.kr>)에서는 우리 국민, 정부, 중소기업 등의 해외진출 및 대외 경제 활동과 교류를 지원하고, 특히 국민의 수요가 많은 법령을 중점관리대상법령으로 선정하여 법령정보를 각국 언어로 번역해서 제공하고 있다.

3)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orld.moleg.go.kr>

고자료로 삼았다. 상세한 분석 및 참고 텍스트 범위는 다음과 같다.

<분석 및 참고 텍스트 범위>	
*원문(일본민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제3장 ‘법인’까지, 제5편 ‘상속’ 전체 총 199개조 28161자(삭제조항 제외, Microsoft Word 공백제외 기준). 단, 법률 제71호, 2016.6.7. 최종개정판.
*번역문:	해당 원문 전체 범위, 24427자(삭제조항 제외, Microsoft Word 공백제외 기준).
*비번역(한국민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제3장 ‘법인’까지, 제5편 ‘상속’ 전체 총 217개조 22595자(삭제조항 제외, Microsoft Word 공백제외 기준). 단, 법률 제17905호, 2021.1.26. 일부개정판.

AntConc 용례검색기로 지시대명사, 당위·의무표현, 조사「の」에 대해서 원문, 번역문을 각각 검색하여 양적 및 질적 분석을 실시했다. 또한 조사「に」를 비롯하여 언어간섭이 일어나기 쉬운 표현을 몇 가지 검색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이’, ‘그’ 지시대명사「この」「その」指示連体詞

우선 원문에서 「この」는 58건, 번역문에서 ‘이’는 35건 검색되었다. 그런데 원문 중 「この限りではない」가 25건 검색되었으며, 이는 번역문에서 모두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번역되어 원문에 「この」 개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두 번째로 많았던 표현이 「この場合において(は)」(「この場合における」1건 포함) 22건으로 번역문에서는 ‘이 경우, 이 경우에, 이 경우에는’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11건은 ‘이 법률은’, ‘이 법에서’, ‘이 조(장, 절)에서’ 등으로 번역되었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비번역에서 ‘이’는 단 2건만 검색되었다는 점이다. ‘이’ 생략 사례를 비번역에서 분석한 결과는 표1과 같다.

<표 1>

원문	第三十三条(法人の成立等) 1 法人は、この法律その他の法律の規定によらなければ、成立しない。
번역문	제33조(법인의 성립) ① 법인은 이 법률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고) 비번역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이어서 「その」 검색 결과 303건, 번역문에서 ‘그’는 277건 검색되었다. 한편, 비번역에서는 번역문보다 더 감소한 215건 검색되었다. 이 역시 사용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생략 가능한 ‘그’가 많았으며, 원문 대비 번역문에서의 ‘그’ 사용이 줄어든 것은 환영할 만하나, 법률 해석에 지장에 없다면 더 많이 생략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번역문에서 과다한 ‘그’ 사용과 ‘그’ 생략 사례는 표2~3과 같다.

<표2> ‘그’ 과다 사용

원문	<p>第二十条(制限行為能力者の相手方の催告権)</p> <p>1 制限行為能力者(未成年者、成年被後見人、被保佐人及び第十七条第一項の審判を受けた被補助人をいう。以下同じ。)の相手方は、①その制限行為能力者が行為能力者(行為能力の制限を受けない者をいう。以下同じ。)となった後、②その者に対し、一箇月以上の期間を定めて、③その期間内に④その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行為を追認するかどうかを確答すべき旨の催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⑤その者が⑥その期間内に確答を發しないときは、⑦その行為を追認したものとみなす。</p>
번역문	<p>제20조(제한행위능력자 상대방의 최고권)</p> <p>① 제한행위능력자(미성년자, 성년피후견인, 피보좌인 및 제17조제1항의 심판을 받은 피보조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대방은 ①그 제한행위능력자가 행위능력자(행위 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 후 ②그 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③그 기간 내에 ④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진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⑤그 자가 ⑥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⑦그 행위를 추진한 것으로 본다.</p>
(참고) 비번역	<p>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p> <p>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①생략)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②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③생략) ④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진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⑤능력자로 된 사람이 ⑥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⑦그 행위를 추진한 것으로 본다.</p>

<표3> ‘그’ 생략

원문	<p>第三十一条(失踪の宣告の効力)</p> <p>1 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失踪の宣告を受けた者は同項の期間が満了した時に、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失踪の宣告を受けた者はその危難が去った時に、死亡したものとみなす。</p>
번역문	<p>제31조(실종선고의 효력)</p> <p>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종의 선고를 받은 자는 제30조제1항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종의 선고를 받은 자는 <u>위난이 종료한 때에</u> 사망한 것으로 본다.</p>

3.2. 당위, 의무 표현(「なければならぬ」、「べきだ」-아/어야 한다)

일본에서 당위, 의무 표현으로 표시되는 「なければならぬ」와 「べきだ」는 의미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두 가지 표현은 의무를 강제하는 정도가 다르다. 일본 학자들 중에 井島(2013)는 「なければならぬ」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고 필연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필연 판단계(의무-부여)’로 분류할 수 있는 반면에 「べき」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 판단계(의무-판단)’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⁴⁾. 또한 郷丸(1995)는 위 두 가지 표현은 행위주체의 의지의 자유도에 차이가 있으며, 전자는 행위 주체의 의지 유무와 상관없이 상황적으로 혹은 발화자의 실현에 대한 강한 요청이고, 후자는 발화자가 상황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을 행위주체에게 요청하는 것이며, 이 때 행위주체의 의지는 존중된다고 설명하고 있다⁵⁾.

4) 井島正博(2013), 「當為表現の構造と機能」, 『日本語学論集』 9:133-173.

그래서 법률번역에서는 이 두 가지 당위표현이 어떻게 구분되어 번역되었는지 분석해 보았다. 「なければならぬ」는 85건, 「べき」는 38건 검색되었으며, 대부분 ‘아/어야 한다’로 번역되어 있었는데 「なければならぬ」 중에서 ‘아/어야 한다’로 번역되지 않은 5건과 「べき」 중에서 의무표현으로 사용된 33건 중 ‘아/어야 한다’로 번역되지 않은 12건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なければならぬ」 번역문 중에서 ‘한다’로 표기된 경우가 있었는데 한국 법령화행에서 의무과 발화수반력을 나타내는 수행표지로 일반적으로 ‘하여야 한다’ 외에도 ‘한다’가 사용⁶⁾되기 때문에 번역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외에도 ‘동의를 얻을 것을 요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으로 번역되었는데 내용상 법적인 효과가 달라졌다고 볼 수 없는 사례인 바 번역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3.3. 조사「の」와 「に」를 각각 ‘~의’와 ‘~에’로 번역하여 어색하거나 잘못 번역된 사례

우선 원문에서 「の」는 총 1182건, 번역문에서 ‘~의’는 792회 검색되었다. 그런데 일본어 「の」는 ‘~의’ 외에도 다양한 뜻(~에 관한, ~에 있는, ~으로 된 등)이 있기 때문에 「の」의 검색건수가 많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또한 일본어는 기본적으로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한국어에 비해 쉼표(,)와 「の」가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일본어는 명사적 표현을 선호하는데 비해서 한국어는 ‘동사+술어’ 표현을 선호⁷⁾한다는 관점에서 몇 가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례가 검색되었다.

다음으로 「に」를 살펴보았는데 일본어 「に」는 ‘~에, ~으로, ~에게, ~을/를, ~하기 위해서, ~하러, ~하러, ~과/와, ~으로, ~이가 되어’⁸⁾ 등 쓰임이 다양하다. 그런데 한국어 ‘~에’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예컨대 「バスに乗る(버스에 타다×, 버스를 타다○)」나 「~に代わる(에 대신하다×, 을/를 대신하다○)」와 같이 ‘~에’로 번역했을 때 좀 어색해도 뜻은 통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본어 문형 간섭현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본문에서도 ‘신의의를 좇아’ 또는 ‘신의에 따라’로 번역되어야 마땅한 표현에서 ‘신의에 좇아’로 번역된 경우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4. 결론

법률번역은 정확도와 충실성도 중요하지만 법률효과의 등가와 수용자, 즉 일반 국민들의 법률문장 이해도를 고려하면서 번역해야 한다. 가령 원문에 일본어 지시표현 「この(이)」와 「その(그)」가 많이 등장한다고 해서, 의미도 없고 가독성도 저해할 수 있는 지시 표현을 모두 다 번역에 반영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특히 다른 외국어에 비해서 유사한 부분이 많은 언어라서 언어간섭 현상이 일어나기 쉬워 번역자는 일본식 한자어를 그대로 한국어로 옮겨서 의미가 바뀌었는데도 모르고 지나칠 수 있고, 직역했는데 뜻이 통해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도 있다. 결과적으로 부자연스러운 한국어, 일본어투 표현을 번역문에 그대로 남겨 두게 되면 가독성 저해 요인이 되어

5) 郷丸静香(1995), 「現代日本語の当為表現:「なければならぬ」と「べきだ」」, 『三重大学日本語学文学』 6:29-39.

6) 유정주(2016), 「한국 법령의 영문 번역에서 ‘shall’의 사용에 관한 코퍼스 연구」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 김동욱(2003), 「한국 민법조문의 문법표현에 나타난 일본어의 영향」, 『일어일문학연구』 51:411-430.

8) 네이버 일본어사전에서 ‘に’ 검색결과 중 격조사 검색결과 발췌

가득이나 어려운 법률 문장을 더 이해하기 힘든 번역문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또한 일본어 당위표현 「なければならぬ／べきだ」는 뜻이 중첩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섞여 있고, 특히 법문에서 사용되었을 때 한국어로 둘 다 ‘~아/어야 한다’로 번역할 수 있지만 위 두 개 표현은 의무의 정도에 차이가 있어서 일본 학자들도 학자들마다 약간씩 다른 표현으로 위 두 가지 당위표현을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문장에서 사용되는 당위표현 「なければならぬ／べきだ」는 강제하는 정도는 다를지언정 해당 상황을 강제하는 의미를 가진다는 큰 틀에서의 학자들의 주장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그 외에도 불필요한 지시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번역하여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사례나 「~の」와 「~に」를 각각 ‘~의’와 ‘~에’로 번역하여 어색한 한국어로 번역된 사례도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들에게 알기 쉬운 법률번역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한 법률번역시 특히 어떠한 부분에서 일본어 언어간섭으로 인한 가독성 저해 요인이 나타날 수 있는지 분석하고, 일부 개선 방안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연구 대상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많은 법률번역문 중에서 일본민법에 한정되었다는 점에 연구의 한계가 있으며, 향후 다양한 종류의 법률번역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전후 일본의 미디어콘텐츠와 신선조의 계보

— NHK 대하드라마 『신선조!』를 중심으로 —

류 정 훈 (고려대)

2004년에 공개된 NHK 대하드라마 43번째 작품 『신선조!』는 막말 동란기에 활약했던 별동대 격의 조직 신선조(新選組)를 다룬 작품이다. 이야기는 국장으로 신선조를 이끌었던 곤도 이사미(近藤勇)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곤도 이사미의 하루가 하나의 에피소드로 구성된다. 주연 곤도 이사미 역은 인기 아이돌 그룹 SMAP의 멤버인 가토리 신고(香取慎吾)가 맡았으며, 곤도의 보좌역으로 극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히지카타 도시조(土方歳三)는 야마모토 고지(山本耕史), 천재 검술사 오키타 소지(沖田総司)는 후지와라 다쓰야(藤原竜也), 신선조의 숙청 담당 사이토 하지메(斎藤一)역은 오다기리 조(オダギリジョー)가 담당했다. 이외에도 1화부터 등장하는 사카모토 료마(坂本龍馬), 사쿠마 쇼잔(佐久間象山)을 비롯해 당대에 이름을 알린 다양한 인물군상들이 출연하여 극의 볼륨감을 높인다. 역대 NHK 대하드라마 중에서 주인공이 접촉하는 인물이 가장 많은 편이라는 주장¹⁾이 마냥 허황되게 들리지 않을 만큼 『신선조!』는 막말 동란기에 활약한 인물들을 통해 곤도 이사미 개인을 넘어 시대의 단면을 입체적으로 제시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방영 당시 『신선조!』는 최고 시청률 26.3%, 평균 시청률 17.4%를 기록했으며 26.3%라는 최고 시청률은 제 1화 초회 시청률과 같은 수치이다.²⁾ 앞선 42번째 대하드라마 『무사시(武蔵 MUSASHI)』의 초회 시청률 21.7%, 최고 시청률 24.6%, 평균 시청률 16.7%와 비교하면 일종의 트렌디 드라마로 큰 인기를 끌었던 41번째 작품 『도시이에와 마쓰(利家とまつ)』의 아성³⁾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무사시』에 실망한 시청자들에게 상당한 기대를 안겼고 나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후속작 『요시쓰네(義経)』의 초회 시청률이 24.2%에 그쳤다는 점⁴⁾에서도 『신선조!』가 지녔던 화제성을 짐작할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신선조!』가 이렇게 화제성을 지녔던 요인으로는 각본가로 참여한 미타니 고키(三谷幸喜)의 영향이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을 대표하는 각본가이자 영화감독으로 명성을 쌓은 미타니 고키의 첫 대하드라마 작품이라는 점에서 『신선조!』는 분명 눈길을 끄는 작품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도시이에와 마쓰』 이후로 일종의 트렌드로 자리잡은 미소년 배우의 대하드라마 기용이라는 측면도 작품의 화제성을 추인하는 동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상의 요인들이 대하드라마로서 극의 집중도를 해친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2020년에 있었던 「2000년대 NHK 대하드라마 인기투표」에서 『아쓰히메(篤姫)』를 제치고 1위에 오르기도 하는 등⁵⁾, 『신선조!』는 이후에도

1) NHK出版(2011) 『NHK大河ドラマ大全』 NHK出版, p.174

2) 『신선조!』의 방영기간은 2004년 1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이며 전체 49화로 이루어졌다.

3) 『도시이에와 마쓰』는 초회 시청률 26.1%, 최고 시청률 27.6%, 평균 시청률 22.1%를 기록했으며, 주연 마쓰시마 나나코의 「저에게 맡겨주십시오(私にお任せくださいませ)」라는 대사가 유행어가 되고 극의 무대이기도 했던 가나자와 시에서는 최종회 시청률이 80%를 넘어서기도 했다.

4) 『요시쓰네』의 최고 시청률은 26.9%, 평균 시청률은 19.5%로 『신선조!』를 넘어서는 성과를 보였다.

꾸준히 대중적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NHK 대하드라마로서는 이색적으로 2006년 1월 1일에는 『신선조!』의 후속작으로 특별 시대극 『신선조! 히지카타 도시조 최후의 하루(新選組!! 土方歳三 最期の一日)』 방영되기도 했다. 드라마의 대중적 인기라는 측면에서는 『신선조!』가 더 텔레비전 드라마 아카데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도 있다. 1994년부터 시작된 더 텔레비전 드라마 아카데미상은 분기별로 그 시기 최고의 작품에 수여되는 상으로 시청률과는 별개로 대중의 관심을 받은 당시의 인기작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다. NHK 대하드라마로서는 1996년 4분기에 『히데요시(秀吉)』가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이후 10년만에 『신선조!』가 2004년 4분기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다.⁶⁾ 『신선조!』 이후로는 현재까지 NHK 대하드라마 중에서 본상을 수상한 작품은 없다.

대하드라마 『신선조!』를 여타의 신선조 관련 작품과 구별 짓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 각본가 미타니 고키의 존재이다. 연극 각본가로 출발해 영화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 『웃음의 대학』 『THE 우초텐호텔』 등으로 잘 알려진 미타니는 2017년 자수포장(紫綬褒章) 수여가 보여주듯 명실공히 일본을 대표하는 국민각본가이다. 잘 알려진 미타니 극의 특징은 하나의 사건을 여러 인물들이 각각의 관점에서 서술하는 군상극(群像劇)인데 『신선조!』 역시 전술하였듯이 주인공 곤도 이사미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물군상이 출연해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전개시켜나간다. 곤도 이사미의 하루가 하나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점은 일종의 시트콤 드라마를 연상시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점 역시 미타니 작품의 특징으로 자주 거론된다.

미타니가 집필한 대하드라마의 중심에는 공통적으로 패자(敗者)의 이야기가 있다. 도쿠가와 군에 맞서다 죽음에 이른 사나다 유키무라(真田幸村)와 그 일족, 메이지 신정부에 맞서다 패퇴한 신선조의 무리들, 미타니는 시대의 흐름에 맞서는 개인들의 이야기에 유독 관심을 보인다. 2022년작 『가마쿠라 도노의 13인』의 호조 요시토키(北條義時)는 분명 역사의 승자로 보이지만 미타니는 “요시토키는 승자로 보이지만 희생한 것도 잃어버린 것도 있으니, 어쩌면 고독과 절망 속에서 죽어갔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흥미가 솟아올랐다”⁷⁾고 말한다. 앞서 각본을 쓴 『신선조!』와 『사나다마루』에 대해서도 “이들의 공통점은 “패자”라는 것이죠. 시대를 만든 사람보다도 시대로부터 남겨진 사람들의 인생에 저는 흥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것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요. 이야기를 만드는 작가로서는 패배한 사람들 쪽이 훨씬 드라마틱하게 쓸 수 있다는 것도 이유입니다”⁸⁾라고 설명하는데 이러한 태도는 전통적인 호간비이키(判官贖戻)의 정서로 읽히기도 하지만 역사드라마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미타니는 “대하드라마는 “드라마”이지 역사의 재현이 아니에요. 등장인물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으면 재미있지 않습니다”⁹⁾고도 말하는데 이는 역사드라마란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나열해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

5) <https://nlab.itmedia.co.jp/research/articles/89162/>

6) 같은 해 1분기 수상작 『하얀 거탑』, 2분기 수상작 『빛과 함께 - 자폐아를 보듬고』, 3분기 수상작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7) 義時は勝者に見えるけれども、犠牲にしたものも失ったものもある。もしかしたら孤独と絶望の中で死んでいったのかもしれない。そう思うと、興味が湧いてきた。NHK出版(2021)『プレイバックNHK大河ドラマ』NHK出版, p.130

8) この2人に共通しているのは、“敗者”であること。時代を作った人よりも、時代から取り残された人たちの人生に、僕は興味があります。この世の中は、何かを成し遂げられずに人生を全うする人のほうが圧倒的に多いわけですから。さらに物語作家としては、敗れていった人たちのほうがよりドラマチックに書けるということもあります。NHK出版(2021)『プレイバックNHK大河ドラマ』NHK出版, p.130

9) 大河ドラマは“ドラマ”であって、歴史の再現ではない。やはり登場人物の息吹が感じられないと、おもしろくない。NHK出版(2021)『プレイバックNHK大河ドラマ』NHK出版, p.131

라는 인식이다. 이상을 고려하면 미타니는 기존의 역사드라마와는 다른 극적 연출, 어떻게 역사적 사실을 보다 드라마틱하게 보여줄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신선조!』를 구상했다고 파악할 수 있다.

미타니는 『신선조!』에서 비교적 젊은 배우에 속하는 가토리 신고를 내세움으로써 대중들에게 친근한 청년의 이미지로 곤도 이사미를 재구축한다. 『신선조!』의 곤도는 열정으로 충만한 청년이면서 스스로 추구한 가치를 마지막까지 사수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정유민은 「신선조의 서술양태에 관한 고찰: 소설과 NHK 대하드라마 비교를 중심으로」에서 미타니의 집필 의도가 시바 료타로의 신선조상 극복에 있다고 파악한 뒤, 이는 곤도의 이미지 향상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런 시도는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듯 보이나 결국은 불완전한 채로 끝난다고도 지적한다. 하지만 미타니의 각본이 ‘객관적 역사’를 어느 정도 ‘왜곡’했는지와 별개로 『신선조!』의 곤도 이사미를 “역사적 토대를 제거당한 불완전한 존재”로 파악하는 것에는 의문이 남는다. 왜냐하면 『신선조!』의 곤도가 막말동란기라는 토대 위에서만 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미타니가 새롭게 창출한 곤도는 21세기라는 시대적 맥락 위에서 짜여진 신세기의 뉴타입 곤도 이사미에 가깝다.

2000년대 일본은 90년대에서 이어받은 불안과 혼돈이 파란으로 점철되던 시기였다. 2001년 4월 파격적인 정치행보를 일삼던 고이즈미가 총리로 취임하고 같은 해 8월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바로 다음달인 9월에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으며 이후 미국은 2003년에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혹을 이유로 이라크를 침공했으나 『신선조!』가 방영되던 2004년 10월 미국은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는 없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자민당을 깨부수겠다고 집권한 고이즈미는 신자유주의의 선봉을 자처했고 국민들간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었다. 2002년 8월 일본 맥도널드가 햄버거 가격을 80엔에서 59엔으로 인하할 때, 한쪽에서는 2003년에 롯데기힐즈를 개장했다. 신부유층이 거주하며 도쿄와는 별도의 자가발전 능력까지 갖춘 롯데기힐즈의 존재는 현대일본사회의 격차를 극적으로 가시화시켰다. 2004년 4월에 이라크에서 일본인 3명이 납치되어 같은 달 중순에 전원석방되는 일이 있었을 때는 자기책임론이 급부상하며 개인과 국가, 사회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았다. 같은 해 개봉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아무도 모른다』에서 아이들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고립된 채 철저히 개인의 책임하에 가난과 죽음을 맞이한다. 존재하던 대량살상무기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개인을 지켜줄 국가와 사회의 기능도 점차 약화되어 갔다. 회사는 더 이상 개인을 종신고용의 형태로 보호하지 않았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사람들은 ‘난민’의 형태로 ‘표류’하며 생활하기에 급급했다. 참지 못한 자들의 “살게 하라(生きさせろ)”는 외침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껏 믿어온 가치와 제도가 일순에 무너져버린 현실에서 청년 계층은 워킹푸어로 전락했다. 직장은 있으나 아무리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서 현대일본의 청년들은 좌절하고 때로는 분노했다. 고이즈미 정권 이후의 사회구조 변화가 가장 큰 요인¹⁰⁾이었으나 청년들의 분노는 재특회와 같은 차별과 배제의 민족주의로 나아가기도 했다. 2000년대 초반 일본문화의 중추는 단카이 주니어 세대, 혹은 포스트 단카이 주니어 세대가 담당했다. 이들은 단카이 세대의 자식들로 성장하며 취직빙하기를 경험했기에 ‘자아 찾기(自分探し)’에 몰두하면서 프리타, 비정규직, 고학력 워킹푸어의 선구자

10) 일본의 경제전문가인 카도쿠라 다카시는 미국의 계층 간 소득 격차의 원인을 사회구조 변화라고 정리하고 있다. 우선 경제의 주도권이 고임금인 제조업에서 저임금인 서비스업으로 이동한 데다 IT사업을 대표적으로 전문직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비전문직과의 소득 격차가 심화됐으며, 외부에서 대량 유입된 이민도 저소득층의 임금 상승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았다.

워킹 푸어 [working poor] (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65841&cid=42107&categoryId=42107>

가 되었다. 이들은 이전 세대의 가치관을 의문시하면서도 의지할 수 있는 가치관의 부재에 혼란스러워하고 방황했다. 초대 편의점 세대, 초대 가라오케 세대로도 불리며 이들은 초식남, 건어물녀, 마케이누와 같은 유행어를 탄생시켰고 성인이 되어서는 사회로부터의 배신감, 그리고 이에 따른 피해자의식을 자연스레 체득하게 되었다. 이상의 맥락에서 『신선조!』의 주연 배우 가토리 신고가 소속된 아이돌 그룹 SMAP가 단카이주니어 세대의 특징을 보여준다는 주장은 대단히 흥미롭다.

SMAP는 경쟁이 극심한 일본 예능계에서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장수한 아이돌 그룹이다. SMAP의 경쟁력은 어렸을 때부터 경쟁을 체화해온 단카이주니어 세대에게 일종의 가치구미(勝ち組)의 전형으로 인식되었다. 저성장시대를 지내온 단카이주니어 세대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거나 기존의 시장을 확대해가는 것보다 확대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시장에서 자신의 지분을 증대시켜나가는 ‘지분 경쟁’ 선호의 경향을 보이는데 SMAP는 TV라는 유한한 전파시장에서 자신의 지분을 증대시켜나가면서 장수하는 예시라는 것이다. 예컨대 SMAP의 장수 프로그램 <SMAP X SMAP>가 상징적인데, SMAP의 멤버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전통적인 아이돌상을 버리고 노래 뿐 아니라 드라마와 예능 등에서도 활동을 이어갔다. 어디까지나 TV라는 틀 안에서 기존의 쇼와적 가치를 타파하려는 혁신성을 선보인다는 자세가 단카이주니어 세대의 지분경쟁 성향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아찾기’에 몰두하는 단카이주니어 세대의 모습이 SMAP의 메가히트곡 <세계에 하나 뿐인 꽃(世界に一つだけの花)>의 가사에 투영되는 것도 우연은 아닌 셈이다.¹¹⁾

『신선조!』에서 가토리 신고로 태어난 청년 곤도 이사미의 최종화 마지막 장면은 교토로 떠나기를 결심하는 장면의 회상이다. 교토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라는 히지카타의 물음에 곤도는 아무 말 없이 칼을 들어 전방을 가리킨다.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그 지점을 향해 나아간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곤도와 신선조의 청년들은 결국 무엇을 지향한 것인가. 대하드라마 『신선조!』의 동시대성을 고려해 앞서 서술한 청년계층의 문제로 『신선조!』를 바라본다면 신선조의 청년들은 결국 의지할 가치의 부재로 인해 파멸하는 존재로 규정될 수 있다. 실제로 극중에서 곤도는 하타모토의 지위까지 올랐다가 결국에는 막부로부터 버림받아 처형당하는 기민(棄民)의 신세를 면치 못한다. 곤도의 죽음 이후에 서술되는 신선조 구성원들의 후일담 역시 그들이 조직 해체 이후 난민으로서 표류하는 형태로 해석할 수 있다. 적어도 무사답게 죽기를 바랐던 곤도의 의지와 달리 그의 수급은 자신의 활동무대이던 교토 저자거리에 효수된다.¹²⁾ 자신이 몸담았던 국가, 사회로부터 철저히 버림받는 청년 신선조의 모습에 단카이주니어 세대가 끌어안은 사회에 대한 배신감이 투영되었다는 해석도 가능한 지점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선조로서 그들이 지키고자 한 것이 결국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물음이 필요하다. 적어도 극중에서 청년 곤도가 지키고자 한 것은 막부나 국가, 사회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보다 개념적인 일종의 가치인 것으로 보인다. 극중 곤도는 자신이 무사계급 출신이 아니라는 점을 끊임없이 되뇌이며 한편으로 “무사보다 무사답게(武士より武士らしく)” 살아갈 것을 맹세한다. 단순히 무사 계급에 편입되어 입신출세를 지향하기보다 곤도는 무사다움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캐릭터로 성장해나간다. 동료애를 쌓고 온화한 리더십을 보여주다가 때로는 결단력 있는 인물로 혹은 인간적인 비애에 눈물 흘리는 모습으로도 등장한다. 무사가 아닌 인물이 추구하는 무사다움이라는 아이러니가 2004년

11) 이상 SMAP와 단카이주니어 세대 관련 논의는 阪本節郎, 原田曜平(2015) 『日本初! たった1冊で誰ともうまく付き合える世代論の教科書』 洋経済新報社, pp.158-159 참조

12) 이와 관련해 드라마에서 시각적으로 상세하게 묘사하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는다

『신선조!』의 곤도 이사미를 관통하는 키워드라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15화에 등장하는 곤도와 기요카와 하치로(清河八郎)의 대화 장면을 그려한데, 존왕양이론자인 기요카와는 곤도에게 당신이 꿈꾸는 무사의 시대는 이미 끝났으며 막부를 위해 교토에 남아 활동하는 것이 정당성을 잃었음을 강변한다. 이때 곤도는 한번 마음을 먹었으니 교토에 남아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마음먹은 것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것이 무사라는 주장을 한다. 이에 곤도의 신분을 알고 있는 기요카와는 그가 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키지만 곤도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무사답게 사는 것입니다(だからこそもっと武士らしく生きるのです)”라고 대답한다. 한번 마음을 먹은 것을 끝까지 관철시킴으로써 무사가 아니라는 자신의 계급적 한계를 초월하려는 곤도의 의지임과 동시에 기요카와가 주장하는 시대의 변화와는 별개로 뜻을 굽히지 않은 곤도와 신선조의 결말을 연상시키는 대목이기도 하다. 여기서 “무사답게(武士らしく)”는 하나의 가치관을 끝까지 수호하는 모습에 가깝다. 곤도는 자신과 신선조가 막부에 충성해야한다는 당위를 강변하지 않는다. 당위가 있다면 그저 무사답게 살아야한다는 것이며 이는 처음에 가졌던 가치관을 관철시킴으로써 가능해진다. 이런 가치관은 죽음을 불사하는 용맹한 무사상과는 다르게 그려진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야마나미 케이스케의 할복 장면에서 곤도와 히지카타는 어린아이와 같이 오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드라마 중반부에서 메이지 정부군에 체포되기 직전에 곤도는 양자 곤도 슈헤이에게 싸우지말고 살아남을 것을 당부한다. 앞서 2003년에 흥행한 영화 『미부기시텐』에서 신선조의 무사로서 주인공 요시무라 간이치로(吉村貫一郎)가 마지막까지 정부군과 맞서 싸우는 모습이 비장하게 그려진 것과는 분명한 차이점을 보여준다. 정부군의 총포에 맞서 칼을 들고 달려드는 용맹한 전근대 이미지의 무사상은 『신선조!』에서 찾아볼 수 없다.

『신선조!』의 청년 무사들은 시대의 변화에 맞서 자신들의 가치관을 수호함으로써 기존의 무사상과는 다른 방식의 무사다움을 이루고자 했다. 곤도를 비롯한 신선조 청년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스스로의 가치관이 바뀌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곤도에게 신선조 활동이 정당성이 없다고 강변하는 기요카와나 첫화부터 등장해 존재감을 뽐내는 사카모토 료마는 곤도의 대척점에 위치한 인물이다. 하지만 기요카와는 곤도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고 료마 역시 때때로 곤도의 도움을 받는다. 역사적 사실과 달리 료마가 1화부터 등장해 곤도와 일종의 연대감을 형성한다는 설정은 괴이하면서도 꽤나 흥미롭다. 『신선조!』에서 기요카와나 료마는 시대의 변화를 상징하는 인물이지만 결코 곤도와 대립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곤도에게 시대의 변화는 맞서는 상대이기는 하지만 타파해야할 그 무엇은 아닌 셈이다. 그렇다고 시대의 변화에 복종하거나 순응하지 않은 채 일정한 거리를 둘 뿐이다. 최종화에서 히지카타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자신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묻는데, 이 장면에서 아버지는 “시대와 싸운 것”이라 답하며 “이렇게 통쾌한 일이 있겠느냐”며 반문한다. 시대에 순응하지 않고 그에 맞서 싸워 자신의 가치관을 관철함으로써 무사다움을 완성하지만 그렇다고 시대 그 자체가 적대해야 할 것으로 묘사되지 않는다는 점이 『신선조!』의 무사상이 보여주는 특이점이라 할 수 있다.

NHK 대하드라마 <료마전(龍馬伝)>과 일본의 사카모토 료마(坂本龍馬) 인식

— 시바 료타로 <료마가 간다(龍馬がゆく)>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

김 욱 (서울대 일본연구소)

오늘날 일본의 역사소설을 논할 때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¹⁾를 빼놓을 수 없다. 그는 군국주의 일본의 팽창을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를 통해 정당화했던 요시카와 에이지(吉川英治)와 제2차 세계대전 패전의 후유증과 참상에 시달리는 일본 국민들에게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를 통해 인내의 미학을 가르쳤던 야마오카 소하치(山岡荘八)에 이어 일본의 역사소설을 계승, 발전시켜 완성한 인물로 평가²⁾되고 있다. 시바 료타로에 대한 비교적 최근의 평가로, 사이토 미나코(齋藤美奈子)는 시바가 전지적 관점에서 역사 전체를 내려다보는 것을 선호하며, 역사의 해석에 있어서 잘라낼 부분은 과감히 잘라냈기 때문에 시바 료타로의 작품에는 거짓이 많다고 비판하는 역사가들도 많지만 그러한 공적을 포함해서 그 영향력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바 료타로가 쇼와(昭和) 시기에 대해서는 쓰지 않았던 것을 두고 그 이유를 그가 전쟁으로 향하는 파시즘의 시대를 싫어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어하는 시대라면 더욱더 파헤칠 필요가 있었다고 기술한 바 있다.³⁾

일본 대중의 시바에 대한 사랑은 여러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소설의 판매 부수는 2010년에 1억부를 넘겼고, 2016년 조사된 판매 부수 1위는 『료마가 간다(龍馬がゆく)』로 2451만 9000부, 2위는 『언덕 위의 구름(坂の上の雲)』으로 1960만 1500부⁴⁾이다. 그가 사망한 1996년 이후 영상 매체로 재생산된 것만으로도 영화가 3편⁵⁾, 드라마가 12편이다.⁶⁾ 이러한 점을 미루어보아 역사적 사실과 허구를 절묘하게 가공하여 이야기하는 역사소설의 특성상, 현대 일본인의 역사 인식 안에서 그의 영향력은 무시하지 못할 정도라 할 수 있으며, 그가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평론가, 역사연구가 사이에서 유행한 ‘시바 사관(司馬史観)’이라는 용어가 단적으로 이를 증명한다. 그의 소설이 영상화된 것 중에

1)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 1923-1996)는 필명으로, 본명은 후쿠다 데이치(福田定一)이다. 시바 료타로라는 이름으로 처음 응모한 작품인 「페르시아의 환술사(ペルシャの幻術師)」(1956)가 제8회 고단샤클럽상(講談社倶楽部賞)을 수상하면서 등단하였다. 1960년 1월에 『올빼미의 성(梟の城)』으로 제42회 나오키상(直木賞)을 받은 이후로 일본 대중의 사랑을 받은 유수의 역사소설을 창작하였다.

2) 김정호,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의 역사관(司馬史観)의 형성배경과 의미 고찰」, 『일어일문학연구』 제41집, 2002, p.214.

3) 사이토 미나코, 김정희 역, 『동시대 일본 소설을 만나러 가다-19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현대 일본 문학의 흐름』, AK, 2021, pp.98-99.

4) <時代を超え愛される司馬遼太郎 没後20年、電子書籍版も人気>, 産経新聞, 2016年3月31日.

5) 세키가하라(関ヶ原, 2017), 타올라라 검(燃えよ剣, 2021), 고개(峠, 2022 예정)

6) 신선조혈풍록(新選組血風録, 1998, 2011), 료마가 간다(龍馬がゆく, 1997, 2004), 나라 훔친 이야기(国盗り物語, 2005), 도쿠가와 요시노부(徳川慶喜, 1998), 「천연덕스러운 도톤(けろりの道頓, 1998)」, 창천의 꿈(蒼天の夢, 1999), 유채꽃 바다(菜の花の沖, 2000), 공명의 갈림길(功名が辻, 1997, 2006), 언덕 위의 구름(坂の上の雲, 2009)

서도 「언덕 위의 구름」은 시바 자신이 “가능한 한 영화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그러한 시각적인 것으로 번역하고 싶지 않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경솔한 번역을 하면 일본 군국주의를 고취하는 것처럼 오해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공공연히 말하였⁷⁾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NHK에서 드라마화되어 3년에 걸쳐 방영되었으며, 이를 두고 한일 양국에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비슷한 시기, 2010년 NHK 대하드라마 시리즈의 주인공으로 사카모토 료마(坂本龍馬)가 낙점되었다. 2010년 작품인 <료마전(龍馬伝)>이 기획 단계에 들어가던 2007년은 일본이 연금문제로 들끓고 있을 때였다. 그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나침반이 없는 시대이기에 길 안내자와 같은 인물이 좋다”라는 기획자 후쿠다 야스시(福田靖)⁸⁾의 구상 속에서 집필된 이 각본은, 미쓰비시(三菱) 그룹의 창업자이자 료마와 같은 도사번(土佐藩)⁹⁾ 출신인 이와사키 야타로(岩崎弥太郎)를 나레이터로 하여 사카모토 료마의 일생을 재구성한 픽션이라는 점에서 매우 특징적이다.¹⁰⁾ 이같이 기획 의도나 관찰자적 시점을 견지한 나레이터의 설정을 미루어보더라도, 후쿠다 야스시가 그리는 사카모토 료마는 1962년부터 연재를 시작해 1966년 끝맺은 시바의 『료마가 간다』에 나타난 사카모토 료마 상(像)에 대한 동시대적 재인식의 시도라고도 볼 수 있다.

물론 사카모토 료마에 대한 현대 일본의 대중 인식이 『료마가 간다』에서 대부분 구축되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일본인이 좋아하는 위인 중 1위에 꼽히는 사카모토 료마라는 인물상의 원형은 시바 료타로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1968년 NHK 대하드라마 <료마가 간다>를 필두로 수차례 드라마화, 영화화되며 재생산되었다. 실제 일본 역사에 있어서 사카모토 료마의 입지와 활약 이상으로 일본인의 마음속에 그가 자리 잡게 된 이유는, 이와 같은 미디어의 재생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과 연관이 깊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NHK 대하드라마가 일본 사회에서 가지는 파급력 역시 상당한 것으로,¹¹⁾ 2010년에 방영된 <료마전>과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일본 내에서 료마붐(龍馬ブーム)을 일으켜 역사드라마의 인식에 큰 전환점을 낳았다.¹²⁾ 실제로 라인 리서치(LINEリサーチ)에서 일본 전국 남녀를 대상으로 ‘대하드라마를 본 적이 있다’라는 사람을 추려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좋아하는 대하드라마’ 랭킹을 매겨 본 결과, 2위는 <사나다마루(真田丸)>, 1위는 <료마전>이 뽑혔다. <료마전>은 모든 연령대에서 10위 안에 들었으며, 20대·40대·50대 랭킹에서 1위를 점하였다. 특히 50대로부터의 인기가 높았으며, 득표율은 30.1프로였다.¹³⁾

이러한 점을 미루어볼 때 후쿠다 야스시에 의해 새롭게 각색된 사카모토 료마의 이야기는 어떠한 것이었는지, 시바 료타로의 『료마가 간다』와는 어떠한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바가 창작할 당시인 1960년대의 일본과 대하드라마 <료마전>이 방영될 당시 2010년의 일본

7) 나가즈카 아키라, 박현옥 역(2014), 『시바 료타로의 역사관』, 모시는 사람들, p.21.

8) 주요 각본으로 <HERO>SP(2006), <CHANGE>(2008), <용의자X의 현신>(2008), <료마전>(2010), <DOCTORS>(2011), <HERO>시즌 2(2013) 등이 있다.

9) 오늘날의 고지현(高知県)에 해당하는 지역.

10) https://www2.nhk.or.jp/archives/tv60bin/detail/index.cgi?das_id=D0009010582_00000(최종검색일:2022.01.19.)

11) 대하드라마는 매해 1월에 시작하여 12월에 끝이 난다. 즉 일본 사회의 1년간의 회로애락을 함께 보내는 것이다. 일본에서 이러한 시간의 동반자적 관계를 가지는 드라마는 NHK 대하드라마가 유일하다. -정연욱(2014), 『일본 NHK 대하드라마의 ‘일상성과 비일상성’의 이중노출 구조』, 『일본어문학』, 한국일본어문학회, p.260.

12) 김서은(2018), 「NHK 드라마에 서사된 격동기 일본과 여성의 역할 연구」, 『일본어교육』84, 한국일본어교육학회, p.65.

13) <https://news.yahoo.co.jp/articles/8088edf9367fea295cf15630f7f71a46302d34>(최종검색일:2022.08.13.)

은 시대적 간극이 상당히 상하여 창작 당시의 시의성(時直性)이 다를뿐더러, 이로 인해 각 작품이 일본 대중에게 각인되는 방식 또한 상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NHK 대하드라마 <료마전>과 같은 경우에는 학계에서 미디어와 관광 효과의 측면으로 다루어진 바 있으나, 작품이 발신하는 사카모토 료마 상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먼저 <료마전>에 나타난 서사 전개 방식과 구성의 특질이 2010년이라는 시점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1962년부터 연재된 시바 료타로의 <료마가 간다>에 나타난 사카모토 료마의 인물상이 <료마전>에 어떻게 계승 혹은 변용되었는지를 비교·분석해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차 자료

『龍馬伝(NHKオンデマンド)』(2010), AMAZON prime 提供.
 후쿠다 야스시, 임희선 역(2013), 『료마전』, 학교재.
 (저본은 福田靖、青木邦子(2009), 『龍馬伝』, 日本放送出版協会.)
 시바 료타로(2002), 『료마가 간다』1~10, 창해.
 (저본은 司馬亮太郎(1974), 『龍馬がゆく』1~8, 文春文庫)

2차 자료

김경호(2002) 「시바 료타로 (司馬遼太郎) 의 역사관(司馬史觀)의 형성배경과 의미 고찰」, 『일어일문학연구』제41집.
 김서은(2018), 「NHK 드라마에 서사된 격동기 일본과 여성의 역할 연구」, 『일본어교육』84, 한국일본어교육학회.
 나가즈카 아키라, 박현욱 역(2014), 『시바 료타로의 역사관』, 모시는 사람들.
 사이토 미나코, 김정희 역, 『동시대 일본 소설을 만나러 가다~19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현대 일본 문학의 흐름』, AK, 2021, pp.98-99.
 이복임(2010),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의 메이지(明治)국가론—『언덕위의 구름(坂の上の雲)』의 역사서술방법을 중심으로 —」, 『일본문화학보』제45집.
 정연욱(2014), 「일본 NHK 대하드라마의 ‘일상성과 비일상성’의 이중노출 구조」, 『일본어문학』, 한국일본어문학회

NHK 대하드라마 <다이랴노기요모리(平清盛)>에 등장하는 쌍륙놀이(双六遊ひ)의 역할과 의의

金 滂 我 (高麗大)

1. 서론

『헤이케모노가타리』에서 헤이안(平安) 말 시라카와(白河) 천황은 천제(天帝)인 자신의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 가모가와(賀茂川)의 물, 엔랴쿠지(延暦寺)의 승려들, 그리고 쌍륙(双六)의 눈,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¹⁾ 승려들의 난동은 불법을 숭앙하는 이상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것이며, 강의 물이 불어나거나 마르는 것, 쌍륙, 즉 주사위의 눈은 신의 영역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쌍륙놀이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게임의 진행 형태나 도구의 모양에는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두 명이 각각 15개의 말과 주사위 2개를 가지고 자신의 진영에 말을 먼저 모으는 자가 승리하는 게임이다.²⁾ 이 게임은 주사위의 수는 하늘의 뜻에 달린 것이지만, 그 수를 가지고 말을 운용하는 것은 놀이를 하는 자의 실력에 달려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도박에도 자주 사용됐던 놀이로 김유천은 일본 고전문학에 등장하는 쌍륙이 유희와 사치의 도구이면서도, 도박과 내기를 통해 욕망의 상징물로써 활용되어 왔다고 이야기한다.³⁾ 이에 본 발표에서는 NHK 대하드라마 <다이랴노 기요모리(平清盛)>⁴⁾에서 이 쌍륙놀이가 어떻게 드라마 속에서 활용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이랴노 기요모리는 헤이안 말배로 천황의 권력이 무너지고 가마쿠라 막부가 설립되는 그 과도기를 살아온 무사로서, 정해진 운명을 거슬러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려는 인물로 등장한다. 무사에게는 한계도 제약도 많았던 시대에 다이랴노 기요모리는 다이조다이진(太政大臣)의 자리를 거쳐, 권력의 정점에 올라선 인물이다. 운명을 거슬러 새로운 길을 개척한 기요모리의 인생에 쌍륙이 어떤 역할과 의미로 등장하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운명을 이겨내는 게임

시라카와인의 말처럼 주사위의 눈은 ‘운’에 달려 있지만, 나온 눈을 가지고 말을 어떠한 형태로 운용하는가에 따라서 게임의 승패는 크게 달라진다. 드라마에서는 이 쌍륙놀이를 통해서 호수(好手)와

1) 『平家物語』 卷1「願立」

2) 한국에서는 인도를 거쳐 중국을 통해서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며 삼국시대부터 기록에 등장한다. 일본에는 백제로부터 전파된 것으로 추측하고, 『니혼쇼키(日本書記)』의 689년 기록에 “쌍륙을 금지한다(禁斷双六)”라는 기술이 있는 것으로 보아 7세기 이전에 전파된 것으로 추정한다. 김광언, ‘쌍륙치기’ 『동아시아의 놀이』 민속원 2004 pp. 245-260 참조

3) 김유천 「우아한 유희, 위험한 욕망의 게임」 『놀이로 읽는 일본문화』 제이앤씨 2018 pp.37-53 참조

4) 2012년 1월 8일~ 12월 23일 방송. 논문에 실리는 대본 스크립트와 해석은 모두 논자에 의한 것임.

악수(惡手) 중에서 무엇이 나올지 모르는 ‘운’과 이를 가지고 ‘운명을 이겨내는 능력’을 기요모리의 인생을 빗대어 그려낸다.

기요모리는 출생에서부터 운명을 거슬러 태어난다. 드라마에서의 기요모리는 ‘재앙의 씨앗(災いの種)’라는 음양사의 점괘로 생부 시라카와인(白河院)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할 뻔했으나, 생모인 시라보시(白拍子) 마이코(舞子)의 희생으로 무사히 태어난다. 이후 기요모리는 다이라노 다다모리(平忠盛)에게 거두어져 무사로 살게 된다. 3화에서 승려들이 궁으로 신여(神輿)를 이끌고 내려와 폭동을 일으키자, 이를 제지하던 기요모리는 신여에 활을 쏜다. 그 벌로 아버지와 함께 감금되어있는 중에 쌍륙을 두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다다모리: 이런, 또 내가 졌구나. 너는 도박에 강하구나.

기요모리: 아버지, 아버지는 어째서 저를 맡으셨습니까. 언젠가 이런 날도, 헤이시(平死)에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다다모리: (중략) 마이코라고 하는 이름이었다. 시라카와인이라는 거대한 분에게 혼자의 힘으로 맞섰던 강한 여자. (중략) 음양사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무시하고 너를 지켜냈다. 그래서 나는 이때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이코로부터 태어난 네가 말도 안 되는 미신에 맞서는 날을. 기요모리, 너는 없어서는 안 되는 남자다. 헤이시에도, 앞으로의 세상에도. (3화)



<그림1> 좌) 오프닝 우) 쌍륙을 두는 어린 기요모리(1화)

드라마에서 기요모리에게 애정을 가지고 쌍륙을 두는 인물은 기온노고(祇園女御)⁵⁾와 아버지 다다모리 두 사람이다. 두 사람에게서 기요모리는 마이코를 닮아서 쌍륙, 내기를 잘 한다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등장한다.⁶⁾ 기온노고와 다다모리에게 있어서 마이코는 운명이나 점괘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부딪쳐 이겨내는 사람이며, 쌍륙의 수를 잘 활용할 만큼 영리한 사람이다. 기요모리는 이러한 특징을 물려받은 아들이며, 그 역시 주사위 놀음에 지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가지고 있는 주사위의 악수(惡手)를 묘수(妙手)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똑같은 기요모리의 능력을 두고 시라카와인과 고시라카와인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인다.

5) 시라보시로 시라카와인에게 총애를 받던 인물이다. 『헤이케모노가타리』 가쿠이치(覚一本)에서는 기온노고를 기요모리의 생모라고 기술하고 있지만, (권6 「기온노고」) 여기서는 마이코를 아끼는 시라보시로 기요모리에게 있어서 어머니와도 같은 인물로 등장한다.

6) 기온노고: 역시구나. 마이코도 쌍륙이 강했지, 이상한 곳이 닮았구나. (1화)

3. 권력의 욕망 속에서의 쌍륙

32화에서 기요모리는 열병으로 생사를 헤매는 중에 생부 시라카와인과 생모 마이코의 꿈을 꾀다. 두 사람은 쌍륙을 두고 있었고, 마이코가 임신 사실을 알리자, 시라카와인은 “시라보시 주제에 꽤나 좋은 수를 내놓았구나.”라고 반응한다. 시라카와인은 마이코의 임신을 신분 상승이나, 부귀영화 등 무엇인가의 노림수를 가지고 던진 주사위의 수라고 판단한다. 그렇기에 음양사의 점괘에 따라서 아이를 지우라고 명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기요모리를 대신해서 마이코를 죽였고, 두 사람의 쌍륙놀이는 각각의 후손인 고시라카와인과 기요모리에게로 내려온다.

시라카와인: 내가 상황에 의한 정치를 했던 것과 같은 것이지. 역시, 흐르고 있군. 괴물의 피가. (중략) 나를 쫓아 와봐라.

기요모리: 나는 당신을 넘어서고 말겠습니다.

꿈속에서 시라카와인은 자신을 괴물이라고 칭하며 양위를 한 것처럼 기요모리도 권력의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는 욕망 그 자체가 자신의 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확신한다. 기요모리가 시라카와인을 넘어서겠다고 선언한 것은 자신은 당신과는 다르게 괴물이 아니며, 권력의 정점에서 당신이 보지 못했던 풍경을 보고야 말겠다는 결심과도 같은 것이었다. 열병에서 깨어난 기요모리는 지금 고시라카와인과의 대립과 그를 넘어서는 것이 곧 시라카와인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고시라카와: 살아났는가!!

기요모리: 맘대로 죽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과의 쌍륙놀이가. 서로 태어나기 전부터 계속되어왔던, 길고 긴 승부인 듯 싶습니다. (32화)

기요모리와 고시라카와인은 호젠의 난, 헤이지의 난을 거치는 동안에는 같은 목적을 지니고 있었으나, 헤이지의 난 이후부터 서로 다른 곳을 향하기 시작한다. 『헤이케모노가타리』에서 고시라카와인은 헤이케를 치려는 모반을 계획하고, 기요모리는 고시라카와인을 유폐시킨다. 기요모리는 충성을 배신으로 갚는 고시라카와인에게 분노하고, 고시라카와인은 권력을 넘보는 기요모리를 견제한다. 드라마에서도 이러한 두 사람의 관계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은 쌍륙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고시라카와인: 겁이 나는 것이다. 기요모리가 없는 세상이 될까봐. 나를 노려보는 그 눈, 그 눈을 보고 있으면 나는 안도한다. 이 세상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생을 허락받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 (32화)

고시라카와인: 이 세상에 태어나 오십 년, 자네와 만나서 40년이 다 되어가는 군. 겨우 알게 된 것은, 내가

7) 후지와라노 나리치카(藤原成親), 사이코(西光), 순칸(俊寬)와 함께 계획한 시시가타니(鹿谷)의 모반.

원하는 세상에 그대는 뺄 수 없으며, 그대가 목표로 하는 세상에도 나를 뺄 수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함께 위를 향하자. 누구도 본 적 없는 높은 곳으로.

기요모리: 이 세상에 돌도 없을 영광입니다. (40화)

기요모리는 시라카와인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시라카와인을 넘어서야 했고, 고시라카와인은 천황으로서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면서 기요모리와 대립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의 의미를 확신한다. 두 사람의 쌍륙 장면은 총 다섯 번 등장한다. 두 사람이 직접 쌍륙을 두는 장면은 첫 만남인 9화와 마지막 만남인 49화에 등장한다. 이외에 37화, 41화, 44화에 등장하는 쌍륙에서는 각자 대체자(代替者)가 상대를 하는 형태로 등장한다.⁸⁾

9화의 첫 쌍륙에서 고시라카와인은 내기의 대상으로 어린 시게모리를 지목했고, 아들을 지키는 기요모리를 보며, 고시라카와인은 “어리석은 것이지, 부자의 연이란(おろいものぞ、父子の絆など)”라고 비아냥거린다. 당시 왕가는 시라카와인, 도바인, 스투쿠인까지 부자 사이에서 권력을 사이에 둔 대립과 견제가 반복되고 있었다. 넷째 아들인 고시라카와인 자신은 아버지 도바인으로부터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고,¹⁰⁾ 기요모리 역시 친부 시라카와인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을 의미한다. 두 사람의 첫 쌍륙에서 내기의 대상이 된 시게모리는 이후 두 사람의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괴로워하게 된다.

37화, 41화의 쌍륙에서는 『헤이케모노가타리』 권1 『섭정습격사건(殿下乗合)』부터 「가마시위(御輿振)」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룬다. 37화의 「섭정습격사건」에서는 기요모리가 섭정을 공격하면서 고시라카와인에게 경고를 하고, 「시시가타니(鹿谷)」에서 고시라카와인은 기요모리, 헤이케를 공격할 모반을 계획한다. 41화에서는 고시라카와인의 측근 사이코(西光)의 아들들 모로타카(師高), 모로쓰네(師經)이 우가와와 신사에서 난동을 피운 사건¹¹⁾으로 이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으나, 고시라카와인의 측근이라는 점 때문에 처벌이 미루어지자 승려들은 신여를 끌고 내려와 난동을 피웠다. 결국 모로타카는 해임된 뒤 유배, 모로쓰네는 하옥되었다. 이렇게 고시라카와인의 세력이 약해지고 있었다.

44화에서 고시라카와인은 중병으로 생사를 오가는 시게모리를 찾아간다. 시게모리는 헤이케의 충의를 의심하지 말아 달라며 마지막 부탁을 하지만, 고시라카와인은 쌍륙에서 이기면 그 소원을 들어준다고 이야기한다. 두 사람이 쌍륙을 두는 중간에 기요모리가 분노하며 판을 뒤엎고, 한 달 뒤 시게모리는 사망한다. 9화의 첫 쌍륙 이후로 시게모리는 아버지 기요모리와 고시라카와인 사이를 중재하는 중요한 인물이었다. 두 사람의 사이를 조율하면서 충의와 효의 사이에서, 도의적 판단과 도료(棟梁)

8) 37화에서는 기요모리와 처남 다이랴노 도키타다(平時忠), 41화에서는 기요모리와 가신 다이랴노 모리쿠니(平盛國), 고시라카와인과 오토마에가 각각 둔다. 44화에서는 고시라카와인과 시게모리가 쌍륙을 둔다.

9) 두 사람이 쌍륙놀이는 하는 중에 잠에서 깬 어린 시게모리를 보고 고시라카와인은 자신이 이기면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이야기한다. 기요모리의 차례에서 10 이상의 수가 나와야지만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기요모리가 못 던지고 망설이는 중에 어린 시게모리가 주사위 통을 흔들어 10이 나와 결과적으로는 기요모리가 승리하게 된다. 고시라카와인은 무효라며 시게모리를 빼앗아하려고 하지만 기요모리가 온몸으로 시게모리를 보호한다.

10) 드라마에서 고시라카와인은 권력에는 관심 없는 듯 적당히 즐겁고 방탕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도바인(鳥羽院)의 넷째 아들이었던 그에 대해서 실제로도 어느 정도 자신에게 차례가 오리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비후쿠몬인(美福門院)이 낳은 갓 태어난 나리히토(体仁, 후일 고노에(近衛)천황)가 왕세자로 봉해지면서 이후부터 이마요(今様)에 심취하기 시작하여 노래를 짓고 놀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드라마적으로 과장된 부분은 있으나, 고시라카와인이 자신에게 천황의 자리가 올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여흥을 즐기며 살려고 했던 것은 어느 정도 정설로 본다. 河合敦 『後白河法皇』, 幻冬舎親書, 2012, pp.18-20

11) 『헤이케모노가타리』 권1 「순간의 일과 우가와 사건(俊寛沙汰鵜川軍)」

로서의 책무의 사이에서 갈등하던 시게모리는 결국 중병으로 앓아눕고 사망하게 된다. 이 일로 기요모리를 제어할 보호장치가 없어지고, 기요모리는 고시라카와인을 유폐시키고 권력의 정점에 올라선다.

기요모리의 시작은 무사의 세상(武士の世), 새로운 나라(新しき国)를 만들기 위해서였고, 시라카와인을 뛰어 넘겠다고 했으나, 결국 권력에 집착하고 기요모리는 시라카와인이 이야기하는 괴물이 되어버린다. 자신의 뜻대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권력을 쫓던 기요모리는 45화 이후로 암흑 속에서 자신의 권력에 취한 괴물이 된다. 41화 이후로 기요모리가 직접 쌍륙을 두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는 고시라카와인과의 권력 싸움에서 승리하여 주사위의 수에 따라 말을 움직일 만큼의 주변을 둘러보고 정세와 흐름을 읽을 필요가 없고, 그러한 정치적인 능력이 이미 소실되었던 시기였다.

46화에서 미나모토노 요리토모(源頼朝)의 거병의 소식이 들려오면서 기요모리는 정신을 차린다. 그러나 이미 시대는 끝났고, 시시가타니 사건 이후 계속되어온 헤이케 토벌의 사건들로 기요모리 역시 마지막을 실감하고 있었다. 49화에서 기요모리는 고시라카와인에게 다시 한번 이긴 자의 소원을 들어 주자는 조건을 걸고 쌍륙을 권한다.

기요모리: 고시라카와인과 다이랴노 기요모리의 쌍륙, 오늘을 기점으로 마지막으로 해주십시오. 우리들 무사는 왕가의 개라고 불리며 살아왔습니다. 호겐의 전란, 헤이지의 전란도, 왕가, 조정의 명에 따라서 무사들끼리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헤이안의 시대는 끝났음을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무사들끼리 파를 나누어서 다투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무사는 더 이상 왕가의 개가 아닙니다.

고시라카와인: 그런가, 벌써 그런 시대에 도달해있었던가. (49화)¹²⁾

5. 결론

쌍륙은 단순한 오락이면서 한편으론 욕망의 도박판이 될 수 있다. 드라마에서의 쌍륙은 이러한 기요모리가 ‘재미있는 세상’, ‘새로운 세상’과 이를 이루기 위해서 권력의 괴물이 되어버린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심리를 표현하는 중심 소재로써 사용되었다. 기요모리 역시 마이크의 피를 이어받아 자신의 의지와 힘을 지닌 인물이면서도 시라카와인의 피를 이어받아 권력과 욕망에 눈이 먼 괴물로 양면성을 지닌 인물이며, ‘재앙의 씨앗’이라는 점과 역시 천황가에는 악수(惡手)였지만, 무사계층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개척자를 의미하기도 한다. 쌍륙은 기요모리와 주변사람과의 관계성을 위한 매개체로써도 활용되었다. 아버지 다다모리나 기온노고와의 쌍륙은 부모의 애정을 전할 수 있는 도구였고, 고시라카와인과의 쌍륙은 서로의 힘과 지력을 견주어 각자 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헤이케모노가타리』의 다이랴노 기요모리의 인물 조형은 악인에 머물러 있다. 이를 소재로 하는 근대 이후의 작품에서도 기요모리가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었던 권력과 욕망에 대한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드라마에서는 기요모리를 단순한 악인이 아니며 무사로서의 소망과 권력을 쫓는 자의 욕망을 모두 지닌 다면적이고 양면적인 면모를 지닌 인물이라는 점을 쌍륙과 출생의 비화를 사용하여 풀어냈다.

12) 마지막 쌍륙에서도 역시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자는 내기를 걸고 시작한다. 마지막에 기요모리가 7이 나오면 이기는 상황이 되었고, 기요모리의 승리로 소원을 이야기한다. 본 발표문 2페이지에 실린 드라마의 오프닝에 등장하는 주사위의 수 역시 7이다.

다이라노 기요모리(平清盛) 서사의 소환과 인물상 연구

— NHK 대하드라마 <다이라노 기요모리>를 중심으로 —

한 채 민 (고려대)

1. 들어가며

2022년 1월부터 방영 중인 NHK 대하드라마 <가마쿠라 도노의 13인(鎌倉殿の13人)>이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가마쿠라 도노의 13인>과 거의 동일한 인물과 시대 및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헤이케모노가타리(平家物語)>가 마찬가지로 2022년 1월부터 방영을 시작하면서 그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처럼 일본 역사에서 무가(武家) 사회로의 전환이 이뤄진 격동기를 바탕으로 창작된 콘텐츠들이 생성되는 현상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대하드라마의 경우, 일본의 역사를 기억하는 장치로서 시청자 개개인을 집합적인 이야기에 편입시켜 ‘국민’이라는 하나의 집합체로 통합하는 기능¹⁾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전국시대와 메이지 유신을 주로 시대적 배경으로 해서 제작되는 NHK 대하드라마 특성을 고려하면, 왜 헤이안 말기에서 중세 초기에 무사가 대두하기 시작한 시기의 역사를 다룬 대하드라마가 제작된 것인지 주요 인물들은 드라마상에서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헤이케모노가타리』의 에피소드와 작중 인물들은 국가적 위기나 변혁기에 소환되는 경향이 있다. 이쿠다 조코(生田長江)는 국민의식이 가장 고조되던 러일전쟁 직후인 1906년 『제국문학(帝國文學)』에 『헤이케모노가타리』를 국민적 서사시로서 처음으로 위치 지었다. 또한 "이치노타니의 전투에서 패하여(一の谷の軍破れ)"로 시작하는 창가 「아오바의 피리(青葉の笛)」가 나온 것도 1906년이다. 다음으로 헤이케가 클로즈업된 것은 종전 후인데, 이는 헤이케 멸망의 드라마가 일본인 전체의 운명으로서 다시 상기된 것이며,²⁾ 요시카와 에이지(吉川英治)의 『신·헤이케모노가타리(新・平家物語)』도 이 시기에 쓰여졌다.

NHK 대하드라마의 경우, 헤이케 이야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다룬 것은 <가마쿠라 도노의 13인>을 제외하면 2005년작 <요시쓰네(義経)>와 2012년에 발표된 <다이라노 기요모리(平清盛)>가 이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다이라노 기요모리>는 기요모리라는 인물이 문학 작품과 역사서에서 주로 ‘악인’으로 표상되었던 점과 다른 역사적 영웅들에 비해 인지도 및 호감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으로서 새롭게 조명된 점이 특기할 만하다. 또한 동일본 대진재의 발생과 세계적 경제 위기가 더해져 국가적 비상사태에 처했던 2011년에 드라마가 촬영되어 2012년에 방영된 점은, 대하드라마를 통한 헤이케 이야기의 소환이 "역사적 필연 혹은 시대적 무의식의 반영"³⁾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파급력

1) 李秀美(2006), 「大河ドラマ」ジャンルの登場とその社会的意味の形成過程, 『情報学研究』, 東京大学, p.147

2) 山内昌之, 中村彰彦, 本郷和人(2012), 「NHK大河「平清盛」大座談会 平家滅亡はオゴリにあらず」, 『週刊文春』, 文芸春秋, p.67

있는 매체인 NHK 대하드라마가 그리는 <다이라노 기요모리>의 시대에 주목하고 드라마상에서 기요모리를 어떻게 형상화하며 무엇을 발신하고자 했는지 분석하는 것은 유의미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2. <다이라노 기요모리> 의 3가지 축

<다이라노 기요모리>는 주인공인 기요모리 출생의 비밀을 시작으로 무사의 세상을 열겠다는 포부를 갖게 된 시절과 권력의 최정점에 선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일대기를 소개하기 때문에, 이야기는 『헤이케모노가타리』의 시대 이전의 호겐의 난(保元の乱)·헤이지의 난(平治の乱)까지 포괄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힌 상당히 많은 인물들의 등장으로 인해 역사적 배경지식 없이는 드라마 전개를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러한 복잡다단한 측면이 있지만 제작진 측은 드라마 내에서 3가지 사항들을 되풀이하며 강조하고 있는데, 모두 기존의 문학 작품이나 사론서에서 기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픽션에 해당한다. 이에 보고는 이 3가지 축이 드라마 내에서 어떻게 기요모리의 인물상을 조형하는데 작용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1. 재미있는 것

드라마는 1화부터 마지막까지 테마 송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하의 노래를 매회 인트로 및 배경음악으로 설정하고, 심지어 등장인물들이 이를 음성으로 읊는 장면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노래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놀이 위해서 태어난 것이나 장난치려고 태어난 것이나 노는 아이들의 소리 듣자니 내 몸도 저절로 움직이어나니
遊びをせんとや生まれけむ 戯れせんとや生まれけん 遊ぶ子供の声聞けば わが身さへこそ揺るがるれ

노래는 아이가 놀이나 장난치는 것에 흠뻑 빠져서 시간을 보내듯이 인생을 즐겁게 살자는 내용인데, 이는 본인이 ‘재밌다’고 여기는 것에 몰두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기요모리는 드라마상에서 ‘재밌다’ ‘재미있는 일’ 등 ‘재미’라는 단어와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또한 고시라카와 법황을 비롯한 주요 인물들 역시도 ‘재미’를 빈번히 언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재미’를 추구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욕망’을 긍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기요모리는 그동안 문학 작품과 사론서에서 높은 관직에 오를 자격이 없고 악행을 일삼으며 분수도 모르고 ‘과한 욕심을 부린 인물’로서 부정적으로 묘사되어왔지만, 드라마상에서는 그의 욕망의 크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아이가 재미있는 것에 몰두하듯 살아간 그의 인생을 ‘열심히 살았다’고 평가한다. 나아가 드라마는 등장인물의 대다수가 저마다의 ‘재미’를 추구하고 ‘욕망’에 솔직한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2.2. 마이코(舞子)의 존재와 희생

드라마상에서 기요모리는 시라카와(白河) 법황과 유녀인 마이코라는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

3) 山内昌之, 中村彰彦, 本郷和人(2012), 위의 논문, p.67

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그의 생모에 관한 하나의 설에 해당한다. 제작진은 이러한 사생아 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새로운 서사를 만들었다. 어느 날 황가에 재앙을 불러일으킬 아이를 마이코가 잉태했다는 음양사의 예언을 들은 시라카와 법황은 마이코에게 아이를 사산하라고 명한다. 당시로서는 절대적이었던 음양사의 예언과 하늘 같은 존재인 법황의 명령을 거부하며 도망친 마이코는 끝까지 기요모리의 생명을 지켜내고 법황에게 맞서며 스스로를 희생한다는 내용이다. 마이코는 실존 인물인지도 불확실하고 1화에서 사망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드라마의 테마 송을 가장 먼저 부르고 그 의미를 설명한 최초의 인물이자, 기요모리의 인습에 얽매이지 않고 혁신을 추구하는 성향의 근원으로서 부각되고 있다. 이는 드라마상에서 기요모리가 생모의 존재를 빈번히 언급하거나 마이코의 희생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에서 나타난다. 일례로 기요모리가 엔라쿠지(延曆寺)의 강소(強訴: 승병들이 무리를 지어 위정자에게 호소했던 일)를 진압하기 위해서 승병들이 메고 온 신여(神輿: 신을 모신 가마)를 향해 ‘일부러 화살을 쏘는’ 사건이 소개되는데 이는 픽션이며, 불합리하고 미신에 사로 잡혀있던 당시의 세태를 타파하고자 하는 기요모리의 혁신적 성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서 그려진다. 이때 그의 아버지인 다다모리(平忠盛)는 기요모리의 기질이 생모인 마이코에게서 물려받은 것임을 시사하며 기요모리를 격려하고, 도바(鳥羽) 법황은 기요모리의 존재가 신여를 꿰뚫은 화살 그 자체라며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평가한다. 이처럼 드라마는 마이코로 인해 기요모리가 획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용감한 인물인 것처럼 묘사했다. 이는 종종 기요모리의 과감한 행보가 황가의 혈통이기 때문일 것이라 풀이되던 기존의 해석과 반대되는 것이다. 기요모리의 혁신성을 보여주는 사건으로는 횡적으로 넓어져 가는 국가의 모습을 상징하고 바다 위에 조영한 이쓰쿠시마 신사(巖島神社), 송나라와의 자유 무역, 후쿠하라(福原) 천도 등을 들 수 있다.

2.3. 스고로쿠(双六) 놀이

기요모리의 유년기를 담은 1화부터 그는 승부와 내기에 뛰어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기질 역시 생모를 닮은 것이라 언급되고 있으며, 주로 스고로쿠, 즉 쌍륙이라는 주사위 놀이를 통해서 설명되고 있다. 기요모리는 일평생 항상 누군가와 쌍륙 놀이를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특히 그의 최대 정적(政敵)인 고시라카와(後白河) 법황과는 청년기부터 권력의 최정점에 다다른 순간까지 계속해서 쌍륙 놀이를 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즉 쌍륙 놀이가 의미하는 내기, 승부, 대결 구도를 통해서 점차 성장하는 기요모리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한 경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기요모리의 위세가 고시라카와 법황을 능가하게 되었을 때, 그는 일방적으로 고시라카와 법황을 유폐시킴으로써 인세이(院政)도 정지시켰다. 이처럼 정적을 무력화시킴으로써 경쟁 구도가 무너지고 성장 동력을 잃은 기요모리와 헤이케는 쇠퇴일로로 걷게 된다. 다시 말해 드라마는 승부욕과 경쟁자와의 대결 구도가 한 인물이 힘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하고 있다.

3. 나가며

이상에서 살펴본 드라마의 3가지 축인 재미있는 것(욕망을 긍정하기), 마이코의 존재와 희생(인습에

업매이지 않는 혁신성), 스고로쿠 놀이(대결 구도를 통한 성장)는 기존의 기요모리를 표상해오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기요모리라는 인물을 조형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이라노 기요모리>의 제작을 결정하고 기요모리의 파격적인 면모를 긍정적인 것으로 조명하게 된 사회적 인 맥락은 무엇이었을까.

2009년 일본에서는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이루었음에도 경기침체 및 격차문제, 관료주의에 따른 행정 비효율과 같은 문제들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잦은 총리 교체로 인해서 새로운 리더십,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자민당이나 민주당의 기성 정치인들과 구별되는 정치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와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높아지고 있었는데, 이들의 정치 리더십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총리와 비슷한 특징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럼 고이즈미 전 총리의 리더십은 어떠한가. 후대 정치인들과 자주 비교되면서 상기되었을까.

그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찬 지도자로서 전통적인 자민당의 이익유도(利益誘導)정치와는 괴리되는 신자유주의적 성향의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신자유주의의 통치란 바로 ‘욕망을 긍정’하고 부추기는 것이며 사람들이 자유롭게 욕망을 추구하며 노동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고이즈미는 ‘자민당을 깨부순다(自民党をぶっ壊す)’ 등의 선동적 표현을 통한 반(反)자민당 노선을 강조하였고, 지방분권개혁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권한을 이양하고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관계 전환을 추구했다. 그는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개혁을 추진했던 승부사적 기질이 있었고, 전통적 자민당 정치인들과의 대립 구도 혹은 특정한 대상을 정해서 대결 구도 만들기를 잘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처럼 고이즈미의 정치적 성향과 리더십은 대하드라마에서 조형된 다이라노 기요모리의 인물상과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가 있다. 이는 정치적 리더십이 부재했던 2009년 시점부터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경제위기가 맞물리며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을, 이전 고이즈미 정권에서 행하던 신자유주의 노선과 혁신적인 개혁 정책, 경쟁 구도를 활용하는 측면들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드라마를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라 사료된다. 즉 시대의 격변기를 살아가면서 새로운 세상을 펼쳐 보인 기요모리를 고이즈미와 유사한 정치적 성향의 리더십을 가진 인물로 형상화면서 그와 같은 인물의 등장을 염원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시청자들을 향해서도 저마다 재밌다고 여기는 것에 몰두하며 즐겁게 살아가고, 각자의 길에서 혁신을 추구하며, 경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미를 발신하고자 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료마전(龍馬伝)』: 현재로 연속하는 ‘메이지(明治)’

盧 슬 기 (高麗大)

2010년 약 1년에 걸쳐 NHK 대하드라마 『료마전』이 방영되던 당시와 그 이후, 그 여파는 어마어마하여 사카모토 료마(坂本龍馬) 역을 맡은 배우 후쿠야마 마사하루(福山雅治)에게 ‘후쿠야마 료마’라는 별명이 붙거나, 이와사키 야타로(岩崎弥太郎) 역을 맡은 가가와 테루유키(香川照之)의 혼신의 연기에 ‘료마전’이 아닌 ‘야타로전’으로 불리우기도 하는 등 주연 배우진의 인기는 물론, 관련 관광 및 문화산업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JR시코쿠(四国)에서는 NHK 대하드라마 『료마전』의 이미지로 뒤덮인 특별 랩핑(wrapping) 열차를 선보였고 에도 도쿄박물관, 교토 문화박물관, 코치현립역사민속자료관, 나가사키 역사문화박물관은 특별전 「龍馬伝」을 개최하여 도합 약 30만에 육박하는 입장객 수를 기록하였다.¹⁾ 그 인기의 잔영은 여전하여 방영 10년을 넘긴 2021년 문예춘추(文芸春秋)의 조사에서 역대 대하드라마 순위 2위를 차지하기도 하였다.²⁾ 『료마전』의 이러한 인기는 개개인의 힘과 방향을 종합하는 벡터가 메이지 유신을 향하던 막말에서부터 유신 직전까지의 뜨거웠던 시절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또 일본에서 가장 사랑받는 영웅 료마가 하급무사라는 신분적 제약을 딛고 메이지유신의 주역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긴장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놀랄 만한 일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다만 2010년도의 ‘료마’에 매료된 것은 기존 대하드라마의 주시청층뿐만 아니었다. 젊은 세대가 동경하는 대하드라마 주인공 1위로 후쿠야마 마사하루가 연기한 ‘료마’가 선택된 것³⁾에서도 알 수 있듯, 거창하게 표현하자면 국가와 대의를 위해 열정을 바치고 싶다는 꿈을 꾸는 당대 젊은 지사들의 정신이 무력함에 빠진 당대 일본의 젊은 세대에게 얼마간의 용기를 주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한편 이렇게 드라마를 통해 재생산된 ‘메이지’와 그 정신으로의 회귀는 어딘가 기시감을 주었다. 방영 시기가 유신 150주년을 8년 앞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유신 100주년을 앞둔 1960년대가 그랬던 것처럼 연속하는 역사라는 선을 다시금 명료하게 채색해 나가는 과정처럼 보였던 것이다.

1960년대의 일본은 특별한 메이지 특권화의 과정을 밟고 있었다. 부강한 미국의 자유주의적 가치를 세계를 향해 선포하고자 했던 존 F. 케네디 정부의 정책의 이데올로기였던 ‘근대화(Modernization)’가 일본에 적용된 버전인 ‘일본근대화론’의 등장이 그것이었고, 1960년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에 의해 하코네(箱根)에서 열린 컨퍼런스가 그 시발점이었다. 이 컨퍼런스의 일원이면서 1961년부터 1966년에 걸쳐 주일 미국대사를 역임한 에드윈 O. 라이샤워(Edwin Oldfather Reischauer)가 주장한 ‘일본근대화론’은 1961년부터 4년간 『朝日ジャーナル(아사히저널)』 및 『中央公論(중앙공론)』에 게재된 것이 1965년 『日本近代の新しい見方(일본 근대를 보는 새로운 관점)』⁴⁾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며 학계

1) https://ja.wikipedia.org/wiki/%E9%BE%8D%E9%A6%AC%E4%BC%9D#cite_ref-VR_23-1 8월 10일 확인

2) 「あなたが選ぶ大河ドラマ ベスト11は?」結果発表……3位『篤姫』、2位『龍馬伝』、では1位は?
<https://bunshun.jp/articles/-/43287?page=5> 8월 10일 확인

3) <https://prtimes.jp/main/html/rd/p/000000507.000006313.html> 8월 10일 확인

에 선택이론을 일으켰다. 라이샤워는 일본을 동양에서 유일하게 근대화에 성공한 국가라고 규정짓고, 그 요인으로서 일본의 봉건제도, 기업가 정신, 지사 정신, 교육열, 미의식 등을 거론하며 찬사를 보냈던 것이다. ‘일본근대화론’은 이렇게 60년대 들어 본격 부상하며 고도성장, 올림픽 개최 등과 맞물려 패전 이후 일본에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내셔널리즘을 아로새겼다. 이러한 내셔널 아이덴티티 구축 과정에서 ‘일본근대화론’은 일본 근대화의 상징인 메이지유신 백주년을 앞두고 “국가로 인식되던 ‘번’이라는 틀을 넘어 천하로 인식되던 일본을 ‘새로운, 유일한 국가’로 창출해 가는 것, 그리고 번주에 대한 충성을 천황에 대한 충성으로 전환해가는 과정”⁵⁾이었던 메이지유신을, 근대화로 일신하는 과정에서의 긍정적 기억으로 규정하면서 ‘메이지정신’이라는 국민적 정체성의 울타리를 공고히 하는 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근대화론에 입각한 메이지의 긍정은 ‘유신 이후 군국주의를 포함한 여러 폐해를 직선적인 역사의 발전 속에서 나타난 것’⁶⁾으로서 국가의 공식적인 사관을 결정짓는 것과는 같았고, 전쟁이 남긴 역사의 굴곡마저 근대화라는 대로로 포장하여 역사의 선형 속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를 내재하고 있었다.

한편 하코네 컨퍼런스의 주역이자 근대화론에 함께 기여한 라이샤워의 하버드 대학 제자 마리우스 B. 쟈슨(Marius Berthus Jansen)은 1961년, 메이지유신 100주년과 근대화론의 부각에 보조를 맞추듯 『Sakamoto Ryōma and the Meiji Restoration(사카모토 료마와 메이지유신)』이라는 저서를 출간하게 된다. 사카모토 료마라는 인물과 도사번(土佐藩)의 하급무사들의 움직임, 유신의 주역들을 조명함으로써 메이지유신의 ‘원동력’을 발견하고자 했던 이 책은 당시 메이지유신에 대한 재평가뿐만 아니라 유수의 메이지 주역들을 제치고 탈번낭인으로서 유신 전에 죽음을 맞이한 료마를 화려하게 부활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가 쟈슨의 평전을 토대로 저술했다고 알려진 소설 『竜馬がゆく(료마가 간다)』는 1962년 연재 이래로 가히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는데, 소설 속 역사관은 ‘시바사관’으로 일컬어지며 메이지 언설의 생산과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고,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현재」는 메이지 국가와 연속되는 것으로 이해되며 메이지기를 특권화하였다.⁷⁾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2010년의 『료마전』은 메이지유신 150주년을 목전에 두고 다시 한 번—그 제작의도와 관계없이—메이지가 이룬 근대 국가 건설에 기여한 근대적 정신을 추체험시키며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내면화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こころ(마음)』 속 ‘선생님’이 메이지가 저물었던 바로 그 순간에야 비로소 발견할 수 있었던 ‘메이지정신’은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라이샤워나 쟈슨이 메이지라는 총체에 새롭게 부여한 의미로 인해 ‘전전(戰前) 쇼와(昭和), (1926~1945)’를 지나 윤색되고, 메이지 150주년을 앞둔 2010년 『료마전』을 통해 다시금 특권을 부여 받은 것이다.

4) 한국에서는 1997년 도서출판 소화, 이광섭의 번역을 통해 ‘일본 근대화론’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된 바 있다.

5) 박훈, 메이지유신을 설계한 최후의 사무라이들, 2020, 21세기 북스

6) 北山敏秀(2020) 「日本近代化論と『万円元年のフットボール』」 相林11号, 24頁

7) 安 天(2008) 「大江健三郎における歴史と沈黙——『万円元年のフットボール』を中心に」 東京大学大学院 修士学位論文 64頁

森崎和江の旅路の果て

— 最終詩集『ささ笛ひとつ』を読む —

反町真寿美(高麗大)

1. はじめに

詩人、作家の森崎和江は1927年に当時の植民地朝鮮大邱にて誕生した植民二世¹⁾である。森崎は戦後、詩や短歌の創作からスタートし、聞き書きのルポルタージュ、エッセイ、理論書、小説やラジオドラマ等、あらゆる執筆活動を行ってきた。さらには女性や民族、地域問題、労働運動などにも関わりつつ、戦後の日本において思索とその言語化を続けた女性である。森崎和江は、こうした戦後直後からの長期に渡る活動の後、本年6月15日、95歳でこの世を去った。

朝鮮で生まれ育ったという出自は、森崎の人生に多大なる影響を及ぼした。彼女が幼少期を過ごした当時の朝鮮半島は、「外地」と呼ばれる日本であり、森崎はその地で17歳までを過ごした日本人であった。朝鮮居住当時の森崎は、家族を含めた多くの日本人たちが朝鮮に暮らす意味を問うことはなかったが、戦後、日本人が朝鮮を抑圧する存在であった事実を突きつけられ、罪責感を募らせるようになる。森崎は植民地における自らの誕生を「間接的な殺人²⁾」とまで表現している。つまり森崎は、帝国日本による植民地政策がもたらした結果を国家に対して全面的に帰責することはなかった。森崎は自らの出自さえも罪と位置づけ、生誕の地への郷愁を断ち切っていた。そして思想の根底に原罪意識を深く刻みつつ戦後の時間を歩み続けた。

故郷を失った森崎であるが、だからといって祖国である日本との邂逅が円滑であったわけではない。森崎にとって、「個」ではなく常に帰属する場所を問う日本社会は理解不能なものとして映った。そして家父長制が根強く残る社会構造と衝突し、女性が商品化される公娼制度の存在を知り驚愕した。日本社会において女性为主体になり得ず、ことばを持たず、常に周縁へと追いやられる存在であることを森崎は実感していた。森崎同様に植民地朝鮮で生まれ育ち「思想の根を同じくする存在」と森崎が語る弟健一も、やはり日本との間に齟齬をきたしていた。子どもを生むことで辛うじて日本との繋がりを持てたかのようにみえた森崎とは異なり、弟は「男はけがれている」と嘆き、大学在学中に「ぼくには故郷がない」ということばを残し自死している。植民二世たちが朝鮮で生まれ、成長しながら得ていった情緒や言語は、彼らを日本社会における異分子として浮かび上がらせた。彼らはを日本人であるにも関わらず日本という共同体における共通認識を持ってはおらず、また一方では日本人であるがゆえに故郷と呼べる場所との断絶を余儀なくされた。

こうして森崎は、日本への違和感と朝鮮に対する原罪意識を抱えながら歩みはじめた。彼女は、日本とは、

- 1) 当時朝鮮半島に居住していた日本人の呼称については「在朝日本人」「植民地日本人」「外地日本人」等様々であるが、本稿では、森崎が主に使用している「植民」ということばを用いる。日本から朝鮮へと渡った親世代を一世とすると、朝鮮で生まれ育った子どもらは二世となり、森崎を「植民二世」と記す。
- 2) 森崎和江(2008)『森崎和江コレクション:精神史の旅 1産土』藤原書店、p.125.

自分とは、女性とは、生きるとは、と、あらゆる問いを投げかけながら思索を続け、言語化し、詩によって表現した。森崎は「詩とは、本来、他者とのダイアログであると考えていた。自分以外の、自然や人々との³⁾」と述べている。つまり詩とは、森崎の言を借りるならば、あらゆる人、事物との共鳴を描くものといえよう。森崎の長きに渡る活動は、様々なダイアログを重ねながら表現を続ける「旅」であった。ルポルタージュやエッセイ等、詩以外の散文を数多く発表しながらも、自ら詩人と名乗るほど、詩による表現が森崎にとっては重要なもの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

森崎は95年の生涯において7冊の詩集を世に送り出している。単行詩集は1964年の『さわやかな欠如』⁴⁾から、2004年の最終詩集『ささ笛ひとつ』⁵⁾まで5冊、また、詩篇を集めた編集詩集は1984年と2015年に『森崎和江詩集』⁶⁾として2冊刊行している。編集詩集はそれまでに発表された詩篇を編んだものであるため、森崎の最終詩集は前掲の『ささ笛ひとつ』ということになる。本発表では、詩人としての森崎和江が最後に残した詩集『ささ笛ひとつ』に注目する。当詩集を改めて読み直すことで、彼女が詩によって何を描こうとしたのか、創作活動が続けてきた彼女が、思索の旅路の果てに残したことを確認していきたい。

2. 最終詩集『ささ笛ひとつ』について

詩集『ささ笛ひとつ』は2004年に刊行された。収録詩は全33篇で、26篇は当詩集に初めて収録されたもの、残りの7篇は再録詩である。再録詩の内訳は、第1～第3詩集まで単行詩集(2冊の編集詩集にも収録)に再録され続けている「ほねのおかあさん」と第3詩集が初出であった5篇の詩(「出雲少女/影/蝶/妣/峠」)、そして第4詩集収録の再録詩1篇(「笛」)である。

また、詩集『ささ笛ひとつ』は2005年の第14回「丸山豊記念現代詩賞」を受賞している。この賞は、森崎が日本における詩作開始の契機でもあった詩誌『母音』を率いていた医師であり詩人の丸山豊の功績を広く顕彰することを目的としたものである。優れた詩人の発掘と創作活動を奨励し、「芸術のまち・久留米」を広くアピールするために1991年(平成3年)に創設され、丸山の生誕100周年に当たる2015年(平成27年)まで続けられた⁷⁾。森崎は審査員として、かつて『母音』同人であり、後に詩人茨木のり子と詩誌『穰』を創刊した川崎洋とともに第4回から第11回まで関わっている。また、この賞の歴代の受賞者には谷川俊太郎、新川和江、高橋順子等がおり、森崎は審査員を辞した後に恩師を顕彰する詩賞を最後の詩集『ささ笛ひとつ』によって受賞した⁸⁾。

森崎にとって丸山は、詩作の恩師であると同時に癌で他界した父の最後に寄り添ってくれた医師でもある。白骨街道と呼ばれた激戦地からの帰還者でありながらも自らの戦争体験の多くを語らなかった丸山は、そのこ

3) 森崎和江(1974)「あとがき」『かりうどの朝』深夜叢書社、p.138。

4) 森崎和江(1964)『さわやかな欠如』国文社。

5) 森崎和江(2004)『ささ笛ひとつ』思潮社。

6) 『森崎和江詩集』は1984年に土曜美術社から、2015年に思潮社から刊行されている。

7) 丸山豊記念現代詩賞ホームページ:丸山豊記念現代詩賞とは
<https://www.ishibashi-bunka.jp/maruyama/index.html> (検索日:2022.07.15)

8) 新聞記事「丸山豊現代詩賞に森崎和江さん」『西日本新聞』2005年3月31日

『ささ笛ひとつ』は「リズム感の懐かしさだけでなく、現代的なきらめきを内包し、心の根底に横たわる歴史的・社会的矛盾への思いなどが、読む者の胸を強く揺さぶる」と評価された。また受賞の報に際して森崎は「公私にわたり恩恵を受け、心の底から師と仰ぐ丸山先生の賞をいただいて、たいへんうれしい」と話している。

<http://www.arsvi.com/2000/050331.htm> (検索日:2022.07.15)

とばに出来ない経験ゆえ、森崎の痛みを最も理解し彼女の創作活動を後押ししてくれた恩人であった。

当詩集の性格の一端については詩集の末尾で確認できる。それは森崎による「あとがき」ともいえる「余韻」からみえてくる。そこには「ようやくのこと、ここまで歩いて来ました。なお、旅はつづくことでしょう。旅で果てたや、と、門を出る度に思います。この詩集を亡き父と母、そして彼岸の弟へ捧げます。いつもいつも、有難う(後略)9」と記されている。この文章から森崎が自らが歩んできた道、その時間を「旅」と表現していることがわかる。森崎は自らの旅に関して、ようやくここまでやってきたという、ある一定の達成感を感じてはいるものの、その後の「旅はつづく」や「旅で果てたや」という表現からは、命が果てるまで旅を続けようという意志が垣間見える。そしてこの詩集を父、母、自死した弟へと捧げていることから、森崎は彼らに自身の日本における旅の道程を詩によって表現している。つまりこの詩集は森崎の戦後の歩み、彼女の旅を家族に語りかける役割を果たしており、森崎にとってひとつの区切りの詩集となったのだ。

発表では、収録詩を分類することで、さらに深く詩集についての分析を行ないたい。

3. 旅路の果ての詩「笛」

前述したように、単行詩集としては最後となった『ささ笛ひとつ』(以下『ささ笛』と表記)の、それも詩集の最後に収録された作品は「笛」であった。この詩は第4詩集の『地球の祈り』(以下『地球』と表記)にも収録されていたもので、再録となる。『地球』においては8番目に収録されていたが、『ささ笛』では最後に配置された。この詩の収録された位置を鑑みても、当作品の森崎にとっての重要性がみてとれる。

笛

神もみえない無頼ですが/はるばると無量の風ぬくもるまえに旅立ちながら//登録するのはごめんです/リボンも名もいりません/ささ笛ひとつ//しよせんは人間ですが/しよせんはけもののもれですが/ほのほの笛ひとつ//いとしい人よ/生まれておいで/はるばると無量の風の中です10)

詩の第2連を確認してみると「登録するのはごめんです/リボンも名もいりません/ささ笛ひとつ」という一節から、詩集名『ささ笛ひとつ』が名づけられていることがわかる。そしてこの部分からは、森崎の活動のひとつ『無名通信』が想起させられる。『無名通信』は女性の自立、連帯を目指し、森崎が始めたガリ版刷りのミニコミ誌である。その創刊号の冒頭で森崎は「わたしたちは女にかぶせられている呼び名を返上します。無名にかえりたいのです。なぜならわたしたちはさまざま名で呼ばれています。母・妻・主婦・婦人・娘・処女……(後略)」と謳っている。つまり、「登録するのはごめんです」というのは、女とは、あなたとは「こういうものだ」という外部からの決めつけ、烙印を拒否することではないか。押しつけられた名前を拒否し、リボンで美しく飾り立てる必要も感じず、ただ「ささ笛ひとつ」があればいいという思いの表出だと考えられる。

しかも森崎が「それだけがあればいい」としたものは、華麗で重厚な楽器でもなく、野に生い茂る笹の葉をち

9) 森崎和江(2004)「余韻」『ささ笛ひとつ』思潮社、p.96.

10) 森崎和江(2004)「笛」『ささ笛ひとつ』pp.94-95.

ぎり、口にすることで音を出す「ささ笛」である。森崎が欲したものはただひとつ、「ささ笛」だけであった。「ささ笛」さえあれば、声(音)をあげることができる。森崎は戦後の日本において、あらゆるものと闘ってきた。しかしそれは決して暴力的な闘争ではなく、ペン1本で(執筆により)の闘いであったといえよう。つまりこれまでの森崎の声は、素朴な「ささ笛」によって発せられたのだ。大上段に構えることなく、野を歩きながら、その都度声をあげてきた森崎自身の姿を象徴するものと考えられる。何らかに對して「声をあげる」ことは特別である必要はない。素晴らしい楽器を取り出して演奏する必要もない。まるで「ささ笛」を吹くように、日常の何気ない瞬間に自分の声をあげればよい。そういった境地に達したことを、この作品で表現し、詩集の最後に配置したと考えられる。

次に「笛」の改訂箇所を確認してみたい。『地球』収録時からの改訂は三ヶ所存在している。『地球』では第2連の最終行「ささ笛　ひとつ」と、「ささ笛」と「ひとつ」の間に一文字空間が置かれていたが、『ささ笛』では「ささ笛ひとつ」と空間が除かれている。そして「^{ほのほ}炎の　笛ひとつ」と漢字の「炎」が使用され、「ほのほ」というふり仮名で表示され前掲部と同様に一文字空間が存在していた部分が、「ほのほの笛ひとつ」というように漢字の「炎」ではなく「ほのほ」とひらがな表記され、やはり空間がなくなっている。この些細にもみえる表記の改訂により、当フレーズの印象が大きく変化した。空間を除いたことにより、ひと息に読むことになるためだ。空間が存在すると、一度「ささ笛」で止まり、「ひとつ」と続く。それが空間が消えたことでなめらかに進行する。また、「炎」をひらがなの「ほのほ」と改めたことで、字面から受ける印象も柔らかく変化した。前掲の空間の調節と併せて確認してみると、『地球』収録時よりも『ささ笛』収録時の「笛」は、同じ作品でありながら強さ、硬さが抜け、よりしなやかな印象を読み手に與える。

4. おわりに

재일조선인 단카(短歌) 연구

— 박정화 『신세타령(身世打鈴)』을 중심으로 —

金寶賢 (忠南大)

1. 서론

일본의 전통 시가 장르 중 하나인 단카는 현재 일본 외의 지역에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창작되고 있다. 그런데 이 단카의 주체가 ‘재일조선인’이 되는 순간 그것은 일본 전통 시가 장르의 세계화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한·일간의 역사, 민족, 정치적 문제들을 포함하게 된다. 해방 후, 재일조선인의 단카는 재일조선인과 일본인 모두에게 ‘기이’, ‘기묘’라는 단어로 밖에 설명할 수 없는 문학에 다름 아니었다. 단카가 아니더라도 애초에 “재일조선인 작가라면 일본어와 모국어의 상극에서 자기 분열을 맛보지 않을 수 없”¹⁾기 때문에, 그들의 일본어 글쓰기는 모국과 모국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일찍이 허남기²⁾는 자신이 일본어로 문학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지금 내 조국의 상황을 민주 일본의 재건을 위해 서두르고 있는 일본 인민 제군들에게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³⁾이라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앞서 일본어로 단카를 짓는 것에는 회의적⁴⁾이었던 그가 ‘일본어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재일조선인의 단카가 ‘기이’, ‘기묘’하게 느껴지는 이유를 도출해 볼 수 있다. 즉, 재일조선인의 단카가 일종의 ‘기형적인 문학’이 되어 버리는 것은 그 창작 언어의 문제가 아닌 ‘단카’라는 ‘일본의 문학 양식’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일조선인이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단카’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물음은 재일조선인 단카 연구의 출발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이나 종합적인 결론은 부재하고 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재일조선인 문학에서 단시형 문학의 흐름이 아직까지 확실히 체계화된 적이 없기 때문”⁵⁾이다. 재일조선인의 단카를 가장 먼저 재일조선인 문학 속에서 파악하고자 한 것은 가와무라 미나토(1999)⁶⁾이다. 가와무라는 재일조선인 가인들이 왜 일본어로 쓰는

1) 이한정(2016) 「김석범의 언어론: ‘일본어’로 쓴다는 것」, 『日本學』,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p.42.

2) 허남기(1918~1988) 재일조선인 1세 시인으로, 조선어와 일본어로 시 창작을 하였다. 시인으로서의 활동 이외에도 재일조선인연맹(이하 조련) 문학부에서 조선어 교과서 편찬에 종사하고 조련 학교의 교장을 맡는 등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에도 힘썼다. 1959년에는 재일본 조선 문학 예술가 작가 동맹(문예동)의 초대 위원장에 취임, 1965년 총련 중앙 문화부장에 취임하는 등 각종 요직을 맡아 김일성 훈장을 수여받았다. 주요 시집으로는 『일본 시사 시집(日本時事詩集)』, 朝日書房, 1952, 『허남기 시집(許南麒詩集)』, 東京書林, 1955 등 8편이 있다.

3) 許南麒(1948) 「私が日本語で詩を書くことについて」, 『文学時標』, 文学時標社, p.33.

4) 허남기는 1960년, 북조선 귀국 사업을 주제로 한 재일조선인 가인들의 단카에 착목하여「시시한·단카론(似非·短歌論)」이라는 평론을 단카 잡지「단카(短歌)」에 게재하였다. 그는 이 평론에서 재일조선인의 단카를 접한 후 “솔직히 다소 당혹스러움에 가까운 기묘한 느낌에 휩싸이지 않을 수 없다.”라는 심정을 밝힌 바 있다.

5) 高柳俊男(2007) 「在日文学と短歌:韓武夫を手がかりとして」, 『社会文学』 26, 日本社会文化, p.148.

가? 왜 ‘단카=와카’라는 형식을 선택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단카에서 시작하여 그 해답을 구하고 있다. 즉, 일제강점기 조선인과 재일조선인 1세 가인(윤덕조의 경우)의 단카가 “모방”에 의한 일본 사회로의 “동화”에 있었다면, 2세 가인(이정자의 경우)에게 단카는 일본(일본어)에도 조선(조선어)에도 안주할 수 없는 그들의 상황이 만들어낸 모순적인 존재라는 것이다.⁷⁾ 이 연구는 재일조선인 단카를 재일조선인 문학의 영역으로 끌어올려 고찰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소수의 가인만을 대상으로 한 결론을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편 개별 가인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이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정자(2세 가인)에 편중되어 있으며,⁸⁾ 이외의 논고들은 재일조선인 단카의 전체상과 논점에서 벗어난 작가론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⁹⁾

이상과 같은 연구의 배경과 선행연구에 입각해 볼 때, 현재 재일조선인 단카 연구는 그 전체상을 조망할 수 있는 연구가 부재한 채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일조선인의 단카를 체계화할 수 있는 거시적인 관점의 연구도 필요하나, 이에 앞서 재일조선인 문학 속에서 단카라는 문학 장르의 현 위상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보다 시급하다. 단카를 비롯한 일본의 단시형 문학은 그 장르가 가진 국적성 때문에 재일조선인 문학에서 시민권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하이쿠, 단카와 같은 문학이야말로 재일조선인에게 가장 가까운 문학이며, 일본에 가장 문학적 파급력이 큰 장르가 아닐까?

이에 본 발표에서는 먼저 재일조선인 문학에서 단카를 포함한 단시형 문학의 위상(位相)을 명확히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재일조선인 문학의 영역에서 단카 장르의 의의와 연구의 필요성, 문제의식 등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재일조선인 1세 가인 박정화의 가집 『신세타령(身世打領)』를 통해 재일조선인들이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단카를 선택한 이유와 작품 속에 반영된 재일조선인의 삶과 정체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유기적인 연구 과정을 통한 결과들은 앞으로 일본의 단시형 문학이 재일조선인 문학의 한 장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재일조선인 문학에서의 공통된 문제들을 보다 심화시키는데 일조하는 바가 있으리라 기대한다.

2. ‘재일조선인 문학’에서 단시형 문학의 동향

국내에서 재일조선인 문학 연구의 시발점이 된 것은 1990년「在日韓國人文學의 역사와 그 現況」¹⁰⁾

6) 川村湊(1999)「三章「この国」の叙情」, 『生まれたらそこがふるさと: 在日朝鮮人文学論』, 平凡社, pp.223-240.

7) 즉, 일제강점기 조선인에게 단카는 그들의 일본 사회로의 “동화” 그리고 생활양식의 “일본화”를 위해 일본에게 “빌린 것(借り物)”이라고 가와무라는 설명한다. 그리고 재일조선인의 단카에 대해서는 1세와 2세로 나누어, 이민족의 시가 형식에 대한 자기모순이나 갈등을 겪지 않은 1세 윤덕조에게 단카는 일제강점기의 단카와 마찬가지로 “감정의 장치”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규정한다. 반면, 모어와 일본어라는 “이중언어의 갈등”을 경험한 2세 이정자의 단카는 두 개의 언어, 두 개의 민족, 두 개의 국가 사이에 있는 위치에 어울리는 모순적인 “조선인의 와카”라고 주장하고 있다. 川村湊, 앞의 책, pp.238-239.

8) 이정자에 대한 연구로는 김·프나(2004)「在日女性歌人 李正子論」, 『專修国文』 102, 專修大学日本語日本文学文化学会, pp.101-132, 서경식(2012)「짧은 시에 회한과 슬픔을 담아 노래해온 재일조선인 2세, 이정자 씨」, 『역사의 증인 재일 조선인』, 반비, pp.157-181, 마경옥(2013)「재일여성작가 이정자의 단카세계」, 『일어일문학』 60, 대한일어일문학학회, pp.181-194 이 있다.

9) 관련 연구로는 一条徹(1984)「在日朝鮮人と倭歌—尹政泰の『書かれざる意志』に寄せて」, 『一条徹作品集』, 藤原春雄(一条徹)遺稿集刊行委員会, pp.414-419, 高柳俊男(2007), 앞의 글, pp.148-160, 김귀분(2019)「재일한국인 한센병환자·회복자의 인생과 역사: 가인 김하일의 단카 작품을 중심으로」, 『횡단인문학』 2(1),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인문학연구소, pp.27-50, 김보현(2022)「재일조선인 가인(歌人)의 정체성과 ‘조국’ 리카 기요시(リカキヨシ)를 중심으로」, 『일본학보』 130, 한국일본학회, pp.153-176이 있다.

10) 이한창(1990)「在日韓國人文學의 역사와 그 現況」, 『日本研究』 5집,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pp.245-263.

이다. 이 논문은 연구의 시기를 4시기(전사:1882-1920년대 초, 저항 문학기:1920-1945, 남북 혼란기:1945-1960, 추계성 확립기:1960-1990)로 구분하여 재일조선인 문학의 전반적인 역사를 다루고, 이들 문학의 귀속 문제에 대해서도 제기하는 등 국내 재일조선인 문학 연구의 포문을 열었다. 그러나 산문 장르와 소설 작가 위주의 기술은 이후 재일조선인 문학 연구의 획일성과 불균형을 가져왔다. 특히 2000년대 김사량, 김달수, 허남기, 이회성, 김학영, 이양지, 유미리 등 재일조선인 소설 작가들에 대한 개별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¹¹⁾ ‘재일조선인 문학사’의 주류는 산문 장르가 점차 되었다.

이에 비해, ‘재일조선인 문학사’의 주류에서 벗어난 운문 장르는 2000년대까지는 실제적인 연구보다는 연구의 필요성이 언급되는 정도였다. “앞으로 소설뿐만아니라 시, 단가(短歌), 아동문학, 연극, 영화 등을 포함한 재일한국인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으로 관심의 폭을 넓혀갈 필요”¹²⁾를 재기한『在日한국인 문학연구』(2000)와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작품들은 소설, 문화, 역사, 시, 수필 등 다양한 장르의 문학작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타 학문과의 다학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¹³⁾는 점을 시사한『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2012)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은 모두 제언에 그치고 있으나, 재일조선인 문학 연구가 일정 궤도에 오를 동안 소외되어 있었던 운문 장르 전반이 비로소 조명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2000년대 후반부터는 재일조선인들의 운문을 대상으로 한 논고와 연구서들이 등장하였다. 「재일 시인의 시세계」¹⁴⁾는 재일조선인의 시 문학사를 3시기(초창기:1945-1965, 확립기:1960-1980, 다양기:1981-현재)로 나누어 그동안 재일조선인 문학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운문 장르를 통시적으로 조망하였다. 그리고 “재일조선인의 시의 주류는 프롤레타리아 시와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계승”한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하여 재일조선인의 시의 특징과 성격을 규명하였다. 그러나 “재일시 또한 구어 자유시가 대세이며, 단가와 하이쿠를 짓는자도 있으나 사회적으로 현대 시인들이 알려져 있다.”¹⁵⁾라는 사가와 아키(佐川亞紀)의 관점은 ‘재일조선인 문학사’에 또 다른 폐해를 가져왔다. 즉, 운문 장르 내부에서 자유시를 우위에 둔 서열화는 다시 하이쿠와 단가와 같은 장르를 연구 범주에서 소외시켜버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재일조선인의 시와 관련한 연구서는 많지 않지만, 가장 이른 성과로는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역사적 이해』(2011)가 있다. 이 연구서는 “그동안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 연구가 일본의 권위 있는 문학상을 수상한 재일 작가들의 소설이나 식민과 분단을 서사화한 일본어 소설을 대상으로 한 논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¹⁶⁾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제까지의 재일조선인 문학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실천으로써 운문 장르 연구를 이행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해방 후, 재일조선인의 시

11) 이와 관련한 연구서들을 연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숙자(2000) 『在日한국인 문학연구』, 月印, 홍기삼(2003) 『재일한국인 문학』, 숲, 김환기(2006)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 새미, 전북대학교 재일동포연구소 편(2008) 『재일 동포문학과 디아스포라 1』, 제이앤씨, 이정석 (2009) 『재일조선인 문학의 존재양상』, 인터북스, 이한창(2011) 『재일 동포문학의 연구 입문』, 제이앤씨, 이한정 외(2011) 『재일코리안 문학과 조국』, 지금여기, 황봉모(2011) 『재일 한국인 문학 연구』, 어문학사, 임채완 외(2012)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 북코리아, 다케다 세이지(竹田青嗣) 지음, 재일조선인문화연구회 옮김(2016) 『‘재일’이라는 근거』, 소명출판.

12) 유숙자, 위의 책, p.3.

13) 임채완 외, 위의 책, p12.

14) 佐川亞紀(2008) 「재일 시인의 시세계(1)」, 『재일 동포문학과 디아스포라 2』, 제이앤씨, pp.19-48.

15) 앞의 책, p.21.

16) 하상일(2011)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역사적 이해』, 소명출판, p.4.

를 매체와 시인을 중심으로 통시적으로 살피고 있으나, 여기에서의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은 ‘총련’ 계에 한정되어 있다는 장르적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후 재일조선인의 시 연구는 한동안 김시종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다가,¹⁷⁾ 『일본의 이단아: 자이니치 디아스포라 문학』(2020)¹⁸⁾에서 해방 전부터 1980년대까지 재일조선인 시인의 계보를 통시적으로 살핀 연구가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재일조선인 문학사’에서 운문 장르를 시를 필두로 하여 뒤늦게나마 하나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단시형 문학이 여전히 ‘재일조선인 문학사’에서 후경화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재일조선인 문학사를 위하여: 소리 없는 목소리의 폴리포니』(2019)¹⁹⁾에서는 “본서에서 주로 다루는 장르인 시, 소설, 평론, 수필이다. 작가와 작품 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지만 하이쿠와 단가, 셴류 등도 없지는 않았다.”²⁰⁾라는 점을 밝혀두고 있다. 이 대목에서 단시형 문학이 재일조선인 문학사에서 두드러지지 않은 이유를 한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타 장르와 비교했을 때 양적 성과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양적인 한계를 지적하기에는 아직 재일조선인의 단시형 문학이 가시화되지 않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조선적(朝鮮籍) 재일조선인 가인 박정화의 조국 인식과 삶

해방 후 현재까지 재일조선인 가인은 총 12명으로 파악되며, 이 중 여성 가인으로는 정상달, 박정화, 박옥지, 이정자, 김영자가 있다.²¹⁾ 박정화는 정상달과 함께 재일조선인 1세 가인으로 가집을 발간한 전문 가인으로 일본 이름은 사사야 마사코(笹谷政子)이다. 1938년 충청도에서 태어난 박정화는 1940년 2살 때, 조반(常磐) 탄광에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아버지를 따라 도일하였다. 조선인과 결혼하여 두 남매를 얻었고, 아이들의 교육(민족교육)을 위해 단신으로 도쿄로 상경하였다. 박정화가 단카를 짓게 된 계기는 별거 중이던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그 충격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다. 1973년부터 「아사히 가단(朝日歌壇)」에 단카를 투고하기 시작하여 주목받았으며, 1996년에는 ‘아사히 신문 가단 상(朝日新聞歌壇賞)’을 수상하였다. 수상작은 「呼びよせし今宵のオモニの身世打鈴釜山より常磐炭鉱に來し日まで」로 1998년 발간된 그녀의 가집 『신세타령』은 이 단카에서 유래한 것이다. “신세타령은 단순히 일신상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상에서 생긴 ‘한’을 마치 ‘노래’처럼 리듬을 가진 말투로 그 한을 풀어나가는 것”²²⁾처럼 박정화의 가집 속 단카들은 재일조선인들의 애환을 느끼게 한다.

동시에 그녀의 단카에는 ‘조선적(朝鮮籍)’ 재일조선인이라는 아이덴티티에서 비롯한 조국(북한) 관련 작품들이 존재한다. 재일조선인 1세 가인 리카 키요시(リカ・キヨシ)의 단카에서 ‘조국은 지역적 기호

17) 호소미 가즈유키(細見和之)(2013) 『디아스포라를 사는 시인』, 어문학사, p.4. 김시종 저, 윤여일 역(2016) 『조선과 일본에 살다: 재일시인 김시종 자전』, 돌베개. 이진경(2019) 『김시종, 어긋남의 존재론』, 도서출판 b.

18) 김응교(2020) 『일본의 이단아: 자이니치 디아스포라 문학』, 소명출판.

19) 송혜원(2019) 『재일조선인문학사를 위하여: 소리 없는 목소리의 폴리포니』, 소명출판.

20) 본서에서 재일조선인 단시형 문학은 한무부의 가집, 강기동의 구집, 정승박의 셴류집, 재일조선인 한센병 가인 정도로 간략하게 나열되어 있다. 송혜원, 앞의 책, p.59, 각주 32번 참고.

21) 김보현(2022), 앞의 논문, pp.157-162 참고.

22) 金貞愛, 「拡散するく身世打鈴」: 李愷成「砧をうつ女」にみる朝鮮文化の変容, p.145.

를 넘어 남한은 ‘태어난 조국’, 일본은 ‘길러준 조국’, 북한은 ‘이상으로서의 조국’과 같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²³⁾ 그런데 박정화의 경우 조국은 오로지 북한으로 다음과 같은 이색적인 작품을 찾아볼 수 있다.

(조국 방문 단카)

八十歳を祝う公演の舞台より真正面に見き金正日首席
煙草火を点け隣席のシアヌーク殿下に頬よせ語る金正日首席
隣席のシアヌーク殿下と顔き合う金正日首席その讃歌謳うに
十段に並び待ちたり記念写真微笑みにつつ首席入り来る
記念写真ともに写れるを喜びて歓声の渦しばし続けり

4. 결론

해방 전, 재일조선인이 단카를 짓는 것은 “조선옷 백의 대신에 강제된 일본옷”을 입는 것이었고, 그러한 단카는 “문학적인 내선일체”를 의미하였다.²⁴⁾ 그러나 해방 후, 강제가 아닌 스스로 단카를 문학 수단으로 선택하여 자기표현을 하는 재일조선인들이 포착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일조선인과 단카의 조합은 그 표면적인 부조화로 인해 조선인과 일본인 양쪽 모두에 ‘기이’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로 인해 정작 재일조선인들이 단카를 선택한 이유와 실제 작품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일본적인 것을 상징하는 문학 형식으로 자신을 표현한 작가들의 창작 활동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은밀하게 영위될 수 밖에 없었다”²⁵⁾고 생각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박정화를 비롯하여 많은 재일조선인 가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가작 활동을 하였다. 향후에는 가집을 발간한 재일조선인 가인들 이외에도 매체를 다양화하여 그들의 존재를 구체화시키고자 한다. 또한 이들의 단카를 한 수 한 수 읽는 작업을 병행하여 재일조선인 문학의 문제의식을 일본 단시형 문학의 특수성에 입각하여 도출하는 것을 후속 과제로 삼고자 한다.

23) 김보현(2022), p.172.

24) 川村湊(1999), 앞의 글, p.230, p.236.

25) 高柳俊男, 앞의 글, p.154.

『建設期の朝鮮文学』を読む

根来由紀(誠信女大)

1. 序論

『建設期の朝鮮文学』は1946年2月8日と9日の二日間、鍾路キリスト教青年会館で開催された第一回朝鮮文学者大会の会議録で、同年6月に朝鮮文学者同盟から出版されたものが原本である。しかし今回定本とするのは、その中に登場する人物の人名録を崔元植が巻末に付録として付し、1988年11月にオンヌリから出版された『建設期の朝鮮文学 第一回全国文学者大会資料集と人名録』である。崔元植の巻頭文によると会議録の内容としては1946年版からの改訂はないとされており、確認した限り原文ではハングルと漢字を使用しているが、オンヌリ版ではハングル表記に統一され、適宜丸括弧を用いて該当する漢字が提示されている。

本発表では『建設期の朝鮮文学』の内容および朝鮮文学や韓国文学研究分野でどのように研究されてきたのかを確認したうえで、1945年前後の朝鮮詩壇の流れについて今一度見ていこうと思う。

2. 本論

まず朝鮮文学者大会が開催された流れを確認したい。主催した朝鮮文学者同盟はもともと二つの組織が統合したもので、解放直後の朝鮮には1945年8月16日に李泰俊、安懐南、林和などが主導して結成した朝鮮文学建設本部と、同年9月17日にKAPFの流れを汲んで結成された朝鮮プロレタリア文学同盟があった。崔元植によると朝鮮文学建設本部は「ブルジョア民主主義革命論に立脚した進歩的民族文学の建設を当面の目標」とし、一方朝鮮プロレタリア文学同盟は「階級文学の建設」を目指した²⁾。それが金台俊の仲裁によって朝鮮文学者同盟という一つの組織に統合したのが1945年12月のことで、翌1946年2月に第一回朝鮮文学者大会が開かれたのである。

目次を見ると、まず最初に洪命燾、呂運亨による挨拶文や祝辞があり、さらに当時のソビエト作家同盟代表ニコライ・チーホノフなどの名前も確認できる。各人の挨拶の後に連合国へ向けた感謝のメッセージがあり、その後報告演説があったことがわかる。報告演説では民族文学建設に対する課題を指摘するもの、朝鮮文学についての報告と今後の展望、世界文学へどのように参加していくか論じたもの、国文普及や新人の育成など当面の課題などをまとめたものなどがある。

1) 『朝鮮文学者同盟叢書』(影印版。創造社、1999)3巻「建設期の朝鮮文学」を確認した。

2) 崔元植「韓国現代文学史の正しい再構成のために」『建設期の朝鮮文学 第一回全国文学者大会資料集と人名録』(オンヌリ、1988)

3. 結論

本発表は、まずこの報告演説部分を読んで大会全体で何がどのように課題とされ論じられたのかを確認し、金起林による「私たちの詩の方向」という報告を中心に解放期の朝鮮詩壇の性質を読んでいくことで、植民地期に〈日本語で書く〉行為をした(させられた)作家たちが〈朝鮮語で書く〉までの基本的な流れを再確認する。

조선인과 재조일본인의 ‘남양(南洋)’ 표상 시 연구

— 『국민시가(國民詩歌)』(1941~1942)를 중심으로 —

李相美 (高麗大)

1. 서론

본 발표에서는 단카와 시 장르가 통합된 조선 유일의 시가(詩歌)문학 전문 잡지 『국민시가(國民詩歌)』를 대상으로 하며, 1940년대 초 조선인과 재조일본인 시인들의 동남아시아(이하 ‘남양(南洋)’)를 배경으로 하는 시와 비평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지금까지 국내의 『국민시가』 관련 선행연구자들의 논문 등 『국민시가』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약 10편의 논문 가운데 두 연구논문만이 전쟁 단카를 분석·설명하기 위한 배경 키워드로의 ‘남양’을 짧게 언급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전의 연구자들은 대체로 『국민시가』에 수록되어 있는 단카를 ‘① 전쟁, ② 총후 생활, ③ 조선적 제재’로 나누었고, 시를 ‘① 전쟁, ② 총후, ③ 애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처럼 『국민시가』 속의 ‘남양’은 분류대상 이외의 영역이었다. 일부 전쟁단카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외의 수많은 남양 표상 시가 외면받아왔음이 명백하다. 『국민시가』 각 권마다 상당한 양의 남양 표상 시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고, 조선인과 재조일본인의 작품이 하나의 시가 잡지 속에 함께 실려있다는 점이 1940년대 그들의 남양관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연구가치는 충분하다. 이처럼 『국민시가』 시 분류 가운데 ‘남양’ 표상 시는 지금까지 ‘전쟁시’·‘전쟁단카’ 영역으로 포함되어 왔거나 아예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단카 및 시 분류 가운데 하나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보기 위한 과정으로서 상대적으로 관심 밖의 대상이었던 ‘남양’ 표상 시의 전반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검토·분석하고자 한다.

2. 본론

2.1. 『국민시가(國民詩歌)』의 등장과 발행 목적 및 의의

중일전쟁으로 인하여 1930년대 말부터 전쟁수행물자 부족 현상, 그 중 특히 용지 부족 문제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보이던 한반도 내의 일본 고전시가 장르의 창작 활동이 타격을 입게 된다. 독자적인 행보를 유지하던 한반도의 시단과 가단 두 문단은 결국 1941년 6월 총독부 당국의 명령으로 당시 발행 중이던 문예잡지들이 모두 폐간되었고, 기존의 시가 분야의 다양한 문학결사를 통합하여 국민총력조선연맹문화부(國民總力朝鮮聯盟文化部)의 지도하에 1941년 7월 ‘국민시가연맹(國民詩歌聯盟)’이 결성된다. 당시 ‘국민문학’ 담론을 선도적으로 개진하며 1941년 9월 단카와 시 장르가 통합된 조선 유일

의 시가(詩歌)문학 전문 잡지 『국민시가(國民詩歌)』를 창간하였다. 1941년 기존의 문예잡지가 폐간된 이후부터 1943년 4월 강력한 문인단체로서의 조선문인보국회가 탄생하기까지, 국민시가연맹에 의한 『국민시가』는 한반도에서 창작된 일본어 시가 문학의 가장 중핵이 되는 문학 매체였다고 할 수 있다.¹⁾ 『국민시가』는 창간호인 1941년 9월호를 비롯한 10월호, 12월호, 1942년 8월호, 1942년 11월호와 1942년 3월에 국민시가연맹의 제1작품집이자 특집호였던 『국민시가집(國民詩歌集)』을 포함한 현존본 총 6편으로 구성된다.

한편, 현존본 총 6호 가운데, 『국민시가』 1941년 9월호(창간호)의 가장 첫 글인 다나가 하쓰오(田中初夫)의 「조선에 있어서 문화의 바람직한 상태」²⁾에서, ‘반도에서의 문화가 일본문화의 일부분을 구성’하여야 하고, 이 이외의 존재 방식이 올바르지 못하다고 비판함과 동시에, ‘반도문화는 일본문화라는 자각이 첫째로 요청된다. 조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점은 국민문화로서의 일본문화에, 조선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어떠한 점에서 연접(連接)하는가 라는 문제’라고 기술되어있다. 이는 ‘황국신민’으로서의 의식을 가져야 하고, 반도, 즉 조선을 일본의 하나의 ‘지역’으로 전락시키고, 조선의 모든 문화를 일본의 ‘지방문화’로 치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조선의 전통은 일본의 전통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반도의 문화는 비로소 일본의 지방적 특수성을 가진다’라고 서술한다. ‘일본의 국민문화로 새롭게 재구성’되지 못한 것은 ‘가령 아무리 깊은 전통이더라도’ 이에 반하는 것을 부정하고, 심지어는 ‘주저 없이 파괴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조선의 과거 전통문화는 일단 박물관에 수록(蒐錄)되어야 한다고 말하기까지 하는데, 즉, ‘반도의 국민문화’가 ‘내지의 지방문화’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작되는 『국민시가』는 ‘대동아공영권’과 ‘내선일체’ 사상을 기반으로 시작된 시가집이라는 그 목적성을 알 수 있다.

약 2년간 발행된 『국민시가』는 1942년 3월 특집호인 『국민시가집』을 정점으로 전쟁을 찬양하는 친일시가 상당수를 차지하게 되는데, 1941년 9월호(창간호)는 말 그대로 ‘창간호’여서인지 다른 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대동아공영권’과 전쟁 찬양의 표현 강도가 그리 센 편도 아니며, ‘남양’ 키워드가 들어가는 시와 단카 또한 각각 한 수에 불과하다. 『국민시가』 창간호에 실려있는 「편집 후기」³⁾에서 미치히사 료(道久良)는, 조선 유일의 시가잡지로서 발행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이 크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고 하면서, ‘본지 발행의 목적은 “고도국방국가체제 완수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민총력의 추진을 지향하는 건전한 국민시가의 수립에 힘쓴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고 함과 동시에, ‘본 호에는 이런 의미가 충분히 철저하지 않은 듯 하며, 이 목적에 반하는 작품을 보내신 분도 있었지만 제1호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채록하였다.’고 밝히며 『국민시가』 발행 목적과 거리가 있는 작품들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더불어 향후 ‘건전한 대륙문화건설을 위해 건설적인 작품을 보내줄 것’을 당부하는 등의 대목 또한, 그 발행 의도를 뚜렷이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2.2. ‘남양(南洋)’ 표상 시의 특징

『국민시가』 1941년 10월호에 실려있는 아마쿠 다쿠오(天久卓夫)의 평론, 「문학의 염원」⁴⁾은 문학

1) 엄인경 『문학잡지 『國民詩歌』와 한반도의 일본어 시가문학』 (도서출판 역락, 2015.4.) pp.5-6, p.74, 77.

2) 엄인경·정병호 역, 『國民詩歌』 1941년 9월호(창간호), (역락, 2015.4), pp.13-27.

3) 엄인경·정병호 역, 위의 책, pp.143-144.

그 자체의 중요성보다 ‘성전의 목적’과, ‘문화적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남양의 섬들’ 부분을 두 번 반복 언급하며 남양의 섬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도 ‘일본의 이상’, ‘동아공영권’ 등이 녹아들어 가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그 세상은 단 하나’라는 표현이야말로 일본의 남진론과 ‘남양’ 인식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다. 『국민시가』 1941년 10월호에 수록되어 있는 그의 단카⁵⁾ 가운데 ‘층층이 밭의 가장 위의 밭에서 씨뿌리기를 하는 모습’이 춤추는 것 같다거나, ‘산 밑자락의 계단식 논 나누는 몇몇 줄기의 가느다란 흐름에 저녁 해 남아 있네.’와 같은 부분이 있다. 『국민시가』에는 ‘올벼 농사’, ‘논두렁’, ‘푸릇푸릇한 밭두둑’, ‘풍요로운 산물’, ‘층층이 밭의 가장 위의 밭’, ‘씨뿌리기’, ‘계단식 논’과 같은 동남아시아 지역 벼농사와 계단식 논 농작 방식을 통해 동남아시아를 배경으로 삼은 작품이 있어, 동남아시아에 대한 관심 정도가 예측가능하다.

농작 방식 키워드 이외에도 『국민시가』에 실린 시가 작품들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남양’ 관련 시어·시구의 종류를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불영(佛領) 인도차이나 진주(進駐)’, ‘인도차이나 남부’와 같은 지역을 알 수 있는 작품이 상당히 많고, ‘남방권익으로의 경제적 진출’이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등장하는 시 작품도 한 수 수록되어있다. 방향으로 남양을 간접적으로 추측하도록 하는 ‘남쪽’, ‘남쪽으로 가’, ‘남쪽 바다’, ‘섬’, ‘남해의 고도’, ‘남쪽 고국(故國)’, ‘남쪽 나라의 국왕’, ‘적도의 바로 아래’, ‘적도의 밑’ 등의 시어·시구도 빈번하게 사용된다.

이외에도 동남아시아의 열대성 기후를 드러내는 ‘열대성 태풍’, ‘비’, ‘스콜’, ‘눈부실 정도의 태양’, ‘문순’과, 이러한 기후에서 자라나는 식물을 표현하고자 하는 ‘야자나무’, ‘열대수’, ‘원시에 있던 나뭇잎 그늘 아래’, ‘푸른 잎’, ‘야자의 나뭇잎’, ‘칸나 꽃’ 등이 있다. 와타나베 오사무(渡邊修)의 단카⁶⁾와 기무라 테쓰오(木村徹夫)의 「훈련(訓練)」⁷⁾ 시에서 등장하는 ‘칸나 꽃’은 인도·말레이시아 등 열대 아시아가 원산인 여러해살이풀로 ‘남양’ 지역이 배경임이 추측 가능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는 ‘호랑이 표범 무리’⁸⁾, ‘코끼리’처럼 분포지역으로 시의 배경지를 추측할 수 있는 동물명이 등장하기도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민시가』 1942년 3월 특집호인 『국민시가집』⁹⁾에서는 다른 호에 비해 ‘특집호’라는 명칭에 걸맞게 가장, 그리고 본격적으로 전쟁 상황을 묘사하거나, 전쟁을 찬양하고 있다. 한편, 전쟁을 묘사하는 시 이외의 남양의 문화를 주제로 한 시 한 수 소개한다. 마스다 에이이치(増田榮一)의 「신화(神話)」¹⁰⁾는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옛날’, 남쪽 바다에 살고 있는 신의 존재와 동남아시아 원주민들의 모습을 그려낸다. ‘끝없이 푸른 하늘과 바다’가 닿는 곳에 위치한 신이 통치하는 섬에 ‘풍요로운 산물’과 ‘눈부실 정도의 태양’, 그리고 ‘하루에 한 차례 내리는 스콜’을 ‘신의 크신 배려’ 덕분이라고 표현한다. 그곳의 주민들은 ‘아무 것도 의심하지 않’는 순박한 성격과 ‘구릿빛 피부’를 가진 전형적인 ‘남양’ 주민에 대한 묘사와 함께, 타악기 합주 소리에 맞추어 화려한 전통 옷(바스트라)을 입고 인도네시아 민속 무용(레공 춤)을 추는 소녀들의 모습을 그리며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그러나

4) 엄인경·정병호 역, 『國民詩歌』 1941년 10월호, (도서출판 역락, 2015.4.), pp.38.

5) 엄인경·정병호 역, 위의 책, p.79.

6) 엄인경·정병호 역, 위의 책, p.152.

7) 엄인경·정병호 역, 『國民詩歌』 1941년 12월호, (도서출판 역락, 2015.4.), p.144.

8) 엄인경·정병호 역, 『國民詩歌』 1941년 10월호, (도서출판 역락, 2015.4.), pp.109-110.

9) 이윤지 역, 『國民詩歌集』 1942년 3월 특집호, (도서출판 역락, 2015.4.)

10) 이윤지 역, 위의 책, pp.107-108.

‘시련의 때’가 왔다는 신탁이 내려짐과 동시에 ‘북방의 성좌에 창조의 역사를 약속한 세월’이 흐르고, ‘역사의 창조자는 남쪽 고국(故國)으로의 회귀를 생각했다.’며 ‘새로운 숙명을 짊어지고 출발하는 젊은 이의 가슴에는 향수의 혈맥이 고동치고 있었다.’며 시가 끝이 난다. ‘대동아공영권’의 외침이 가득한 『국민시가집』은 ‘남양’으로 공간이 확대되며 전황 묘사 및 황민사상을 노골적으로 강조하고, 당시 시대상과 분위기를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 일본에게 ‘남양’은 정복해야 하는 대상이자 하나의 세상으로 만들고 싶은 대상이었다. 이는, ‘아시아 민족의 생명선, 남양의 중대 의의를 이해하고, 아시아 민족 해방의 성지로 삼아야 한다.’¹¹⁾는 것과는 일맥상통한다고도 볼 수 있다.

3. 결론

이상으로 『국민시가(國民詩歌)』의 등장과 발행 목적 및 의의를 비롯하여, 『국민시가』에 수록된 침략의 대상이자 수탈의 대상이었던 ‘남양’ 표상 시의 존재 파악과 시어·시구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이는 크게 나누어 이국적인 지명을 드러내는 직접적인 표현 방식과, 방향·농작방식·기후·자연의 이미지 등으로 추측할 수 있는 간접적 묘사로 분류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쟁 뉴스 기능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고도 볼 수 있는 시가 잡지 『국민시가』는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예외없이 친일적 성격을 띤다. 『국민시가』에 수록된 작품이 쓰여지게 된 시대적 배경은 물론, 작품이 수록된 시인들 자체에 대한 이해부터 단가와 국책시의 유형과 이러한 시가(단가, 시)를 읽은 독자들이 받은 영향 또한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다. ‘전호 가평’ 등 이전 호에 실린 작품에 대한 비평문도 매 호마다 상당수 실려있으니, 시인(가인 포함)들의 동시대평 또한 확인 가능하며, 『국민시가』의 위치 및 영향력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선인과 재조일본인 가인·시인들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1940년대 그들의 남양관의 비교와 그들이 생각하는 우수하다고 판단되어 호평을 받은 시는 어떤 작품인지, 그리고 빈번하게 쓰이는 시어와 시구를 키워드별로 정리하여 각각의 의미와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 목적성과 함축적 의미·효과 등의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더 나아가, ‘남양(南洋)’에 대한 재조일본인 시와 조선인 시의 차이점을 발견한다면 이를 비교하고, 남양을 바라보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남양관의 차이가 시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다음 과제의 목표이다.

11) 이토 겐 저, 김효순 역, 『남양의 민족과 문화』, (도서출판 보고사, 2021.4.), p.239.

재일코리안의 민족교육

— 히가시오사카시를 중심으로 —

정 성 희 (동국대)

1. 들어가며

2006년 3월, 일본 총무성은 ‘다문화공생 추진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지역 다문화공생 추진을 위하여(多文化共生の推進に関する研究会報告書—地域における多文化共生の推進に向けて)’를 작성하여, 다문화공생에 대해 “국적과 민족 등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상호 문화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¹⁾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기본지침인 ‘지역 다문화공생 추진 플랜(地域における多文化共生推進プラン)’을 작성하여 다문화공생 시책을 실시하도록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그 후, 2022년 현재 일본에서 ‘다문화공생’이라는 용어는 일본 국내에 정착하여 시책뿐만이 아닌 사회적 인식까지 확산 되었다. 그러나 2006년부터 현재까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되는 다문화공생의 대상은 일본어 교육이 필요한 뉴커머(new comer)만 그 대상이었고, 재일코리안²⁾은 제외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재일코리안의 민족교육이라는 측면에서도 같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간사이(関西)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민족학급(民族学級)’이 제도적인 보장이 없이 지금까지 유지해왔다는 점에서도 분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재일코리안 민족교육의 장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운동을 통해 획득해왔으나 최근에 그 장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재일코리안 민족교육의 장으로 공립학교에서 설치된 민족학급은 재일코리안의 다양화와 뉴커머의 증가 등에 따라 그 형태가 ‘국제클럽(国際クラブ)’ 등으로 변화고있으며, 재일코리안 민족교육의 장의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공립학교 속의 재일코리안 민족교육의 장에 주목하여 그 중에서도 히가시오사카시(東大阪市)에서 이루어진 1980년대에 실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히가시오사카시는 오사카시 다음으로 민족학급이 다수 설치된 지역이며, 재일코리안 민족교육을 재일코리안뿐만 아니라 일본 교사들이 소속하는 조직과 연계하면서 함께 실천되어온 지역이다. 특히 그 실천들은 1980년대가 기점이 되어 있으며 이 시기를 살피는 것은 재일코리안 민족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히가시오사카시에서 1980년대에 이루어진 실천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総務省(2006), 「多文化共生の推進に関する研究会報告書—地域における多文化共生の推進に向けて」, p.5.

2) 재일코리안에 대한 명칭은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인’ ‘자이니치(在日)’ ‘올드커머(old comer)’ 등으로 다양하게 있고, 그 정의와 범위도 연구마다 차이가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의 영향으로 일본에 이주하여 정주하는 한민족의 총체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재일코리안’을 사용한다. 또한 1980년대 이후 일본의 출입국관리법개정을 경제적 활동을 목적으로 일본에 이주한 이주자들과, 재일코리안을 구별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1980년대 이후의 이주자들은 가리키는 용어로 뉴커머(new comer)를 사용한다.

2. 재일코리안 민족교육운동의 역사적 배경

1945년 해방 이후, 일본에서는 약 200만 명의 재일코리안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들은 귀국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에 아이들의 민족교육은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고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힘이 있는 사람을 힘으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를 슬로건으로 삼아 전국에 민족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를 건설하였다. 그러나 1948년 1월, 일본 정부는 GHQ(General Headquarters of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의 지령을 이유로 ‘문부성학교교육국장통달(文部省学校教育局長通達)’을 내며 그때까지 묵인했던 민족학교의 폐쇄 조치를 밝혔다. 이것은 민족학교가 일본의 학교기본법이나 교육기본법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재일코리안의 자녀들을 일본 학교에 보내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에 대한 반대 운동이 야마구치현(山口県)과 한신(阪神) 지역에서 ‘4·24 한신 교육투쟁(4·24 阪神教育闘争)’이 일어났다. 이후 투쟁이 계속되어 오사카에서는 6월 4일에 재일코리안 대표와 오사카 후 지사 사이에 공립 조선인학교의 설립의 인정, 공립학교의 과외활동으로 언어, 역사 등의 교육을 실시할 것, 민족학교를 사립학교로 인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각서(覚書)를 교환하였다. 그러나 공립 조선인학교는 1967년을 마지막으로 소멸하였으며 지금 현재 일본 공립학교에서 지속되는 재일코리안 민족교육은 민족학급 그리고 고등학교 동아리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조선문화연구회(朝鮮文化研究会)이 유일한 상태이다.

3. 히가시오사카시에서 이루어진 재일코리안 민족교육의 실천

히가시오사카시는 오사카시 옆에 위치해, 1967년에 후세시(布施市)·가와치시(河内市)·히라오카시(枚岡市)가 합병해 탄생한 지역으로, 예전부터 고무 제품이나 기계 기구 등의 공장도 많아, 그러한 산업에 종사하는 재일코리안 취업자가 많았다.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후세시·가와치시·매오카시에는, 1945년 해방 직후 후세초등학교(布施小学校), 하구사분교(蛇草分校), 히라오카초등학교(枚岡小学校) 등 3개의 민족 학교와 하구사(蛇草)·기시다도(岸田堂)·요코누마(横沼)·산노세(三ノ瀬)·이나다(稲田)·모리가와치(森河内)에서 국어강습소가 있었던 점에서도 다수의 재일코리안이 거주했음을 알 수 있다.³⁾ 또한 민족학교가 강제 폐쇄된 1949년에는 후세시 지역의 후세초등학교(布施小学校), 하구사분교(蛇草分校), 모리가와치(森河内) 등 3개의 민족학교가 있었으나⁴⁾, 이러한 학교의 강제 폐쇄 명령으로 인해, 많은 재일코리안은 공립 초등학교인 다이헤이지초등학교(太平寺小学校)으로 취학을 강요당했다. 특히 다이헤이지초등학교(太平寺小学校)는 1948년 ‘각서’의 영향을 받아 1950년 ‘조선어학급’이라는 명칭으로 ‘각서’ 민족학급이 개설되었다.

이러한 ‘각서’ 민족학급 개설 및 부락해방교육과 맞물려 1971년 히가시오사카시 교직원조합(東大阪市教職員組合)에서는 재일조선인 교육과 관련된 분과회가 진행되어 학급실천이나 생활지도에 관한 실천이 보고되었다. 또한, 이 보고를 받은 교사들이 재일코리안 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실감하여, 이듬해인 1972년, 히가시오사카시 교직원조합 안에, ‘재일조선인 교육부’가 설치되어, 동 오사카시에서는

3) 林二郎, 「夜間中学校開設と在日朝鮮人教育運動の広がり」, 第7回 夜間中学生寄席 レジュメ, 2022.07.02.

4) 梁永厚, 「大阪における4・24教育闘争の覚書」, 在日朝鮮人史研究会, 在日朝鮮人史研究 第6号, 1980.

본명지도와 졸업장 서력문제(西曆問題) 등 재일코리안 교육이 강하게 추진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히가시오사카시에서는 일본인 교직원을 중심으로 한 단체와 재일코리안의 민족단체가 서로 연계하여 재일코리안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연계의 강도가 두드러진 것이 1980년 다이헤이지초등학교의 후임 강사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80년, 1950년에 개설된 이후 민족 강사로서 교단에 서 있던 선생님이 퇴직하여, 히가시오사카시에서는 후임 강사의 문제가 불거졌다. 히가시오사카시 교직조합이나 교직원, 또 보호자로부터 ‘조선어학급’의 지속 요청서가 나왔지만, 오사카부 교육위원회는 ‘1950년 이후에 설치된 조선어학급에 대해서는, 조선어 교사가 퇴직하면 폐급하고 있어 특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담해 조선어학급은 폐급을 강요받게 되었다. 그러나, 학부모와 교직원이 탄원서를 작성하여 조선어학급 지속에 대해 계속 호소하자, 1980년 5월에 히가시오사카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강사보상비’가 예산 설치되었고, 6월에는 다이헤이지초등학교를 포함한 학교 네 곳에 민족학급이 개설된 것이다.⁵⁾ 이후 히가시오사카시에서는 1982년에 ‘재일외국인원아·아동·학생에 관한 교육지침-주로 재일한국·조선인원아·아동·학생-(在日外国人園児・児童・生徒に関する教育指針—主として在日韓国・朝鮮人園児・児童・生徒—)’을 히가시오사카시 교육위원회가 수립했고, 이후 1983년부터 히가시오사카에서는, 히가시오사카시 교직원조합이 중심이 되어, ‘조선문화에 친숙한 히가시오사카 어린이 모임(朝鮮文化に親しむ東大阪子どもの集い)’이 실시하게 되었다. ‘조선문화에 친숙한 히가시오사카 어린이 모임’은 한반도의 무용, 악기 연주, 노래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한반도에 뿌리가 있는 아이들이 출연하고, 그 외의 아이들은 견학 참여한다는 원칙이 있으며, 이 원칙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이와 같이 히가시오사카시에서는 재일코리안뿐만 아니라 일본 교사들이 소속하는 조직과 연계하면서 재일코리안 교육운동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4. 나가며

1980년대 일본에서는 재일코리안 교육에 대해 주목하며 오늘 날까지 이루어져 왔다. 특히 히가시오사카시에서는 히가시오사카시 교직원조합 등과 재일코리안들이 연계하면서 실천과 행정 투쟁을 함께 실시하여 재일코리안 교육의 장을 형성했다. 특히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배제된 재일코리안의 아이들을 지원한다는 것은, 단일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일본에서는, 어려운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한, 공교육의 현장에서 남북 분단에 관한 중립 원칙은 교육현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의사항이기도 하다. 이러한 조건을 재일코리안 단체와 교직원들이 연계하면서 극복해 온 것은 재일코리안 교육에 있어서 큰 재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民族教育促進協議會(1995), 「すべての同胞に民族教育を 民促協10年史」, pp.15-16.

김산과 님 웨일즈의 『아리랑』과 재일코리안

이영호 (동국대)

1. 서론

김산(金山)¹⁾, 중국에서 항일독립운동을 한 조선인 독립운동가이다. 수많은 독립운동가 중에서 김산의 이름이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던 배경에는 1941년 미국의 저널리스트 님 웨일즈(Nym Wales)²⁾가 『Song of Ariran』³⁾을 출간했기 때문이다. 이후 『Song of Ariran』은 세계 다양한 나라에서 번역되기 시작했고 이후 김산의 존재가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다. 한국에서는 1984년, 『아리랑』⁴⁾이라는 제목의 번역본이 출간되며 김산의 존재가 알려진다.

『아리랑』 출간 이후, 일본과 재일코리안 사회에서는 김산과 님 웨일즈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1987년 재일코리안⁵⁾ 잡지 『민도(民濤)』에는 님 웨일즈의 특별 인터뷰가 3회 수록됐으며, 1991년 5월 28일에는 단행본 『『아리랑의 노래』 각서 - 김산과 님 웨일즈(『アリランの歌』覚書—キム・サンとニム・ウェールズ)』가 출간되는 등 다양한 담론이 형성된다. 일본에서의 자료들은 국내 다양한 지면에 번역되며 문화적 영향력을 발신한다.

본 발표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에 주목해 일본과 재일코리안 사회에서 출간된 각종 『아리랑』 관련 자료를 소개하고 내용을 분석하겠다. 동시에 이들 자료들이 한국에 소개된 양상을 함께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 재일코리안 사회에서 김산과 님 웨일즈에 대한 관심의 형태를 분석하고 한국에서의 영향관계를 규명하겠다.

2. 일본에서의 『아리랑』과 그 이후

1953년 7월, 일본에서 『아리랑의 노래 - 어느 조선인 혁명가의 생애(アリランの唄—ある朝鮮人革命家

- 1) 김산(1905.03.10.-1938.10.19.)은 중국에서 항일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이며, 본명은 장지락(張志樂) 혹은 장지학(張志鶴)으로 알려져 있다.
- 2) 님 웨일즈(Nym Wales, 1907.09.21.-1997.01.11.)는 미국의 신문기자이자 시인이며 계보학자로도 활동했다. 본명은 헬렌 포스터 스노우(Helen Foster Snow)이며 남편 에드거 스노우(Edgar Snow)와 함께 1930년대 중국 혁명가들을 주로 취재했다. 김산과 발표한 『Song of Ariran』으로 이름을 알렸으며 2005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님 웨일즈에게 보관문화훈장을 수여했다.
- 3) 『The Song of Ariran』은 1941년에 미국에서 출간되었으며, 한국에서는 신재동이 잡지 『신천지』에 1946년 10월호부터 1948년 1월호까지 총13회에 걸쳐 『아리랑』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되었지만 중단되었다. (고명철(2016), 「김산, 동아시아의 혁명적 실천, 그리고 「문제지향적 증언서사」, 『한민족문화연구』 54, 한민족문화학회, p.7.)
- 4) 본고에서는 김산과 님 웨일즈의 『Song of Ariran』을 지칭할 경우,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목인 『아리랑』으로 지칭한다. 특정 국가의 원문이나 판본을 언급할 경우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다.
- 5) 재일동포를 지칭하는 용어에는 재일코리안, 재일 디아스포라, 재일조선인, 자이니치 등 다양한 용어가 있으며 각 용어의 차이가 있다. 본고에서는 다양한 국가에 거주하는 재일동포를 코리안(Korean)으로 지칭하고, 일본에 거주하는 코리안이라는 뜻에서 ‘재일코리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일본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이며 어떠한 정치성도 개입되지 않았다. 원문을 인용하거나 특정 대상을 구분해야 할 경우,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을 사전에 밝힌다.

の生涯』라는 단행본이 출간된다. 1941년 님 웨일즈가 미국에서 출간한 『Song of Ariran』의 일본어 번역서였으며, 역자는 안도 지로(安藤次郎), 출판사는 아사히쇼보(朝日書房)였다. 1965년에는 같은 출판사에서 제목을 『아리랑의 노래(アリランの歌)』로 변경한 개정판이 출간됐으며, 1973년에는 미스즈쇼보(みすず書房)에서 새로운 번역의 개정판이 출간된다. 1987년 8월에는 이와나미 문고(岩波文庫)에서 번역자가 마츠다이 이오코(松平いを子)가 변경되고 새롭게 번역된 판본이 출시된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한국보다 먼저 『아리랑』에 관심을 보였으며 약 33년 동안 다양한 판본의 번역서가 출간되었다. 실제로 한국에서 『아리랑』의 번역서 출간은 1984년으로 일본에서의 출간이 약 30년 빨랐기 때문에 정식 번역본 출간 전에는 미국과 일본 유학생들이 한국에 유입한 판본을 통해 김산과 『아리랑』이 알려졌다.⁶⁾

일본에서의 번역 양상과 함께 주목할 점은 재일코리안 사회에서 『아리랑』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형성한 점이다. 다음은 재일코리안 잡지 『민도』에 수록된 『아리랑』 관련 기사 현황이다.

<표1> 『민도』에 수록된 님 웨일즈, 김산, 『아리랑』 관련 기사

호수	발행일	작가	제목	비고
1	1987.10.	이회성(李恢成) 박중호(朴重鎬)	님 웨일즈(상) 「아리랑의 노래」와 나의 생애 (ニム・ウェールズ(上)「アリランの歌」と私の生涯)	특별인터뷰 (特別インタビュー)
2	1988.02.	이회성(李恢成) 박중호(朴重鎬)	님 웨일즈(중) 「나의 중국시대」와 합작사 (ニム・ウェールズ(中)「私の中国時代」と合作社)	특별인터뷰 (特別インタビュー)
		재일문예민도사 (在日文芸民道社)	『아리랑·2』(가제)의 출판에 관하여 (『アリランの歌・2』(仮題)の出版について)	
		조지 O. 토튼 (ジョージ・O・トッテン)	고민해야만 하는 사인 (割引かれるべき死因)	『아리랑의 노래』론 (『アリランの歌』論)
		브루스 카밍스 (ブルース・カミングス)	어느 공산주의자의 생애 (ある共産主義者の生涯)	『아리랑의 노래』론 (『アリランの歌』論) (편집부 번역)
3	1988.05.	이회성(李恢成) 박중호(朴重鎬)	님 웨일즈(하) 조선의 중립화와 문명화 (ニム・ウェールズ(下)朝鮮の中立化と文明論)	특별인터뷰 (特別インタビュー)
		님 웨일즈 (ニム・ウェールズ)	오래된 베이징. 침묵한 채 일본에 복종했을 때의 인상 (古き北京 沈黙のままに日本に服従せし時の印象)	시(詩) 중국어 역: 세빙신(謝冰心) 일본어 역: 가마야 오사무(釜屋修)
		후지타 쇼조(藤田省三)	김산 서사시 서곡에 관하여 - 그 한 해석 (金山叙事詩序曲について—その一解釈)	평론 (評論)
6	1988.05.	김찬정 (金贊汀)	『아리랑의 노래』가 들려온다 - 중국에 김산의 유가족을 방문하고 (『アリランの歌』が聴こえてくる —中国に金山の遺家族を訪ねて)	르포르타주 (ルポルタージュ)

6) 홍콩에서는 1977년에 중국어로 번역 출간되었고, 중국에서는 1986년 연변역사연구소가 『백의동포의 영상』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어 번역 출간되었으며, 1993년에 이르러 중국어 번역본이 출간되었다. (고명철(2016), 「김산, 동아시아의 혁명적 실천, 그리고 '문 제지향적 증언서사」, 『한민족문화연구』 54, 한민족문화학회, p.8.)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민도』에는 총7편의 『아리랑』관련 기사가 수록됐다. 그 시작은 특별인터뷰였다. 『아리랑』출간 이후 약 46년이 경과한 1987년 8월 20일, 『민도』의 주필 이회성과 편집위원 박중호는 미국 코네티컷주 매디슨에서 님 웨일즈와 특별 인터뷰를 진행한다. 인터뷰는 나흘간 진행되었으며, 인터뷰는 『민도』1-3호에 3회에 걸쳐 일본어로 수록된다.⁷⁾ 실제로 『민도』 창간호의 첫 기사가 님 웨일즈와의 특별인터뷰였다는 점에서 『민도』측에서 해당 기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판단했었는지 추측할 수 있다. 이밖에도 2호 인터뷰 기사 말미에는 별도의 지면을 할애해 『아리랑·2』(가제)의 출판에 관하여(『アリランの歌・2』(仮題)の出版について)라는 기사를 수록했다. 기사에서는 님 웨일즈가 1961년 미국에서 발표한 『Notes on Korea and the Life of Kim San』의 번역본이 일본에서 출간될 예정임을 알렸으며, 이밖에도 남캘리포니아대학 교수 조지 O. 토튼(George O. Totten)의 「고민해야만 하는 사인(割引かれるべき死因)」을 통해 김산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 시카고대학 교수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의 「어느 공산주의자의 생애(ある共産主義者の生涯)」까지 두 편의 『아리랑』논(論)을 수록해 김산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3호에는 님 웨일즈의 「오래된 베이징. 침묵한 채 일본에 복종했을 때의 인상(古き北京 沈黙のままに日本に服従せし時の印象)」⁸⁾와 후지타 쇼조(藤田省三)의 「김산 서사시 서곡에 관하여 - 그 한 해석(金山叙事詩序曲について—その一解釈)」 등이 수록됐으며, 6호에는 김찬정(金贊汀)⁹⁾의 르포르타주 「『아리랑의 노래』가 들려온다 - 중국에 김산의 유가족을 방문하고(『アリランの歌』が聴こえてくる—中国に金山の遺家族を訪ねて)」를 수록하는 등 『아리랑』에 관한 다양한 담론을 『민도』를 통해 형성했다.

1991년 5월 28일에는 단행본 『『아리랑의 노래』 각서 - 김산과 님 웨일즈(Notes on Korea and the Life of Kim San)』¹⁰⁾가 출간된다. 단행본은 총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에서는 님 웨일즈 소개와, 『민도』에서의 인터뷰를 수록했다. 2부에는 님 웨일즈의 비공개 원고 『조선과 김산에 관한 각서』와 김산의 소설 「기묘한 무기(奇妙な武器)」를 일본어로 번역해 수록했으며, 3부에서는 「도큐먼트 김산의 족적(ドキュメント)キム・サンの足跡)」과 『민도』 6호에 수록된 김찬정의 「『아리랑의 노래』가 들려온다(『アリランの歌』が聞こえてくる)」를 수록했다.

이와 같이 재일코리안 사회에서는 일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아리랑』과 관련된 담론을 형성했으며 기존에 밝혀지지 않았던 역사적 사실들을 규명했다. 나아가 이들 결과물은 한국에 영향을 끼친다.

3. 한국에 미친 재일코리안의 영향력

1988년 9월 한국의 『사회와 사상』 창간호에는 「중국혁명과 김산의 생애」¹¹⁾가 수록된다. 필자는 이

7) 李煥成・朴重鎬(1987), 「特別インタビューニム・ウェールズ(上)「アリランの歌」と私の生涯」, 『民涛』1, 民涛社, pp.2-41.

李煥成・朴重鎬(1988), 「特別インタビューニム・ウェールズ(中)「私の中国時代」と合作社」, 『民涛』2, 民涛社, pp.8-47.

李煥成・朴重鎬(1988), 「特別インタビューニム・ウェールズ(下)朝鮮の中立化と文明論」, 『民涛』3, 民涛社, pp.198-222.

8) ニム・ウェールズ(1988), 「古き北京 沈黙のままに日本に服従せし時の印象」, 『民涛』3, 民涛社, pp.230-233.

9) 1937년 일본 교토에서 태어난 재일코리안 2세대이다. 논픽션 작가이다. 1963년 일본 조선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잡지사 편집 기자를 경험한 뒤 논픽션 작가로 활동했다. 주로 전후 강제연행자, 중국 동북부, 중앙아시아 이주 역사와 동포에 대한 주제를 주로 다루었다.

10) 李煥成・水野直樹(1991), 『「アリランの歌」覚書 キム・サンとニム・ウェールズ』, 岩波書店.

한국에서는 1986년 3월 30일, 학민사에서 『아리랑 2』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다.

11) 이회성(1988), 「중국혁명과 김산의 생애」, 『사회와 사상』 창간호, 한길사, pp.206-223.

회성이었으며 『민도』에 수록된 인터뷰 전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기사였다. 1990년 2월에는 『역사비평』 8호에 「‘아리랑’이 들려온다 - 혁명가 김산, 그 의문을 죽음을 찾아서」가 수록된다.¹²⁾ 해당 기사는 『민도』 6호에 수록된 김찬정의 기사였으며 김산의 유가족과 『아리랑』 출간 이후의 이야기를 수록했다. 이처럼 재일코리안 사회에서 발표된 각종 『아리랑』 관련 기사는 한국의 다양한 지면에 번역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부분은 1993년 7월, 단행본 『아리랑 그후...김산과 님 웨일즈』¹³⁾이 출간된 것이다. 해당 단행본은 이회성의 단행본 『『아리랑의 노래』 각서 - 김산과 님 웨일즈』의 한국어 번역본으로 『사회와 사상』 창간호에 수록된 인터뷰 기사와 님 웨일즈의 『조선과 김산에 관한 각서』를 제외한 일본어 전문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발행된 것이었다. 사실상 이 단행본을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김산과 님 웨일즈에 관한 재일코리안의 문헌 모두가 한국에 번역된 것이다.

그렇다면 재일코리안 사회에서는 어째서 김산과 님 웨일즈에 주목하고 이후 행적을 추적한 것일까? 이는 다음 인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리랑』이 불멸의 책으로 국경을 넘어 널리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저자인 님 웨일즈와 김산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금껏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중략) 조·일·중 관계의 현대사에 아직은 깊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겠지만 어쨌든 독자는 『아리랑』의 김산이 그 뒤 어떤 삶의 길을 걸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중략) 이 책은 이런 님 웨일즈, 김산에 대한 연구 실상을 토대로 다소나마 이 두 사람의 정신세계에다가 역사의 공백을 메움으로써 시대의 배경까지 밝혀 보고 싶어한 작은 바람이다.¹⁴⁾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재일코리안 사회에서는 단행본 외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김산과 님 웨일즈의 역사적 사실을 규명함으로써 역사의 공백을 메우고 시대배경을 명확히 파악하려 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각종 담론을 형성함으로써 『아리랑』의 내용을 보완하고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러한 작업들을 단행본, 기사 형태로 구현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에 문화적 영향력을 발신했다.

4. 마치며

1941년 『아리랑』출간 이후, 재일코리안 사회에서는 김산과 님 웨일즈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 결과 각종 기사와 단행본을 발표하며 기존에 밝혀지지 않았던 역사적 사실을 규명했다. 재일코리안의 문화 활동은 일본을 넘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친다. 재일코리안 사회에서 발행된 김산과 님 웨일즈 관련 자료들은 1988년부터 1990년대에 걸쳐 한국에 대부분 번역된다. 이를 통해 재일코리안이 밝힌 역사적 사실들이 한국에 알려지게 된다. 이러한 문화 활동의 흔적에서 재일코리안의 실제적 활동 양상과 문화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12) 김찬정(1990), 「‘아리랑’이 들려온다 - 혁명가 김산, 그 의문을 죽음을 찾아서」, 『역사비평』 8호, 역사비평사, pp.141-167.

13) 이회성·미즈노 나오끼(지), 윤해동 외(역)(1993), 『아리랑 그후』, 동녘.

14) 이회성·미즈노 나오끼(지), 윤해동 외(역)(1993), 『아리랑 그후』, 동녘, p.6.

삼국지 유비의 인물상 변형

— 요시카와, 고우영 삼국지를 중심으로 —

김 영 준 (동국대)

1. 들어가며

삼국지¹⁾라는 작품의 인기는 다양한 요소에서 기인한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교훈이나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한 고전으로서의 면모, 100년 남짓 하는 기간을 격동적으로 풀어냈다는 점 등이 그 요소들이다. 인기 요소의 일각을 담당하는 것이 인물에 대한 매력이다. 삼국지의 등장인물들은 사건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입체적으로 드러난다. 성격, 행동 등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삼국지 등장인물의 매력은 한층 더 깊어진다. 그러면서도 작가와 작품에 따라 인물들을 조명하는 방식, 시선이 변모한다. 또한 작품이 쓰여진 시대상, 작가의 생각과 의도가 각 등장인물에 대한 평가가 되어 인물상에 반영된다. 이렇듯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인물상은 삼국지라는 작품이 가진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리고 변모한 인물상이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인물상이 당시의 시대상이나 가치관에 어느 정도 부합했기 때문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작품들 가운데서도 吉川英治²⁾의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등장인물인 유비와 고우영 삼국지에 등장하는 유비를 비교하도록 하겠다.

2. 요시카와 삼국지의 유비

요시카와 삼국지의 유비는 지문으로 서술되는 외향 묘사에서 가장 큰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대체로 삼국지에 나타나는 유비에 대한 묘사는 귀가 어깨에 닿을 정도로 크고 손목이 무릎에 닿을 정도로 팔이 길다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삼국지연의에서의 묘사를 시작으로 이후의 수많은 판본, 현대에는 게임이나 만화 등에 이르기까지, 큰 귀와 긴 팔이라고 하는 것은 유비의 아이덴티티였다. 이전의 삼국지에서 유비의 외향묘사는 유비라는 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을 뽑아내 전체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구축했다고 할 수 있다.

1) 본고에서 언급되는 ‘삼국지’는 모두 원말기에 집필된 나관중의 『삼국지통속연의』를 의미한다.

2) 吉川英治(1892.08.11.~196.09.07), 이하 요시카와.



공자는 장신에 긴 팔과 거북이 등이었다고 전해지고 큰 귀는 부처의 상징적인 이미지 중에 하나다. 큰 귀와 긴 팔이 유비의 아이덴티티가 된 것은 유교적 가치의 침단에 있는 인물, 그러면서도 자비적이고 희생적인 리더로서 유비를 바라는 대중의 환상과 열망이 당시 유비에게 투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⁴⁾

삼국지는 나관중의 「삼국지통속연의」가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꾸준히 대중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작품이다. 이 시기가 원말 이전, 전근대 시기의 묘사이다. 결국 큰 귀와 긴 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이미지로서만 여겨졌을 것이기에 독자에게 받아들여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근대 이후로 넘어오면서 시대상과 가치관이 변한다. 유교적 가치관이라는 것이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관이 아니게 된다. 소설도 단순히 설화, 동화적인 측면을 벗어나 체계적인 프레임을 추구하게 된다. 따라서 유비에 대한 기존의 묘사는 근대 이후의 독자들에게 단순히 상징으로서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들게 된다. 위의 그림 1, 2, 3은 큰 귀와 긴 팔로 대변되는 유비의 모습을 고우영 삼국지에서 지적한 장면이다. 큰 귀와 긴 팔로 유비의 이미지를 상상하면 위 서술처럼 그림 3과 같은 모습으로 상상하기 쉽다. 특히 그것들을 유가적, 불가적 상징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독자라면 더욱 그렇다. 그래서 유비의 외형 묘사는 독자들에게 자못 기이한 이미지로 비추어질 수 있다. 따라서 독자들은 기존의 삼국지에서 유비의 영웅성을 외견보다는 유비의 행적에서 발견하기가 더 쉬웠을 것이다. 하지만 요시카와는 독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연상될 수 있는 요소를 배제했다. 그리고 세부적인 묘사를 통해 외견에서부터 인물의 비범함을 느끼게 하여 본격적인 행적을 보여주기 전부터 유비의 영웅성을 발견할 수 있게 했다.

‘눈썹은 짙고 수려했으며, 입술은 붉었다. 영롱한 눈동자에서 총기가 뿜어져 나왔고, 도톰한 볼을 중심으로 얼굴 전체에 미소를 머금고 있어 천박한 모습이라곤 없었다.’⁵⁾

요시카와 삼국지에서의 유비는 상기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 큰 귀를 전면에 내세우는 묘사를 하지 않는다. 얼굴에 대한 세부묘사를 통해 부각된 하나하나의 조각을 합치는 이미지로 구축했다. 큰 귀와 긴 팔이라고 뭉뚱그려진 묘사가 눈썹, 눈, 코, 볼, 입술로 이어지는 초점화 된 묘사로 바뀌면서 독

3) 고우영, 『고우영 三國志』 1, 애니북스, 2017, p.42
 4) 이동연, 『심리학으로 읽는 삼국지』, 평단, 2021, p.18
 5) 요시카와 에이지 저, 장현주 역, 『三國志』 1, 더스토리, 2020, p.17

자들은 유비라는 인물의 외형을 상상 속에서 더 뚜렷한 이미지로 그려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초점화된 묘사는 유비의 영웅성을 행적과 외모에서 모두 두드러지게 했다. 유비를 통해 기존의 삼국지에서 대중이 갈망하던 그저 자비롭기만한 영웅상보다 비범한 영웅상을 더욱 부각했던 것이다.

3. 고우영 삼국지의 유비

고우영 삼국지의 경우는 요시카와 삼국지와는 유비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 고우영 삼국지는 기존의 유비의 이미지인 큰 귀와 긴 팔이 유비라는 인물의 아이덴티티가 되어 등장한다. 특징적인 고우영 삼국지의 요소라고 하면 유비가 긍정적인 묘사를 통해 비범한 인물로 비춰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의 삼국지연의에서 유비에 대한 이미지가 인, 의로 대표되는 선한 군주의 이미지라면 고우영 삼국지에서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언어로 점철된다. 가장 대표적인 문구가 ‘쪼다’이다.



<그림4>6)



<그림5>7)

유비가 ‘쪼다’라고 서술되는 것은 그림 4에서처럼 등장인물의 생각을 통해 언급되기도 하고, 그림 5에서처럼 지문을 통해 언급되기도 한다. 그래서 유비라는 인물을 몹시 저급하고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생각해봐야 할 것은 고우영 삼국지에서 드러난 유비의 묘사가 단순히 과연 유비라는 인물을 부정하고, 영웅성을 끌어내리기 위한 묘사인가라는 점이다. 기존의 논문에서는 고우영의 유비에 대한 묘사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작가 고우영은 유비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어 그의 야심을 조소하고 비겁하고 교활한 인물로 묘사하는데... (중략)’⁸⁾

‘...작가의 조소는 충의의 관념 뒤에 은폐된 유비의 본래면목을 폭로하였다.’⁹⁾

상기의 논문들에선 고우영이 유비를 속이 검은 인물, 비겁한 인물로 그려내며 부정적인 면을 그려내고자 했다고 언급한다.

다만 그에 앞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두 가지 있다. 첫째는 유비가 작가가 자신을 대입한 인

6) 고우영, 『고우영 三國志』 1, 애니박스, 2002, p.45

7) 고우영, 『고우영 三國志』 2, 애니박스, 2017, p.37

8) 崔亨權·朴南用, 「고우영과 천웨이동(陳維東)의 만화 『삼국지』의 인물형상 및 서사전략 비교연구」, 『중국어문학논집』 제76호, 중국어문화회, 2012, p.371

9) 정호응, 「<고우영삼국지>와 <삼국지>의 서사 변환」, 『한국언어문화』 제30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6, p.280

물이라는 점이다. 고우영 삼국지에서 작가가 자신을 대입하고자 하려는 인물이 두 명 등장한다. 한 명이 관우이고 다른 한 명이 유비이다.



<그림6>10)



<그림7>11)

그림 7의 서술은 반어법으로 해학적인 웃음을 위한 장면이지만, 다른 장면에선 속이 검은 것이 마치 누구를 보는 것 같다는 등의 표현으로 유비를 묘사하면서 작가 자신을 병렬적으로 늘어놓는다. 위상으로서의 이입인 관우와는 달리 작가 본인이 유비라는 캐릭터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 그렇기에 표면적으로 속이 검고 비겁한 인물상으로만 비추어질 수 있는 이러한 고우영의 묘사는 실질적으로 유비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를 올리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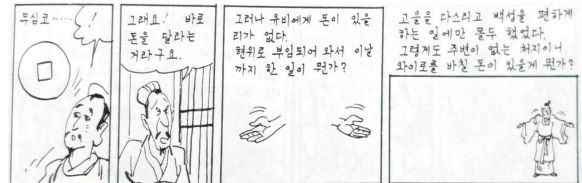
유비는 유교적 가치의 첨단에 있는 인물로 그저 추켜세워진 것으로만 보이기 십상이지만 달리 보면 영웅으로 그려지기 위해 많은 인간성을 상실했다고도 볼 수 있다. 유교적 선의 정점에 있는 인물로 그려지기 위해 실제 역사상의 유비가 이뤄낸 전과들이 상당 부분 다른 인물들로 옮겨갔다. 동시에 유비가 추구했던 야망이나 포부 같은 것들까지도 함께 보이지 않게 되었다. 작가는 이와 같은 것들을 표면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유비의 내면을 표현한다. 이를 속이 검고 비열한 심상으로 묘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작가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가슴에 거대한 야망을 품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누가 선인지 악인지에 관계없이 모든 인물들이 가슴속에 야망을 품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작가의 진정한 의도이다.

유비가 부정적인 인물로만 그려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다른 장면 묘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유비의 몇몇 행동이나 통치 방식 등의 묘사를 살펴보면 전혀 부정적인 인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림8>12)



<그림9>13)

10) 고우영, 『고우영 三國志』 1, 애니북스, 2017, 등장인물(p.7)

11) 위의 책, p.41

그림8에서 언급된 것처럼 ‘그의 흉중에 들어있는 크고 넓은 용지를 누가 짐작이나 할까?’는 유비의 야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이다. 또한 그림 9에서 묘사된 모습을 보면 ‘고을을 다스리고 백성을 편하게 하는 일에만 몰두 했었다.’라고 언급되며 단순히 입신양명을 위한 야망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 유비의 내면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마치 부정적인 요소가 끼어있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실제로 유비의 행적에 대해 서술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점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사항들이다. 따라서 고우영이 조조를 사나이 조조라고 표현하면서 조조의 야망을 높게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비 역시 포부와 야망이 있는 인물로 그리고자 했다고 했다고 봐야할 것이다. 단지 그 묘사 속에 풍자와 해학이 첨가되어 있을 뿐이다.

정리하자면 고우영이 표현하고 있는 유비에 대한 묘사들은 만화의 연재 목적인 재미를 위한 웃음 기제의 하나이며 유비를 단순히 선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 아닌 가슴 속에 큰 야망을 가진 한 명의 인간으로 표현하여 거리두기 서사를 하고자 하는 시도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독자가 한 인물에게 매몰되어 편협한 시각으로 삼국지를 바라보는 것을 막아준다. 또한 삼국지라는 작품이 가진 가치에 대해 기존의 시각과 담론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도록 사고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4. 나오며

유비는 삼국지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인물이다. 작가가 삼국지를 써내려간다고 할 때 어떤 의중과 의도를 가지고 삼국지를 썼는지는 바로 이 유비와 또 다른 인물인 조조에 대한 평가로 인해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시에 인물 묘사와 인물상 조형은 삼국지 그 자체의 재미로 이어진다. 인물들에게 몰입되기 쉬운 작품의 특성상¹⁴⁾, 그 인물들을 얼마나 독자들에게 매력 있는 모습으로 어필하는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상기의 요시카와, 고우영 삼국지 두 작품에 등장한 유비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독자에게 그 매력을 어필하고 있다. 각각의 작품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저마다 다르지만, 시대에 따라 변모해 온 삼국지의 인물 조형방식이 지금까지 작품을 이어지게 만든 요인의 하나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 변모 과정에는 작가의 독창적인 시선과 함께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다. 삼국지는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작품인 만큼 한 시대를 풍미한 판본은 그 당시 시대상이나 사회 분위기, 당시 대중이 추구하던 가치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이기도 한 것이다.

12) 위의 책, p.71

13) 위의 책, p.127

14) 김영준, 「한일 삼국지의 정체성과 영웅성 변용양상 -요시카와(吉川), 요코야마(横山), 고우영 삼국지 비교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2021, p.21

한일수교 이후의 한일 문화교류

나리카와 아야 (동국대)

한국과 일본의 문화교류는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에서 일본 대중문화가 단계적으로 개방되고, 2000년대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인기를 얻어 본격적으로 일본에서 한류 붐이 시작하면서 활발해졌다. 그런데 그 전부터 여러 분야에서 한일 문화인들은 계속 교류를 해왔다. 본 발표에서는 한일수교 이후 한일 문화교류가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965년 6월 22일 한일 양국은 국교 정상화를 위해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한일기본조약)’에 조인했다.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은 51년에 시작했는데 실현하기까지 14년이나 걸렸다. 교섭이 난항을 겪은 이유 중 하나는 식민 지배에 대한 양국의 견해차였다. 양국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음에도 합의한 것은 미국의 의향 때문이기도 했다. 충분히 양국 국민을 설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생각 차이는 지금까지 한일관계의 불씨가 되고 있다.

한일 국교 정상화를 실현한 박정희 정권은 한편으로 반일 민족주의를 이용하기도 했다. 바로 문화교류가 활발해지지 않았던 것은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특히 한국 측에서는 식민 지배로 인해 일본 문화를 강요당한 경험이 있어 거부감을 느끼는 대상이기도 했다. 한국에서 일본 대중문화가 단계적으로 개방되기 시작한 건 98년 김대중 정권 때였다. 한편 일본에서는 한국 문화의 유입을 정부가 막은 것은 아니었으나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건 88년 서울 올림픽 때였다.

협박한 분위기 속에서도 한일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시작한 문화교류도 있다. KBS 일본어 방송(라디오)의 ‘현해탄의 무지개’다.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고 두 달 정도 지난 65년 9월 2일에 방송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뉴스나 문화를 일본에 전달하면서 일본 청취자가 보낸 편지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한일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도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KBS 월드 라디오의 간판 프로그램으로 방송하고 있다. 2000년 방송 1만 회를 달성했을 때는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恵三) 총리가 축하 메시지를 보냈을 정도로 한일 우호의 상징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KBS 일본어 방송은 한국 가요를 일본에 소개하기도 했다. 한국 가요와 영화에 정통한 사토 쿠니오(佐藤邦夫)는 85년 당시 “일본에 한국 노래를 전달하는데 KBS의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방송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¹⁾고 썼다. 사토는 일본에서 패티김의 프로듀스를 하는 등 한국 가수들이 일본에서 활동하는데 뒷받침했다. 77년에 이성애가 일본에서 데뷔한 다음 이미지, 패티김, 계은숙, 김연자 등 잇따라 일본에서 가수 활동을 했는데 특히 인기를 끈 가수는 조용필이었다. 사토는 85년에 일본에서 출간된 책 『기분은 서울-한국가요대전』의 편자로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가수 26명을 소개하기도 했다.

또한, 한일 국교 정상화 다음 해인 66년 두 편의 한국 영화가 일본에서 극장 개봉했다. 신상옥 감독

1) 佐藤邦夫編『気分はソウル 韓国歌謡大全』, 草風館, 1985, 102쪽

<빨간 마후라>(1964), 김기덕 감독 <이 땅에도 저 별빛을>(1965)이다. <빨간 마후라>는 쇼치쿠(松竹), <이 땅에도 저 별빛을>은 토에이(東映)가 배급했다. <이 땅에도 저 별빛을>은 일본인 여성 나가마츠 카즈(永松和)의 수기 『이 땅에도 저 별빛을(この地にもあの星の輝きを)』가 원작이다. 그 후 일본에서 한국 영화가 극장 개봉하는 일은 88년까지 없었다.

한편 한국 문학이 일본에 소개된 건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관련이 깊다. 우선 일본에서 각광을 받은 건 군사정권 하에서 민주화를 주도한 시인 김지하다. 71년에는 주오공론(中央公論)에서 김지하의 작품집 『긴 어둠 속 저편에』가 출간됐다. 번역자 시부야 센타로(渋谷仙太郎)는 『긴 어둠 속 저편에』 후기에 한국 문학을 일본인이 번역해서 소개하는 경우가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나는 이 김지하의 작품을 번역했다”²⁾라고 썼다.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를 비롯해 당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일본 문화인들이 많았다. 잡지 『세카이(世界)』³⁾에서는 73~88년 ‘한국으로부터의 통신(韓国からの通信)’이라는 연재 칼럼을 통해 한국의 정치 상황이나 민주화 운동에 대해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에 전달했다. 당시 저자는 ‘T.K 생(T.K生)’이라는 필명을 썼으나 2003년에 지명관이 저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명관은 93년에 한국에 귀국 후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소장, 한일문화교류회의 위원장을 맡는 등 2022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일 문화교류에 힘을 썼다.

75년에는 잡지 『한국문예(韓国文藝)』가 창간됐다. 한국 문학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소개하는 잡지로 서울의 출판사 ‘소설문예사’가 발행했다. 이 『한국문예』의 발행 겸 편집인 전옥숙은 앞에서 언급한 조용필과 김지하와 친한 사이였다. 그뿐만 아니라 아사히 신문을 비롯한 일본 언론인과의 친하게 지내면서 한일 정치인, 문화인의 가교 역할을 한 사람이다. 영화 감독 홍상수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한국문예』 창간호에는 후루야마 고마오(古山高麗男)가 『한국문예』에 대한 기대를 머리말에 썼다. 후루야마는 아쿠타가와상 수상 작가로 『한국문예』 편집위원을 맡았다. 머리말에는 “사건이 요란스럽게 화제가 되는 것에 비해 문학 교류는 너무나 적었던 것 아닐까”⁴⁾라고 썼다. 그 사건의 하나는 73년 김대중 납치 사건을 뜻하는 것 같다.

전옥숙이 2015년에 세상을 떠났을 때 산케이신문 기자 구로다 가쓰히로(黒田勝弘)는 칼럼에 김대중 납치 사건 때문에 70년대 일본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최악이었던 상황을 언급하면서 “전옥숙 씨는 그런 일본에서 친한파(親韓派)를 늘리려고 고군분투했는데 그 결과 조선총련이나 일본의 친북·좌익 지식인들이 그녀에 대해 ‘KCIA의 공작원’ 등 흉을 보기도 했다”⁵⁾고 썼다. 정말 KCIA의 공작원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조용필이나 김지하 등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국 문화인들을 지원하고 일본에서 『한국문예』를 출간한 일은 한국의 이미지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한국의 이미지가 한층 좋아진 것은 88년 서울 올림픽 때문이다. 80년대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한국 영화가 세계 영화제에서 높이 평가 받기 시작하면서 일본에서 한국 영화가 상영되는 기회가 늘어났다. 일본의 대표적인 영화 평론가 사토 타다오(佐藤忠男)가 열정적으로 한국 영화를 일본에 소개한 것도 크다. ‘아시아영화사(アジア映画社)’ 대표 박병양(朴炳陽)이나 ‘시네콰

2) キム・ジハ『長い暗闇の彼方に』, 中央公論社, 1971, 272쪽

3) 『世界』는 일본 이와나미서점(岩波書店)에서 발행하는 종합 잡지

4) 『韓国文藝』創刊号, 小説文芸社, 1975, 11쪽

5) 『産経新聞』, 2015.07.12, 「玄界灘に「道を開けた」女傑」

논(シネカン)‘ 대표 이봉우(李鳳宇) 등 재일코리안들이 중심이 돼서 한국 영화를 일본에서 배급하기 시작하고, 2000년대 한류 붐에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기도 했다.

김성민은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된 65년 이후의 한일관계를 ‘65년 체제’라고 부르며 “‘65년 체제’의 문화적 성격은 지금까지 한일관계를 둘러싼 논의 중에서 거의 해명되지 않았다” “정치·경제 관계에 대한 논의는 많았지만 거기서 제외된 문화 특히 대중문화의 문제는 거의 공백으로 남겨져 왔다”⁶⁾고 지적했다. 90년대 후반 한국에서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과 2000년대 일본에서의 한류 붐 이후의 양국의 문화 수용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그전 시기의 교류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본 발표에서는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일본 대중문화 개방까지 사토 쿠니오, 전옥숙, 박병양, 이봉우와 같은 한일 문화교류의 가교 역할을 한 사람들에 주목하면서 그 배경의 한일관계와 함께 한일 문화교류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6) 金成玟 『戦後韓国と日本文化—「倭色」禁止から「韓流」まで』, 岩波書店, 2014, 2쪽

GHQ 점령기의 지역공동체 재편과 포스트제국

— 도쿄도 조나이카이 사례를 중심으로 —

金惠淑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1. 서론

1.1. 연구목적

본고의 연구목적은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이하: GHQ) 점령기의 지역공동체 재편과 도쿄도 주민근린조직 조나이카이(町内会)¹⁾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조나이카이의 폐지와 재편, 부활 활동에 관한 논의를 통해 전시기 총동원체제로서 제국의 유제가 포스트제국 출발점과 GHQ 점령기가 맞물린 시기에 조나이카이를 동원장치로 일상생활에 같은 동원장치로 활용한 배경을 밝히는 것이다.

메이지정부(1868년-1912년)는 국민국가의 세 가지 요소인 국민, 주권, 영토 부문에서 외형적 틀을 갖추고 출발하였다. 물론 국민은 신민이고 주권은 천황에게 있는 모순된 형태로 출발하였다. 또한 헌법, 국회개설, 교육칙어, 징병령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중앙집중 권력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서구의 근대국민국가는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고 왕권을 제어해 내부적으로 공화주의의 길을 걸었지만 외부적으로 제국으로서 식민지 쟁탈전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일본도 식민지 쟁탈전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특히 메이지기 말부터 국민국가라는 외피를 입고 제국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국가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생존과 생활을 위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조나이카이를 체제 내화해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즉 마루야마 마사오(丸山雅男)가 강조하는 서구의 자각된 시민에 의한 오르가니제이션(Organization) 부재인 상태에서 위로부터 만들어진 시민조직이 필요하였다.

메이지기 말기와 다이쇼(1912년-1926년) 중기에 걸쳐 도시문제가 나타나고 특히 1904년 러일전쟁부터 제1차세계대전(1914년-1918년)까지 민중소요가 정점을 이루고 있었다. 당시 권력층은 국가체제의 위기에 직면하면서 권력층에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민중, 지방제도로써 자치의 담당자가 필요하였다. 특히 보통선거를 요구하는 운동, 노동운동이 거세지는 가운데 반체제적이지 않고 체제를 흔들지 않고 체제와 연계된 조직이 필요하였다. 다시 말하면, 권력층은 위로부터의 풀뿌리 민중의 조직화를 통해 위기에 대처하려 했다. 또한 1923년 관동대지진을 계기로 지역유지들이 도시재건, 방법을 위해 본격적으로 조나이카이를 결성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조나이카이는 자치적인 것과 행정적인 것이 혼재되어 만들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도쿄 조나이카이 기능이 자치적인 것에서 행정적인 것으로 기울어진 계기는 관동 대지진 후의 구획정리와 오사카에서 시작된 방면위원(현재 민생위원)²⁾ 제도가 도쿄시

1) 조나이카이는 부락회(部落会), 조카이(町会), 도나리쿠미(隣組, 도나리쿠미의 하부조직) 등으로 불린다. 본 연구에서는 조나이카이라고 한다.

에 도입되고부터이다. 이러한 조나िका이의 위치를 다나카 시게요시(田中重好)에 의하면, ‘공사(公私)의 중간적인 것’³⁾이라고 규정하였다.⁴⁾

그러나 일본이 본격적으로 제국의 길로 나선 전시기가 다가오자 조나िका이는 자치적인 것, 개인적인 것은 부정되고 획일화된 행정의 말단조직으로 편입되었다. ‘비국민’을 규정할 수 있는 국민운동의 기반은 물론이고, 물자의 배급업무, 금속회수, 병사 환송회, 국채할당 등 자원동원의 주체가 되었다.

전후 GHQ는 조나िका이가 군국주의 파시즘에 복무했다는 이유로 정령(政令) 제15호에 의해 해체시켰다. 그러나 GHQ를 비롯해 일본 내무성, 후생성 등 권력층에게는 새로운 방식의 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주민조직의 대표적인 조나िका이를 비공식적으로라도 전시기 행정의 말단기구로서 기능과 역할이 다시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해 민생위원, 적십자 활동위원, 문화회 등을 수행할 단체가 필요하였다. GHQ는 주지하듯이 중앙통제를 위해 간접통치로 관료는 추방하지 않고 활용하면서도 미국식의 새로운 시민 조직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공식적인 새로운 조직도 대부분 조나िका이 출신이 담당하였다.

이노구치 다카시(猪口孝)에 의하면, 국가의 지배장치란 일정한 영역 내의 사람의 행동에 일정한 틀을 규정하기 위한 시스템을 가리킨다. 지배장치를 위한 조직은 군대, 경찰, 관료제를 들 수 있다. 특히 국가가 사회로부터 대부분 독립하고 사회도 국가에 의해 침투, 간섭의 정도가 약할 때 지배장치는 적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의 상호작용을 높이려고 하면 지배장치는 많아진다.⁵⁾ 본고는 문제의식은 전시기 총동원체제와 GHQ 점령기에 조나िका이가 권력의 지배장치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일본 정부도 지배층으로 상정해 GHQ와 일본정부는 권력층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또한 조나िका이가 수동적으로 구조와 제도, 문화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압력단체화 하기도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 2장에서는 GHQ와 내무성의 조나िका이에 대한 인식과 3장에서는 조나िका이 부활 과정과 도쿄도 조나िका이의 활동에 대해 살펴본다.

1.2. 선행연구 검토

조나िका이에 관한 연구는 한일 모두 많지만 특히 일본에서는 지방정치, 도시사회학, 행정학, 문화인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선행연구가 많다. 한국에서의 연구로 이지원은 역코스 시기에 일본 지방자치제도 개혁과 그 성격을 다루었다.⁶⁾ 특히 중앙정부가 경찰제도, 교육제도 개혁과 함께 지방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도도부현과 시정촌을 서열화하는 제도개정 과정을 다루었다. 결론으로 시정촌과 조나िका이에 대해 관치로서 직접통제보다는 어느 정도 자치 성격을 인정했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일본에서의 연구로 다카키 소사쿠(高木鉦作)⁷⁾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도쿄도(東京都) 조나िका이가

2) 방면위원은 1917년에 만들어졌고 1929년 구호법실시를 위한 보조기관이었다. 1947년에는 구생활보호법에 의해 보조기관으로 활동하였고 1950년 생활보호법 제정에 따라 민생위원은 시정촌장의 협력기관이 되었다. 蟻塚昌克(2021), 「GHQは民生委員をどのようにみたのか—アーサー・ボツツ文書をめぐって—」, 『立正大学社会福祉研究所年報』第23号, p.93

3) 이러한 중간적인 성격의 조나िका이를 일컬어 ‘중간단체’라고 한다.

4) 田中重好(1990), 「町内会の歴史と分析視角」, 『町内会と地域集団』, ミネルヴァ書房, pp.36-43

5) 猪口孝(1988), 『国家と社会』, 東京大学出版会, pp.65-80

6) 이지원(2016), 「역코스과 일본 지방자치-1956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본 일본지방자치의 성격-」, 『일본학보』 제109권

7) 高木鉦作(1960), 「東京都・区政と町会連合会-行政補助団体の压力団体化」, 『日本政治学会年報』

행정보조역할에서 지방정치에서 압력단체화하는 과정을 밝혔다. 그는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주민의 의사를 표명하는 루트를 조나िका이가 독점하고 지방정치에서 주민의 자유로운 참가를 막는다고 결론 지었다. 구라사와 스스무(倉沢進)는 조나िका이를 자치체와 같다고 여기고 지역이 겹치지 않는 최소단위의 영토권, 회비모금 징수권, 노동력을 징집하는 정부, 지방자치체와 유사한 특징을 갖는다고 하였다.⁸⁾ 또한 나카무라 하치로(中村八朗)는 조나िका이의 특질을 문화형이라는 구조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성원의 의식이나 태도에 따라 조나िका이는 체제유지적으로 되거나 반체제적으로 되고, 정치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 된다고 지적하였다.⁹⁾

아라카키 지로(新垣二郎)는 전후 일본의 지방정치 과정에서 조나िका이의 위치를 선행연구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의 틀로 마쓰시타 게이이치(松下圭一)의 조나िका이 인식을 제시하였다. 마쓰시타는 무라상환(공동체결합기능, 의원배출기능, 행정말단기능)을 고정화, 재생산하는 보수세력의 지역말단조직이고 지역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대치, 변혁해야 할 대상이라고 부정적으로 파악하였다. 전후 조나िका이가 GHQ에 의해 해체된 지 얼마 안 되어 재결성되고, 역코스과 더불어 지역정치에 복구하는 것에 대해 1950년대 ‘전근대적 유제설’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1960년대에는 조나िका이의 압력단체화, 혁신세력의 선거기반 사례를 들어 ‘문화집단설’, ‘자율위장집단설’을 정리하였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조나िका이 자치체설’을 정리하였다.¹⁰⁾ 지금까지 한일의 조나िका이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큰 틀에서 선행연구를 정리해 보면 전근대적유제설과 문화형의 대치이고, 자치적인지와 행정의 말단기구인지의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전시기 총동원체제 시스템이 전후 GHQ 점령기에 조나िका이를 매체, 동원장치로 활용하였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의 의미는 총동원체제 시스템을 제국의 유제라고 보았을 때 전후 포스트제국 경계에 선 GHQ 점령기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다.

2. 조나िका이에 관한 GHQ와 내무성의 인식

2.1. GHQ의 조나िका이 인식

먼저 일본이 항복하기 이전 일본의 점령계획을 살펴본다. 항복 이전 점령계획의 작성주체는 국무, 육군, 해군 3성조정위원회(이하: SWNCC), 참모본부전략국(이하: OSS)이다. 당시의 목표는 비군사화를 단기적인 목표로 하고 민주화를 장기적인 목표로 설정하였다. 군정목적을 위해 일본의 행정기구를 이용할 구상이 지방제도 구상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대일점령관리의 구상에서 개혁보다 활용이 우선시 되었다.¹¹⁾

일본의 패전 이후 GHQ의 조나िका이에 관한 인식을 살펴본다. GHQ 내부에서는 조나िका이 폐지를 둘러싸고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즉 폐지를 재구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일본정부가 지금까지 행한

8) 倉沢進(1990), 「町内会と日本の地域社会」, 『町内会と地域集団』, ミネルヴァ書房

9) 中村八朗(1990), 「文化型とそとの町内会」, 『町内会と地域集団』, ミネルヴァ書房

10) 新垣二郎(2017.02), 「地域政治における町内会・自治会の機能」(上), 『自治総研通巻』 460号

新垣二郎(2017.03), 「地域政治における町内会・自治会の機能」(下), 『自治総研通巻』 461号

11) 吉原直樹(1989b), 『戦後改革と地域住民組織—占領下の都市町内会—』, ミネルヴァ書房, pp.14-15

가장 위대한 조치의 하나다.”라고 하면서 “단절” 또는 “비계승”에 대해 솔직하게 평가하였다. 그러나 정치개혁 측면에서는 “근린조직을 법적으로 공인된 조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지역사회 협동활동에 깊이 침투하였기 때문에...(중략) 공동적인 집단 노력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어서 활용하였다.”라고 하면서 “연속” 또는 “계승”을 논쟁을 의식하였다.¹²⁾

2.2. 내무성의 조나िका이 인식

내무성은 민중을 동원하기 위한 계획에 의해 조나िका이를 대정익찬체제의 하부기관으로 포섭하였다. 조나िका이는 패전 후도 국제호지, 관치지배의 장치로 그 존속이 도모되었다. GHQ는 1945년 10월 2일 민정국 설치 이후 딜톤(C.G. Tilton) 중좌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추진된 일본의 지방제도 현상에 관한 조사, 분석을 계기로 조나िका이 존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동년 11월 4일에 일본 정부에게 근린조직 관계자의 리스트 및 조나िका이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일본정부는 조나िका이 상황을 축소해 보고하였다. 근린조직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자치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해 GHQ의 의향을 회피하려 했다. 조나िका이를 민주적인 ‘근린상호국책협력의 자주적 조직’으로 하는 취지로 ‘내무차관통첩 공동생활’을 1945년 12월 22일에 각 행정의 하부관청으로 보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조나िका이 제도의 본질적인 변혁을 할 의지가 없는 것은 다음의 제90회 제국의회에서의 답변에서도 명확하다. “금후 보편적 목적을 갖는 최말단의 정치적 조직으로서, 자치사무와 더불어 위임사무인 국가의 사무처리에 임해야 할 사명을 지녀야 하고 그 활동을 크게 기대한다” 는 답변에서도 명확하다. 더 나아가 정부는 1946년 9월의 지방제도 개정안에 조나िका이를 중용할 것을 정하고 사무처리도 조나िका이 회장에 맡겨 시정촌이 보수를 줄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자세에 총사령부가 의혹을 갖게 되었다. 1946년 1월 4일 최고사령관 지령 제55호 발표 이래 공직추방 확대 적용을 생각하고 있었던 총사령부는 동년 4월 10일 총선거에서 보수세력이 강세를 보이자 지방공직으로까지 확대한 제2차 공직추방을 실시하였다. 이 구상에 조나िका이 회장도 포함시키려고 했다. 내무성이 반대를 표명하자, 2차 공직추방에 조나िका이 회장까지 추방하는 것은 삼가게 된다. 대신 1946년 11월 8일 공선(일반선거)을 통해 조나िका이 회장을 선출하고, 1945년 9월 11일 이전부터 회장을 했던 사람의 입후보를 금한다는 취지의 추방기준이 공포되었다.¹³⁾

정부는 GHQ에게 선처를 요구했지만 결국 1947년 1월 17일 조나िका이 및 연합회의 폐지를 명령하고 정령 제15호를 공포하였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일본정부=내무성이 전시 중에 조나िका이가 해낸 반동적 역할을 호도하면서 이러한 조직의 존속, 온존을 도모하고 GHQ의 ‘민주화’ 정책을 기피했다는 것이다. GHQ는 조나िका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강력한 지도와 조언은 했지만, 동시에 일본정부 측의 발의를 존중하는 태도를 취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내무성, 관료층의 저항으로 점령군의 정책이 변질되어 갔다.¹⁴⁾ 이러한 정책의 변질 배경은 미국이 역코스로 전환한 것도 있지만 같은 권력층 입장에서 조나िका이를 개혁하기보다는 자원동원 장치로서 활용한 것이다. 활용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12) 위의 책, pp.42-43

13) 吉原直樹(1989a), 「日本の都市町内の歴史的考察—東京における「新」町内会の活動の実体—」, 『町内会の研究』, 御茶の水書房, pp.119-120

14) 위의 책, pp.120-122

일본정부와 GHQ의 노선은 같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조나이카이 부활과 도쿄도 조나이카이 활동

3.1. 조나이카이 부활

우에다 다다이치(上田惟一)는 전후 교토시(京都市) 조나이카이의 부활 과정을 다음과 같이 4기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제1기는 조나이카이 존속기로 1945년 8월부터 1947년 5월까지이다. 이 시기는 패전부터 정령 제15호에 의해 조나이카이가 금지되기까지 시기이다. 제2기는 금지기로 1947년 5월부터 1952년 4월까지 대일강화조약이 발표될 때까지이다. 조나이카이 설립이 금지되었지만 존속·부활하였다. 다만 연합회조직은 폐쇄되었다. 제3기는 부흥기로 1952년 4월부터 1955년까지이다. 정령이 종결됨에 따라 행정측이 조나이카이 장악을 시도하고, 주민측은 연합회 조직을 부활시켰다. 제4기는 변동기로 1965년부터 1973년이다. 조나이카이가 보수적 리더로 있으면서도 고도성장기에 발생한 도시 문제에 대처하는 시기이기도 하다.¹⁵⁾ 여기에서 제2기 금지기에 5년간 조나이카이 대부분은 명칭과 종사자만 교체되었고 실질적으로 존속하고 있었다. 오히려 역코스 시기에 조나이카이는 공식적으로 지역정치의 무대로 복귀하였다. 또한 제3기 부흥기에는 정령 제15호가 효력을 상실한지 불과 3개월 이내에 종전의 조나이카이의 약 80%가 재결성되었다.¹⁶⁾ 이와 같이 조나이카이가 “연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카키 쇼사키(高木鉦作)는 그 근거로 위로부터 ①행정과 주민과의 매개장치로서 조나이카이의 역할이 중시된 점 ②조나이카이가 풀뿌리 보수의 저변을 이룬 것 ③조나이카이가 행정의 ‘종합보완단체’로 중시되고 활용된 점을 들었다.¹⁷⁾

3.2. 도쿄도 조나이카이 활동

도쿄도 구조나이카이 활동은 도시확장과 더불어 지방제도 변화와 함께 신조나이카이 활동을 통해 이어졌다. 1945년부터 1955년까지 주오구 ‘시타마치’, 나카노구 ‘야마노테’, 세타가야구 ‘교외’에 신조나이카이 설립건수를 보면, 지역적 특성의 차이가 있다. 전체적으로 1948년 4월과 1953년에 설립건수가 피크를 이루고 있다. 전자의 시기는 구조나이카이 연합회 구역마다 출장소가 설치되어 구(區)의 선출기관으로 활용되었다. 정령 제15호가 그 효력을 상실한 후 ‘무간섭 방임주의’ 시기를 전후 도시조나이카이의 재편과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구조나이카이에서 신조나이카이의 “연속”을 요시하라 나오키의 세타가야구(世田谷区) 사례연구를 통해 살펴본다. 1946년 10월 15일 현재 구조나이카이 123개와 1962년 1월 현재 신조나이카이 146개를 비교하면, 1962년 1월 현재 조나이카이 가운데 약 42%가 금지기에 결성되었다. 이 가운데 89%가 구조나이카이의 무언가의 형태로 부활하였다. 실제 동일한 조나이카이인데 구역변경에 따라 명칭을

15) 上田惟一(1989), 「戦後における町内会復興の過程—京都市における町内会の復活と変動—『町内会の研究』, 御茶の水書房, pp.105-106

16) 新垣二郎(2017.02), 앞의 논문, pp.105-106

17) 高木鉦作(1959), 「町内会法制化をめぐる問題」, 『都市問題研究』第二巻第六号; 吉原直樹(1989), 앞의 책, p.129; 재인용

변경한 것도 있고 직접 계승된 것도 있다. 이와 같이 구 조나이카이와 신조나이카이와의 사이에는 일정한 “연속”성이 있다. 예를 들면 세타가야구의 구조나이카이가 해산(1947년 3월-5월)될 때 구조나이카이의 재산과 업무를 청년회, 경방단, 공동이해조합 등이 이어받았다. 일반적으로 도쿄에서는 정령 제15호 발효 후 방범, 방재, 보건위생, 일본적십자봉사단 등 최소한도 주민의 공동생활 유지에 필요한 사업을 처리하는 목적을 갖고 친목회, 문화회, 방범(화재)협회 일본적십자봉사단, 위생조합 등의 조직을 설치하였다. 이것이 사실상 조나이카이의 모체를 이루게 되었다.¹⁸⁾

- GHQ 점령기의 일본 적십자봉사단의 활동
- GHQ 점령기의 민생위원 활동

4. 결론

지금까지 GHQ 점령기에 지역공동체 재편과 조나이카이 활동을 살펴보았다. GHQ 점령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위로부터 대일정책의 일환으로 지역공동체는 재편되었다. 이 재편과정에서 GHQ와 내무성이라는 권력층의 이해가 일치되었다.

18) 吉原直樹(1989a), 앞의 책, pp.126-130

1951년의 전회(轉回)

— 스기모리 고지로(杉森孝次郎)와 그 주변 —

全成坤 (翰林大)

1. 서론

1951년 일본은 ‘전후’를 세계사적 흐름과 연결하면서, 독립국가로서 일본의 모습을 고민했다. 여기에는 제국주의자로서 식민지를 잃고 ‘탈식민지’를 이루어내야 하는 전후와 미국제국주의의 지배하라는 피식민지로서의 ‘탈식민지’의 문제가 동시에 출현하는 전후였다. 그것은 세계사적 흐름과의 관계성을 재구성하는 작업이면서 독자적 국가를 구축하는 독자성의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는 식민주의의 유산으로서 탈식민주의의 문제를 보여주는 일본의 전후였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전전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기반에 두면서 아니 오히려 기존의 근거에 대해 재문하는 방식, 다시말해서 세계사로 등장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그리고 민주주의가 가진 ‘이데올로기성’을 폭로하는 형식으로 역사를 객관화하여 세계사와 일본의 관계를 재구성하고자 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유럽에서 분화되어 서구적 ‘이론’ 속에서 파생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변형들을 재고하게 되었고, 그럼으로서 동양의 의미와 ‘세계사적인 흐름으로서 마르크스주의’와 결별하는 형태로 독자적 일본국을 ‘제3의 입장’으로 나아가는데 합리성을 제시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일본은 이중의 탈식민주의 논리를 뒤틀린 형태로 재구성해갔는데, 바로 이것을 각성시켜주는 계기가 1950년대에 숨겨져 있었다. 따라서 필자는 본 글에서는 일본이 만들려고 한 전후의 모습을 ‘세계사적 흐름으로서 형성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어떻게 설명하면서 일본적 특수성을 보편성으로 치환해가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재식민지화라고 명명해 보고자 한다.

식민주의 종주국은 1945년 8월 15일을 두고 패전 혹은 종전이라는 말과 함께 사용했다. 그리고 피식민국가에서 사용되는 ‘아시아해방’은 종주국인 일본에서도 미제국주의에의 예속화라는 말과 다시 만나면서 뒤틀림을 담지하게 되었다. 뒤틀림이 시작되는 전후의 기묘한 기점이었다. 패전은 1951년 시점에서(다카시마 젠야가 논함) <1945년 8월 15일이 일본 전후 역사와 사회의식의 새로운 상황>으로 인지해야 한다는 주장처럼, 패전이나 종전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일본’의 사회의식을 고찰하는 것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45년 8월 15일이라고 날짜를 사용했다.¹⁾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카시마 젠야는 패전이나 종전이 아니라 ‘새로운 일본’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의미를 담아내고자 했다. 왜냐하면 일본의 무조건 항복이라는 냉엄한 사실에 의해 일본인은 전체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대전환이 현실에서 벌어졌고, 이 전환이 대다수의 일본인에게에는 방향전환이 아

1) 高島善哉, 「変貌する戦後日本の社会意識」, 『日本及日本人』 2(4), 日本及日本人社, 1951年, p.59.

나라 새로움을 동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전환은 일본인에 의해 획득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강요된 것’이었다는 의식이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것이 복음(福音)인지 새로운 피식민지로서 미제국주의 산하에 편입되는 것인지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1945년 8월 15일 이후 6년여만인 1951년에 나타난 일본 독립국가론과 세계적 민주주의 국가, 혹은 평화국가라는 세계성을 동시에 마주하는 상황이었고, 여기서 ‘새로운 국가론’을 통해 독립 국가와 미국제국주의에의 종속론을 돌파하려고 시도하는 시기라는 점에도 주목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본의 스기모리 고지로²⁾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자 지식인들이 어떻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민주주의로부터 일본을 떼어내는지를 살펴보고, 전후 민주주의의 수용 속에서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가 전개한 상징전환론의 의미를 탈식민주의 속 식민주의의 문제로 그 내적 특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사노 마나부(佐野学)가 전후 일본 내에서 전개된 공산주의를 ‘러시아적 종속혁명’이라고 간주하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서구적 뿌리를 갖고 잉태된/분화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적 흐름에 대한 재해석 방식을 고찰한다. 즉 서구에서 잉태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러시아로 전이되면서, 다시 러시아적인 사회주의 패러다임을 낳은 것이고, 미국의 민주주의는 ‘미국 풍토에서 재구성된’ 민주주의라는 점을 통해, 역설적으로 서구유럽도 하나의 지역 개념으로 상대화하게 된다. 이를 통해 아시아를 재고하게 되는데, 이는 동양 개념의 내용을 전전과 연결시키면서 다시 전후 일본의 아시아론으로 소환하는 방식으로 전개한다. 그러면서 일본의 독립을 강조하게 되고, 그것은 당시 강화조약을 둘러싼 국제법 해석을 활용한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생각하고 그려내는 ‘세계주의적 세계’ 논리였다. 그것은 ‘강대국과 약소국’이라는 이분법의 논리로 재해석되고, 일본은 아시아의 일원으로서 ‘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을 등장시킨다. 사회민주주의의 개념의 역사에 조명하면서 세계사의 흐름을 주도했던 마르크스주의와의 결별을 통해 일본의 사회민주주의 이론을 구축해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기모리 고지로가 제시한 것이 피트립 소로킨의 『현대의 위기』라는 저서를 소개하게 되고, 전후 일본이 마주한 탈식민주의의 내적 동질성을 이 ‘세계사의 위기성’에서 찾고, 위기 사회가 도래하게 되었는가를 통해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이론을 역조사(逆照射)하게 된다. 이를 준비와 준비의 논쟁을 통과라는 재준비의 논으로 나아가며 시국의 돌파구를 찾는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전전의 파시즘을 비판하면서 새롭게 민주주의 국가 이론 내에서 생활과 민중의 논리를 통해 상징전환제를 주창하게 되는 역설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세계사적 흐름이 잉태된 세계사적 역사를 극복하는 탈식민주의적 논리가 결국 일본 내의 새로운 식민지 지배를 담아내는 논의로 구현된다는 ‘국민 사상’의 창출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스기모리 고지로는 누구인가

스기모리 고지로(1881-1968)는 평론가이며, 정치학자, 사회학자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2) 杉森孝次郎著作目録 松田義男ホームページ 참조.

면, 스기모리 고지로는 시즈오카현(静岡県) 오가사군(小笠郡) 미나미야마무라(南山村)에서 태어났다. 12살에 시로마쓰 로쿠타로(白松六太郎)의 양자가 되었다. 의사 집안을 계승할 예정으로 나고야의전에 진학했지만, 중퇴하고 와세다대학 문과에 입학했다. 이로 인해 다시 구성으로 돌아간다. 1906년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강사가 된다. 이후 문부성특별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독일, 영국에 유학한다. 그리고 도덕적 제국의 원리를 간행한다. 1919년 귀국 후 와세다대학의 교수로 취임했다. 그리고 스기모리 고지로의 동아문화협회특별위원, 국민학술협회 이사 등을 역임했는데 그 사상은 영미철학의 리베럴리즘에 근거하고 니체의 영향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시라야나기 슈코(白柳秀湖, 1884-1950)가 『스기모리 고지론(杉森孝次郎論)』을 집필했다. 스기모리 이외에 시즈오카 출신 작가들과³⁾ 연관성을 보면, 니체의 영향이나 시라가바파(白樺派)의 영향관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과제로 남는데, 스기모리 고지로의 전전에 간행한 저서를 보면 철학 분야 혹은 인식론 분야도 걸쳐 있는 듯 한 인상을 준다.⁴⁾ 스기모리는 패전 후에는 헌법연구회에 참가하여 일본국헌법요강(憲法草案要綱) 작성에 참여한 인물이기도 하다.⁵⁾ 헌법연구회에는 스즈키 야스조(鈴木安蔵, 1904-1983)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⁶⁾, 스기모리 고지로는 전후에 상징천황제를 제창한 인물 중 한 명이기도 하다.⁷⁾ 이 점에서 본다면 스기모리 고지로의 헌법초안에 나타난 민주주의의 이론으로서 ‘국민주권과 의례로서의 천황제’가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의 상징천황론과의 공통점과 이질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기도 한다. 재단법인인문학술 협회, 이사장은 철학자 구와키 겐요쿠(桑木巖翼, 1874-1946)였고, 상무이사로 스기모리 고지로가 있었다. 조직 구성원으로서도 쓰다 소키치도 있었다.⁸⁾

스기모리 고지로는 『일본급일본인(日本及日本人)』에 글을 실으면서⁹⁾ 그 ‘주권의 독립’성을 어필하고 있었다. 쓰다 소키치의 경우는 『세계(世界)』를 통해¹⁰⁾ 천황제론을 발표한다. 물론 이에 대해 비판을 받는 것은 메이지천황의 전제적 위상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간주되기 때문이다.¹¹⁾ 즉 천황을 정부와 동일시한 것이라고 보고, 민중과 황실이 격리된 논조를 쓰다가 비판하기 때문이다.¹²⁾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쓰다의 논리는 민주주의의 논리를 수용하여, 전후 민주주의 국가 논리인 주권재민 입장에서 천황론을 주장한 점이다.

문제는 스기모리 고지로의 일본독자론이나 쓰다의 상징천황론은 집합적 주체만들기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즉, 가미시마 지로(神島二郎)가 ‘상징의 의미’를 해독해 주듯이, 상징은 사람

3) 静岡近代文学研究会編, 『静岡県と作家たち, 近代の文学誌』, 静岡新聞社, 1996年, pp.1-359. 시즈오카현(静岡県)과 인연이 있는 근대 문학자로서는 야마지 아이잔(山路愛山), 다카야마 초규(高山樗牛), 島崎藤村, 杉森孝次郎, 志賀直哉, 白柳秀湖, 北原白秋, 등이 있다.

4) 杉森孝次郎他, 『道徳的帝国の原理(自由文化叢書, 第1編)』, 冬夏社, 1919年. 杉森孝次郎, 『社会人の誕生』, 隆文館, 1922年. 杉森孝次郎, 『社会進歩の純粹原則』, 内外出版, 1924年. 杉森孝次郎, 『社会学』, 早稲田大学出版部, 1927年. 杉森孝次郎, 『國際日本の自覚: 東亞に先進する者の義務』, 理想社出版部, 1937年. 杉森孝次郎, 『新世界秩序建設の書: 歴史哲学の一断想』, 元元書房, 1952年.

5) 衆議院憲法審査会事務局, 「『日本国憲法の制定過程』に関する資料」, 衆議院, 2016年. 雪裏梅華, 「『象徴天皇』の起源(3)—憲法研究会案」, 2013年 06月 11日.

6) 小西豊治, 『憲法「押しつけ」論の幻』, 講談社, 2006年, p.98.

7) 「『皇風萬里』親政を賛美: 象徴天皇制発案の杉森「寄せ書き日の丸」に」, 『中日新聞』 2021年 1月 14日.

8) 日本文化中央聯盟編, 『日本文化団体年鑑』, 日本文化中央聯盟, 1943年, pp.329-330.

9) 杉森孝次郎, 「日本及世界の将来—イデオロギー問題の国内的及國際的解決の先務性」, 『日本及日本人』第2卷第11号, 日本及日本人社, 1951年, pp.86-93.

10) 津田左右吉, 『歴史の矛盾性』, 東洋堂, 1948年.

11) 井上清, 「市民的学者の悲劇—津田左右吉論」, 『世界評論』 4(1), 世界評論社, 1949年, pp.21-29.

12) 子安宣邦, 『『維新』的近代の幻想』, 作品社, 2020年, pp.28-29.

들의 총합으로서 집합적 주체를 만든다. 자신을 하나의 개인으로 보는 행위적 주체를 의식하지 못하고, 집합체를 주체라고 의식/무의식 하는 주체의식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집단적 자아(集團我)에 대한 문제제기¹³⁾였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보아 이러한 집단적 자아 창출이 갖는 전체와 단편의 문제이다. 즉 스키모리 고지로는 세계사의 흐름속 다시말해서 세계사적인 시각을 중시하면서 단편을 시도한다. 스키모리는 피티림 알렉산드로비치 소로킨(Pitirim Aleksandrovich Sorokin)의 『현대의 위기』(1941년), 라스키(Harold Joseph Laski)의 『현대혁명의 성찰』(라스키의 저서는 스즈키 야스조<鈴木安蔵>편에 재구성 된다), 그리고 리브스(Emery Reves)의 『평화의 해부(平和の解剖)』에서 전제된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이들은 모두 굳게 닫힌 장소 속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다”¹⁴⁾에서 출발하고, 그 내용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조직과 일본 민족의 입장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것은 허버트 조지 웰스(Herbert George Wells)의 세계질서 구상으로서 평화론¹⁵⁾이 있지만, 스키모리가 주목한 것은 웰스의 『세계사개요』를 통한 세계사 흐름의 해석이었다. 이 저서의 “단일(單一) 혹은 전일(全一) 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세계 통일에의 노력 분진(奮進)의 예측적 희구적 구상”¹⁶⁾에 대해 초점을 두었고, 세계사 이해는 스키모리 고지로가 단편적으로 일본의 무(無)군비의 대안으로서 재군비를 주장하는 논점으로 나아가게 된다. 마찬가지로 1941년 당시 랑케의 『세계사개관』이 번역되고, 세계사를 통해 일본의 역사를 재론하는 논점이 중첩된다. 바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쓰다 소키치였고, 민주주의라는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일본의 새로운 보편성으로서 천황제를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했다.

이 문제는 평론가 니시다 마사루(西田勝)는 ‘환상의 공동성’ 이론을 상기시킨다. 즉 ‘환상의 공동성은 거짓(いんちき) 공동태(共同態)’와 동일한 것으로 “거짓 공동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폭력이 작용하게 되고, 환상의 공동성과 국가의 폭력은 본질적으로는 동의어이다. 국가는 그 본질 내부에서는 사회의 발전사와는 어떤 관계도 없다. 그것은 그것 자체의 발전의 양식을 갖고 있는 환상의 공동성의 발전이라고 말하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립주의를 논하게 된다. 자립으로부터 자립, 즉 자립으로부터의 해방은 나의 독립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급무”¹⁷⁾라고 논했다. 즉 거짓공동체라는 논리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거짓공동체 논리를 근간에 두고 ‘국가’의 논리를 ‘자립적으로’ 세우는 입장이며, ‘거짓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거짓공동체를 새로 만드는 데 이를 사용하는 쪽으로 해석하는 논리이다. 다른 하나는 거짓공동체로서 국가론을 세우기 위해 비판적/자립적으로 거짓공동체로서의 폭력성을 밝혀내는 쪽이다. 그렇지만, 이 방향들은 모두 ‘거짓공동체’라는 ‘이데올로기’를 근거에 두고 각각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립이 아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주체란 ‘자립론’으로부터의 자립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립론이 갖는 ‘기교’는 곧 국민국가 만들기의 형식이었으며 동시에 국민국가를 비판적으로 상대화 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역설적으로 사용된 ‘세계사 잉태 역사의 해독’은 다시 재역설로 작용해 그 형태를 재규정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13) 神島二郎, 「日本型パーソナリティの形成過程」, 『講座現代倫理6 過去につながる習俗と倫理』, 筑摩書房, 1958年, p.17.

14) エメリー・リーヴス著, 稲垣守克訳, 『平和の解剖』, 毎日新聞社, 1949年, p.79.

15) 淡徳三郎著, 『戦争と自由』, 改造社, 1941年. 外務省調査部, 『世界秩序に関する米英の意圖: 平和機構案の概要』, 外務省調査部, 1942年(エッチ・ジ・ウエルズの人間の権利の宣言書), pp.219-220.

16) 杉森孝次郎, 「日本及世界の将来」, 『日本及日本人』2 (11), 日本及日本人社, 1951年, p.90. H.G.ウエルズ, 長谷部文雄, 阿部知二訳, 『世界史概観』(上), 岩波新書, 1966年. H.G.ウエルズ, 長谷部文雄, 阿部知二訳, 『世界史概観』(下), 岩波新書, 1966年.

17) 西田勝, 「国家の本質について」, 『国家と幻想』, 法政大学出版局, 1968年, pp.179-185. 환상성 공동체는, 『독일 이데올로기』라는 저서를 분석하여,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사용한 용어이다.

3. 스키모리 고지로의 ‘아나로지(analogy)’

3.1. 『현대의 위기』와 『평화의 해부』를 통한 세계사 해독

스키모리 고지로는 피티림 알렉산드로비치 소로킨(Pitirim Aleksandrovich Sorokin)을 ‘세계사의 임계’를 가장 잘 진단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1941년에 간행된 『현대의 위기』를 거론하며, 이 저서는 ‘세계사의 현단계의 도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었다고 평가했다. 즉 소로킨은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인류는 두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이해불가능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고 보았다. 그렇지만 스키모리 고지로는 이러한 소로킨의 논리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세계의 최대 부강국으로서 천하 공식 지식으로서 전승 경험’을 갖는 국가의 경험이며 패전이 아닌 전승국 영국과 프랑스라는 절무(絶無)의 국가 속의 사회학자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논하면서 스키모리 고지로는 이 책의 의미도 부가설명한다.

다시말해서 스키모리 고지로는 소로킨의 논리가 ①세계사의 현단계를 진단하는 최고의 저서인데, 그것이 ②패전국이 아니라 전승국의 사회를 관찰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이 두 가지를 통해 스키모리는 자극과 반성을 제시하게 된다. 먼저 세계사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스키모리는 ‘역사 발전을 보는 비판적 시각’에 대해 소로킨을 평가한다. 즉 소로킨은 공산주의 사상도 새로운 시대적 정신으로서 ‘비판’을 갖는 시각을 제시하는 점은 주목할 만하지만, 스키모리가 보기에 한계가 있었다. 즉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마찬가지로 인생에 경제 이외의 일에 대해 심대한 관심을 끄는 내용이 충분하거나 적극적으로 개안(開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성의 전면적 파악이 결여되어 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는 자본주의가 일부 소수자의 손에 독점되어 지속되는 부(富), 경제적 가치를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의 손에 취하고자 한다고 논하는 점이다. 양자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 편협물이다. 바로 이 점에서 소로킨의 문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을 첫머리에 가져온 이유가 현대는 세계문화사의 대국적 관점에서 보아 하나의 근본적 개혁의 필요하고, 진화적인 내용의 필요성을 강하게 갖는 점에 초점을 두고자 했기 때문”¹⁸⁾으로, 현단계 세계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모두를 비판적으로 보았다. 마찬가지로 리브스(Emerly Reves)의 『평화의 해부』에서 전제된 논리인 “자본주의이든 공산주의이든 이들은 모두 굳게 닫힌 장소 속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다”¹⁹⁾고 보았다.

이를 근거로 스키모리 고지로는 현실을 지탱하는 두 개의 신(神)을 예로든다. 현실은 두 개의 신이 이미 유력한 세력을 갖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두 신은 국민주의와 계급주의라고 보았다. 그런데 이 둘 중 하나를 중시하게 되면 그것은 유일신 사상이 되는 것으로, 결국 이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것으로 ‘선택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것들은 둘 다 신(神)다운 진정한 자격에는 결여되어 있다. 신이란 무엇인가. 올바른 의미에 있어서 신이라는 말은 이상의 하나의 별칭이다. 문제는 그 이상 자체가 올바른 의미에 있어서의 것, 최선의에 있어서의 것이라는 것에 있다. 올바른 이상은 고금래를 통해 유일불역의 것인데, 그것에도 발달은 필요하고 그리

18) 杉森孝次郎, 『日本及世界の将来』, 『日本及日本人』2(11), 日本及日本人社, 1951年, p.87.

19) エメリー・リーヴス著, 稲垣守克訳, 『平和の解剖』, 毎日新聞社, 1949年, p.79

고 현대를 구체적 조건으로서의 그것이 여하한 것이어야 하는가, 이것이야말로 일본급세계의, 이 현재의 순간에 시작되는 장래의 알아야 할, 확인해 두어야 할 최대의 요무(要務)이다.²⁰⁾

4. 민주주의와 쓰다 소키치의 상징천황론

4.1. 천황제와 접속하는 쓰다 소키치의 민주주의 문제

5. 결론: 재근대화라는 전후의 의미

20) 杉森孝次郎, 「日本及世界の将来」, 『日本及日本人』2 (11), 日本及日本人社, 1951年, p.89.

하니 세쓰코(羽仁説子)의 여성해방과 봉건주의*

— 하니 세쓰코의 「여성과 자유」를 통한 ‘문화권력’ 고찰 —

김 경 옥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1. 들어가며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망은 일본 역사상 유례없는 항복으로 일본 국민에게 굴욕적 패배감을 안겨주었다. 전쟁 중의 거짓된 선전·선동과 부정, 의세(擬勢), 폭력 등이 밝혀지며 일본 국민은 형언할 수 없는 허탈과 동시에 전쟁이 끝났다는 일말의 안도감 속에서 정신적 혼돈의 상태에 빠졌다. 한편, 일본의 패망은 전후 새로운 신시대로의 출발이기도 했다. GHQ가 제시한 비군사화와 민주화는 전시 일본의 군국주의와의 단절을 의미했고 일본 여성에게 주어진 부인참정권은 여성해방을 뜻했다.

패전 직후의 정신적 혼돈 상태에서 문예평론가 가와카미 데쓰타로(河上徹太郎)는 1945년 10월 「배급된 「자유」(配給された「自由」)」라는 평론을 통해 GHQ에 의해 돌연히 주어진 ‘자유’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가와카미는 식량부족과 빈곤,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불안감이 가중된 상황 속에서 일본인은 GHQ의 점령 하에 ‘자유’라는 양식을 배급품으로 부여받은 것이라고 밝힌다.¹⁾ 그러나, 이 ‘배급된 자유’라는 표현은 적지 않은 반발을 일으켰다. 여성운동가 하니 세쓰코는 1946년 1월 「여성과 자유」에서 ‘배급된 자유’ 혹은 ‘주어진 자유’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은 자유를 암시장이나 어딘가에서 비싼 금액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나²⁾ 여성을 향해 ‘주어진 자유’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유를 위해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 사람으로 도리어 자유를 액살(扼殺)하려는 사람들과 한 편이라고 일갈하고 있다.³⁾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하니 세쓰코(羽仁説子, 1903~1987)는 근대 일본을 대표하는 유아교육가이며 여성운동가이다. 세쓰코는 일본 최초의 여성 저널리스트이자, 자유학원(自由学園)과 『부인의 벗(婦人之友)』 창립자로 유명한 하니 모토코(羽仁もと子, 1873~1957)의 딸로, 세쓰코 또한 『부인의 벗』 기자와 자유학원 교수를 역임하며 저널리스트로서 활동하기도 했다. 그중에서도 패전 직후 조직된 ‘부인민주클럽’과 ‘민주보육연맹’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녀의 활동은 전후 신시대의 일본 사회에서 세쓰코가 생각하는 자유로운 여성의 주체적 활동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여성과 자유」에서 보여지는 전후 일본 사회에서 여성을 구속하는 봉건적 사고와 봉건주의

* 본 연구는 1946년 1월에 창간된 『세계(世界)』(이와나미(岩波))의 하니 세쓰코가 쓴 「자유와 여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HK+사업단의 아젠다 <포스트제국의 문화권력과 동아시아>와 관련하여 <읽·지식>, <일상·생활>, <매체·문화>의 영역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河上徹太郎, 「配給された自由」, 宇野重規編, 『民主主義と市民社会』リーディングス戦後日本の思想水脈3, 岩波書店, 2016. 2頁.

2) 羽仁説子, 「女性と自由」, 『世界』, 岩波書店, 1946年 1月, 創刊号, 129頁.

3) 羽仁説子, 「女性と自由」, 『世界』, 岩波書店, 1946年 1月, 創刊号, 130頁.

를 제국의 유제로서 파악하고 이를 ‘문화권력’으로 규정한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문화권력’이란 일상 생활 속의 문화적 장이 가진 자율성에 주목한 개념이다. 이 개념은 제도화된 사회적 위계와 구조 혹은 제도화되지 않은 일상의 습속이나 관습, 생활양식, 인식 등 일상의 생활과 현실 속에서 생산, 재생산 되는 문화의 복잡하고 중층적인 부분에 착목한 것이다. 일본 여성을 속박하는 ‘문화권력’은 전후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다. 제국의 패전과 함께 제국일본의 ‘문화권력’은 새롭게 지향된 전후 민주주의 건설 속에서 일견 해체된 듯 보이지만, 일본 여성은 여전히 봉건적 잔재 속에 변형되고 은폐된 ‘문화권력’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이든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었다.⁴⁾

하니 세쓰코의 「여성과 자유」가 게재된 『세계』는 제국일본의 파멸을 눈앞에서 직면한 지식인과 문화인들이 모여 1946년 1월에 창간한 이와나미(岩波)의 종합잡지이다. 『세계』는 패전 직후 아직 “미군이 본토 진주를 하지 않아 국내 일체가 여전히 전쟁 수행 태세인 채, 돌연 정지된 상태”의 혼돈과 불안 속에서 창간되었다. 창간호는 1946년 1월 1일이지만, 준비는 패전 직후인 1945년 9월 말부터 진행되어 12월 중순에 발매를 시작해 당시 약 8만 부가 판매되었다.⁵⁾ 초대편집장 요시노 겐자부로(吉野源三郎)로는 창간호 「발간의 변」에서 “문화의 권위와 자주가 힘차게 회복되어야 한다. 물론 우리는 정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 근처에 도의와 문화의 엄존을 요구한다”고 전후 문화국가 건설을 통한 탈제국을 모색하는 것이 『세계』의 기본적 창간 의도임을 밝히고 있다.⁶⁾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계』의 「여성과 자유」를 통해 하니 세쓰코에게 있어서 제국일본의 유제로서 전후에도 계속되며 여성을 구속하는 ‘문화권력’이란 어떤 의미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전전의 상징인 전근대적 봉건주의적 사상이 전후 일본 사회에서 여전히 ‘문화권력’으로 기능하며 신시대의 여성해방과 어떠한 대치점에서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전후 일본에서 움직이는 ‘문화권력’의 작동원리를 여성해방과 봉건주의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데 본고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하니 세쓰코는 「여성과 자유」에서 여성을 억압하고 구속하는 ‘문화권력’으로 상징되는 제국일본의 봉건주의와의 단절을 통해 탈제국을 모색하고 있다. 그녀는 전후 일본 사회에서 여성해방을 위해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이 될 것과 이를 위하여 봉건적 잔재를 탈피한 완전한 자유의 상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2. ‘배급된 자유’와 부인참정권

가와카미는 1945년 10월에 발표한 그의 평론에서 GHQ에 의해 주어진 ‘자유’를 왜 ‘배급된 자유’란 표현으로 비판을 가했을까. 가와카미에게 비치는 패전 직후의 일본은 그가 겪었던 다이쇼 시대로 돌아간 것처럼 비쳤다. 즉, 한편에서는 좌익 이데올로기가, 다른 한편에서는 스포츠와 영화, 아메리카니즘이 풍미하고 있었고 혼돈스러운 자유주의 사상은 ‘문화 일본 재건’이라는 슬로건 하에서 전후 일본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추구된 다이쇼 시대와는 달리, 패전 직후의 일본은 인위적인 상태에서 GHQ에 의해 주어진 외발(外發)적 자유주의가 전개되고 있고, 그 어중간한 상태에서 벗어나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참 자유는 얻을 수 없다고 설명한다.⁷⁾ 그가 생각하기에

4) 羽仁説子, 「女性と自由」, 『世界』, 岩波書店, 1946년 1월, 創刊号.

5) 이와나미 홈페이지, 검색일 2022년 7월 30일, <https://www.iwanami.co.jp/news/n40100.html>

6) 「發刊の弁」, 『世界』, 岩波書店, 1946년 1월, 創刊号, 5頁.

7) 河上徹太郎, 「配給された自由」, 宇野重規編, 『民主主義と市民社会』リーディングス戦後日本の思想水脈3, 岩波書店, 2016, 9頁.

정치, 군사, 경제 모든 것이 무너진 전후 일본에서 유일하게 남은 문화를 “정치의 도구”이자, “수단”으로 이용하는 패전 직후 일본의 풍조는 그가 추구하는 “도달해야 할 결과”로서의 자유와 정반대의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⁸⁾ 그는 “지금이야말로 모든 문화에 의한 정치공작, 문화단체, 문화사업을 해소해야 할 때” 이고, 지금과 같이 문화계가 신시대의 분위기를 타고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사회적 입장이나 정치적 진영을 떠나 다시 자신에게 돌아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⁹⁾

이에 반해 하니 세쓰코는 GHQ에 의해 부여받은 ‘자유’가 결코 외발적 자유가 아닌 일본 여성이 아시아태평양전쟁기에 흘린 피와 땀으로 얻어진 결과이고, 문화의 옹호자인 여성이야말로 ‘문화 일본 재건’을 위해 자유의 상태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본 여성은 1945년 12월 민주화의 첫걸음으로 선거법이 개정되고 비로소 처음으로 부인참정권을 획득했다. 부인참정권 실현과 여성해방을 위한 일본 여성의 움직임은 여성지식인과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메이지 말기부터 다이쇼기에 걸쳐서 전개되었다. 그중 1911년 히라쓰카 라이초(平塚らいてう)는 문예지 『청탑(靑踏)』 창간호에서 여성해방을 소리높여 주장하고, 1920년에는 이치가와 후사에(市川房枝)와 함께 ‘신부인협회’를 조직하고 ‘부인참정권획득기성동맹’을 결성하여 부인참정권 요구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이러한 운동의 결과로 일본 여성은 정치집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지만, 부인참정권 획득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하니 세쓰코는 여성을 향해 ‘배급된 자유’나 ‘주어진 자유’를 표현하는 사람에게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며 ‘자유’를 획득하기까지 아시아태평양전쟁 중에 일본 여성이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딸로서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을 흘렸는지, 전쟁으로 인해 일본의 여성이 얼마나 잔학한 대우를 받았는지 생각해볼 것을 제안한다.¹⁰⁾

그런데 하니 세쓰코가 언급하는 ‘자유’는 여성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녀는 “자유로운 국민의 자격으로서 부인참정권을 얻은 우리는 이번이야말로 우리 자신의 손으로 부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과 여성이 처한 ‘예속’에 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것을 지적한다.¹¹⁾ 일본 여성이 법률적 지위가 낮고 예속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봉건적이고 전제적 상징인 제국일본의 메이지민법이 여전히 전후 일본 사회에서 ‘문화권력’처럼 공고히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사실은 제국의 ‘문화권력’이 전후 민주주의 건설을 위해 앞장서야 할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여성의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것을 뜻했다. 세쓰코는 메이지민법 하에 놓인 가정에서 여성은 ‘예속’된 존재이고, ‘도덕’의 이름으로 강제되며, 이 예속 상태에서의 ‘해방’이야말로 진정한 여성의 ‘자유’임을 주장한다.¹²⁾

세쓰코는 메이지민법의 ‘부인에 관한 민법 조문 개정’을 통해 여성의 능력을 발휘하고 이로써 일본 전체의 민주화를 지향하고자 했다.¹³⁾ 전후 민주주의와 ‘자유’가 제창되고 있었지만, 제국일본의 ‘문화권력’은 봉건적 잔재 속에 일본 여성을 예속의 상태로 강제화했고, 때로는 ‘가족제도’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도덕’, 때로는 ‘위로와 동정’이라는 미명 하에 일상과 결합하여 은폐를 시도했다. 이에 반대하는 여성은 남성에 대해 반항 혹은 대립하는 것으로 왜곡되어 그 모든 책임은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하니 세쓰코는 지적한다.¹⁴⁾ 그렇다면 봉건적 ‘문화권력’에 예속된 상태란 어떤 것일까. 일본 국민

8) 河上徹太郎, 「配給された自由」, 宇野重規編, 『民主主義と市民社会』リーディングス戦後日本の思想水脈3, 岩波書店, 2016, 6-7頁.

9) 河上徹太郎, 「配給された自由」, 宇野重規編, 『民主主義と市民社会』リーディングス戦後日本の思想水脈3, 岩波書店, 2016, 8頁.

10) 羽仁説子, 「女性と自由」, 『世界』, 岩波書店, 1946年 1月, 創刊号, 129-130頁.

11) 羽仁説子, 「女性と自由」, 『世界』, 岩波書店, 1946年 1月, 創刊号, 131頁.

12) 羽仁説子, 「女性と自由」, 『世界』, 岩波新書, 1946.1, 創刊号, 131頁.

13) 羽仁説子, 「女性と自由」, 『世界』1, 岩波新書, 1946.1, 131頁.

이 전시 중에 묵묵히 전쟁에 협력했던 이유를 봉건적 사고의 책략, 즉 ‘문화권력’의 책략의 결과로 하니 세쓰코는 귀결시킨다. 그녀는 전후에야 비로소 전시 중에 벌인 군벌과 재계의 책동이 밝혀졌지만, 설령 일본 국민이 전시 중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없는 예속의 상태에서는 어떤 언급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일상과 결합한 ‘문화권력’의 위험성을 경고한다.¹⁵⁾

3. 여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변론

‘문화권력’으로 작동하는 봉건적 사고는 구태의연한 노련함으로 때로는 의리와 위선으로 가장한 채 끈기 있게 전후 민주주의 하에서 여성해방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기능한다.¹⁶⁾ 세쓰코는 진정한 여성해방은 자유의 상태에서 출발하며 자유 없이 여성의 독립은 불가능하고, 자유의 상태에서 한 개인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을 수 있기에 ‘독립자존’이란 본질적으로 겸손을 가리키는 것임을 설명한다.¹⁷⁾ 세쓰코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변론은 유아교육가로서의 그녀의 교육관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그녀는 가정교육이란 단순한 예절교육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독립을 위한 ‘생활교육’이어야 하며 아이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성장하고 자주독립하기 위해 가정교육이 근본이 되어야 한다고 그의 저작 『내가 받은 가정교육(私の受けた家庭教育)』에서 강조한다.¹⁸⁾

한편, 세쓰코는 자유와 독립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당시 패전 직후의 혼돈 속에서 바닥에 떨어진 사회도덕이 ‘독립자존’처럼 자유의 상태에서 비로소 ‘자발적’으로 발현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메이지유신 이후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가 주장한 ‘독립자존’의 기풍을 예로 들고 있다.¹⁹⁾ 후쿠자와와는 「나카쓰 유헌의 서(中津留別の書)」에서 ‘일신독립(一身獨立)’은 정신적인 자립만이 아닌 경제적으로도 자립한 상태로, 한 개인의 일신독립을 거쳐 ‘일가독립(一家獨立)’과 나아가 ‘일국독립(一國獨立)’으로 발전하고 일신독립이야말로 그 기본이 되고 있음을 주장한다.²⁰⁾ 여성이 일신독립을 하는 데에 있어 장애가 되는 것은 여성을 억압하고 구속하는 ‘도덕규범’으로 후쿠자와와는 봉건제도의 유구(遺構)로 여성의 예속을 훈계하는 「여대학(女大學)」²¹⁾을 비판하고 있다.

세쓰코는 만주사변과 아시아태평양전쟁 중에 남편을 잃은 일본 여성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봉건적 가족제도의 ‘도덕률’ 안에서 정신적,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고통받고 있었음을 지적하고²²⁾ 이것은 일본 남성에 대한 반항이 아닌, 봉건제의 문제임을 말하고 봉건제에 의한 여성의 예

14) 羽仁説子, 「女性と自由」, 『世界』, 岩波書店, 1946年 1月, 創刊号, 131頁.

15) 羽仁説子, 「女性と自由」, 『世界』, 岩波書店, 1946年 1月, 創刊号, 132-133頁.

16) 羽仁説子, 「女性と自由」, 『世界』, 岩波書店, 1946年 1月, 創刊号, 132頁.

17) 羽仁説子, 「女性と自由」, 『世界』, 岩波書店, 1946年 1月, 創刊号, 135-137頁.

18) 羽仁説子, 『私の受けた家庭教育-羽仁もと子の思出』, 婦人之友社, 1963年, 59頁.

19) 羽仁説子, 「女性と自由」, 『世界』, 岩波書店, 1946年 1月, 創刊号, 132頁.

20) 니시자와 나오코(西澤直子), 김명수 역, 「후쿠자와 유키치의 여성론: 가족론과 근대 일본의 여성해방사상」, 『나혜석연구』 제4집, 2014년 6월, 106-107쪽.

21) 「여대학」은 에도시대의 여자 교훈서로, 가이바라 에키겐(貝原益軒)의 저술을 비롯하여 여러 종의 「여대학」이 출판되어 가정에서의 여자의 종속과 도덕을 설명하고 있다. 메이지기 이후도 여자의 종속과 도덕을 훈계하기 위해 「여대학」을 고등여학교의 수신(修身)교재로서 사용했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신여대학(新女大學)」에서 「여대학」을 봉건적 구 도덕의 상징으로 비판하고 있다.

22) 羽仁説子, 「女性と自由」, 『世界』, 岩波書店, 1946年 1月, 創刊号, 131頁.

속을 거론하고 있다.²³⁾

4. 하니 세쓰코의 ‘자유’와 ‘권리’ 획득을 위한 저항

여기서는 하니 세쓰코가 여성의 ‘자유’와 ‘권리’ 획득을 위해 봉건제에 대해 어떻게 저항하는지 패전 직후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전후, 여성 문제와 관련하여 세쓰코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 곳은 부인민주클럽이다. 부인민주클럽은 초대회장인 미야모토 유리코(宮本百合子)를 비롯하여 세쓰코 등 25명이 발기인이 되어 1946년 3월 16일 간다(神田) 공립강당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본부는 도쿄도 시부야구(東京都渋谷区)에 두었다.²⁴⁾ 창립 직후는 패전의 혼란에 대한 대응과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암시장이 횡행하는 가운데 정상적인 배급운동을 실시하고, 내직(內職) 알선, 수태 조절을 위한 피임 방법 등의 생활옹호운동과 문화운동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세쓰코는 부인민주클럽 활동을 통해 전전으로 이어진 제국일본의 봉건적인 사상과 제도, 관습을 타파함으로써 여성의 전 능력을 발휘해 일본 전체의 민주화를 지향하고자 했다. 그녀가 싸우고자 한 봉건적인 사상과 제도, 관습이란 다름 아닌 ‘문화권력’으로 기능하는 ‘메이지민법’이었음은 앞서도 밝히고 있다.²⁵⁾ 여성의 ‘자유’와 ‘권리’ 획득을 위해 봉건주의와 싸운 세쓰코의 활동은 일상생활과 결합해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구조 속에서 여성을 억압하는 제국의 ‘문화권력’에 대한 도전이자, 저항이었다.

부인민주클럽과 함께 패전 직후의 두드러진 활동으로는 민주보육연맹의 성립과 활동을 들 수 있다. 세쓰코는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와 단체의 적극적 협력과 참여 가운데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보모와 주부의 각성을 촉구하고 전후 일본의 ‘문화국가의 과제’를 보육운동에서 모색하고자 했다.²⁶⁾ 1946년 10월 성립된 민주보육연맹은 전후 일본 최초의 보육운동이면서 동시에 여성과 아동의 권리 획득을 위해 주체적으로 요구하고 실현한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5. 나가키

23) 羽仁説子, 「女性と自由」, 『世界』, 岩波書店, 1946年 1月, 創刊号, 131頁.

24) 일본대백과사전 「부인민주클럽」의 해설에서는 발기인이 23명으로 되어있지만, 부인민주클럽 홈페이지에는 25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井上松子, 土井美代子, 渡辺道子, 加藤静枝, 吉見静江, 櫛田ふき子, 山室民子, 山本杉, 藤川栄子, 赤松常子, 佐多稲子, 宮本百合子, 関鑑子, 羽仁説子, 渡辺多恵子, 鷺沼登美枝, 吉田玉の緒, 谷野せつ, 山室善子, 山本安英, 松岡洋子, 小池初枝, 厚木たか, 定方亀代, 三岸節子, 부인민주클럽 홈페이지 검색일 20220725 <https://fujinminsyuclub.org/about/history/index.htm>

25) 羽仁説子, 「女性と自由」, 『世界』, 岩波新書, 1946.1, 創刊号, 131頁.

26) 一番ヶ瀬康子 編集・解説, 위의 책, 754-755頁.

地球市民教育を目指した日本語教育

— SNAの観点を生かして —

検校裕朗 (極東大)

1. はじめに

教育のグローバル化の進展に沿って、21世紀の知識基盤型社会の中で主体的に生きるための「専門分野以外の汎用性のある技能」の習得や、環境・人権・持続可能な発展などのグローバル 이슈が重要なテーマとなり、現在、多様な国・地域の政治、文化、宗教への寛容さや人権や平和といった価値観を育むためのグローバル・シティズンシップ教育の重要性が意識され、各国で実践されるようになる潮流がある。また、国際社会においてもグローバル・シティズンシップ教育に関する提言が次々になされている。国際NGOのオックスファムは1997年に「グローバル・シティズンシップのためのカリキュラム(A Curriculum for Global Citizenship Oxfam's Development Education Programme)」を提唱し、またユネスコを始めとする国連諸機関がイニシアチブをとり、グローバル・シティズンシップ教育が積極的に推進されている。(北村 2016) (永田 2015) (検校 2022)

本稿では、地球市民教育(GCED:Global Citizenship Education)の定義に触れた後、(検校2022)に続き、教育の1つの分野としての日本語教育の立場から、グローバル・シティズンシップを育てるグローバル・シティズンシップ教育を目指した日本語教育と実践を紹介し、継続的に今後の方向性を模索する嚆矢としたい。

2. 地球市民教育 (GCED:Global Citizenship Education)

2.1. 地球市民とは、Global Citizenの訳語であり、世界市民とも訳される。地球市民としての意識をGlobal Citizenshipの訳語として、地球市民意識と表す。

<表1> 「コスモポリタン型」「アドボカシー型」グローバル・シティズンシップ<原田(2019)>

	概念	主要な論者	中心となる概念
コスモポリタン型	ポリティカル・グローバル・シティズンシップ	カント, ロールズ	個人と国家, 個人と国家以外の政体との関係, 特にコスモポリタンデモクラシーに焦点を当てる
	モラル・グローバル・シティズンシップ	カント, セン, ヌスバウム, オスラーとスターキー	個人と集団の倫理的立場, 人権の理念に最も特徴づけられる
	エコミック・グローバル・シティズンシップ	ハイエク, フリードマン, スミス, ケネー	権力, 資本の形態, 労働, 資源, 人との相互作用に焦点を当て, 国際開発としてしばしば提示される
	カルチュラル・グローバル・シティズンシップ	J. S. ミル, ニーチェ	社会のメンバーを統合しまた分化するシンボル, とりわけアート, メディア, 言語, 科学技術のグローバル化を強調する

アドボカシー型	ソーシャル・グローバル・シティズンシップ	ハーバーマス, フォルク	個人と集団の相互のつながりと「人々の声」のアドボカシーに焦点を当てる。グローバル市民社会に言及
	クリティカル・グローバル・シティズンシップ	エスコバール, サイド, グラムシ, アンドレオッチ, シュルツ	不平等と抑圧から生じる課題に焦点を当て, 社会規範の批判, 特に植民地時代以降のアジェンダを通じて, 土地や家を奪われた人々/サバルタンの生活を改善するための行動を提唱
	環境グローバル・シティズンシップ	ドブソン, リチャードソン	持続可能な発展の課題に呼応する自然環境と人間との関係における挑戦を提唱
	スピリチュアル・グローバル・シティズンシップ	ノディングス	人間関係のうち, 非科学的で計測不可能な側面に焦点を当て, ケア, 愛, 精神性, 情緒的なつながりに関連する功利への関与を提唱

2.2. GCE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地球市民教育)

日本の文部科学省によると、GCEDとは、教育がいかにして世界をより平和的、包括的で安全な、持続可能なものにするか、そのために必要な知識、スキル、価値、態度を育成していくかを包含する理論的枠組みである。Global Citizenshipは2012年9月に国連事務総長が開始した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GEFI)の優先分野の一つに挙げられ、それを契機にユネスコ事務局でも取組を強化した。現在進行中のポスト2015開発・教育アジェンダ策定に向けた議論では、教育の質を向上させるものとしてESDと併記されてターゲットに明記されている。GCEDの目標は、学習者が国際的な諸問題に向き合い、その解決に向けて地域レベル及び国際レベルで積極的な役割を担うようにすることで、平和的、寛容、包括的、安全などの要素を兼ね備え、持続可能な世界の構築に率先して貢献するようになることを目指すものである。具体的には<1.学習者が現実の問題を批判的に分析し、創造的、革新的な解決策を考えることを促す。2.主流の前提、世界観、勢力関係を再考し、制度的に十分に意見が反映されず、軽んじられている人々、グループについて考慮するよう支援する。3.必要な変化を起こすための個人的、集団的な行動への従事に焦点を当てる。4.学習環境にいない人々、コミュニティに属する人々、より広い社会の人々を含む多様なステークホルダーを巻き込む。>の4点をあげることができる。

ユネスコでは、GCEDを2014-2021年にかけて、戦略的に行う事業の一つとして取り入れた。2015年5月に仁川で開催された「世界教育フォーラム1)」にて採択された「仁川教育宣言2030」は、最も最近作られた国際コンセンサスと言える。

2.3. ソーシャルネットワークングアプローチ(SNA)

ソーシャルネットワークングアプローチ(以下「SNA」とする)は、當作靖彦氏により提唱された新時代の言語教育アプローチである。(當作2012,2013a),(當作・中野2012)。SNAは「他者の発見・自己の発見・つながりの実現」を教育理念にし、「ことばと文化を学ぶことを通して、学習者の人間的成長を促し、21世紀に生きる力を育てる」ことを教育目標にする。さらに教育理念達成の為に必要な感性・資質として「寛容性・共感性・他者への尊敬の念・内省力・自尊 感情・自主性・自律性・創造性・柔軟性・責任感」という21世紀を生きぬく資質と能力を育てることを目指している。つまり、SNAは外国語教育を単なる道具としての言語を習得させるものとは捉えず、人間教育の一環として捉え、人間形成と

1) ユネスコが中心となり国連機関(ユネスコ、世界銀行、UNFPA、UNDP、UNWomen、UNHCR)の協力により開催された。

グローバル社会を生きぬく力の育成のためのものだと位置付けているのである。また、SNAは学習目標として総合的コミュニケーション能力の獲得をあげ、具体的な学習目標をのように3領域×3能力+3連繋(スリー・パイ・スリー・プラス・スリー)のマトリックスで提示しているのが特徴である。3領域では「言語・文化・グローバル社会」、3能力では「わかる・できる・つながる」、3連繋では「学習者・他教科・教室外」をキーコンセプトにしている。

2021年4月24日に「SNA交流学習実践研究会(SNA-COIL)」（顧問：當作靖彦、会長：検校）を創立し、韓国日語教育学会第39回国際学術大会で「SNA交流学習実践研究会 創立企画セッション」を行った。韓国日語教育学会ともMOU締結を行い、これから更にSNAによる交流学習、PBL等の教育実践を拡散していきたいと考えている。

3. SNAによる地球市民教育を目指した実践

筆者の勤務校では、毎年夏に日本研修を行い、2004年より、協定先である日本の文教大学を訪問し、体験型・プロジェクト型研修を行っている。数年前より、日本研修として現地を訪問する前に、事前交流として、オンライン交流学習を行っている。2020年度から、コロナ・パンデミックの中、パンデミックペタゴジーとして、全授業がオンライン化されることになった。オンライン授業の中で、それぞれ、同期型・非同期型の授業を行い、事前に映像や資料で自習をした後、教室での活動を行うFlipped learning(反転授業) Blended learning(ブレンド型学習)が行われてきた。その中で、2021年度、2022年度には、すべてオンラインによる2週間の研修を行った。

ソーシャルネットワーキングアプローチ(SNA)、21世紀型スキル学習。

<2021-2022年実践: オンライン交流学習(4-6月)+オンラインプロジェクト型研修(6-7月2週間)>

<実践A> オンライン交流学習(時期: 4月-6月)

目標: 日本の大学生に韓国と自身の大学を紹介し、オンライン上で交流する。

科目: メディア日本語(2年生)、応用日本語会話(3年生)、日本人と日本語会話(教養)(日本語機能総合研究1(4年生))

<LINEでの交流>

1.LINE(Twitter)上にチャットルームを開設し文章で自己紹介を行う。2.自己紹介動画を作成し、LINEに上げ、交流する。3.メディア日本語の授業で行った<CM制作プロジェクト>の成果物であるCM動画をLINE上に上げ、交流する。

<ZOOMによる交流授業>

1.LINEでの交流の後にZOOMによる交流授業を行う。①段階式自己紹介②動画によるキャンパス紹介③実況中継型キャンパス案内

2.日本の代表学生を招いてのグループ討論①ストレス・健康 ②目標・夢

3.日本の代表学生を招いての日韓学生時事討論 ①福島汚染水海洋放出問題 ②「鬼滅の刃」における耳飾りの修正と旭日旗問題

<実践B> 実践Aを終えた後の、2週間のオンライン研修。日本語教育実践としての授業+「コア語」

授業でのゲストセッションとしての交流授業

＜実践C＞2021年2学期＜SDGs日本語討論＞＜SDGsスピーチ日本語＞

日韓学生ディスカッションSDGs2「フードロスと飢餓の矛盾にどう対処するか」

「世界市民の国際開発協力」＜シリア学生とのオンライン交流＞

4. おわりに

今後、地球市民教育(GCED)を目指した21世紀を生きる能力の育成につながる日本語教育のデザイン開発と実践、研究の拡散が願われる。継続して更に努力して行きたい。

◀ 参考文献 ▶ (詳細は当日スライドで)

켄코 히로아키 檢校裕朗(2011), 「세계시민의식 갖춰야 주변국가와 더 긴밀해지죠(世界市民意識を持ってこそ周辺国家と緊密に成れよう)」, 『극동타임즈 제7호(極東タイムス第7号)』, 극동대학교(極東大学校)

韓国日本教育学会(2021), 『일본의 세계시민교육 실천과 방향』, 학지사

檢校裕朗(2022), 「地球市民教育(GCED)を目指した日本語教育の実践」, 『韓国日本学会 第103回国際学術大会 proceedings』, 韓国日本学会

檢校裕朗・長島倫子・東本裕子(2022), 「ソーシャルネットワーキングアプローチ(SNA)によるCOIL型日韓異文化交流学習— Flat Stanley/バーチャル・ホームステイプログラム—」, 『日本語教育研究』 第59輯、韓国日語教育学会、pp.85-104

原田亜紀子(2019), 「グローバル・シティズンシップ教育に関する研究動向」, 『東京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科紀要 第59巻』, 東京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科. 他

ビデオ教材『映像で学ぶキャリアー日韓の学生が 専攻言語を生かすためにー』の全容の報告

松崎真日(福岡大)・磯野英治(名古屋商科大)・検校裕朗(極東大)

1. はじめに

本研究の枠組みは、民間レベルでの相互理解とその質の向上が期待される現代社会において、その社会的要請に応えるための「日韓で学ぶ韓国語専攻・日本語専攻の学生が両地域の架け橋となるためのキャリア支援」である。日韓の学術・文化交流の中心を担っている発表者らが、①その実態を明らかにした上で、②モデルとなるカリキュラムとビデオ教材を開発し、③誰にでも活用可能な形で公開することで、日韓における人材活用の可能性を広げるとともに、日本および韓国に対する社会文化的理解の向上に寄与することを目指している。

これまでに①に関して、日本の韓国語専攻の日本人学生、および韓国の日本語専攻の韓国人学生が就職活動に関してどのような認識を持っているのかについて、その実態と問題点を明らかにし(松崎・磯野・検校2019,2020)、②に関しては当該学生達に対して、どのようにキャリア支援を充実させていくことが必要なのかという点について、キャリア教育や学生の現状の問題点とこれらを解決するための教材制作を取り上げ、理論研究、および教材のシナリオの部分的な公開を行ってきた(松崎・磯野・検校2021a,b)。①、および②は、ビデオ教材の制作に向けた枠組みの構築を目的とする基礎的研究である(同手法で関連する先行ビデオ教材は西郡・磯野2014、磯野・西郡2019を参照のこと)。

本発表の目的は、既述の②および③に関するものであり、日韓の学生が専攻言語を生かした進路を選択できるよう、学部教育の中で当該学生達の意識の向上や情報提供の機会を設けるためのキャリア教育用ビデオ教材『映像で学ぶキャリアー日韓の学生が専攻言語を生かすためにー』の全容の報告である。すなわち、本発表の学術的な意義は、本研究のテーマそのものが萌芽的である中、ビデオ教材(公開準備中)の内容を先駆けて公開・共有することで、理論的枠組みと具体的な内容の可視化を試み、実際にビデオ教材を使用する教員・学習者が、具体的な活用のイメージを持てるようにする狙いがある。

2. ビデオ教材の概要

本ビデオ教材のシナリオを公開するに先立ち、ビデオ教材の構成を示すとともに、概要を説明したい。次の表は、ビデオ教材のコンテンツ構成を示したものである。

パート	タイトル	コンテンツ	時間(分)
1.	オープニング	本ビデオ教材の目的の提示	1
2.	ビジネスの形態	背景としての日韓ビジネスの現況と概念の提示 -B to Bへの着目-	4
3.	日韓の仕事の現場	(1)日本の仕事の現場 ①韓国系企業・貿易(鉄鋼・営業) ②日本企業・人材コンサルティング(人材育成・営業)	20
		(2)韓国の仕事の現場 ①日系企業・玩具(渉外・営業)	15
4.	エンディング	専攻語を生かすキャリアの展望に向けて	1

本ビデオ教材は4つのパートから構成され、各パートのタイトルは「オープニング」、「ビジネスの形態」、「日韓の仕事の現場」、「エンディング」である。各パートの概略を説明すると、第1パートは導入部分であり、本教材の目的を視聴する学生に伝える部分となり、本教材の目的や内容を概観する。第1パートは本教材が何を目的としたものであるかを認識するための設計図に当たる部分となる。第2パートでは、本教材が制作された背景の説明と基本的な概念を提示する。あわせて、日韓のビジネスの現況を示す。第2パートは本教材を理解するための土台を作る部分となる。第3パートは、本教材のメインパートである。日韓の間で働いている両国の社会人に対するインタビューが収録される。本パートの前半はかつて韓国語を専攻し、現在は専攻を生かした仕事に就いている2名の日本人にインタビューした内容で構成され、後半はかつて韓国で日本語を専攻し、現在韓国の日系企業で働いている韓国人1名のインタビューが収録されている。第4パートは、本ビデオ教材のまとめとして、専攻語を生かしたキャリアの展望に目が向く内容となっている。収録時間は、第1パートが約1分、第2パートが約4分、第3パートはインタビューを編集した内容を入れるため計35分、第4パートが約1分の計41分程度になっている。

教材の公開方法と利用方法についてであるが、より多くの学生に活用してもらうことを念頭にYouTubeでの公開を予定している。自律学習および自立学習としての視聴も可能であると同時に、専攻教育の一環として教室での視聴と学習をも想定している。教室での学習や、議論や発表、省察などの材料になりうるコンテンツ構成としている。

3. 映像制作の工程と紹介

映像制作の工程を表で示すと次のとおりである。

番号	工程(段階)	時期	取組内容
1	就職意識調査方法の設定	2019/4~6	対面型/非対面型、質的調査/量的調査、調査機関、調査対象等の決定
2	アンケート項目の選定、アンケート調査サイトの制作	2019/7~8	日韓両言語による調査サイト構築
3	アンケート実施	2019/9~10	調査協力者への依頼
4	調査結果の集計と分析	2019/11	・選択式回答の集計 ・自由記述解答に対する分析
5	ビデオ教材の理論的枠組みの構築	2019/12~ 2020/11	・教材の位置づけと目的の設定 ・内容提示の方法と時間配分の決定 ・公開方法の決定 ・制作協力業者の調査

6	シナリオ執筆	2020/12～ 2021/11	シナリオの草案から完成へ
7	出演者(インタビュー対象者)選定と依頼	2021/12～ 2022/4	インタビュー対象者へのコンタクト、説明、勤務先への依頼状作成と送付等
8	撮影	2022/5～ 2022/8	日本(福岡)での撮影と、韓国(ソウル)での撮影
9	編集	2022/8～9	制作協力会社の支援
10	公開	2022/10～11	協力者の事前確認

本発表では、未公開のシナリオの一部と、同じく未公開の映像の一部を紹介し、教材制作の主要素材を含め、全容を提示する。

4. おわりに

本発表では制作過程にあるビデオ教材『映像で学ぶキャリアー日韓の学生が専攻言語を生かすためにー』(公開準備中)について、その全容を先駆けて公開・共有した。テーマ全体としての核となっている「韓国語・日本語を専攻する日韓の学生のためのキャリア支援研究」そのものは、まだ新しい教育観、手法である。具体的には、YouTube にビデオ教材を公開するが、これは、研究成果を社会に還元するという点で、重要な意義を持つ。世界のどこからでもアクセスすることができ、無料であるので、誰でも活用可能である。以上のように、研究成果をそこだけに留めておくのではなく、自由なアクセスを可能にすることにより、教材として、更に自律学習や自立学習への活用を通して次のステップにつながっていくだろう。今後の課題として、ビデオ教材完成版の公開をオンライン上で行った後には、授業実践の事例を報告していく予定である。

◀ 参考文献 ▶

- 磯野英治・西郡仁朗 監修(2019) ビデオ教材『言語景観で学ぶ日本語』、2017年度～2019年度科学研究費若手研究(B)研究課題番号17K13490「言語景観を教材とした社会文化的理解を目指す内容重視型日本語教育の研究」(研究代表者: 磯野英治)(https://youtu.be/qB0-cSC_yUQ)
- 西郡仁朗・磯野英治 監修(2014) ビデオ教材『東京の言語景観ー現在・未来ー』、東京都アジア人材育成基金(https://www.youtube.com/watch?v=NHV338g_NB0).
- 松崎真日・磯野英治・檢校裕朗(2019)、「日韓の韓国語専攻・日本語専攻学生の就職活動に関する認識」、『韓国日語教育学会2019年度第36回国際学術大会論文集』、韓国日語教育学会、pp.109-112.
- (2020)、「日韓の日本語専攻・韓国語専攻学生の就職活動に関する認識ーキャリア支援の基礎調査ー」、『日本語教育研究』第53輯、韓国日語教育学会、pp.77-93.
- (2021a)、「日韓の言語専攻学生のキャリア教育用ビデオ教材制作の背景と枠組み」、『日本語教育研究』第56輯、韓国日語教育学会、pp.183-196.
- (2021b)、「ビデオ教材『映像で学ぶキャリアー日韓の学生が専攻言語を生かすためにー』のシナリオと制作」、『韓国日語教育学会韓国日語教育学会2021年度第40回国際学術大会発表論文集』、韓国日語教育学会、pp41-44.

【付記】本発表は、日本学術振興会の基盤研究(C)研究課題番号19K02875「日韓の韓国語専攻・日本語専攻の学生が架け橋となるためのキャリア支援に関する研究」(研究代表者: 松崎真日)の助成を受けて行われたものである。

CEFRを用いた日本語文章CDS自動分類システムの 精度改善の試み

里見陸 (静岡大)・宮崎佳典 (静岡大)・谷誠司 (常葉大)

1. はじめに

CEFRは外国語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能力を表す指標であり[1], 国際標準規格として欧米を中心に広く使われている。現在提供されている参照枠は英語を含めて38もの言語に上ると言われている。初期のCEFRは具体的な言語能力レベルを6段階(初級レベルのA1からA2,B1,B2,C1,と続き最上級レベルのC2まで)に設定しており, Reading, Writing, Speaking, Listeningといった技能項目に対して, 対象言語を使って遂行可能なことを能力記述文(Can-Do Statements, 以下CDS)で記述している。これに対し, 2017年にはCEFRを補完するものとしてCEFR Companion Volume[2]が公開され, 言語学習の初学習者向けにA1レベルよりもさらに基礎段階のレベルとしてPreA1レベルが追加された。本研究では母国語話者でも時に難易度が高いC1, C2レベルを除いたA1~B2そしてPreA1レベルを対象に, 4技能のうちReadingに焦点を当てている。

CDSは「できること」を示したものであるが, その内容は抽象的なものが多く, 教育現場で使用される際には各CDSに対応する例文が用いられることも多い。例えば, A1レベルのCDS「身近な話題について日常の定型型の手紙やファックスを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に対し, その具体的な例文「昨年は大変お世話にな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本年もどうぞよろしく願い申し上げます。」のほうが学習者の理解度を測る問題としては利用しやすいと考えられる。

CDSはそれぞれが示す難易度によってPreA1からC2のCEFRレベルに分類されるが, それとは別に下位尺度という指標によって分類することもできる。下位尺度は, そのCDSが示す文章を読むのに必要な能力の種類を表す5つの指標「必要な情報を探し出す」, 「情報や要点を読み取る」, 「手紙やメールを読む」, 「説明を読む」, 「読むこと全般」からなる。例えば, CDS「さらに詳細に読む必要があるかどうかを決定するために, 広範囲にわたる専門的な話題についてのニュース, 記事, レポートの内容と関連性をすばやく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はCEFRレベルのB2かつ下位尺度の「必要な情報を探し出す」に属する。また, 同じCEFRレベルと下位尺度に複数のCDSが属する場合もあり, 同じ組み合わせには1から3個のCDSが含まれる。ただし組み合わせの内B2かつ「説明を読む」に属するCDSのみ存在しない。以下に各CDSがどのCEFRレベルかつ下位尺度に属するかを表によって示す。ただし下位尺度1から5とは, 上記で5つの下位尺度を紹介した際の順番に番号を振ったものである。

日本語教育へのCEFRの活用に関しては日本語のCEFR準拠テキストコーパスが作成されていないこともあり, 現時点において網羅的に研究されている例はまだ少ないと考えられる。平川らは日本語のCEFR準拠テキストコーパス作成時に必要な, 例文にCDSを付与する労力を軽減するための日本語例文自動分類を行うWebアプリケーションを開発した[3]。なお, 扱うCDSは上述のようにA1~B2とPreA1レベルに対応する34個のCDS

<表1> CEFRレベルと下位尺度によるCDS分類表

	下位尺度1	下位尺度2	下位尺度3	下位尺度4	下位尺度5
B2	CDS1	CDS7,8	CDS14	-	CDS22
B1	CDS2,3	CDS9,10,11	CDS15	CDS19	CDS23
A2	CDS4,5	CDS12	CDS16,17	CDS20	CDS24,25,26
A1	CDS6	CDS13	CDS18	CDS21	CDS27
PreA1	CDS28,29	CDS30	CDS31,32	CDS33	CDS34

としている(B2レベルの1個は読解能力よりも語彙力を重視しているため除外している)。

また、最新の先行研究[4]では自然言語処理モデルとしてBERT[5]を用いることでCDS分類の精度を高める試みを行っており、その方法による推定の精度は後述する。

2. 採用する特徴量と従来のCDS分類手法

本研究では従来の研究[6]において使用されている4つの特徴量「文書タイプ」、「専門性」、「文長」、「漢字率」を採用する。文書タイプは新聞記事、公的文書などといった文書の種類を表す。専門性は文書が日常的か専門的に応じて区別するものである。文長では例文の文字数、語彙数、文数、改行数を取得する。最後の漢字率は例文中の漢字の割合とJLPTの5つのレベルに定義される漢字の出現数ならびに出現割合を計算する。

従来の研究では、PreA1レベルは従来のレベル群(A1～C2)との難易度やその特徴に大きな差があると考え、先にPreA1レベルと従来のレベル群を上述の4つの特徴量によって2値分類した後、その各群に対してCDS分類を行うという階層的CDS分類を実装した。A1～B2レベルのCDSとPreA1レベルのそれでは利用する特徴量を差別化し、A1～B2レベルに対する分類では文書タイプ(7種類)、専門性、文長、漢字率が採用されている。一方PreA1では、文書タイプ(4種類)、文長、漢字率、数字の個数を用いる。文書タイプと専門性の計算方法については[3]を参照されたい。文長、漢字率、数字の個数は形態素解析エンジンMeCabを用いて計算されており、抽出したデータを数値化し、データセットに入れたものを分類モデルに渡し、予測結果を出力させる。

上述の分類方法(CEFRレベルによる2値分類を行った後、各群のCDSの推定を行う)は、CEFRレベルでの2値分類と、CEFRレベルと下位尺度を内包するCDSの推定に同様の特徴量を用いる点で疑問が残る。そこで本研究では新たな分類方法として、まず文章のCEFRレベルと下位尺度を推定し、それらの組み合わせによりCDSを推定するという方法を適用する。

用いるデータはCEFRの知識を有する日本語教育経験者10名から収集した555文の日本語例文であり、これらはそれぞれ1つあるいは複数のCDSが割り当てられたマルチラベル情報付きの例文である。A1～B2レベルは1つのCDSにつき約15文あり、計406文を使用する。PreA1レベルは1つのCDSにつき約20文であり、計149文が準備された。しかし、A1～B2レベルの例文とPreA1レベルのその収集は2度に分けて行われたため、当初A1と分けされたがPreA1により相応しいと考えられる例文が存在し、[4]では再調整が必要と判断された結果、A1～B2レベルの例文として384文、PreA1レベルの例文として171文を新たに割り当てた。

3. 提案手法

3.1. 実験の概要

上述の新たな分類方法の推定精度を従来の分類方法と比較するため、新たな分類方法が適用された自動分類システムを構築する。

特徴量は従来の研究[6]と同じく文書タイプ、専門性、文長、漢字率の4つを用いることとする。これらはCEFRレベルの推定、下位尺度の推定のどちらにも全て用いることとし、CEFRレベルと下位尺度の推定はいずれもマルチラベルを認める。例文も従来と同じマルチラベル情報付の例文555文を用いることとし、10交差検定によって得られたテストデータである例文を入力とした際の推定結果を、実際のテストデータと比較することで精度を得る。機械学習のアルゴリズムも同様に、従来の研究と同じランダムフォレストを用いる。

CEFRレベルの推定結果と下位尺度の推定結果からCDSを推定する方法としては、その組み合わせに属する全てのCDSが推定されたものとして割り当てることとする。つまり、推定にマルチラベルを認めているため、CEFRレベルと下位尺度がそれぞれ2つずつ推定されたなら2×2の4つの組み合わせが推定されたことになり、さらにそれらの組み合わせに属するCDS全てが割り当てられることになる。

3.2. 実験結果

まずは、CEFRレベルと下位尺度の分類器をそれぞれ作成し、それぞれの推定の精度を確認する。精度としては、適合率と再現率、そしてその調和平均であるf値を算出することとする。

<表2> CEFRレベル, 下位尺度分類器の精度

	適合率	再現率	f値
CEFRレベル	79.7%	85.2%	82.4%
下位尺度	72.4%	70.2%	71.3%

次に、割り当てられたCEFRレベルと下位尺度それぞれからCDSを割り当てる分類器によって推定の精度を確認する。こちらも精度として適合率と再現率、そしてその調和平均であるf値を算出する。以下に[6]における従来の分類方法による精度と本研究での分類方法による精度を示す。また、1節にて述べた先行研究[4]における推定の精度も併記する。

<表3> 従来の分類方法と本研究の分類方法の精度

	適合率	再現率	f値
[4]による分類方法	46.9%	71.2%	51.3%
[6]による分類方法	50.6%	60.5%	55.1%
提案分類手法	33.3%	56.0%	41.8%

以上のように従来の分類方法の方が適合率、再現率共に高い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適合率が低い理由としては、今回の実験において、推定されたCEFRレベルと下位尺度の組み合わせに属する全てのCDSを推定

結果として割り当てたため、最終的に割り当てられるCDSの数が正解データに比べて多くなってしまったことが挙げられる。また、再現率が56.0%となった理由については表2のCEFRレベルと下位尺度の推定それぞれの再現率から推測できる。CEFRレベルの再現率が85.2%、下位尺度の再現率が70.2%であり、テストデータにおいて割り当てられているCDSが推定でも割り当てられるにはそのCDSのCEFRレベルと下位尺度の両方が割り当てられ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よってCDS分類のCDS推定の再現率はCEFRレベルと下位尺度の再現率の積から推測でき、その値は約59.8%でありCDSの再現率56.0%に近い。よってCDS推定の再現率が従来の分類方法より高くなるにはCEFRレベルと下位尺度の再現率が低いと言えると考えられる。

4. まとめと今後の展望

本発表では、新たな分類方法としてCEFRレベルと下位尺度をそれぞれ推定した結果の組み合わせからCDSを推定する方法を提案し、その精度を従来の分類方法による精度と比較した。結果としては従来の分類方法の精度を上回る結果は得られなかったが、従来の分類方法の精度を上回るために考えられる変更点や改善点は得られた。

今後の展望としては、まず上述のCEFRレベルと下位尺度の推定結果からCDSを推定する方法を検討することが挙げられる。考えられる方法としては、各CEFRレベルと下位尺度の組み合わせについて、複数のCDSが属するものについてはその組み合わせ内のCDS分類をさらに機械学習で行うというものが挙げられる。例えば、表1よりCEFRレベルB1かつ下位尺度2の組み合わせに属するCDSは3つあるため、この組み合わせに属する3つのCDSを対象とした推定をするようにすれば、1つの組み合わせに対して機械的に全てのCDSが割り当てられてしまう事による適合率の低下は少なくとも防ぐことができると考えられる。

◀ 参考文献 ▶

- [1] Council of Europe: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Learning, Teaching, Assess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2] Council of Europe: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Learning, Teaching, Assessment Companion Volume with New Descriptors, (2017).
- [3] 平川 遼汰, 宮崎 佳典, 谷 誠司, 日本語例文自動分類によるCEFR読解指標推定支援Webアプリケーションの開発, 情報処理学会第80回全国大会, pp. (4)-635-636 (2018).
- [4] CAO HOAI GIANG, 宮崎 佳典, 谷 誠司, 安 志英, 元 裕環, CEFRに対応した日本語例文自動分類システムのBERT適用による精度改善の試み, 韓国日本學會第102回國際學術大會, pp. 38-42 (2021).
- [5] Jacob Devlin, Ming-Wei Chang, Kenton Lee, Kristina Toutanova. BERT: Pre-training of Deep Bidirectional Transformer for Language Understanding. In North American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2019.
- [6] Vuong Hong Duc, Huynh Nguyen Tra My, Y. Miyazaki, S. Tani, A Pilot Study to Infer CEFR Can-Do Statements Based on a Japanese Document Classification Method Including the Pre-A1 Level, Proc. of 9th International Congress on Advanced Applied Informatics, pp. 294-297 (2020).

일본 애니메이션 속 역할어

— 아루요코토바(アルヨことば)를 통한 의미분석 —

林 到 映 (濟州大 大学院生)

1. 들어가며

누구라도 한번쯤은 ‘~한다해’와 같은 말을 들어본 경험은 있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의 국적을 묻는다면 대부분은 ‘~한다해’는 중국인이라고 답하겠지만, 실제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중국인을 접한 적은 없을 것이며, 소설이나 만화 등 창작물을 통해 체험했을 것이다.

일본의 인기 애니메이션 ‘은혼(銀魂)’에는 ‘카구라’라고 하는 중국인 캐릭터가 등장한다. 작가는 해당 캐릭터가 중국과 관련된 인물임을 표현하기 위해 중국 전통 복장인 치파오를 입히고, 이하와 같이 매우 빈번히 「~アル」를 문말마다 사용하도록 한다.

(1) 킨토키: 俺がせっかくタダで故郷に帰る方法を教えてやろうと思ったのに。

경관A: いや、強制送還はタダではないよ。

카구라: まったくアル。そんな不名誉な帰国ごめんこうむるアル。

킨토키: 選んでる立場か。

카구라: いざとなれば、船にしがみついて帰るアル。

金水(2003:205)는 특정 말씨(어휘·어법·표현·인토네이션 등)를 듣고 특정 인물상(연령·성별·직업·계층·시대·용모·성격 등)을 떠올릴 수 있을 때, 혹은 특정 인물상이 제시될 경우 그 인물이 사용할 거 같은 말투를 떠올릴 수 있을 때, 그 말씨를 ‘역할어(役割語)’라고 부른다. 본 발표에서는 「~アル」 즉 아루요코토바(アルヨことば)가 애니메이션 ‘은혼’ 속에서 역할어로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金水(2003:178)는 아루요코토바(アルヨこと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1.文末述語に直接「ある」または「あるよ」(断定)、「あるか」(質問)が付く。まれに「あるな」などもある。ヴァリエーションとして、「あります」が付くこともある。
- 2.文末述語に「よろしい」を付けて、命令・依頼を表す。
- 3.助詞「を」(ときに「が」も)しばしば省略される(例「酒Φのむあるか」)。

1,2のような文法は、本来の日本語にはないもので、一種の「ピジン」(pidgin)と呼ばれる言語の特徴を示している。ピジンは、貿易港、居留地、プランテーションなどの集まった異なる言語の話者が、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必要から作り出した混成的な言語のことで、リング・フランカ(lingua franca)というの似た概念である。ピジンの特徴として、もとの言語の文法が変形され、崩壊し、また単純化されることが挙げられるが、<アルヨことば>の場合は、日本語の豊かな述語の活用や助動詞群を極端に単純化し、「ある(よ・か)」の付加で代用しているのである。

그리고 西廻(2014)는 金水가 주장한 아루요코토바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표1> 아루요코토바의 특징

	출현위치	의미	예
アル	문말(文末)술어에 붙음	단정 질문	ある・あるよ あるか・あるな
ヨロシ	문말(文末)술어에 붙음	명령 의뢰	よろし
조사의 소거	문장의 중간		を・(が) 酒のむあるか

西廻(2014:177)가 제시한 아루요코토바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一人目のキャラクターは高橋留美子作「らんま1/2」(1987~1996年 少年サンデー連載)に登場するジャンパーである。

(1) このまま二人で遠くへ逃げてデートするある。(7 卷:54)

(2) 乱馬、ちょっと来るよろし。(5 卷:93)

ジャンパーはアルヨことばを話し、「よろし」も使っている。アルヨことばの台詞にまず注目する。(1)は先行研究の例に挙げられていた通り、文末述語に付いておる。…(중략)…(2)의「来るよろし」は「来てください」と言い換えることができ、これは「よろし」が持つ意味の、依頼に当てはまる。

金水(2003:175)가 아루요코토바의 예시로 사용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父鶴天: こ / こんにちは / わたしたち / こんどひっこちてきた / 摘一家ある / よりちくね
娘鶴燐: ひっこしソバあるね

石剛(2005)는 일본어와 만주의 협화어(協和語)¹⁾로서 아루요코토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桜井(2012)는 협화어의 다양한 표기를 분류하고, 협화어와 피진의 관계를 사회언어학적으로 바라보았다. 아루요코토바의 분석은 협화어의 일종으로서 다루지거나, 張守祥(2011)의 연구와 같이 역사속에서

1) 협화어란 일본의 괴뢰국인 만주국의 건국초기에 사용되었던 간이 일본어를 말한다. 중일합작어(中日合弁語), 일만친선어(日滿親善語), 일만어(日滿語), 일본식 만주어(日本製滿州語) 등으로도 불렸다. 협화(協和)란 용어는 만주국의 슬로건인 오족협화(일본인, 만주인, 중국인, 조선인, 몽골인의 협동과 화합)에서 유래하였으며, 주로 일본어를 모르는 한족 및 만주족이 사용했다. 사용자의 모어인 중국어의 단어도 섞여 있으며, 중국어의 특징에 영향을 받아, 조사나 어미변화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다(桜井2012:5)

협화어의 여러 등장 모습 중 조동사의 일종으로서의 「アル」로만 바라보는 경우로 연구되었다. 또한 西 廼의 연구에서는 아루요코토바의 특징을 단순화하여 4가지의 분류로 압축하고 있다. 현재 협화어나 아루요코토바를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고,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다. 그렇기에 현재 나타나는 아루요코토바의 양상은 과거 협화어의 일종으로 보여졌던 모습과는 차이점이 나타날 것이다. 또한 역할어의 일종으로서 어느정도 스테레오타입이 굳어졌고, 창작에서 사용하는 계층이 젊은 계층이기에 일정할 형식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루요코토바의 사용양상을 金水(2003)의 특징분석과 대조하여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언어적 특징을 기술하고자 한다.

3. 조사자료 및 방법

애니메이션 ‘은혼(銀魂)’ 속 중국인 캐릭터 카구라의 발화를 초점을 두어 「~アル」의 사용실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를 위해 은혼 1기분의 동영상파일과 자막파일을 자료 삼아 孫榮爽(2010)을 참조하여 Microsoft Office Excel로 멀티미디어 코퍼스를 작성하였다.

멀티미디어 코퍼스란 언어뿐만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는 장면의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참조할 수 있는 코퍼스로, 이를 이용하면 특정한 단어를 누가 누구를 향하여 어떠한 표정 및 동작과 함께 발화했는지, 혹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단어가 발화되었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4. 분석

아루요코토바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카구라의 발화 중 アル의 사용 비율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독립어 문장(「もしもし」「そうです」 등)을 제외하고 카구라가 발화한 문장의 약 60%(355/584)에서 アル가 관찰되었다. アル와 연결된 선행부를 품사별로 정리하면 <표2>와 같다.

<표2> アル의 사용 비율

	アル가 사용된 경우	アル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
동사	40% (143/355)	46% (105/229)
명사	37% (133/355)	21% (48/229)
형용사	21% (74/355)	31% (71/229)
부사	1% (5/355)	2% (5/229)

전체 문장 중 동사와 연결된 경우가 4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명사, 형용사, 부사 순이었다. 알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명사 술어 문장의 빈도가 높았으며, 반대로 형용사 술어 문장의 빈도는 낮았다. (2)~(5)는 각 문장의 예시이다.

- (2) 酢昆布だけの青春を過ごせとも言うアルカー。
- (3) ほとんど何にもやってない屋アル。
- (4) 銀ちゃんの手え汗ばんでて気持ち悪いアル。
- (5) そうアルヨ。ぶらぶらアルヨ。

金水(2003)는 アル가 쓰이는 문장에서 アル가 나타내는 의미를 ‘단정 및 질문’으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조사 결과, 단정 및 질문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도 관찰되었다. (6)~(10)은 각 문장의 예시이다.

(6) 동의

긴토키: 何だよ。使えね一車だな。
 카구라: ホントアルヨ。今時カセットかけられないなんて。

(7) 동의

긴토키: オイオイ、またターミナルからえいりあん侵入か?
 카구라: 最近多いアルネ。

(8) 명령

카구라: ウフアハハッ ウフフ 定春。
 사다하루: ン、アンアン。
 카구라: こっち来るアルヨー。

(9) 명령

카구라: 新八一。もう少しの辛抱アル。気張りやああああーうりやああああ。
 악당A: 何じゃこのガキい。
 카구라: ウハハハハハッ。暴走族がなんぼのもんじゃ。こちとら人生という道を暴走しとんじやい。
 카구라: 格の違いを見せたれ、銀ちゃん。

(10) 의지

긴토키: もう、何かだるいのであった。
 타에: だるいって言うな。
 카구라: 姉御、こんな無気力な奴には無理ネ。私がやるアル。

이들 문장에서 アル는 です 대신 사용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동의 및 명령 등을 나타내는 표현과 연결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특징적이다.

5. 마치며

선행연구에서 アル의 의미 용법이 단정과 의문으로 결론지었는데, アル의 의미 안에는 단순히, 단정과 의문뿐만 아니라 동의 및 명령 등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유적으로 보면 단정과 의문의 비중이 높지만,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없애버리는 것은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에게 일반화의 오류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역할어는 그 존재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는 언어표현이다. 그렇기에 중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

다양한 계층 사람들의 모습도 표현할 수 있다. 지금 미디어 매체에서 사용되는 역할어는 과거에 특정 계층이 사용되었던 언어표현이 변질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이 코믹하게 캐릭터의 계층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오늘날 역할어를 연구할 때는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가는 것보단 현 젊은 세대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나가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 金水敏(2003), 『ヴァーチャル日本語 役割語の謎』, 岩波書店, pp.1-225.
桜井隆(2012), 「満州ビジョン中国語と協和語」, 『明海日本語』 17, pp.1-5.
石剛(2005), 『日本の植民地言語政策研究』, 明石書店, pp.90-92.
孫榮爽(2010), 「マルチメディア・コーパスの構築と活用—表現行動の計量的研究のために—」, 『阪大日本語研究』 22, pp.65-90.
西廻安寿未(2014), 「アルヨことばは中国人キャラの代名詞アルー役割語とそのサブタイプ—」, 『英米文學英語學論集』 3, pp.170-174.
張守祥(2011), 「『満洲国』における言語接触—新資料に見られる言語接触の実態—」, 『人文』 10, pp.63-66.

교환유학이 한일교류에 미치는 영향

— 일본인 교환학생들의 인터뷰조사를 통한 고찰 —

金美連 (日本大)

1. 서론

OECD의 조사에 의하면 전세계 유학생수가 1980년의 110만명에서 2012년의 450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에 비해 일본의 해외유학생수는 2004년에 8만3천명을 기록한 이후 감소추세에 있다. 특히 가장 인기가 있었던 미국유학의 감소경향은 현저한데 그 원인이 일본인들의 소극적이고 안정지향적인 성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에 위기의식을 느낀 일본정부와 대학들은 글로벌인재양성을 위해 재정을 투자하며 국제교류프로그램의 개발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1개월 미만의 유학이 많이 증가하게 되었고 그것을 반영한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일본인 대학생들의 해외유학은 2000년대에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고 보고한다. 2018년도(2018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에는 115,146명에 이르며 가장 피크에 달하였다. 그러나 2019년도에는 연도말에 코로나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107,346명으로 조금 감소되었고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유행한 2020년도에는 1,486명으로 급격하게 줄게 되었다. 그로부터 2022년 현재까지 일본의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교환유학이 중단되었다.

본 연구는 일본대학생들의 교환유학이 단절된 상태에서 코로나 이전의 한국교환유학을 재고하며 한국유학이 한일교류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1년 코스로 한국에 교환유학을 갔다 온 12명의 일본인 학생들의 인터뷰조사와 사후 관찰조사를 근거로 교환유학의 의의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유학은 주로 언어와 선진기술, 지식의 함양이라는 교육적 시점에서 그 의의가 부각되어 왔으며 근년에는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오고 있다. 유학이 국제교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관해서는 별로 연구된 바가 없다. 본 연구는 교환유학을 경험한 일본인들의 의식의 변화를 파악하고 교환유학이 한일교류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본론

2.1. 한국유학의 동기와 특징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1년간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다녀온 12명의 일본인 대학생들이다. 조사대상자들은 시즈오카현에 있는 대학교에 재학중이었던 학생들이었는데 선발시험에 통과되어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협정대학교에 1년 코스로 유학을 갔다 왔다. 인터뷰는 유학을 마친 후 6

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한국어로 진행되었다. 조사방법은 반구조화인터뷰로 미리 작성된 조사지를 근거로 행하여졌으며 한 사람당 1시간에서 1시간 30분 가량 소요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터뷰조사에 바탕하면서도 인터뷰 후에도 SNS로 연락을 취하며 행한 추가조사를 포함하고 있다. 1년간 교환학생으로 선발되는 경우는 매년 소수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조사가 되었음을 밝혀 둔다. 6개월 이하의 유학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1년 정도 있어야 어느 정도 한국생활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사대상자들의 기본정보는 표1과 같다.

<표1> 조사대상자들의 기본정보

	성별	유학시기	한국어 학습동기	유학동기	유학후 한국어능력
사례1	여	2015.2~2015.12	고1때부터 K팝, 드라마 좋아함	한국어 습득과 한국인과의 교류를 위해서	토픽6급
사례2	여	2015.2~2015.12	고1때 제2외국어로 한국어 선택. 그 후 K팝 좋아함	영어와 한국어를 다 배울 수 있고 경제적 부담 적어서	토픽6급
사례3	남	2015.2~2016.1	좋은 학점 받기 위해	한국어 습득	토픽6급
사례4	여	2015.2~2016.1	부모님 권유	한국어 습득과 해외생활을 경험하고 싶어서	토픽4급
사례5	남	2015.3~2016.1	한국인 친구가 생겨서	한국인 친구 만나고 싶고 행사 때 통역을 하고 싶어서	토픽4급(유학중)
사례6	여	2015.2~2016.2	한국드라마 좋아하시는 어머니와 같이 학원에 가게 됨	해외에 관심이 있는데 한국은 싸니까	토픽5급
사례7	여	2016.2~2016.12	중학교때부터 K팝 좋아함	해외유학을 가고 싶는데 경제면 고려해서	토픽6급
사례8	여	2017.2~2017.12	대1때 한국연수에 참석하게 되어 관심 갖게 됨	한국문화에 관심이 있고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어서	토픽4급
사례9	여	2017.2~2017.12	초등학교때부터 K팝, 드라마 좋아함	한국어 습득(한국에 유학가기 위해 대학에 들어옴)	토픽4급
사례10	여	2018.2~2019.1	초등학교때부터 K팝 좋아함	한국어 습득	토픽4급
사례11	여	2019.2~2019.12	어렸을 때부터 드라마 좋아함. 고등학교때 K팝 좋아함	한국어 습득	토픽5급
사례12	여	2019.2~2020.2	어머니가 드라마 좋아하시고 본인도 한국음식이나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해외유학을 가고 싶는데 영어권은 어려우니까	가기전에 토픽4급. 유학 후에는 안 봄

표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어 학습동기로 K팝이나 드라마를 드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본인이 먼저 좋아한 경우도 있고 어머니가 좋아해서 같이 보게 된 경우도 있다. 이것은 다른 외국어를 배우는 동기와 구별되는 점이라 할 수 있겠다. 한국에 유학을 가게 된 이유도 영어권으로 유학가는 이유와 다른 점들이 있다. 영어권으로 유학가는 것은 영어와 국제 감각을 습득하여 좋은 곳에 취직되기 위한 동기가 크다. 그런데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일본에서는 영어권 유학, 특히 미국으로의 유학이 많이 감소하였다. OECD의 조사에 의하면 1994년에서 1998년까지는 미국에서 일본인 유학생이 가장 많았지만 1997년의 47,073명을 절정으로 하여 그 후에는 계속 감소하였다. 2012년에는 19,568명으로 제7위로 떨어지고 1997년에 비해서 58.4%나 감소하였다. 일본인들의 미국유학 기피현상은 4년만에 졸업 후 일괄적으로 회사에 취직되는 것을 선호하는 일본의 사회풍토에 기인한다. 일본에서는 유년이나 휴학을 해서 졸업이 늦어지면 취직에 불리하게 되므로 아주 기피한다. 설령 도전해서 유학을 갔다오더라도 일본기업에서는 유학경험을 크게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유학을 갔다온 것이 취직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또한 2006년부터 TOEFL이 읽기 쓰기 말하기 쓰기의 4기능 통합형 시험인 TOEFL iBT로 바뀌면서 일본인들이 어려워하는 말하기가 추가됨으로 높은 점수를 취득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세계적인 영어력향상에 따라 유학에 필요한 영어능력시험의 점수가 높게 설정됨으로 인해 유학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되었다. 이 외에도 해외대학의 인상된 수업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일본인들의 소극적이고 안전지향적인 성향으로 말미암아 미국유학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영어권유학의 악조건을 보완하는 것이 한국유학이라 할 수 있겠다. 한국유학은 경제적 부담이 적고 옆나라이기 때문에 문화적/언어적 충격도 덜 하다. 1년간 유학을 하더라도 단위를 교환하기 쉬운 점도 있기 때문에 유년을 하지 않고 졸업할 수 있는 것도 큰 이점이다. 표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조사대상자들이 한국을 유학지로 선택한 이유가 한국어 습득을 위한 것이 많았지만 경제부담이 적으면서 해외유학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도 한국유학을 결정하는 큰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대학에서 제공하는 영어수업도 동기부여가 되었다. 영어권에 비해 훨씬 적은 비용으로 영어학습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영어권을 생각했던 사례2, 4, 12도 결국 한국유학을 선택하게 되었다.

한국유학을 마친 후 한국어실력은 많이 향상되었지만 그것이 반드시 장래일에 살려지는 것은 아니다. 조사대상자들은 모두 한국어를 활용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였지만 일본의 항공회사에 취직한 사례2, 한국에서 일본어학원 강사로 일하는 사례9,10, 일본의 시청에서 일하는 사례8, 일본의 대학원에 진학하여 한일관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례12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은 일본회사에 취직하여 한국과는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영어권유학에 비하면 한국유학은 언어의 실용적 이용이 적고 사회생활에 충분히 살려지지 못하는 아쉬운 점이 보여진다.

2.2. 교환유학이 의식의 변화와 한일교류에 미치는 영향

이번의 조사대상자들 모두가 한국에 유학을 가기 전에 한국에 1~3번의 여행경험이 있고 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이었다. 또한 K팝이나 드라마 등을 보며 한국문화에 어느 정도 친밀성을 가진 학생들이 많았다. 하지만 유학을 가기 전에 대부분이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나라로 유학을 가든지 새로운 곳으로 나아갈 때는 누구나 불안감을 느끼겠지만 한국유학의 경우에는 정치적/역사적 감정이 반영되기 싫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한일관계가 가장 악화된 2019년에 유학을 가게 된 사례11, 12는 가기 전에 아주 불안해하였다.

대부분의 일본학생들은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며 유학을 떠났다. 그러나 유학생생활 중에 일본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소수였고 오히려 일본을 좋아한다고 말해주는 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 불안감이 해소되고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유학생생활 동안 국제교류도 많이 체험하게 되었는데 일본에서는 좀처럼 경험하기 힘든 기숙사 생활을 통해 여러 나라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 일본의 대학생들은 집에서 다니거나 집을 떠났을 경우에는 대부분 혼자서 자취를 한다. 기숙사를 이용할 경우라도 대부분이 독방에서 거주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이 다 기숙사 생활을 하였는데 국적이 다른 세네 명이 같은 방에서 지내는 경험을 함으로써 불편을 많이 겪었지만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미국,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 각 학생들이 같이 있게 된 대상은 다르지만 기

숙사에서 만난 외국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다른 문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어학당에서도 외국인 학생들과 사귀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한국인과는 기숙사에서 만난 경우도 있었지만 수업에서나 동아리활동, 도우미 등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졌다. 유학을 하면서 사귀 친구들과는 일본에 돌아와서도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통해서 연락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례8은 외국인 친구를, 사례12는 한국인 친구를 사귀지 못해서 아쉽다고 하였다. 사례12가 유학을 갔을 때는 도우미로부터 연락이 한 번 왔을 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고 한다. 도우미는 외국인 학생들이 초기 유학생생활을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1년간의 교환유학을 마친 일본인 학생들이 대부분 크게 만족하였다. 사례11은 지금도 카카오톡 프로필에 “유학하고 있었던 2년전은 정말 행복했던 것 같다”고 글을 남기고 있다. 다른 학생들도 대학시절의 가장 좋은 추억이 되었다고 한다. 사례4는 처음 한달간은 언어도 안 되고 친구도 없어서 매일 자기 전에 울었지만 일본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한국에 더 있고 싶었다고 하였다. 물론 한국인들의 직접적인 발언이나 강한 성격, 욕이나 침을 아무 데나 뱉거나 거리가 지저분하고 지하철에서 판매하는 것을 보며 문화적인 충격을 느끼기도 하였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정이 많고 잘 대해주고 자기의견을 솔직하게 말해서 좋았다고 하는 의견이 훨씬 많았다.

한국유학이 한일교류에 미치는 영향은 이러한 생각의 변화와 사귀게 된 친구들을 통한 직접적인 교류 외에도 젊은 세대들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SNS의 유용한 활용으로 한일의 이미지 개선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필자는 지금도 조사대상자들의 6명과 SNS로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례 2, 9, 11, 12와는 인스타그램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사례9는 한국유학을 통해 한국을 좋아하게 되어 현재 한국에서 일본어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거의 매일같이 인스타그램에 한국어와 일본어로 근황을 보고하고 있다. 팔로워가 657명이나 있는데 일본인이 한국인보다 더 많다. 팔로워 중에는 한국을 한번도 안 가본 일본인들도 많을 것이다. 그녀는 한국인들로부터 받은 선물들을 일일이 올리거나 한국에서 즐거운 생활을 보내고 있는 내용을 올리기 때문에 일본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준다. 또한 한국인들에게도 일본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내용이 많다. 사례11, 12도 한국어와 일본어를 사용하며 내용물을 게재하는데 그것들이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인상들을 가져다준다.

코로나로 실질적인 교환유학은 3년간 중단되어 왔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코로나 이전에 갔다왔던 유학생들의 SNS를 통하여 교류활동은 이어져오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어떻게 보면 1년은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당사자들의 가치관과 장래방향에 많은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한일교류의 저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3. 결론

1년간 한국의 대학교에 교환유학을 다녀온 일본인 학생들과의 인터뷰 조사와 사후 관찰조사를 통해 교환유학이 한일교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한국에 유학가기 전에는 역사문제로 반일감정으로 인한 불안감이 컸지만 실제적인 한국생활에서는 오히려 일본인들에게 대한 우대적인 태도를 접하며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었다. 그리고 일본에 돌아와서도 SNS를 통하여 교류관계를 유지해오

고 있는데 특히 인스타그램으로 추적조사를 했을 때 몇몇 일본인들은 현재 사회인이 되었어도 한국어와 일본어로 발신을 계속하며 한국인과 일본인 양자에게 서로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코로나로 끊긴 듯이 보인 한일교류의 맥이 유학 경험자들의 SNS로 유지되어오고 있으며 직접적인 교류가 힘든 오늘날에 SNS가 교류의 매개체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로 많은 대학교에서 유학이 단절된 상황이지만 한일유학이 속히 재개되어 젊은층들로부터 한일의 우호적인 관계확립이 이루어져 나가기를 바란다. 2020년도과 2021년도에는 온라인 한국유학이 실시되었다. 하지만 온라인인데 비해 수업료가 비싸고 직접적인 인적 교류가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일본에서는 참가율이 저조하였다. 코로나에 대한 단일한 낙관주의는 지양되어야 하겠지만 대면유학이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고안되고 현실화되어 코로나 시대에도 한일교류의 맥을 이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 참고문헌 ▶

池田伸子(2014), 「効果的な「海外留学研修」プログラムの開発に関する一考察」, 『こと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 6号, 立教大学, 33-45.

太田浩(2011), 「なぜ海外留学離れは起きているのか」, 『教育と医学』 59巻1号, 慶應義塾大学出版会, 68-76.

鄭修娟(2015), 「日本における「英語以外の外国語教育」に関する一考察」, 『教育経営学研究紀要』 17, 九州大学大学院人間環境学府教育経営学研究室, 39-49.

鄭仁豪・張振亜・吉田友彦・遠藤誉(2000), 「韓国における海外留学経験者の留学効果に関する研究—日本と欧米留学経験者に対する調査による検討」, 『留学生教育』 5号, 留学生教育学会, 49-70.

日本学生支援機構(2022), 「2020(令和2)年度 日本人学生留学状況踏査結果」, 日本学生支援機構.

林炫情・姜姫正(2007), 「韓国語および韓国文化学習者の意識に関する調査研究」, 『人間環境学研究』 5巻2号, 広島修道大学, 17-31.

松塚ゆかり編著(2016), 『国際流動化時代の高等教育一人と知のモビリティを狙う大学—』, ミネルヴァ書房.

松本かおり編著(2021), 『大学教育を再考する—グローバル社会をともに生きるための「教養」—』, ミネルヴァ書房.

일본 애니메이션의 한국에서의 수용양상의 변화

—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劇場版 鬼滅の刃:無限列車編)>을 중심으로 —

韓正均 (高麗大)

1. 서론

일본의 대표적인 만화 잡지인 『주간 소년 점프에서(週刊少年ジャンプ)』 2016년 11월호부터 2020년 24호까지 총 205화로 완결을 맞이한 『귀멸의 칼날(鬼滅の刃)』은 일본에서 기록적인 만화책 판매량을 보이며 2021년도까지 단행본이 약 1억 5천만 부 이상이 판매되는 대히트를 기록하였다.¹⁾ 또한 모든 단행본이 권당 500만권 이상을 판매하며 2010년대 이후 발표된 만화 중 가장 큰 히트를 끈 작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러한 『귀멸의 칼날』의 흥행에는 만화의 애니메이션화가 가장 큰 공을 세웠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요소이다. 그림 1을 보면 애니메이션화 이후 『귀멸의 칼날』의 흥행에 애니메이션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였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다.

이처럼 애니메이션화 이전과 이후가 차이 나는 작품은 『귀멸의 칼날』이외에는 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이다. 대부분의 만화(comics)를 원작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의 경우, 어느 정도 원작인 만화가 인기를 얻은 이후 애니메이션화가 이루어지는데, 『귀멸의 칼날』의 경우 2018년 5월 30일 애니메이션 제작사 ‘유포테이블(ufotable)’에 의해 결정되었는데, 이는 작품의 초반부에 이미 애니메이션화가 결정되었던 것이다. 또한 2019년 4월 6일부터 9월 28일까지 총 26화로 나온 애니메이션 1기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함으로써 인해 단행본의 판매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귀멸의 칼날』의 인기는 텔레비전 애니메이션(TVA) 1기 이후 단행본 기준 7권과 8권을 다룬 <극장판 귀멸의칼날 무한열차편>(이하 무한열차편으로 표기)에 의해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기 시작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귀멸의 칼날』의 주인공인 가마도 단지로(竈門炭治郎)가 걸고 있는 귀걸이가 옥일기(旭日旗)를 연상시킨다는 점과, 작품의 배경이 되는 다이쇼 시대가 조선이 일본에 병합된 시기였다는 등 여러 가지 정치적 요소와 함께 한일관계의 악화와 노 재팬(No Japan)운동으로 인해 일본에서 만큼의 인기를 끌지 못하였다. 그러나 애니메이션 제작사 ‘유포테이블’이 가장 문제가 되었던 단지로의 귀걸이의 옥일기 모양을 제거하고, 작품 내적으로도 식민지 침략에 관한 내용이 일절 언급되지 않으면서 한국에서도 작품에 대한 인기가 오르기 시작하였으며, <무한열차편>은 코로나 팬데믹(COVID-19 Pandemics)사태로 인해 대외활동이 어려운 시기에 215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2021년 극장가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으며, 2001년에 개봉했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千と千尋の神隠し)>

1) 일본 역대 만화 부수 랭킹(<https://www.mangazengan.com/r/rekidai/total> 2022/5/31)

한국에서 개봉된 역대 일본 애니메이션 관객동원 3위에 올랐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한열차편>이 한국에서 흥행에 성공한 이유를 밝혀보고자 한다. 허나 이를 작품 내의 내용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작품 외적인 부분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특히 신카이 마코토(新海誠)감독의 2017년작 <너의 이름은.(君の名は.)>이 380만 명에 가까운 관객수를 기록하며 이러한 흥행의 이유로 ‘다회차 관람’이 화제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다회차 관람’은 <무한열차편> 이후 2022년 12월 17일에 개봉한<극장판 주술회전0(劇場版 呪術廻戦0)>까지 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새로운 관람문화가 한국에서 새롭게 정립된 이유에 대해서 <무한열차편>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그 영향력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2. <무한열차편>의 특전이 끼친 영향

한국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이 방영되며 배급사측과 영화사측에서 특전을 나누어 준 것이 <무한열차편>이 처음은 아니었다. 앞에서 언급했던 <너의 이름은.>의 경우에도 뜻밖의 흥행을 기록하자 영화사에서 특전을 배급한 적이 있다.

또한 2020년에 개봉한 <극장판 바이올렛 에버가든(劇場版 ヴァイオレット・エヴァーガーデン)>의 경우 6만 명의 관객을 기록했지만 수입사와 배급사의 배려로 9주차까지 특전을 배부했던 경우가 있다.

이처럼 <무한열차편>을 영화관에서 관람했을 때 특전을 주는 행사는 크게 특별한 일은 아니다. 허나 김다현·임찬수의(2021) <무한열차편>에 관한 키워드를 보면 특정한 키워드 군집 중 하나에서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넷플릭스’와 ‘만화책’, ‘티켓’, ‘굿즈’등 수용자가 작품을 소비하는 행위와 관련된 키워드²⁾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즉, <무한열차편>의 흥행에는 작품이 가지는 흥행력 뿐만이 아니라 그 외적인 존재 즉 특전이라는 굿즈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한열차편>의 특전의 경우 ‘메가박스’에서 2021년 1월 27일부터 단독상영을 하였고, 이 때 오리지널 티켓을 특전으로 주었다. 이후 2월 3일부터 ‘롯데시네마’, ‘CGV’등에서도 개봉이 시작되었고, 이에 따라 두 영화관은 개봉 3주차까지 특전을 지급하였다.

3주차가 지난 이후에는 ‘메가박스’에서만 특전을 계속해서 지급하였는데, 이는 9주차까지 이루어졌으며, 이후 4월 말에 특별이벤트로 ‘롯데시네마’, ‘CGV’를 포함한 3사가 『렌고쿠 제로』라는 외전격 형식의 책(총 78페이지)을 특전으로 지급하였다. 이러한 특전들은 일본의 ‘유포테이블’에서 진행한 특전을 한국어판으로 바꾸어 가져온 것들로, 일본의 특전 문화를 한국에 정착시키게 되었고, 다회차 관람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무한열차편>은 작품의 다회차 관람에 대한 즐거움을 가지게 해 준 영화였다. 일본의 경우 <무한열차편>의 마지막 상영을 기념하여 새롭게 굿즈를 제작하는 등 작품의 흥행수입에 맞는 굿즈들의 발매가 꾸준히 이루어졌고, 작품의 주인공인 가마도 단지로가 아닌 렌고쿠 교주로가 500억엔의 사나이로 불리게 되는데 큰 힘을 보태었다.

2) 김다현·임찬수(2021), 「소셜 빅데이터를 통한 국내에서의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흥행 요인분석 - 「너의 이름은.」과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키워드를 중심으로 -, 『일본문화연구』 80호, 동아시아일본학회, p.55.

이처럼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소 마이너하다고 여겨졌던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2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것은 이러한 다회차 관람에 따른 특전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각종 굿즈들의 발매와 수입, 한국 ‘유포테이블’ 카페에서의 무한열차편 콜라보레이션등 작품을 즐긴 관람객들이 일본 애니메이션을 즐길 수 있는 폭이 넓어진 최초의 작품이 <무한열차편>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이후 2022년 2월 17일 개봉한 <극장판 주술회전0>의 경우에도 11주차까지 특전을 지급하는 등 <무한열차편>의 선례를 따랐고, 60만 명이 넘는 관객 수를 지브리 애니메이션이 아닌 일본 애니메이션은 마이너한 문화라는 선입견을 깨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특전문화는 한국영화에도 그대로 전개되어 <범죄도시2>등의 작품도 특전을 지급하며 영화관에서 단순히 예고편만 방영하거나, 개봉에 맞추어 무대인사만으로 그치던 한국영화의 홍보수단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처럼 <무한열차편>은 작품 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흥행요소들이 있었지만, 한국에서 200만 명이 넘는 관객 수를 동원하게 된 이유에는 일본에서 이루어져왔던 특전문화가 한국에도 도입되며, 관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특전이 도입된 것도 흥행의 한 가지 요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2022년 4월 21일 <무한열차편>의 한국어 더빙판이 개봉에 맞추어 배급사인 에스엠지홀딩스에서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무한열차편> 오리지널 굿즈를 제작하였는데 250%에 육박하는 펀딩을 기록하며 작품의 흥행에 따른 2차 창작에 대한 또 하나의 가능성을 열었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무한열차편>에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작품 내적인 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작품외적인 곳에서 흥행요소를 찾아보려는 시도를 하였다.

영화사에서의 애니메이션의 특전배급이 <무한열차편>이 처음은 아니었다. 그러나 <너의 이름은.>으로 시작된 다회차 관람이라는 특수성이 특전이라는 또 하나의 목적으로 인해 더욱 활발해지게 된 계기를 만든 것은 <무한열차편>이었다. <너의 이름은.>의 경우에 특전을 지급하기 시작한 것은 2021년 9월 9일로 <무한열차편>이후 특전이라는 개념이 확립된 이후 재개봉 했을 때 지급한 것이었다.

앞서 언급한 김다현·임찬수(2021)의 논문을 보면 <너의 이름은.>에 관한 관심도는 인물 및 화제성, 소비 및 작품성, 기타 및 이벤트, 제작 및 실사화 순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중심 키워드에는 관련 ‘굿즈’라는 단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³⁾ 즉, 한국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을 모은 일본 애니메이션인 <너의 이름은.>의 경우 굿즈 및 특전과 전혀 상관없이 흥행에 성공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 <무한열차편>의 경우 한국어 더빙판을 개봉할 때도 성우들이 사인이 담긴 특전을 제공하는 등 일본의 특전을 그대로 가져오던 기존의 방식에서 한층 더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영화관들은 엄청난 타격을

3) 김다현·임찬수(2021), 「소셜 빅데이터를 통한 국내에서의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흥행 요인분석 - 「너의 이름은.」과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키워드를 중심으로 -」, 『일본문화연구』 80호, 동아시아일본학회, p.54.

받게 되었고, 반대급부로 OTT(Over-The-Top)시장은 급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일본 애니메이션이 200만 명이라는 흥행 기록을 남기며 2021년 박스오피스 7위⁴⁾에 오른 것은 단순히 작품성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즉, <무한열차편>은 앞으로의 일본 애니메이션 이 한국에서 흥행하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지향점을 발견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4)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연도별 박스오피스 2021년 (<https://www.kobis.or.kr/kobis/business/stat/boxes/findYearlyBoxOfficeList.do>)

김옥균의 ‘메이지 유신’ 이해에 관한 소고(小考)

朴 宣 映 (國民大)

1. 서론

“History has failed us, but no matter.”

(역사는 우리를 저버렸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화제의 소설 『파친코』(이민진 저)의 이 첫 문장은 짧지만 강렬하다. 자주적 근대화에 실패한 조선사, 그러나 그대로 주저앉기를 거부한 조선인의 삶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방법이 있을까. 조선말의 혁명가 김옥균과 그가 이끈 갑신정변 역시 그러했다. 갑신정변은 삼일천하로 단명(短命) 했지만, 그 실패가 조선사에 남긴 파장은 너무나 강렬했다. ‘실패한 혁명가’ 김옥균 만큼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재조명되고 재해석되는 인물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는 파란만장한 실패의 역사를 쓰고 갔지만, 그에게는 후대인들의 비상한 관심과 주목은 물론, 애증(愛憎)마저 야기하는 강렬함이 있다. 조선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으나, 시대로부터 냉혹한 저버림을 당한 가장 대표적인 조선인이 바로 김옥균이기 때문일 것이다.

갑신정변의 실패가 조선사에 남긴 파장이 강렬한 이유는, 그것이 조선인에 의한, 조선사 최초의 근대적 변혁 운동이었다는 점과, 그것이 실패함으로써 사실상 그 이후 조선의 자주적 근대화의 가능성이 닫혀 버리고 말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 결과 조선이 겪게 된 역사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상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소설 『파친코』는 바로 그 비극적인 조선사의 말로를 재일조선인의 삶을 통해 상징적으로 재현해냈다. 따라서 작가 이민진이 언급한 “우리를 망친 역사” 속에 갑신정변의 실패는 매우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제까지의 관련 연구에서, 갑신정변의 성격은 “메이지유신을 모델로 한 부르주아적 변혁 운동”, 그 실패의 원인은 “과도한 외세(일본)에의 의존”으로 총괄되어 왔다. 즉, 갑신정변은 한마디로 “일본을 모방한”, 혹은 “일본에 기대” 쿠데타로 인식되어 온 셈이다. 그런데,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모방했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은 그대로 조선에 이식(移植) 가능한 변혁의 방법이었던 것일까? 라는 근본적인 의문에 천착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일본의 군사력에 과도하게 기대지 않았다면 일본을 본뜬 변혁에 성공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일까? 본고는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고찰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김옥균은 사상가 라기 보다는 행동하는 혁명가였기에, 그가 우리 역사에 끼친 영향에 비해 남긴 저작은 많지 않다. 그러나 그의 직필 유고와 행적들을 통해, 그가 메이지유신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혹은 오해했는지를 그 대강이나마 파악해 보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당대 조선 제일의 천재로 꼽히는 김옥

균이지만, 이국(異國) 일본의 정변과 그것을 가능케 한 그들의 역사적, 문화적 토양의 본질을 그가 충분히 통찰했을까?1) 김옥균을 길러낸 조선의 역사와 문화는 어디까지나 ‘문인(文人) 통치’의 전통2)이고, 메이지 유신의 지도자들은 그와는 완전히 이질적이라 할 수 있는 ‘무인(武人)통치’의 전통3) 속에서 메이지유신을 이끌어 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문인 김옥균은 메이지유신의 어떤 점을 ‘이해’했고, 어떤 점을 ‘오해’했을까? 이 점을 짚어보지 않고서는 갑신정변의 성격과 실패 원인에 관한 논의는 피상적인 관찰의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기에, 본고는 이 물음에 대한 해답 찾기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2.1. 문인 통치의 전통과 무인 통치의 전통

2.1.1. 통치권력의 유래로서의 ‘힘’(power)의 존재 방식

메이지유신을 가능케 한 근본 원인은, 막부 타도를 통한 집권을 획책한 ‘도자마(外樣)’ 삿초(薩長) 연합의 무력(武力)이 막말기에 이르러 실제로 막부의 그것을 위협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정치적 권위의 상징인 천황이 도쿠가와 막부 대신 그러한 삿초의 집권을 승인했다는 점에 있었다. 또한 일본 내의 이와 같은 힘(power)의 지형 변화를 가져온 외부요인으로서, 이들 ‘신흥’ 삿초의 배후에 무기 거래를 매개로 한 패권국가 영국의 후원과 원모(遠謀)가 있었다는 점이다. 즉, 일본 내에서 웅번(雄藩)이라는 신흥 ‘power’가 막부라는 구래의 ‘power’와 각축을 벌였고, 마침내 막부를 이겼으며,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영국이라는 당대 최고의 ‘superpower’가 그들을 응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19세기 조선은 어떠한가? 쇠미해진 조선왕조를 대신할 ‘힘’을 갖춘 국내의 대안세력이 없는 가운데, 조선의 지배층은 영국 등 서구 열강의 침탈 아래 들어간 청국 만을 여전히 천하의 상국(上國)으로 떠받드는 구 질서를 고집했다. 그 낡은 질서 속에서 세도정치의 전횡과 부패로 인해 시대에 역행하는 ‘빈국약병(貧國弱兵)’은 가속화 되었고, 그 망국적 세도정치에 맞선 몸부림이 1882년의 임오군란, 1884년의 갑신정변이라는 형태로 터져 나왔으나, 그 의도와는 정반대로 세도정치에의 저항이 거세질수록 조선은 청국의 반식민지로 전락해 갔고, 그 결과 조선은 자주적 근대화의 길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야 했다.

왜 조선에서는 세도정치에 맞선 내부적인 저항이 근대로의 변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근세 조선의 경우(처지) 보다 더 못한 청국의 반식민지로의 전락을 경험해야 했는가? 조선의 지배층이 청에의 사대라는 조공/책봉의 구 질서 속에 안주하면서 궁극적으로 관념에 그친 ‘복벌론’을 대신할 실질적 ‘힘’을

1) 메이지유신이란 무엇인가를 둘러싼 긴 연구와 논쟁의 역사를 고려할 때, 메이지유신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현대 일본인들에 게조차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일본에서는 메이지유신을 성립시킨 자들의 입장에서 서술되어온 ‘공인된 역사’로서의 특정한 ‘메이지유신의 상(像)’이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활발히 나타나고 있는 메이지유신 재해석의 움직임을 보면 메이지유신의 본질을 둘러싼 논의는 현재도 진행형이라 할 수 있겠고, 그 해석의 정치성 또한 해명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2) 필자는 본고에서 이 전통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올바른 것(도리)과 강한 것(현상적 질서)이 반드시 같지는 않으며, 무릇 인간은 올바른 것을 판별하고 선택할 수 있으니, 행동으로도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이상주의적 인식의 경향성을 갖는다.

3) 필자는 본고에서 이 전통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지배하는 것이 세계와 인간 사회의 유일한 질서요 원리이며, 나아가 강한 것이 결국 올바른 것이라는 현상추종적 인식의 경향성을 갖는다.

기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조선의 지배층이 갖는 그 치명적 모순과 결합 - ‘국가 통치의 근원적 힘과 정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적 요인(외세)에 기대어 군림을 지속할 수 있었다는’ - 이 조선 말에 이르러 최악의 상황 전개를 낳은 내부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변혁을 일으킬 ‘힘’의 부재였다.

2.1.2. 정체(政體)의 차이

메이지유신이 막부와 삿초간의 본격적인 내전을 거치지 않고 일본 내부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메이지유신이라는 정권 교체를 이룬 데에는, 신흥 삿초와 연합한 하급 귀족 세력(公家)의 교묘한 ‘천황 이용’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형태의 정변이 가능한 바탕은, 권력 대신 종교적 권위를 갖는 천황과 그 천황의 승인을 통해 실질적인 권력을 누려온 무가(武家) 통치의 병존, 즉 막부 체제 성립 이후 수백년 간 지속된 일본 독특한 ‘이중 통치’의 전통에 있다. 마지막 장군 도쿠가와 요시노부(徳川慶喜)가 삿초 연합군과 겨룰 만한 충분한 무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전을 기피하며 결국 황실의 공순(恭順)을 선택함으로써 정권을 반환한 이유도 그의 출자가 존황(尊皇)의 뿌리가 깊은 미토번(水戸藩) 출신이라는 점이 결정적이었다고 전해진다.⁴⁾

한편, 조선의 정체(政體)는 어떠한가? 조선의 왕은 조공과 책봉이라는 사대 질서 속에서 청 황제의 승인이라는, 국외로부터의 정통성의 조달이 없이는 그 존립이 불가능한 체제 속에서 ‘불완전한(부자연스러운)’ 통치 권력을 행사해 왔다. 그 통치 권력은 (권력의 존재 이유이자 정통성의 원천이어야 할) 외침에 대한 방어력은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내부의 반대 세력의 도전에 대해서는 상국(上國)의 원조에 기대 ‘연명(延命)’을 도모하는 형태의 ‘기괴한’ 존재 방식을 취했고, 그 말기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그러한 존재 방식 자체의 존속만을 추구하는 지경으로 전락했다. 이러한 정체(政體)의 구조적 특성상, 조선의 지배층이 자국의 피지배층을 염두에 둔 정치를 방기하고 자신들의 (근거없는) 특권적 지위를 유지시켜 줄 상국(上國)의 ‘비호(庇護)’만을 추구하고 그 ‘비호’ 아래 사익을 극대화해 갈 가능성이 상존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따라서 점증하는 내외외환의 위기 속에서 조선의 이 모순과 부패에 맞서 결기한 혁명가 김옥균이 판단한 조선 변혁의 제1보는, 수구세력이 기대어 온 상국(上國)으로부터의 완전한 단절, 즉 조선의 ‘독립’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청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조선의 ‘힘’이 청의 조선을 지배하는 ‘힘’을 능가할 때에 (시도가) 가능한 것이나, 조선의 무력은 개화파에 적대하는 민씨 세도가들의 손에 장악되어 있었다. 갑신정변 세력이 집권한 시간 동안에도 정작 고종은 이 정변의 목표인 대청(對淸) 종속 관계의 청산을 위해 민씨들의 손에 쥐어주었던 조선의 무력을 조선의 ‘독립’을 위해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고종이라는 조선의 최고 권력자는, 갑신정변 이후 을사보호조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그의 일관된 행보가 증명하였듯이, 언제나 국가의 명운 보다 자신의 안위를 우위에 두었으며,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세력과도 영합할 생각을 가질 만큼, 절대로 양보할 뜻이 없는 ‘권력의지로 충만한 실질적 군주(권력욕의 화신)’였다는 점에서, 애초 메이지유신 세력이 손에 넣고 이용한 “구슬(玉)”과도 같은, (스스로 권력의지를 가지지 않은, 혹은 가질 수 없는, 실질적으로 무력한) 천황과는 본질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는 행위자(player)였다.

4) 도쿠가와 요시노부의 이 선택이 내전에 따른 외세 개입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함이었음 또한 조선과의 비교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일 것이다.

따라서 ‘이중 통치’의 오랜 전통 속에서 가능했던 일본 독특한 메이지유신이라는 변혁의 방식이, 그와는 완전히 이질적인 정체를 갖는 조선에서 응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더구나 고종이라는 충만한 권력의지와 능란한 권모술수를 구사하는 군주를 상대로, 메이지 유신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천황을 통해 이루어 낸 방식과 흡사한 정체의 변혁을 꾀한다는 것은, 김옥균의 낙관적 희망(망상)에 불과했던 셈이다. 설령 김옥균이 『갑신일록』에서 적은 바와 같이, 고종이 정변 전에 김옥균의 움직임에 동조할 의향을 비추었다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⁵⁾, 그것은 고종의 정략적 제스처에 오도된 김옥균의 판단 착오요 고종과의 ‘동상이몽(同床異夢)’일 뿐이었다. 군주권을 능가하는 ‘국가(公)’라는 대의(大義)를 상상할 능력도, 그 대의(大義)를 위해 자신의 권력을 기꺼이 제한하고자 하는 애국심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고종에게서, 천황과 같은 명예로운 ‘허수아비’ 역할을 기대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⁶⁾ 여기에 더해, 청군에 맞설 자체 무력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또 다른 외국군(일본)의 힘을 빌린다는 발상은, 많은 논자들이 지적해 온 바와 같이 너무나 순진한 문인적 발상이자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던 셈이다.

2.2. 김옥균이 이해한 ‘메이지유신’

2.2.1. ‘자주독립’과 ‘문명개화’라는 화려한 명분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적 침탈에 맞서 일국의 독립을 지키고, 나아가 아시아 국가들과 연대한다는 메이지 유신의 명분이야말로 김옥균을 사로잡은 슬로건이었다. 자주독립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위해 중앙집권적 국가를 설계하고, 그 목표를 위해 비현실적인 ‘양이(攘夷)’ 노선을 잡고 서구문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부강한 근대국가로 일본을 탈바꿈시킨다는 메이지 유신 ‘상(像)’에 매료된 김옥균. 그는 메이지유신의 이 목표에 감화되어 자신이 조선에서 짊어져야 할 과업 또한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고 자임했다. 일본을 직접 견문한 김옥균의 개화 사상은 일찍이 조선의 근대화를 위한 인적, 물질 토대 구축이라는 방향으로 구체화 되어 갔다. 갑신정변 이전의 차관도입 노력, 유학생 파견 노력, 수도 서울의 도로 정비와 환경 개선 구상, 기독교 수용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며, 정변 당시에는 혁신 정령의 선포와 개화파 인사들의 요직 기용을 통해 구체화 되었고, 정변 실패 후 망명 생활 속에서도 그의 목표와 신념에는 변함이 없었다.

2.2.2. ‘부국강병’ 정책의 가시적 성과

문벌 폐지와 서구식 교육, 직업 선택의 자유를 통한 국민적 역량의 결집, 산업화의 추진, 서구적 인프라의 구축, 국방력 강화 정책으로 나날이 변모해 가는 일본의 ‘외양(外樣)’은 김옥균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도 남음이 있었을 것이다. 갑신정변 이전 세 차례에 걸친 일본 방문을 통해 김옥균이 견문한 메이지유신의 가시적 성과들은 그의 우국충정에 큰 자극을 가했을 것이다. 특히 후쿠자와 유키치와의 만남을 통해, 후쿠자와의 우호적 해석을 거친 메이지유신 - ‘문벌폐지’의 혁신성과 서구문물 도입의

5) “경이 품고 있는 마음을 내가 잘 알겠다. 무릇 국가의 대계에 관계되는 일에서 위급할 때에는 경의 계책에 일임할 터이니 경은 다시는 의심하지 말라.”(최익현 외 지음 『원문 사료로 읽는 한국 근대사』 101쪽)

6) 이러한 고종의 곁에 그를 능가하는 권력의지와 정치력을 가진 민비가 참모 역할을 자임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김옥균의 오산(誤算)에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절대적 필요성, 실행 가능성 -의 이미지는 그에게 더없이 매력적인 과업으로 비쳤을 것이다.

김옥균이 후쿠자와를 처음 만난 1882년은 ‘문명개화’를 설파한 후쿠자와의 베스트셀러 『서양사정』 초간(初刊)으로부터 약 15년 여가 지난 시점이다. 후쿠자와 자신이 직접 체험한 수 차례의 양행(洋行)과 그가 수행하고 있던 계몽 사업,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했던 메이지유신이라는 ‘대혁신’에 대한 후쿠자와의 축적된 식견과 세련된 논리는, 김옥균에게 ‘일본식’ 개화 노선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뒤처진 조선 지식인으로서의 초조감을 동시에 심어주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2.3. 김옥균이 농친 메이지유신의 본질

2.3.1. 천황 절대주의의 봉건성

그러나, 표면적인 문벌 폐지와 사민평등의 이면(裏面)이 ‘일군만민(一君萬民)’의 천황 절대주의와 표리일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이야말로 메이지유신의 본질적인 측면에 해당한다. 메이지유신을 이끈 지도자들은 신정부에 대한 저항과 반발, 민권운동의 고양을 억누르면서, 자신들만이 기획할 수 있는 국권의 내용과 민권에 대한 국권의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천황제 절대주의 체제의 준비를 서둘렀다. 특권을 잃은 불평사족(士族)과 경제적 곤궁 속에 놓이게 된 수많은 백성 계급의 불만을 무마하면서 그들을 똑같은 ‘일본 국민’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유신 이후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다.

그 결과, 메이지유신이 모색해 낸 ‘근대 일본’의 모습이란, 김옥균이 찬탄했던 외피(外皮)의 근대화와는 별개의 체제였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근대의 본래적 가치에 기반한 시민계급의 성장을 억압하고 천황의 ‘충량(忠良)한 신민(臣民)’을 만들어내는 사이비(似而非) 근대성의 상징과도 같은 메이지 헌법과 교육칙어의 반포는 메이지유신의 본질을 보여주는 대표적 결과물이다. 메이지 유신의 지도자들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근대적 가치 그 자체를 추구하기 위해 사민평등을 허용한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피지배층에 대한 관용적 시책이 의도치 않은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 속에 천황제 절대주의와 신민화를 추진해 갔던 것이다.

반면, 메이지 유신의 이러한 감추어진 봉건성을 보지 못한 채 조급히 감행된 갑신정변에서, 김옥균과 그의 정변 동지들은 개혁 정령을 통해 문벌의 폐지를 일거에 천명했으며, 김옥균은 정변 실패 후 망명지에서도 거듭 양반계급 타도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력히 주장했다.⁷⁾ 그것은 분명 조선이 갖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낸 것이었고, 당대 그 어떤 양반도 제기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주장이었으나, 문벌 폐지가 정체(政體) 변혁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것을 관철시킬 ‘힘’을 갖는 정부의 존재를 전제로 했을 때에야 비로소 가능한 구상이었다. 그러나 갑신정변은 문벌 폐지의 직접적 수혜층이 될 수 있는 피지배층으로부터도 최소한의 이해와 지지조차 끌어내지 못한 채, 오히려 그들의 물이해와 비난 속에서 와해되어 갔을 뿐만 아니라, 일제에 의한 병합으로 조선 자체가 와해될 때까지도 조선 정체(政體)의 태생적 모순과 결합에 기생해 온 양반 기득권층의 극단적 반발과 개화 정책 전반에 대한 반감만 앞질러 부채질한 셈이 되고 말았다.

7) “신이 여러해 동안 보고 들은 바에 의하여 폐하게 아련 바 있사온데, 폐하게서는 이것을 기억하시나이까? 그 뜻은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 양반(兩班)을 없애는 데 있나이다. 우리 나라는 중고(中古) 이전에 국가의 운수가 융성할 때에는 일체의 기계와 산물이 동양 두 나라에서 으뜸이었습니다. 하온데 지금은 모두 이것이 폐지되어서 다시 그 혼적도 없게 되었으니, 이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옵고, 오직 양반의 발호(跋扈)와 전횡(專橫)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던 것이옵니다.”(「지운영사건 규탄소」 삼성판 한국사상전집6 『한국의 근대사상』, 102-103쪽)

2.3.2. 천황 절대주의에 입각한 대외 팽창주의

메이지유신의 지도자들이 천황 권위의 상징성을 앞세워 국내의 반발 세력을 누르고 ‘근대화’를 위한 ‘전근대(봉건성)’의 온존 내지 강화를 통해 내치를 다져나간 것과 마찬가지로, 천황 절대주의의 대외적 발로는 제국주의적 팽창과 약소 민족에 대한 차별과 야만적 침탈이었다. 애초에 메이지유신 세력을 정치적 변혁으로 추동한 것은, 우세한 무력을 앞세워 감히 ‘신국(神國)’ 일본에 모욕을 가한 서구 열강을 벌(罰)하고 싶은 열망, 그를 위해 그들과 동등 혹은 그들을 능가하는 ‘힘’을 갖고자 한 열망, 즉 물리적 ‘힘’과 그에 바탕한 비대(肥大)한 민족적 자아상(ego)에 대한 갈망이었던 만큼, 그들이 추구하는 ‘근대화’가 서구를 모방한 침략주의, 팽창주의로 귀결될 것은 필연적 행보와도 같은 것이었다.

메이지 정부 안에서 한때 막부 타도에 동참했던 ‘지사들’ 끼리 벌인 정한론 정변은 메이지 정부가 추진할 수많은 과업들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다툼에 불과했을 뿐, 근본적으로 그들 모두 “정한론자”였다는 사실을 김옥균은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었을까? 김옥균이 메이지 정부의 부추김 속에서 정변을 서둘렀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정변 이전부터 메이지 정부에서 하야한 고토 쇼지로(後藤象二郎), 이타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와 같은, 막말의 ‘지사’ 출신 정객들과 연대를 모색했었다는 점은, 메이지 유신 세력과 그들이 추구한 ‘힘’의 본성에 무지한 문인 정치가의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만드는 대목이다.

2.3.3. 조선을 둘러싼 메이지 정부와 재야 낭인 세력의 관계성

여야를 불문하고 막부를 타도한 유신 세력은, 서세동점의 제국주의적 시세(時勢)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노골적으로 ‘힘’의 유일성을 신봉했던 구 사무라이 집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 스스로는 믿지도 않는 천황에의 신앙심 배양과 숭경(崇敬)의 행위를 국민들에게 제도적으로 강제했던 것이며, 그러한 천황 숭배에 있어 메이지 유신 세력은 여야 간 하등의 이견(異見)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천황 절대주의에 있어서는, 현실 정치가 요구하는 제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만큼, 재야의 낭인집단이 극도의 관념적 순수성을 추구하면서 광신적 국수주의 경향으로 나아갔다는 점 또한 중요하다. 망명기의 김옥균은 정변당시 자신을 배신한 메이지 정부 대신, 메이지 정부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던 재야의 낭인 정객들을 조선 개혁의 파트너로 삼아 그들과의 제휴를 도모했었기 때문이다.

조선의 개혁을 도와 아시아인들이 함께 서구 열강에 대항한다는 그들의 ‘아시아 연대론’을 액면 그대로 믿었다는 점이야말로, 조선인 혁명가로서 김옥균이 저지른 최대의 오판(誤判)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김옥균의 비참한 망명 생활의 끝이 조선 개혁을 위한 재기(再起)가 아닌, 상해에서의 암살로 그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은, 애초 양립이 불가능한 김옥균의 조선 독립 사상과 대륙 낭인들의 정한론이 부딪쳐 빚어낸 결말이기 때문이다. 기나긴 망명 생활 속에서도 조선의 독립과 근대화의 꿈을 한시도 놓지 않았던 김옥균의 신병(身柄)이, ‘힘’없는 조선을 발판으로 한 팽창노선을 추구했던 대륙 낭인들의 ‘비호(庇護)’ 아래 놓여 있었던 것은, 메이지 정부의 배신으로 인해 갑신정변이 허무하게 와해된 후 (여야의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무인 통치의 전통 속에 내던져진 문인 김옥균의 무방비한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조선 중립화와 삼화(三和)주의를 위한 목숨을 건 그의 상해행은, 청일전쟁의 준비가 착착 완료를 향해 가던 시점의 메이지 일본의 이정표에서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조선 ‘문인의’ 행보였다. 김옥균 암살 사건 직후, 청일전쟁의 전단(戰端)을 열기 위해 그의 죽음을 심분 활용한 대륙 낭인

들은 메이지 정부를 능가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그 점만 보더라도 김옥균을 배신한 것이 메이지 정부 뿐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결론

이제까지 갑신정변은 김옥균이 중심이 되어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모델로 삼아 일어난 정변으로 규정되어 왔다.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은, 안에서 민중의 이해와 폭넓은 지지를 얻지 못한 채 외세(일본)에만 과도하게 의존하였다는 점, 즉 정변 추진의 방법상의 문제가 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메이지 유신은 막부와 천황의 이중 통치라는 일본 특유의 정체를 전제로 한 그들 고유의 정치 변혁으로서, 이질적인 정체(政體)를 갖는 조선에서 그것을 모델로 한 정변을 기도한다는 것은 애초 비현실적인 구상이었다. 그것이 조선에서도 현실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변 추진 세력 측에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가능케 할 만큼의, 준비된 압도적 ‘힘’과 군주의 확고한 자기 희생의 의지, 용단(勇斷)이 불가결의 조건이었으나, 이 둘은 모두 당시 조선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이었다.

메이지유신이 가능했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스스로는 권력의지를 갖지 않는 천황이 국가의 최고 권력자로 군림하되, 실질적으로는 천황의 권위를 이용하여 메이지 유신의 지도자들이 권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던 ‘힘’(무가의 무력)의 독점에 있었다. 그리고 그들을 유신의 성립으로 추동한 후 천황 절대주의에 입각한 제국주의로 향하게 한 메이지유신의 본질 또한 ‘힘’에의 갈망이었다.

오랜 문인 통치의 전통 속에서 성장한 김옥균은, 그 천재적 역량과 남다른 우국충정에도 불구하고, 무인 통치의 역사가 만들어 낸 메이지유신의 그러한 본질을 정확히 간파해 내지 못했다. 그가 주목한 것은 메이지유신의 화려한 대의명분 - 서구문명 도입을 통한 근대화, 부국강병, 자주독립과 아시아의 연대라는 - 과 그 가시적 성과에 치우쳐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옥균은 메이지유신의 본질이 서구 열강을 능가할 ‘힘’의 배타적, 무제한적, 폭력적 추구에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간파하지 못한 것이다. 그 지상 목표를 위해서라면 ‘서구화’, ‘문명개화’라는 방향도 하나의 수단, 구호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일본적 근대’의 기만성을 충분히 간파하지 못한 것이다. 메이지 유신의 지도자들은 오로지 일본이라는 국가의 ‘힘’을 키우기 위해 천황제 절대주의의 비합리적 봉건성과 침략주의적 폭력성도 마다하지 않았다. 김옥균은 그들이 내건 유신의 대의명분을 신뢰했던 나머지, 그들의 팽창주의 속에서 언젠가 ‘힘’없는 조선이 가장 먼저 그들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충분히 경계하지 못했다.

그러나 조선인 김옥균은 ‘문인’ 출신 혁명가답게, 정변이 실패한 후에도 조선의 독립과 근대화의 이상(理想)을 포기하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그 어떤 타산(打算)도 없이 조국을 위한 이상(理想)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그가 경험해야 했던 ‘실패’는, 무인 통치의 전통에 뿌리를 둔 메이지유신과 그 추진 세력의 ‘기만과 야만’을 직시하지 못한 뼈아픈 결과였다. 그런 점에서, 메이지 일본과 홀로 맞섰던 김옥균의 선택과 그 결과에서 관찰되는 문인적 사유 방식과 이상주의적 행동 방식이라는 ‘태생적 한계’는 현대 한국인의 일본 이해에도 유용한 참조의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김옥균과 갑신정변에 대한 상반된 역사적 평가 또한 수렴점을 찾아 가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조상의 실패한 역사도 후손에게 훌륭한 자양분으로 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고령사회기와 개호(介護) 문학 연구

— 히가시노 게이고(東野圭吾)의 『붉은 손가락(赤い指)』에 드러난 소극적 간병(看病) 범죄 —

房京姬 (高麗大)

1. 서론

일본 사회가 고령화율 14%가 넘는 고령사회기로 들어선 것은, 1995년의 일이다. 이후 일본 사회는 2007년 고령화율 21% 이상으로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논하고자 하는 고령사회기는 1995년에서 2007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인구 고령화에 의한 점진적인 사회 변화는 인구 고령화율 7% 이상인 고령화사회기에는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 고령화율 14%가 넘는 고령사회기가 되면 수많은 문제¹⁾가 사회 전반에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고령사회기의 다양한 문제 중에 본 논문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간병 범죄 문제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히가시노 게이고(東野圭吾)의 『붉은 손가락(赤い指)』 분석을 통하여 그동안 다루어지지 않았던 소극적²⁾ 간병 범죄인 간병 학대에 대해 논하고, 개호 문제에 있어 ‘관계’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 피력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고령사회기의 진전과 연관성이 있는 사회정책의 성립과정을 개관하고 이후, 개호 문학 작품인 히가시노 게이고(東野圭吾)의 『붉은 손가락(赤い指)』에 드러나는 소극적 간병 범죄 분석을 통하여 많은 간병 범죄가 소극적 간병 범죄에서 적극적 간병 범죄로 발전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규명하고 소극적 간병 범죄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아울러 『붉은 손가락』의 등장인물들의 관계 분석을 통하여 간병 범죄에 있어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해명하여 개호 범죄예방을 위한 실마리를 풀어보고자 한다.

2. 고령사회기의 진전과 사회정책의 성립

일본의 고령사회기는 전술한 바와 같이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약 11년여의 기간을 의미한다. 즉, 일본 사회는 1995년 인구 고령화율이 14%를 넘었고 이후, 인구 고령화율이 21%가 넘는 초고령사회기까지 약 11년이 걸린 것이다. 일본 사회는 이 11년의 기간, 다시 말해 고령사회기가 진전됨에 따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게 된

- 1) 인구 고령화의 최대 문제인 고령자 개호(介護) 문제, 이 개호 문제에서 파생된 문제로 고령자가 고령자를 돌보는 노로개호(老老介護), 치매 환자가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인인개호(認認介護), 미성년자가 고령자를 돌보는 영케어러(ヤングケアラー) 문제를 비롯하여 고령자 연금 문제, 의료 문제, 사회복지 문제, 주거 문제, 간병 범죄 문제 등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층위에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
- 2) 본 논문에서는 간병 살인, 동반 자살, 자살 등 생명의 존속 여부에 치명적인 범죄를 적극적 간병 범죄로, 간병 학대, 간병 재산범죄, 간병 유기, 간병 상해 등 위해를 가하기는 하나 생명의 존속 여부에 치명적 위협을 가하지 않는 범죄를 소극적 간병 범죄로 분류하여 논을 전개하고자 한다.

다. 이렇게 시행된 정책 가운데 가장 주목하여야 할 정책으로는 2000년 4월 시행된 개호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일본 고령자복지정책의 분수령이라 할 수 있는 개호보험제도는 그 이전의 제도들과 달리 새로운 용어의 정의부터 케어 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 제도³⁾의 도입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고령자복지정책의 체질을 개선하고 포괄적 개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개호보험제도가 일본 고령사회기의 초중반에 입법화되고 시행된 제도라면 고령사회기가 심화한 2006년 4월 1일에는 고령자학대방지법(高齢者虐待防止法)⁴⁾이 시행되기에 이른다. 개호보험법과 고령자학대방지법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할 수 있는데 인구 고령화 → 요개호인 증가 → 개호보험법시행 → 개호인의 부족 → 요개호인 학대라는 인구 고령화 문제의 연쇄 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고령사회기의 초기에는 개호 문제가, 심화기에는 간병 범죄 문제가 국가 정책으로 시행될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논의되었던 것이다. 고령자학대방지법이 시행된 2006년 4월부터 후생노동성은 매해 고령자 학대에 대한 대응 상황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고령사회기의 심화기와 초고령사회기의 초기에 해당되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일어난 간병 범죄 사건 수 및 피해자 수는 2006년도 31건 32인, 2007년도 27건 27인, 2008년도 24건 24인, 2009년도 31건 32인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사건 형태는 「개호인에 의한 요개호인 살인 및 동반 자살」이 60건 62인, 「개호인의 개호 방기로 인한 요개호인 치사」가 28건 28인, 「개호인의 학대에 의한 요개호인 치사」가 16건 16인, 「기타」가 6건 6인으로 집계되었다.⁵⁾ 통계를 보면 매해 살인, 동반 자살 등 중범죄들이 30여 건씩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해 간병 범죄의 특성상 파악되지 않는 암수 범죄⁶⁾가 상당수(소극적 간병 범죄는 대다수가 암수 범죄이다)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하면 그 수는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장에서 주지하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의 간병 범죄가 소극적 형태에서 적극적 형태로 확장되는 확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충동적 살인이나 자살의 경우도 배제할 수 없으나 대부분의 소극적 간병 범죄가 적극적 범죄로의 확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소극적 간병 범죄의 관리와 규제는 적극적 간병 범죄의 경우의 수를 줄이는 일에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3. 히가시노 게이고(東野圭吾)의 『붉은 손가락(赤い指)』에 드러난 소극적 간병 범죄

히가시노 게이고(東野圭吾)의 『붉은 손가락(赤い指)』은 전술한 바 있는 고령자학대방지법(高齢者虐

3) 케어 매니지먼트 제도란 종래의 의료·복지의 양 분야로 나누어 제공되고 있던 개호 관련 서비스를 제도적·재원적으로 일원화해, 개호의 틀 아래에 일체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이용자의 심신의 상황에 따른 개호 서비스의 일체적 제공」과 「고령자 자신에 의한 서비스」의 선택을 현장 레벨에서 담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厚生労働省, ケアマネジメントの概況, 2004 참조. <https://www.mhlw.go.jp/shingi/2004/02/s0223-8d2.html>

4) 고령자학대방지법(高齢者虐待防止法)은 고령자의 권리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고령자 학대를 방지하고 노인 학대를 조기 발견·조기 대응하는 시책으로 국가 및 지방 공공 단체의 공적 책무하에서 시행된다. 국민 전반에 고령자 학대에 관한 통보 의무 등을 부과하고 복지·의료 관계자에게 고령자 학대의 조기 발견 등에서의 협력을 요구함과 동시에 시정촌에서의 상담·통보 체계의 정비와 사실 확인이나 피학대 고령자의 보호에 관한 권한의 부여하고 요개호자에의 지원 조치, 요개호 시설의 업무 또는 요개호 사업의 적절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근거, 시정촌(특별구를 포함 이하 동일), 도도부현의 적절한 권한 행사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厚生労働省, 「高齢者虐待防止の基本」, 2006, p.2 참조.

5) 湯原悦子, 「介護殺人の現状から見出せる介護者支援の課題」, 『日本福祉大学社会福祉論集』125, 2011, p.42

6) 천정환, 「언론보도를 통해 본 간병범죄의 유형 및 인권정책적 시사점」, 『인권복지연구』 20, 2018, p.49 천정환은 한국 특유의 가족주의라고 분석하였으나 일본 역시 가족주의 문화 범주에 속할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가족 개호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일본 사례 역시 천정환의 분석 범주에 속한다 할 수 있다.

待防止法)이 시행된 2006년 7월 고단샤(講談社)에서 간행되었다.⁷⁾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가가 교이치로(加賀恭一郎) 형사의 사촌 동생 마쓰미야 슈헤이(松宮脩平)는 불우한 어린 시절의 구원자가 되어준 가가 형사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외삼촌인 가가 다카마사(加賀隆正)를 아버지처럼 따르고 외삼촌과 같은 직업을 선택하여 마침내 형사가 된다. 사촌 형인 가가와는 소원한 관계였다가 한 사건을 계기로 둘은 함께 일하게 되고 마쓰야마는 가가 형사가 사건을 해결해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된다. 다음은 사건이 일어난 가정 마에하라(前原) 집안의 구성원으로 먼저, 가장 마에하라 아키오(前原昭夫), 아키오는 가부장적인 가장으로 집안에 노모를 모시고 살면서도 가정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인물이다. 외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노모 마사에(前原政恵)는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뇌 손상을 입어 치매를 앓다 사망할 때까지 남편의 간호를 전담하다가 남편 사망 후 자신이 거주하던 단독주택에 아들 며느리를 들이게 된다. 현재는 마사에 자신도 치매 증상을 가지고 있다. 며느리 야에코(前原八重子)는 육아 방식 및 집안일 등으로 시어머니와 사사건 부딪혀 왕래를 끊고 지내다 단독주택을 마련할 기회라 여기고 사랑하는 아들 나오미(前原直巳)를 데리고 시모의 집에 들어가게 된다. 나오미는 중학교 3학년생으로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였고 현재는 게임 중독에 빠져 있다. 이외의 인물로는 치매에 걸린 엄마를 보기 위해 종종 방문하는 딸 하루미(田島春美)가 주요 등장인물이다.⁸⁾ 사건의 경위는 이러하다. 어느 날 아내 야에코의 심상치 않은 전화를 받은 아키오는 아내의 요청대로 퇴근 후 집으로 향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들른 편의점에서 일곱 살짜리 여자아이를 찾은 부모를 만난다. 아키오는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려니 하고 무심히 귀가한다. 그런데 바로 그 아이가 주검이 된 채 아키오의 집 정원에 비닐봉지에 쌓여 놓여 있었던 것이었다. 범인은 평소에 어린 여자아이에게 관심이 많았던 중학생 아들 나오미로 아이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 졸라 살해한 것이었다. 이후 이야기의 전개는 부모인 아키오와 야에코가 나오미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행위, 그 뒤를 바짝 추적하는 가가 형사의 집요함이 펼쳐진다. 이 작품에서 본 논문이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치매 노모 마사에와 아들 부부의 유대 관계 형성상태와 그들의 심리적 메카니즘이다. 간병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심리상태의 파악, 심리적 분석과 대응이 중요하다는 선행연구⁹⁾를 토대로 이들의 심리상태를 분석하여 치매 노모를 정신적으로 확대하고 방치하는 소극적 간병 범죄에서 아들이 지은 죄를 치매 노모에게 뒤집어씌우려고 하였던 적극적 간병 범죄로 이행하는 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예문으로 전부 실지는 못하였으나 아키오와 야에코는 치밀한 의논 끝에 마사에를 살인범으로 몰 계획을 세운다. 간호의 역동적 상호작용의 방향은 간호인의 특성과 간호 환경이라는 변수에 의해 범죄로 발현된다. 또한 간호 환경의 변수는 범죄절연체¹⁰⁾를 와해하는 역할을 하고 범죄를 촉발한다. 다시 말해 범죄절연체의 와해는 소극적 범죄에서 적극적 범죄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¹¹⁾ 또한, 소설에서 작가인 게이고는 아키오의 입을 빌어 이 사건이 고령화 사

7) 초출은 1999년 『小説現代』12월호에 단편으로 발표된 것이다. 처음에는 여섯 번째 시리즈였던 단편집 『嘘をもうひとつだけ』의 일부 분으로 수록 예정이었지만, 후일 단편 방향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히가시노가 다시 장편 쓰기로 구상을 변경하였고 약 6년간의 구상 기간을 거쳐 2006년 고단샤에서 발행이 이루어졌다. 『東野圭吾公式ガイド 読者1万人が選んだ 東野作品人気ランキング発表』, 150 - 152項

8) 東野圭吾, 『赤い指』, 講談社, 2009, pp.5-306

9) 천정환, 「케어범죄 예방을 위한 심리적 개입에 관한 고찰」, 『공공정책연구』 36(1), 2019, pp.265-288

10) 범죄절연체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심리적 기제를 말한다. 『붉은 손가락』에서는 아들 나오미의 살인이라는 엄청난 변수가 등장하며 아키오와 야에코의 마음에 자리한 범죄절연체가 와해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11) 천정환, 「케어범죄 예방을 위한 심리적 개입에 관한 고찰」, p.274

회의 비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게이고 역시 인구 고령화와 간병 범죄 문제에 주목한 것이다.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반전이 일어나는데 치매인 줄 알았던 마사에는 사실 정상이었고 손자가 살인을 저지른 사실도, 아들 며느리가 자신을 살인자로 내몰고자 한다는 사실도 모두 알고 있었다. 며느리의 정서적 학대에 못 이겨 치매인 척 연기하며 가정 내에서 유령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가가 형사의 끈질긴 추궁과 어머니와 자신의 추억이 서린 물건을 통해 범죄 심리가 붕괴하고 아키오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털어놓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을 맺는다. 소설 속에서 아키오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고백하지만 현실 상황은 열악하다. 소설 속의 마사에는 치매 연기를 한 것이었지만 실제 치매 증상을 가진 고령자들은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대응 능력이 없다. 재차 강조하지만,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학대와 소극적 간병 범죄는 드러나지 않는 암수 범죄가 대부분이다. 치안정책연구소가 발표한 「노인 범죄 피해 추이 분석과 대책」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자를 상대로 한 소극적 간병 범죄(재산범죄, 학대, 사기 등)가 1999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¹²⁾ 간병 범죄는 생명적 범죄, 신체적 범죄, 정서적 범죄, 혼합적 범죄로 나뉘는데 『붉은 손가락』에서는 정서적 범죄와 신체적 범죄가 혼합된 혼합적 범죄 양상을 보인다. 소설이 아닌 현실이었다면 백발백중 암수 범죄에 그쳤을 것이다. 어머니의 재산을 탐하던 것에서, 정서적 학대로, 정서적 학대에서 형법 범죄로, 다시 말해 소극적 범죄에서 적극적 범죄로 범위가 확장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간병 범죄는 소극적 범죄에서 적극적 범죄로 확장되는 확장성이 있는 만큼 조기 발견과 대책이 중요하다. 아울러 개호 가정 및 가족 구성원의 ‘관계’를 모니터링하는 고령자 개호 환경 관리 지원은 간병 범죄예방에 하나의 대응책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4. 결론

연구 결과 일본 정부는 고령사회기의 초기에 해당하는 2000년 4월 당면한 고령자 개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호보험제도를 실시하였고 고령사회기의 심화기에 해당하는 2006년 4월 고령자학대 방지법을 시행하여 요개호인이 급격하게 늘어난 고령사회기의 개호 문제와 개호 문제에 따른 연쇄 현상인 간병 범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히가시노 게이고(東野圭吾)의 『붉은 손가락(赤い指)』검토, 분석을 통하여 학대와 방임 같은 소극적 간병 범죄의 방치가 개호 환경의 변수에 의하여 범죄절연체를 상실하면 적극적 간병 범죄로 확장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변수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른다는 것을 인지하면 대부분의 소극적 간병 범죄는 적극적 간병 범죄로의 확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호 가정의 가족 구성원의 ‘관계’ 형성 정도에 따라 간병 범죄의 가능성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케어 매니지먼트 제도를 통한 개호 가정 및 가족 구성원의 ‘관계’를 모니터링하는 고령자 개호 환경 관리 지원이 간병 범죄예방에 하나의 대응책이 될 수 있으리라는 사실도 연구 결과로 도출되었다.

12) 유지웅, 「노인 범죄 피해 추이 분석과 대책: 공식범죄통계를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소, 2010, p.14

일본 지방분권개혁 정책에 관한 고찰

宋政炫 (東國大)

1. 서론

세계 주요 각국은 1980년대부터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한국의 경우 1991년 광역 및 기초의회의 의원선거 시행으로 부활한 이후 30년 이상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5년 지방분권추진법을 제정하면서 지방분권화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현재 일본에는 도도부현 및 시정촌을 합쳐 약 3,30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교육, 복지 및 위생, 경찰 및 소방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 및 일본 지방자치제도는 위기에 처해있다.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지방재정 차입금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의 인구가 급감하면서 지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인프라 전체가 소멸하는 지방소멸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90년대부터 시작된 소위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는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경기침체 속에서 시행된 공공사업의 지방부담 조치와 지방세의 감세에 따른 세수 축소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의 지방자치 단체는 지방채 발행에 지역재정을 의존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와 더불어 대도시권으로의 생산인구 이동이 심화되면서 ‘지방소멸’까지 현실화됨에 따라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앙정부의 교부금 없이는 존속조차 불가능한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 역시 일본이 겪고 있는 지방소멸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인구는 2021년을 기준으로, GRDP는 2020년을 기준으로 수도권에 50% 이상이 집중되는 일극집중(一極集中)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지방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비용 등의 세출 증가, 지속적인 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한 세입의 감소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악화는 향후 더욱 심화될 예정이다. 일본처럼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일본의 지방재정 상황과 지방분권 관련 개혁제도에 대하여 고찰한 후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분권개혁 관련 정책의 내용과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한국의 일극중심 현상을 완화하고 자립적이고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지방자치 정책에 관하여 제언을 시행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일본 지방분권 관련 연구 동향

일본의 지방분권에 관한 국내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

본 지방분권 연구는 주로 지방분권개혁의 도입 배경, 성과, 한국에의 시사점 등에 주목하고 있다.(김순은, 2003; 최우용, 2015; 최환용, 2017; 하동현 et. al., 2017.) 최우용(2015)은 일본의 지방분권 계획을 3기로 나누어 고찰한 후 일본 지방분권개혁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김상태(2010)는 일본 지방분권개혁의 도입배경과 성과에 대해 고찰하였다. 고선규(2008)은 일본의 지방분권화 도입과 도입 이후의 일본 의회의 역할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배병호(2018)는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의 내용을 정리하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외에도 지방분권 시대의 일본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특징을 연구한 유진식(2008), 일본의 지방분권 추진과 주민세 개정에 관해 연구한 남황우(2011) 등이 있다. 일본 내 일본 지방분권 연구는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방할당제 인하의 전개과정을 연구한 梶田 真(2008), 지방현의 시정지원 활동을 통해 지방분권체제 하의 도시계획에서의 도도부현의 역할을 연구한 小川 剛志(2020), 고이즈미 내각 당시의 지방재정 개혁과정을 고찰한 砂原 庸介(2008) 등의 연구가 있다.

2.2. 지방분권개혁의 배경 및 현황

일본은 1993년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결의(地方分権の推進に関する決議)」공포 이후 지방으로의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지방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의 지방분권개혁을 시행해왔다. 1993년-2014년 약 20년 간 일본은 1,2차 지방분권 개혁을 단행하였고, 그 결과 기간 위임 사무제도의 폐지, 의무이행·범위부여의 재검토¹⁾ 등 보다 온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행정구조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하지만 향후 인구감소 및 저출산·고령화, 도쿄 일극집중 문제 심화 등으로 인해 지방부흥의 진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일본 정부는 제4차일괄법(2013년 6월 14일 각의 결정, 2014년 6월 4일 공포)부터 제12차 일괄법(2021년 12월 21일 각의결정, 2022년 5월 20일 공포) 등 지속적인 지방분권 개혁 및 관련 법제 개정을 시행²⁾하고 있다.

<표1> 일본 지방분권개혁의 주요 특징 및 전후비교

지금까지의 분권개혁	개성과 자립, 새로운 무대로 지방분권개혁 전개
지방분권계획의 이념구축 -국가·지방 관계 상하·주중에서 대등·협력으로	개혁의 이념을 계승하고 발전 -개성을 살려 자립적인 지방 만들기
국가 주도에 의한 집중적 대처 -일시적인 위원회에 의한 권고 방식	지방의 발의에 뿌리를 둔 장기간 대책 -지방으로부터의 ‘제안 모집 방식’ 도입 -정부로서의 향상적인 추진 체제 정비
지방 전체에 공통 기반 제도의 확립 -기관위임 사무제도 해지 -국가 관여 기본규칙 확립	지방의 다양성을 중시한 대처 -연계와 보완을 통한 네트워크 활용 -‘거수 방식(手挙げ方式)’ 도입

1) 내각부(内閣府) (n. d.) 個性を活かし自立した地方をつくる～地方分権改革の総括と展望～ <출처: <https://www.cao.go.jp/bunken-suishin/soukatsutotenbou/soukatsutotenbou-index.html> (검색일: 2022.08.06.)>
 2) 내각부(内閣府) (n. d.) 累次にわたる地方分権一括法. <출처: <https://www.cao.go.jp/bunken-suishin/ikkatsu/ikkatsuhou.html> (검색일: 2022.08.06.)>

법적 자율성 확대 -자치제도 기초다지기	진정한 주민 자치의 확충 재정적인 자주자립성의 확립 -자치 담당자 강화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여론 환기 -지방분권의 의의를 보급·개발	개혁 성과를 지속적·효과적으로 정보 발신 -주민의 이해 및 참가 촉진

출처: 내각부(內閣府) (2014) 個性を活かし自立した地方をつくる～地方分権改革の総括と展望(概要)～. 1p. <https://www.cao.go.jp/bunk-en-suishin/doc/260624_soukatsutotenbou-gaiyou.pdf (검색일: 2022.08.06.)>

<표1>은 2014년 내각부에서 발표한 지방분권개혁의 주요 특징을 정리한 표이다. 2014년 지방분권 개혁의 주요한 특징은 ‘제안 모집 방식’의 도입을 통한 Bottom-up 형태의 지방분권을 추진하였다는 점과 지방의 재정적인 자주자립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후술할 지방재정정책에서도 상기 언급한 두 가지 특징이 반영되어있다.

2.3. 일본 지방재정정책의 현황

일본 지방자치단체는 생산인구의 감소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방세감면조치(법인사업세 및 법인 주민세)와 공공사업의 지방부담 조치로 인해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세입으로부터 세출을 공제하고, 해당 연도의 재원의 교환을 조정한 지방 재정 수지(실질 수지)는 1990년대에 이르러 대도시 권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 도도부현에 대해서는 법인사업세 및 법인주민세에 의 의존도가 높은 도쿄도, 카나가와현, 아이치현, 오사카부의 4도부현의 실질 수지가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하였다.

지방 역시 재정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지방의 세출은 1990년대에 30% 이상 증가하였다. 일본의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 수입은 감소하였는데, 수차례에 걸친 경제 대책으로 인한 세출의 증대하였던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결과적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투입되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단체 양 측 모두의 지출 규모가 증대되어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세수가 급격히 증대될 수 없다는 가정 하에)은 지방의 세출을 줄이는 것이었다. 하지만 세출을 줄인다고 하여도 지역 간 경제적 격차가 있기 때문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없었고, 일본정부에서는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조정제도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재정조정제도는 국가로부터의 지방의 세출에 대한 관여를 유도하였고 이는 행정력의 낭비 및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지역발전에 임하는 의욕을 약화시켰다.

이에 일본 정부는 국민에게 최소한으로 보장해야 할 행정 서비스의 범위와 이러한 서비스를 누리는 지역 주민의 수·부담관계를 고려한 지방분권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국가 및 지방의 세출 삭감, 시정촌(한국의 시읍면 단위) 합병, 지방 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 축소, 국고 보조금 제도의 정비, 세원 이양을 포함한 국가와 지방의 세원 배분 재검토 등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지방재정계획(매년 2월경 각의 결정)’을 책정하고, 만약 지방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 재원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지방 재정 대책’)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

요 원칙³⁾은 다음과 같다.

- ① 지방채의 증발(増發)을 인정하고, 원리상환금을 후년도의 지방교부세로 수당한다.
- ② 일반회계에서 ‘교부세 특별회계’로 특례적으로 편입조치를 실시한다.
- ③ ‘교부세 특별회계’에서 차입한다.

상기의 주요 원칙은 지방의 부족한 재원을 국세의 일부에서 보전하는 행위를 통해 국가 전체에 행정 서비스의 제공될 수 있게 만들었지만, 위의 제도 하에서는 세수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 일본의 경우 버블 붕괴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 동일본 대지진 등의 자연재해, 코로나 팬데믹까지 세출·세입 양 쪽 모두에서 부정적인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통상 수지에 관계된 자원 부족(2021년도 기준으로 10.1조엔)이 큰 폭으로 늘었다⁴⁾.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지방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 재정계획 세출에 대한 재검토 및 지방 재정계획 규모를 억제함으로써 지방 자원 부족액 및 지방 차입금 억제를 유도하고 있다.

<표2> 2022년 일본 일반 자원 총액의 구성

	2022년 예산	2021년 예산	전년도 대비
일반자원 총액 (一般財源総額)	62.0조엔	62.0조엔	+0.02조엔
지방세·지방양여세 (地方税・地方譲与税)	43.8조엔	39.9조엔	+3.9조엔
지방 특례 교부금 (地方特例交付金等)	0.2조엔	0.4조엔	-0.1조엔
지방 교부세 (地方交付税)	18.1조엔	17.4조엔	+0.6조엔
임시 재정 대책채 (臨時財政対策債)	1.8조엔	5.5조엔	-3.7조엔

(주1) 2021년도의 일반자원총액, 지방세·지방양여세에 대해서는 2020년도 징수유예 특례분을 제외하고 있다

(주2) 단수처리 때문에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주3) 수준초경비(水準超経費)를 제외한 금액임

출처: 총무성자치재정국(総務省自治財政局) (2022. 04. 01) 令和4年度地方財政計画のポイント.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790145.pdf> (검색일: 2022.08.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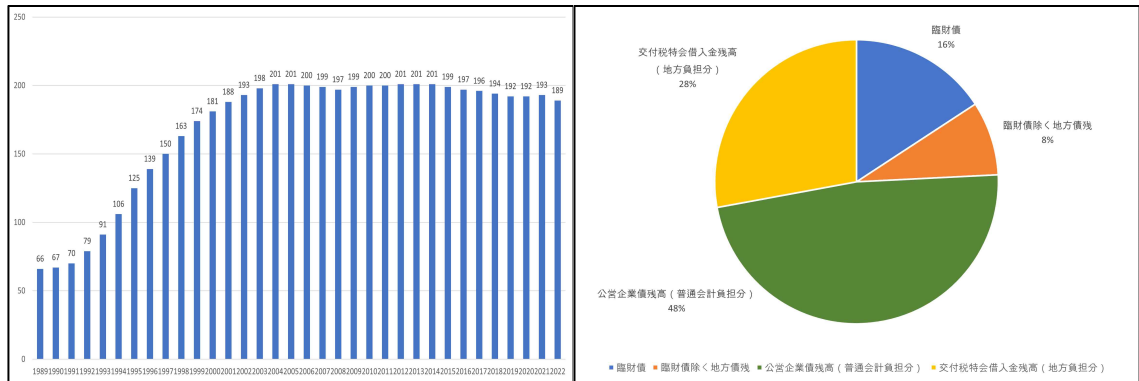
<표1>은 2022년 일본의 일반 자원 총액의 구성을 나타낸 표이다. 일반자원총액의 경우 2021년 대비 0.02조엔 증가한 2.0조엔을 확보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총액에 대해서는 18.1조엔(전년대비+0.6조엔)을

3) 내각부(内閣府) (2001) 平成13年度 年次経済財政報告-第3章 我が国財政の総合的把握-第4節 地方財政の課題-1 厳しさを増す地方財政. <출처: <https://www5.cao.go.jp/j-j/wp/wp-je01/wp-je01-00304.html>.> (검색일: 2022.08.06.)>

4) 지방 재정의 차입금 잔고는 2022년 말에는 189조 엔, 대 GDP 비중은 33.6%로 전망되고 있다. <출처: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806508.pdf> (검색일: 2022.08.06.)>

확보하였다. 반면 임시대정재책제 및 지방특례교부금은 각각 3.7조엔, 0.1조엔 감소하였다. 이렇게 확보된 세입은 국가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되는데, 이 중 주목할 만한 주요 세출로는 지역사회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기 위한 ‘지역 디지털 사회 추진비’, 탈탄소화 사업을 추가한 ‘공공시설 등 적정관리 추진사업비’의 증액(0.5조엔 ▶ 0.6조엔), 소방·방재력의 강화를 위한 ‘긴급방재·감재사업비’ 등이 있다.

(단위: 조엔)



<그림1> 1989-2022년 지방재정 차입금 잔액의 추이(좌)
2022년 지방재정 차입금 잔액의 구성(우)

출처: 総務省. (n. d.). 地方財政の借入金残高の状況.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806508.pdf (검색일: 2022.08.06.)

<그림1>은 1989-2022년의 기간 동안의 지방재정 차입금 잔액의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좌)와 2022년 지방재정 차입금 잔액의 구성(우)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일본의 지방재정 차입금 잔액은 1989-200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1990년대에 급격히 증가(1990년 67조엔 ▶ 2000년 188조엔)하였다. 이후 지방재정 차입금 잔액은 2014년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2015년부터는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현재 지방재정 차입금은 임시 재정 대책재(이하 임재채), 임재채를 제외한 지방채, 공기업채 잔액(보통회계부담분), 교부세 특회차입금 잔액(지방부담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기업채 잔액(91조엔, 41%)이었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산업 및 경제구조, 대도시의 인구집중이라는 공통점을 지닌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의 도입 배경 및 현황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분권의 목표는 중앙정부에 속해 있던 재원의 권한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인 행정 및 재정활동을 시행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책을 달성하는 것이다. 특히 일본에서는 실제 행정사무의 많은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출비율과 공무원비율이 타국에 비해 매우 높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개혁이 지니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방분권은 지방의 예산 운용의 자율성을 높여

지방자치단체가 세입 증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각 지자체가 세입 증대를 통해 지방 인프라를 자급자족하는 구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감축 및 폐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감축 및 폐지를 통해 중앙정부는 보조금의 감소, 지방정부는 보조금에 따른 부담의 감소를 가져와 국가 전체의 재정건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행정 및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중앙정부와 같이 세출을 엄격히 억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간 균형 있는 재정분권 수준 확보, 지방세의 새로운 재원발굴과 과세연결 지방자치법 등을 개정하여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지방정부의 조직 및 인사행정 체제의 확립 등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 과제는 일본 지방분권개혁 관련 정책의 내용과 성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선제적으로 시행된 지방분권 관련 정책의 성과 분석은 향후 한국의 일극중심 현상을 완화하고 자립적이고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지방자치 정책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한국 및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중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위주로 비교분석을 시행할 예정이다.

◀ 참고문헌 ▶

- 고선규(2008), 「일본의 지방분권화와 의회관계의 변화」, 『일본연구』 9, 195-219.
- 김상태(2010), 「일본의 지방분권개혁」, 『지방자치법연구』 10(3), 35-63.
- 김순은(2003), 「일본 지방분권의 평가와 시사점: 지방분권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5(3), 313-336.
- 남황우(2011), 「일본의 지방분권추진과 주민세 개혁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16(2), 63-85.
- 배병호(2018),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입법에 관한 연구」, 『입법학연구』 15(2), 1-45.
- 유진식(2008), 「지방분권시대에 있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연계 - 일본의 예를 소재로 하여 -」, 『지방자치법연구』 8(2), 81-93.
- 최우용(2015), 「일본 지방분권개혁의 주요 내용과 최근 동향」, 『공법학연구』 16(3), 171-205.
- 최환용(2017), 「일본 지방분권입법법의 제정 경위와 추진 성과」, 『지방자치법연구』 17(4), 313-338.
- 하동현(2017), 「일본 지방분권개혁의 성과와 한계: 자치입법권을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12(3), 197-226.
- Shin Kajita(2008), Development of Local Allocation Tax-Cut Policies for Municipalities with Small Populations and Its Interpretation. Geographical Review of Japan. Volume 81, Issue 2, Pages 60-75.
- Takeshi Ogawa(2019), Report of the role of prefectures in city planning under decentralization, Reports of the City Planning Institute of Japan. Volume 18, Issue 4, Pages 359-362.
- Yosuke Sunahara(2007), Fiscal Restructuring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Fiscal Decentralization Reform in Japan, Journal of Public Policy Studies. Volume 7, Pages 132-144.
- 내閣府(2001), 平成13年度 年次經濟財政報告 - 第3章 我が国財政の総合的把握-第4節 地方財政の課題-1 厳しさ増す地方財政. <출처: <https://www5.cao.go.jp/j/wp/wp-je01/wp-je01-00304.html>. (검색일: 2022. 08. 06.)>
- 내閣府(2014), 個性を活かし自立した地方をつくる～地方分権改革の総括と展望(概要～. 1p. <https://www.cao.go.jp/bunken-suishin/doc/260624_soukatsutotenbou-gaiyou.pdf (검색일: 2022. 08. 06.)>
- 내閣府(2021), 令和3年の地方からの提案等に関する対応方針【概要】. <출처: https://www.cao.go.jp/bunken-suishin/doc/r03/k_tb_r3_gaiyou.pdf (검색일: 2022. 08. 06.)>
- 내閣府(n. d.) 累次にわたる地方分権一括法. <출처: <https://www.cao.go.jp/bunken-suishin/ikkatsu/ikkatsuhou.html> (검색일: 2022. 08. 06.)>
- 総務省(2020. 06. 29.), 地方交付税の財源は何ですか. <출처: <https://www.mof.go.jp/faq/budget/01ai.htm> (검색일: 2022. 08. 06.)>
- 総務省(n. d.) 地方財政の借入金残高の状況. <출처: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806508.pdf (검색일: 2022. 08. 06.)>
- 総務省. (n. d.) 指標の説明. <출처: https://www.soumu.go.jp/iken/zaisei/H17_chiho_1.html (검색일: 2022. 08. 06.)>

企業の技術革新効率の評価

— 中国の新エネルギー企業を例として —

陳 媛 媛 (東国大)

<要旨>

本稿では、中国の新エネルギー上場企業の2016-2020年のパネルデータを資料として、企業の技術革新効率を研究しました。新エネルギー産業は技術集約型産業として、大量の技術研究開発を行う必要があります。新エネルギーは環境保護と再生可能なメリットがあるため、世界各国から大きな注目を集めている。従って、サンプルとして新エネルギー産業を選択した。中国政府は新エネルギー産業の発展に積極的な態度をとり、新エネルギー産業を重要な戦略的地位に置き、一連の関連戦略政策を提出した。しかし、新エネルギー上場企業はコア競争力の不足、生産能力の不足、技術レベルの低さなどの問題を抱えています。これらの問題を解決する鍵は、企業の技術革新効率を向上させることです。中国の新エネルギー技術革新効率を評価することは、エネルギー危機を軽減して、革新能力を改善できます。

Keyword: 新エネルギー、技術革新、三段階DEA

1. はじめに

現在、エネルギー消費に伴う空気や土地などの環境汚染、資源問題により、新エネルギーの優位性が浮き彫りとなりました。エネルギー不足の問題を解決するため、各国は新エネルギー技術革新の発展に積極的に力を入れている。技術革新能力の向上は新エネルギーの利用率を効果的に向上させ、エネルギー不足の現状を緩和します。

2015年、世界最大の石油化学会社の1つであるBP社は「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5」レポートを発表した。報告書のデータによると、2013年度、伝統的なエネルギーの世界消費成長率は2.0%だった。2014年度は0.9%に達し、10年近くの平均成長率である2.1%を下回った。逆に、2014年新エネルギーの世界消費成長率は5.1%で、伝統的なエネルギーの世界消費成長率を大幅に上回っている。新エネルギーがますます重要になり、伝統的なエネルギーの需要と消費が徐々に減少しています。

新エネルギー上場企業は新エネルギー産業の重要な主体として、その科学技術革新は我が国の新エネルギー産業の急速な発展を確保する重要な保障であります。新エネルギーは知識集約型と技術集約型のハイテク産業として、技術革新は企業の持続可能な発展能力を決定する。技術革新は資源、資本、労働力などの伝統的な生産要素を徐々に超え、人類社会の発展をリードする重要なエンジンとなっています。しかし、技術開発には不確実性があり、企業自身の資源は限られている。企業がどのように既存の資源を利用して最適な配置を達成し、より高い技術革新効果を得るかは企業が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問題です。

企業の技術革新の効果を評価する上で、技術革新効率とは相対的に最も有効な経済指標である。それは企業の技術革新要素の利用効率と技術革新の産出を測定し、企業の研究開発資本投入の合理性と有効性を分析することである。企業の発展は技術革新だけでなく、革新効率も重視しなければならない。技術革新効率は高投入高産出を意味するものではなく、革新過程において、技術革新効率は技術革新投入と産出の割合であり、企業の革新能力の大きさを反映し、同じ投入で産出最大化を達成することができます。

本文の研究の実践意義は具体的に以下の2つの方面に体现しています。(1)ミクロレベルから見て、新エネルギー会社の研究開発革新の内部管理に提案を提供する。技術革新効率は会社の管理者が会社の技術革新活動の成果を分析する有効な方法である。企業の技術革新の効率性レベルに影響を与える要素に対して対策を提出し、それによって会社の競争力を向上させる。新エネルギー企業の技術革新効率を評価し、企業が技術革新過程に存在する不足を明確にし、合理化の対策と提案を提出し、我が国の新エネルギー産業革新効率の向上を促進することに重要な意義があり、新エネルギー産業の持続可能な発展に有利です。(2)マクロレベルから見て、政府の新エネルギー産業関連政策の制定に参考を提供する。新エネルギー上場企業の技術革新効率は業界の技術革新レベルをある程度表しています。本文は関係部門の新エネルギー産業関連政策の制定に理論的支持を提供することができ、それによって資源の配置の最適化に有利です。

2. 理論分析および関連概念

2.1. 技術革新理論

技術革新は、米国籍の熊彼特(Schumpeter.J.A)が1912年に提案したイノベーションをテーマとした『経済発展理論』に初めて提案された。彼は科学技術と経済のつながりに重点を置き、革新を経済成長の核心と見なしている。同時に革新の原動力は企業家精神から来ている。企業家は革新を通じて潜在的な利益を追求します。熊彼ターは技術と経済の結合を強調し、革新の目的は経済的な意味でのより「高い」利益獲得方式である。その中で、企業は「革新」活動の担い手と実現者である。企業が高額な利益を追求する動機は企業の革新を促し、商業利益を実現します。技術の進歩、効率の向上を推進し、最終的に経済発展を推進します。

2.2. 投入産出理論

経済学の効率に対する解釈は、資源の秩序ある分配を通じて、需要を満たすと同時に産出の最大化やコストの最小化を達成することです。効率の結果は生産と投入の比である。Koopmansは初めて技術効率の測度方法を提案した。彼は技術レベルが変わらない場合、他の投入(または産出)が変わらず、投入(または産出)が最適化を続け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効率が有効であることを示していると考えている。この計算方式はすでに国内外の学者に使用されている。王偉光(2003)は技術革新効率とは技術革新の経済効果産出と要素投入比を指し、技術革新資源の配置効率を反映していると考えています。産出が一定の場合、投入が少ないほど、技術革新の効率が高くなります。投入が一定の場合、産出が多ければ多いほど技術革新の効率が高くなります。

革新効率は「投入-産出」の角度から、単位時間内に、単位革新産出または投入に必要な最小コストまたは最大産出で企業革新能力を測定します。

2.3. 新エネルギー

1981年、国連新エネルギー及び再生可能エネルギー国際会議は初めて新エネルギーの概念を定義します。新エネルギーは新技術、新材料などを基礎とし、伝統的な化石エネルギーに取って代わることができ、持続可能な開発と応用が可能な再生可能エネルギーです。中国国家発展改革委員会が2017年に発表した「戦略的新興産業重点製品・サービス指導目録(2016版)」は新エネルギーの種類から区分され、原子力発電技術、風力エネルギー、太陽エネルギー、スマートグリッド、その他の新エネルギー源企業を含む新エネルギー産業の細分化市場を明確にした。新エネルギー企業は新エネルギーの開発と応用を行う企業です。産業チェーンの区分から、新エネルギー企業は上流の原材料、原料の採掘加工段階、中流の設備製造、技術突破段階と下流の送変電、エネルギー消費と利用を含みます。

3. データ

研究対象として、a株上場企業の新エネルギー企業を選定した。サンプルデータ主にはCSMARデータベースから来ます。

4. 分析方法

まず、3段階DEAモデルを通じて新エネルギー企業の技術革新効率を算出し、Tobit回帰モデルを通じて新エネルギー上場企業の技術革新効率に与える影響要素を分析する。サンプルの技術革新効率の動態変化を測度し、新エネルギー上場企業の技術革新を分かった。新エネルギー会社の特徴を結合し、影響要素をTobitモデルに持ち込んで分析し、新エネルギー上場企業が技術革新に現れた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構想を提供する。

4.1. 企業技術革新効率測度

本文は三段階DEAモデルを用いて新エネルギー企業の技術革新効率を評価し、環境要素とランダム誤差の影響を取り除き、伝統的なDEA方法による技術革新効率評価の限界を克服し、評価結果をより正確で客観的にする。

三段階DEAモデルを構築し、新エネルギー企業の技術革新効率を測度します。第1段階はDEA-BCCモデルを用いて評価ユニットの元の観測値を用いて初期効率評価を行います。第2段階はSFA方法を用いてモデルを構築し、環境変数が各意思決定ユニットの効率値に与える影響を評価し、そして元の投入を調整します。第3段階では、第1段階と同じDEAモデルを用いて、調整後の投入値と元の産出値を用いて新エネルギー企業の技術革新効率を評価する。

4.2. 影響要素分析

上記の企業の技術革新効率を得た後、新エネルギー企業の技術革新効率に影響を与えた要因は何です

か？本文は三段階DEAモデルの試算結果を基礎にしてTobitモデルをさらに構築し、新エネルギー企業の技術革新効率に影響する具体的な要素を探究したい。

企業革新システムの観点から、企業内部の特質、外部領域の特徴は切り口である。上記の要素から切り込み、企業の革新効率に与える影響要素は比較的マクロで全面的な研究があります。企業内部の特質は企業地域、企業年齢、企業管理者教育レベル、資産負債比、営業収入などを含みます。外部要素について見ると、地域経済の発展レベル、政府経費の投入強度、地域外商投資レベルなどがあります。

5. 研究結論予測

- i 技術革新効率から見ると、新エネルギー企業の技術革新効率はまだ高くない。企業は技術管理レベルを強化し、資源配置を最適化し、革新レベルの全体的な向上を促進しなければならないです。
- ii 企業所有制の異質性グループ分けを見ると、民間新エネルギー企業の技術革新効率は国有企業より高い。企業所在地の異質性グループ別に見ると、東部沿岸部の新エネルギー企業の技術革新効率は中西部より高いです。
- iii 革新効率の影響要素の面で、企業所有制、企業地区、企業役員教育レベル、貸借対照比などはすべて企業革新効率に影響を与えた。外部要素について見ると、地域経済の発展レベル、政府経費の投入強度、地域外商投資レベル、新エネルギー企業の革新効率に影響があります。

◀ References ▶

- Madurai Elavarasan R, Afridhis S, Vijayaraghavan RR, Subramaniam U, Nurunnabi M: SWOT analysis: A framework for comprehensive evaluation of drivers and barriers for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in significant countries. *Energy Reports* 2020, 6:1838-1864.
- Fan J-L, Zhang Y-J, Wang B: The impact of urbanization on residential energy consumption in China: An aggregated and disaggregated analysis.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2017, 75:220-233.
- PukSec T, Leahy P, Foley A, Markovska N, Duić N: Sustainable development of energy, water and environment systems 2016.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2018, 82:1685-1690.
- Chang SJ: Solving the problem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orest Policy and Economics* 2013, 35:92-97.
- Wang Q, Dong Z, Li R, Wang L: Renewable energy and economic growth: New insight from country risks. *Energy* 2022, 238.
- Inglesi-Lotz R: The impact of renewable energy consumption to economic growth: A panel data application. *Energy Economics* 2016, 53:58-63.
- Vivas FJ, De las Heras A, Segura F, Andújar JM: A review of energy management strategies for renewable hybrid energy systems with hydrogen backup.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2018, 82:126-155.
- Gallagher J, Basu B, Browne M, Kenna A, McCormack S, Pilla F, Styles D: Adapting Stand-Alone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for the Circular Economy through Eco-Design and Recycling. *Journal of Industrial Ecology* 2017, 23(1):133-140.
- He J, Li Z, Zhang X, Wang H, Dong W, Chang S, Ou X, Guo S, Tian Z, Gu A et al: Comprehensive report on China's Long-Term Low-Carbon Development Strategies and Pathways. *Chinese Journal of Population, Resources and Environment* 2020, 18(4):263-295.
- Clausen TH: Do subsidies have positive impacts on R&D and innovation activities at the firm level? *Structural Change and Economic Dynamics* 2009, 20(4):239-253.
- Fritsch M: Cooperation and the efficiency of regional R&D activitie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2004, 28(6):829-846.

웹툰 시장의 임금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李榮植 (東國大)

1. 서론

웹툰은 2000년대 이후 한국만화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성장했으며 이에 따라 웹툰 산업의 노동시장도 변화하고 있다. 우선 웹툰 산업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글로벌 웹툰 시장의 규모는 13억 4,500만 달러(약 1조 6,590억원)로 예측되고 있으며¹⁾, 한국 웹툰 시장의 규모는 2013년부터 2019년의 기간 동안 연 평균 2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²⁾. 웹툰 산업의 발전에 따라 웹툰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웹툰 제작 및 연재에 관련된 사업체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연재되고 있는 작품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2018-2020년의 온라인 만화 제작·유통업의 매출액이 연평균 48.8%의 증가를 보였다는 점³⁾ 등을 고려했을 때 웹툰 노동자의 수는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웹툰 노동자의 구성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웹툰 산업 초창기에는 웹툰 작가가 웹툰 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웹툰 제작이 분업화·전문화됨에 따라 웹툰 어시스턴트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8-2021년 『웹툰 작가 실태조사』 및 2019년 『웹툰 어시스턴트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 어시스턴트와 함께 작업하는 작가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웹툰 어시스턴트의 임금수준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⁴⁾.

하지만 웹툰 노동자에 관한 국내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예술작품으로써의 웹툰 연구와 웹툰 산업 전반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웹툰 노동자, 특히 웹툰 어시스턴트를 연구대상으로 포함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 사회보장제도 이용 여부 등 웹툰 노동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웹툰 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표준계약서 미작성·미준수, 임금체불, 고용불안정 등의 문제 역시 조명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웹툰 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임금수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웹툰 어시스턴트를 연구대상에 포함시켜 웹툰 노동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웹툰 노동자의 임금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도출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
- 1) 선한결 (2022. 04. 11.) K플랫폼, 글로벌 웹툰시장 휩쓸었다. 한경닷컴-한국경제. <출처: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41184841> (검색일: 2022. 08. 11.)>
 - 2) 김지현 (2021. 08. 20.) 100조 시장 잡아라! 네이버 vs 카카오 '웹툰 전쟁' 美 만화 앱 1위 '라인웹툰', 日 온라인 만화 1위 '픽코마' 순항 중. 주간동아. <출처: <https://weekly.donga.com/3/all/11/2867878/1> (검색일 2022. 08. 01.)>
 - 3)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0 콘텐츠 산업조사. 94p.
 - 4) 『2019년 웹툰 어시스턴트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활동한 적이 있는 웹툰 어시스턴트의 53.8%는 2018년 웹툰 어시스턴트 활동으로 벌어들인 연간 총 수입이 5백만 원 미만, 연간 총 수입의 평균 수준은 658.6만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2. 본론

2.1. 선행연구 분석

웹툰 관련 국내 선행연구는 특정 웹툰 작품에 대한 서사구조 분석, 웹툰 산업의 성공요인 분석, 웹툰 산업의 발전방안 고찰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 중 웹툰 노동자와 관련된 연구는 최인이(2020), 양경옥(2020), 윤정향 외3(2021) 등이 있다. 최인이(2020)는 웹툰 노동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유료 웹툰 플랫폼의 노동통제 방식에 대해 고찰하였다. 양경옥(2020)은 웹툰 작가와의 면담 시행 이후 근거이론 방법론을 활용하여 면담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웹툰 작가의 자유·무료노동에 대해 고찰하였다. 윤정향 외3(2021)은 웹툰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및 면접조사를 통해 웹툰 산업의 부당한 계약구조를 조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상기의 연구들은 웹툰 노동자가 겪는 불공정한 노동환경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현황과 문제의식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웹툰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영향 요인 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또한 웹툰 노동자의 범위를 ‘웹툰 작가’에만 한정지어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⁵⁾. 웹툰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대표적인 조사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웹툰 작가 실태조사』가 있다. 『웹툰 작가 실태조사』는 2018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웹툰 작가의 특성(인구통계학적 특성, 작품 데뷔 연도 및 주요 활동 플랫폼), 창작 활동 및 환경(창작 활동 분야, 창작 활동 시간, 창작 활동 방식, 창작 활동 성과 등), 창작자 복지(예술인 복지재단 인지 및 수혜), 계약 및 거래 관행(계약 관행, 불공정 계약 경험, 표준계약서 인지 및 활용, 법률적 문제 해결 등)에 대해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진행한다. 하지만 『웹툰 작가 실태조사』의 경우 조사범위가 웹툰 작가에만 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웹툰 어시스턴트의 노동 환경에 대해 다루지 못하고 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어시스턴트를 활용하는 웹툰 작가는 56.6%로 과반수 이상이 어시스턴트와 함께 작업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2019-2021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2000년 이후에 데뷔한 작가의 경우 데뷔 연도가 최근에 가까울수록 어시스턴트와 함께 작업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 따라서 웹툰 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임금수준 연구를 위해 연구대상에 웹툰 어시스턴트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웹툰 에이전시의 수와 웹툰 에이전시에 소속된 웹툰 노동자가 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웹툰 에이전시는 웹툰 작가와 플랫폼 간의 계약을 대행해주는 일을 대행해주는 형태와 웹툰 작가 및 어시스턴트를 고용하여 웹툰을 제작하는 형태가 있다. 후자의 경우 웹툰 작가임에도 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업무 시간이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에이전시에 소속되지 않은 웹툰 노동자와 임금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속 에이전시의 역할과 에이전시 소속 여부도 웹툰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환경에 대해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상기 서술한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고용계약의 형태’, ‘에이전시 소속 여부’, ‘소속 에이전시의 역할’에 따라 연구대상을 분류하였고, 그 내용은 <표1>과 같다.

5) 2019년 『웹툰 어시스턴트 실태조사』가 시행되었으나 지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회복지제도 수혜 여부, 시간당 임금, 에이전시 소속 여부 등이 조사되지 않았다. 2020년 『콘텐츠산업 창의인력 실태조사』의 경우 웹툰 관련 표본이 100인 이하였다.

<표1> 본 연구 내 연구대상(웹툰 노동자)의 분류

고용계약의 형태	웹툰 작가 (연재처와 계약)	웹툰 어시스턴트 (연재처와 계약하지 않음)	
에이전시 소속 여부	에이전시 소속 웹툰 노동자		이외
소속 에이전시의 역할	계약보조형 에이전시	제작형 에이전시	기타

2.2.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100명 내외의 웹툰 노동자(웹툰 작가, 웹툰 어시스턴트)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설문조사에서 조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2> 연구내용

설명변수	피설명변수	통제변수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사회보장제도 이용 여부, 에이전시 소속 여부, 에이전시 역할 등	임금, 노동환경	사회인구적특성 (연령, 성별, 거주지역, 결혼여부) 경력 기간, 웹툰 관련 교육 수료 기간, 연재처(포털형 플랫폼, 웹툰 전문 플랫폼) 등	사회보장제도 정보의 출처,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 등

3. 예상결과 및 연구의의

웹툰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근로계약서 작성, 사회보장제도 이용, 에이전시 소속여부, 소속 에이전시의 종류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 결과 상기 서술한 요인이 실제로 웹툰 노동자의 임금에 영향을 끼친다면, 다음과 같은 연구의의를 갖는다.

①근로계약서 작성은 웹툰 노동자의 임금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계약 과정에 있어서 플랫폼 및 작가에게 표준계약서 작성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및 교육이 필요하다. 『2021 웹툰 작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표준계약서를 인지하고 있다고 답한 웹툰 노동자는 80.1%인 반면 웹툰 플랫폼-작가 간 표준계약서 작성률은 38.6%(표준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 일부 계약 조항만 활용), 웹툰 작가-어시스턴트 간 표준계약서 작성률은 29.6%로 절반에 못 미치고 있다. 이는 표준계약서 인지가 표준계약서 작성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뜻하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②사회보장제도(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 이용은 웹툰 노동자의 임금을 증가시킨다. 『2021 웹툰 작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 복지재단 등록비율은 53.5%이며, 웹툰 작가가 자주 이용한 복지제도는 ‘예술인 패스카드(43.2%)’, ‘창작준비금 지원(28.7%)’, ‘심리 상담(9.7%)’ 등이다. 다만 최근 ‘1년 내에 제공 받은 적 없음’도 34.2%를 차지하였다는 점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술인 복지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지제도 수혜가 필요한 웹툰 어시

스튜디오들도 예술인 복지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예술인복지재단의 등록조건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③에이전시 소속된 웹툰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전체 웹툰 노동자의 평균 임금보다 낮다.『2021 웹툰 작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에이전시와 계약한 작가는 39.2%이며, 특히 웹툰 전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웹툰 작가의 경우 51.3%가 에이전시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웹툰 노동자가 에이전시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웹툰 수익 공개 의무화 및 MG(Minimal Guarantee)계약 시의 최소 금액, MG 이월 한도 등을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④제작형 에이전시에 소속된 웹툰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제작형 에이전시에 소속되지 웹툰 노동자의 평균 임금보다 낮다. 제작형 에이전시와 웹툰 노동자 간 계약 외 노동 요구나 저작권 매절 강요 등의 독소조항이 포함된 계약 체결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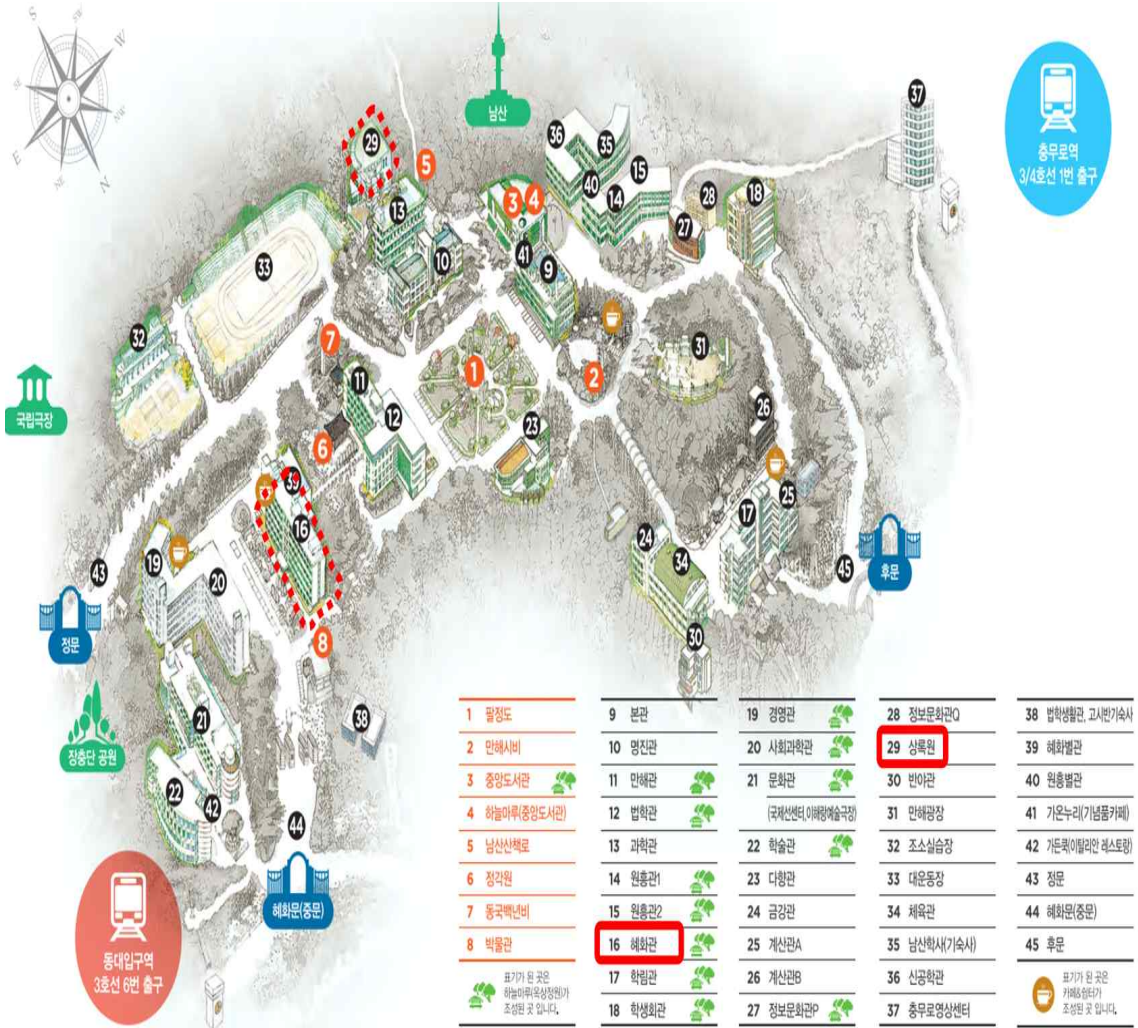
- 강은원(2018), 「산업수명주기론 관점으로 본 웹툰에이전시 역할에 관한 연구」,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225-254.
- 김익상·김승경(2015),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후 영화제작 현장의 근로 환경 변화에 관한 연구: <관능의 법칙>과 <국제시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씨네포럼』 (21), 141-172.
- 김진욱(2008),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과 근로지속성에 관한 실증연구」, 『사회복지정책』 33, 239-260.
- 문화체육관광부(2015), 『만화분야 표준 계약서 자료집(표준계약서 6종 및 해설서)』.
- _____ (2021), 『2020 콘텐츠 산업조사』.
- 반정호(2006), 「청년층의 저임금근로 지속성에 대한 고찰」, 『노동리뷰』, 52-62.
- 신준옥(2015), 「장애인의 직무만족과 생활만족도 관계에서 근로환경 및 근로지속성의 다중매개효과」, 『비판사회정책』 49, 202-226.
- 양영욱(2020), 「플랫폼 경제와 문화산업: 만화산업의 플랫폼화와 웹툰 작가의 자유/무로노동」, 『노동정책연구』 20(3), 79-106.
- 윤기현(2019), 「6, 70년대 합동출판사의 만화 제작과 유통 독점체제의 문제점」,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291-309.
- 윤기현·정규하·최인수·최해솔(2015), 「웹툰 통계 분석을 통한 한국 웹툰의 특징」,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177-194.
- 윤정향·윤자영·최혜영·윤자호(2021), 「웹툰 산업 디지털콘텐츠 창작노동자 노동과정: 원하청 구조와 성차별 -웹툰 작가를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27(3), 399-436.
- 이재경(2015), 「웹툰산업에 대한 법률적 고찰-표준계약 검토 및 웹툰작가의 권익보호를 중심으로」,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9(2), 73-100.
- 최인이(2019), 「문화예술산업 노동자들의 이해대변 전략에 관한 연구: 문화예술노동연대의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17(1), 137-174.
- _____ (2020), 「창작물 유통 플랫폼의 노동통계 방식에 관한 연구: 유료 웹툰 플랫폼의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26(2), 45-76.
- 최인이·강윤주(2010), 「‘영화인’의 영화 ‘노동자’되기-영화산업노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담론201』 13(4), 37-69.
- 한국콘텐츠진흥원(2019), 『2019 웹툰 어시스턴트 실태조사』.
- _____ (2019), 『2019 웹툰 작가 실태조사』.
- _____ (2020), 『2020 웹툰 작가 실태조사』.
- _____ (2020), 『2020 콘텐츠산업 창의인력 실태조사』.
- _____ (2021), 『2021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
- _____ (2021), 『2021 웹툰 작가 실태조사』.
- 선한결(2022. 04. 11.) K플랫폼, 글로벌 웹툰시장 휩쓸었다. 한경닷컴-한국경제. <출처: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401184841> (검색일: 2022.08.11.)>
- 김지현(2021. 08. 20.) 100조 시장 잡아라! 네이버 vs 카카오 ‘웹툰 전쟁’ 美 만화 앱 1위 ‘라인웹툰’, 日 온라인 만화 1위 ‘픽코마’ 순항 중. 주간동아. <출처: <https://weekly.donga.com/3/all/11/2867878/1> (검색일 2022.08.01.)>

[캠퍼스 안내]

☞ **학술대회 장소 : 혜화관(16)**

3호선 동대입구역 6번 출구에서 도보 약 5분

3/4호선 충무로역에서 도보 약 15분



☞ **주차안내**

정문(43) 진입 후 곧 우측에 지하 주차장 혹은 팔정도(1) 주위의 야외 주차공간 이용

☞ **점심식사 장소**

상록원(29) 3층 교직원식당